

제9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제2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 회

주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일시: 2024년 2/16(금) 오후 1시(1~2시 접수) -
2/17(토) 오후 12시

장소: 인천 카리스호텔(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www.hotelcharis.com)

후원: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이 발표논문집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3-S1A8A4A0108777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NRF-2023-S1A8A4A01087770)

목 차

제9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세부 일정/ 5

2024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예배 안내/ 9

개회예배/ 11

알리는 말씀/ 22

제1발표	김상백/ 25	박은정/ 59	여한구/63	이수환/ 67
제2발표	주원규/ 71	최성훈/ 83	윤종진/ 87	주희현/ 89
제3발표	문진형/ 91	손 문/ 109	신현호/ 111	김한성/ 113
제4발표	김정희/ 117	김경은/ 137	권진구/ 139	조성호/ 143
제5발표	이종민/ 147	유은희/ 169	신승범/ 171	김병석/ 175
제6발표	주희현/ 179	정재영/ 199	황병준/ 203	정근하/ 209
제7발표	이주형/ 211	이종태/ 229	박신향/ 233	김기용/ 237
제8발표	송준용/ 243	김해영/ 265	이상현/ 269	양찬호/ 273
제9발표	박란이/ 275	김한호/ 295	허우정/ 299	민장배/ 303
제10발표	고원석/ 307	이수인/ 327	남선우/ 329	권진하/ 333
제11발표	이민형/ 339	주상락/ 367	최재성/ 371	안정도/ 375
제12발표	김형락/ 379	김종현/ 401	오석진/ 405	조지훈/ 409
제13발표	구아름/ 411	조광현/ 429	김용성/ 433	최종일/ 435
제14발표	남성혁/ 439	김남식/ 457	양현준/ 461	김선권/ 465
제15발표	나인선/ 467	박관희/ 483	구아름/ 485	윤석주/ 491
제16발표	정재웅/ 495	박성환/ 525	김병석/ 529	박진경/ 533

제29차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	536
제28차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 회의록/	537
사업보고/	539
한국실천신학회 감사보고/	541
한국실천신학회 회계보고/	54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신학과 실천」연혁보고/	543
폐회예배/	547
한국실천신학회의 학회 연혁/	551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발표회/	562
한국실천신학회 회칙/	589
편집위원회 규정/ 592 발행규정/ 592 투고규정/ 593 심사규정/ 599	
연구윤리 관련 규정/	600
한국실천신학회 제27대 조직표/	603
학회로고의 의미/	606
발행색인/	607

제9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세부 일정
12층 (A 다니엘홀, B 나나엘홀, C 슈리엘홀, D 미카엘홀)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고
1부 2024. 2. 16. (14:00 ~ 19:00)	1차 발표 (12층) 14:00 ~ 15:10	A 다니엘홀 <상담치료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김상백(순신대)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 박은정(웨신대), 여한구(수도국제대), 이수환(성결대)	발표1
		B 나나엘홀 <목회사회/리더십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주원규(한양대)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생각하며” 좌장: 조성돈(실천신대)/ 논찬: 최성훈(한세대), 윤종진(호서대), 주희현(홍익대)	발표2
		C 슈리엘홀 <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문진형(백석대) “알파 세대의 특성과 기독교 교육적 소통에 관한 연구 :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좌장: 이수영(서울한영대)/ 논찬: 손문(연세대), 신현호(장신대), 김한성(아신대)	발표3
		D 미카엘홀 <영성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김정희(한일장신대)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 좌장: 오방식(장신대)/ 논찬: 김경은(장신대), 권진구(목원대), 조성호(서울신대)	발표4

	2차 발표 (12층) 15:20 ~ 16:30	A 다니엘홀 〈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이종민(총신대)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좌장: 위형윤(안양대)/ 논찬: 유은희(총신대), 신승범(서울신대), 김병석(호서대)	발표5
		B 나나엘홀 〈목회사회/리더십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주희현(홍익대) “교회 소그룹활동을 위한 생성형AI 활용 사례 연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좌장: 조성호(서울신대)/ 논찬: 정재영(실천신대), 황병준(호서대), 정근하(루터대)	발표6
		C 슈리엘홀 〈영성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이주형(연세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 : AI시대 기독교 영성 연구의 예비적 고찰” 좌장: 이강학(횡블트리니티)/ 논찬: 이종태(서울여대), 박신행(호남신대), 김기용(장신대)	발표7
	16:40-17:50	개회예배 및 연구윤리교육 (12층 A 다니엘홀)	
	17:50-19:00	저녁식사	
2부 2024. 2. 16. (19:00 ~ 22:00)	3차 발표 (12층) 19:00 ~ 20:10	A 다니엘홀 〈상담치료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송준용(수도국제대) “생성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좌장: 김충렬(한국상담치료연구소)/ 논찬: 김해영(강서대), 이상현(순신대), 양찬호(웨신대)	발표8
		B 나나엘홀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박란이(대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 좌장: 이승열(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논찬: 김한호(서울장신대), 허우정(진해교회), 민장배(성결대)	발표9

		<p>C 슈리엘홀</p> <p>〈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p> <p>발표: 고원석(장신대)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 ”</p> <p>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 이수인(아신대), 남선우(열림교회), 권진하(송실대)</p>	발표10
	20:10-21:00	분과별 모임	
	21:00-	임원회 및 이사회	

3부	07:00-08:00	아침식사 (12층)		
	2024. 2. 17. (07:00 ~ 12:00)	<p>A 다니엘홀</p> <p>〈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p> <p>발표: 이민형(성결대)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 실천신학적 기술성찰, 관계 정립, 실천방안”</p> <p>좌장: 구병옥(개신대)/ 논찬: 주상락(명지대), 최재성(송실대), 안정도(장신대)</p>	발표11	
		4차 발표 (12층) 08:10 ~ 09:20	<p>B 나나엘홀</p> <p>〈예배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p> <p>발표: 김형락(서울신대)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p> <p>좌장: 안덕원(횃불트리니티)/ 논찬: 김종현(계명대), 오석진(감신대), 조지훈(한세대)</p>	발표12
		<p>C 슈리엘홀</p> <p>〈설교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p> <p>발표: 구아름(실천신대) “설교학 비평(homiletical criticism) 과 설교적 상상력(homiletical imagination):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p> <p>좌장: 오현철(성결대)/ 논찬: 조광현(고신대), 김용성(한신대), 최종일(신라대)</p>	발표13	

5차 발표 09:30 ~ 10:40	<p>A 다니엘홀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남성혁(장신대)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 좌장: 김선일(웨신대)/ 논찬: 김남식(CES), 양현준(풀러신학교), 김선권(장신대)</p>	발표14
	<p>B 나나엘홀 <예배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나인선(목원대)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좌장: 유재원(장신대)/ 논찬: 박관희(한국침신대), 구아름(실천신대), 윤석주(한국열린사이버대)</p>	발표15
	<p>C 슈리엘홀 <설교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정재웅(서울신대) “기독교 설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좌장: 김상백(순신대)/ 논찬: 박성환(성서대), 김병석(호서대), 박진경(감신대)</p>	발표16
10:50 - 11:50	정기총회 및 폐회예배 (3층)	
12:00 -	점심식사 (2층)	

2024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예배 안내

예배 구조

이 예배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 예배(2-3세기)의 예배 형식을 위주로 형성되었다. 이 예배는 기본적인 말씀과 성찬의 2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배의 핵심 요소인 계시와 응답의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1. 말씀예전

말씀예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입례송-예배기원-찬송-감회를 위한 기도-성경봉독송-성경봉독-설교-설교후 기도-응답의 찬양-신앙의 확인-공동기도-주기도송-평화의 인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찬양한다. 성경봉독과 설교 사이에 찬양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된 이후에 곧바로 설교함으로써 말씀과 선포 사이에 불필요한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 말씀은 대표적인 계시적 요소이다. 따라서 설교 이후에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써 찬양, 신앙고백, 기도가 와야 한다. 이후 성찬에 참여하기 전,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와 화해하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2. 성찬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기독교 예배의 핵심요소이다. 성찬의 구성은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1)봉헌, (2)식탁으로 초대, (3)대감사기도, (4)성찬 참여, (5)수찬 후 기도. 봉헌은 하나님께 빵, 포도주,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봉헌이 끝나면 주님의 식탁으로 신자들을 초청한다. 초대된 신자들과 함께 대감사기도를 드리는데, 대감사기도는 일곱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①예배인사와 마음을 주께 올림 ②도입기도 ③삼상송 ④제정사 ⑤기념-봉헌사 ⑥성령 임재의 기도 ⑦송영. 대감사기도가 끝난 후 찬양대부터 시작하여 온 회중이 성찬에 참여한다. 분별과 분잔이 이루어질 때, 집례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회중은 손바닥을 펴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받는다. 집례자에 의해서 수찬 후 기도가 이루어지면 파송기원, 축복기도와 폐회송으로 예배가 마무리된다.

개회예배를 섬기는 분들

- 설 교: 한재동 목사 (전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 집 례: 오주영 박사 (예배학회 회장)
- 찬 양 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동지방회 목회자 증창단
- 성찬위원: 유재원 박사 (예배학회 부회장)
최승근 박사 (예배학회 회계)
정재웅 박사 (예배학회 서기)

개회예배

I. 말씀예전

(*일어서서 /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찬송 / 찬양 / 다같이

* 입례찬송(행렬) / 예수 우리 왕이여 / 다같이

(지휘자는 회중의 찬양을 인도한다. 예배위원, 집례자 순서로 입장한다.)

A F#m D Esus⁴ E⁷
 예 수 우리 왕 이여 - 이곳에 오 소 - 서 -
 F#m C#m Dmaj⁷ Bm⁷ E
 보좌로 주여 임 -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 서
 D E F#m Dmaj⁷ E⁷ A E/G# F#m
 주님을 찬 - 양 하 - 오니 주님을 경 - 배 하 - 오니
 D E⁷/D C#m⁷ F#m Bm⁷ D/E A
 왕이신 예수 - 여 오 - 셔서 좌정 하사 다스 리 - 소 서

* 예배기원 / 집례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 받기를 원하오니, 2024년 한국실천신학회 첫 학술대회를 통하여 저희의 지성과 영성이 실천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증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x 3 (618장) / 다같이

618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L. Klein(b. 1950)

너희 모든 성도들이 이호와를 사랑하라
(사 31:23)

I LOVE YOU LORD: IRREG.

L. Klein(b. 1950)

Arr. by F. Thomas(b. 1941)

보장오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맘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위운 기타코드(Capo=3rd): Eb - C Bb - G Ab - F Bb7 - G7

I love You, Lord

경배와 찬양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감화기도 / 집례자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송 /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637장) / 다같이

637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부동음표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 자가 되고 (약 1:22) 말씀봉독송: IRREG. 서장원, 2005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봉독송

성경봉독 / 창세기 3장 4-7절 / 정재용 박사

(말씀을 읽기 전에)

봉독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7절입니다.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을 읽은 후에)

봉독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아멘.

설교 / “무제” / 한재동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응답의 찬양 / 다시 복음 앞에 / 찬양대(기성 목회자중창단)

신앙의 확인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하나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말과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물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 중: 저희들이 감히 실천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주셨음을 잊지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글과 삶이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례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수난을 당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결국 저희를 구원 하셨습니다.

회 중: 하나님께서 가슴 시리도록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저희의 마음에 간직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집례자: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세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고, 반목과 불신과 대립과 갈등 속에 원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 중: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은총 안에서 저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처럼 사랑을 확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집례자: 성령께서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겸손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모욕과 비천함을 감내하셨고, 실로 저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오롯이 감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 중: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의 허물 때문에 찢리셨고,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주님께서 저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저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집례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끔은 저희가 아직도 어리석어서 눈앞에 놓인 과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고통이 고통일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희를 붙잡히 여기서, 고통의 순간에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 중: 아멘.

하늘에 계신(주기도문)

635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 6:9-13)

THE LORD'S PRAYER: IRREG.
A. H. Malotte
Arr. by Jae Eun Ha

보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거룩 하사 주님나
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지 이 다
일용할양 식 주시고 우리 들의큰 죄 다 용서하옵 시고또
시험에 들게마 시고 악에 서구원하 소서대 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히 아 멘

(‘주님의 평화’라고 서로서로 인사한다.)

사랑의 나눔

Taize

Copyright (C) Taize, International Rights Secord.

II. 성찬예전

(봉헌위원: 유재원 박사, 최승근 박사, 정재웅 박사)
 (4절은 찬양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 봉헌 /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228장) / 다같이

2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통 285)

이 뵈옵 뵈는 자는 영원히 성리라 (요 8:58)

H. Bonar, 1855 PENITENTIA: 10.10.10.10.
 E. Dearie, 1874

보통으로

쉬운 기타코드(Capo=1st): Eb → D Cm → Bm Fm → Em Bb7 → A7 Ab → G C → B

Here, O my Lord, I see Thee face to face 성찬

식탁으로 초대 / 집례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대감사기도 / 집례자와 회중

[예배인사와 마음을 주께 올림]

- 집례자:**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집례자: 주님을 향하여.
회 중: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집례자: 주님께 감사합니다.
회 중: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도입기되]

집례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삼아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삼성송]

집례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저희가 목소리를 합하여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 중: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625장) / 다같이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625

Sanctus

보통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사 6:3)

W. F. Smith (b. 1941)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Gm → Em Bb → G F#m7 → D#m7 Cm → Am F → D G → E
Holy, holy, holy

입례순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회 중: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기념-봉헌사]

집례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

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회 중: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성령임재의 기도]

집례자: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여기에 놓인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송영]

집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회 중: 아멘.

송 영 / 성부 성자와 성령(3장) / 다같이

3

Gloria Patri
Traditional, 2nd Century
보통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 1:6)

(총 2)

MEINEKE: IRREG.
C. Meineke, 1844

성부성자와 성령 찬 송과 영광들려 보 내 세 태

초로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 계영 광영 광 아멘

Glory be to the Father
송영

(찬양대 후, 앞줄부터 나와 참여한다.)

성찬 참여 / 집례자와 성찬위원 / 오주영, 유재원 목사

집례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고, 받으면서)* 아멘.

수찬 후 기도 / 집례자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 주사,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를 보내 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증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 파송기원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주님, 들에 흠어졌던 밀알과 포도밭에 흠어졌던 포도송이가 이 떡과 포도주 안에서 다시 모여 하나가 된 것같이, 온 세상에 흠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로 모이게 하옵소서.

회 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 축복기도 / 한재동 목사**

*** 폐회송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찬양대 (기성 목회자 중창단)**

■ 알리는 말씀 ■

1. 제91회 정기학술대회에 오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회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제91회 정기학술대회 주제는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로 진행됩니다. 본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발표자, 논찬자, 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신진학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학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학회는 총 8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총무에게 연락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4. 이번 학술대회는 12층의 세미나실들과 3층 세미나실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세션은 총 70분으로 발표 30분, 논찬 및 답변 2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발표가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료집 PDF파일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8.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haeun21c@gmail.com 서기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는 개별적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9. 개회예배 후 연구윤리교육이 있으니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부

2024. 2. 16.(14:00~19:00)

1차 발표(12층) 14:00~15:10

발표1

〈상담치료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김상백(순신대)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 박은정(웨신대), 여한구(수도국제대), 이수환(성결대)

발표2

〈목회사회/리더십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주원규(한양대)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생각하며”

좌장: 조성돈(실천신대)/ 논찬: 최성훈(한세대), 윤종진(호서대), 주희현(홍익대)

발표3

〈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문진형(백석대) “알파 세대의 특성과 기독교 교육적 소통에 관한 연구: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좌장: 이수영(서울한영대)/ 논찬: 손문(연세대), 신현호(장신대), 김한성(아신대)

발표4

〈영성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김정희(한일장신대)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

좌장: 오방식(장신대)/ 논찬: 김경은(장신대), 권진구(목원대), 조성호(서울신대)

2차 발표(12층) 15:20~16:30

발표5

〈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이종민(총신대)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좌장: 위형윤(안양대)/ 논찬: 유은희(총신대), 신승범(서울신대), 김병석(호서대)

발표6

〈목회사회/리더십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주희현(홍익대) “교회 소그룹활동을 위한 생성형AI 활용사례 연구: 상호텍스트
성에 기반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좌장: 조성호(서울신대)/ 논찬: 정재영(실천신대), 황병준(호서대), 정근하(루터대)

발표7

〈영성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이주형(연세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 : AI시대
기독교 영성 연구의 예비적 고찰”

좌장: 이강학(횡블트리니티)/ 논찬: 이종태(서울여대), 박신향(호남신대), 김기용(장신대)

제 1 발표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

김 상 백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초거대국제도시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국 사회 뿐 아니라 온 세계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급속한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기성세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새로운 세대를 학자들은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라고 부르고 있다. 알파 세대의 등장에 대해 많은 신문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매체들이 소개하고 있지만, 흔히 MZ 세대라 부르는 현재 청소년세대에 비해 무엇이 다른지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듯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를 타고 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의 등장을 방관하거나 걱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파 세대의 특징과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목회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자는 도시화(Urbanization)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인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거대한 국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 속에서 살아가는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 고독, 자살, 중독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한국교회가 알파 세대의 아노미현상의 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중심의 영성적 목회상담을 통한 치유를 제안한다.

I. 알파 세대의 정의

알파(α) 세대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명명한 학자는 호주의 미래학자이자 인구통계학자인 매크린들(Mark McCrindle)이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하여 2024년까지 태어날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MZ세대가 1980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일컫는 말이라면, 알파 세대는 Z세대 다음 세대를 말한다. 노가영은 알파 세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족의 등장”이라고 평가했다.¹⁾ 그러나 단순히 디지털에 대한 익숙한 경험만을 가지고 알파 세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인 Z세대와 Y세대 역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²⁾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디지털 언어와 디바이스를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사용한다는 의미로 Z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Native, 원주민)”라고 부른다.³⁾ 그러므로 알파 세대를 MZ세대와 완전히 구분하여 전혀 다른 외계인과 같은 신세대로 보기보다는 MZ세대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 알파 세대는 MZ세대와 그 특징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알파 세대의 특징

알파 세대의 특징에 대해 학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모험적이고 더 나은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세대에 다른 세대에 비해 기술이 정통하다. 그들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스마트TV, 테블릿PC,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데 익숙하다. 알파 세대는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디지털기술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이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로 비다면 활동이 증가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의미 있는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⁴⁾ 세대별 디지털환

1)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23), 20-21.

2)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JOCS)』, 통권 80호(2022): 127.

3)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22. Z세대는 유치원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하여 익숙하며 성장한 중학생부터, 20대 후반까지의 세대를 말한다.

4)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경과 그 특징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표 1〉 세대별 출생 구분 및 디지털 환경 특징

출생 년도	세대	디지털 환경	특징
2010- 2024년	알파 세대	오직(only) 디지털 AI 네이티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유튜브 시청을 시작하며, 오프라인 경험을 특별하다고 인지하고, 3-4살 때부터 AI챗봇과 친구처럼 성장함
1995- 2009년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 모바일 네이티브	유치원생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며, 디지털 디바이스를 특정 언어의 원주민처럼 활용함
1980- 1994년	Y세대 (밀레니엄세대)	디지털 이민자	청소년기부터 스마트폰 등의 IT기기를 사용함
1965- 1979년	X세대	아날로그	아날로그 환경에서 성장한 이후, 디지털 환경을 학습함
1946- 1964년	베이비 부머 세대	아날로그 (텔레비전)	인생의 절반을 넘긴 이후,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환경을 익히는 중

기저귀를 차면서부터 유튜브를 시청하고 AI챗봇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자란 알파 세대는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와 어떤 것을 공유하지만,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알파 세대의 심리적 영적 문제점으로 연결될 것이다. 알파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일상이 디지털화 되는 세대

알파 세대는 개인의 모든 일상(취미, 건강, 여가 등)이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에 기록되는 일상이 디지털화 되는 시대이다.⁶⁾ 지금 초등학생들인 알파 세대가 사회와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2030-40년이 되면, 지금의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새

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JOCS)』, 통권 80호(2022): 127.

5)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25.

6) 개인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라이프로그(Lifelogging)이라고 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웹 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싸이월드를 비롯해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모두 라이프로그에 해당된다. “라이프로그”(Lifelogging),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78778&cid=58439&categoryId=58439>, 2023년 11월 24일 접속.

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날 것이다. 스마트 폰을 넘어 안경렌즈 위에 증강현실 서비스를 구현하는 AR 글라스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안경을 끼면, 외국어도 실시간 번역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와 렌즈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가상세계를 바라봄으로 메타버스(metaverse) 환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각도로 진화 중인 스마트 디바이스(안경, 시계처럼 몸에 밀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메타버스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되면, 디지털에 연결되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알파 세대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SNS에 올린 사진, 동영상, 라이프 스트리밍 콘텐츠 외에도 유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디바이스에 결합이 되어 개인의 위치와 생체정보, 의식주 전반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기록될 것이다. 그들은 라이프로그에 남겨진 자신의 빅데이터 뭉치들을 알고리즘화하여 나노형 IT서비스(거대한 관중이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로 쪼개질 사회에 적합한 IT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세대이다.⁷⁾

2. AI와 공존하며 살아갈 첫 번째 인류

알파 세대는 TV와 연결된 AI스피커의 지니(genie)⁸⁾나 아빠의 스피커폰과 연결된 차 안에서 애플의 시리와 구글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고 듣는다. 심지어 멀쩡히 방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도, “Hey Google, What time(is it now)?”라고 묻는다. 또한 태블릿PC에 학습지 앱을 켜고 AI교사와 소통하면서, 채 1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도 두 세 번 이상 “이름”이 부여된 AI사운드와 수시로 소통한다. 그들에게 AI는 단지 기계가 아니라,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친구이다.⁹⁾ 요즘 AI업계는 미국의 오픈AI¹⁰⁾의 “챗GPT”의 상용화로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챗GPT는 한마디로 GPT라는 이름의 언어기반 초거대 AI가 채팅서비스와 결합된 서비스이다. 챗GPT의 가장 독보적인 자랑은 글쓰기이다. 저명한 문학 작가들의 문체로 쓰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쓰고,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나 에세이 등을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써낸다.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모든 면에서 사람처럼 이해하고, 처리하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AGI로 진화할 것이다. 알파 세대는 이러한

7)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48-62.

8) 국내 KT 통신기업의 AI스피커를 호출할 때, “지니”(genie)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마존의 AI스피커 호출명은 “알렉사”(Alexa)이다.

9)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66-68.

10) 오픈AI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로 2023년 현재 기업가치가 290억에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유니콘 기업이다. *Ibid.*, 79.

AI와 공존하며, 때로는 경쟁하면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¹¹⁾

3. 비대면이 편안한 코로나키즈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증가하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코로나 19(Covid-19)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자란 코로나키즈인 알파 세대는 비대면이 오히려 편안한 세대이다. 유년기는 사회적 관계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알파 세대는 친구들과 살을 부대끼고 땀을 흘리고 함께 놀면서 보내야 할 유년기를 마스크를 쓰고, 줌 스크린을 보면서 비대면 만남으로 보냈다. 비대면이 편안한 알파 세대가 어른들과 또래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술과 대면을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다.¹²⁾

4. 소셜 미디어가 만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아이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IT서비스가 확대발전하면서, 알파 세대는 IT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자기중심적인 세대로 성장했다. 인류 최초의 골든키즈인 알파 세대는 스스로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틱톡과 제페토 같은 소셜 미디어를 만나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렇게 알파 세대가 각자의 취향들을 자신감 있고, 소신 있게 펼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알파 세대의 아이들은 가장 자신있는 자기만의 콘텐츠(예를 들면, 초딩마라탕 콘텐츠, K팝 댄스 콘텐츠, 자신이 경험한 여행 콘텐츠 등)를 만들어 틱톡에 올리고,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한다. 요즘 인기있는 콘텐츠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스토리가 있거나 재미가 있어야 한다. 알파 세대는 모든 것을 잘하는 엄친아보다 자신만의 어떤 것을 깊게 잘하는 아이들이 각광(脚光)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고, 자기 취향과 기질을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다.¹³⁾

5. ‘노동보다 투자’를 믿는 부모들이 키우는 자본주의 키즈

11) *Ibid.*, 78-82.

12) *Ibid.*, 87-91.

13) *Ibid.*, 95-103.

알파 세대는 저축과 노동 소득이 투자 소득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시장경제를 통해 충분히 느끼는 세대이다. 그들은 금융 투자를 통해 버는 돈이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안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세대가 가르쳐준 것이다. 밀레니얼세대는 유난히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재테크 공부도 많이한 세대이다. 그들은 자녀들인 알파 세대를 진정한 자본주의키즈로 성장시킬 것이다.¹⁴⁾

III.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 문제

알파 세대는 거대한 국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와 함께 급속하게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를 타고 태어난 세대로서, 기존의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의 공간에 익숙한 알파 세대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고통스런 현실세계를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세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과 뉴노멀(newnormal)이 일상화 되면서, 관계와 소통의 문제, 인간 정체성의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다. 알파 세대는 이렇게 고도로 스마트화된 도시인 거대한 국제도시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¹⁵⁾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아노미(anomie)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1. 아노미 이론에 대한 이해

1) 아노미 현상의 정의

아노미(anomie)는 원래 그리스어 아노미아(anomia)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프랑스어로 “가치관의 혼란, 무질서”를 뜻한다. 사전적으로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상태로서 신경증, 비행, 범죄, 자살 따위와 같이 사

14) *Ibid.*, 104-105.

15)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도시인 거대한 국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의 특징에 대해 스마트 도시(데이터 중심 결정, 자동화된 서비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에너지, 친환경 건축), 연결된 교통시스템(자율주행차량, 지능형 교통관리), 인간중심의 도시설계(사회적 연결망, 접근성 향상), 보안강화(사이버 보안, 물리적 보안), 지능형 의료서비스(인공지능과 통신기술에 의한 원격 의료,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 의학), 효율적인 자원관리(전력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기술에 의한 자원재활용), 민주적인 도시거버넌스(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그리고 투명한 관리) 등이 제시되었다. <https://blog.naver.com/english4sky/223181952990>, 2023년 11월 24일 접속.

회 부적응 상태에 이른다'고 정의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규범의 동요, 이완, 붕괴 등에 의해 일어나는 혼돈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상태를 말하며, 도시와 같이 특수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분리감이나 고립감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이 도시사회의 가치관의 혼란을 이해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¹⁶⁾ 사회심리학자들은 아노미를 “인지적 와해”상태라고 하면서, ‘인간의 삶의 동력이 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의미부여가 상실되어 가치가 사라진 상태’라고 했다. 이러한 아노미를 경험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생물학적인 자기파괴 혹은 사회학적으로는 자기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자살과 범죄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하는데, 지역사회와 교회가 도와야 한다.¹⁷⁾

2) 아미노 이론의 배경

아노미이론은 뒤르켐(Emile Durkheim)에 의해 최초로 주창된 긴장 이론(strain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가치관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한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 동등한 세력을 가지게 되면, 한 사회 내에 공존하게 되면서 아노미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즉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할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 혼란은 그 사회의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는 범죄와 같은 일탈 행위나 자살로 이어진다고 했다. 특히 경제적 호황이나 경제 공황과 같은 급속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노미적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¹⁸⁾

뒤르켐은 또한 아노미의 주요한 동인(動因)으로서 인간의 탐욕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동물과 달리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욕망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칙이 필요한데, 돌연히 갖게 된 권력과 부의 증대는 개인의 규칙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켜서 가치관의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의 변동이 큰 시기에 크게 덕을 본 계급이 있고, 반

16) 이정춘,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 (서울: 청림출판사, 2014), 57; “아노미(anomie),”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374bd486e2b4277963946946ec8c362>, 2023년 12월 14일 접속.

17) “심리학사전-인지적 와해와 아노미,” <https://blog.naver.com/yars/220197050048>, 2023년 12월 15일 접속.

18)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094&cid=42149&categoryId=42149>, 2023년 12월 15일 접속.

대로 손해를 본 계급이 있으며, 손해를 본 계급의 사람들은 큰 행운을 본 계급의 사람들에게 대해 시기,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얻는 자는 더 얻기 위해, 얻지 못한 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만족하는 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개인의 기대치와 실제 얻는 가치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결국 아노미적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이 근본적으로 아노미 자살의 원인이 된다.¹⁹⁾

원석조는 뒤르켐이 말한 불경기와 호경기에 나타나는 아노미적 자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²⁰⁾ 아래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경기 때는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상승하고 또 열망의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고, 불경기 때는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하므로 삶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괴리됨으로 결국 스트레스가 쌓아 자살에 이른다는 것이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노미적 자살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표 2〉 경제상황과 아노미적 자살의 상관성

불경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 목표-수단의 괴리	→ 스트레스의 증가	→ 자 살 의 증가
호경기	목표성취도 상승 열망수준의 고도화	→ 목표-수단의 괴리	→ 스트레스의 증가	→ 자 살 의 증가

뒤르켐과는 다르게 머튼(Robert K. Merton)은 아노미이론을 발전 시켜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s)와 제도적 수단(institutional means)과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발생하며 자살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적 사회적 일탈 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의도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커다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개인 차원의 일탈이라고 한다.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구조적 역기능 때문에 개인의 목표(예를 들면, 성공의 기회)가 차단된다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사회적 일탈율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했다.²¹⁾ 머튼의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

19) 원석조, 『사회문제론』(경기도, 파주시: 양서원, 2008), 76-77.

20) *Ibid.*, 75-76.

21) *Ibid.*, 77-78.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목표들(문화적 목표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들(제도적 수단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성취할 만한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되어 일탈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나,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돌리는 행위 등을 말할 수 있다²²⁾.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는데, 즉 각각의 수용(accept)과 거부(reject)를 조합시켜 일탈 행위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조형(conformity)으로 정상적인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양자 모두를 수용한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둘째, 쇄신형(innovation)으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돈벌이나 경제적 성공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도 불사한다. 조직범죄나 화이트칼라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의식형(ritualism)으로 쇄신형(혁신형)과는 반대로 제도적 수단은 수용하되, 문화적 목표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출세나 성공의 야심이 없이 법에 무조건 순응하면서 사는 소심한 소시민들이나 보신주의(補身主義)에 빠진 무사안일(無事安逸)한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의식형은 법규범의 정당성 여부도 무관심하기 때문에 과잉동조형(over-conformity)이라고도 한다.

넷째, 도피형(retreatism)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후퇴내지 도피해버리는 경우이다.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의지도 없고 법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도 없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일탈자들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과 같은 인생 낙오자나 사회 패잔병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저항형(rebellion)으로 반역형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제시하는 사회개혁파들이다. 인권운동가, 여권운동가, 혁명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머튼은 위의 아미노 다섯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쇄신형(혁신형)이다. 왜냐하면 이 유형이 합법적인 기회가 중상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단된 하류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많은 조

22) “가치 갈등론 - 사회 긴장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605&cid=47335&categoryId=47335>,
2023년 12월 15일 접속.

사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그 적응양식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표 3〉 일탈행위의 유형: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적응양식	문화목표	제도적 수단	실례
동조형	수용	수용	일반인
쇄신형	수용	거부	조직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의식형	거부	수용	소시민들
도피형	거부	거부	마약, 알코올중독자
저항형	새로운 목표	새로운 수단	인권, 여권운동가, 혁명가

3) 성서에 나타난 아노미현상

성서에도 아노미현상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을까? 물론 아노미라는 말 자체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 심리적 혼란 상태를 언급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① 구약성서에 나타난 아노미현상

구약성서에서 아노미현상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는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전에 존재했던 공허와 혼돈을 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의 무질서한 상황을 성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1-2)

“혼돈하고 공허하며”(tohu wabohu)에서 혼돈(tohu)은 “무형성”(unformedness)을 말하는 것으로 “황폐”함을 의미하고, 공허(bohu)는 “텅 빈”을 말하는 것으로 “허무,” “공무(空無),” “없는 것”(사 40:23, 47; 41:29; 49:4; 삼상 12:21 참조)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는 창조와 대비가 되는 무질서한 근본적인 카오스(chaos) 상태로서,²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전의 무질서, 무의미, 그리고 절

23) 원석조, 『사회문제론』, 78-79;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094&cid=42149&categoryId=42149>,
2023년 12월 15일 접속.

24) H. C. Leupold/최종태 역, 『창세기』 『반즈/신구약성경주석』 (서울: 도서출판 크리스찬서적,

망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성서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경험하는 도시인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아노미현상의 원형적인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무질서, 무의미, 절망의 상태에서 도시인의 자살과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빛과 생명이 생기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 타락한 자연인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것이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공허하고 혼란스런 마음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로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후 5:17). 나 중심의 무질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질서가 생기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의 목표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흑암이 가득했던 절망의 마음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임하게 된다.

사사기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노미현상을 찾아보게 된다. 성서는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회의 아노미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17:6, 21:25, 28). 여기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everyone did as he saw fit)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경고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는 말씀(출 15:26; 신 6:18; 12:8; 13:19; 21:9)과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²⁵⁾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세계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유혹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노미현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생활과 신앙은 분명한 기준이 없이 무질서하고 혼란했고, 그 결과 그들은 타락 - 심판 - 회개 - 구원 - 타락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의 악순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문을 열었던 초대 왕 사울에게서 아노미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는 겸손했고, 용감했으며,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다. 그러나 왕위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으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 때부터 사울 왕은 심각한 영적 아노미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공허하고 불안

1987), 44-45; Kenneth A.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4:26*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130-131.

25) Daniel I. Block, *The New American Commentary: Judges, Ruth*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483-484.

한 마음에 스스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밤에 변장하고 찾아다니게 되었고(삼상 28:27-29), 악신이 들어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다가 하면(삼상 18:10-11),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10여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다.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스스로 자살하여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삼상 31:1-13). 사울에게 있어서 그를 번뇌케 한 영적 아노미현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극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삼상 16:14)에 주의하여 볼 때, 도시의 아노미현상도 도시화로 인한 사회 심리적 원인이나 사회구조적,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② 신약성서에 나타난 아노미현상

신약성서에서 필자는 아노미현상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했던 가롯 유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된 동기가 성서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천국의 가치관과 그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을 가졌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한 쟁론이 벌어지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는데(막 9:33-34; 눅 22:24),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큰 거리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 그를 심문하던 빌라도 총독에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요 18:36). 결국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삼십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버린 가롯 유다는 극심한 아노미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아노미현상을 “마귀의 역사”로 규정하시면서, 여러 번 유다에게 경고하셨지만(요 13:10-11, 21-30; 막 14:17-21; 마 26:21-25), 유다는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마 27:3-10).

사도행전에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도 아노미현상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행 4:32-37).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러한 교회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행 5:1-2). 그런데 이들 부부는 땅의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령

을 속였고, 이를 알게 된 사도 베드로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행 5:3-10). 이 일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하심에 대한 큰 두려움을 남긴 사건이었다(행 5:11).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불행은 그들의 마음의 아노미현상을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워진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들 부부는 사도들에 의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갈등과 혼란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혼돈과 갈등이 성령과 교회를 속이는 거짓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2) 알파 세대에 다가올 아노미현상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세대간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야기(惹起)하면서, 알파 세대는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은 사회문화제도들이 전체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적응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감정적 혼란, 정신적 무질서감,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아노미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알파 세대의 병리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독(孤獨)

알파 세대는 AI와 친구처럼 소통하면서 지내는 세대이지만, 그 마음 깊이 고독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사회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비대면 기반의 AI 교육서비스, 줌(Zoom) 수업, 메타버스나 소셜게임, 그리고 AI챗봇 나아가 AI로봇 등과 같은 비인격체인 그것(It)과 먼저 만나고 소통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다 보니 알파 세대는 인간(You)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²⁷⁾ 부버(Martin Mordechai Buber)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삶은 “관계와의 만남” 그 자체이다. “나”(I)는 “너”(You)가 있어야 존재하는데, 알파 세대는 주변에 온갖 “그것”(It)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물론 “그것”(It)으로 가득한 삶은 일면 관계 발전을 위해 갈등해결, 용서, 화해를 위한 수고를 하지 않고 편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며, 인격적 성숙도 없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너”의 부재이며, 그 결과 심각한 심리적 고독감에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²⁸⁾ 고독감은 원래 수치화시키기

26) 송영만, 『도시 속의 목회와 선교』 (서울: CLC, 2017), 61-62.

27)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68-71.

어려운 주관적인 심리적 반응이지만, 부정적 사고,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한 감정 등을 동반하며, 내적 결핍이나 공허감, 내적 고뇌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고독감은 근본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하게 된다.²⁹⁾

(2) 중독(中毒)

중독(中毒)은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독 가운데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 중독을 “addictio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addico”에서 유래된 말로, “할애하다, 바치다”는 의미가 있다. 중독은 자신의 재정, 시간, 에너지를 과도하게 중독의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³⁰⁾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중독사회와 같다.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를 거치면서 한국인은 일중독에 빠져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 음주, 섹스, 자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7.2%로 다른 나라의 1.3~3.4%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에 알코올(술), 니코틴(담배), 약물(마약), 성형, 쇼핑 등 다양한 중독현상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중독은 쾌감과 황홀감을 얻기 위해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몰입하고 빠져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중독은 현실의 고통, 죄책감, 수치심으로부터 중독자를 분리시켜주기 때문에 떨치기 힘들 정도로 매혹적이며 금단현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중독현상은 또한 도시의 아미노현상을 심화시켜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³¹⁾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첨단 도시사회(megalopolis)에서 살아갈 알파 세대는 도시의 아노미현상의 어둠인 중독에 깊이 노출될 것이다. 요즘 연예인이나 사회지도층 그리고 해외유학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환각파티나 대마나 마약의 상습복용은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일탈행위는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아노미현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비롯하여 개인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의 향정신성 물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³²⁾ 이러한 약물 중독은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28)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https://brunch.co.kr/@naryn/318>, 2023년 11월 26일 접속.

29) 국응표 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31-39.

30) 김현철, 『미래세대 프로파일링』 (서울: 도서출판 꿈미, 2023), 191.

31) 이정춘,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 (서울: 청림출판사, 2014), 55-56; Craig Nakken/오혜경 역, 『중독의 심리학』 (서울: 웅진씽크빅, 2008), 22.

32) 원석조, 『사회문제론』, 177, 194-195.

중독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결국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철저히 파괴한다.

약물 중독 외에도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기기 중독이라는 신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잠이 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알파 세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이 스마트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9)에 의하면,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1시간 31분 사용하는데,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약 33,215분(약 553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 결과 스마트폰과 관련된 질병인 일자목 증후군,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질병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³³⁾

영성 신학적으로 중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마음의 안식과 기쁨으로 얻고자 하는 악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독은 문제해결을 주지 못하며 더 큰 고통의 수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마귀적인 것이다. 알파 세대의 중독현상을 치유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회기관들과 함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거룩한 치유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점이다.

(3) 자살률 증가

알파 세대의 정체성의 혼란, 가치관의 혼란 등의 아노미현상은 심리적, 영적 공허로 이어져 우울증을 앓게 하고, 결국 자살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어느 한 초등학교 3학년(10세) 학생의 책상 위에 붙어 있는 “행복”이라는 시가 알파 세대의 공허감을 잘 대변해 준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행복은 우울한 마음을 가진 이에겐 오지 않는다. 난 왜 태어났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기쁠 수는 없다. 우울한 생각을 행복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³⁴⁾

33) “혹시 나도 스마트폰중독? 현대인의 신종 질병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hi_nso/222985633962, 2023년 11월 28일 접속.

34) “자살률 국제비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638&cid=42251&categoryId=58304>, 2023년 11월 27일 접속.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도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 상태, 주요 의료 인력, 보건 의료의 질과 비용 등 보건 의료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OECD

고도의 도시화(urbanization)인한 아노미현상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뒤르켐은 경제적 위기가 자살의 경향을 촉진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빈곤이 자살률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자살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이 자살을 방지해준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므로 빈곤보다는 경제적 위기, 즉 사업이나 재정의 위기가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제적 위기는 인간 의식의 규범적 틀을 해체시켜서 슬프게도 산업적 상업적 세계에 참여도가 높은 이들 사이에 자살률이 올라가게 만든다.³⁵⁾

초고도의 도시화 사회 속에서 AI와 일상에서 친구처럼 사는 알파 세대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의 문제와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심리적 균형을 상실하고 아노미적 자살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조신권은 아노미적 자살에 대해 언급하면서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 아노미적 자살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는 오늘 자살이 많은 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결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³⁶⁾ 결국 알파 세대의 아노미적 자살률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영적, 정신적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I)와 그것(It)의 관계 속에 느끼는 정체성 상실과 고독 그리고 정신적 빈곤감을 관계중심(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의 영성신학적인 묵회상담이 알파 세대의 아노미적인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확증 편향성

알파 세대는 과거의 세대에 비해 심각한 확증편향의 함정에 노출되어있다. 확증 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자신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³⁷⁾ 요즘 유튜브나

보건지표(Health at a Glance) 자료 중 “자살률”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은 29.1명(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보다 17명이나 많다(OECD, 2015).

35) Emile Durkheim/김충선 역, 『에밀 뒤르켐 자살론』 (서울: 청아출판사, 1994), 255-261; Edward A. Tiryakian/손준모 역, 『뒤르켐을 위하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사, 2015), 349.

36) 조신권, “자살, 그 병적인 환희,” 『자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39-42.

OTT(Over-the-top)³⁸⁾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들의 취향, 성향 등을 인공 지능이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배치한다. 그것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애써 찾는 번거러움을 줄여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동일한 분위기의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면서 편리함과 함께 반복적으로 특정 성향에 익숙해지고, 그 세계관이 견고해지게 된다. 그 부작용으로 자신의 특정 성향과 세계관에 고착되고, 세뇌되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히게 되어, 다른 취향이나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적이고 편향된 시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예로, “지구의 평형설”이나 “지구의 내부는 텅 비어 있고, 그 곳에서는 멸종된 생물이 지금도 살아 있는 별도의 생태계가 있다”고 하는 “지구 공동설” 그리고 다양한 “음모론” 등을 신봉하게 된다. 이러한 확증 편향성이 스마트폰기에 증폭되어 살면서, 동일한 콘텐츠 플랫폼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알파 세대에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³⁹⁾ 교회는 관계중심의 영성적 목회상답을 통해 알파 세대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대화를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비행과 범죄

알파 세대의 청소년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 더욱 고도화된 도시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그 어느 세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서 살겠지만, 도시의 정보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아노미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의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만 14~18세 소년범죄 사건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마약이나 사이버범죄, 성폭력,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37) “확증 편향,”

https://ko.wikipedia.org/wiki/%ED%99%95%EC%A6%9D_%ED%8E%B8%ED%96%A5, 2023년 11월 28일 접속.

38) OTT(Over-the-top)이란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OTT&qdt=0&ie=utf8&query=ott+%EB%9C%BB, 2023년 11월 28일 접속.

39) 김현철, 『미래세대 프로파일링』, 79.

4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9093051004>, 2023년 12월 5일 접속.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범죄행위로 검거한 소년(남녀 모두 포함)은 6만4천595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에는 6만6천259명, 2019년에는 6만6천204명이었다. 소년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1만7천98명, 폭력 1만5천797명, 특별법(사이버범죄 등) 위반 1만4천788명, 지능(배임·횡령 등) 1만1천900명, 기타 형법(마약 등) 위반 2천966명, 성폭력 1천478명 등이다. 마약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한 청소년들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좁게는 법을 어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소년 법정에서 서는 경우이며, 넓게는 무단결석, 성관계, 가출, 난폭한 행위, 통행금지 위반, 부모에게 불복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나이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세 범주로 나눈다. 첫째는 14세~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범죄소년(犯罪少年)이라고 하는데 형벌법령 위반시 형사책임이 있다. 둘째는 12~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 위반시 촉법소년(觸法少年)이로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책임은 면한다. 셋째는 12~20세의 소년으로서 우범소년(虞犯少年)이 있다. 이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불복종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⁴¹⁾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노미현상은 이러한 도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비행과 범죄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된 이유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전통사회에서 도시산업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규범과 실제 도시의 현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생기는 개인의 혼란과 긴장인 아미노를 꼽는다.⁴²⁾ 한국사회도 IMF경제위기 이후에 청소년 폭력서클이 급증했고 여학생들의 폭력도 과격화 폭력화 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증가 원인은 경제위기 이후에 가정파괴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했다.⁴³⁾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라고 한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성신학적으로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비판능력의 향상과 함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현실적으로 세속도시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치관의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의 영향으로 초거대 국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2018년 56명, 2019년 72명에서 2020년 1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이버 범죄로 검거된 소년은 2018년 8천642명, 2019년 9천651명에서 2020년 1만2천165명으로 늘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 사기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알파 세대의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노미현상의 결과로 생각된다.

41) 우범소년과 비슷한 의미로 불량행위소년이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불량행위소년이란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음주, 깃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와 관련해서 우범소년과 거의 유사하다. 원석조, 『사회문제론』, 121-122.

42) Anthony Giddens/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3), 229.

43) 원석조, 『사회문제론』, 126-127.

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서적 가치관과 급속히 변화되는 세속적 가치관 사이에 심한 심리적, 영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방황하다가 교회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분포도가 중장년 세대는 많지만, 유아청소년 세대는 극히 부족한 심각한 역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이 한국교회의 미래인 알파 세대를 위해 목회상담학적으로 더욱 통찰력 있는 선제적 연구와 치유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6) 성윤리의 혼란과 성매매

도시의 아노미현상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도시의 세속화는 도시인의 정체성과 성윤리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미 알파 세대의 범죄 중에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성범죄 등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2020년 경찰청 통계에서 알 수 있다. 뒤르켐은 무한한 인간의 성적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제도가 결혼이라고 했다. 특히 근대적인 일부일처제의 결혼은 기혼남의 신체적 즐거움과 욕망을 규제한다. 그리고 결혼의 규칙성과 항상성은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주고 인간을 안정화시킨다. 이것은 공적 사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유익한 것이다.⁴⁴⁾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성적 아노미현상은 부부간의 유대를 탈규제화하여 이혼, 별거 등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들이 가정영역에만 국한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게 했고, 노동분업은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고,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으로 정의되었던 일자에 종사하는 성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뒤르켐은 도시 사회내의 성적 차별이 붕괴하면서 공적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더 많이 섞이는 변화를 성적 아노미의 측면으로 해석했다.⁴⁵⁾ 이러한 성적 아노미현상은 성윤리의 혼란과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성적 타락을 가속화했다. 도시의 어둠을 현란하게 밝히는 흥등가는 시골에서 보기 힘든 도시의 또 다른 이미지이다. 사실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는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정부 당국에서 금지하려고 해도 완전히 뿌리 뽑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성적 서비스의 댓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아무런 정서적 교감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성행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성매매는 난교(亂交,

44) Tiryakian, 『뒤르켐을 위하여』, 350.

45) *Ibid.*, 368-372.

promiscuity), 성 거래(sell her favor),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성(emotionally indifferent sex) 등을 포함한다.⁴⁶⁾ 그런데 성매매 동기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것이 도시의 아노미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동기는 빈곤이다. 가난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선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빈곤이 원인이 되겠지만, 아노미로 인한 상대적 빈곤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아동기의 성학대경험이 성매매 동기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의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의 경험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로움도 성매매의 동기로 지목되는데, 어린 시절 가정파괴로 인한 소외감,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부모나 교사로부터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을 친구나 친척으로 둔 경우, 그리고 약물복용으로 인한 중독이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했다.⁴⁷⁾

IV. 알파 세대의 아노미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의 필요성

한국교회지도자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波高) 속에서 혼란하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알파 세대의 청소년들의 아노미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영성적인 목회상담전략을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국 남침례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인 웨인 오츠(Wayne E. Oates)의 말대로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 성령의 도구, 개교회의 대표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야 한다.⁴⁸⁾

1. 알파 세대를 위한 목회상담의 목표

일반상담과 영성적 목회상담은 세계관이 다르며,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의 목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성숙을 위한 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담자 중심 상담”(Client-Centered Therapy)으로 유명한 로저스(Carl Rogers)는 ‘모든 유기체에게 자신이 가진 모

46) 일부 학자들은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기도 하며, 성기능적인 측면에서 성매매는 오락적 성(recreational sex)이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주가 되나 구입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오락적이라는 것이다. 원석조, 『사회문제론』, 133-135.

47) V. N. Parrillo, J. Stimson, A. Stimso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Boston: Allyn and Bacon, 1999), 110-111, 원석조, 『사회문제론』, 136-137에서 재인용.

48) Wayne E. Oates/김득룡 역, 『기독교 목회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27-47.

든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질적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보존하는데 유익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프랭클(Victor Frankle)은 '인간은 초월적 존재로서, 자신 밖에 있는 자신과 다른 그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인간은 자신 밖의 가치들과 목표들을 향해 정진할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숙은 인간 심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역동적인 힘에 달려 있고, 그 힘은 개인의 자아실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충분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지만,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자아실현도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의 개성을 완전히 표현하는 단계이며, 이때 신비한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⁵⁰⁾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자아실현이며, 이 때 놀라운 영적 절정을 경험하게 된다(고후 12:1-10).⁵¹⁾

목회상담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목회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담으로서, 목회적 차원에서 내담자의 내적, 관계적 문제를 성경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진다.⁵²⁾ 그리고 이 상담은 자연계시인 심리학적 발견과 특별계시인 신학의 통합을 통해 위기의 인간을 돕는 목회의 한 형태이다. 클라인벨(H. Clinbell)은 목회상담의 목표를 전인성 회복에 두었다. 그는 전인건강이란 정신적, 영성적, 그리고 인간관계성 속에서의 건강이라고 하면서, 전인건강은 계속적인 여정이지, 어떤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콜린스(Gary Collins)는 불신자를 제자로,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목회상담의 목표라고 했다. 그러므로 알파 세대를 위한 목회상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목표처럼 그들의 영혼구원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제자로서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요 10:10).⁵³⁾

49) 장신목회상담학회,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395-396.

50) Paul D. Meier 외/김득룡 역, 『기독교 목회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110.

51) 김상백,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상담』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10), 86.

52) 홍인종, "가족치료적 접근과 목회상담,"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69-73. 홍인종은 목회상담학이 실천신학의 분야이기는 하지만, 모든 목회자가 은사적인 면에서나 전문성(임상훈련이나 상담기법 등)에서 다 전문적인 목회상담자는 아니라고 했다. 또한 좋은 목회상담자가 되려면 상담이론이나 기술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연구와 깊은 영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치유)하심에 대한 신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3) 이현규, 『목회상담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2003), 85-86; 김상백,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상담』, 44-45.

2. 알파 세대를 위한 영성적 목회상담(Spiritual Counseling)의 필요성

영성 목회(Spiritual Ministry)가 목회의 본질인 것처럼 영성적 목회상담(Spiritual Counseling)은 목회상담의 본질이다. 영성적 목회상담은 인간관을 일반상담과 다르게,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지만, 타락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아야 하는 피조물로 본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이해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근거하여 인간이 영(spirit)-혼(soul)-몸(body)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영-혼-육으로 전인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⁵⁴⁾ 기독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은 관계성 형성능력이다. 영성의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대신관계, trans-personal relationship), 자기 자신과의 관계(대자관계, intra-personal relationship), 이웃과의 관계(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 자연 또는 환경과의 관계(대물관계, meta-personal relationship)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⁵⁾

영성적 목회상담은 이 네 가지 관계성 속에서 영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증진시키 것이 목표이다. 구원도, 축복도, 행복도, 치유도 결국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 그 어느 세대보다 거대한 국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의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노미현상인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내적 공허와 우울함 그리고 중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알파 세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관계 중심의 영성적 목회상담이 꼭 필요하다.

V. 알파 세대 아노미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치유방안(전략)

1. 관계중심의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54) 조직신학적으로 인간의 구조에 대해 영혼-육체로 구분하는 이분설과 영-혼-육으로 구분하는 삼분설이 있으나, 필자는 목회상담에서 좀더 세분화된 삼분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영-혼-육은 무 자르듯이 분리(separation)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구분(distinguish)되며,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준다. Louis Berkhof/신복운 역, 『기독교신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12-114; 김상백,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상담』, 131-132.

55) 김상백, 『영성과 신앙』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15), 17-18.

인간이 실존적 공허를 느끼면, 그 실존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 재물, 권력 등을 추구하며, 거짓 자아에 몰두하여 자기를 위장하려고 한다. 재물, 권력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약물의 환각상태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의 자아를 찾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 세계 안에서 알파 세대는 거짓 자아인 아바타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꾸며진 자아는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구현하기 때문에, 현실의 자아와 괴리가 되는데, 특히 자기 내면이 공허하고,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느낄수록 현실의 자아에서 도피하여 가상세계의 거짓 자아에게 몰입한다. 이러한 현실도피적인 몰입은 현실의 나와 가상 세계의 이상적인 나 사이의 괴리를 더욱 증폭시키며,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⁵⁶⁾

최첨단 국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와 4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에 직면하고 익숙해지는 알파 세대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增強現實, augmented reality)⁵⁷⁾,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연결된 가상 현실에서 접속하면서, 현실 세계의 자아와 가상 세계의 자아의 괴리현상을 심하게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알파 세대는 현재 세계적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인 챗GPT(오픈AI)⁵⁸⁾, 재미나이(Gemini, 구글 AI모델) 등으로 나타나는 인간-사물(It)의 교류에 익숙하다. 그 결과 그들은 인간-인간의 교류에는 미숙해지고, 관계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애착(attachment)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존감이 더욱 낮아짐으로 결국은 가상세계로 도피하게 됨으로서 인터넷 중독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실존적 공허와 고독을 경험할 수 있다.

디지털혁명의 아노미현상으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알파 세대를 위해 관계중심의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사춘기를 겪는 알파 세대는 성장하면서 부모를 덜 의존하게 되고, 성장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하는 시기가

56) 심정연, “온라인 게임 과다 사용자의 실존적 공허감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연구: 빅터 플랭클의 의미요법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2): 10.

57) 실제 존재하는 현실의 이미지에 가상의 부가 정보를 덧붙여서 보다 증강된 현실을 실사가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증강현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7952&cid=40942&categoryId=32828>, 2023년 12월 10일 접속.

58) 챗GPT란 Open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공동개발한 GPT-3.5 기반의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 LLM)의 챗봇을 의미한다. 챗GPT는 프로그램이 대화형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대화는 것과 같은 반응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타이핑이 필요없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분석과 조언까지 가능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탑재의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질문에 대답을 준다. <https://blog.naver.com/skim209/223059307798>, 2023년 12월 11일 접속.

되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불안정해진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그들이 강력한 감정적인 신앙적 경험(an intensely emotional religious experience)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체 애착대상이 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⁵⁹⁾ 그 어떤 세대보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게 될 알파 세대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한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험은 영적 심리적으로 큰 치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애착 대상인 부모, 형제, 친구, 스마트폰, 중독물질, 가상 세계의 아바타 등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공허감을 느낄 알파 세대를 치유하실 완전한 애착대상이 되신다.

2.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아노미 현상은 심각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혼란이다. 급속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겪은 알파 세대는 전통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 세계관과 AI(인공지능),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계관과의 충돌과 혼돈을 피할 수 없다. 이 때 알파 세대는 삶의 무목적, 무의미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아노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목회상담자의 적극적 개입과 적절한 영적 심리적 상담 치유가 필요하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삶의 위기 속에서 적절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는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에릭슨(Erikson)의 주장대로 인간은 적절한 삶의 발달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회의와 불만족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⁶⁰⁾ 혼란에 빠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면, 의미의 추구(seeking), 의미의 발견(finding), 의미의 부여(giving), 의미의 실행(acting)의 순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의미요법(Logotherapy)의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은 실존적인 인간의 삶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삶에서 창조적 행위(creative works)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것,

59) Glendon L. Moriarty, Louis Hoffman eds, *God Image Handbook for Spirit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2007), 22-23.

60) 김태수, “호모 센텐티에(Homo Sententiae)로서의 인간이해와 의미요법(Logotherapy)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71 (2014): 115.

61) *Ibid.*, 115-116.

즉 경험적 가치(experience values)를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변경시킬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통해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⁶²⁾ 결국 그는 어떤 행위(일)를 함으로써(by doing a deed), 어떤 가치를 경험함으로써(by experience a value) 그리고 고난을 통해(by suffering)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그는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의지의 자유”(The freedom of will)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limits)(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는 존재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the freedom to choose his attitude toward them)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에의 의지”(The will to meaning)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이것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인간은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붙이거나 부여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탐색하는 것(detect)이라고 했다.⁶⁴⁾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 나타나는 최첨단 도시 속에서 알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심각한 아노미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혼돈과 절망 속에서 진정한 삶의 영적 의미를 탐색하고 발견하도록 목회상담자는 도와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영성적 목회상담에서는 영적 존재인 진정한 삶의 의미는 초월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예는 열명의 자녀와 그 많던 재산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영적 심리적 혼란 가운데 초월자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 심리적 아노미를 극복한 욥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욥 1장-2장, 38장-42장). 인간은 이성을 초월한 창조주도 아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도 아니기 때문에, 프랭클이 말한 바,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해질 수 있다. 프랭클이 간과한 것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고난 속에서 영적 의미를 찾고,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능히

62) Victor E. Frankl, *Psychol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7), 15, 김태수, “호모 센텐티에(Homo Sententiae)로서의 인간이해와 의미요법(Logotherapy)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119에서 재인용.

63) Vic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3), 176, 김태수, “호모 센텐티에(Homo Sententiae)로서의 인간이해와 의미요법(Logotherapy)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119-120에서 재인용.

64) Victor E. Frankl, *Psychol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7), 3, 16; Vic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New York: Penguin Books, 1988), 35, 김태수, “호모 센텐티에(Homo Sententiae)로서의 인간이해와 의미요법(Logotherapy)의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117-120에서 재인용.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악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 진정한 영적 자아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적인 것이며,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대해 소망을 주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다. 현재의 악과 고난은 장래의 영광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다(롬 8:18-25; 고후 4:16-18).⁶⁵⁾

이러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의미요법을 해석한 타이렐(Bernard Tyrell)은 그것을 “그리스도 요법”이라고 했다. 그는 상처입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빛과 가치의 의미를 깨달아서, 완전한 하나님에게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찾아야 할 궁극적인 삶의 의미 속에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이 포함되며, 그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그리고 가르침 안에 있다고 했다.⁶⁶⁾ 인간의 자기(self)가 보다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자기에 참여할수록 그만큼 건강해지고 고귀해진다. 이렇게 인간의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기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인 면이 포함된 의미 해석과 깨달음의 차원을 통해 “자기 이미지의 변형” 일어난다.⁶⁷⁾

김태영에 의하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 내담자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와 격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자기 대상으로 경험하면서, “내 삶은 살 필요도 없이 가치가 없다”고 부정적인 삶의 의미를 가졌던 내담자가 영성적 상담을 통해 “나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 삶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영적 차원이 포함된 새로운 의미 해석에 도달하면서, 영적 심리적으로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목회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자기 대상으로 경험할 때, 전적인 수용 경험의 은총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의 의미 해석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⁶⁸⁾

3. 진정한 영적 심리적 욕구를 깨닫고 채우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고,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를 만든다. 이러한 도시사회에서 상대적 빈곤과 관계의 문제로 절망을 경험하는 알파 세대가 자신의 진정한 영적 심리적 욕구를 깨닫고 그것을 채워 행복해지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65) Bernard L. Ramm/권혁봉 역, 『기독교변증학개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229-231.

66) Bernal H. Tyrell/이정기 역,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서울: 예영출판사, 2003), 25.

67) *Ibid.*, 111.

68) 김태영, “삶에 대한 심리적 그리고 영적 의미의 발견 가능성: 자기 대상, 의미요법 및 그리스도 요법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68호 (2020. 02): 335.

1943년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는 “욕구위 계이론”을 발표했는데, 욕구(慾求, needs)란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경향성을 말한다. 인간은 한 단계, 한 단계 욕구를 성취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편안함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7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로서 물, 공기, 수면, 체온보존, 식욕, 성욕 등 인간의 생본에 필요한 욕구와 본능이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로서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이고, 3단계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belongingness & love needs)로서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타인과 더불어 어울리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이고, 4단계는 자존심의 욕구(esteem needs)로서 타인에게 존중받고, 안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5단계는 인지적 욕구(intelligence needs)로서 지적 호기심으로 이해와 탐색을 추구하는 욕구이며, 6단계는 심미적 욕구(aesthetic needs)로서 조화,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이며, 마지막 7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로서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욕구라고 했다.⁶⁹⁾

욕구는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상위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 이민화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와 산업혁명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제1차 산업혁명(18세기)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기계혁명)으로서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제2차 산업혁명(19-20세기 초)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혁명(전기혁명)으로서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제3차 산업혁명(20세기 후반)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정보혁명)으로서 사회적 연결의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제4차 산업혁명(21세기 초반 - 현재)은 빅데이터, AI, IoT,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지능혁명)으로서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의 욕망을 중요시하는 시대라고 정리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나를 알리는 혁명,” “나를 표현하는 혁명,”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혁명”이라고 설파(說破)했다. 4차 혁명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며, 최고의 콘텐츠도 나 자신이다. 그렇기에 나 자신(정체성)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러한 나를 알리는 혁명의 전위적 플랫폼은 현재는 유튜브(YouTube)이다.⁷⁰⁾

69) Abrah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전용복,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안양: 도서출판 잠언, 1995), 77-78에서 재인용.

70) [- 51 -](https://cafe.naver.com/kppmembers/62821?art=ZXh0ZXJ1eWw2VydmljZS1uYXZlci1zZWYy2gtY2FmZS1wcy.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yZWZlVHlwZSI6IkkNBRkVfVWJMliwiY2FmZVYybCI6ImtweG1lbWJlcnMiLCJhcnRpY2xlSWQjOjYyODIxLCJpc3N1ZWRBdCI6MTcwMjM4ODEyMzgzMjM0.4cbO-dQJOZ0IGOGJSRkUAmSombmLh4kh2j-YRX6wk, 2023년 12월 12일 접속.</p>
</div>
<div data-bbox=)

전 세계에서 알파 세대를 처음으로 규정한 매클린들연구소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를 5단계(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설명하면서, 알파 세대는 1단계와 2단계의 욕구에는 그다시 관심이 없고, 바로 3단계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1단계 생존의 욕구나 2단계 안전의 욕구는 밀레니얼세대 부모들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고, 타인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즉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한다. 알파 세대는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자신이 소속된 사회, 커뮤니티의 범주 안에서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고 지향점이 같을 때, 비로소 멋지고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신 인류 알파 세대 욕구의 출발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사회와 연결하고, 본인과 세상의 가치를 함께 성장해가도록 노력한다.⁷¹⁾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인본주의 심리화적인 판단이다. 기독교상담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일 뿐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이며, 영적 욕구(spiritual needs)가 존재한다. 이 영적 욕구는 가장 인간 존재를 위한 1단계 생리적 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하위 욕구이면서, 7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초월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체험(experiencing God)을 통해 회심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음으로 채워지는 욕구이며, 자기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와 진정한 합일을 이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영적 자아실현과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영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알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목회상담자와 영적 욕구를 깨닫고, 추구하고, 채움을 받는다면 그들의 관계의 문제와 그로 인한 욕구불만으로 인한 불행감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관계중심의 영성 수련회를 통한 영적 치유와 교육이 필요하다.

영성 수련회(spiritual retreat)은 기존에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련회와는 다르게 관계중심의 영성훈련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수련회이다. 이 수련회를 통해 교회는 집단상담(group counseling)을 통한 치유와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성 수련회를 통해 알파 세대가 성령에 의한 강력한 하나님 체험(experiencing God)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춘기는 애착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알파 세대의 모든 관계의 문제(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는 완전한 대체 애착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

71)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363-366.

재를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집단상담과 영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드러지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말씀, 깊이 있는 묵상, 진솔한 간증, 마음을 토하는 기도, 사랑의 교제 등의 영성훈련 프로그램과 청소년기의 전문적인 상담자를 통한 상담 치료를 병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알파 세대의 아노미현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VI. 나가는 말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초거대 국제도시인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로의 도시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고도로 발달된 로봇공학,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기술, 빅 데이터, 생명공학 등의 익숙한 세대이며,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서비스와 대화하고 학습하는 신 세대이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도시화의 어둠인 아노미현상을 겪을 것이며, 관계의 문제로 인해 영적 심리적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급변하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사이에서 크게 방황할 것이며,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으로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관계중심의 영성적 상담(Spiritual Counseling)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필자는 영성적 상담의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첫째, 관계중심의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둘째,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셋째, 진정한 영적 심리적 욕구를 깨닫고 채우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필자는 알파 세대가 거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아노미현상을 한국교회가 예방하고 치유한 조그마한 징검다리 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기독교 영성 신학을 바탕으로 한 목회상담적 치유를 제의했다. 그러나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신인류인 알파 세대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연구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꼈다. 이에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알파 세대를 치유하기 위한 영성적 목회상담의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영성적 목회상담은 영성신학과 목회상담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 정화의 단계(회심) - 조명의 단계 -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영혼의 밤(the night of the soul)을 지낼 때, 발생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 인도자는 영적 지도를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⁷²⁾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영성적 목회상담이다. 알파 세대 또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로 나아갈 것인데, 그들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영성적 목회상담의 모델개발이 한국교회에 절실한 실정이다.

둘째, 알파 세대의 아노미현상에 대한 치유는 학제간의 활발한 통합연구가 필요하다. 알파 세대의 아노미현상의 관계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심리적인 연구 뿐 아니라, 사회과학, 영성신학, 목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의 대화와 연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교회가 알파 세대를 전도하고 치유하고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현재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물론 알파 세대가 교회목회현장,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산업 마케팅 분야에서도 중요한 세대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알파 세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목회상담 분야에서 보다 깊은 연구는 포스트팬더믹 시대에 나타난 알파 세대를 직면하여 혼란한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재정립과 목회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영표 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김상백.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상담』.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10.
 _____. 『영성과 신앙』.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15.
 김현철. 『미래세대 프로파일링』. 서울: 도서출판 꿈미, 2023.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23.

72) 김상백, 『영성과 신앙』, 36-37.

- 송영만. 『도시 속의 목회와 선교』. 서울: CLC, 2017.
- 원석조. 『사회문제론』. 경기도, 파주시: 양서원, 2008.
- 이정춘.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 서울: 청림출판사, 2014.
- 이현규. 『목회상담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2003.
- 장신목회상담학회.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전용복.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안양: 도서출판 잠언, 1995.
- 조신권. “자살, 그 병적인 환희.” 『자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 홍인종. “가족치료적 접근과 목회상담.”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Berkhof, Louis/신복윤 역, 『기독교신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Durkheim, Emile/김충선 역. 『에밀 뒤르켐 자살론』. 서울: 청아출판사, 1994.
- Giddens, Anthony/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Leupold, H. C./최충태 역. 「창세기」, 『반즈/신구약성경주석』. 서울: 도서출판 크리스찬서적, 1987.
- Meier, Paul D. 외/김득룡 역, 『기독교 목회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 Nakken, Craig/오혜경 역. 『중독의 심리학』. 서울: 웅진씽크빅, 2008.
- Oates, Wayne E./김득룡 역. 『기독교 목회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 Ramm, Bernard L./권혁봉 역. 『기독교변증학개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 Tiryakian, Edward A./손준모 역. 『뒤르켐을 위하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사, 2015.
- Tyrell, Bernal H./이정기 역. 『그리스도요법: 깨달음을 통한 치유』. 서울: 예영출판사, 2003.
- Block, Daniel I. *The New American Commentary: Judges, Ruth*.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Frankl, Victor E.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3.
- _____.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7.
- _____. *The Will to Meaning*. New York: Penguin Books, 1988.
- Maslow, Abraham.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 Mathews, Kenneth A.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4:26*.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 Moriarty, Glendon L., Louis Hoffman eds, *God Image Handbook for Spirit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2007.

Stimson, J., V. N. Parrillo, A. Stimso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Boston: Allyn and Bacon, 1999.

김태수. “호모 센텐티에(Homo Sententiae)로서의 인간이해와 의미요법(Logotherapy)의 목회 상담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71 (2014): 111-136.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증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JOC S)」, 통권 80호(2022): 126-163.

김태영. “삶에대한 심리적 그리고 영적 의미의 발견 가능성: 자기 대상, 의미요법 및 그리스도 요법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68호(2020. 02): 343-366.

심정연. “온라인 게임 과다 사용자의 실존적 공허감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연구: 빅터 플랭클의 의미요법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2): 5-28.

“가치 갈등론 - 사회 긴장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605&cid=47335&categoryId=47335>
5. 2023년 12월 15일 접속.

“라이프로그(Lifelogging).”<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78778&cid=58439&categoryId=58439>. 2023년 11월 24일 접속.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https://brunch.co.kr/@naryn/318>. 2023년 11월 26일 접속.

“심리학사전-인지적 왜해와 아노미.” <https://blog.naver.com/yars/220197050048>.
2023년 12월 15일 접속.

“아노미(anomie).”<https://ko.dict.naver.com/#/entry/koko/c374bd486e2b4277963946946ec8c362>. 2023년 12월 14일 접속.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094&cid=42149&categoryId=42149>. 2023년 12월 15일 접속.

“자살률국제비교.”<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638&cid=42251&categoryId=58304>. 2023년 11월 27일 접속.

“증강현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7952&cid=40942&categoryId=32828>. 2023년 12월 10일 접속.

“확증 편향.” https://ko.wikipedia.org/wiki/%ED%99%95%EC%A6%9D_%ED%8E%B8%ED%96%A5. 2023년 11월 28일 접속.

“혹시 나도 스마트폰중독? 현대인의 신종 질병에 대하여.”https://blog.naver.com/hi_nso/222985633962.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blog.naver.com/english4sky/223181952990>. 2023년 11월 24일 접속.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

논 찬 1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박 은 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본 고의 연구자인 김상백 박사님은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를 향하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도시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태어난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관계’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는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로봇공학,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기술, 빅 데이터, 생명공학 등이 익숙한 세대이며, 인공지능서비스와 대화하고 학습하는 신세대이다. 학자들은 이 새로운 세대를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연구자는 알파 세대의 등장에 대해 많은 신문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 매체들이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흔히 MZ 세대라 부르는 현재 청소년 세대에 비해 무엇이 다른지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연구자는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듯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를 타고 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등장을 방관하거나 걱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특징과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목회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도시화(Urbanization)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인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 속에서 살아가는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관계’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 고독, 자살, 중독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세대 간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야기(惹起)되하면서, 알파 세대는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으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은 사회문화 제도들이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감정적 혼란, 정신적 무질서감,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¹⁾ 연구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波高) 속에서 혼란하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의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아노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영성적인 목회상담 전략을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남침례 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인 웨인 오츠(Wayne E. Oates)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 성령의 도구, 개교회의 대표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²⁾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아노미 현상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심의 영성적 목회상담을 통한 치유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3가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첫째, 관계 중심의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둘째,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셋째, 진정한 영적 심리적 욕구를 깨닫고 채우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연구자의 욕구가 더욱 탁월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논찬자는 다음의 몇 가지 의견들을 제안드려 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논문 초반부에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정의와 특징,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한 뒤 다소 급진적으로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언급하는 지점에서 앞과 뒤 내용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앞 내용인 알파 세대의 정의, 특징, 문제점들이 어떤 점에서 특히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라는 문제점과 연결되어 드러나는가에 대한 논거와 연구자의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자의 논문 중반부에 정리된 구약/신약 성서에서의 아노미 현상은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알파 세대의 ‘관계’ 문제와 어떤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1) 송영만, 『도시 속의 목회와 선교』 (서울: CLC, 2017), 61-62.

2) Wayne E. Oates/김득룡 역, 『기독교 목회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27-47.

셋째, 연구자는 알파 세대가 심각한 도시화의 어둠인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겪을 것이며, '관계'의 문제로 인해 영적, 심리적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또한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는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급변하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사이에서 크게 방황할 것이며,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으로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위에서처럼 연구자는 논문 전체적으로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하여는 희박하게 언급하면서 주로 부정적인 미래에 집중하여 논문을 전개하였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본 논문이 좀 더 균형적인 논문이 될 수 있으려면 알파 세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함께 고찰한 후, 그에 대한 예방과 치유 방법을 구체적이고 관계적인 치유 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신학 영역에서 꼭 필요한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에 대한 목회상담 차원에서의 연구를 선구자적 입장에서 성실히 연구하여 발표해주신 김상백 박사님께 논찬자는 두 손 모아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린다.

논 찬 2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여 한 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복지학과)

김상백 박사의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주제로 학문 발전과 새 시대를 위한 목회상담의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사회 및 관계 구조의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적응해 온 인류에게 적응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로운 힘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김 박사의 제언은 어쩌면 현 기성세대의 고민을 넘어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상당히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 박사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알파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김 박사는 “개인의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세대”, “AI와 공존하며 살아갈 첫 번째 인류”, “비대면이 편안한 코로나키즈”, “소셜 미디어가 만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아이들”, 그리고 “‘노동보다 투자’를 믿는 부모들이 키우는 자본주의키즈”의 5가지를 그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알파 세대에 대해 그 특징을 디지털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아노미 현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노미 현상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으나, 알파 세대와 아노미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염려가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알파 세대와 아노미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가 있다면 더 명확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 박사는 아노미 현상을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서 겪는 혼란, 즉 기존 질서의 일탈로 보고 있다.

이는 아노미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혼돈과 공허’로 설명하는 것은 ‘아노미’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때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일탈도 기존 질서와 공존하면서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 아노미는 기존 질서의 무력화 또는 무가치화나 붕괴 등의 현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박사께서는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을 “고독”, “중독”, “자살률 증가”, “확증 편향성”, “청소년비행과 범죄”, “성 윤리의 혼란과 성매매”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알파 세대가 경험하는 아노미 현상으로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현상은 고래(古來)로부터 이어져 온 위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알파 세대가 경험하는 가치관이 기존 질서와 어떻게 충돌되고 그 가치관이 다르게 경험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노미 현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기성세대라면, 알파 세대에게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명확한 아노미에 대한 정리와 예시가 제시된다면 논지 전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노미 현상’보다는 ‘비인간화’와 같은 가치중립적이거나 변화를 전제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한다면 더 좋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 박사가 제시하듯 알파 세대를 위한 목회상담의 목표에서 제시된 “내담자 중심 상담”을 로저스의 주장대로 “인간중심상담”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김 박사는 알파 세대를 위해 “영성적 목회 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인치유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관계성 형성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김 박사가 5장에서 제시하는 “알파 세대 아노미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치유방안(전략)”은 여러 가지로 좋은 시사점을 준다. 이는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 사회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영성적 치유의 본질에 대해 잘 정리하고 제시함으로써 목회상담적 접근의 맥락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입의 방향은 논지의 시작이 어떻게 전개되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김 박사가 제시하는 관계중심의 영성적 상담 전략은 알파 세대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중간세대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상담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박사의 연구주제는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좋은 도전을 주고 있다. 글을 읽은 책임으로 김 박사의 연구가 제한된 지면에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김 박사가 제시하는 연구의 성과를 위해 몇 가지 논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한다.

질문 1. 변화하는 세상과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의 아노미 현상은 무엇인가?

김 박사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아노미 현상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으로 아노미와 그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를 서로 아노미라고 주장하고 충돌하는 예도 많아서 아노미 현상이라고 전제하기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그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인식하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목에서는 '관계' 문제로 정리하고 있는데, 관계 문제와 아노미 현상의 직접적 연결점에 관심이 생긴다.

질문 2. 성경에서의 아노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사에서 아노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결과에서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와 태도가 아노미 현상인지 명확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예들이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연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질문 3. 알파 세대에 다가올 아노미 현상과 관계 중심의 영성적 상담이 치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김 박사가 제시하는 관계 중심의 영성적 상담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아노미 현상에 대한 힘을 강화하기 위한 치유적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그 접근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미디어나 도구적 가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전통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지 등 치유적 개입의 방법과 접근이 궁금하다.

최근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미래를 위한 예방적, 그리고 능동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돋보인다. 김 박사의 좋은 통찰과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논의는 한국교회가 겪는 혼란, 특히 신앙적, 신학적, 그리고 영적 부분에서의 혼란을 이해하고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논 찬 3

“알파 세대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고찰: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 찬

이 수 환 박사

(성결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학)

1. 요약

연구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를 방관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닌 적극성을 띠고 알파 세대의 특징과 문제를 잘 이해하고 목회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도시화의 주요한 현상 중 하나인 아노미 현상으로 자아정체성의 혼란, 고독, 자살, 중독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예측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심의 영성적 목회 상담을 통한 치유를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알파 세대를 MZ 세대와 완전히 구분하여 전혀 다른 외계인과 같은 신세대로 보기보다는 MZ 세대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고, 알파 세대는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이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로 비다면 활동이 증가하는 뉴노멀 시대에 의미 있는 세대로 평가하였다. 1) 개인의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세대이다. 그들은 라이프로그에 남겨진 자신의 빅데이터 뭉치들을 알고리즘화하여 나노형 IT서비스(거대한 관심이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로 조개질 사회에 적합한 IT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세대이다. 2) AI와 공존하며 살아갈 첫 번째 인류이다. 챗 GPT의 가장 독보적인 자량은 글쓰기이다. 앞

으로 10년 안에 AI가 모든 면에서 사람처럼 이해하고, 처리하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AGI로 진화할 것이다. 알파 세대는 이러한 AI와 공존하며, 때로는 경쟁하면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3) 비대면이 편안한 코로나 키즈이다. 비대면이 편안한 알파 세대가 어른들과 또래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술과 대면을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다. 4) 소셜 미디어가 만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아이들이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IT서비스가 확대 발전하면서, 알파 세대는 IT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자기중심적인 세대로 성장했다. 알파 세대는 모든 것을 잘하는 엄친아보다 자신만의 어떤 것을 깊게 잘하는 아이들이 각광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고, 자기 취향과 기질을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다. 5) '노동보다 투자'를 믿는 부모들이 키우는 자본주의 키즈이다. 알파 세대는 저축과 노동 소득이 투자 소득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시장경제를 통해 충분히 느끼는 세대이다. 밀레니엄세대는 유난히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재테크 공부도 많이 한 세대이다. 그들은 자녀들인 알파 세대를 진정한 자본주의 키즈로 성장시킬 것이다.

연구자는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론을 언어적 정리와 뒤르켐이 말한 경제 상황과 아노미적 자살의 상관성을 정리하였다. 기존의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고통스런 현실 세계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 세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구조적 역기능 때문에 개인의 목표(예를 들면, 성공의 기회)가 차단된다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사회적 이탈률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했다.

연구자는 아울러 성서에서 어떻게 아노미 현상을 언급하는지 그것인 영적 심리적 혼란 상태를 어떻게 언급하는지를 상세가 예로써 연구하였다. 구약성서에서 아노미 현상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전에 존재했던 공허와 혼돈을 들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도시의 아노미 현상도 도시화로 인한 사회 심리적 원인이나 사회구조적,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원인으로 보았다. 신약성서에서 연구자는 아노미 현상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했던 가롯유다에게서 발견하였다. 예수님은 가롯유다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아노미 현상을 "마귀의 역사"로 규정하시면서, 여러 번 유다에게 경고하셨으나 유다는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도 아노미 현상과 관계있다고 보았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하심에 대한 큰 두려움을 남긴 사건이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불행은 그들의 마음의 아노미 현상을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감정적 혼란, 정신적 무질서감,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아노미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알파 세대의 병리 현상을 연구자는 1) 고독, 2) 중독, 3) 자살률 증가, 4) 확증 편향성, 5) 청소년 비행과 범죄, 6) 성 윤리의

혼란과 성매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목회 상담의 필요성에서 미국 남침례 신학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 웨인 오츠(Wayne E. Oates)의 주장을 통해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 성령의 도구, 개교회의 대표일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불신자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 알파 세대를 위한 목회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목표처럼 그들의 영혼 구원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제자로서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둘째,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알파 세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관계 중심의 영성적 목회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영성적 상담의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첫째, 관계 중심의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둘째,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셋째, 진정한 영적 심리적 욕구를 깨닫고 채우는 영성적 치유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알파 세대가 거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을 한국교회가 예방하고 치유한 조그마한 징검다리 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기독교 영성 신학을 바탕으로 한 목회 상담적 치유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신인류인 알파 세대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연구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꼈다. 이에 연구자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함께 제안하였다. 첫째, 알파 세대를 치유하기 위한 영성적 목회 상담의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에 대한 치유는 학제 간의 활발한 통합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도 현재 알파 세대에 관한 연구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알파 세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목회 상담 분야에서 더 깊은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나타난 알파 세대를 직면하여 혼란한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재정립과 목회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2. 공헌

연구자는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알파 세대를, 알파 세대의 아노미 현상 문제를 언어적 정리와 뒤르켐이 말한 경제 상황과 아노미적 자살의 상관성을 제시한 관점이다. 아울러 성서에서 어떻게 아노미 현상을 언급하는지 그것이 영적 심리적 혼란 상태를 어떻게 언급하는지를 상세하게 예로써 앞으로 연구하는 데 공헌하며, 더 나아가 알파 세대 아노미 현상에 대한 목회 상담적 치유방안으로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한국교회는 관계 중심의 영성적 상담의 전략을 실행하고, 뉴노멀 시대에 의미 있는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아쉬운 점

공현도와 함께 논문에서 노가영,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의 저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편중되어 객관성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본 학회의 논문작성법을 참고로 각주와 참고문헌을 다시 한번 체크 해 주셔서 번역서인 경우, 외국인 저자를 한글로 표기해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귀한 연구를 <한국실천신학회>에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제 2 발표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생각하며 -

주 원 규 박사

(한양대학교대학원 / 실천신학 / 대중문화시나리오 과정)

I. 들어가며

2020년 이후,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자본주의와 연결된 인공지능의 부각과 발전은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필연적인 불안을 동시에 선사한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관해 일상생활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혁신적 재편과 편리성의 증진을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순기능은 잠시일 뿐, AI의 등장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에 관한 윤리 기준의 훼손과 도전이 첨예하게 대두된 것에 관한 우려가 큰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제 AI의 상징성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면서도 이에 관한 적절한 성찰과 견제, 그리고 비판적 진보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인류는 어쩌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재앙과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징후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작금의 첨단화되어가는 현실에서 교회는 어떤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신학 논단에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대대적 보급이 가져오는 경제적, 산업적 유익과 일상생활에서의 혁신적 편리성이 인류에게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다준 건 사실이지만, AI의 발전이 더욱 심화할수록 인간 그 자체가 가진 존엄이 산업과 자본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는 회복 불가능한 윤리적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더욱 첨예한 시선으로 맞서고,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급변한 세계에서의 참된 휴머니티, 이를 기반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신과 인간의 만남, 그리고 구원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첨단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AI의 극적 은유로 대표되는 복제 인간과 그 복제 인간을 적절히 예견한 한 편의 영화, 그 영화의 리메이크작, 그리고 교회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블레이드 러너

1980년대 초반, 지금은 거장 반열에 오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가 제작, 소개될 때만 해도 이 영화가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영화의 흥행 여부를 떠나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이보그, 오늘의 AI 전신으로 알려진 레플리컨트의 출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그때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오늘날 레플리컨트로 대표되는 인간의 기능을 넘어서서 감성까지 장착한 인공지능은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 그에 관한 예언을 입증해 보이기라도 하듯 1980년대의 원작을 오늘의 디스토피아적 풍경으로 재구성한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선보였다. 두 영화의 감독과 시대 배경 모두 상이한 차이가 있지만, 고도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져온 빛과 그늘에 관한 성찰은 여일했다. 무엇보다 이 영화가 전달하는 종말론적 분위기는 흡사 성경의 존재론을 닮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III. 종말을 향한 비전 혹은 광기

성경은 신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구약성경은 사실상 유대민족의 영웅서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배타적 종족주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구약성경의 서사는 신의 구원이 주 관심사가 아니다. 가혹한 자연 환경과 이방민족의 야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신의 철저한 심판이 주된 내용이다.¹⁾

1) 라이너 케슬러, and 최인식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vol.20, no.1(통권 51호), 2014. 참고.

그에 반해 신약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개별 민족에서 인류 보편으로 확장한다. 더욱이 신약성경의 전반적 서사를 들여다보면 걸출한 풍운아 예수가 등장해 심판보다는 구원, 혹은 인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 역시 알려진 의미와 사뭇 다르다. 도리어 제1성서의 서사보다 더 파국적인 현실 인식에 뿌리내리고 있다. 세계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파국적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식의 현실 인식, 그리고 그에 부합되는 준엄한 심판 선고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는 계속되는 파괴와 약탈 본능으로 인해 어느 때이든 상관없이 신음하고 있다. 한마디로 폐허의 야만에 신음하는 것이다. 그 야만성을 심하게 구체화하면, 성서 속의 세계는 구원과 희망이 옵션이고 심판이 주류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필름 느와르는 어두운 세계를 묘사하는 극사실적 비주얼라이징 Visualizing이 단연 돋보인다. 단지 미장센의 요소만이 아니라 극사실적 비주얼라이징이 서사 전체를 압도한다. 더욱이 <블레이드 러너>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 입각해 전시되는 암울함이 서사 자체를 집어삼킬 정도다. 이러한 <블레이드 러너>의 장르적 특성은 성서, 특히 제1성서 속 배경의 참담함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 주지하듯이 제1성서 서사의 이면에는 학살, 기근, 두려움, 우상숭배, 맹신, 광기, 편견, 패착에 가까운 군사무장, 집단주의 등이 도사리고 있다.

IV. 밤, 그리고 레플리컨트

밤은 은폐의 시간, 복제의 시간이다. 모든 것을 어둠 속에 파묻고 음모를 꾸미기에 최적화된 시간이다. 1982년, 2017년,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부은 두 작품, <블레이드 러너>와 <블레이드 러너 2049> 모두 박스오피스와 평단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찬사는 받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블레이드 러너>의 실패 요인은 단지 밤과 폐쇄적 미장센이 무모할 정도로 포진된 것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는 밤이 가진 모호함, 모든 것이 불명확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만 영화를 채워 넣었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으로 작동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밤이 가진 무한한 은폐와 복제의 가능성이 레플리컨트로 대표되는 인간 복제품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인해 점입가경을 이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실, 곧 원본에 대한 강박을 품고 있다. 원본에 대한 강박은 평소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리얼리즘에 대한 본격적 위협을 느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본격화된다. <블레이드 러너>의 담대함은 불안의 강박을 영화 전면의 주제 의식으로 재연해냈다는 데 있다. 원본을 찾아내고 복제와 구별짓기를 시도한 뒤에야 안전하다고 믿는 불안과 두려움. 그러한 감정의 실존을 버젓이 전시해놓은 것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가 추종하는 밤의 리얼리즘이다.²⁾

2) ‘밤의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을 말하는 하나의 환상적 접근으로서, 밤의 모호성과 관련된 한 이데올

성경의 이야기에든 원본에 대한 강박은 예외가 아닐 정도로 빈번히 등장한다. 하지만, 배타적 시선에서 본 원본은 단연 유대인과 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다. 현실의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 = 선택된 민족'이라는 배타성을 마치 성경이 가리키는 본질인 양 각색해왔다. 배타성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의 피가 흐르는 이들은 짐승과 다름없으며 신의 준엄한 저주로 다스려야 마땅했다. 구약성경에는 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참사람을 위협하는 야만의 기원과 그 상징들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네피림³⁾은 칼과 무기로 대표되는 야만의 문명을 상징하며 신의 질서를 훼손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사에 반드시 필요한 동행자 모습으로도 그려져 씩씩한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문명의 수혜를 넉넉히 힘입은 존재이지만 문명이 가진 위협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동행의 끈을 끊고 죽여 없애야만 하는 존재, 네피림. 어느 순간에 돌출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 인자, 네피림. 성경 스토리텔링에 지속해 출몰하는 네피림과 그에 관한 상징들은 현대 사회에선 '자본'이라는 모순의 연속으로 대표되는지 모른다.

V. 자본, 복제, 그리고 사랑

〈블레이드 러너〉가 제작된 1980년대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천민화가 예고되던 초입이었다.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간 냉전 구도의 붕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떠오른 미국적 욕망의 본격화, 달러로 대표되는 기축통화의 출범 등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슬로건 아래 지구촌에서 자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본을 그 전위에 내세웠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앞세워 세계 질서의 대부분을 자본의 획일적 기준에 흡수해버린 것이다.

자본의 획일성은 은폐와 다양성 파괴 등 여러 폐해로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폐해는 '인간의 복제화'다. 획일성은 인간이 가진 고유성을 훼손하거나 획일적으로 전시기 때문이다. 외적 전시는 내적 자아의 구축보다는 타자를 통한 자아의 상대적 발견에 집중된다. 이를 통해 자아는 타자의 욕망을 통해 사랑이란 감정까지도 고도의 기능 중의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블레이드 러너〉에 나타난 레플리컨트는 복제인간이란 설정에서 출발한다. 레플리컨트의 감정은 그 토대가 복제를 가능케 한 자본의 획일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엄연한 서사의 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레플리컨트의 감정 체계를 관통하여 자아의 고유성을 이루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 사랑은 자본의 획일성이라는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로기를 상징한다. Lois Parkinson Zamora and Wendy B. Faris(eds.),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community*, Duke University Press Books, 1995. 참고.

3) Yoo Yoonjong,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Names in the Book of Exodus 1:1-15:21", 『성경원문연구』 41권, 2017. 출애굽기 1:1-15:21에 나타난 '이름'의 문학적·신학적 의미 참고.

이상현상이다. 인간에게 고유성의 영역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이를 '복제 속에서 돌파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성서적 서사에서 그 사랑의 뿌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해진다. 성서의 스토리텔링 역시 <블레이드 러너>의 '자본' '복제' '사랑의 패턴화'와 유사한 내러티브 벨트Narrative Belt를 구축하고 있기에 그렇다.⁴⁾

VI. 바벨탑, 상상, 그리고 사랑

바벨탑 이야기는 기독교를 넘어 일종의 보편적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단 하나의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린다는 일화가 주는 교훈의 핵심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 바벨의 신비 위에 쌓아 올린 탑은 설령 그것이 공중누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자극했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성경에서 바벨의 욕망을 지속해 끌어내는 동력이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상상이다. 위상은 인간 자신이 세워놓은 가공의 욕망이란 점에서 쉽게 상실되지 않는 지속력을 갖고 있다. 또한, 위상은 욕망을 넘어서서 인간 행동 체계의 획일화를 제대로 도모할 수 있다. 이른바 왜곡된 통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곡된 통일성으로서의 위상은 사랑을 성찰할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한다. '원본' 또는 '존재'의 복잡성으로부터 비롯된 실제적인 사랑과 달리, 욕망의 공중누각 위에 세워 올린 '위상'과 관계된 사랑은 무척 대담하다. 설령 그 허무함이 발각된다 해도 언제든 그 책임을 위상에게 돌려세워 자신의 내면 자아는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바벨 이야기의 서늘한 허무감은 <블레이드 러너>를 감상할 때에도 여실히 느껴진다. '이전 미래의 일이다.' '레플리컨트는 영화 속 허구 혹은 허무의 범주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러한 거리 두기의 근간은 뒤흔들린다. 복제인간 레플리컨트를 성찰하게 되기 때문이다. 타자에게 전가한 욕망의 주체가 다름 아닌 자아란 사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초래되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우리가 침묵해왔음을 레플리컨트는 깨닫게 해준다.

4) 한 시대의 역사를 훑아보는 분석 속에서 일련의 흐름 내지는 징후로 포착되는 역사 서사의 한 표현. Paul Ricoeur, "Narrative time", *Narrative dynamics: Essays on time, plot, closure, and fram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2. 참고.

5) 하경택, "원역사(原歷史) 안에서의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26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vol.44, No.4, 2012. 참고.

VII. 레플리컨트: 유용하거나 위험하거나

복제의 근원엔 자본이 모순이 담겨 있다. <블레이드 러너>는 자본의 신비 혹은 폭거의 획일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둠과 폐쇄, 그리고 눈동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은폐와 강요된 침묵을 상징하는 밤, 화면 속 미장센을 지배하는 닫힌 정서가 지속하는 가운데 자아는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

자본이 인간의 고유성과 복잡성을 은폐하는 기능으로 작동했다면, 자본에 힘입어 생산된 복제인간 레플리컨트는 자아 그 자체를 차단하며, 타자가 규정한 자아에 주목하게 하는 신비로서 작동한다. <블레이드 러너>의 난처한 지점은 레플리컨트의 신비를 닫힌 공간의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접합한다는 사실에 있다.

폐쇄된 공간 이미지가 영화의 이야기 자체를 삼켜버릴 기세다. 그 기세에 힘입어 복제된 자본의 희생양들이 저항 혹은 교란을 도모한다. 자본의 획일성, 그 토대 위에서 전개된 레플리컨트의 움직임은 인간 생존 본능과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면서도, 자본의 영향 아래 장악된 이른바 도구 이상으로 기능했다.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존재. 레플리컨트는 이러한 양가성을 띠고 인간 세계로 파고들었다. 이는 또 다른 할리우드의 상상력인 ‘외계생명체의 위협’이나 ‘혹성 탈출’ 같은 외부로부터의 침투와는 차원이 다르다. 레플리컨트는 단연코 인간 내부에서 발아된 교란이다. 유용성과 친밀도가 은밀한 만큼이나 위험의 정도 역시 치명적인 수준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더는 보이는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보는 눈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두 영화 모두 때로 길고 난해한 장광설로 발전시킬 법한 질문들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레플리컨트는 원본과 복제 사이에 스며든 자본의 지옥도를 무자비하게 폭로한다. 인간 내부에서 최소한의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들을 모조리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폭로가 흥채 실험을 통해 엄습했다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원본인가, 아니면 복제인가. 질문 자체가 교란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든다.

VIII. 예수: 신비롭거나 치명적이거나

예수의 존재 여부를 두고 벌이는 종교계의 역사성과 탈역사성 논쟁은 하나의 보편적 목표로 수렴된다. 예수를 종교적 대상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예수란 존재는 그 자체로(상징이든 뭐든) 보편 키워드로 자리 잡은 듯하다. 예수는 때로 헌신자, 봉사자, 성인으로 나타난다. 또 체제 전복의 동력, 혁명가, 인간 본성 속에 잠든 야생성을 일깨우는 선동가로 읽히기도 한다.⁶⁾ 여하튼 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를 관통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한 건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를 일종의 소비 키워드로 볼 경우, 그 키워드는 신비로움과 치명적임, 두 지점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된다. 예수라는 키워드가 신비로움의 영역에 점유되는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의 함정에 포섭된 상태에서 희망고문으로서 유용하게 설정 가능한 최상의 히어로 판타지에 매몰된다. 자본과 물신숭배로 인해 착란에 빠져든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비로움으로서의 예수는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줄 수 있다'는 식의 전능의 환상으로 기능한다. 사실 이 경우에 신비로움은 철저히 세뇌하고 세뇌당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신비로움을 천민자본주의적으로 비루하게 전유하는 것은 비단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블레이드 러너>가 암울하게 예견한 것처럼, 글로벌 자본은 지구를 미친 듯이 빠르게 휩쓸고 있으며, 그 양상이 더 세련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 세련된 신비는 동전의 양면처럼 치명적인 두려움과 불길의 스릴러로 장르 변주를 도모한다. 자본이 잉태한 복제의 유용성, 그 완벽함이 낳은 이상숭배의 끝에 자리 잡은 예수 키워드는 신약성경 서사를 통해 착란의 아이러니를 쏟아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온다.

착란의 아이러니, 그 한복판에 선 예수 키워드는 분명 위협하다. 이 경우 '왜 위험한가'란 질문은 무용하다. 2천 년 전에는 자본이란 개념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 역시 불필요하다. 자본과 우상의 조탁 관계는 오랜 시간 강고하게 인류사 대부분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명명되기 이전에도 자본은 계급, 종교, 사면의 이름으로 반복되어왔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가 보여준 행태는 정상성의 범주, 혹은 인간이 기대하는 이상숭배에 기인한 희망 고문과는 전혀 다른 특이성을 보여준다. 착란을 일으킬 정도의 혼란한 말의 중첩, 상황 돌파의 의외성, 십자가 처형의 비극적이지만 불편한 이미지 자극, 부활 사건이 가진 인식론적 차원 붕괴까지. 예수 스토리텔링의 극적 긴장감은 의외의 변수로 시작해 마지막 순간까지 의외로 끝나버리는 이른바 비틀기 그 자체의 완성도를 확보한다.

절정의 비틀림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위협은 1980년대의 <블레이드 러너>가 예측한 2019년 글로벌 자본 지배 사회에서도 가공할 만한 위협으로 발전한다.

예수라는 키워드는 신화에서 비신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의 틀을 바닥에서부터 뒤틀어버렸다. 그 탓에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극단적 양태로만 존립하고 있다. 질문이나 위협에 대한 자각이 숭배의 습성에 의해 소멸된 '신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기괴하고 불편한 '치명적' 위협으로 남아 있거나.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두 질문의 상호교차가 가능해질 것 같다. 자본과 복제가 낳은 욕망의 산물인 레플리칸트의 저항이 일으킨 교란의 질서, 또 다른 지점에서 혁명가로서의 예수가 산발적으로 흩뿌린 치명적 기축 비틀림 시도로서의 교란. 이 둘이 일종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기대가 그렇다.⁷⁾

6) 풍운아 예수에 대한 논의 역시 현대 신학, 21세기 신학에서 주요한 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병무, 『갈릴래이의 예수』, 한국신학연구소, 1990. 참고.

IX. 레플리컨트와 예수, 그 유사성과 차이성

〈블레이드 러너〉가 담아낸 불편함의 징후, 그 키워드를 정서적 미장센으로 상징화한 밤, 폐쇄된 공간, 그리고 홍채 실험으로 상징되는 눈동자, 축축한 비 내리는 저녁, 끊임없이 늘어지는 롱테이크의 닫힌 분절 형태까지. 이러한 요소들의 우직한 진행으로 인해 영화가 대규모 자본 투입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분석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분석은 다음의 진술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블레이드 러너〉는 지금까지도 단순 마니아층을 넘어서, 하나의 장르 분석을 넘어서 철학적 진술의 장 혹은 도구로 반복재생산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2019년을 맞이한 현실에 있어서도 1980년판 〈블레이드 러너〉가 가져다준 징후적 충격은 상당하다. 지구 밖으로 이주한다는 상상력이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언술조차 차라리 무의미할 정도다. 이유인즉 오늘의 지구촌은 극심한 지구온난화와 크고 작은 국가 및 종족 간 분쟁의 지속, 자본의 뒤편에 숨었지만 더 악랄하게 진화한 계급화⁷⁾와 종족화의 말살적 행태로 종말론적 파국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지구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필자의 비약적 추정만은 아닐 것이다.

복제인간 레플리컨트의 출현 역시 현재의 살풍경에 빗대어볼 때, 외면할 수 없는 리얼리즘이다. 타자를 통해 자아의 욕망을 실천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촉발된 레플리컨트의 범람은 현재 천민자본주의 계급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비극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복제화의 그림자 속에서 자아 상실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영화 속 레플리컨트의 저항과 교란, 자신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의 현실엔 철저히 거세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예수라는 키워드를 위협의 범주에 놓고 살펴본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위협 키워드로서의 예수와 레플리컨트는 경이로울 정도의 공통점을 갖는다. 레플리컨트가 이념과 인종, 정치적 대립을 몽개버린 자본의 욕망이 탄생시킨 대리자⁸⁾라는 정의가 가능하다면, 그 대리자⁹⁾는 결국 욕망의 궁극인 절대타자와 관련된 자본의 하위호환 매개로 기능할 수

7) 이 명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주요한 선행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케리그마를 통한 초역사적 합의점 도출이 그것이다. 초역사적 논의는 역사를 거부하는 접근이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는 다양한 접근 중의 하나인 질문들을 끌어내는 가능성이 있다. Rudolf Bultmann, *The primitive Christian kerygma and the historical Jesus*. 1964. 참고.

8) 자본의 소유 여부로 분류되기 시작한 계급화는 그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계급화의 방법론을 소환하기에 이른다. 조돈문,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39. no.2, 2005. 참고.

9) 박성희, “사이버 공간의 대리자아 아바타의 역할 유형분석”,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2004. 참고.

밖에 없는 숙명을 지낸다. 기능체가 숙명적으로 자본과 욕망의 함수관계라는 전체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탈주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 당연할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레플리컨트를 개발·탄생·운용시킨 자본의 온전함일 것이다.

하지만 〈블레이드 러너〉의 영화적 상상력은 그 온전한 자본주의의 산물에 저항·투쟁·생존의 존엄이란 가치를 이식해 새로운 저항주체의 탄생을 예고하고 구체화했다. 게다가 극단적 상상력 위에 덧입혀진 미디어 틀을 통해 이를 출범시키기까지 했다. 비록 할리우드 무비 마켓으로 대표되는 거대 자본의 힘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참패했지만 1980년대를 관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담론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리메이크 작품까지 원작의 전철을 혁명적으로 답습했다. 자본의 그늘에서 서식했음에도 자본의 당위적 욕망을 배신한 것이다. 속편은 레플리컨트의 망령이 욕망의 카르텔로 견고히 묶여 있는 할리우드 무비 마켓을 교란시키며 변종으로서 재출몰했다.

예수의 존재 가치 역시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레플리컨트와 같은 궤적을 밟는다. 예수를 추앙하던 세력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떠받든다. 예수는 동방박사로 대표되는 학자들의 지지를 얻은 뒤, 당대의 기린아 세례 요한에 의해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인정되었다. 일단 이렇게 주목받는 공인이 되자 이른바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었고, 이로 인한 후광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을 것이다.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한 주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 곧 욕망의 집산체로 옹립시킨 욕망 그 자체다. 욕망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자아 활동을 거세시키면서까지 헌신한 절대타자로서의 신, 메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만 한다. 유용성을 향한 이 집요한 욕망은 강한 신정국가의 탄생을 욕구하는 동시에, 예수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자신들이 전신했던 욕망의 규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예수는 욕망의 주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작이다. 레플리컨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역시 욕망이 전신했던 어떠한 기대와 요구에도 부응하지 않는다. 그는 ‘유대인의 왕’ 자리도 걷어치우고, 정치적 혁명가의 길도 걷는 등 마는 등 한다. 예루살렘 입성조차 시큰둥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떠밀리듯 예루살렘에 들어간 뒤에도 속된 말로 ‘병맛’을 연출해 보인다. 그로 인해 예수를 따르던 지지자들은 대부분 등을 돌리고 그나마 여자와 아이들만이 예수 곁에 남았다.

그러는 사이에 기득권층,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을 원하는 이들, 절대타자를 통해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탈욕망적 교란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저항과 불순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제거하려는 음모를 획책한다. 레플리컨트 제거 임무가 주어진 존재 ‘블레이드 러너’ 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라는 기괴한 위험인물의 제거가 과제로 떠오른다. 그렇게 해명 불가한 교란체 예수의 마지막은 십자가 처형이었다.¹⁰⁾

10) 유지미, “역사적 예수의 처형 배경에 관한 고찰: 복음서에 드러난 적대자들의 예수 이해”, 『장신논단』 no.39, 2010. 참고.

교란체 예수를 바라보는 욕망의 주체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저앉힌 원본 인간들. 이들은 서로 다른 서사적 맥락 속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남겨놓는다.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하는 레플리컨트의 불가해한 낭만은 영화의 절정 부분에서 극적으로 구체화된다. 레플리컨트 로이는 자신을 쫓던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가 위기에 빠지자 놀랍게도 그의 손을 잡아 구해준다. 화면은 곧 영혼의 불멸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날갯짓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소 적나라하긴 해도 구원 행위를 강조하기에는 최적의 상징이다.

한편 예수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말하자면 학살의 욕망에 빠진 ‘노예’들을 향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연민을 보인다. 반성 기제를 거세당한 우상숭배자들은 분명 욕망의 주체가 아닌 욕망의 노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가운데 노예는 자기 주도권을 가질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는 레플리컨트 로이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로이는 서늘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간 욕망에 대한 최소한의 질문, 자본의 어둠과 폐쇄성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부드럽지만 강력한 질문을 남긴다.

물론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레플리컨트는 거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타이렐사의 생산품이다. 하지만 레플리컨트가 인간의 제한적 욕망을 구체화시킨 욕망의 집산체라면, 예수 역시 메시아를 갈망상상디자인해온 인간의 무제한적 욕망의 구체화된 집산체란 점에서 소름 돋는 공통점을 갖는다. 차이라면, 자본의 아들에게 인간은 제한적인 범주의 기능 수행을 욕망한다면 신의 아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욕망을 투사한다는 점이다. 사실 욕망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이러한 제한/무제한의 범주 차이는 하나로 녹아내린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하지만 예수를 기획·개발·생산·소비하는 (욕망 주체인 척하는) 욕망 노예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신의 아들이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아들이어서도 안 된다. 절대타자인 신의 아들로서만 머무르면 욕망의 대리 행위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절대자이인 사람의 아들로서만 머무르면 사람의 약점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기에 그 실망감 역시 감당할 수 없다.

〈블레이드 러너〉는 절대타자를 통한 대리 실현의 욕망을 자본주의 사회와 결합해 사유한다. 또한 사실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자본의 욕망 안에서 하나로 녹아버린 현실에 대한 사유의 지평을 확보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레플리컨트를 나란히 놓고 성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타자에게 전가된 욕망에 대한 상징을 성서에서는 바벨의 욕망으로,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유용성의 극한으로 배출해낸 타이렐사, 곧 자본의 욕망으로 교차 대비하고 있다. 판타지와 리얼리즘 사이에서 어느 한 지점을 모색하는 일은 두렵지만 흥미로운 일이다.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 하나의 화두로 제시된 AI와 성경 이야기, 그 안팎에서 벌어지는 탈역사적 상징을 살펴보는 독법이 유의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X.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한 편의 영화만으로 AI의 징후와 그 양상을 예측하는 건 침소봉대의 담론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그 예수 담론에 담긴 교훈과 오늘날의 AI가 생성되고 자본에 포섭되어 개발되는 비인간적 흐름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명징한 징후의 독법으로 읽는 태도는 분명 유의미할 것이다

자본의 욕망은 비단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동시에 도리어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자 않고자 발악하는 문명 추구의 욕망 자체가 인류 스스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교훈이 분명 오늘의 교회, 오늘의 예수 이야기에는 충분히 담겨 있고,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오늘의 교회는 전통과 급변성 앞에서 택일을 요구받고 신앙적 결단을 결행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욕망 너머에 있는 참된 휴머니티의 전거인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말씀을 숙고하는 태도 지속을 전통으로 인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듯 하다. 그런 의미에서 AI시대에서의 교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효과적인 선교와 교회의 유의미함의 재확산으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AI 시대, AI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분석하는 독법의 유연함을 습득하는 길이라 본다. 교회의 기능은 이제 첨단 문명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 가치의 상고를 입체적으로 지속하는 일일 것이다.

예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본 소논문을 통해 그 불변이 상태의 불변이 아니라 가치의 불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바야흐로 AI, 인공지능의 본격 도입으로 인해 인간다움에 대해 더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한 편의 영화로 이 복잡한 논의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 종교의 역할이 될 수 있진 않을까 기대해 본다.

논 찬 1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생각하며”에 대한 논찬

최 성 훈 박사

(한세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와 사회)

1. 들어가는 말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Open AI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ChatGPT 3.5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 Weak Artificial Intelligence)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의 소통을 보다 자연스럽게 하며 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¹⁾ 주원규 박사는 그것이 AI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을 마주하며 인간의 본질과 윤리적 대응 안에 대하여 1982년과 2017년에 상영된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를 통해 조명하였다.

2. 인간과 복제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블레이드 러너(1982)와 블레이드 러너 2049(2017) 모두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앞에서 인간의 본질(인간됨)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하지만 두 편의 영화가 그린 미래사회의 모습은 단지 제작 시기에 즈음하여 가늠해 본 상상력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주박사

1) 최성훈, “인공지능과 한국교회: ChatGPT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58 (2023), 112.

는 그러한 상상에 근거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복제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됨을 조명하며, 이를 복제인간을 양산해 낸 자본주의적 탐욕과 대조하였다. 그러한 탐욕을 바벨탑 사건과 연결하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이상으로 묘사한 것은 타당하고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이 되는 어두움은 밤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인간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해석한 것도 납득이 가지만, 신학적으로 불분명한 네퍼림의 개념을 이스라엘과 대조하여 풀어낸 것은 다소 위험한 확대해석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진보가 극에 달하는 미래에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시점에서 수퍼 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인간 정신을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호모 데우스(Homo Deus)적 논리를 분석하여 대응안을 제시하는 현대적 적용으로 연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²⁾

주박사는 두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복제인간들의 존재가 인류에게 유용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적하며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적용하여 성자의 존재 의미를 신비의 영역과 치명적 위협의 영역으로 양분하였다. 하지만 그같은 양분의 토대가 인간의 욕망 내지는 자본주의를 통해 대변되는 이기적 탐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추앙한 것과는 반대로 예수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군상이 그리스도를 교란체로 간주하여 십자가 위에서 처형한 사실을 통해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냈다. 주박사는 블레이드 러너 테크드를 살리고 죽음을 맞이한 복제인간 로이를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와 비교하며 넥서스-6(Nexus-6) 단계에 해당하는 복제인간으로서 4년이라는 유한한 수명의 굴레를 씌우고, 메시아를 처형한 원동력이 바로 바벨의 욕망이자 자본의 욕망, 즉 인간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주박사 본인도 지적하듯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제인간 로이는 거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타이렐사의 생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을 높이려는 야망과 죄성에 빠져 복제인간 생산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 탐욕을 채우려는 생각 또는 대책이 없는 성급함을 분석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한 복제인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그러한 이기를 온전히 누리면서도 인간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신학적 인간론일 것이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이 만든 복제인간의 존재에도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이다.

3. 나가는 말: 교회의 고민

2) 최성훈, “호모 데우스(Homo Deus)와 이마고 데이(Imago Dei): 트랜스 휴머니즘의 인간론에 대한 신학적 비판”, 『영산신학저널』 63 (2023), 87-88.

주박사는 한국교회가 AI 시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독법의 유연함(AI Literacy)을 습득해야 하며, 첨단 문명에 대하여 불변의 가치를 상고하는 과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옳게 지적하였다. 그러한 결론적 주장에 앞서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욕망의 실체에 대한 지식과 욕망 너머의 인간론적 전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숙고하는 태도를 요청한 점도 타당하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했지만, 논지가 문제 제기에 중점을 두어 교회의 대응안이라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전개가 다소 짧아 아쉬움이 있다. 전편인 블레이드 러너(1982)에서 묘사된 미래 사회인 2019년의 양상이 2024년의 현실과 거리가 있듯이 속편인 블레이드 러너 2049가 그리는 미래상에 대한 예상을 통해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가운데 여전히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를 허무는 해체주의적 사고의 영향 아래에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시대와의 소통과 더불어 불변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방식이 요청된다. 인간과 복제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개체와 종, 생명과 죽음, 질서와 무질서 등의 대조가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조명하도록 하는 신학적 인간론의 강화가 그러한 교회의 과업 수행에 공헌할 것이다. 이는 결국 성경의 가르침(the Text)을 중심으로 변화무쌍한 시대적 상황(the Context)과 상호작용하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재개념화에 다름이 아니다. 수많은 시각적 상징들과 철학적 의미를 내포한 두 편의 영화들을 조명한 주박사의 연구는 미래상을 조명하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등 문화예술작품들을 기독교 복음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중요한 사역의 일환이다. 제한된 시간과 지면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비판적 제언을 제시하였지만, 그의 목회자요 신학자로서의 고민을 공감하며 응원의 박수와 함께 동역의 다짐을 보낸다.

논 찬 2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생각하며”에 대한 논찬

윤 종 진 박사

(호서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리더십)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DNA의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 1970년대 유행처럼 번진 인간 복제에 대한 상상과 논의,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끝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인간"에 대한 질문은 창조자(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낳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상상은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졌고 많은 논란 가운데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를 통한 세상과 문화 읽기라는 주제는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AI, 복제인간, 교회라는 사뭇 이질적인 단어들로 구성된 논문이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기에 관심가는 논문에 대하여 몇 가지 논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1993)와 드니 빌뇌브의 〈블레이드 러너 2049〉(2017)와의 차이는 단순히 24년의 시간적 차이만이 아니라 감독의 세계관, 즉 그들의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스토피아적인 SF 비주얼의 상이점이 주는 차이점 외에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감독의 관점과 해석에 대한 차이가 생략되어 버린 불친절함과 두 영화의 해석과 예수에 대한 접합 부분의 평면적이고 편향적인 담론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과의 연관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찰보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일방적인 관점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좌표상으로 두 점과 다른 한 점을 이음으로 입체적이되기도 하지만 지향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편과 주류에서 벗어나려면 더 투철하고 철저하게 2천 년의 역사로 축적된 학문의 깊음과 넓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실확인에 대한 오류가 엿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마르크화와 영국 파운드화의 몰락,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한 미국 달러화의 세계 무대에 기축통화로의 등장,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자본의 폐해로 인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으로 인한 불안과 그 타개책으로서의 폭력을 강조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넷째, 욕망의 화신으로서의 예수를 아바타, 교란체, 레플리컨트로 대변되는 자본과 욕망 그리고 불안, 공포, 두려움에 대한 이해와 상관관계의 설명이 정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명제처럼 종교개혁 이후 예수의 말씀도 그 어느 누구에 독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대중문화에게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서로의 영역에 대한 크로스오버가 일상화되고 대중문화가 신학과 교회에 담론을 주는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서로의 영역에 대한 고유함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다면 그 또한 폭력이고 욕망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논 찬 3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와 2017년작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생각하며”에 대한 논찬

주 희 현 박사

(홍익대학교 / 실천신학 / 문화예술경영학)

‘AI를 묻는다, 복제 인간을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묻는다’는 AI의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인간다움에 관한 윤리의 훼손과 도전에 관해 교회가 어떤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나아가 이에 관한 신학적 고민과 목회 현장에서의 고민과 대안을 공유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와 2천년대 이후에 대두된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폐해를 다룬 사이버 펑크 대표작 ‘블레이드 러너’를 레퍼런스로 삼아 그 고민과 과제를 접근하는 문화비평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적 핵심은 AI의 전신으로 알려진 영화 속 레플리컨트(복제인간)를 밤과 은폐, 복제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원본에 대해 과한 강박을 품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연결한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을 원본에 관한 욕망과 연결하고, 현대사회에 적용하여 자본의 모순으로 상징한다. 논자는 바벨탑과 우상에 대한 성경 속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AI로 상징되는 복제인간 레플리컨트를 인간 문명에 조력하는 용이함, 편리성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두뇌가 산출한 문명 발전의 위험성과 비교하고, AI 발전 자체가 가져오는 극단적 양면성의 현실을 밝혀낸다. 아울러 오늘날 예수 키워드를 적용하여 인간의 문명 집착과 욕구가 도리어 승배의 습성을 소환하고 있지 않음을 성찰하며 레플리컨트(복제인간)와 예수 혹은 예수 키워드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비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기능이나 성찰의 접근법이 불편가치의 응

호를 준수하면서도 그 급변성에 유연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보다 진지한 문화, 매체적 질문과 소통이 필요함을 개진하고 오늘의 교회가 계토화 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점 설정에 유의미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준하여 두 가지 의문과 제언을 남기고자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 인간과 AI의 관계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복제 인간의 아이디어가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적 상상력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SF 창작 영역의 문제를 실제 기술 발전과 직결해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에 관한 저자의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예수 키워드, 예수 스토리텔링과 AI 상징성인 복제 인간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설명되고 비교되고 있는지 조금 더 명료하고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전형적인 신학 논문의 틀을 깨고 평론과 컬럼 사이를 넘나드는 기술(記述) 방식 낫설지만, 논자가 결론부에 제시한 대로 'AI 시대, AI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분석하는 독법'과 그 유연함을 습득하는 길의 예시를 보여준 유의미한 연구라 여겨진다.

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 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제 3 발표

알파 세대의 특성과 기독교교육적 소통에 관한 연구: 요한 복음 4장을 중심으로

문진형 박사

(백석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시대는 언제나 변하고, 새로운 세대는 등장한다. 사회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넘어, 코로나 시대와 뉴노멀의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¹⁾ 이 위기가 코로나19의 시기를 거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교회학교의 위기를 넘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걱정 어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

이러한 현실은, 지나간 시간 동안에 변화하는 시대를 한국교회가 그리고 교회학교가 따라잡지 못하거나, 변화하는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시대를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일이나, 변화되는 세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교수학습을 연구하여 대비하는 일에 모자람이 있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1) 이수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회교육 현황 연구: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8(2022), 445.

2) 윤광식, “2030년에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 비관 전망, 「한국기독일보」 (2022.02.08).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일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학교가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대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향한 교육 목회적 노력과 더불어, 다가오는 세대인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볼 수 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일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알파 세대의 이해를 위한 신문 기사와 연구 저널 등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밝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기독교교육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전망하고, 요한복음 4장의 주해적 접근과 성경 신학적 관점을 토대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대화와 소통의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알파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은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지칭한다.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들은 2010년대부터 2024년에 출생하는 이 세대를 알파 세대 (Generation Alpha)라고 명명했다.³⁾ 기존의 알파벳으로 이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대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세대가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 이상 되는 가장 큰 세대층을 이루게 될 것이며, 소비 시장에서도 1/3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가 알파 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들의 인구는 상당하고, 이들의 부모들은 밀레니엄 세대로 소비 여력과 자녀에 관한 관심이 큰 세대이다. 따라서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아이들 역시 디지털과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알파 세대는 초저출산 시대와 인구 감소의 시대에 태어난 귀한 세대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알파 세대의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1%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막대하다. 명품 시장에서는 이들을 VIB (Very Important Baby)라고 부르고 있다.⁴⁾ 왜냐하면, 이들의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는 물론, 친조부모, 외조부모, 삼촌과 이모

3)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Understanding our Children and Helping Them Thrive, Headline Home, 2021.

까지 8 포켓(Eight Pocket)이 가정에 한두 명인 알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비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 양육과 교육, 더 나아가 게임과 같은 놀이 문화의 콘텐츠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 또한, 시간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의 제대로 된 양육을 바라면서,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 업종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알파 세대는 자신들이 직접 소비에서도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AI 스피커에 익숙한 이들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구독 혹은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아마존의 AI 스피커 서비스인 알렉사(Alexa)를 포함한 많은 경우에, 음성 인식과 동의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알파 세대는 그 인구와 경제적 파급력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아직 다 성장한 세대가 아니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되고 예측되는 이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AI 원주민(AI Native)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온리(Digital-Only)이다. 이 세대는 단 한순간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기가바이트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에 태어났기에, 이 세대는 글자를 배우기도 전부터 터치스크린을 통하여서 화면을 넘기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영상을 본다. 아날로그 방식을 경험한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의 공간과 함께 자라나는, 이전까지 없었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가진 세대가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에 익숙해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는 이전 MZ 세대와의 알파 세대의 차이점은 바로 AI 스피커이다. 대표적인 AI 스피커 서비스인 애플사의 시리(Shiri)는 2011년, 아마존의 알렉사(Alexa)는 2014년,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는 2016년에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 서비스들은 알파 세대의 출현과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생후 18개월 된 영국 아이가 생후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Alexa” 였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⁴⁾ 기사에 따르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보다 알렉사를 먼저 말했으며, 이것은 AI 스피커의 대중화와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AI 스피커인 에코 닷을(Echo Dot) 어린이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기기는 아마존 에코라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알렉사의 키즈 에디션

4) 우리 문화, 전에 없던 신인류의 등장 ‘알파 세대’를 주목하는 이유
http://urimunhwa.or.kr/data/vol319/sub/sub01_06.php

5) <https://www.businessinsider.com/baby-says-alexa-as-first-word-report-2018-6>.

(Kid's edition)을 GPS가 탑재된 웨어러블 형태의 기기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유행하는 이유는 자녀가 너무 오랫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크린만 보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밀레니엄 세대 부모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아마존 에코나 알렉사는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철자, 발음 연습, 읽기, 말하기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포브스(Forbes)의 연구 역시, AI 스피커는 재미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몰입하게 하며, 캐릭터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보모의 역할을 AI 스피커가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다(Digital Nanny).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 부분 역시 AI 스피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고통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AI 스피커에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알파 세대의 아이들은 AI 스피커에 익숙한 정도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지기에, 이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서 AI와 소통하며, 그 자체를 개인화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전 세대가 유튜브나 AI 스피커의 알고리즘을 그저 받아들이고 이용했다고 한다면, 알파 세대는 이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알고리즘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자신의 생각과 만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가를 고민한다.

2. 가상 현실 (Metaverse)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는 이 세대에게 있어서 디지털 기술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 삶의 부분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내는 방식이 된다. 디지털화되어있는 콘텐츠들은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 가상 현실이라는 메타버스의 세계 안에서 인간관계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과 디지털, 메타버스(MetaVerse)를 분간하는 것은 이전 세대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현실과 온라인 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성장하게 된다.

코로나 19라는 펜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학교 수업, 친구 관계, 쇼핑을 포함하는 대부분이 디지털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이다. 실제로 상대방과 얼굴을 보며 뛰어노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이 세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동네 친구들과 온라인 상에서만 만나는 친구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6)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19/07/08/the-rise-of-ai-enabled-smart-s-peakers-and-their-future-in-our-lives/?sh=2b9915235abb>

이러한 온라인 혹은 가상 현실 기반의 인간관계 형성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들과 만나 기존의 어떠한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초연결성의 세대를 만들어낸다. 알파 세대의 인간관계는 온라인 오프라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가상 현실을 기반으로 이미 어릴 적부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III. 알파 세대의 특징과 교육

위와 같은 사회적 시대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알파 세대는 다음과 같은 정서적 특징들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이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세대

인구 감소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고, 팬데믹을 겪었으며, 8포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파 세대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알파 세대의 아이들은 부모와 주변의 관심을 혼자서 받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어릴 적부터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인정받는 상황에 상당히 익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기에 알파 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높음과 동시에,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한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능한, 혹은 자신에게 특화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브록스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의 환경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남들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높은 자존감과 개별화된 특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경향은 획일화된 교육이나, 강의식 교육은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 능동적 주체적인 세대

알파 세대가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력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스스로 SNS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팔로우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 이러한 이 세대의 행동은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되려는 성향 역시 가지고 있다. 이미 알파 세대 가운데서는 라이언 하지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등장했으며, 수많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인터넷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응용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는 일

에 익숙한 세대이다. 알파 세대는 AI와의 소통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는 것에도 익숙하다. 지능형 AI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일이 필요하다. 유년기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노출되고 또 익숙하게 되는 알파 세대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며, 자신의 질문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예측하고, 자신이 내리는 명령에 대한 AI의 대응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논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특징은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습자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개인화된 목표와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술 등이 알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교육의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습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는 에듀테크(Edu-Tech)의 영역이 발전하고 있다.

3.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이 말은 한국어로 게임화로 번역된다. 게임이 아닌 다른 영역에 게임의 요소나 게임의 방식을 통하여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로나 19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과 원격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학습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에 도입된 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온라인 교육을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획된 교육은 학습자에게 교육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의 유지율이 증가하며, 비효율이 줄어들고,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알파 세대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는 퀘스트를 생성, 리더보드를 통한 시각적 진행 상황 추적, 개인화된 보상의 제공, 액션 기반 콘텐츠 잠금 해제 기능, 즉각적인 피드백,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선택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에는 상당 부분 학습자가 콘텐츠의 이용자로서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체험을 선택하고, 콘텐츠에 참여하며,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알파 세대는 교육에 있어서 참여적 콘텐츠를 선호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소통과 유대감

인터넷 기반과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통한 무한 확장, 이를 통한 글로벌한 관계 확장이 알파 세대의 특성이다. AI 스피커를 통한 시스템도, SNS도,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 현실도, 결국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알파 세대가 추구하는 핵심은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이다.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메타버스의 플랫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가 되거나 유

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소통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관계를 형성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플랫폼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리가 어울리게 되고, 그들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비대면의 관계 안에서도 알파 세대는 연결과 소통을 중요시한다. 이 관계성 안에서 존재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알파 세대에게 있어서 연결(Networking)은 그들의 자아정체성과 관계성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항상 연결을 추구하고, 그 연결 안에서 돌봄을 제공 받고, 제공하는 것에 익숙하게 될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돌봄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 돌봄 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서도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적 관계에 필요성을 보여 준다.

5. 알파 세대의 부정적 특성과 교육

1) 대면 관계에 대한 어려움

알파 세대의 특징은 AI 스피커를 기반한 생활이다. AI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논리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예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일반적 예측의 범위 안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대면 관계의 불확실성과 예측의 어려움은 기계와 인공지능에 익숙한 알파 세대에게 그렇게 달가운 경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알파 세대는 또한 비대면 관계에 익숙하다. 어려서 펜데믹의 시대를 경험하였기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로 대화하는 것이 더욱 편하고 익숙하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 행동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편안하지 않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교육은 대부분 대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교회교육은 대부분 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알파 세대의 비대면적 특성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2) 자기중심주의와 낮은 자존감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태어난 알파 세대는 부모와 주변 친인척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환경 역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맞추어져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여건은 알파 세대의 사고와 감정이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또한, 부족함 없는 환경과, 스마트기기를 통한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다는 것은, 인내심과 절제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이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사고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SNS와 Youtube를 통하여서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가지게 된다. SNS나 유튜브의 특징은 구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알파 세대는 삶의 기준 자체가 자신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온라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SNS와 Youtube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장된 혹은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서 풍요로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콘텐츠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태도와 낮은 자존감의 가능성은 알파 세대가 사회적 소통과 대면을 통한 사회적 관계 발전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믿는 것이 핵심이고, 내용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와 올바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3) 기능화된 두뇌, 창의력과 통찰력의 부재로 인한 편협한 사고

시사매거진은, 어린아이의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큰 그림보다 작은 세부사항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현재 세대의 주의력과 인지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의 한 부분이라고 보도하였다.⁷⁾ 특히, 두뇌가 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게 되는 알파 세대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주어진 정보를 필요한 것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알파 세대는 상식과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비균형적 두뇌 발달로 인하여서 편협한 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파편화된 정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대상인

7) <http://www.sisanews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9>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IV. 알파 세대의 특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고민

변화하는 알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그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개별화된 교육

알파 세대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주변으로부터 소중한 아이의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대에게 기존 교회학교의 방식을 고수하며 일괄적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은 대상에게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2) 소통하는 교육

알파 세대에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의사소통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대의 의사소통은 이전까지의 세대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사람보다 AI 스피커와 의사소통을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며, 어쩌면 AI 스피커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익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감정과 태도, 표정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비교적 적은 경험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소통을 통하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한 가진 점은 AI 스피커와의 대화에 익숙한 이들이, 논리적 사고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질문을 만드는 일에 익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스피커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알고리즘의 이해와 AI가 대답할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알파 세대는 이러한 학습 과정에 적응이 되어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서 성경에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성경의 내용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교회학교 교육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현실 속에서 바른 자아를 찾아가는 교육

알파 세대의 현실 인식은 그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에 기반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알파 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유튜브 쇼츠(Shorts)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들은 가상세계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아

바타를 통하여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SNS나 가상세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관심을 받고자 자기 과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소셜 서비스나 가상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현실을 기반하긴 하여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콘텐츠를 부각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과 가상세계를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유튜브에 익숙하며,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알파 세대는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들을 사실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 과시용 콘텐츠나 가상세계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은 대부분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알파 세대는 자신이 사는 현실에 기반이 아니라, 자신이 접하는 온라인의 세계를 통하여서 상대적 박탈감과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바탕으로 하는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에게 현실에서의 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자아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관계들에서는 줄 수 없는, 튼튼한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V. 기독교 교육적 소통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대화

알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기독교 교육적 고민의 내용을 정리하면, 개인 중심의 교육과, AI 기반의 논리적 사고와 질문에 익숙함,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자아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의 목적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즉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은 기독교 교육이 목적해야 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그의 의도는 결국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시며, 그녀와 소통하시며,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시게 된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알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적 고민에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1.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 및 태도

1) 사회적 기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사마리아 여인은 제 육시쯤 되어서 물을 뜨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로,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곳에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⁸⁾

8) D. A. Carson, John: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217.

성경은 또한 그녀가 다섯 남편이 있었으며,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기록한다. 인간관계에 실패에서 오는 괴로움과 낮은 자존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그녀의 증언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움직였다는 사실은(요 4:30),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요소 혹은 무엇인가 풍부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해주며, 수가 성이라는 지역에서 그녀의 인지도와 평가는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기준에 근거해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녀의 내면은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

2) 자기 논리를 기반으로 공격적 질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한복음 4: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4:11)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요한복음 4:12)

여인의 질문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요청을 일단 거절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습에 대한 상대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이 관습을 깨고 자신에게 다가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은 모두 여인의 자기중심성과,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 인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논리와 지식에 반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9) 이미영, 질문과 침묵으로 신학적 공간을 창조한 익명의 두 여성,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2022, 39p. 41-73. 55

2.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소통 방식

이러한 여인에 태도와 질문에 예수님이 대하시는 소통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찾아감 (Visiting)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장에 영어 번역은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로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 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온 모리스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안에서 강요된 신적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한다.¹⁰⁾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의 사역 가운데 하셔야 하는 일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 성에 가셨으며, 그 목적을 가지시고, 먼저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장소는 사마리아이고, 상대는 유대인들이 냉대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대적 상황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먼저 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2) 인내 (Perseverance)

여인의 태도와 그 말하는 내용은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이나 배려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내용, 불신하는 태도,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보인다.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이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지도 않았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 그 여인의 태도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대화의 내용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다른 주제로 응대하신 것이다.

소통이 어려운 경우, 혹은 대화의 상대가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3) 관계적 신뢰 (Relational Trust)

예수님은 불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보여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그 여인에게 필요한 대화의 내용을 계속 전달하시면서,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전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부류의 유대인, 즉, 관습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을 적대하고,

10)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p. 225.

여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 오히려, 그녀와 같은 편에 서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과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해와 공감을 위한 대화 즉, 관계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¹¹⁾

4) 긍휼 (Compassion)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고, 이 여인의 차가운 태도와 냉소적 반응을 참아 주시고,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이유는 이 여인에게 단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인이 정말로 필요한 생명의 물인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그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며,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여인에게 하신 모든 행동의 이유이자 근거이다.

3. 알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적 적용

알파 세대는 어쩌면 현재의 세대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해야 하는, 기독교 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나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알파 세대를 기독교 교육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며, 이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무관심을 넘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소통을 이루시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은 알파 세대를 대하고

11) 유혜숙, 상호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근거하여, 신학전망 183, pp 134-183. 157. (2013)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현재의 교회학교에 필요한 내용이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소통의 방법을 알파 세대의 교회학교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적극적인 다가감 (Positive Visiting)

알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은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혹은 목회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가의 부분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빛진 자로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큰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차이들은 비교적 작게 보일 수 있다. 세대 간 생각의 차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전통이나 예의, 사회적 규범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접근이 어렵다는 편견보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회적 전통과 지역적 차이, 남과 여라고 하는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된 행동은 복음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가 되며, 그녀를 가르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셨던 기독교 교육적 의도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알파 세대는 AI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이 필요한 대부분을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AI 스피커가, 대면 관계보다 비대면이나 아바타를 통한 관계가 익숙해질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대면 관계이고, 그를 통한 신뢰 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알파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일은 신앙 전수와 믿음의 성장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필수적인 시작단계가 될 것이다.

2) 인내를 통한 점점 파악 (Perseverance and Contact Point)

알파 세대는 윗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자기중심적 사고 구조를 보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하다. 자기 자신의 논리를 구축하고,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 이외의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은, 어쩌면 이들에게 이질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논리의 체계와 비슷하지 않고, 내용 역시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과 비슷하거나 공유되는 것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나름의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알파 세대에게 성경의 논리와 세계를 처음부터 받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으며, 억측에 가까운 질문들을 만들어 낼 지도 모른다.

이 때에 필요한 것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접점을 찾아낼 때까지 인내와 수고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고, 시종일관 비협조적 태도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포함하는 질문들을 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에 즉각적인 반응이나, 감정적 태도로 대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 여인의 행동을 참아주시며 그녀에게 필요한 주제를 찾아 나가고 계신다.

상대방이 불편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그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과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3) 연대감과 신뢰감 (Trustworth and Fellowship)

적극적인 접근과, 인내심을 가지고 접점을 찾는 노력은 연대감 형성과 믿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알파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소통과 연대감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같은 편을 찾아서 돌아 다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전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기편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관계안에서는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알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다. 똑 같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같은 위치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알파 세대의 귀에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복음이다. 따라서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알파 세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내용과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자기 편을 원하고, 연대를 기대하는 알파 세대에게, 그들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신뢰감을 얻는 일에 성공한다면, 기독교교육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위에서 열거하는 과정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적 관계의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고,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알파 세대는 이전까지의 어떤 세대보다 기독교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르치기 어려운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어려운 점은 가르쳐야 하는 세대와 배워야 하는 세대가 공통점을 가지고 소통과 연대를 이루어나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가르쳐야 하는 세대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조금 더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알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와 믿음의 성장의 문제, 즉 기독교교육적 고민은 성경의 시대 때부터 있었다. 매번 그 어려움의 크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소명은 바뀌지 않았다.

알파 세대는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많은 점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 상황과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태도, 성품은 기존의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다를 수도 있다. 기독교 교육을 진행하기에 불리한 점들도 분명히 이전보다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알파 세대를 향한 교회의 고민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들을 마주 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접점을 찾아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연대를 진행하여, 신뢰 관계를 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려는 기독교 교육의 분야의 연구가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용원,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2013), pp. 37-73.

- 김민,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청소년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3, (2022), pp. 1-24.
-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증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22 (2022), pp. 126-163.
- 김영아, 한정엽, “메타버스 기반 알파 세대의 조형예술 교육 사례 연구 및 활용 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17, (2022), pp. 273-282.
- 노항규,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치유언어-내면가족 체계적 대화분석.” 『목회와 상담』35 (2020), pp. 46-72.
- 백경화, 하은아, “로블록스 주 이용자 특징에 따른 마케팅 방식 연구: 나이키, 구찌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9, (2023), pp. 229-238
- 이미영, “질문과 침묵으로 신학적 공간을 창조한 익명의 두 여성.” 『목회와 상담』 39 (2022), pp. 41-73.
- 이소현, 장은미, “MZ세대의 소비문화-콘텐츠커머스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61, (2023), pp. 49-95.
- 이승민, 나은선, 이평구, “알파(Alpha) 세대 유아의 특징에 대한 조사연구: 사립 유치원 유아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2022), pp. 183-199.
- 이승연, 정영현, 이정연, “포스트 Z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평가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1, (2021). pp. 1-24.
- 이예슬, “MZ세대의 문화예술 트렌드.” 『한국예술연구』, 28, (2020). pp. 341-350.
- 홍선옥, 강현욱, “딥러닝 기반 체육활동에 참여한 알파 세대 학습경험이 성취도와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21, (2023), pp. 61-80.

논 찬 1

“알파 세대의 특성과 기독교교육적 소통에 관한 연구: 요한 복음 4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손 문 박사

(연세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코로나 19 이후에 침체 상황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소통의 대안을 찾는 노력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독교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구자가 주장한 변화하는 세대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가진 중요한 기독교교육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알파 세대는 전혀 새로운 세대의 탄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알파 세대가 지닌 주목할만한 특징은 디지털 공간에서 AI의 정서적 지지를 가지고 소통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된 인터넷과 같은 가상 현실에 기초한 인격 형성의 환경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주장과 같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의 환경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인격을 새롭게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알파 세대에게 있어서의 교육적 장애는 이전 세대와 달리 연구자의 주장처럼 대면 관계에 대한 부적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와 사고에서 비롯된 편협한 사고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자는 그러한 문제의 교육적 대안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모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찾아감, 인내, 관계적 신뢰와 긍휼은 연구자의 주장과 같이 알파 세대를 향한 중요한 교육적 대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논찬자는 연구자의 주장에 더하여서, 그러한 알파 세대와의 점점 그리고 연대감과 신뢰감을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이것은 교육 환경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다. 연구자의 주장 속

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적 모형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 남성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요 4:9)라는 여인의 말을 통해 짐작이 가능하다.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접근이 어려운 교육의 환경이 존재한다. 펜데믹 이후 기독교교육 환경은 심각한 침체의 상황 속에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접근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다가가야 한다.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시대는 거부와 거절이 일상이 된 교육의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학습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인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에는 알파 세대가 머물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역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익숙한 교육의 환경으로 들어가서, 기독교교육을 시행하고 적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딥러닝(Deep Learning)의 학습 환경을 통해서 강력한 목적 지향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에 채택된 다양한 알고리즘은 그러한 목적 지향성을 공고히 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목적 지향 시스템에 적응한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가능한 접점을 찾는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20세기 후반 거대 담론의 시스템에 저항하며 의사소통이론을 통해 생활세계와 시스템의 균형을 주장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노력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목적 지향의 시스템은 AI의 강력한 도구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된 생활세계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순수한 인간성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자연 생태계로의 회귀로도 볼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모습으로의 회귀가 강력한 목적 지향성으로 무장한 AI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소극적인 그리고 소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논 찬 2

“알파 세대의 특성과 기독교교육적 소통에 관한 연구: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신 현 호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코로나 이후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뉴 노멀의 상황에 대응하는 교회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진형 박사는 알파 세대로 분류되고 있는 학습자를 위한 기독교교육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알파 세대가 2010년대부터 2024년에 출생한 세대로서 AI와 메타버스와 같이 디지털 중심의 문화를 배경으로 태어나 부모의 소비를 촉진하며, 글로벌한 관계망에 친숙한 세대라고 이해한다. 또한 연구자는 알파 세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소통과 유대감을 중시하는 세대이기에 개별화, 참여와 연결과 소통 중심의 교육, 그리고 자아를 찾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찾는 소통의 특징을 찾아감, 인내, 관계적 신뢰, 그리고 긍휼로 보고,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적용점으로 대면관계를 통한 적극적인 다가감, 인내를 통한 접점(contact point)의 탐색, 연대감과 신뢰를 쌓는 교육,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디지털 소비문화 시대, AI와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알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출발점과 방법을 위해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모델을 찾으며 기독교교육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기초적인 요소를 재조명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알파 세대가 건강한 신앙과 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을 향한 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내,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재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연구 분야의 확장에 공헌함에 감사드리며, 논찬자는 본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소소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II장에서 한국의 알파 세대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알파 세대의 특징으로 언급한 AI원주민과 가상 현실이 과연 2010년대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특징을 대변하는지도 생각해 볼 지점이다.

둘째, 디지털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알파 세대에 대해 기독교교육이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관심, 긍휼, 인내,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기독교교육적 적용에서 이 가치들을 알파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치들은 알파 세대 뿐만 아니라 MZ세대, 밀레니엄 세대, X세대, 산업화 세대 등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또한 적용점에서는 알파 세대에게 친숙한 디지털 및 온라인 기술을 통해 다가가는 기독교교육 방법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셋째, 알파 세대가 부모의 소비를 촉진시키며 자기중심적인 세대라고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알파 세대의 부모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을 위한 교회-가정 연계 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외에 논문 형식에 있어서 각주 인용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각주 3번 각주: 출판사 지역 누락 및 제목 이탤릭체; 4번 각주: 각주 내용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저자명 생략 및 형식 보완.) 또한 내용에 있어서 연구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II장 두 번째 문단, “연구에 따르면... 알파 세대의 비율 11% 예측”의 출처가 불분명함)

본 연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문진형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논찬자가 제시한 질문과 제안은 연구자의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부족하나마 제시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논 찬 3

“알파 세대의 특성과 기독교교육적 소통에 관한 연구: 요한 복음 4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한 성 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학)

문진형 박사는 현대 교회교육의 대상이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알파 세대이며, 이들은 AI 원주민과 가상현실로 정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정서적 특징으로는 1)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2)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3) 게임화된 학습, 4)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한편, 이들은 1) 대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2)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3) 통합적이기보다는 편협한 사고를 하는 등의 부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문 박사는 이상의 알파 세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제시한 알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법들은 1) 개별화된 교육, 2) 소통하는 교육, 3) 현실 속에서 바른 자아를 찾아가는 교육을 제안했다. “개인 중심의 교육과, AI 기반의 논리적 사고와 질문에 익숙함,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자아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0쪽)

문 박사는 알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소통 모델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제시했다. 문 박사는 1)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인한 낮은 자존감, 2) 질문에서 드러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1) 찾아가고, 2) 인내하고, 3) 관계적 신뢰를 형성하고, 4) 긍휼을 베풀었다고 정리했다. 문 박사는 이 사건을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알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모델을 1) 적극적으로 다가감, 2) 인내를 통한 점점 파악, 3) 연대와 신뢰, 4)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등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의사소통의 주요 원리 중 하나는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이다.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

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수용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 점에서 문 박사는 교회 교육의 대상이 되는 2010년에서 2024년에 출생한 연령대를 알파 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의 특징들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기독교 교육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할 때, 기독교 교육 수혜자들이 이해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마을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날 알파 세대가 경험하는 상황과 유사성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알파 세대의 기독교 교육 모델로 제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안에서 이웃들과 대면하며 높은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며 이웃과의 접촉을 회피했다. 인터넷 기반의 알파 세대는 대면 관계보다는 비대면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더 잘하고 더 선호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알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모델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한편, 알파 세대의 거시적 정치, 경제 환경에 대한 언급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명의 아이를 위한 여덟 개의 호주머니 비유가 알파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으나, 이것은 개인적 혹은 가족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다. 알파 세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 했던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들을 경험하고 있다. 알파 세대의 등록금, 교복, 체육복, 급식, 수업 준비물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경험했다. 이들은 교회와 교사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기 쉽다. 과거에는 간식과 선물 등이 체감 필요를 충족하며 교사-학생 사이의 접촉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오늘날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수용자들에 결핍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파 세대의 경제적 풍요는 세대 간 이슈이기도 하다. 현재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빈곤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던 시절을 경험했다. 이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즉, 빈곤 국가에서 성장한 교사는 풍요 국가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을 다른 사회와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알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알파 세대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교사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SNS들 가운데, 알파 세대가 선호하는 SNS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다. SNS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알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돕는 일에 가능한 온라인 방법들과 대면의 방법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문진형 박사는 알파 세대의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회 교육의 방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것은 현재 교회 학생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구호에 그치거나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알파 세대에 대한 진정한 연구와 발견을 하고, 이것을 통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데, 이 연구가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제 4 발표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

김 정 희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

I.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대표하는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는 포용적이고, 협력적이며, 세계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¹⁾ 알파 세대의 기독교영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관상적이고, 현실 세계와 연결하며,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로서 적극 활용하는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알파 세대는 유년시절에 코로나 19 위기를 겪고 회복된 세대로서 독특한 경험을 한 세대이다. 또한 이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인공지능과 상호 작용하며 자라난 첫 세대이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변혁기 변화 과정을 수용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아주 특별한 세대이다.”²⁾ 또한 이들은 가장 긴 수명을 유지하며 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세대로 전망이 된다. 미래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디지털 가상세계를 통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의 가속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가치들”, 즉 “협력과 공존, 감정을 다루는 소통 능력,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도의 전문성”의 강조,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예측한다.³⁾ 교회의 입장에서 이런 예측을 고려해 봤을 때, 미래에는 인간의 고유 영

1)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Hachette, Australia: Headline Home, 2021), 25, Kindle.

2)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서울: 지식프레임, 2021), 14.

역일 수 있는 종교가 강조될 것이며 알파 세대는 21세기 교회의 새 패러다임을 열고 기독교 신앙을 이어갈 매우 중요한 세대로 떠오른다. 기존 세대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알파 세대에게는 기존에 행해지던 영성훈련과는 다른, 그들에게 적합한 영성훈련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교회의 수련회는 여전히 알파 세대의 영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장이다. 교회학교 수련회는 주로 기도, 찬양, 설교, 게임, 조별 성극 발표회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하나의 주제 아래 만들기, 게임, 간식, 성경공부 등의 활동을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지만 알파 세대를 위한 깊이 있는 영성 형성과 성숙을 위해서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기존의 수련회 프로그램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파 세대의 장점과 더불어 그들의 보완되어야 할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영성훈련의 관상적인 측면,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측면,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로서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알파 세대에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측면들이 고려된 알파 세대를 위한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알파 세대에 대해 파악하고 알파 세대에 적합한 수련회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먼저 알파 세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보완되고 고려해야 할 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알파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를 한 후에 교회 수련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 세대를 위한 세 가지 영성훈련—예수의 생애 기도, 복음서 관상 드라마, 짧은 산책기도—을 제시할 것이다.

II. 알파 세대에 관하여

1. 알파 세대의 정의

알파 세대라는 용어는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2008년도 리서치에서 최초로 창안”되었다.⁴⁾ 맥크린들은 기존의 XYZ 세대와는 다른 새로 출현하는 세대는 온전히 21세기에 태어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는 차별된 이름이 적합하다고 여겨 그리스어 알파벳의 시작인 알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⁵⁾ 알파 세대에는 2010년 이후부터 2024년생까지 출생한 연령층이 포함된다. 알파 세대의 교육자의 관점에서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를 쓴 저자 최은영은 애플의 CEO인 스티브잡스(Steve Jobs)가 손으로 터치해서 기기를 조작하는 아이패드를 최초로 출시한 해인 2010

3) *Ibid.*, 27.

4) *Ibid.*, 36.

5)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8, Kindle.

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15년간 출생한 세대의 특징을 담아 부르는 말로서 알파 세대를 설명하기도 한다.⁶⁾

맥크린들이 정리한 아래의 세대 구분표는 알파 세대를 비롯해서 현재에 공존하는 세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⁷⁾

현재 세대:
건설자 세대 (1925-1945 태생)
베이비 붐 세대 (1946-1964 태생)
X 세대 (1965-1979 태생)
밀레니얼, 또는 Y 세대 (1980-1994 태생)
Z 세대 (1995-2009 태생)
알파 세대 (2010-2024 태생)

2. 알파 세대의 특징

맥크린들에 따르면 우리가 알파 세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알파 세대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라는 점이다. “알파 세대의 출생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에 달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맥크린들은 예상한다.⁸⁾ 이런 알파 세대는 신체적으로 이른 청소년기가 시작되고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⁹⁾ 또한, 맥크린들에 의하면 알파 세대는 가장 장수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¹⁰⁾ 무엇보다 “이들은 기술력과 모빌리티(Mobility)의 발전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폭넓게 경험하는 첫 ‘글로벌 세대’이다.” “태어나자마자 인공지능과 상호 작용하며 자라난 첫 세대이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변혁기 변화 과정을 수용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아주 특별한 세대이다.”¹¹⁾

알파 세대는 시대적 정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19세대라고도 불리운다. 맥크린들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으로 알파 세대는 1) 더 창의적이고 회복력 있는 세대가 될 것이다. 2) 테크놀로지가 삶에 늘 통합되지만 화면에서 벗어난 시간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3) 그들이 잃어버렸던 대인관계와 학교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다. 4) 가족

6)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36.

7)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11, Kindle.

8) *Ibid.*, 26, Kindle.

9) *Ibid.*, 27, Kindle.

10) *Ibid.*, 31, Kindle.

11)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37.

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5) 재택근무와 학습이 정기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6) 슈퍼히어로 관이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일상적인 슈퍼히어로 바뀔 것이다. 7) 재택근무로 인해 대도시 밖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에 따라 지방과 더 많이 연결될 것이다.¹²⁾ 따라서 유년시절에, 또는 태어나자마자 코로나를 겪은 알파 세대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창조적이고 회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세대이다.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으로 디지털(Digital), 소셜(Social), 글로벌(Global), 모바일(Mobile), 비주얼(Visual)을 든다.¹³⁾ 알파 세대는 휴대용 디지털 기기 시대에 형성된 첫 번째 세대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용 디지털 기기가 주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가상의 세계(virtual world), 즉 가상 공간(metaverse)과 AR로 불리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¹⁴⁾에 익숙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과 소통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알파 세대는 대부분 유아기때부터 디지털 화면에 익숙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Instagram, Snapchat, TikTok, YouTube)등을 이용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¹⁵⁾ 알파 세대에게는 줌(Zoom), 구글 어스(Google Earth), 미러 월즈(Mirror Worlds), 유튜브(YouTube), 라이프로그(Life logging), 다양한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소통이 친숙하고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¹⁶⁾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알파 세대의 “아이들은 디지털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구분하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시비하고 분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최은영은 주장한다.¹⁷⁾ 그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가상 세계는 가짜 세계로 여겨지지 않으며 진짜 세계의 또 하나의 측면일 뿐인 것이다. 최은영의 표현과 같이 특히 유년시절에 코로나를 겪은 알파 세대는 “고독과 단절, 외로움을 디지털 초연결 세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한 경험”을 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¹⁸⁾ 그렇기 때문에 알파 세대는 자연스럽게 소통과 연결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알파 세대에게 전 세계는 디지털 연결망으로 연결된 “디지털 글로벌 세상”이다.¹⁹⁾ 코로나 19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진 알파 세

12)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56-57, Kindle.

13) *Ibid.*, 45, Kindle.

14) “현실세계의 이미지 위에 디지털 이미지가 증착되어 나타나는 기술. 2017년 국내에 상륙한 포켓몬 고(Go) 게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Augmented Reality’의 약자를 써서 ‘AR 기술’이라 부른다.”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36.

15)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48, Kindle.

16)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11, 29. 라이프로그이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를 디지털 공간(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기록, 공유하는 것”이다.

17) *Ibid.*, 33.

18) *Ibid.*, 5.

19) *Ibid.*, 40.

대는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와 연결한다.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플랫폼과 사교 방식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된다. Zoom을 통해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알파 세대는 학업이나 직업, 삶에 있어서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에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런 정보는 알파 세대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알파 세대는 시각적인 세대이다. 이들은 눈으로 글을 읽거나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의 것, 특히 YouTub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비디오 콘텐츠를 보는 것이 일상화가 된 세대이다. 세계 1위의 온라인 검색 엔진은 Google 이지만 알파 세대에게는 YouTube가 1위 검색 엔진인 점이 이를 증명한다.²⁰⁾ 그 외에 알파 세대에게 있어서는 “재미”와 “취향과 감각”이 선호하는 삶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²¹⁾

3. 알파 세대에게 보완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

위에서 살펴본 알파 세대의 특징들이 모두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장점 만큼이나 극복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첫째, 알파 세대는 참을성이 없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최은영은 그 이유가 “빠르고 편리하며 재미난 무언가가 언제나 손바닥 안 스마트폰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²²⁾ 그래서 알파 세대가 가장 괴로워하는 일은 “불편하고 지루한 것을 참아주는 것, 재미없는 것을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한다.²³⁾ 온라인 세상에서는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즐거운 게임, 영상, 음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기다림, 수고, 노력, 인내를 실행할 기회가 자연히 적어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서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기다림의 과정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알파 세대를 글라스 세대(Generation Glass)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스크린을 보는 시간은 지나치게 길다.²⁴⁾ 또한, 스크린을 많이 보는 알파 세대는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은 편이라고 맥크린들은 지적한다.²⁵⁾ 이런 점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알파 세대는 가상세계에 머물고자 하는 경

20)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54, Kindle.

21)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16.

22) *Ibid.*, 41.

23) *Ibid.*, 41-42.

24)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114, Kindle.

25) *Ibid.*, 117, Kindle.

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이 가상 세계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만족되지 않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다. 가상세계에 머물고자 하는 알파 세대는 “현실에서 느끼는 탐험, 소통, 성취의 기쁨이 그것의 질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심적으로 어딘가 부족함과 같음을 느끼기 때문이다.”²⁶⁾ 이렇게 현실세계에서 얻지 못하는 부족함과 같음을 가상세계에서 채우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어차피 현실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상세계를 통해 만족된 부분이 현실세계의 삶의 질과 얼마만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는, 현실세계의 불만족과 가상세계의 만족 사이에서 느끼는 간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알파 세대의 특징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알파 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다음세대는 어떤 영성훈련이 필요하며 무엇이 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성훈련법이 될 수 있을지 기독교 영성형성의 차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알파 세대와 영성훈련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인 네 가지 측면을 통합하여 웰빙에 대한 전체론적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측면중에 영적인 측면은 우리의 감정을 성찰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맥크린들은 마음챙김, 명상 또는 기도훈련을 할 것을 제안한다.²⁷⁾ 그렇다면, 알파 세대 그리스도인들인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성훈련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영성훈련이 이 세대의 장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약한점을 보완하여 이들의 영성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알파 세대에게 강조되어야 할 영성훈련적 측면들은 무엇인가? 알파 세대의 특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맥크린들이 제안한 통합적인 웰빙 추구 방식을 고려해 봤을 때, 알파 세대를 위한 영성훈련은 관상적인 측면,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측면, 그리고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관상적인 측면

관상적(contemplative) 측면은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으로 강조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

26)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33.

27)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94, Kindle. 나머지 세 측면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관계적 측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베푼다. 사회적 측면: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 신체적 측면: 적당한 운동에 참여하고, 잘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이면서도 기본적인 요소이다. 최은영은 알파 세대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AI와 디지털 세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 고유의 영역을 조명하고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감정, 정서, 공감과 같은 영역이나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다.²⁸⁾ 그렇다면, 인간의 감정, 정서, 공감과 같은 부분이 작용하는 종교적인 부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부분도 AI나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내기 힘든 인간 고유의 영역일 것이다. 특히 최은영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별한 영역인 메타인지(metacognition)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며 “단순히 ‘안다’와 ‘모른다’의 문제를 넘어서, 지각, 기억, 학습, 개념 형성, 사고, 판단, 추론, 계획, 문제 해결 등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식과 모니터링, 통제 능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²⁹⁾ 또한 메타인지란 “스스로에 대해 알기 위해 지금 자신이 하는 생각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다. 최은영은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메타인지 덕분에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성찰’하고,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인식은 통찰(insight)과도 관련된다. 통찰은 자기의 정신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미칠 영향을 아는 것,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³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은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의 핵심적인 태도이며 관상적인 기도훈련을 통해서 메타인지는 효과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예수회 사제이며 신학자인 월터 버가트(Walter Burghardt)에 의하면 관상(contemplation)이란 “현실을 바라보는 길고 애정어린 시선”이다.³¹⁾ 기독교 영성전통에서 관상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관상중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을 발견한다.³²⁾ 라틴어 키텐플라치오(*contemplatio*)는 그리스어로 테오리아(*theōria*), 즉 “무언가를 열중/몰두해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다.³³⁾ 그리스(헬라) 교부들은 테오리아라는 단어를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연묵상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테오리아에서 파생된 테올로지아(*theologia*)를 관상의 가장 높은 형태, “그들은 또한 테오리아에서 파생된 ‘테올로지아’(theologia)를 관상의 가장 높은 형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총

28)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67.

29) *Ibid.*, 95.

30) *Ibid.*, 95-96.

31) Walter J. Burghardt, “Contemplation: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Church* (Winter 1989), 15-19.

32) Michael Downey, *The New Dictionary Of Catholic Spirituality*, 1st ed. (Collegeville, MN: Michael Glazier, 1993), 209.

33) *Ibid.*, 210.

체적인 인식, 즉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즉각 경험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³⁴⁾ 알파 세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자라온 세대이다. 물론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길게 바라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순간에는 매우 차분해 보이고 관상적인 태도가 계발되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현실에 있는 것들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길고 애정어린 관찰을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고 다소 과장된 영상에 비해서 눈 앞에 펼쳐진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지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혹은 적어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이나 주변을 여유롭고 느긋하게,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집중하는 일이 힘들 수 있다. 이는 AI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메타인지를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알파 세대에게는 관상적인 영성훈련이 이들의 웰빙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2.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측면

가상세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알파 세대에게는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영성훈련을 의도적으로 좀 더 행하는 것이 균형잡힌 영성형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가상세계나 온라인상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컴퓨터 안에서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신 실제로 물건을 보고 만지면서 만들기를 하기, 가상세계 안에서 길을 다니고 자연 풍경이나 명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실제 길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관상하기, 또는 체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대신에 실제 소모임이나 수련회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 자신, 타인,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것과 같은 영성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가상세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현실에 더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알파 세대의 특징으로 정의되는 디지털(Digital), 소셜(Social), 글로벌(Global), 모바일(Mobile), 비주얼(Visual)은 알파 세대가 나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알파 세대는 온라인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연결망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 펼쳐진 다양한 신앙공동체는 알파 세대로 하여금 상황이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할 때 편하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³⁵⁾ 그러나 문제는 알파 세대가 가상세계에 빠르게 익

34) *Ibid.*, 210.

속해져 가고 있으며 가상세계에서만 현실세계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연결을 할 수 있는 영성훈련의 장을 좀 더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의 미래가 온전히 가상화에만 집중 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맥크린들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험한 디지털 연결의 편리함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인간 경험의 핵심인 물리적 상호작용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라고 강조한다.³⁶⁾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19를 겪은 알파 세대는 가상 세계의 경험을 이른 나이에 깊이 한 만큼이나 물리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과 그 소중함에 대해서도 절실히 느끼게 된 세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오히려 기계 지원이 더욱 증가하는 미래에서 번창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리더십과 같은 대인 관계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맥크린들은 주장한다.³⁷⁾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성훈련은 알파 세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알파 세대를 의사소통 및 리더십을 갖춘 미래의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형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도 꼭 필요한 방식일 것이다.

3.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수단)로서 적극 활용하는 측면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인 커트 톰슨은 그의 저서 『영혼의 해부학: 뇌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다』에서 우리 인간은 “마음/몸 모체”(mind-body complex)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존재임을 인식시켜준다. 톰슨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몸 모체의 많은 요소는 우리의 주의를 얻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성찰하는 연습을 많이 해 오지 않은 것 같다.”³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인 점을 밝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몸이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톰슨의 몸에대한 강조는 단순히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몸을 매개로 한 영성훈련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샬렘영성훈련원(Shalem Institute for Spiritual Formation) 설립자이자 신학자이

35) 메타버스/VR 교회에 관한 예: Life Church homepage, “We Brought Church to the Metaverse,” 접속 2023.12.2., <https://www.life.church/metaverse/>, VR MMO Church homepage, 접속 2023.12.6., <https://www.vrchurch.org/>

36)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28, Kindle.

37) *Ibid.*, 29, Kindle.

38) 커트 톰슨/ 김소영 역, 『영혼의 해부학: 뇌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다』 (서울: IVP, 2022), 122.

39) *Ibid.*, 122-123.

며 성공회 사제인 틸든 에드워즈(Tilden H. Edwards)는 몸을 통해서 현존하는 기도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열려있을 때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기도가 된다”라고 말한다.⁴⁰⁾ 그도 몸이 기도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요 통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몸을 통해 하나님께 현존하는 길로 “몸의 자세, 호흡, 움직임, 몸짓, 의복, 음식”의 여섯가지 길을 제시한다.⁴¹⁾ 특히 움직임의 현존의 길인 걷기는, 걷는 것을 일과 일 사이의 일종의 “중단된 시간”으로 여기게 해 줌으로 “과정/여정의 은총”을 놓칠 수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현존 감각을 더욱 일깨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⁴²⁾ 약간은 느린 걸음으로 느긋하게 자연을 산책하는 것은 즉각적인 검색으로 빠르게 얻는 결과물로 인해서, 언제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에 살면서 과정의 즐거움과 의미를 놓칠 수 있는 알파 세대에겐 기다림과 과정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해 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는 알파 세대의 몸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비단 알파 세대 뿐만 아니라 노동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되는 분위기에서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현대인의 고충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의 웰빙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⁴³⁾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알파 세대가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영성훈련에 중점을 둔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낌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I. 알파 세대를 위한 관상적 영성수련회

알파 세대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관상적인 측면,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측면, 그리고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로서 적극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영성훈련이 알파 세대에게 적합할 것인가? 교회나 개인적 차원에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행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수련회는 교회학교에서 다음세대의 영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교회학교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2박3일 정도 되는 교회학교 수련회에

40) 틸든 에드워즈/ 이민재 역, 『현존으로의 초대』 (서울: 한국살렘, 2022). 60.

41) *Ibid.*, 63.

42) *Ibid.*, 72-74.

43) Mark McCrindle, *Generation Alpha*, 64, Kindle.

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상적인 영성훈련으로 1) 예수의 생애 기도, 2) 복음서 관상 드라마, 3) 짧은 산책기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수의 생애 기도

이 기도는 예수의 생애의 주요 장면을 표현한 설치물, 글 또는 그림이 있는 장소를 따라 걸으면서 각 장소에 머물러서 표현된 예수의 생애의 한 장면을 보고 묵상하면서 머물렀다가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는 걷기 기도방법이다. 이 기도훈련은 몸으로 직접 참여하고 관상적으로 머물며 기도하는 내적 외적 참여를 요구하는 영성훈련이다. 이 기도는 기독교 걷기 전통 중에 십자가의 길 기도(Stations of the Cross)를 바탕으로 개신교 영성수련을 위해 각색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그림이나 조각으로 설치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길을 표현한 14개의 장소를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방법이다. 이 기도방법은 초기 교회 때 예수님께서 가신 마지막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순례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의 14개의 처로 된 형태는 지난 4세기동안 고정된 것으로 본다.⁴⁴⁾ 14개의 처는 1처: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 2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 3처: 예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심, 4처: 예수께서 마리아를 만나심, 5처: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짐, 6처: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아드림, 7처: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8처: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만나심, 9처: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10처: 예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심, 11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12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13처: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14처: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참여자는 예수의 희생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다.⁴⁶⁾ 이 기도는 사순절과 같은 교회의 절기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도법으로서 현대에는 그것이 설치된 장소를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적당한 인쇄물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기도방법으로 사용된다.

예수의 생애 기도는 십자가의 길 기도의 리듬과 태도로 예수님의 생애 전반의 주요 장면들을 묵상하며 걷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다음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쉽게, 입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묵상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예수의 생애 기도는 1처: 예수님의 탄생(눅 2:1-7), 2처: 소년 예수(눅 2:41-50; 51-52), 3처: 예수님의 세례(마 3:13-17), 4처: 베드로를 부르심(눅 5:1-11), 5

44) Herbert Thurston, *The Stations of the Cross: An Account of Their History and Devotional Purpose* (London: Burns & Oates, 1906), 2.

45) Eric R. Barr, *The Way of The Cross with St. John the Apostle* (Dublin, OH: Telemachus Press, 2019), Preface.

46) Patricia D. Brown, *Paths to Prayer: Finding Your Own Way to the Presence of Go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3), 220.

처: 눈먼사람을 치유하심(요 9:1-12), 6처: 오천명을 먹이심(마 14:13-21; 막 6:30-44), 7
 처: 산상설교(마 5:1-12), 8처: 겿세마네 기도(마 26:36-46), 9처: 십자가에 못 박히심(눅
 23:26-49; 요 19:23-30), 10처: 무덤에서 부활하심(요 20:1-10; 11-18)으로 구성된다.
 각 장면은 담당 목회자가 중점을 두는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수련회
 장소에서 야외나 실내에 10개의 처를 설치하는데 각 처에서 다음 처가 눈에 보일 정도의
 적당한 거리(10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10명 이내
 로 구성된 각 조별로 걸어서 각 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에게 방
 해를 받지 않고 또 충분히 걸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각 처에는 실제 소품으로 그 성경 장면을 표현해 놓는다. 예를 들어 오천명을 먹이신
 장면에는 조그만 바구니에 생선과 빵 모형을 담아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제목과
 성경구절, 또는 간단한 내용이 적힌 안내문구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참여자들이 그 장면을
 묵상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설치를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나 사역자는 수련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가서 수련회 참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모든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기도는 침묵으로 참여하며
 천천히 고요한 걸음으로 각 장면을 방문하는 것을 기본 태도로 한다. 시작 전에 지도자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흐름으로 이 기도가 진행이 될 것인지와 주의사항을 설명해준다. 담당
 교사나 리더는 자기가 맡은 조원들을 인도해서 한 처씩 이동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조씩 첫 번째 처로 걸어가서 조원 모두 도착을 하면 잠시 머물러서 그 장면에 해당하는
 설치물을 보고 제목과 내용을 읽는다. 이 때, 리더가 제목과 내용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주어도 좋다. 그리고 나서 각자 침묵으로 설치물을 음미하면서 그 성경의 장면을 떠올려
 본다.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그 장면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거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되면 각 조의 리더는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
 다. 이런식으로 모든 처를 방문하고 묵상한다. 차례를 기다리는 조는 대기하는 공간에 마련
 된 만들거나 색칠하기 활동을 침묵 가운데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출발한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애 걷기 기도를 마친 조는 대기 장소로 돌아와서 만
 들거나 색칠하기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한다. 전체가 예수의 생애 걷기 기도를 마친
 후에는 조별로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의 생애 길을 걸었을 때의 느낌, 깨달은 점, 생각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이 훈련을 마친다. 이 기도는 수련회의 첫째날에 적합한
 훈련이며 수련회 기간동안 참여자는 필요에 따라 자유시간이 주어지거나 다음 프로그램으
 로 이동을 할 때와 같은 여유 시간에 원하는 처 앞에서 잠시 묵상을 해볼 수도 있다. 수련
 회 기간 동안 참여자는 예수의 생애가 표현된 장소를 지나며 자신의 존재 전체로 예수의
 생애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2. 복음서 관상 드라마

복음서 관상 드라마는 기독교 영성가이자 교육가인 프랭크 로저스(Frank Rogers Jr.)가 제시하는 관상적 만남을 위한 이야기식 교육법 영성훈련 중의 하나이다. 로저스는 심리극치료사와 문학교수로 일한 피터 피젤레(Peter Pitzele)가 제안하는 비블리오 드라마(Biblio drama)와 이냐시오식(Ignatian) 관상기도를 토대로 성경 이야기를 통한 관상적 만남을 이루어 내는 자신만의 관상적 활동을 만들었다. 필자는 이 관상적 활동에 알파 세대를 위한 부분을 추가하였고 복음서 관상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냐시오식 관상기도가 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외형적인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를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로올라의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 1491-1556)는 복음서 관상기도를 할 때 오감을 이용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성신학자이자 목사인 유해룡의 상상을 통한 관상기도법 소개에 의하면 “서술적 교리는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의적으로 진리에 영향을 받게 한다.”⁴⁷⁾ 이냐시오의 복음서 관상은 복음서 이야기 장면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시각적으로 발달한 알파 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복음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식 교육법을 십대를 위한 대안적 사역 방안으로 제안하는 로저스는 그의 책 *Finding God in the Graffiti: Empowering Teenagers through Stories*에서 여섯 가지 이야기식 교육법을 제공한다.⁴⁸⁾ 그 중에 관상적 만남을 위한 이야기식 교육법, 즉 어떻게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심오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장에서 로저스는 비블리오 드라마는 “성경이 의미가 있는, 전복시키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살아있는 신화로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되었다.”⁴⁹⁾ 피젤레에 의하면 성경은 두 종류의 불이 타오른다. 첫번째는 “검정색 불”인데, 그것은 검정 잉크로 쓰인 텍스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흰색 불”로서 이는 검정색 잉크로 쓰인 텍스트 사이의 빈 공간을 뜻한다. 이 흰색 공간에는 성경 본문에 있을 법 하지만 거론되어 있지 않은 인물들과 같은 많은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흰색 불은 상상을 위한 비옥한 땅이다.”⁵⁰⁾ 이 흰색 불이 바로 비블리오 드라마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며 참여자의 상상력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로저스는 여기에 이냐시오식 관상의 요소를 덧붙여 설명한다. 이냐시오식 관상은 기도자가 자신을 성경의 특정 이야기 장면의

47)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131.

48) Frank Rogers Jr., *Finding God in the Graffiti: Empowering Teenagers through Stories*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11). 여섯가지 교육법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식 교육과 종교적 소양, 이야기식 교육과 개인의 정체성, 이야기식 교육과 관상적인 만남, 이야기식 교육과 비판적 숙고, 이야기식 교육과 창조적 생기, 이야기식 교육과 사회적 권한부여.

49) *Ibid.*, 90.

50) *Ibid.*, 90.

배경 안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내면의 묵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상기도법이며 참여자는 상상속에서 그 성경 장면 안에 실제로 머무는 것임을 로저스는 강조한다.⁵¹⁾

로저스가 제시하는 복음서 관상 드라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참여자는 성경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 공간은 실제 공간을 의미하며 참여자가 원으로 둘러 앉은 것을 권장한다. 빛이 적당하게 조절 될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면 더 좋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어도 좋다. 이 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은 비밀유지, 비판금지, 다양함 인정하기, 참가하지 않을 자유 보장하기, 서로의 영역 침범하지 않기 등 상호간의 약속을 한다. 집중을 위해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 고요한 음악 듣기, 기도, 시, 또는 묵상적인 읽기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

둘째, 준비운동을 한다. 이 시간은 참여자의 상상력, 몸의 움직임, 감정을 잘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준비운동의 시간이다. 로저스는 팀 슈렘(Tim Schramm) 이 제시하는 몇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참여자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내가 애착을 느끼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이 되어 그것을 소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산악 자전거 흥내를 내면서 “산악 자전거”라고 말한다. 2)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그 물건을 흥내내게 한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하갈의 눈물, 막달라 마리아의 기름 등이 있다. 그리고 나서 파트너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어디서 왔어요?” “당신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와 같은 질문들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인터뷰에 답하듯 대답하게 한다. 이 준비운동은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로저스는 우리 몸이 기도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기, 긴장 풀기, 복식 호흡, 그리고 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 깊은 기도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셋째, 성경 이야기와 존재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피젤레의 비블리오 드라마가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비블리오 드라마의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역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 눈먼자 등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거론되지 않는 다른 상상의 인물들을 포함시켜 본다. 예를 들면,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 자녀, 다른 제자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 단계는 그룹 인물 성격묘사이다. 이 때, 그룹으로 참여자들이 한번에 한 배역씩 그 배역이 느낄 법한 감정을 이야기한다. 단, 일인칭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저는 너무 많이 좌절하고 있어요”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단계는, 인터뷰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 전에 했던 몸 풀기 과정과 비슷하게 각자 한 배역을 정하고 그 배역이 되어서 파트너와 인터뷰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그룹 조각상 만들기이다. 이것은 그 장면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그룹으로 살아있는 사진을 찍듯이 스탱 모션

51) *Ibid.*, 90.

52) *Ibid.*, 91-97.

으로 각 인물의 몸짓, 감정, 표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 명씩 나와서 이미 무대에 나와서 표현된 배역과 연관 지어서 자기가 맡은 배역이 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그대로 멈춘다. 이 과정은 인도자 외에 모두 침묵으로 행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룹 조각상 살아 움직이게 하기이다. 각각의 배역은 그 배역이 이 성경 이야기 장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한 문장을 말한다. 인도자는 각각의 말이 다 나온 다음 마지막 말에 잠시 잠기는 시간을 가진다. 여섯 번째 단계는 빈 의자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무대위에 있는 빈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상상을 한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에 있는 배역을 선택해서 그 배역의 관점에서 빈 의자에 앉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지 방 안에 그 배역을 위치시켜 본다. 그 배역이 되어서 한 마디의 말 또는 기도를 하나님께 동작과 함께해본다. 비블리오 드라마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역할의 경험으로부터 나와서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 과정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며 이 활동을 통해 경험한 것을 음미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참여자가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피젤레는 이 과정을 깊은 바다 속에서 잠수를 하다가 물 표면으로 돌아올 때는 잠수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물 표면으로 올라오고 배에 오르기 전에 한 동안 머무는 것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로저스는 이 과정을 위해서 몇 가지의 활동을 제안한다. 1) 참여자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만남에 관해서 반추를 한다.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이 나타났는가? 나는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통찰 같은 것이 있는가? 2) 참여자들은 그 성경 이야기 자체를 반추해본다. 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되었는가?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통찰력이 나 자신과 나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저스에 의하면, 이런 반추가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이 통찰력을 공고히 하고 그 의미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인적 삶 가운데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합한다. 관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험된 치유나 통찰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기념하는 예배, 행동방침 약속, 또는 책상이나 서랍에 어떤 상징이 될 만한 물건을 두는 것 등. 중요한 것은 이런 통합의 행동이 참여자 자신이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며, 이런 통합적인 실천이 자신의 영혼의 변화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련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는, 개인적 삶 가운데 이 만남의 경험을 어떻게 통합할지 생각하고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여섯째, 이 전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이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은 필자가 추가로 넣은 과정이며 알파 세대의 특성에 맞춘 것이다. 이 과정은 선택 사항이며 고학년은 위주로 행해질 수 있다. 만약 저학년인

경우나 참여자들이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하게 하고자 한다면 수련회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각 조의 활동을 기록하여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마지막 날 참여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직접 영상 제작을 할 경우에는 복음서 관상 드라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촬영 담당자는 관람자로서 활동에 참여하며 기록을 담당한다. 복음서 관상 드라마 활동이 끝난 후에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연출, 편집, 디자인 등의 역할을 정하여 그룹으로 편집작업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여섯 번째 과정은 알파 세대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활용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련회 두 번째 날이나 마지막날 오전에 모두 모여서 제작한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나서 그룹으로 모여서 영상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나눔으로 이 활동을 마친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한 재미있는 수련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게임이나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이야기를 상상력을 이용해서 관상하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을 한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디지털 루덴스(Digital Ludens)”로 불리는 알파 세대에게 성경 말씀이 보다 더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⁵³⁾

3. 짧은 산책기도

틸든 에드워즈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현존하는 훈련 중에 걷기와 같은 몸의 움직임이 훌륭한 영성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는 우리가 걸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천천히 걷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⁵⁴⁾ 독일의 영성가 안셀름 그륀(Anselm Grün)은 “걷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몸으로 묵상하는 한 방식이며, 또 아브라함 이래 본질적으로 길의 구조를 가진 우리 믿음의 수련이다”라고 말했다.⁵⁵⁾ 걷기훈련을 통해서 수련회 참여자들은 평소 무심코 길을 걸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문학자 이어령은 걷기는 “자기와 대화를 하게 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며, 또한 창의적으로 만듭니다”라고 걷기를 예찬하였다.⁵⁶⁾ 또한 그는 예수님

53)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49. “디지털 루덴스(Digital Ludens)란 ‘디지털(Digital)’과 인간 유희를 뜻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합성어로 디지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이나 기타 창조 활동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듯이 인간 자체의 태생적 본성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놀이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54) 틸든 에드워즈, 『현존으로의 초대』, 74.

55) 안셀름 그륀/ 김영룡 역,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걷기의 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13), 15.

56) 이어령, 『먹다, 듣다, 걷다』 (서울: 두란노, 2022), 140.

의 사역은 “걷기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평생 많은 거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걷기의 모범으로 소개한다.⁵⁷⁾ 칸트,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걷기를 그들의 주요 훈련으로 삼았다. 과학적으로도 걷기는 노화에 제동을 걸고 두뇌활동에 긍정적인 결과, 특히 창의력 향상, 기억력, 정확한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⁵⁸⁾ 뇌과학자 셰인 오마라(Shane O'Mara)에 의하면, “걷기[는] 뇌, 신체 그리고 행동 전반에 유익하다.”⁵⁹⁾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 감소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편인 알파 세대에 있어서 걷기는 그들의 전인적인 웰빙 뿐만 아니라 영성을 깊이하는데 매우 유익하고도 능력있는 영성훈련이 될 것이다.

짧은 산책기도는 켈틱(Celtic) 영성의 페레그리나치오(*Peregrinatio*) 전통을 토대로 필자가 디자인한 기도 방법이다. 페레그리나치오는 참여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정을 떠나는 전통에 기초를 둔 영성훈련이다. 4세기경에 켈트 지역에 기독교가 유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선함을 인정하는 펠라기우스(Pelagius: 350-418)의 입장에 영향을 받은 켈트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하나님의 성체로 여기며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다. 생갈(St. Gall)이 “방랑은 아일랜드(Irish) 민족의 고칠 수 없는 습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연을 방랑하는 것은 켈트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⁶⁰⁾ 고대 페레그리나치오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없는 길을 떠나기며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곳을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백색순교로 여겨진다.⁶¹⁾ 하지만 현대에는 참여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좀 더 가볍게 페레그리나치오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고전적인 페레그리나치오의 기본 태도인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다.⁶²⁾ 짧은 산책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한적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자들은 미리 어떤 코스를 걸으면 좋을지 정하고 적절한 한계를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 짧게는 20~3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한다. 핸드폰을 소지할 경우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어 놓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핸드폰은 수면 모드로 전환해 놓도록 한다. 또는 수련회 시작과 동시에 핸드폰을 수거할 경우는 기도가 끝날 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종소리 같은 신호를 보내어 기도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준다. 짧은 산책기도의 흐름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

57) *Ibid.*, 142-147.

58) 셰인 오마라/ 구희성 역, 『걷기의 세계』 (서울: 미래의 창, 2019).

59) *Ibid.*, 37.

60) Ian Bradley, *Following the Celtic Way: A New Assessment of Celtic Christianity* (Minneapolis: Augsburg Books, 2020), chap. 7, Kindle.

61) Esther DeWaal, *The Celtic Way of Prayer* (New York: Doubleday, 1997), 132.

62) Donald McKinney, *Walking the Mist: Celtic Spiritualit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Hodder Mobius, 2004).

나님 앞에서 거닐 준비가 되었는지 나 자신의 상태에 관심을 가진다. 이 때,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다면 잠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저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참여자가 함께 모여서 시작하면서 인도자가 고요하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둘째, 준비되었다고 느끼면, 걷고 있는 주변 환경과 성령을 감지하면서 길이나 내가 선호하는 장소들을 걷기 시작한다. 이 때, 성령의 임재를 인지한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음미한다. 셋째, 걷는 중에 참여자의 내면에서 어떤 움직임(감정, 생각, 충동, 이미지, 독백 등)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 후 잠시 곁에 둔다. 그리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이때, 원한다면 거룩한 단어를 하나 정하여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좋다). 넷째, 걷고 있는 순간에 깊이 잠긴다. 이 때, 주변에 펼쳐진 자연환경을 음미하거나 그 풍경 자체에 나 자신을 흡수시키는 태도를 취한다. 다섯째, 충분히 걸었다고 판단되거나 정한 시간이 되었다면 나의 몸을 인식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한다. 기도 후에는 걷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깨달은 것이 있는지 기도를 되돌아보면서 느낌을 적어도 좋다. 또는 조별로 모여서 느꼈던 점을 나누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이 짧은 산책기도를 통해서 알파 세대는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현실에 발을 디딤으로 자신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느껴지는 나 자신과 주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순간과 현실의 것과 연결을 하는 행동은 가상세계에 머무는 것에 편중된 알파 세대에게 현실 세계에서 삶과 균형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IV. 나가는 말

알파 세대는 21세기에 출생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첫 세대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이 주어진 세대라는 점에서 기존의 세대들과는 다른 주목받는 새로운 세대이다. 이들은 유년기에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또 그 상황을 극복해낸 세대이다. 그리고 이들은 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가장 장수할 수 있는 세대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기독교를 책임지며 새로운 장을 열어갈 알파 세대의 영적 성숙에 주목하는 것은 기독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대한 일일 것이다. 이들이 가진 디지털(Digital), 소셜(Social), 글로벌(Global), 모바일(Mobile), 비주얼(Visual)의 특징들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알파 세대의 영성 성숙을 위한 훈련에서는 관상적인 측면,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측면, 그리고 몸을 영성훈련의 매개로서 적극 활용하는 측면의 강조가 필요하다. 수련회가 여전히 교회학교 영성수련으로 효과적인 환경인 점과 알파 세대의 영성 성숙을 위한 훈련의 측면들을 고려함으로써 세 가지 영성훈련을 실천해볼 수 있

다. 10개의 예수의 생애의 주요 장면들이 설치된 예수의 생애 기도를 침묵으로 걸으면서 알파 세대 아이들은 전 존재로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초대받는다. 복음서의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장면의 인물로서 온 몸으로 참여하며 관상적인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는 복음서 관상 드라마를 해보면서 알파 세대는 문자에 간혀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살려내며 그 속에서 재미와 의미, 그리고 관상적인 만남의 경험을 하도록 초대받는다. 나 자신과 주변 자연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걷는 짧은 산책을 기도로서 하면서 알파 세대는 현존의 경험 속에서 실제 세계와 연결되는 쉼과 균형의 시간을 갖도록 초대받는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무엇인든 쉽게 얻을 수 있고 해결이 되는 이 세상에 정성, 수고, 노력, 인내, 기다림을 요구하는 영성훈련의 장을 마련하는 데는 알파 세대를 양육하는 X, Y, Z세대들의 노력이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세대가 잘 해왔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관상적인 영성훈련을 알파 세대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은 가상과 현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통찰, 머리와 몸의 통합을 이루는 미래의 영적인 리더로 형성되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서울: 지식프레임, 2021.
- 세인 오마라/ 구희성 역. 『걷기의 세계』. 서울: 미래의 창, 2019.
- 안셀름 그린/ 김영룡 역.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걷기의 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2013.
- 커트 톰슨/ 김소영 역. 『영혼의 해부학: 뇌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다』. 서울: IVP, 2022.
- 틸든 에드워즈/ 이민재 역. 『현존으로의 초대』. 서울: 한국살렘, 2022.
- Barr, Eric R. *The Way of The Cross with St. John the Apostle*. Dublin, OH: Telemachus Press, 2019.
- Brown, Patricia D. *Paths to Prayer: Finding Your Own Way to the Presence of Go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3.
- Bradley, Ian. *Following the Celtic Way: A New Assessment of Celtic Christianity*. Augsburg Books, 2020. Kindle.
- DeWaal, Esther. *The Celtic Way of Prayer*. New York: Doubleday, 1997.
- Life Church homepage. "We Brought Church to the Metaverse." 접속 2023.12.2., <https://www.life.church/metaverse/>
- McCrindle, Mark. *Generation Alpha*. Hachette, Australia: Headline Home, 2021,

- Kindle.
- McKinney, Donald. *Walking the Mist: Celtic Spiritualit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Hodder Mobius, 2004.
- Rogers, Jr., Frank. *Finding God in the Graffiti: Empowering Teenagers through Stories*.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11.
- Thurston, Herbert. *The Stations of the Cross: An Account of Their History and Devotional Purpose*. London: Burns & Oates, 1906.
- VR MMO Church homepage, 접속 2023.12.6., <https://www.vrchurch.org/>

논 찬 1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한 논찬

김 경 은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신학)

김정희 박사의 알파 세대를 위한 영성훈련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본 논문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교회 주일 학교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여겨집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성훈련을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가 아니라 영성학 분야에서 논의함으로써 영성 훈련이 고려해야 할 대상과 방법의 폭을 넓혀주는 기여를 하고 있고, 영성훈련의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의 문제 제기과 제안에 대한 논의가 영성훈련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숙고하고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교회 사역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논찬은 ‘알파 세대’의 장점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점에 근거한 영성훈련의 실제적인 면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관상적 영성수련회를 비롯하여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상 훈련 방법에 대해 제안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논문은 기다림과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알파 세대의 웰빙과 영적 성숙을 위해 관상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묵수업>의 저자인 마틴 레어드는 ‘내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관상’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상 수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침묵 수련’이고, 또 하나는 ‘깨어 있음 또는 알아차림 수련’입니다. 이를 위해 레어드는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인 짧은 구절이나 단어를 암송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고 제시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기도를 말합니다. 예수기도를 통해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이 주의집중을 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기도는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의 기도 낱말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도 낱말의 활용에 관해서는 베네딕도회 수도승 존 메인의 저서 <그리스도교 묵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시아누스의 가르침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카시아누스는 기도에 필요한 고요를 얻기 위해 짧은 한 구절을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시편 70:1,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가난의 기도’라고도 말하는 한 구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런 단순한 기도는 내적 고요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존 메인은 ‘마라나타’를 기도 낱말로 하는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파 세대를 위한 관상 훈련의 하나로 짧은 기도 낱말의 활용을 통해 내적 침묵과 함께 생각보다 깊은 마음을 경험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예수기도나 성경의 한 구절, 또 기도 낱말 등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방법들이 관상 훈련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둘째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은 복음서 관상 드라마를 통한 훈련이 수련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영성훈련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생애의 주요한 장면을 표현해 놓은 길을 걷는 훈련인 ‘예수의 생애 기도’ 방법 또한 이런 기록을 통해 일상 영성훈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두 기도의 과정을 기록한 자료들을 교회나 가정에서 시청하며 성경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한다면 시각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발달한 알파 세대를 위한 좋은 기도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째는, 본 논문은 알파 세대에 적합한 영성수련회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하였지만, 짧은 산책기도와 복음서 관상 드라마를 통한 영성 훈련은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영성훈련 방법이므로 이런 영성훈련 방법이 수련회뿐 아니라 일상의 영성훈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면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논문을 통해 영성훈련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새로운 세대를 향한 “길고 애정어린 시선”이 절실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향한 여정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평생의 과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김정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논 찬 2

“알파 세대의 영성 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한 논찬

권진구 박사

(목원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형성)

김정희 박사의 논문은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영적 훈련 방법을 제안하거나 고안하고 있다. 논문은 알파 세대를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김정희 박사에 의하면 Generation Alpha는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들이 창안한 용어이다. 맥크린들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한국의 알파 세대는 가장 인구가 적은 세대일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0억명이 넘는 가장 큰 세대일 것이라고 한다. 알파 세대는 아이패드가 출시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출생한 세대를 포함하는 말이다.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의 특징으로 디지털(Digital), 소셜(Social), 글로벌(Global), 모바일(Mobile), 비주얼(Visual)을 들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와 접촉한 알파 세대에 있어 가상 공간이나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진짜 세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과 정보를 온라인 세계에서든 같은 중요도 또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해 대하거나 수용하는 세대이다. 알파 세대는 물리적 세계보다 가상 또는 온라인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활동의 빈도와 중요도 역시 높게 인식할 것이다.

김정희 박사는 알파 세대가 극복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참을성이 적고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즐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와 재미는 알파 세대가 현실에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결과와 즐거움과 비교해 빠르고 즉각적이다. 알파 세대가 그들의 노력과 인내를

발휘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훈련과 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낼 수 있다. 현재 MZ세대의 스마트 기기 이용 통계를 보면 이미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쓰는 시간이 과거 세대가 티브이나 컴퓨터 앞에서 보낸 시간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는 MZ세대만의 모습은 아니고 X세대나 그 이전 세대에게서도 그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파 세대는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세대 중에서도 글라스 세대(Generation Grass)로 표현될 정도의 세대이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보완점과 연결되어 가상 세계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 경제, 계층, 성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 세계의 불안과 갈등은 알파 세대로 하여금 가상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알파 세대를 위한 영성훈련을 제시하기에 앞서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한다. 첫째로 관상적인 측면을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본다. 관상적 훈련은 나 자신과 현실을 의식적으로 고찰하게 해주고 인내와 성숙을 추구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다양한 실제적 활동을 통해 삶의 여러 차원을 경험해 깨달음과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른 나이에 가상세계와 온라인 소통을 경험하는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몸을 통한 영성훈련이 알파 세대의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서술한다. 육체적 활동이 감소하고 정신 건강에 대해 어느 세대보다 어려움을 겪을 세대라는 점을 예상할 때 몸을 사용하는 영성훈련의 필요성이 간과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희 박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맞추어 세 가지 관상적 영성훈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의 생애 기도이다. 이 기도의 방법은 걷기와 묵상이 결합된 방식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 중 14 처소를 걸으며 묵상하는 것이다. 14 처소를 직접 방문해 걷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각 처소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둘째는 복음서 관상 드라마이다. 이 방법은 프랭크 로저스가 고안한 방법으로 피젤레의 비블리오 드라마와 이냐시오식 관상기도의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한 것인데 성경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를 영적 체험으로 이끌게 된다. 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상력을 활용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셋째로 짧은 산책기도를 제시한다. 산책기도는 켈틱 영성의 페레그리나치오를 이론적 배경으로 두며 걷는 곳의 환경과 참여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은혜, 깨달음에 집중하는 영적 훈련으로 김정희 박사가 고안한 방법이다.

알파 세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주제이다. 신학이나 영성 분야에서도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김정희 박사의 논문은 알파 세대를 위한 영성훈련을 제안하는 최초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알파 세대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영성훈련을 제안한 부분도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공헌이라 판단된다. 자녀 셋 중 알파 세대 자녀 둘을 양육하고 이들 세대를 자주 접하는 논찬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결과가 기대되는 영성훈련의 방식이다.

다만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기초적 영성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에서 제시된 영성 훈련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관상이라는 요소를 알파 세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신학적인 이유로 관상의 요소가 들어간 영성훈련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14 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묵상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예수 생애 기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산책 기도는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복음서 관상 드라마는 인도자와 참여자 모두 적절한 과정과 훈련을 거쳐야 실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완성도와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기도, 묵상, 여러 영성훈련을 경험한 개신교 성도나 목회자도 관상적 훈련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제시하는 영적 훈련은 관상 또는 관상기도 전통에 대한 교회의 교육이나 영적 훈련이 선행되고 있어야 가능한 방법들로 보인다. 현재 관상이나 관상 기도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교육이나 영적 훈련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듣고 싶다.

둘째, 알파 세대의 가장 연장자는 아직 14세를 넘지 않는다. 알파 세대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학교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의 연구와 제안은 실천적이며 도전적인 시도이고 훌륭한 학문적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자는 알파 세대가 어느 정도의 영적 경험이나 영적 성숙, 신체적 정신적 연령에 이르렀을 때 본인이 제시한 훈련이 적용되어야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논 찬 3

“알파 세대의 영성 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한 논찬

조 성 호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과 리더십)

이 논문은 알파 세대를 규정한 후 그들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영성훈련을 위한 세부 지침과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런 형식적 특징은 지역과 성별, 종교 등의 차이에 기반을 둔 과거 연구와 달리 가파르게 변하는 세대들의 다양한 본성에 집중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집중하는 한국교회의 관심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공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천신학의 본래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영역의 기본 성립 조건에 충실한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열린 대화에 집중하는 통시적 시점과 함께 공시적이고 실제적인 관심이 수반될 때, 실천신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논지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알파 세대를 이전의 다양한 세대 구분과 비교하며 그들의 문화적 특색을 정리한 방법론적 고찰이다. 특히 감염병 상황을 거치면서 급속히 분화되는 세대 사이의 고유한 모습을 생각할 때, 젊은이 또는 청소년 등의 모호한 범주나 미래세대처럼 교회 내부에서 주로 통용되는 구호성 명칭은 객관적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향후 진행될 다수의 후속 연구가 이런 결과의 수혜자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로부터 훨씬 입체적이고 정밀한 내용과 형식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학술적 공헌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요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감성적 접근과 기성세대의 아날로그 향수를 융합한 대안 제시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예수의 생애 기도, 복음적 관상 드라마, 짧은 산책 기도의 순서로 등장하는 연구자의 잠정적 해법은 실상 알파 세대에게 생소한 구세대의 문화 전통에 속한다. 연구자의 서술처럼 빠르게 바뀌는 화면과 다채롭고 역동적인 활동을 전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 시간의 흐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훈련 과정은 낮은 수준을 넘어 답답하고 구태의연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런 상대적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과감한 문화적 융합을 영성 훈련 차원으로 승화하기 위한 도전을 감행한다. 자본주의 관점의 성패를 떠나 이런 도전적이고 상호 이질적 요소의 융합 시도 자체가 이미 영성의 핵심 가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폭넓은 역량과 노력에 큰 찬사를 자연스럽게 보낸다.

그런 긍정적 강점 가운데 연구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첨부하고 싶다. 먼저 알파 세대를 정의하는 기초 작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구자는 2페이지에서 2010~2024년 출생자를 기본 범위로 제시한 후, 이전 세대와 다른 여러 요소를 그들의 주요 특성으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아직 그들은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나이에 해당하며,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된다. 물론 그런 어린 대상자들도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 기준 차원에서 유의미한 완성도를 지닌 특색이 존재하는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어떤 면에서 그들을 분류한 방식이 실제 그들만의 독창적인 특성에 토대를 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별도로 구분할 목적을 지니고 그들에게 이전 세대에서 찾기 어려운 특성의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인지에 관한 차별화가 깔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연구자는 최은영이 저술한 『알파 세대가 학교에 온다』 등을 포함한 소수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넓은 객관성과 깊은 전문성 확보라는 과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더라도, 성급한 과잉일반화에 의한 확증편향이나 객관적 해석의 결여에 따른 편향된 지식으로 경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정확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

두 번째 사항 역시 알파 세대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체성과 연결된다. 2페이지에서 맥클린들을 언급하면서 연구자가 제시한 알파 세대의 첫 번째 특성은 그들의 전체 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런 단정적인 언급이 한국 사회의 인구감감에 역행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알파 세대 규정 작업에 지역과 국가 또는 성별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간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3페이지에서 디지털(Digital), 소셜(Social), 글로벌(Global), 모바일(Mobile), 비주얼(Visual)로 세분화한 내용은 경제적 수준 차이를 고려한 분류인지에 관한 의구심 역시 강하게 제기된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엄중히 판단할 때, 단지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유사한 잣대로 묶는 방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알파 세대가 지닌 특성으로 서술한 내용들은 이미 MZ 세대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 역시 그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향한 난해함을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연구자가 이런 부분을 민감하고 세심하게 다루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그들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객관성 확보

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탓이다.

세 번째 항목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메타인지를 현대적 관상으로 재구성한 연구자의 시도와 연관이 있다. 양자를 결합한 연구자의 창의적 접근방식은 개인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결과물이다. 막연하고 모호한 과거의 영적 단어와 개념을 현대인에게 무조건 접목하는 방법론은 자칫 영성의 효과와 목적을 파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거의 영적 유산을 현대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재해석 및 재정립할 당위성이 실천신학에 속한 영성학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평가에 이어 창조적 융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실 세계 연결과 몸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예수의 생애 기도, 복음서 관상 드라마, 짧은 산책 기도” 제시로 마무리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열거한 내용들이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훈련 차원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융합이라는 창조적 강점을 지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 확보 대신 전문성의 바탕 위에 작업을 시행하는 학자들의 관심에 집중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과 몸의 중요성 극대화라는 본래 의도를 연결하려면, 실천을 위한 이론의 한계를 넘어 실제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는 실천 자체를 강화하면 어떨을까? 예를 들어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를 통해 노동이 기도라고 설파한 기독교 영성 전통을 오늘날 알파 세대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유형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예술적이고 점잖은 접근방식이 자칫 빈부 격차나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른 교회 공동체의 서열화를 암시적으로 상징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로 연결된다.

끝으로 사소한 글쓰기 방식을 지적하고 싶다. 논찬보다 논문 심사에서 주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한 문단을 너무 길게 서술한 점이나 연구자 자신의 의견이 대안의 핵심을 구성하지 않고 유명 학자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한 듯한 항목은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결과인지 묻고 싶다. 비록 논문 발표가 더 많은 연구를 위한 기초공사 성격이 강하더라도, 연구자는 과거 선행연구와 다른 자기만의 가설을 제시할 무거운 의무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을 기억하며 주로 복미를 포함한 서구사회의 적합한 내용을 배제하고 한국 사회 또는 한국교회에 특화된 내용 개발에 주력하기를 부탁한다.

본 연구는 알파 세대 기반으로 전개한 실천신학 분야의 여러 선행연구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이유로 학회 구성원이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들의 흔적이 자주 확인되며, 암시적 연속성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한 주제를 최근 추세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독창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높이 평가할 만한 학술 자질이며, 실천신학 진보의 밑거름으로 기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자가 선택하고 탐구한 이 논문의 내용이 본인 자신 외에 다른 많은 연구자를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 5 발표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이 종 민 박사

(총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연령대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연구는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소비층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세대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지만 출생년도와 각세대의 문화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1945-9164년생), X세대(1965-1980년생), Y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0-2009년생) 그리고 알파 세대(2010-현재까지) 등을 나열할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세대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 분야에서는 각 세대의 특징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현재 인구 동향과 기술 발달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다. 첫째 변화는 인구수의 증가와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면, 실시간 인구 통계를 집계하는 월드오미터(worldometer)의 의하면 2024년 1월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다.¹⁾ 그뿐만이 아니라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의 알파 세대가 20억 명(전체 인구의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노령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인구 추세

1) 월드오미터, “현재세계인구,” (2024.1.), 접속 2024.1.3. <https://www.worldometers.info/kr/>

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점점 감소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알파 세대가 이 시대의 주력 세대로 등장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자료이다.²⁾

둘째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문명의 발달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판도의 변화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공지능(이하 AI) 시장의 성장률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볼 때 국내 금융 AI 시장이 연평균 38.2%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3조 2천억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27년이 되면 지금보다 4.6배가 성장한 563조 9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히 업종별로는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가 급성장할 것이고, 기술별로는 컴퓨터 비전 관련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

셋째 변화는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을 우리의 생활, 학습, 여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픈AI사(Open AI)가 2018년에 시작하여 2020년 11월 30일에 GPT3를 출시하였고, 그 이후 GPT4를 2023년 3월 15일에 공개하면서 교육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챗GPT는 딥러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써, 언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창작하도록 제작된 인공지능이다. 특히 사용자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답변을 창출해 내도록 강화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기존의 AI기반 학습프로그램과는 달리 “레이블러”(labeler)라는 인간 학습 안내자를 두어 정보처리과정에서 환류를 하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결과물을 창출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물론 챗GPT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는 현재 포춘지(Fortune)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92%가 기업 활동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이처럼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효과적인 교육과 목회를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히 세대를 뛰어넘어 동일하게 전수되어야 하는 학습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방법의 변화에 따라 학습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숙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2차 산업사회에서 3차 산업사회로 옮겨지면서 다양한 학습 도구의 변화에 따라 폭발적인 학습 내용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학습자와 학습 방법의 특색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이 구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2) 김경민, “MZ보다 더 센 그들... ‘잘파세대’는 누구?” 『매일경제』, (2023.7.14.).

3) 전필수, “국내 금융 AI 시장 2026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 전망,” 『한국신용정보원』 (2022.5.17.).

4) 임대준, “세계 AI시장 규모, 2027년 563조로 4.6배 성장,” 『AI타임즈』 (2022.11.8.).

5) 임경엽, “챗GPT 1년... 여론조사에 상품기획까지 세계 500대 기업 92%가 활용,” 『조선일보』 (2023.11.27.).

알아가며,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알파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전통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목회의 틀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하면서 최첨단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교육 방법과 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교회의 미래 꿈나무들, 즉 알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목회 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

알파(Alpha) 세대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인구층으로, 2024년 현재 중학교 1학년부 터 시작하여 초등학생들과 영유아에 이르는 세대이다. 이 개념은 호주의 사회학자인 마크 맥 크린들(Mark McCrindle)이 창안한 것으로 21세기에 출생하여 자라나는 “21세기 첫 번째 세대”로서 고대 그리스 알파벳 알파(α)를 사용하여 세대명을 만든 것이다. 알파 세대의 특징을 X세대와 베타 세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구분	Z세대	알파 세대	베타 세대
교육 결과	고용 가능	적응할 수 있는	기업가적인
학교 초점	시험 결과	학습 기술	생활 기술
마케팅	동료	인플루언서	인공 지식
노동 스타일	참여적	협업적	공동 창작자
이상적 리더	조정자	위임	확대기
지불 방법	크레딧카드	디지털	가상
기술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동작 조절
소비 성향	맞춤형	개인화	예측
충고	전문가적 승인	사회적 공인	동료 영향력
사업 정황	변화하는 추세	빈번한 중단	계속적인 폭발

알파 세대의 특징은 교육의 결과로 학습자들이 사회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며, 시험 결과 보다는 학습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비성향에 있어서는 개인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마케팅에 있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일하는

6) Mark McCrindle,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2020). 접속 2024.1.4.
<https://generationalpha.com/wp-content/uploads/2020/02/Understanding-Generation-Alpha-McCrindle.pdf>

스타일은 협업적이고, 위임을 잘하는 리더를 선호하며, 의미 있는 충고는 전문가로부터 승인을 받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확인을 받는 공인을 선호한다. 사업은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라기보다는 빈번한 중단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음성인식과 디지털 형식의 지불 방식이다. 이처럼 알파 세대는 이전 세대인 Z세대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2008-2010년생)은 Z세대와 겹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알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포스트 Z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⁷⁾ 이처럼 알파 세대는 맥크린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며,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생활하며, 국경없이 인터넷으로 글로벌한 연결을 형성하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시각 중심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파 세대는 Z세대와는 달리 21세기에 태어나고 자란 첫 번째 세대로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Z세대도 1990년대 모바일 기기와 2000년대 소셜 네트워킹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지만, 알파 세대는 태어나기 전부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기기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들은 처음 임신 초기부터 입체 초음파 사진으로 외모를 확인했고, 출생 후에는 다양한 스마트 의료 장비에 의해 수집된 신체 수치가 디지털화되어 건강 정보로 전환되어 검진받고 혜택을 누리는 세대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알파 세대의 미디어 사용 빈도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에 쉽게 적응하며, 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자기 통제성이 부족할 경우 미디어 중독이나 의존, 혹은 과몰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세대이다. 그래서 김현과 장병희는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 유형은 연구한 결과, 부모의 적극적인 중재는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제한적/공동 이용 중재는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⁸⁾ 특별히 제한적 중재는 아이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특정 시간대나 특정 콘텐츠만 이용하도록 하는 중재 방법이고, 공동 이용 중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를 사용하는 중재 방법이다. 이러한 중재 방법의 효과를 감안해 볼 때, 디지털 원주민인 알파 세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비록 알파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감시하거나 함께 이용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알파 세대는 디지털 1세대로서 “디지털 온리”(digital only) 세대라고 일컫고 있

7) 이승연, 정연현, 이정연, “포스트 Z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평가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2021), 1.

8)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2/1(2022), 148-149.

다. 그들은 휴대기기 혹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놀이와 여가 그리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놀이 콘텐츠들은 개인적인 보상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활동과 체험활동을 하는 놀이인 동시에 때로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를 통해 알파 세대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고, 더 나아가 창작과 성취의 기쁨을 얻게 된다.¹⁰⁾ 이와 관련하여 김영아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조형예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적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 조형예술의 특징과 연관하여 2차원 혹은 3차원의 창작물을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직접 가공하거나 재창조하는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메타버스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예술적 흥미와 재미 그리고 보상을 즉시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발견하였다.¹¹⁾ 이는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가상학습공간이 알파 세대 학습자에게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그리고 알파 세대를 위한 놀이와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아날로그적 공간 확보와 함께 디지털적 공간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알파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산자로서, 일명 “디지털 소비자”(digital prosumer) 세대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을 사용하였고, 영유아기 때 손에 휴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와 유희를 즐겼던 아이들이다. 또한 유아기 때에는 AI기반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돌봄과 성장의 필요를 채움 받은 세대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는 “에코 닷 키즈 에디션”이라는 어린이용 AI 스피커를 출시하였는데, “알렉사”라는 AI 친구가 알파 세대와 대화하고 놀이를 병행하였다.¹²⁾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알파 세대를 겨냥하여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만들었다. 특히 아동용 장난감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기존의 홍보 방식이 아닌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활용하고 있다.¹³⁾ 이러한 과정에서 알파 세대는 부모 세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콘텐츠의 리소스가 되어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이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디지털 콘텐츠

9)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으로써,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구현한 가상세계이며, 현실 세계를 초월한 가상 세계이다. 박진경, “메타버스와 기독교교육적 활용 연구: 메타버스 콘텐츠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4(2023), 589-616. 592.

10) 김영아, 한정엽, “메타버스 기반 알파 세대의 조형예술 교육 사례 연구 및 활용 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7/7(2022), 276.

11) 김영아, 한정엽, “메타버스 기반 알파 세대의 조형예술 교육 사례 연구 및 활용 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7/7(2022), 279.

12) 이노션, “새로운 연결의 시대, 알파 시대가 열렸다,” (2021.1.). 접속 2024.1.3.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01666>

13) CaeieSoft사는 알파 세대를 공략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고전략이 아니라, “Carrie and Toys”라는 유튜버를 활용하여 신상품을 소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박혜숙,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2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6(2016), 759.

를 창출해 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알파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노출되어 진다. 그 결과 알파 세대에게 요구되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구비되기도 전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히거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인식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효정은 알파 세대와 Z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구 한 결과, 알파 세대가 Z세대보다 2년 정도 일찍 미디어에 노출되고, 모바일 게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심지어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고 캐릭터를 공유하는 디지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알파 세대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비자로서 자기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로서 선호하는 콘텐츠를 구독하고, 디지털 미디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된 콘텐츠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정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형성하여 폭넓은 검색과 올바른 사이트 사용 등을 통한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알파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학습자”(digital learner)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생활환경-교육환경적으로 자라난 세대이다. 알파 세대에게 행해지는 학습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별히 알파 세대가 접하고 있는 생활환경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 익숙하고, 더 나아가 영상 중심의 미디어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하기에 알파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이야기 이해 능력이 낮은 편이다. 왜냐하면 글로 된 책에 익숙하기보다는 유튜브에 떠도는 숏폼 영상이나 단문 위주의 텍스트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축약어를 활용하여 스마트기기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환경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변화된 학교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학기제 시행, 수행평가 위주의 평가, 외고·자사고의 폐지,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대이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직면해야만 하는 세대가 바로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 아이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알파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해 보다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학습방법과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는 세대임에 분명하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동되고 있는 인공 지식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학습하고 숙련해야 하는 디지털 학습자로서의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격

14) 김효정 외 6, “알파 세대 초등학생의 음악소비 실제 및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교육논총』 42/2(2020). 171-175.

차”(digital divide)를 여러모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예를 들어 알파 세대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이지만, 다른 어느 세대보다 극심한 결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이다. 왜냐하면 출생률 저하로 어떤 아이는 부모와 양가 조부모 그리고 이모 혹은 고모와 삼촌들로부터 실물과 유사한 고급 자동차를 선물 받아 놀이와 유희를 즐기지만, 어떤 아이는 홀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 빈약한 돌봄 가운데 허기짐과 외로움에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교육환경도 마찬가지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풍요로운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과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현황을 부모의 소득과 연관지어 조사한 결과, 소득 최상층과 최하층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남과 동시에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제한적 중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한편 경제력이 뒷받침 못할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교육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학교교육에서만 이러한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도 극심한 격차가 있다. 주일학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자연스럽게 드렸던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주일학교를 거쳐 온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이고, 수련회와 제자훈련과 같은 신앙공동체의 공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온 세대가 바로 이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주일학교 조차 없어서 알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이다.

III. 교육 목회에 대한 이해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적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경말씀 중에서 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9절과 마태복음 28장 18-20절이다. 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가르친 “쉐마”로써,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육명령”(Educational Mandate)이라고 불리우고, 후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으로써, 예수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운다. 교육명령인 쉘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을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율법의 가치를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한편 지상명령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분부한 모

15) 박미영, “코로나19 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결교회와 신학』 48/가을호(2022), 88.

16)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연구보고 20-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92-93, 191.

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는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교육적 기능을 통하여 건강한 목양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교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목회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목회이다.

교육목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educational ministry라고 표현된다.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실천신학¹⁷⁾의 한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천신학은 한편으로는 교회 신학인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학문인 심리학, 사회학, 철학, 정치경제학, 행정학, 문학 등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신학 분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서와 교회 전통에 관한 정확한 앎과 더불어 인간의 현재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이 접목되어 하나의 교육목회로 집약된다. 그리고 교육목회의 영역은 말씀 선포, 영혼의 돌봄, 교회 행정, 신앙인으로서의 형성과 변화, 사회구조와의 관계 등의 사역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교육목회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고, 이론과 실천의 접목이며, 교회 안과 밖의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회의 특징을 강희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교육목회는 성서신학이나 이론신학을 단순히 응용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현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성서의 의미를 해석하는 실천신학과의 밀접한 관계성 아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둘째로 교육목회는 신앙인으로서의 형성(formation)을 돕는 일임은 물론, 비기독교적인 삶을 기독교적인 삶을 변형(transformation)시키도록 돕는 일을 그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기에, 기독교적 삶과 비기독교적 삶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셋째로 교육목회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프락시스(praxis)적 접근도 중시하는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¹⁸⁾

그뿐만 아니라 정일웅은 칼빈의 제네바 목회사역을 소개하면서 교육목회의 기초로써 교리교육을 소개한다. 칼빈은 법학과 인문교육을 통해 성서 언어에 능통했던 신학자인 동시에 제네바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이며,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사람들을 교육했던 교육자이다. 특별히 칼빈의 교리교육은 교육목회의 관점과 틀과 교육철학을 제공한다. 먼저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는 설교와 교리적 가르침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설교와 가르침의 행위 그

17) 한국교회에서 실천신학 분야에서 신앙교육 문서와 관련하여 발행한 초기 문서는 1893년에 감리교회에서 발행한 「의경문답」과 1895년에 장로교회에서 발행한 「위원인교인 규도」가 있다. 한편 목회학 문서로는 1901년에 북감리교 선교사 무임길이 한문으로 번역한 「목사지법」과 1919년에 북장로교 선교사 박안련이 저술한 「목스지법」이 있다. 신앙교육 문서들은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 서들이었고, 목회학 문서들은 목사의 자질과 역할을 다루는 문서들이었다. 위형윤, “한국실천신학의 정립역사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36(2013), 15-17.

18) 강희천, “교육목회와 교육사 제도,”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1990), 290-291.

수행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교리는 교회교육에서 3가지 차원—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인식,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또는 기독교적인 삶의 올바른 스타일 형성을 위한 가르침, 그리고 신앙의 혼계와 신앙 성장을 일으키는 가르침—에서 응용되었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학습인 교육(Katechumenen)과 입교인 교육(Konfirmandenunterricht) 그리고 가정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목회 현장에서 실천되었다.¹⁹⁾

이러한 교육목회의 역사를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채혁수는 미국교회의 교육목회 역사를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처음으로 교육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기독교교육운동을 시작한 제임스 스마트(James Smart)로, 그는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며 교회의 교육목회의 기초를 놓았다. 다음으로 마리아 해리스는 “교육목회 커리큘럼”(Fashion Me People)에서 엘리웃 아이즈너의 커리큘럼 이론과 월커 부르그만이 제시하는 신앙공동체의 다섯 가지 기능(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을 중심으로 교육목회 이론을 정립하였다.²⁰⁾

반면에 김도일은 한국교회의 교육목회 역사를 3단계로 나눈다. 교육목회 1.0(1900-1945)은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사역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과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교회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역사적 사명을 감당했던 시기이다. 교육목회 2.0(1946-2000)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 근대화 속에서 분단의 아픔과 이데올로기 논쟁, 수적인 부흥과 교단적 분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 간의 해리 현상이 교회 안팎으로 공존하며 교회교육이 발전하고 정착한 시기이다. 마지막 교육목회 3.0(2000-2015)은 부흥의 1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손양원, 방지일, 한경직, 옥한흠, 조용기, 하용조 등), 이전 세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나안 성도, 영적이나 종교적이기를 기피하는 세대, 저출산 세대)가 일어나 새로운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관계를 중심으로 세대 간 통합을 이루며 협업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다.²¹⁾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교육목회와 한국의 교육목회 역사를 종합하고, 새롭게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교회가 시도해야 하는 교육목회의 실제적인 모형은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 김효숙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경계의 해체”—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인간과 비인간, 인간의 활동과 기술적 활동, 집중화된 생산 주체와 분권화된 생산 주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를 분석하면서, 마리아 해리스가 제시하는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을 첫째, 잠재적 그리스도인까지 포용하고 환대하는 코이노니아, 둘째, 인간의 온전한 번영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케리그마, 셋째, 공동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레이

19) 정일웅,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교육연구』 1/1(1990), 10-16.

20) 채혁수, “뉴노멀 시대의 교육목회,” 『신학과 실천』 72(2020), 491-492.

21) 김도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3.0,” 『교육목회』 46(2015), 31-36.

투르기아, 넷째, 확산적 환경에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디다케, 그리고 다섯째, 교회 안과 밖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디아코니아로 제안한다.²²⁾

물론 교육목회는 단지 교육목회를 위한 틀만을 제공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사역형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목회자와 교사가 필요하다.²³⁾ 먼저 교육목회에 있어서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신형섭은 코칭을 통한 교육목회의 모델을 보고하면서, 기존의 교육목회는 강의를 중심으로 한 신앙교수(instruction)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전수가 핵심 있다면, 코칭은 관계중심적이고 비전지향적인 교육목회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⁴⁾

한편 교육목회에 있어서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요소가 있다면 세대 간 통합의 문제이다. 신현호는 온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과 실천방향을 분석하면서, 온세대 교육목회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신앙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유기적 교육과정으로써,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중을 교육목회의 대상으로 삼아 공식적인 차원에서 통합성과 일치성을 추구하고, 통시적인 차원에서 연속성과 다양성 그리고 관계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목회를 감당할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을 분석해 볼 때, 이원일은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세기 동안 지향해 오던 사범계열의 특징을 내려놓고 글로벌리제이션한 시대에 걸맞게 교육과 목회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독특성과 정체성을 도모하면서 교육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²⁵⁾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목적은 교육적 이론과 목회적 실천의 통합을 바탕으로 담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목회자 양성”으로 삼고,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신앙적 인격자, 복음적 신학자, 실천적 교육자 그리고 헌신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육적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세웠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조직은 기존에 운영되던 교양, 전공, 그리고 선택(일반선택, 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등) 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심화학습을 위하여 학부와 신대원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목회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교육목회학박사과정을 통해 교육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교수자들을 위한 교수 방법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매체 교육과 교육목회를 강화하기 위한 강의요목 공유와 개발을 지원해야 함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목회를 담당할 교육리더십을 분석해 볼 때,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

22) 김효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58(2018), 127-131.

23) 신현광, “교육목회에 있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2012), 490-503.

24) 신형섭, “코칭으로 다음세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목회 현장 스토리,” 「교육목회」 45(2014), 70.

25) 이원일, “기독교교육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연구,” 「신학과 목회」 29(2008), 81-113.

육목회자가 갖춰야 하는 핵심적인 소양은 무엇일까? 신현광은 교육목회에 있어서 목사는 교회의 전반을 돌보는 총괄자이며, 성도를 온전히 구비시켜 주는 교육자이며, 동시에 교회 전체 프로그램의 감독자로서, “독실한 신앙, 내적 인격 개발, 일반적 교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학습, 적절한 감정과 태도의 개발” 등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제한하고 있다.²⁶⁾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알파 세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목사의 핵심적인 역할과 자질에 대해 조은하는 렉스 밀러의 “밀레니엄 매트릭스: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의 미래를 탐색하라”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여 네 가지 핵심 소양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 사회에 교육목회를 하고자 하는 교회 지도자는 ‘커버네트워크’(covenetwork, 언약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회 간에 소스를 협력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하고자 스토리텔링을 위한 내러티브와 서사적인 주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미래 사회 속에서 교육목회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언약공동체 개념을 기반으로 ABC공동체—책임감(accountability)과 소속감(belonging)과 돌봄(care)—를 세워가면서 참여-경험, 소통-관계, 가치-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교육목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배는 21세기에 맞게 전통과 유산이 재해석되고 문화에 영적 가치와 신앙적 경험을 적용하기 위한 ‘이머징 워십’(emerging worship)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변화 가운데 효과적인 교육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삶과 참여적인 삶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²⁷⁾

IV.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교육과정

2020 이노션 트렌드 보고서(2020 Innocean Trend Report)에서는 알파 세대를 위한 대전환을 예측하면서, 세대, 지식, 거주 공간, 그리고 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세대로 연결, 지식을 성장으로 연결, 분리에서 유연성으로 연결, 몸 치료에서 마음의 치료로 연결”이라는 키워드들을 제시하였다. 즉 알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AI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세대이고,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자기 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 모델을 추구하는 학습공동체이고, 더 나아가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운동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능을 위한 멀티-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공간 활용도 ‘리모델링’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기동식 구조’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개조-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 영

26) 신현광, “교육목회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2(2014), 626.

27) 조은하,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기독교교육,” 『신학과 현장』 20(2010), 167-174.

역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보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단조로운 차원의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교감능력이 있는 상호작용 로봇을 선호하고, 치료적 차원도 육체적 회복을 뛰어넘어 심적인 차원에서의 마음 치료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이러한 변화들을 감안해 볼 때,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교육과정은 학습자인 알파 세대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학습 내용을 표면적인 차원에서 전달하고 끝나는 지식 축적이 아닌 내면적인 차원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식 형성을 추구해야 하며, 학습공간을 보다 다양한 사물인터넷과 AI를 활용한 열린 공간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인적 회복과 성숙을 학습 목표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이론들이 20세기에 강조되었다면,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변화되어지는 사회를 바라보는 교육학자들이 미래 세대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일궈 나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경은 OECD 교육 2030 보고서에서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2030을 위한 “초월적 핵심역량”(Transversal Key Competencies for 2030)으로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한 “혁신”(innovation), 긴장과 딜레마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으로써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제시하였다.²⁹⁾ 그리고 역량 기반의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한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 할 때 유념해야 하는 6가지 사항—학교 교육목표에의 역량 반영 방법,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의 변화, 평가의 변화,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준비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내용의 통합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핵심역량 함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모형을 교과과정 수준(교사, 학교/교과, 학교)과 연계·통합의 유형(교과 내 연계, 교과 간 연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특색 프로그램)을 참작하여 6가지로 제시하였다.³⁰⁾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일차원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식을 경험하고 신앙적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으로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28) 이노선, “새로운 연결의 시대, 알파 시대가 열렸다,” (2021.1.). 접속 2024.1.3.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001666>

29) 이미경,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연구보고 RRC 2016-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75.

30) 한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연구보고 RRC 2017-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vii-ix.

그리고 박미영은 코로나19를 겪고 새롭게 교회학교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알파 세대를 위한 예배공동체, 학습공동체, 그리고 섬김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다.³¹⁾ 이 중에서 예배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예배”를 알파 세대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배의 역동성, 세대와 문화 간의 갈등 극복, 그리고 공동체의 삶과 현대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소그룹을 기반으로 성경공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블렌디드 러닝”을 제안하고, 동시에 성경공부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브루타” 교육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방법을 수련하고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섬김공동체를 위해서는 알파 세대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주체로 세우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섬김의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히 마을을 섬기고 문화를 변혁하는데 디지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는 기존에 행하던 예배와 학습과 섬김을 학습자의 특성에 맞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도록 탈바꿈된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파 세대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을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키워드를 찾아보면, 알파 세대가 기반으로 하는 기초는 “디지털”(digital)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행복”(happiness)이며,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은 “문해력”(literacy)이다. 반면에 기존의 교육과정은 “아날로그”(analogue)에 기반을 두고, “성공”(success)을 향하여 숙련된 “역량”(competencies)을 구비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분석해야 하는 영역은 새로운 기반과 올바른 목적과 교육목표, 그리고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1.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기반(Foundation)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기반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초의 확립하고자 “지능증폭”(intelligence ampl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지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를 IQ라고 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단순히 지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교육학자들은 다양한 측정 도구들을 고안하여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감성지수인 EQ, 도덕지수인 MQ, 사회성지수인 SQ, 창조성지수인 CQ, 유추지수인 AQ, 열성지수인 PQ, 글로벌지수인 GQ, 디지털지수인 DQ,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영성지수인 SQ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 도구들은 인간이란 전인격적인 존재를 파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개의 측정 지표일 뿐이다. 하지만 AI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파편화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

31) 박미영, 「코로나19 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경교회와 신학」 48/가을호(2022), 91-99.

다. 특별히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며, 더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내는 창조적인 인간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AI와 경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삶의 각 영역들을 이해하여 필요에 따라 융합-복합하여,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파편화된 인격의 각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인격적 소양을 갖춘 인간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AI를 생각할 때,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마치 자동차가 빠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라 다니고, 배가 물 위를 다니지만, 인간을 결코 자동차와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고, 비행기와 멀리 날기를 경쟁하지 않으며, 배와 수영 경주를 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이는 인간은 인간이고,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주체이고 다른 것들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I는 기존에 있었던 사물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AI는 “인간과 독립되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창작하는 시스템”이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모방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AI를 인간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특별히 이러한 AI와 함께 태어나고 자라나는 알파 세대는 AI를 어떤 대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능증폭”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능증폭은 보조 지능(assistive intelligence),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 인지 증강(cognitive augmentation), 기계 증강 지능(machine-augmented intelligence)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휴대하기 시작하면서는 전화번호를 외우기보다는 저장하여 사용한다. 심지어 전화기에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사용하고, 전화기를 바꿀 때에는 메모리 칩만 교환하여 모든 정보를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즉 기계 증강 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지능을 증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증폭이란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의사결정,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³²⁾

그런데 지능증폭에 도구가 될 수 있는 AI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약한 AI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 AI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기술은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이다. 예를 들어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AlphaGo)나 파운테이션 모델과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설계된 IBM의 왓슨(Watson)과 같은 시스템이다. 또는 요즘 심야에 운행하고 있는 무인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다. 이러한 약한AI는 현재 경영, 의료, 교육, 산업 그리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강한AI는 “인

32) 박남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한국초등교육』 32/2(2021), 26.

간 지능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는 인공적인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데,³³⁾ 이러한 인공지능이 출현 시점은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술이 발달할 경우 2030년까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와 함께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알파 세대의 지능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발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교육목회를 위한 기반은 어디까지 놓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챗GPT가 출시되면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전에는 아날로그적 글쓰기와 디지털적 글쓰기로 나뉘었다. 그러나 챗GPT가 출시된 후에는 챗GPT를 사용하여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결과물을 얻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글을 완성하는 방식과 글을 먼저 작성한 후에 챗GPT를 사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글을 완성하는 방식이다.³⁴⁾ 만일 알파 세대가 전자와 같이 챗GPT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면서 디지털 온리이지만, 자신의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약한AI를 사용한 결과에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 세대가 후자와 같이 챗GPT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디지털 생비자이며 디지털 학습자로서 자신의 정보수집 능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창의성을 가지로 자신의 결과물을 창작해 간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조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알파 세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들의 타고난 지능을 “증강 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목회의 토대를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목적과 목표(Goal & Objectives)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목표인 신앙 성숙을 스말로그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알파 세대를 교육목회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바로 “스말로그 교육”(smarlogue education)이다. 스말로그 교육이란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과 전통적 대면식 아날로그 교육(analogue education)을 조합한 신조어이다.³⁵⁾ 특별히 스말로그 교육은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해 준다고 할

33)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117(2017), 114.

34) 박남기, “AI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 탐색,” 『General Education and Citizen』 8(2023), 11.

35) 스마트교육의 특징은 자기주도(Self-directed), 학습흥미(Motivated), 수준과 적성(Adaptive), 풍부한 자료(Resource Enriched), 그리고 정보기술활동(Technical Embedded)이고, 아날로그교육의 특징은 시공간적 의사소통(spatiotemporal communication), 지속성(continuity), 실제성(real-world representation), 유연한 전환성(smooth transitions), 복잡성(complexity)이라 할 수 있다. 박남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한국초등교육』 32/2(2021), 28.

수 있다.

첫 번째, 스말로그 교육에서 말하는 학습자에 대한 전제이다. 스말로그 교육에서 말하는 학습자 이해는 기존에 일반학교교육에서 바라보던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다른 점이 있다. 일반학교교육에서 학습자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백지장과 같은 학습자에게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성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교사가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재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유능한 성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말로그 교육에서 학습자란 “오늘을 살아가는 존중받는 한 개인”으로 전제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학습자를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이며, 한 인격으로 존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학습자에 대한 전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알파 세대를 바라보는 교육목회자에게 필요한 시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알파 세대란 디지털 원주민으로 태어나, 디지털 온리를 추구하며, 디지털 소비자로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지털 학습자이고, 이들을 바라보는 교육목회자들은 디지털 이방인이며,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낀 세대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스마트 시대의 교수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교육목회의 대상을 이해할 때, 성인과 마찬가지로 알파 세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가운데 알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할 역량을 구비하도록 훈련시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스말로그 교육은 교육매체나 교육형태 차원에서 볼 때, 알파 세대의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목표를 재설립하는데 매우 유익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육매체적인 측면에서 스말로그 교육을 살펴보면, 스말로그 교육은 대면 중심의 아날로그 교육환경에 스마트 교육의 도구인 에듀테크(edutech)를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기술활동을 아날로그 교육환경인 교실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창의수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일학교 공과인 “하나바이블”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교재이고, 이를 활용하여 대그룹 중심의 예배와 소그룹 중심의 공과공부,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홈학습을 진행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높은 교재이다. 특별히 이러한 교재를 스말로그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목회에서 적용한다면 알파 세대 학습자의 신앙성숙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에듀테크가 될 것이다. 둘째, 교육형태적 측면에서 스말로그 교육을 바라보면, 스말로그 교육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제반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통합형 교육이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교육이 행해지던 경직된 교실 안과 밖에 스마트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자원들을 학습자의 흥미나 수준 혹은 적성에 맞게 도입하여 역동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형 연계수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지교

회에서는 “언더우드와 함께 걷는-정동”이라는 교회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하여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직접 정동길을 걸으며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필요에 맞게 디지털화 되어진 정보를 활용하고 아날로그적 신앙 감성을 훈련함으로써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형태라 할 수 있다.

3.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교육과정(Curriculum)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를 새로운 개념으로 가지고 필요한 요소들을 재조정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생태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슨(James Gibson)이 처음으로 “시각적 인지의 생태학적 접근”에서 제시한 “어포던스”(affordance)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동사 ‘어포드’(afford)의 명사형으로,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행동유도성”이라고 번역된다.³⁶⁾ 다시 말해서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를 구상함에 있어서 알파 세대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차원에서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를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개념은 물건이나 사람 사이에 있는 특정한 관계에 따라 제시되는 것들이 사용과 동작 그리고 기능이 서로 연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인지심리학자인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이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면서 신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제 어포던스”(real affordance)와 어떤 행동을 인지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로 구분하였다. 그 후 하슨(Harson)은 디자인에 있어서 도구를 느끼고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포던스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념을 감각적 어포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인지적 어포던스, 그리고 기능적 어포던스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디자인적 개념을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에 도입하면 아래와 같은 교육목회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

	예배	교육	봉사
감각적 어포던스 (시인성, 실재성, 가시성)	영상, 오디오, 실내 향기와 시설물	칠판, 프로젝트, 책상, 의자, 테이블 등	봉사를 위한 도구와 기술
물리적 어포던스 (적절성, 신속성, 유용성)	예배 인도자와의 화답과 교감	교수자와의 질의응답과 교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	봉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교감

36) 노이경, 남경숙, “디지털미디어 전시환경에서의 어포던스디자인 요소별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5(2017), 137.

		업방식	
인지적 어포던스 (직관성, 공통성, 위치성)	예배 순서지 PPT 자료	교육용 실라부스 학습용 교재	은사 발견 봉사 메뉴얼
기능적 어포던스 (조직성, 정보성, 행동성)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학습자의 준비도와 참여도	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열정

예를 들어 첫째, 알파 세대가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감각적 어포던스”는 시인성(글자와 이미지가 충분히 크다)과 실재성(그래픽 이미지와 사운드가 실재감이 있다) 그리고 가시성(시각적으로 가시성이 높고 발견·판별하기 쉬워야 한다)이 필요한 것으로써, 예배의 경우, 영상과 오디오 그리고 실내 향기 및 시설물들을 세대적 감각에 맞춰 디자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경우, 알파 세대 학습자가 감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을 구비하는 것이고, 봉사에 있어서는 봉사활동에 적합한 도구들이 준비되고 기술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알파 세대가 신체적 행동이나 물리적 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리적 어포던스”는 적절성(각 버튼과 아이콘이 충분히 크다)과 신속성(각 버튼이나 메뉴를 눌러도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동한다), 그리고 유용성(스크린의 확대, 축소, 회전 등 콘텐츠 이용이 도움이 된다)이 필요한 것으로써, 예배 시에는 예배인도자와 예배참석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잘 짜여진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교육 시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방식을 통해 보다 실재적인 교감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에 있어서 봉사자인 알파 세대가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제와 이슈들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교육목회에 있어서 유도된 행동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지적 어포던스”는 직관성(각 버튼과 아이콘 기능을 쉽게 파악한다)과 공통성(어떤 버튼이나 아이콘이 실행되도록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피드백이 실행된다), 그리고 위치성(특정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버튼이나 아이콘 기능을 해야 하는 위치에 정확히 있다)이 필요한 것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장치가 필요한데, 예배 시에는 주보, 안내지 혹은 피피디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고, 교육 시에는 실라부스나 교재와 같은 교육 도구들이 필요하며, 봉사 시에는 은사 점점이나 봉사 메뉴얼과 같은 행정적 도구들이 필요하다. 넷째, 알파 세대가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어포던스”는 조직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분류체계의 배치가 잘 조직되어 있다)과 정보성(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설명이 적절히 제공되어 있다), 그리고 행동성(물리적 장치 또는 인위적인 활동을 통한 작가의 의도, 작품의 목적을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으로써, 학습자가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요소인데, 예배 시에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고, 교육 시에는 준비도와 참여도가 필요하며, 봉사 시에는 동기부여와 열정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³⁷⁾

V. 나가는 말

사사기는 신앙의 전수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대”(히 𐤑𐤃)라는 단어는 시간의 회전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시대’ 혹은 ‘세대’를 뜻하고,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거주(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특별히 시간적 개념에서 세대는 성경 본문에 따라 40년의 기간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시95:10), 50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레23:8-10), 70년으로 보기도 하며(시90:10, 사23:15, 렘25:3-14, 단9:23-27), 혹은 100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창15:13-16). 한편 같은 개념의 헬라어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대”(헬 γενεά)라는 단어로 ‘세대’ 혹은 ‘시대(기간이나 사람들)’, ‘국가’, ‘시간’의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처럼 세대란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 기간 동안 동일한 경험을 함께 겪은 경험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사건과 역사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을 때,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서 더욱 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신앙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교육의 대상은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세대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는 서로 다른 경험과 참여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더 나아가 알파 세대까지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기술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세대로 세워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같은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교육목회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알파 세대를 디지털 네트워브, 디지털 온리,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학습자로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 대상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목회를 이해하고자 교육목회란 실천신학의 한 영역으로 이론적 신학과 세상의 학문을 통합하는 사역의 기본적인 틀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교육목회 방법과 대상의 통합 그리고 교사와 교육목회자의 소양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를 위한

37) 윤미연, 이지혜, “메타버스 전지환경 내 알파 세대를 위한 어포텐스 요소에 관한 연구,”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8/2(2023), 175.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교육목회의 사역 대상인 알파 세대의 전인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자 지능증폭의 개념을 기반으로한 교육목회의 기틀을 확장하였다. 둘째, 교육목회의 목적과 교육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스말로그교육방법을 도입함으로 교육목회의 형태를 세워보았다. 셋째, 교육목회의 내용인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어포던스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목회의 교육과정을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구상해 보았다.

바라기는 계속되는 연구를 통하여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기틀이 성경적 차원에서 연구됨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알파 세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목회 기틀이 놓였으면 한다. 그리고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목적과 교육목표가 개교별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정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콘텐츠를 아날로그적 감성을 따라 경험-참여-관계가 교회 현장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교육과정은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목회의 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관점에서 커리큘럼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영 커리큘럼적 관점에서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 강희천, “교육목회와 교육사 제도,”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1990), 289-297.
- 김경민. “MZ보다 더 센 그들... ‘잘파세대’는 누구?” 「매일경제」 2023.7.14.
- 김도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3.0.” 「교육목회」 46(2015), 30-37.
- 김영아, 한정엽. “메타버스 기반 알파 세대의 조형예술 교육 사례 연구 및 활용 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7/7(2022), 273-281.
-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117(2017), 111-137.
-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2/1(2022), 126-163.
- 김효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58(2018), 113-138.
- 김효정 외 6. “알파 세대 초등학교생의 음악소비 실제 및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교육논총」 42/2(2020). 167-180.
- 노이경, 남경숙. “디지털미디어 전시환경에서의 어포던스디자인 요소별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5(2017), 135-142.
- 박남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 「서울교육대학교한국초등교육

- 32/2(2021), 17-32.
- 박남기, “AI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 탐색,” 『General Education and Citizen』 8(2023), 7-41.
- 박미영, “코로나19 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결교회와 신학』 48/가을호(2022), 84-100.
- 박진경, “메타버스와 기독교교육적 활용 연구: 메타버스 콘텐츠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4(2023), 589-616.
- 박혜숙,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Z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6(2016), 753-767.
- 배상률, 이창호, 이정립,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연구보고 20-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신현광, “교육목회에 있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2012), 477-514.
- 신현광, “교육목회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2(2014), 607-637.
- 신형섭, “코칭으로 다음세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목회 현장 스토리,” 『교육목회』 45(2014), 68-73.
- 월드오미터, “현재세계인구,” 2024.1. 접속 2024.1.3.
<https://www.worldometers.info/kr/> (인터넷)
- 위형윤, “한국실천신학의 정립역사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36(2013), 7-38.
- 윤미연, 이지혜, “메타버스 전시환경 내 알파 세대를 위한 어포던스 요소에 관한 연구.”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8/2(2023), 172-182.
- 이노션, “새로운 연결의 시대, 알파 시대가 열렸다.” 2021.1. 접속 2024.1.3.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01666> (인터넷)
- 이미경, 『21세기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연구보고 RRC 2016-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 이승연, 정연현, 이정연, “포스트 Z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평가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2021), 1-14.
- 이원일, “기독교교육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연구,” 『신학과 목회』 29(2008), 81-113.
- 임경엽, “챗GPT 1년... 여론조사에 상품기획까지 세계 500대 기업 92%가 활용,” 『조선일보』 2023.11.27.
- 임대준, “세계 AI시장 규모, 2027년 563조로 4.6배 성장,” 『AI타임즈』 2022.11.8.
- 조은하,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기독교교육,” 『신학과 현장』 20(2010), 155-174.
- 전필수, “국내 금융 AI 시장 2026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 전망,” 『한국신용정보원』 2022.5.17.

- 정일웅. “교육목회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교육연구』 1/1(1990), 8-28.
- 채혁수, “뉴노멀 시대의 교육목회,” 『신학과 실천』 72(2020), 487-515.
- 한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7-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 Mark McCrindle,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2020. 접속 2024.1.4.
<https://generationalalpha.com/wp-content/uploads/2020/02/Understanding-Generation-Alpha-McCrindle.pdf> (인터넷)

논 찬 1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찬

유 은 희 박사

(총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연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없이는 새롭고 복잡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브루그만이 지적하듯 기독교 공동체의 영속성은 중요하며, 이를 추구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있어 교육은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본질적 사명이라할 수 있다. 연구자는 사사기2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를 활용하여 다음세대인 알파 세대가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제안하기 위해 알파 세대와 교육목회 관련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정리하고 있다. 알파 세대의 특징을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온리,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학습자로 보고, 디지털 격차와 그 취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을 위한 교육목회의 새로운 기반을 지능증폭이란 개념을 통해 논하되, 알파 세대가 파편화된 인격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소양을 갖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며 삶의 문제들을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증강지능’ 혹은 ‘보조지능’으로 활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알파 세대를 가르치는 디지털 이방인이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낯선 세대인 교수자들에게 연구자는 알파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전한 인간과 학습자로서 존중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교육매체적 차원에서 아날로그와 에듀테크를 접목하는 융합형 창의수업과 사회제반기관을 활용하는 참여통합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스말로그교육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디자인에서 활용되는 어포던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감각적, 물리적, 인지적, 기능적 아포던스를 교육, 예배 그

리고 봉사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주제 관련 여러 분야의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무엇보다 학제간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본 주제를 접근한 연구자의 시도에 감사드린다. 다만, 다양한 자료 속에서 연구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의미에서 교육목회에 새로운 기반 혹은 토대가 필요한가?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육목회의 새로운 기반이 지능증폭의 견지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둘째로, 디자인에서의 어포던스 개념을 활용한 것은 흥미로우나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왜 어포던스라는 개념, 행위자와 환경 사이의 행동가능성, 행위 유도성이라는 문제가 중요한가? 그에 대한 설득과 그 개념을 교육과정의 논의 내에 위치하게 할 수 있는 프레임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들을 수 있다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서 언급했던 부르그만은 '창조적인 말씀'이라는 책에서 다음 세대를 고려한 교회의 교육적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은 화석화와 상대주의라고 말했다. 이전 세대의 전통을 엄격하게 강조하고 변화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등장하는 세대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와 전통은 화석화 될 위협에 처하며, 반대로 변화하는 상황과 세대에 적실하게 그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지나치면 본질을 잃고 상대화될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르그만은 구약성경 자체가 이러한 과제와 도전 앞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양태 곧 교육과정과 방법면에서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세대론과 사회학, 컴퓨터과학, 디자인, 교육학을 포함하는 여러 사회과학적 문헌을 통해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실한 교육과정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대론의 한계, 교육과정의 연속성, 교육과정과 인식론적 양태의 다양성과 균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알파 세대 역시 디지털로만 대변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양상과 전인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더욱 중요시 여겨지며, 좋은 사회, 좋은 삶에 대한 전망과 참되고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지각과 욕망을 형성하는 교육의 공동체적 차원, 하나님 나라의 텔로스(Aristotle의 eudaimonia)와 아비투스(Aristotle의 habitus)를 형성하는 문제 역시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관련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중요한 논의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탐색적이며 창의적인 학제간 시도를 해 주신 이종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논 찬 2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찬

신 승 범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I. 요약

이종민 박사(이하 연구자)는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목회를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신앙인으로 형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우선 ‘알파 세대’를 정의하고 알파 세대를 Z세대와 비교하거나 또는 알파 세대가 가진 독특성을 제시하며 설명한다. 둘째, 연구자는 교육목회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성서적(교육명령, 신 6:4-9, 지상명령, 마 28:19-20), 신학적(실천신학적), 교육학적(교리교육), 역사적(교육목회의 역사-국내) 관점을 다루고, 이어 교육목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코칭, 세대간 통합, 신학교육의 변화, 교육목회자의 핵심 소양)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교육 과정을 알파 세대의 특징과 교육목회적 관점을 고려하여 알파 세대를 위한 “역량기반(디지털-행복-문해력, 아날로그-성공)”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육목회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연구자는 우선 교육목회의 기반(foundation)을 지능 증폭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AI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알파 세대에게 AI를 “보조 지능”으로 활용하고 타고난 지능을 “증강 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목회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연구자는 이어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스마트로그(smart education+analogue education)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알파 세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디지털과 아날로그 교육의 융합은 교육목회의 목적 달성에 용이할 수 있다. (4.3) 세 번째로 연구자는 “어포던스(affordance, 행동유도성)”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알파 세대가 교육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 어포던스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오감의 자극을 돕는 감각적 어포던스(시인성, 실재성, 가시성),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감을 일으키는 물리적 어포던스(적절성, 신속성, 유용성), 유도된 행동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인지적 어포던스(직관성, 공통성, 위치성), 예배와 교육, 봉사를 기능적으로 완수하는 기능적 어포던스(조직성, 정보성, 행동성)를 제안한다.

2. 질문 및 제언

연구자의 연구에 기반하여 연구의 이해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및 제언을 드린다.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야 한다. 연구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기에 알파 세대를 연구하고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목회 교육과정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기술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학생들은 공교육 및 사교육을 통해 스마트교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AI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 등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교회 밖 외부환경과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구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목회의 역량 재설정, 목적과 목표, 방법 등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부환경의 변화에 소극적인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연구자의 주장이 설득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교회 밖 외부 환경의 변화와 교회교육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연구자는 연구 제목을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제시했다. 독자는 제목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논문을 읽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는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와 교육목회 및 교육과정의 방향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논문 제목의 수정 또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자는 교육목회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다양한 교육목회에 관한 정의를 소개하는데 연구자가 생각하는 교육목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목회의 목적과 목표 부분에서 ‘학습자에 대한 전제’와 ‘스마트로그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너무 비중있게 다루어져 목적과 목표에 대한 강조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연구자의 의도는 이해하나 목적과 목표가 더 부각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자는 나가는 말에서 사사키 2장 10절을 인용하며 세대 간 신앙 단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연구자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세대’라는 번역은 영어로 another generation이지 different generation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한글 번역이 다른 세대로 번역되어 다음 세대 신앙 단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명사처럼 쓰인다. 연구자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논문의 퀄리티를 위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연구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논 찬 3

“알파 세대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찬

김 병 석 박사

(호서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학)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알파 세대의 교육목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현재 발전하고 과학기술 문명과 함께 어떻게 현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한다. 연구자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알파 세대는 20억 명(전체 인구의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시대적인 변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의 급격한 변화로도 볼 수 있다고 연구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구자가 설명하듯 인공지능과 세계 시장의 성장률에 따른 것이며, 본 연구에서 말하듯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삶과 학습 및 여가 등은 많은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때, 학습자와 그 교육적 방법의 특색에 맞는 형태가 구상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교회의 미래 꿈나무들, 즉 알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목회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알파 세대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미디어로 소통하며,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스마트기기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알파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들의 “문제점은 자기 통제성이 부족할 경우 미디어 중독이나 의존, 혹은 과몰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세대”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연구자는 알파 세대에게 있어서, ‘부모의 적극적인 중

재는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조사하였고, '제한적/공동 이용 중재는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¹⁾

이에 따라 연구자는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목회에 있어서 예배 문화와 관련하여 "영적 가치와 신앙적 경험을 적용하기 위한 '이머징 워십'(emerging worship)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 가운데 효과적인 교육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삶과 참여적인 삶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알파 세대에게 내면적인 성장을 위해 학습공간을 다양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열린 공간으로 확대하며, 또한 '전인적 회복과 성숙을 학습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구자는 알파 세대의 교육목회를 위해서 교육목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 대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스말로그 교육"(smalogue educat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통적 방식과 아날로그 교육을 조합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 외에 연구자는 알파 세대에 필요한 앞으로의 교육목회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논의를 위한 질의

1. '스말로그' 교육방식을 통한 신앙교육에서 양쪽의 비율은 어떠해야 하는가?

알파 세대의 신앙 참여를 위하여, 디지털 활용과 스마트 기기의 폭넓은 활용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아날로그 방식을 함께 생각하는 '스말로그' 방식의 교육적 접근으로, 융합적인 교육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알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대안은 AI 디지털 과학적 접근이 최선인가?

알파 세대의 잠재력의 극대화는 현 시대의 AI 디지털의 적극적인 활용 외에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차원의 방법적 접근이 오히려 극대화 된 과학문화에 노출 된 알파 세대에게 색다른 시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3. 알파 세대의 과학적 디지털 혁신 외에, 예배와 설교에 대한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현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오신다. 때문에 알파 세대에 더욱 스마트 기기와 AI의 활용은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를 초월하여 신앙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말씀을 듣는 설교에 있다고 할 때, 알파 세대가 참여하는 지금의 예배 모습

1)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2/1(2022), 148-149.

과 현재 설교강단의 모습이 디지털 과학의 첨단화로 변화해 가는 모습 외에 어떤 예배양식과 설교강단의 변화가 알파 세대에 필요하리라 보는가?

3.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알파 세대를 디지털 네러티브,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학습자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알파 세대에 필요한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교육목회를 이해하면서, 연구자는 앞으로의 교회교육과 교육목회자에 대한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자께서는 현재 신앙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와 알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와 연구자의 표현을 따라 ‘아날로그적 감성’을 교회공동체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같은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알파 세대에 필요한 귀한 통찰을 주신 연구자 이종민 박사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표한다.

제 6 발표

교회 소그룹활동을 위한 생성형AI 활용사례 연구

-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

주 희 현 박사

(홍익대학교 / 실천신학 / 문화예술경영학)

I. 들어가는 말

AI 시대의 도래와 생성형 AI의 발전은 일상생활부터 전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 내는 생성형 AI의 발전은 인간의 사상, 소통, 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텍스트'의 기능과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¹⁾ 곧 인간의 창의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²⁾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지할 때,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 역시 생성형 AI로 수반된 텍스트 활동의 혁명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교회는 이미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장에 발맞춰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며, 한계점을 인식하는 백신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디지털 기술발전이 기독교

1) 유승재, “생성형 AI출현에 따른 대화형 AI 시장의 발전과 변화”, 『MIT Technology Review』 v4, 1-19.

2) AI의 생성 혁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 <https://kctiwebzine.re.kr/2306/issue03.html>

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없으며 오히려 텍스트가 담고 있는 영적 차원을 해석하고 유추하는데 기술이 조력할 수 있음을 증명해 왔다고 자부한다. 프로테스탄트의 속성을 가진 기독교의 변혁은 시대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면서 변하지 않는 텍스트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그 방향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³⁾ 기독교 공동체에서 소그룹 활동이 갖는 의미 또한, 설교나 강연 등 다수를 향한 일방적 텍스트 전달의 한계를 넘어 질문과 토론, 공감과 표현, 소통과 나눔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를 체화하고 심화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 변주를 일으켜 해석과 이해의 확장을 견인하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창작과 연계된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하여 경험자들의 텍스트 이해와 표현 방식의 확장과 변화를 탐색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상호텍스트성과 생성형 A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곧 텍스트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생하고, 패러디하고, 참조하고, 인용하고, 대조하고, 구축하거나,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상호텍스트

성의 원형을 보여주는 바흐친(M. Bakhtin)의 대화주의(dialogism)에 의하면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것이며,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은 이질적이고 다성적(多聲的, polyphonic)인 언어와 담론, 음성, 의미 등의 이종언어(異種言語, heteroglossia)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⁵⁾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되는 저자(혹은 화자)와 청자들이 이미 알고있는 다른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생성형 AI가 이 과정에 개입될 때 텍스트의 이해는 더욱 다변적으로 확장한다.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가 가진 텍스트적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새롭게 의미

3) 김석년, 주희현, 박관용, 『페이스브레이킹 5P 교회 세움을 위한 핵심 가치』 (서울:샘솟는 기쁨, 2019)

4) 박지윤. "텍스트 이해를 위한 상호텍스트 활용의 실제." 한민족어문학 64 (2013): 99-125.

5) 오민용. "상호텍스트의 한 종류로서 소설에 관한 소고-M. Bakhtin의 대화이론을 중심으로." 콘텐츠문화 4 (2014): 65-93.

화된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고전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그 스타일을 모방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거나, 특정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학습하여 비슷한 스타일의 새로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상호텍스트성을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만들며, 텍스트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해석하게 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의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다른 콘텐츠의 창작에 영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시대의 상호텍스트성은 단순히 텍스트간의 참조나 영향을 넘어서, AI가 창조한 새로운 텍스트와 기존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인간 고유의 '창의(創意)' 영역으로 여겨져 온 문화예술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생성형 AI의 접목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소통능력을 신장하는 언어와 문학, 예술협업 등에서 발 빠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Maeng, Unkyoung(2023) 외 연구자들은 영어교육의 AI 연구 동향을 살피면서 대화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말하기 영역에서 AI 접목과 연구의 시급성을 제시한다.⁶⁾ 특히 언어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듣기, 말하기, 읽기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결과이기에 생성형 AI의 등장이 혁신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이재은, 오세경(2021)⁷⁾, 서수중, 정혜선(2020)⁸⁾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지하는 바이다⁹⁾ 정지연, 박노일(2020)은 챗GPT의 맥락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인간-AI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SMCRE 모형, 곧 송신자, 메시지, 채널, 수용자, 효과 요소가 인간-AI 관계 형성과 지식정보 공유와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¹⁰⁾ 신춘성, 정희용(2021)은 코딩과 인공지능에 익숙하지 않은 창작자들이 보다

쉽게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성을 향상하여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도구의 방향을 제안했는데 현재 이들의 제안을 넘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 실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¹¹⁾

6) Maeng, Unkyoung, Ho Kyoung Ko, and Bok Eun Son. "디지털 AI 기반 영어교육 연구 동향: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 중심으로." (2023).

7) 이재은, 오세경.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6.5(2021): 185-208

8) 서수중, 정혜선.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영어 단어 학습 연구."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2020): 949-953.

9) 장성민. "챗 GPT 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56 (2023): 7-34.

10) 정지연, 박노일. "인간-AI 커뮤니케이션 연구주제 탐색: 챗 GPT 와 SMCRE 모형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8 (2023): 1805-1814.

11) 신춘성, 정희용. "인공지능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기술 분석 및 도구 설계." 방송공학회논문지 26.5 (2021): 489-499.

이상에 제시된 생성형 AI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그 유용의 한계와 윤리적 과제를 안고 있으나 AI와의 공존은 인공에 몰입된 단절이 아니라 인공이 장착된 인간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성에 중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성형 AI 활용과 소그룹 활동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조해내는 기술로서 성경과 같은 고전적인 텍스트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¹²⁾ 예를 들어, AI는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각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밝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AI는 성경 텍스트를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변함에 따라 성경의 교훈을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재해석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성경 텍스트를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 텍스트의 내용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미술, 음악, 영화, 문학, 워크북, 퀴즈, 게임, 활동 등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학습 교재, 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각 세대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텍스트 활동과 이해의 확장은 무엇보다 교회 소그룹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소그룹 활동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소그룹 리더의 부족, 소그룹 참여의 저조, 소그룹 간의 격차, 소그룹 활동의 단조로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중에서도 소형교회는 인적부족, 지원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소그룹 운영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 AI가 소그룹 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조력하고 소그룹 활동의 활력과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다.

- 생성형 AI활용은 소그룹 리더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
- 소그룹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가?
- 소그룹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 소그룹 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몇몇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공지

12) 김성문, “인공지능 시대와 고전문학”, 문화와융합, 40(4) (2018). 129-154.

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Exclusive 194(2023), 1-21.

능 창작 활동에서 소그룹 팀원들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AI는 그룹의 창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데 심리적 안전망 역할, 과제를 진행을 촉진하는 힘의 제공, 대인 간의 정체와 마찰 완화, 협업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예비 교육자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텍스트-이미지생성 AI와 함께 공예 작품을 제작하는 소그룹 활동을 연구한 결과 참여자들은 텍스트를 입력과 생성 이미지 공유, 피드백 교환, 작품의 개선 방향 논의 등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생성형 AI와의 협력을 통해 공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배우고, 공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숙고하며 공예 교육의 목적과 방향, 공예 교육의 혁신에 기여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¹⁵⁾

교회의 건강과 재생을 위한 AI 활용 가능성을 연구한 Pegram, Nigel D.(2017)는 AI가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참여적인 대화를 통해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 강화, 교회의 비전과 목표의 명료화,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증진 시켰다고 분석한다. 종합적으로 AI를 통해 교회가 가진 잠재력과 신앙의 삶을 재발견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데, 다만 AI를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고, AI의 원리와 실제의 파악,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함을 조언한다.¹⁶⁾

생성형 AI의 급진적 발전속도로 인해 그 현상과 결과들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생성형 AI의 발전이 인간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고, 창의력을 높이며, 성경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생성형 AI를 국내 교회 소그룹 활동에 적용하여 그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회 소그룹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Suh, Minhyang, et al. "AI as social glue: uncovering the roles of deep generative AI during social music composition." Proceedings of the 2021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21.

15) Vartiainen, Henriikka, and Matti Ted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aft education: crafting with text-to-image generative models." Digital Creativity 34.1 (2023): 1-21.

16) Pegram, Nigel D. "Appreciative Inquiry-a strategy for being a healthy church." Journal of Contemporary Ministry 3 (2017): 67-81.

III. 사례연구

1. 연구대상 및 방법

사례연구의 참가자들은 3개의 소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별 특징과 주요활동은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연구대상 및 특징

구분	세대	모임인원	모임회차	주요활동
A그룹	청장년 20~50대	8-12	8	생성형 AI 활용 글쓰기/낭독극
B그룹	노년 70대	4-5	6	생성형 AI 활용 그림 그리기/글쓰기
C그룹	청년	8	12	생성형 AI 활용 창작(영상, 이미지, 스토리)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같은 공간 다른 교회로 공유목회를 하는 2개 교회¹⁷⁾ 소속이며 나머지는 초교파적 교회에 속한 성도, 직분자, 신학생, 목회자를 포함해 비신앙인까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3개의 소그룹은 2023년 1월부터 11월 중 6~12주 동안 주1 회차씩 모임 시간을 가졌으며, 소그룹을 진행한 목회자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각 그룹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사전이해와 활용방법, 효과와 한계 등을 학습하고, 각 그룹이 시도하고 싶은 활동과 기간을 토론을 통해 협의하여 설정하였다. 생성형 AI는 활동의 '주'가 아닌 '보조' 도구로 설정했기에 회차별 활동 내용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였다. 청년, 장년, 노년 세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팀별 또는 리더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동에 사용했다. 본 연구에 소개하는 내용은 각 그룹과 수행했던 다양한 내용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 활용한 생성형 AI는 MS사의 Chat GPT인데 초반기에 활동을 시작한 A, B그룹 전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AI를 처음 경험했으며, 하반기에 참여한 C그룹 중에는 경험자들이 있었지만,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대부분 처음이었다.

2. 연구사례 및 분석

17) 2개의 교회는 2016년부터 한 공간 다른 교회로 운영하면서 성경 모임, 월간예배, 문화프로그램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공유교회와 공유목회를 표방하며 두 교회를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성도들을 '공유성도'로 호칭한다.

-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성형 AI 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 글쓰기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텍스트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들과 연결하며, 텍스트의 의미와 구조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소그룹 글쓰기 활동은 서로의 텍스트를 읽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텍스트의 징표와 변형을 공유하거나 텍스트의 반복과 차이를 인식하면서 텍스트의 창조와 재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텍스트를 존중하고, 텍스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텍스트의 협력과 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¹⁸⁾

A그룹은 5년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생성형 AI가 아니라도 기독교 세계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문학 활동을 경험해 왔기에 활동에 대한 특별한 호기심이나 거부감은 없었다. 사실 글쓰기보다 AI를 활용한 성경공부(원어 해석, 토론주제 찾기, 성서해석 등)를 먼저 구상하고 시도했다. 3-4차례 진행 과정에서 성서 원어의 뜻과 용례,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역사 등의 지식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성경의 해석과 이해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AI를 통해 생성된 정보에 한계가 많고 신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글쓰기 활동으로 전향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의 글쓰기는 창작방법을 학습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 담론을 토론하며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적 경험과 의견을 말이 아닌 정제된 텍스트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전달에 앞서 스스로 생각을 점검하고 독자와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공동체적 존재 방식을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소그룹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면 글쓰기 경험, 수행속도 등의 차이로 창작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구성원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텍스트들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원하는 방향과 주제, 문체, 어조 등 원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로 제시하고 결과물을 도출한다.¹⁹⁾

다음은 영화 시나리오를 주제로 삼고 토론하면서 A그룹의 한 참가자가 창세기 16장 본문을 GPT로 각색한 사례이다. 각색 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정해

18)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 문학의 연구 50 (2013): 383-423.

19) 생성형 AI의 프롬프트란, 생성형 AI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연어로 설명해 주는 입력값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을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생성형 AI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 프롬프트는 생성형 AI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롬프트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생성형 AI는 더 정확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낭독극을 실행했다.

〈글쓰기 사례1〉

〈Chat GPT 텍스트입력〉 2023.03.27.

성경 창세기 16장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생성텍스트〉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저는 성경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창세기 16장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형식은 영화 시나리오 작성하기와 시나리오 샘플을 참고하였습니다.

INT. 아브람의 집 - 낮

아브람과 사래는 탁자에 앉아 있으며, 사래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들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여종 하갈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갈은 애급 사람이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사래

(아브람에게 조용히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

(사래의 말에 놀라며)

정말입니까?

사래

(고집스럽게)

그렇습니다. 하갈은 내 여종이니, 그녀가 낳은 자녀도 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

(잠시 고민하다가)

그대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하시오.

사래는 하갈을 부르고, 그녀를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는 것을 명한다. 하갈은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브람을 따른다.

EXT. 광야 - 낮

하갈은 임신하였고, 그녀는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사래를 멸시한다. 사래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래 앞에서 도망친다.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아 울고 있다.

여호와와의 사자

(하갈에게 다가가며)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

(놀라서 일어나며)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다.

여호와와의 사자

(친절하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

(놀라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지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와의 사자

(예언하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은 여호와와의 사자의 말을 믿고,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부른다. 그리고 사래에게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는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한다.

GPT를 통해 시나리오 형식으로 각색된 내용은 문법에 안 맞는 몇 문장을 수정하고 참가자들이 배역을 분담해 낭독했다. 이후 각 인물의 입장과 심정을 비롯해 기록 당시의 문화, 현재의 해석 등을 논의했다. 시나리오 형식의 성경 본문 읽기는 참가자들이 쉽게 내용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경직된 분위기의 성경 읽기가 아닌 배역의 표현에 따라 재밌거나 슬픈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청자들은 웃음, 탄성, 탄식 등으로 호응했다.

배역을 맡아 읽어 보니 마치 그 인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냥 아는 이야기구나 싶었는데 대본처럼 읽어 보니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A그룹 참가자, 이○○)

GPT로 각색하는 것도 신선했고 성경을 다양한 장르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A그룹 참가자, 권○○)

낭독 읽기는 캐릭터의 성격, 문화적 배경, 동성 간의 권력 등 다양한 토론주제를 이끌었으며 같은 성경 텍스트를 GPT를 통해 시와 일기형식으로 변용했는데 각 인물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의 관점을 입체화할 수 있었다.

〈글쓰기 사례2〉

참가자: 성경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하갈의 관점에서 일기형식으로 써주세요.

AI: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하갈의 관점에서 일기형식으로 쓰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갈의 생각과 감정을 첫 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하갈이 어떻게 사래와 아브람, 하나님과 이스마엘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갈의 경험과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하갈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하갈의 일기에는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되, 성경에 없는 상세한 묘사나 대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갈이 사래와 아브람, 하나님의 사자와 어떻게 말을 나눴고 어떤 표정이나 몸짓을 했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갈의 일기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갈의 일기>

나는 애굽에서 온 여종이다. 나는 사래의 몸종이었다. 그녀는 아브람의 아내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래는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아브람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했다. 그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다.

아브람이 나와 동침하였다. 나는 임신하였다. 나는 기뻐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브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바랐다. 나는 사래를 멀리했다. 그녀는 늙고 메마른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눈치 없는 여종으로 취급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고소했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그녀는 나를 모욕했다. 그녀는 나를 쫓아내고 싶었다. 아브람은 사래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여종이니 그녀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했다. 아브람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아브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브람은 나를 버렸다.

사래가 나를 학대하였다. 그녀는 나를 때리고 욕하고 괴롭혔다. 그녀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는 견디지 못했다. 나는 도망갔다. 나는 광야로 갔다. 나는 죽을 줄 알았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슬펐다.

여호와와 사자가 나를 만났다. 그는 광야의 샘물 곁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셨다. 그는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하셨다. 여호와와 사자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고 하셨다. 그는 나에게 예언하셨다.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하셨다.

나는 여호와와 사자에게 감사했다. 나는 여호와와 사자에게 경배했다. 나는 여호와와 사자에게 믿음을 가졌다. 나는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고, 나는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다. 그것은 가레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나는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사래의 수하에 복종했다. 나는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를 보호했다. 나는 그를 키웠다. 나는 그를 위해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하갈의 관점에서는 생각을 못해봤어요. 한 인간으로서,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야 질문해 보는게 너무 미안한 것 같기도...(A그룹 참가자, 최○○)

GPT가 작성한 시나리오와 일기 텍스트를 시니어 참가자들로 구성된 B 소그룹에서 낭독했을 때 그 반응과 토론 내용은 A그룹과 사뭇 달랐다.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고와 가정사 등을 떠올리며 감정이입 및 상황몰입이 훨씬 빠르고 강했으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이후의 달라진 삶과 생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회복을 주제로 깊은 나눔이 진행되었다.

정말 남 일 같지 않네. 우리 댄 이런 상황이 많았다구. 얼마나 속상했겠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주목했지 하갈 입장에선 처음 생각하게 되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고 위로하셨다는 얘기도 처음이고...(B그룹 참가자, 이○○)

시니어 그룹의 GPT 활용에서 청년 그룹과 차별적 효과는 AI를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는 자존감 형성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일 경우가 많은데 인도자의 가이드를 따라 명령어를 생각하고 표현해 결과물을 얻는 과정만으로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부여받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12월에 <글쓰기 사례1> 참가자가 '창세기 16장 영화 시나리오 각색'을 요청하는 같은 입력값을 제시했는데 GPT의 답변은 '거절'이었다. 몇 차례 같은 요청을 시도했지만, 작성 도중 멈추거나 거절을 반복했다.

〈Chat GPT 텍스트입력〉 2023.12.04.

참가자: 성경 창세기 16장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GPT: 저는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인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제 안전 지침에 위배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불쾌하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영화적 낭독극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토론을 통해 그 이해를 더 깊이하려는 것입니다.

GPT: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인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제 안전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불쾌하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이야기, 코드, 논문, 노래, 연예인 패러디 등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제와 형식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의 부작용과 사용윤리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자체 검열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성 AI의 발전에 발맞춰 안전 지침과 자체 모니터링 기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사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텍스트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의존하거나, 맡기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생성형 AI는 글쓰기의 도구로서 유용하며 창작의 주체는 참여자들이어야 함을 염두에 둘 것이다.

-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성형 AI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 이미지창작




상호텍스트성의 특성인 인용, 비유, 패러디, 합성, 대체, 첨가, 확장, 압축, 치환, 복합과 같은 변형은 문자텍스트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텍스트는 언어적 기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나 문화적 요소도 포함되는데 이미지, 음악, 영화, 광고 등의 미디어는 모두 텍스트로 간주 될 수 있다.²⁰⁾

시니어 참가자들로 구성된 B그룹은 교회가 아닌 스포츠 동아리에서 회원으로 만나 친구가 된 기독교인 모임이다.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자거나 교회 출석은 드물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악기, 그림, 바둑을 배우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영화관람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전처럼 교회 봉사나 기도, 전도 모임 등에 참석하기보다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p. 212-217

나19 전후로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그룹은 주로 생성형 AI를 통한 이미지 창작 활동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성경의 텍스트를 읽은 후 주요 장면을 입력한 이미지 결과물로 이야기를 연결했다. 또한, 성경과 이미지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묘사하는 그림을 추가하여 말씀이 현실 속에 어떻게 재구성 되는 지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하였다. 어르신들은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도자가 챗 GPT 보이스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고 추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추출한 이미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 그리기 사례〉

이미지	명령어	이야기
	<p>다음은 시편 139편의 시구입니다.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주세요.</p> <p>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p>	<p>와! 내가 창조자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림이 되다니. 성경 그림책 만들어도 되겠네요.</p> <p>(B그룹 참가자, 김OO)</p>
	<p>시편 139편의 내용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려주세요.</p> <p>(동일한 주제에대한 다른 참가자의 생성 이미지)²¹⁾</p>	<p>핸드폰 사진으로 저장해야겠네.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날개가 돌을 만큼 성인이 못되서...(웃음)</p> <p>(B그룹 참가자, 정OO)</p>
	<p>인생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바다를 찾은 한 노인의 쓸쓸함을 그려주세요.</p> <p>노인이 되어도 새로운 인생에 눈뜨고 피아노를 배우는 할머니의 희망적인 모습을 그려주세요.</p>	<p>지금 내가 바닷가에 서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 같은... 그래도 그림엔 멀리서 배들이 오는 것 같아 희망적으로 보이네요.</p> <p>(B그룹 참가자, 김OO)</p> <p>몇 년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실력이 막 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는 행복감이 있어요. 연주곡을 열심히 연습해 80생일에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p>



다.
(B그룹 참가자, 이OO)



노인이 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밴드공연을 하는 활기찬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이OO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 나도 꿈같지만 과거 해보고 싶었던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정말 멋지겠네요.
(B그룹 참가자, 허OO)



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친구, 어릴적 나를 업어준 아버지의 등 같은 존재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흐의 유화 방식으로 그려주세요.²²⁾

나는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만약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모습일 듯. 고흐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고흐처럼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니 놀랍네요.
(B그룹 참가자, 유OO)

이상과 같은 이미지생성 외에도 선택한 이미지를 컬러링으로 변형시켜 색칠하고 함께 완성하거나 모자이크처럼 잘라 붙이는 활동도 가능했다. 시니어 소그룹의 이미지 창작 경험은 소그룹 인도자가 특별히 이야기를 유도하지 않아도 그림을 만드는 과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특히 생성된 그림을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태도도 나타났으며 서로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마치 앨범을 보면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림을 배우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GPT로 생성된 이미지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겠다고 핸드폰에 이미지를 저장하기도 했다. 6번의 만남을 종강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지속적인 활동 의사를 밝히고 혼자서도 GPT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21) 생성형 AI의 특성상 같은 내용의 입력이라도 시간을 달리하여 입력하면 다른 이미지가 생성된다.
22) 이 그림은 생성형 AI가 다양한 화가의 미술품을 섭렵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고흐의 유화방식’을 설정했다.



〈AI로 생성한 천지창조 컬러링〉

-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성형 AI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 영상제작

C그룹은 인도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전시를 기획하는 수업에서 결성된 소그룹 모임이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활동 내용에도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연구 사례로 적합하다 여겨졌다. 2개의 주제를 기획하고 생성형 AI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까지 경험한 B그룹의 경우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해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활동과정과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작품: 5분 영상과 이미지 전시

내용: AI작가 아리나는 평화와 조화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를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처럼 인류와 자연을 보호하고 모든 존재가 화합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한다. 자신의 작업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일조하기를 소망하며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아리나는 승자 없는 게임, 즉 전쟁을 의미하며 최근 하마스 와 이스라엘 간 발발한 전쟁을 주목했다. 전쟁으로 1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작가는 특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 아이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가상의 AI 유튜버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한다.



〈영상을 보며 추모할 수 있는 전시실〉

제목: 필동 크리스마스

작품: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 카드부스

내용: 전시가 이루어지는 중구 필동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는 한국사회의 평균보다도 유아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다. 이 소식에 AI 가상 미술가 PD산타는 필동에서 조부

모의 자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고자 한다. 눈내리는 연말의 겨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아날로그 감성의 엽서, 작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시장에 비치된 작품의 굿즈 엽서를 작성해 바구니에 넣으면 소그룹 참가자들이 수거해 우표가 붙은 우편으로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PS산타 그림과 엽서 부스〉

C그룹의 참여자들은 사회적 현안과 국제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전시켰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의미의 상징과 비유, 차용, 반복 등 텍스트의 관계를 연결 짓고 재구성하는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그림과 영상, 엽서 쓰기와 희생자 추모 등의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접목하여 관람자들과도 소통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는 소그룹활동이 어떻게 대그룹과의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국가를 넘어서는 확장성을 제시하는 사례라 하겠다. 주일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예배 장소에 전시된 작품들의 설명을 듣고 감상하면서 직접 이벤트에 참여했다.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뉴스에 답답했는데 AI와 공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AI를 활용한 소통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 장OO)

정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두려움과 걱정이 됐었는데 이런 전시를 경험해보니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생기네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 박OO)

작품을 구상하면서 AI와의 소통과정을 먼저 경험했다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AI의 정보를 통해서 사회, 국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에 생각이 계속 증척된 것 같아요. 나중엔 AI도 우리 중의 한 일원처럼 자연스러워졌고요.

(C그룹 참가자, 이OO)

C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학습 과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술이 다양하고 아이디어 도출부터 작품제작까지 각 과정의 완성도가 높게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창작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과 성취도가 높아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C그룹의 창작물은 인근 주민센터 내 갤러리에서 후속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타 교회와도 연대해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III. 나가는 말

AI 시대의 도래와 생성형 AI의 발전은 일상생활부터 전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생성형 AI의 발전은 인간의 사상, 소통, 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텍스트'의 개념과 기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동의 근원은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 변주를 일으키고 해석과 이해의 확장을 견인하는 상호텍스트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생성형 AI의 활용은 성경과 같은 고전적인 텍스트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선행연구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텍스트 활동이 교회 소그룹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작의 기회, 창의력 향상, 성경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한 교회 소그룹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²³⁾ 한국교회 소그룹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소그룹 리더의 부담, 참여 증진, 협력 강화, 다양성 확대'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탐색한 소그룹 활동 사례는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소그룹 활동은...

23) 연구 사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와 낭독극, 이미지창작, 영상제작 및 전시 활동에 국한한다.

- 소그룹 활동의 본질인 공감과 소통방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 참여자들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여 참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다.
- 인도자(리더)의 역할 부담을 줄이고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유도할 수 있다.
- 사회 문제나 국제 이슈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다.
- 텍스트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다.
- 공감과 호응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 유대감,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
- 대그룹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 다른 상호작용을 이끄는 공동체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할 점은 본 연구가 소그룹 활동의 성공사례나 비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도래한 AI 시대에 속에서 교회는 변화에 적응하고, 그 적응을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는 생명체로 존재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유기적 생명체 활동의 최소 단위인 소그룹이 '대형'과 '대량'을 향한 통로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대집단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본질적 상호텍스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소그룹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생성형 AI기술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은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존중하고, 진리의 맥락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AI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신학적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 인도자와 리더가 집중할 영역인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석년, 주희현, 박관용, 『패스브레이킹 5P 교회 세움을 위한 핵심 가치』 (서울:샘솟는 기쁨, 2019).
- 김성문, “인공지능 시대와 고전문학”, 『문화와융합』, 40(4)(2018), 129-154.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Exclusive』 194(2023), 1-21.
- 박지윤, “텍스트 이해를 위한 상호텍스트 활용의 실제”, 『한민족어문학』 64(2013), 99-125.
- 박이정,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212-217.
- 서수중, 정혜선.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영어 단어 학습 연구”, 『한국 HCI 학회 학술 대회』(2020), 949-953.
- 신춘성, 정희용, “인공지능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기술 분석 및 도구 설계”, 『방송공학회 논문지』 26(5)(2021), 489-499.

- 오민용, “상호텍스트의 한 종류로서 소설에 관한 소고-M. Bakhtin 의 대화이론을 중심으로”, 『콘텐츠문화』 4(2014), 65-93.
- 유승재, “생성형 AI출현에 따른 대화형 AI 시장의 발전과 변화”, 『MIT Technology Review』 v4, 1-19.
- 이재은, 오세경,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6(5), (2021), 185-208.
- 장성민, “챗 GPT 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56(2023), 7-34.
- 정지연, 박노일, “인간-AI 커뮤니케이션 연구주제 탐색: 챗 GPT 와 SMCRE 모형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8)(2023), 1805-1814.
- Maeng, Unkyoung, Ho Kyoung Ko, and Bok Eun Son, “디지털: AI 기반 영어교육 연구 동향: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 중심으로”, 『Modern English Education』, 24(2023), 156-170.
- Suh, Minhyang, et al. “AI as social glue: uncovering the roles of deep generative AI during social music composition.” 『Proceedings of the 2021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21).
- Pegram, Nigel D., “Appreciative Inquiry-a strategy for being a healthy church”, 『Journal of Contemporary Ministry』 3(2017), 67-81.
- Vartiainen, Henriikka, and Matti Ted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aft education crafting with text-to-image generative models”, 『Digital Creativity』 34(1) (2023), 1-21.
- 이해수, “AI의 생성 혁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 『문화관광』 2023(6)
<https://kctiwebzine.re.kr/2306/issue03.html>

논 찬 1

“교회 소그룹활동을 위한 생성형AI 활용사례 연구”에 대한 논찬

정 재 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종교사회학)

1. 논문의 내용과 의의

이 논문은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소그룹 활동에 생성형 AI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연구자는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되는 저자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생성형 AI가 이 과정에 개입될 때 텍스트의 이해는 더욱 다변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상호텍스트성을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만들며, 텍스트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해석하게 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조해내는 기술로서 성경과 같은 고전적인 텍스트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회 소그룹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소그룹 리더의 부족, 소그룹 참여의 저조, 소그룹 간의 격차, 소그룹 활동의 단조로움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소그룹 활동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3개 소그룹의 사례에 이 방식을 적용하였다. 글쓰기와 이미지 창작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정과 결과를 설명한다. 그 결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소그룹 활동이 주는 유의미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그룹 활동의 본질인 공감과 소통방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여 참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다. 인도자(리더)의 역할 부담을 줄이고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 문제나 국제 이슈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다. 텍스트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고, 공감과 호응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 유대감,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 대그룹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 다른 상호작용을 이끄는 공동체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과 목회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경험연구를 통하여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매우 높고 학문적으로도 의의가 큰 논문이라 여겨진다.

2. 질문과 토론 거리

논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논문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세 그룹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하였는데 이 그룹들을 사례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위해서 세 그룹을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형성된 세 그룹에 실험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연구를 위해서라면 연령대를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사례 분석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성별 차이가 있는지 세 그룹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비교 분석이 아쉽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시나리오 각색을 요청하는 같은 데 대해 GPT가 거절했다고 기술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도 언급했듯이, AI를 통해 생성된 정보에 한계가 많고 신학적 검증이 어려우며, 텍스트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의존하거나, 맡기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연구자에게 질문드린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소그룹 활동이 주는 유의미한 영향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사회 문제나 국제 이슈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생성형 AI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미지 제공이나 여러 그룹 활동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 대그룹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 다른 상호작용을 이끄는 공동체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도 AI만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것이 문화예술활동 자체의 효과로 보기도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소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 활동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소그룹 활동에서의 활용도는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3. 나가는 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목회자의 79%가 챗GPT에 대해 알고 있으며, 47%가 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일반인들의 챗GPT 사용 경험(36%)보다 높은 수치로, 목회자가 일반인에 비해 챗GPT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그룹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회 소그룹 활동이 여러 측면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회 소그룹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며,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교회 소그룹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논 찬 2

“교회 소그룹활동을 위한 생성형AI 활용사례 연구”에 대한 논찬

황 병 준 박사

(호서대학교 / 실천신학 / 리더십)

본 연구는 교회 소그룹 활동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AI 시대의 도래와 생성형 AI의 발전은 인간의 창의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 변주를 일으켜 해석과 이해의 확장을 견인하는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 사례를 창작과 연계된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하여 탐색하고 있다고 말한다. 본 논문의 2장은 상호텍스트성과 생성형 AI의 이해를 논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활용과 소그룹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였다. 3장의 사례연구는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성형 AI 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으로 글쓰기, 이미지창작, 그리고 영상제작으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1. 연구의 공헌

본 연구에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소그룹 활동에 적용한 것이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생성형 AI 활용은 소그룹 리더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 소그룹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가.

소그룹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소그룹 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소형교회 소그룹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소그룹 운영에서 소형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소형교회는 인적 부족, 지원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소그룹 운영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 AI가 소그룹 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조력하고 소그룹 활동의 활력과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GPT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은 시의적절한 연구이며 그 활용도가 높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소그룹 역동성을 위해 GPT를 활용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성경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나누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성성 AI를 활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이것을 더 확장(시나리오 만들기)해 참여자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직접 경험하게 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자는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성형 AI 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 글쓰기에서 GPT를 통해 시나리오 형식으로 각색하였다. A그룹의 참가자가 창세기 16장 본문을 GPT로 각색한 사례에서 각색 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정해 낭독극을 실행한 것은 매우 창의적이다. 연구자가 언급한 대로, 시나리오 형식의 성경 본문 읽기는 참가자들이 쉽게 내용에 몰입할 수 있고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연구자는 경직된 분위기의 성경 읽기가 아닌 배역의 표현에 따라 재밌거나 슬픈 장면을 연출하여 청자들은 웃음, 탄성, 탄식 등으로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활용은 새신자 성경 읽기 및 여러 양육 소그룹에 활용할 수 있겠다.

셋째, 성경 텍스트를 GPT를 통해 시와 일기형식으로 변용하여 활용한 것이다. B그룹에서 활용한 시와 일기형식으로의 변형이 시니어 그룹에 활용된 것은 매우 독특하다. 연구자가 분석한 것처럼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고와 가정사 등을 떠올리며 감정이입 및 상황몰입이 훨씬 빠르고 강하고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이후의 달라진 삶과 생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회복을 주제로 나누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생성형 GPT가 매개체가 되어 성경 텍스트와 인간의 삶을 연결해준 중요하고 매우 창의적인 활용이라 하겠다.

넷째, 성경 메시지를 이미지창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는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

성형 AI 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 이미지창작에서 이미지창작을 위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성경의 텍스트를 읽은 후 주요 장면을 입력한 이미지 결과물로 이야기를 연결하였다. 이 부분은 성서 교육에도 활용할 만한 훌륭한 것이다. 마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자신의 상상 안에서 말씀을 이미지화하여 삶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성경과 이미지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묘사하는 그림을 추가하여 말씀이 현실 속에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것도 훌륭한 시도라 하겠다.

다섯째, 시니어들을 위해 GPT 보이스 기능을 활용한 이미지창작 경험이다. 연구자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도자가 챗 GPT 보이스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고 추출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성경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 또한 좋은 아이디어다. 본 연구가 시니어에 대한 GPT 활용을 제시한 것은 매우 훌륭하다. 연구 참여자 중 “나는 인생 후반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만약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모습일 듯. 고흐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고흐처럼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니 놀랍네요. (B그룹 참가자, 유○○)” 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고 느꼈다. 본 활동은 이미지생성 외에도 선택한 이미지를 컬러링으로 변형시켜 색칠하고 함께 완성하거나 모자이크처럼 잘라 붙이는 활동으로 확장된 것도 매우 훌륭하다.

여섯째, 개체교회에서 지역사회로 연결된 것과 소그룹에서 대그룹으로의 사고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상호텍스트성 기반 생성형 AI 활용 소그룹 창의 활동: 영상제작에서 2개의 주제를 기획하고 생성형 AI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까지 경험한 B그룹의 경우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문화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표현 방식은 이상적이다. 본 활용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현안과 국제적 문제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전시켜 활용하였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의미의 상징과 비유, 차용, 반복 등 텍스트의 관계를 연결 짓고 재구성하는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그림과 영상, 엽서 쓰기와 희생자 추모 등의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접목하여 관람자들과도 소통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창조할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소그룹 활동이 더 이상 참가자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장된 복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그룹 활동이 어떻게 대그룹과의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국가를 넘어서는 확장성을 제시하는 훌륭한 사례라 하겠다. 연구자가 평가한 것처럼, 이는 학습 과

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술이 다양하고 아이디어 도출부터 작품제작 까지 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으로 전시된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깊은 감동이 될 것 같았다.

2. 질문과 토론

논찬자의 의무로 소그룹 활동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연구를 읽고 몇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성형 AI의 활용범위이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과 소그룹 창의 활동으로 글쓰기, 이미지창작, 그리고 영상제작으로 그 활용성을 제시하였는데, 더 확장된 활용범위가 있다면 무엇일까.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범위를 토론해 보자. 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후속 연구 및 GPT 활용범위가 있다면 듣고 싶다.

둘째, GPT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과 GPT의 성경(경전) 해석 오류에 대한 문제이다. GPT는 입력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변형된 답변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GPT는 수많은 해석이 공존해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데, 잘못된 자료, 변형된 자료 및 거짓 자료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이 주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가. 또 GPT 활용에 대한 범위 제한은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등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GPT 활용과 성경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천신학적 입장과 방향성 제시이다. 연구자가 제시했듯이,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12월에 <글쓰기 사례1> 참가자가 ‘창세기 16장 영화 시나리오 각색’을 같은 입력값으로 제시했는데 GPT의 답변이 ‘거절’이었던 것이다. “GPT: 저는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인 내용을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제 안전 지침에 위배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불쾌하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PT의 답변은 의미가 있다. 단순히 성경 내용의 시나리오 각색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GPT 활용에 대한 실천신학적 입장이 토론되길 바란다. 이상과 같은 질문과 토론주제는 논찬자가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다.

본 연구는 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AI 활용에 관한 주제를 소그룹 활동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며,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미 도래한 AI 시대에 속에서 교회는 변화에 적응하고, 그 적응을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는 생명체로 존재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유기적 생명체 활동의 최소 단위인 소그룹이 ‘대형’과 ‘대량’을 향한 통로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대집단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본질적 상호텍스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소그룹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찬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목회, 사회, 리더십 분과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야 할 좋은 주제라 생각하며, 생성형 AI가 교회 소그룹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활용되도록 본 논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주희현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논 찬 3

“교회 소그룹활동을 위한 생성형AI 활용사례 연구”에 대한 논찬

정 근 하 박사

(루터대학교 / 실천신학 / 사회학)

지금까지 교회의 이미지는 사회의 변화에 가장 느리게 변화하고 느리게 대처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희현 박사님의 글은 대단히 신선하고 도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회들이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갈 것을 기대하며, 논찬을 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대면 모임 대부분이 대폭 축소되었고, 특히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대면 모임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상황에서 본 논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모임들이 대폭 축소된 지금 교회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구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이 논찬자의 심정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이슈를 잘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는 리더, 특히 제안해 주신 AI에 대한 이해가 깊은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새롭게 성경이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I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와 같은 시도가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AI에 대한 이해, 관심, 흥미가 없는 세대들에게 이러한 제안이 지속 가능한 방안일

지는 의문이다. 이에 논찬자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소개해 주신 사례를 통해 소그룹 활동 근거를 바탕으로 “목회자부터 AI 관련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대부분이 인문학 중심의 학습과 연구를 진행해 온 결과 공학, 자연계열, 컴퓨터 관련 지식이 일반 성도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목회자가 AI 관련 재교육이 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리더가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며, 목회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던 시대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신도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빌려서 동반 성장을 꾀하며,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어갈 목회자, 평신도 리더 양성이 필요하며, 특히 AI 활용이 능숙한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I는 인간의 실수를 줄여주고, 효율적 방법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똑똑하고, 훌륭한 조연가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모임 현황을 소개해 주신 주희현 박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제 7 발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 AI시대 기독교 영성 연구의 예비적 고찰

이 주 형 박사

(연세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

I. 들어가는 말

2023년 12월, Chatgpt의 출현과 대중화로 인류는 전례없는 문명적 도약을 맞고 있다.¹⁾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AI가 급속하게 일상속에 자리잡으며, 인류 사회는 AI와의 협업과 공존의 시대로 진입하였다.²⁾ chatgpt의 급격한 진입과 수용, 그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는 인류 사회 내에서 여러 기대와 우려를 자아낸다.³⁾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테

1) 생성형 AI의 한 모델인 Chatgpt는 생성형 사전학습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이다.

2)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대니얼 허튼로커, 김고명 역, 『AI 이후의 세계: 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세계질서 대전환에 대비하라』 (파주: 월북, 2023), 18.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와 디지털 기술의 특이점(singularity)이 실제적 현상으로 목격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다.

3) 스티븐 핑커, “기술 예언, 그리고 저평가된 발상의 인과적 힘,”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하는가?: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바라보는 석학 25인의 시선』 존 브룩만 역음, 김보은 역 (파주: 프시케의 숲, 2021), 180-181.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을 노예화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염려와 상상이 지속되어왔다. 핑커는 이 고삐 풀린 기술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공포’는 인간 발상에 대한 저평가이며, 공포심에 발로한 과도한 상상이라 지적 한다. 이것은 동기와 지능을 혼동하는데 오는 오해이다. 지능이 높다하여 동기마저 초월하거나 통제불가능한 지능이 출현한다는 상상은 과

크노 사피엔스(Techno sapiens)로 변모하는 시대라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포스트휴머니즘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존한다.⁴⁾ 본 연구는 AI시대에 대한 시대적 우려와 문명적 불안에 대해 사회의 핵심 영역들, 가정, 교육, 신앙공동체, 등에서 AI와 건설적으로 동행할 윤리적 준거와 법적 장치들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인간지능 확장과 그에 따른 인간변화에 대한 기독교내의 이해와 준비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⁵⁾

Chatgpt를 통해 AI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경험한다.⁶⁾ AI 전문가들은 chatgpt와의 협업과 학습은 인간의 인지 구조에 급격한 변화와 지대한 확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⁷⁾ 특히, AI시대의 급격한 도래는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정신이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경험, 영적 갈망과 필요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⁸⁾ AI시대 우리의 가정과 교실, 신앙공동체에서 디지털 이민자로 구성된 사역자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자녀, 학생, 교인과 구성원들의 영적 건강과 안녕을 돌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 사역자들은 AI시대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돌볼 것이며, 그들의 영적 갈망은 어디로 향하는가? 건강한 영성형성을 위해 어떤 영적 가치를 제공하고 지향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Chatgpt 출현으로 촉발된 AI시대에 영적 돌봄 대상인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적 문제를 고찰하고, 새로운 시대와 상황속에서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형성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예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⁹⁾ 첫째, Chatgpt의 주요 특징을 살펴

도한 해석이라 주장한다.

- 4) 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New York, Harper, 2017), 13; Ilia Delio, *The unbearable wholeness of being: God, evolution and the power of love* (Maryknoll: Orbis. 2013), 159.
- 5) Cf) 전대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목사의 가능성과 그 문제: 마음, 영혼, 혹은 '의식적의지'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2(2019), 10-50.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2017), 283-312; 김도현, "AI 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미래: AI의 현실에 관한 분석과 교회에 끼칠 영향 진단," 『신학전망』 216(2022), 79-118.; 박현신,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68 (2023), 146-196.
- 6) 로버타 카츠, 세라 오길비, et al. 송예슬 역,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파주: 문학동네, 2023); 마크 프렌스키, 허성심 역,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 세계적 교육혁신가의 일파 세대를 위한 21세기형 미래교육』 (서울: 한문화, 2023); Mark McCrindle & Ashley Fell, *Generation alpha : understanding our children and helping them thrive*, (Sydney, N.S.W. : Hachette Australia, 2021).
- 7) Annie Murphy Paul, *The Extended Mind: the Power of Thinking Outside the Brain*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2021).
- 8) Kirk A. Bingham, "Religious and Spiritual Experiences in the Digital Age: Unprecedented Evolutionary Forces," *Pastoral Psychology* 69(2020), 291-305.

보고, AI시대가 인간 마음과 정신에 야기한 현상과 문제를 파악해 볼 것이다. 둘째, 신경과학의 정보와 지식이 분석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뇌과학이 제공하는 인간 마음과 정신의 변화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의 관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적 경험과 필요를 세가지 특징으로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영성형성으로서 관상과 관상기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소고는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관점에서 AI시대 디지털 네이티브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면 문제를 치유하고, 균형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영성형성과 수련으로서 관상을 제시하자 한다.

II. Chatgpt가 가속화한 AI시대

OpenAI가 처음 Chatgpt3를 대중에 공개한 이래, 인공지능은 전세계인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¹⁰⁾ Chatgpt4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업계 뿐 아니라 인류 문명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한다.¹¹⁾ 첫째, chatgpt4는 한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처리한다. 둘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chatgpt4는 인간이 요구하는 정보를 대화 형식의 소통방식으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한다. chatgpt4의 탁월함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기술에서 발견된다. AI가 인간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소통 맥락을 인지하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chatgpt은 이 기능을 바탕으로 지적 탐구 과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방대한 데이터와 소통 역량을 통해 프롬프트에 제시된 명령 작업을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chatgpt의 문제해결 능력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정보를 추합하여 맥락속에서 가장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제한된 시간속에 수행할 수 있는 탐색, 관찰, 분석, 통합 등의 인지 과정을 빠른 시간안에 수행하여, 작업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한다. 이런 대표적 혁신 기술을 통해 chatgpt는, Google이 시작한 검색의 시대와 iphone이 연 개인휴대용 단말기 시대 이후 가장 혁신적인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
- 9) 본 연구는 AI시대가 요청하는 기독교 영성형성과 영적 돌봄 사역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는 예비적 고찰로서, 시대적타당성과 실제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건설적인 실천신학 담론을지향한다. Pamela Cooper-White, "Suffering,"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s to Practical Theology*, ed. Bonnie Miller-McLemor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11), 1-3; 조성호, "MZ세대의 특징과 미래지향적 기독교 영성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79(2022), 229-258.
- 10) chatgpt에 대한 역사와 개괄적 사항, 주요 특징은 다음을 참조하라. George M. Coghil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ristianity): Who? What? Where? Why? and How?"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6/3(2023), 604-619.
- 11)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다국적 기업들은 매개변수(parameter)가 적어도 1조개 이상이 되는 초거대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들을 개발하고 있다.

Chatgpt4가 지닌 진일보한 기술은 인간 사회에 본질적인 우려와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hallucination 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현상은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환각 현상이다.¹²⁾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파편적인 정보들을 마치 진실인것처럼 간주하여 정보와 지식체계를 구축한다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Chatgpt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정보 식별과 통제 주도권을 상실했을 때,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미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단면을 보여주기예, 이 현상은 중대한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¹³⁾ 이와 같이 AI시대가 촉발한 걱정과 우려는 지난 수십년동안 확장되어왔으며, 투명성, 안전, 감시와 공정성, 편견과 파괴적 무기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¹⁴⁾

Chatgpt와의 공존은 불가피한 인류 문명발전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¹⁵⁾ 인간 능력을 상회하는 AI의 출현이 단지 시간문제라고 전제할 때,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AI와 건설적으로 공존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 고민한다. 우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⁶⁾ 본 연구는 chatgpt가 급속하게 앞당긴 AI 시대에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해야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자는 건설적 담론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chatgpt를 진리, 진실,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도구로 인식한다.¹⁷⁾ 둘째, chatgpt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신중함, 호기심,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¹⁸⁾ 셋째, chatgpt를 인류발전에 건설적인 동반자 역할을 부여하기

12)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대니얼 허튼로커, 『AI 이후의 세계』, 21; 박태웅, 『AI 강의 : 챗GPT의 실체부터 AI의 진화와 미래까지 인간의 뇌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능의 모든 것』 (서울: 한빛비즈, 2023), 143.

13) chatgpt가 야기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는 보편적 가이드라인과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리더십들이 다양한통제 장치들을 고안하고 있다. <https://www.caidp.org/universal-guidelines-for-ai/> 이런 시도들이 chatgpt를 근본적으로 통제하거나 chatgpt가 가져다 준 사회적, 문명사적 변화와 발전을 제한하리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드물다.

14) Janna Anderson,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Humans,"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10, 2018).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8/12/10/artificial-intelligence-and-the-future-of-humans>

15) 김대식, 챗GPT, 추서연 외 역,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서울: 동아시아, 2023)

16) AI 시대 요청되는 인간론에 대한 철학적이며 신학적 성찰은 제한적인 본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대상이다. 좀더 자사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Noreen Herzfeld, *The Artifice of Intelligence: Divine and Human Relationship in a Robotic Age*(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23).

17) 리드 호프만, GPT4, 이영래 역, 『인간을 진화시키는 AI』,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3), 35.

18) *Ibid.*, 37.

위해, 윤리적 준거틀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독교 신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장이 필요하다.¹⁹⁾ 넷째, 공론화를 통해 제정된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AI시대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²⁰⁾ 최근 인공지능 계발에 참여한 리더들이 윤리적 준거틀을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chatgpt를 통해 열린 AI 기술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chatgpt가 열어놓은 AI시대에 인간의 인지구조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진화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으로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한다. chatgpt를 사용하며 AI와 협업하고 공존하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특히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핸드폰, tablet pc를 사용하며, 말하기보다 AI 사용법을 먼저 터득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떤 환경속에서 성장하며, 어떤 인지 정서적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가? 본 연구는 chatgpt와 협업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기독교 돌봄 사역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응답할 지에 대해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III.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터넷과 노트북, 핸드폰과 테블릿 PC가 부재한 상태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다.²¹⁾ Z세대부터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출생 후 감각기관이 형성될 때부터, 혹은 양육 과정 속에서 스크린 문화와 동반하여 성장한다.²²⁾ 따라서, 그들의 감각기관과 인지체계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며, 디지털 기술이 삶의 구성요소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세대이다.²³⁾ 이들에게 chatgpt가 열고 있는 AI시대는 인식구조를 확

19) Cf) 장보철, "목회상담에 있어서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0(2018), 305-328.

20) 박휴용, "탈인본주의적 AI 윤리란무엇인가?: '윤리적 AI'를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5 (2022), 71-83;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제기되는 신학적 답론들," 「신학사상」 201(2023), 257-283.

21) 미국 프로그래머인, Marc Prensky가 최초로 만든 용어이다. Mark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2001), 1-6.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가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컴퓨터의 대중적 보급과 더불어 핸드폰과 테블릿pc가 일반화 되는 시기인 2000년 중반에태어나고 자란 세대로 대략 정의할 수 있다.

22) 로버타 카츠,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사회학자 및 연구자들에 따라,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구별없이 지칭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Z세대부터 두드러진 현상으로 인식되며, 알파 세대에는 확립된 호칭으로 보는데무리가 없어 보인다.

23)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대니얼 허튼로커, 『AI 이후의 세계』, 63. "어릴 때부터 AI를 경험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무의식중이라도, AI를 의인화하며 자신과 같은 존재로 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장하는 통로일뿐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반박하기 어렵다. 임박한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AI와 동시에 활동하며 공동으로 지각하고, 협력하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반면, 디지털 네이티브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인도하는 세대는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들이다. 이들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이들의 태생과 양육과정, 자아와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동행하지 않았다. 자아와 의식이 형성된 이후 디지털 기기를 일상에 받아들인 세대이다. 디지털 이민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안내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 난제들을 예상할 수 있다. 디지털 이민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안내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세계가 가늠조차 어려울 만큼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chatgpt를 통해 네이티브가 만나는 AI 세상은 앞으로 10-20년 뒤에 어떤 직업이 필요할지 모르는 시대이다.²⁴⁾ 디지털 이민자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우선, 그들의 마음과 의식 형성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경과학과 인지과학 연구들은 디지털 기술이 인간 정신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개념을 중심으로 뇌가 외부세계와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한다고 증명한다. Kurzweil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지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의식이 출현하여 인간 의식을 대체할 수 있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 주장한다.²⁵⁾ 이에 대해 Greenfield는 고차원적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계환원주의들이라고 비판하며, 인간 마음과 의식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⁶⁾ 인간 마음은 과학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육체와 신경망, 아직까지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면역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²⁷⁾ 그렇다면, 신경과학 관점에서 뇌는 어떻게 마음을 구성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 신경가소성 개념을 근간으로, 뇌는 정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²⁸⁾ 둘째, 의식은 뇌의 신경망을 기초로

24) Kai-Fu Lee,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19.

25) Ray Kurzweil,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When Computers Exceed Human Intelligence* (New York, NY: Viking, 1999);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 &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서울: 김영사, 2007). Ray Kurzweil, *How to Create a Mind: The Secret of Human Thought Revealed*. (New York: Penguin Books, 2012).

26) Susan Greenfield, *Mind Change: How Digital Technologies Are Leaving Their Mark on Our Brains* (New York: Random House, 2015), 104; Koch, C., and Tononi, G. (2008). "Can machines be conscious?" *Spectrum* 45/6(2008), 55-59.

27) Greenfield, 105.

28) David Eagleman, *Livewired: the Inside Story of the Ever-Changing Brain*, (New York:

상호작용을 한다. 뇌가 발달하면서 의식도 발달하기에 어린아이의 뇌가 성장하고 확장할 수록 의식도 확장되고 심화된다. 아이의 감각들, 최초에 청각, 그 후 후각과 시각, 촉각등 이 자극되면, 아이들의 뇌신경은 자극들을 자신만의 특정한 회로를 형성하며, 특정회로는 아이의 의식 속에 의미를 제공한다. 한 아이가 엄마와의 시각적 교류를 경험할 때, 이 시각 자극은 신경망을 통해 특정회로를 형성하고, 엄마의 사랑과 돌봄(의미)이 무의식속에 형성 된다. 즉, 아이 뇌가 성장하면서, 의식이 발현되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의식하게 된다. 특정한 외부환경에 자극된 아이 뇌는 특정한 신경회로가 형성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험들을 체득한다. 임의적이며 날 것의 외부 요소들이 개별적 신경회로에 담기면서 의식을 형성하고 그 의식은 특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²⁹⁾ 이를 토대로 인간은 이해라는 고차원적 지능을 구축하고, 정체성을 확립한다.

Greenfield는 이해(understanding)를 서로 다른 현상, 작용, 사실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해력이 높다는 평가는 사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서로 다른 영역의 현상, 작용, 사실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이다. 이것이 라틴어 어원을 지닌 영어 단어 지능(intelligence)으로 연결된다. 인간 뇌의 방대한 신경 회로와 그 사이 무수한 연결들이 인간 의식과 이해를 형성하는 필수 구성요소이다. 이를 토대로, Greenfield는 마음을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신경연결을 통한 뇌의 개인화”라고 정의한다.³⁰⁾ 신경과학적으로 인간 마음은, 특정한 환경속에서 지속적인 감각 자극을 통해 형성된 신경연결이 인간 개인안에서 개별화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개별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개별적 상황에서 반응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전제되기에 그녀는 정체성이 정적이기보다 역동적이라고 정의한다.³¹⁾

그렇다면, 마음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Vintage Books, 2021), 34-55. Eagleman은 육체의 분포되어 있는 신경감각이 뇌의 특수부위에 상응하다는 기존 과학계의 입장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육체의 여러 부위들이 손상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뇌의 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며 적응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일례로, 인생 중반에 시력을잃어버린 사람의 후두엽은 시각 자극이 상실된 후, 촉각과청각신경계로 전환되어 발달하게 된다. 즉 시각정보를 담당하던 후두엽 부위는 청각과 촉각을담당하는 부위로 전환되어 발전한다.

29) Greenfield, 110-111

30) *Ibid.*, 113-114.

31) 정체성 확립을 위한 뇌과학적 기준과 5 단계. 1. 온전하게 의식이 깨어있다. 2. 당신의 마음은 온전하게 작동한다. 3. 과거 기억이 현재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미치는지, 그 특정 방법을인식한다. 기억은 독립적으로 불러올수 있다. 그러나, 신념은 잠재적 추가 증거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될 때에 수용되거나 거부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과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기억은 신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사실이다. 4. 마음과 정체성과의 차이점: 마음은 수동적이며 타인과의 교류에 의존하지 않는반면, 정체성은 역동적이며,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다. 정체성은 세계가 자신을 보는 방식인데 반해, 마음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다. 5. 특정한 상황속에서 특정한 순간에 작용과 반작용의 특정한 사례들이 가치와기억들로 풍성해진 이제는 여전히 확장된 framework와 협력하게 된다. 정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와 일관된 서사이다. *Ibid.*, 114-118.

신경과학은, 고도로 개인화된 신경회로와 연결들이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해체되는 현상으로 마음 문제를 분석한다.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연구 권위자인 Greenfield는, 도박과 폭식, 정신분열과 유년기 뇌가 공유하는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제공되는 감각적 자극에 취약하며, 외부적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다. 둘째, 자의식이 약하며 시공간의 준거를 없이 도파민이 제공하는 쾌락에 치중한다. 셋째,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고도화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의미없는 세계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³²⁾

그녀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이 무분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병리 현상을 네 영역으로 분석한다. 첫째, SNS는 의사소통 기능의 발달을 저해하고, 대인 공감능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의 확고한 체계 구축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위세를 떨며 타인 의존적 방식으로 형성된다. 셋째, 강박적인 게임은 무모함과 공격적인 성향을 부추기고 주의집중 시간을 축소시킨다. 넷째, 인터넷 쇼핑하듯 지식을 검색하는 현상은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를 축소시킨다. 요약하면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마음은 협소하고 급하며, 단절되어 파편화 되어있다.³³⁾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마음은 관점과 시각이 편협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사회적 관계, 환경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도파민 자극에 취약하여 지나치게 급한 반응을 보이며 판단을 내린다. 이런 마음의 경향성은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병리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지닌 마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은, 기존에 고착되고 협소해진 신경회로를 확장하여 새로운 연결이 형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³⁴⁾ 마음이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신경회로가 개인화되어 있다고 정의할 때, 마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의 신경회로가 경직되고 고착되어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되어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³⁵⁾ 디지털 네이티브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 스스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삶이 현재 즐기고 있는 쾌락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에 기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과 연관되는 데, 그것은 현상을 입체적이며 다면적으로 인식하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³⁶⁾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나타나는 마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32) *Ibid.*, 119-129.

33) *Ibid.*, 245-255.

34) David Levi, *Mindful Tech: How to Bring Balance to Our Digital Live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6), xii-xiii.

35) David Eagleman, *Livewired*, 218-231.

36) Gary Small, Gigi Morgan, *iBrain: Surviving the Technological Alteration of the Modern Mind*, (New York: Harper Collins Puplication, 2008).

IV.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적 돌봄

현대 기독교영성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영성형성을 지향한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분리와 파편화 현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온전성이 회복되도록 안내한다 (창 1:26; 롬 8:29). 기독교 영적돌봄사역자들은 일그러지고 파편화된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³⁷⁾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하며, 성장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제공한다. 적절한 조건과 환경이 충족되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인적이고 균형잡힌 영성형성을 지향하는 영적돌봄사역자들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 적어도 세가지 영성형성 주제와 방향이 고려되거나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경과학이 제공하는 인간 이해는 물리적 환경과 정신세계가 분리되어 작동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이며 관계적인 역동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분법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 목회와 사역 현장에서 숙고해야 할 관점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며, 영적 세계와 경험은 세속과 육체로부터 초월되거나 상호 관여되지 않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³⁸⁾ 신경과학은 감각기관과 신경회로가 정신과 분리되어 작동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의존적 구성요소임을 입증한다. 비물질적 체계인 의식과 마음이 육체의 핵심 구성요소인 감각기관과 뇌신경계와 유기적이며 상호적인 교류와 작동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이해로 초대한다.³⁹⁾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 건강과 균형잡힌 영성생활을 안내하기 위해 영적 돌봄자들은 마음과 정신 현상에 있어 통합적이고 전인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잡히고 통전적인 인간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된다. 몸과 마음, 영과 육체가 유

37) Kirk Bingaman은 디지털 시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통해 인간 경험은 확장되고 새로워질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안내할 지가 그들을 양육하며 교육하고 돌보는 기독교 사역자들과 리더쉽들의 핵심적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Kirk Bingaman, *Pastoral and spiritual care in a digital age: The future is now*. (Lanham: Lexington Books, 2018), 1-10.

38) 이분법적 세계에 고착된 부모와 교사들이 가정과 교회학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계도하는 방향이 대체로, 회개와 참회, 성경공부와 기도생활을 강조하는 교리중심적 경향성이 강하다.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현상의 원인을 죄의 문제와 의지 부족의 문제로만 환원한다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에 건설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어렵다.

39)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물질 환원주의적 인간 이해를 배격한다. 신경과학자들도 뇌신경계에 뉴런과시냅스 사이의 전기 교류와화학적 작동에 대해 새로운발견과 이해를 제공하지만, 그 구체적인 역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즉, 물리적역동관계가 인간 정신과 마음 현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희박하다.

기적이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작동한다는 이해를 갖고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을 돌본다면, 몸과 육체를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영적인 균형과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이 편협하고 급하며, 단절되어 있다는 분석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적/목회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정신이 편협하고 단절되어 있는 원인을 신경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들의 신경회로가 고착되고 경직되어 다른 경로와 대안을 찾아가는 내적 역량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정신병리 현상이 현대사회에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파민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의지하는 디지털 환경과 연관되기도 한다.⁴⁰⁾ 디지털 환경에 자극되어 형성된 신경회로는 도파민 자극을 통해 강고하게 고착된다.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신경가소성 개념을 통해 경직되고 고립된 디지털 네이티브의 사고체계와 선입견이 느슨해지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줄 수 있다.⁴¹⁾

인지정서행동치료기법(cognitive-affective behavior therapy)은 영적 돌봄 사역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치료 이론과 구체적인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⁴²⁾ 그들 무의식속에 작동하는 방어기제, 불안과 두려움, 선입견과 편견들을 직면하고, 잘못된 신념체계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나아가 무모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완화하여, 대인관계를 확대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AI 시대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요청되는 지적 역량은 창의적인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 chatgpt는 정보와 지식 습득 과정에서 지금까지 출현했던 어떤 기술보다 더 강력하고, 대체불가능한 통로와 도구가 되고 있다. chatgpt의 과도한 사용이 야기하는 현상은 인간 사고력의 약화이다.⁴³⁾ 인공지능의 탁월함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개인이 사고하는 능력이 퇴화하거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⁴⁴⁾ chatgpt와의 협력에서 인간지능의 우월성은 창의적 질문으로 판별된다.⁴⁵⁾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지닌 chatgpt가 지금까지 산출할 수 없었거나, 연결하지 못했던 정보 사이

40) 이정연, "정신의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보편화," 『경제와 사회』 136(2022), 300-344.

41) David Eagleman, *Liveried*, 10-15.

42) Isaac Vaghefi, Hamed Qahri-Saremi, Ofir Turel, "Dealing with social networking site addiction: a cognitive-affective model of discontinuance decisions," *Internet Research*, 30/5(2020), 1427-1453.

43) 김종규, "생성형인공지능, 생각하는 존재(homo cogitans)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의 향방," 『사고와 표현』 16/2(2023), 7-31.

44) 양금희, "AI(인공 지능)의 인식론적 문제와 기독교 교육," 『신학사상』 183(2018), 165-197.

45) Cf) 고수진, "AI시대, 청소년을 기독교 창의 인재로 키우는 질문형 교육," 『신학논단』 93(2018), 7-34.

의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하고 잠재적 연결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간 역량이 창의적 질문을 통해 형성된다. 창의적 사고는 상상력에 기초한다. 특정한 상황과 상황속에서 감각기관을 기반으로 한 특정한 경험을 갖춘 인간은 AI가 인식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질문을 제공할 수 있다.⁴⁶⁾

AI시대 기독교 영적돌봄 상황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영역과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이제 기독교 영적 돌봄사역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균형적 변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필수 영성형성으로 “관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V.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성형성으로서 관상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Karl Rahner는 미래 기독교인은 신비가되거나 아니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이라 예견하였다.⁴⁷⁾ 근대 세계속에 인간 마음은 과학기술을 통해 엄청난 진보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지난 세기동안 다양한 병리현상으로 고통당해왔다. Rahner는 기독교 진리 안에 담긴 신비와 초월적 요소를 회복할 때, 현대인들의 영적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내면 문제를 인지하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치유를 통한 변화와 성장으로 안내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기독교의 신비와 초월적 영성을 통해 영적 생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성형성은 무엇을 지향할 수 있는가?

Thomas Merton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영적 자원을 제공한다.⁴⁸⁾ 특히, 그의“관상” 정의와 개념은 AI시대 현대인들의 마음과 영혼돌봄을 위한 기독교 영성형성의 토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관상은 삶과 인생에 깃든 성스러움에 대한 경외라고 소개한다. 인간 문명발전의 초월적이며 거룩한 기원을 인지하는 것이 관상이며, 심미적이고 무념적 경험과 연관되는 영적인식으로 소개한다.⁴⁹⁾ 둘째, 관상은 하나님에 의해 시초된 실존적 접촉이며, 신성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따라서 관상은 철학적이거나 추상적, 사변적이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 신비하게 조명된 영적 알아

46) Annie Murphy Paul, *The extended mind*, 1-5.

47) Karl Rahner, *The Practice of Faith: A Handbook of Contemporary Spirituality* (New York: Crossroad, 1983), 22.

48) William Shannon,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Writings on Contemplation*, (Cincinnati, OH: Bloomsbury Publishing, 2000), 1-20; David Torevell, "Distractions, illusion and the need for a contemplative spirituality: A critique of Thomas Merton's advice," *Journal for the Study of Spirituality* 9/2(2019), 152-162. 오성주, "21세기 위기사 회 속에서의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2016), 13-49.

49) Thomas Merton, *New Seeds of Contemplation* (New York: A New Directions Book, 1961), 1-5.

차림이다.⁵⁰⁾ 셋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돌봄의 손길을 발견하고, 영혼을 거룩함과 숭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는 것이 관상이다.⁵¹⁾

Merton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인습적이고 양식화되어 근대 지식의 수용소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 의지는 세속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낮설고 초월적인 진리의 씨앗을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한다.⁵²⁾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소명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지식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아를 거짓자아로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소외되어 자신의 감옥에 갇힌 거짓 자아는 우상이 되어 망상과 환상 속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한다.⁵³⁾ 관상은 망상과 환상의 커튼에 눈먼 영혼들을 일깨워 거짓자아를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발견하도록 안내하며, 창조주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시에 피조물로서, 영혼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회복하도록 안내한다.⁵⁴⁾ 관상은 영혼이 자신의 본래적 정체성을 분별하도록 안내하며, 나아가 소명을 통해 참자아를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신의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과정이 관상을 통해 체험된다.

머튼의 관상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기독교 진리를 통해 어떻게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며, 그들의 영성형성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관상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자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초월적 인식을 형성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해 파편적이며 분열적인 인식을 교정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안내한다.

둘째, 관상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경험하는 내면과 정신 병리현상을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자원과 토대를 제공한다.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속에서 거짓자아를 형성하고 안주하던 마음을 위로하고, 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자아를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안내한다. 관상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하나님 안에서 참자아를 발견하여 거룩한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하여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영적 자원을 제공한다. 관상의 치유적 기능은 AI 시대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의지를 함양하는데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관상은 거룩한 상상력을 촉발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영성적 토대를 제공한다.⁵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창조

50) *Ibid.*,

51) *Ibid.*, 21-24.

52) *Ibid.*, 14-19.

53) *Ibid.*, 24-28.

54) *Ibid.*, 29-36.

55) 최대광, "영성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의 문제 : 창조영성의 창의성에 대한 종교학적 이해," 「종교

주와의 영적 교류를 통해 그의 창조적 질서를 이해하고, 현재적 창조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⁵⁶⁾ 특히 성경말씀 묵상기도는 관상적 상상을 통해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도록 안내한다.⁵⁷⁾ 관상적 상상력을 통해 영혼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적 현존과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관상적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 경험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교리적 경직성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창의적 사고와 생각을 함양하는 영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⁵⁸⁾

기독교영성형성에 관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자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제가 있다. 관상은 실존적이며 영적인 알아차림이요 인식이기에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관상은 영성수련을 통해 체득된다. 따라서 영적 돌봄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은 반드시 관상 기도수련이나 영적 훈련을 동반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교육 방법론과 치료과정에서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시도하는 이유는 신경과학을 통해 인간변화와 발전에 실제적 유익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 관상기도는 정신과 의식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긴장과 갈등,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과 강박증세에 기반한 폭력적인 반응을 완화한다.⁵⁹⁾ 강박과 증독 증세를 완화하는 뇌과학적 이유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 강고하게 구성된 신경회로 간의 연결을 느슨하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⁶⁰⁾ 이를 통해 신경회로는 다른 시냅스와의 연결을 통해 대체되거나 대안을 찾는다. 관상기도는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을 향상시켜,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성찰하고, 특정 반응과 행위가 외부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인식하도록 돕는다. 관상기도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지닌 강박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즉흥적이며 급한 반응을 유도하는 회로를 느슨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극과 환경을 느리고 여유롭게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지능들,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와 관대함 등도 관상기도가 제공하는 평정심과 차분함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

둘째, 관상기도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내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안내할 수

교육학연구」 56(2018), 55-78.

56) Matthew Fox, *Creativity: Where the Divine and the Human Meet*, (New York: TarcherPerigee, 2004), 12-15.

57) Anto Vydra, "The Role of Imagination in the History of Spiritual Experiences," *Spirituality Studies* 8(2022), 14-21; 이주형, "예술목회를 위한 영성수련: 상상적 관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6(2016), 319-351.

58)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303.

59) Alejandro Eros, Thomas G. Plante, "The Effects of Centering Prayer on Well-Being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A Pilot Study," *Pastoral Psychology* 72(20203), 711-727.

60) Dawson Church, *Bliss Brain: The Neuroscience of Remodeling Your Brain for Resilience, Creativity, and Joy*, (Carlsbad, CA: Hay House, 2020), 221-230.

있다.⁶¹⁾ 치유되지 않은 내면 상처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부정적 프레임에서 인식하게 하며, 건강하고 균형잡힌 시각 형성에 장애가 된다. 무념적 기도는 영혼 깊은 곳, 무의식이라 불리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도록 안내한다. 향심기도를 비롯한 관상기도는 회피하고 외면하였던 내면 상처를 직면하도록 용기를 분돋우며, 상처를 내면으로부터 떠나보내는 영적 지혜를 습득하도록 안내한다.

셋째, 관상기도는 창의적 발상을 촉발한다. 고착된 신경회로가 인습화된 생각과 편견을 강화시켰다면, 관상기도는 뉴런과 시냅스 간의 연결을 유연하고 느슨하게 만들어 다른 연결과 회로를 탐색하도록 유도한다.⁶²⁾ 이는 정신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인지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기존의 경직되어 있던 신경회로를 느슨하게 하고, 새로운 연결망을 탐색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프레임 전환을 관상기도가 안내한다.

■ 참고문헌 ■

- 고수진. "AI시대, 청소년을 기독교 창의 인재로 키우는 질문형 교육." 「신학논단」 93(2018), 7-34.
-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2017), 283-312.
- 김대식, 챗GPT/ 추서연 외 역.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서울: 동아아시아, 2023.
- 김도현. "AI 시대의도래와 교회의 미래: AI의 현실에 관한 분석과 교회에 끼칠 영향 진단." 「신학전망」 216(2022), 79-118.
- 김종규. "생성형 인공지능, 생각하는 존재(homo cogitans)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의 향방." 「사고와 표현」16/2(2023), 7-31.
- 로버타 카츠, 세라 오길비, et al./ 송예슬 역, 『Gen Z: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파주: 문학동네, 2023.
- 리드 호프만, GPT4/ 이영래 역. 『인간을 진화시키는 AI』,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3.
- 마크 프렌스키/ 허성심 역.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세계적 교육혁신가의 알파 세대를 위한 21세기형 미래교육』, 서울: 한문화, 2023.
- 박태용. 『AI 강의 : 챗GPT의 실체부터 AI의 진화와 미래까지 인간의 뇌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능의 모든 것』, 서울: 한빛비즈, 2023.
- 박현신. "챗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

61) Cynthia Bourgeault, "Centering Prayer and Inner Awakening,"(Cambridge, MA: Cowley Publications, 2004).

62) Dawson Church, *Bliss Brain*, 225-230.

- 「복음과 실천신학」 68 (2023), 146-196.
- 박휴용. "탈인본주의적 AI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적 AI'를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5 (2022), 71-83.
- 스티븐 핑커. "기술 예언, 그리고 저평가된 발상의 인과적 힘,"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하는가?: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바라보는 석학 25인의 시선』, 존 브룩만 편/ 김보은 역. (파주: 프시케의숲, 2021).
- 양금희. "AI(인공 지능)의 인식론적 문제와 기독교 교육." 「신학사상」 183(2018), 165-197.
- 오성주. "21세기 위기사회 속에서의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2016), 13-49.
- 이정연. "정신의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보편화." 「경제와 사회」 136(2022), 300-344.
- 이주형. "예술목회를 위한 영성수련: 상상적 관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6(2016), 319-351.
- 장보철. "목회상담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0(2018), 305-328.
-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2023), 257-283.
- 전대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목사의 가능성과 그 문제: 마음, 영혼, 혹은 '의식적 의지'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2(2019), 10-50.
- 조성호. "MZ세대의 특징과 미래지향적 기독교 영성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79(2022), 229-258.
- 최대광. "영성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의 문제 : 창조영성의 창의성에 대한 종교학적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56(2018), 55-78.
-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대니얼 허튼로커/ 김고명 역. 『AI 이후의 세계: 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세계질서 대전환에 대비하라』. 파주: 월북, 2023.
- Anderson, Janna et 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Humans."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10, 2018.
- Bingaman, Kirk. *Pastoral and spiritual care in a digital age: The future is now*. Lanham: Lexington Books, 2018.
- _____. "Religious and Spiritual Experiences in the Digital Age: Unprecedented Evolutionary Forces." *Pastoral Psychology* 69(2020), 291-305.
- Church, Dawson. *Bliss Brain: The Neuroscience of Remodeling Your Brain for Resilience, Creativity, and Joy*. Carlsbad, CA: Hay House, 2020.
- Coghill, George 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ristianity): Who? What? Where? Why? and How?."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6/3(2023),

- 604-619.
- Cooper-White, Pamler. "Suffering,"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s to Practical Theology*, 23-30, ed. Bonnie Miller-McLemor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11.
- Delio, Ilia. *The unbearable wholeness of being: God, evolution and the power of love*. Maryknoll: Orbis. 2013.
- Eagleman, David. *Livewired: the Inside Story of the Ever-Changing Brain*. New York: Vintage Books, 2021.
- Ero, Alejandro and Thomas G. Plante. "The Effects of Centering Prayer on Well-Being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A Pilot Study." *Pastoral Psychology* 72(20203), 711-727.
- Fox, Matthew. *Creativity: Where the Divine and the Human Meet*. New York: TarcherPerigee, 2004.
- Greenfield, Susan. *Mind Change: How Digital Technologies Are Leaving Their Mark on Our Brains*. New York: Random House, 2015.
- Harari, Yuval Noah.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New York, Harper, 2017.
- Herzfeld, Noreen. *The Artifice of Intelligence: Divine and Human Relationship in a Robotic Ag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23.
- Koch, C., and Tononi, G. "Can machines be conscious?" *Spectrum* 45/6(2008), 55-59.
- Kursweil, Ray.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When Computers Exceed Human Intelligence*. New York, NY: Viking, 1999.
- Lee, Kai-Fu.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 Levi, David. *Mindful Tech: How to Bring Balance to Our Digital Liv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6.
- McCrinkle, Mark, and Ashley Fell. *Generation alpha : understanding our children and helping them thrive*. Sydney, N.S.W. : Hachette Australia, 2021.
- Merton, Thomas. *New Seeds of Contemplation*. New York: A New Directions Book, 1961.
- Paul, Annie Murphy. *The Extended Mind: the Power of Thinking Outside the Brain*.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2021.

- Prensky, Mark.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2001), 1-6.
- Rahner, Karl. *The Practice of Faith: A Handbook of Contemporary Spirituality*. New York: Crossroad, 1983.
- Shannon, William. *Thomas Merton's Paradise Journey: Writings on Contemplation*. Cincinnati, OH: Bloomsbury Publishing, 2000.
- Small, Gary and Gigi Morgan. *iBrain: Surviving the Technological Alteration of the Modern Mind*.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cation, 2008.
- Torevell, David. "Distractions, illusion and the need for a contemplative spirituality: A critique of Thomas Merton's advice." *Journal for the Study of Spirituality* 9/2(2019), 152-162.
- Vaghefi, Isaac, Hamed Qahri-Saremi, and Ofir Turel. "Dealing with social networking site addiction: a cognitive-affective model of discontinuance decisions." *Internet Research*, 30/5(2020), 1427-1453.
- Vydra, Anto. "The Role of Imagination in the History of Spiritual Experiences." *Spirituality Studies* 8(2022), 14-21.

논 찬 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 AI시대 기독교 영성 연구의 예비적 고찰”에 대한 논찬

이 종 태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학)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을 제목으로 하는 이 논문은 AI 시대의 영적 문제와 영적 필요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성형성과 그 필요에 부응하는 영성수련으로서 '관상'(contemplatio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마음은 협소하고 급하며, 단절되어 파편화 되어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일그러지고 파편화된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기독교 영적돌봄사역자들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실천신학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디지털 네이티브 영적 돌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시해야할 세 가지 영성형성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신경과학이 제공하는 인간 이해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과 정신세계가 분리되어 작동하기 보다, 상호보완적이며 관계적인 역동으로 구성된다는 점, 둘째, 마음이 편협하고 급하며, 단절되어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적/목회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일깨운다는 점, 셋째, 과도한 chatgpt 사용은 인간 사고력의 약화를 야기하지만 정작 AI 시대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요청되는 지적 역량은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AI시대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영적돌봄의 영역과 방향성을 탐색한 다음, 이 논문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균형적 변화를 위해 기독교 영적 돌봄사역이 추구해야 할 필수 영성형성으로 "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특별히 토마스 머튼의 관상 이해를 빌어 디지털 네이티브가 기독교 진리를 통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과, 그러한 영성형성의 지향점으로서 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관상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자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초월적 인식을 형성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해 파편적이며 분열적인 인식을 교정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안내"하며, 둘째, "관상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경험하는 내면과 정신 병리현상을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자원과 토대를 제공"하며, 셋째, "관상은 거룩한 상상력을 촉발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영성적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 논문은 신경과학계에서도 마음챙김, 명상 등이 인간의 변화, 발전, 치유 등에 가져오는 실제적 유익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상기도는 부정적 감정 완화 및 내면적 상처 치유, 창의적 발상을 촉발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논자는, 교회가 마주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실천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실천신학적 정신과 노력을 보여준 이 논문의 저자 이주형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연구와 논문에 보다 완성도를 기하시는 일에 혹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논문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정신이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영적인 경험, 영적 갈망과 필요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특별히 디지털 기술이 인간 정신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경과학과 인지과학 연구를 소개한다는 점이 학술적 기여가 기대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논문은 특별히 Greenfield의 연구를 소개하며 그녀가 제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이 무분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병리 현상"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AI 혹은 디지털 시대의 목회적 돌봄' 주제에 관심있는 연구자들과 목회자들이라면, 단순히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초래되는 정신병리학적, 영적 문제를 넘어, 디지털이나 AI 자체가 가져오는 문명사적, 정신문화적 변동과 문제점에 대해 보다 분석적인 학술담론을 소개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령, 구술문화(orality)에서 문자문화(literacy)로의 변동이 가져온 것에 준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디지털/AI 문화로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은 Chagppt로 대표되는 AI를 "인류 문명 발전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문명" 문제를 넘어 인간 "구원" 문제에 천착하는 기독교 신학은 AI나 디지털을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 "존재의 (새로운) 집"으로 보는 관점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위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이 논문은 디지털/AI 문명이 기독교 목회에 가하는 도전이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혹 디지털/AI 문명으로의 변화가 기독교 목회나 사역에 열어주는 '기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 간단하게나마 언급되거나 향후 연구나 논문을 통해 소개되거나 탐구되면, 목회자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논자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기독교 신앙의 관상적 차원에 더 열려있으며, 디지털 문명 자체가 어떤 면에서 (아날로그 문명보다 더) 관상(친화)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단순한 개인적 느낌이나 직관이 혹 학술적 담론을 통해 검증되거나 교정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셋째, 이 논문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균형적 변화를 위해 기독교 영적 돌봄사역이 추구해야 할 필수 영성형성 혹은 영성수련으로서 “관상”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논자가 이해하는 이 논문의 주된 thesis입니다. 영성학을 연구하며 기독교의 관상적 영성 전통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동료 연구자로서 더없이 반길 수밖에 없는 thesis이지만, 그러한 thesis를 뒷받침하는 논거로서 이 논문이 V부(“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성형성으로서의 관상”)에서 제시하는 관상의 유익이나 효과들에 대한 진술들은 충분히 분석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선언적으로 보입니다. 문제에 대한 분석에 많은 지면이 할애된 논문이지만, 이 논문의 주제나 제목에 끌려 논문을 펼쳐 든 연구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가령 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고, 정신병리 현상을 완화하고 치유하며,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영성적 토대를 제공해주는지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에 제시된 논문이나 단행본들에서 그런 담론을 위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V부의 해당 부분에 이주형 박사님의 분석과 해석이 보다 더 상세하고 풍성히 제시되고 보충된다면, 이 논문의 thesis의 독창성과 학문적 기여가 보다 더 뚜렷하게 두드러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논 찬 2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 AI시대 기독교 영성 연구의 예비적 고찰”에 대한 논찬

박 신 향 박사

(호남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신학)

이주형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디지털 세대들을 위한 영적 돌봄을 위하여 기독교 관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관상기도 수련을 제안한다. ‘AI시대에 영적 돌봄의 대상인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돌볼까’하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뇌과학적 렌즈를 통해 디지털 세대의 인간 마음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한편, 그와는 상반되게 나타나는 기독교 관상의 현상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세대의 마음의 특성과 관상적 마음의 특성을 잘 연관시키고 있다. 논문은 네 가지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 Chatgpt의 주요 특징과 AI시대의 인간 마음과 정신에 야기된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고, (2) 뇌과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 마음과 정신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후, (3)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독교 영적 돌봄의 관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적 경험의 특성과 필요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4)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영성 형성을 위하여 관상과 관상기도 수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Chatgpt가 가속화 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 문명에 획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논의를 출발한다. 한편으로는 지적 탐구를 심화하고 작업의 효율성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hallucination이라 불리는 인공지능의 문제에서 보듯, 인간 사회에 본질적인 우려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건설적 담론을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한다: 1) 인공지능을 인류 문명 발전의 도구로 인식할 것, 2) 신중함, 호기심, 책임감을 갖고 접근할 것, 3) 윤리적 준거 틀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장의 필요, 4) 이를 통해 제정된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

둘째, 이 논문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의식의 형성과정을 뇌과학적 접근을 통해 통찰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이민자들과는 달리 자아의 형성 시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노출되어 영향받는다.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개념을 비롯하여 “이해”, “뇌의 개인화”, “개별적 정체성 형성”의 과정 등 뇌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의 문제는 “무분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인간 마음의 문제로서 네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의 약화, 타인 의존적 방식으로 형성되는 개인 정체성, 무모함과 공격적 성향의 상승과 집중시간의 축소,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의 부족.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마음은 협소하고 급하며, 단절되어 파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지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은 기존에 고착되고 협소해진 신경회로를 확장하여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8쪽).”

셋째, 이 논문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 영성 형성 주제와 방향이 고려되거나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신경과학이 제공하는 인간 이해는 물리적 환경과 정신세계가 분리되어 작동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이며 관계적인 역동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9쪽).” 이에 따라 “몸과 육체를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영적인 균형과 건강함을 회복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10쪽).” 2)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적/목회적 돌봄 프로그램(10쪽)”이 필요하다.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신경가소성 개념을 통해 경직되고 고립된 디지털 네이티브의 사고체계와 선입견이 느슨해지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 줄 수 있다(10쪽).” 3) AI시대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인공지능의 탁월함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개인 사고능력이 퇴화하거나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11쪽).” “AI가 인식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질문을 제공(11쪽)” 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즉 연구자는 돌봄에 전인적 접근, 신경가소성을 인식함으로써 신경회로 간 연결의 느슨함,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적한다.

넷째, 이 논문은 기독교 초월 영성, 특히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이 설명하는 관상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디지털 세대의 영성형성이 지향할 통찰로 제시한다. 1) “관상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자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초월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해 파편적이며 분열적인 인식을 교정하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안내한다(13쪽).” 2) “관상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경험하는 내면과 정신병리 현상을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자원과 토대를 제공한다(13쪽).”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 거짓 자아의 형성, 망상과 환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등, “관상의 치유적 기능”은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3) “관상은 거룩한 상상력을 촉발하

여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영성적 토대를 제공한다(13쪽).”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논문은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자들이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관상기도 수련이나 영적 훈련”을 병행할 것을 다음 세 가지 유익을 들어 강조한다. 1) 관상기도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지닌 강박적 공격적인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경회로 간의 연결을 느슨하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관상기도는 무의식에 저장되어있는 내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3) 관상기도는 “인습화된 생각과 편견을 강화”시킨 고착된 신경회로에 대해서 “뉴런과 시냅스 간의 연결을 유연하고 느슨하게 만들어 다른 회로를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의적 발상을 촉발한다.

이주형 박사님은 이 논문을 통해 급변하는 인간 기술 문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인간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점을 상기시키고 건설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논의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의 영향으로 인간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협소하며 급하며 단절되어 파편화”되는 특성-를 뇌과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해 준 것이다. 둘째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의 개념을 통해 디지털 세대의 마음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 가능한지 인식함으로써 영적 돌봄 사역자들에게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는 점이다.(논찬자에게 이 희망은 자기(self)의 형성과 발달을 연구한 대상관계이론가들의 통찰-환경에 의해 자기가 형성되고 발달한다-과 연장선상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이 통찰을 뒷받침함으로써, AI시대 디지털 세대를 향해 갖고 있던 막연한 안개를 걷히게 하는 것 같다) 셋째는 기독교 ‘관상’과 ‘관상기도 수련(관상적 수련?)’을 뇌과학적으로 재조명하여 AI시대 현대인들의 마음과 영혼에 여전히 필요한 것이며 영혼 돌봄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짚어낸 점이다.

좀 더 깊은 이해와 논의를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 첫째, 논찬자가 논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신경가소성”의 개념이다. 박사님은 디지털 시대 인간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형성만이 아니라 그것의 변화를 위하여서도 이 개념을 주목하여, ‘고착된 신경회로를 느슨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셨다고 이해한다.-(Greenfield를 인용하여) “신경과학적으로 인간 마음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감각 자극을 통해 형성된 신경연결이 인간 개인 안에서 개별화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7쪽).”- 이 이해는 인간의 자기(self)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대상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대상관계이론가들의 통찰을 뇌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세대가 갖게 되는 인간 마음의 문제는 기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인공지능과의 관계 경험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뇌과학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통찰-뇌과학과 대상관계이론의 통찰-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관상의 치료적 효과-뇌신경 회로 간의 고착된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것-를 어떻게 다르게 통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다.

둘째, 구체적 현장 적용을 위한 질문이다. 박사님은 논문에서 “협소하고 급하며, 단절되어 파편화”된 특성을 지닌 디지털 세대의 마음에 대한 타개책으로 관상의 경험을 제시한다.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마음을 관상의 길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즉각적인 응답에 이미 익숙해진 디지털 세대의 마음-중독에 빠질 정도로 즉각적 보상 경험에 빠져있는 심리적 상태-이 상반되는 방식, 느긋하고 오래 기다려 경험되는 위로인 관상과 관상적 수련에 매력을 느끼며 마음을 열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어떤 방법 또는 무엇이 이들의 성급해진 마음을 깊은 관상이나 관상적 수련으로 이끌 수 있을까?

논찬을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민자’ 등, 낯설고 생소한 개념과 마음의 뇌과학적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연구를 진행하고 정리하여 전달해주신 이주형 박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디지털 세대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논 찬 3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를 위한 영성형성: AI시대 기독교 영성 연구의 예비적 고찰”에 대한 논찬

김 기 용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디아코니아)

이 논문은 ChatGPT를 중심으로 격변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영성적 고찰을 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와 비교하기도 하고 신경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영적 돌봄’의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란, “영성형성으로서 관상”을 집중 조명하는 것으로 ‘관상 기도’의 세 가지 효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진보에 따른 부작용이 영성을 통해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관점은 매우 참신하기에 본 논문이 갖는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빠르게 일상을 파고들어 온 AI시대의 도래로 기독교 영적 돌봄 사역자들은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영성은 일상적인 문제라는 인식). 특히 디지털 이민자로 구성된 사역자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상’ 및 ‘관상기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내면의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인류의 탁월한 정보기술 개발과 발전의 가속도가 끼친 영향은 삶의 질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향상을 안겨 주어 혁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두운 면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중대한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보의 식별과 통제 주도

권”이 상실됐을 때에 발생하는 미래적인 도전이기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암 속에서 인류의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므로 영적 돌봄 사역자들의 영민(英敏)한 대처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네이티브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Kursweil과 Greenfield의 상반된 논리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우월성을 판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 논문에서 논리적으로 분석되는데, 인간의 뇌와 인식의 고차원성이 생래적이며 역동적이라고 논증합니다. 다만, 그러한 본래적인 능력이 ‘무분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병리화 되어 약화 및 협소화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 회로를 확장하여 새로운 연결이 형성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에의 의지는 그 시행과 성과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영성형성을 지향”하는 기독교 영성으로 영적 돌봄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돌봄 사역자는 “균형 잡히고 통전적인 인간 이해”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적/목회 돌봄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합니다 (인지정서행동치료기법 등). 무엇보다 ‘관상’이 주효(奏效)합니다.

인습적이고 양식화된 현대인들의 마음(거짓 자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및 소외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회복”해야 합니다(토마스 머튼). 이러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신의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과정이 관상을 통해 체험”되는 것입니다. 관상은 기독교 진리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고, 내면과 정신 병리현상이 완화 및 치유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게 관상은 “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자아를 발견하고 수용하도록 안내”합니다(창의적 사고의 영성적 토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 경험).

이러한 관상 추구를 위해 “관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상 기도는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 폭력적인 반응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내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기도는 “창의적 발상을 촉발”하여 사고력 향상, 비판적 성찰을 통한 새로운 인지 가능성 탐색 유도, 발상의 전환과 프레임 전환을 안내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 건강이 영혼의 문제에 관계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균형 있게 시도하여 그 해결책을 유연하게 도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념과 명제를 바탕으로 확장된 연구를 기대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논문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기독교 영성을 통해 주어지는 여러 도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논문을 읽고 이해하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영적 돌봄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영적 돌봄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더 뻗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로 한정했을 때에는 논문에서 거론된 매우 심도 있는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고 그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둘째, 그 누구나 영적 돌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면 앞서 밝힌 전문성 확보의 과제와 더불어 그 영적 지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논문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적 관점을 갖게 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하도록 인도하였기에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부

2024. 2. 16.(19:00~22:00)

3차 발표(12층) 19:00~20:10

발표8

〈상담치료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송준용(수도국제대) “생성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좌장: 김충렬(한국상담치료연구소)/ 논찬: 김해영(강서대), 이상현(순신대), 양찬호(웨신대)

발표9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박란이(대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

좌장: 이승열(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논찬: 김한호(서울장신대), 허우정(진해교회),
민장배(성결대)

발표10

〈교회교육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고원석(장신대)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 이수인(아신대), 남선우(열림교회), 권진하(송실대)

상담치료 관점에서 생성 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제 8 발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송 준 용 박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I. 들어가는 말

ChatGPT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생성(Generative) AI’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생성AI는 기계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글·이미지·영상 등을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해 내는 기술을 일컫는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생성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시키는 특성 때문에 ‘초거대 AI’라고도 불린다. 생성AI는 ChatGPT 출시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나, 이미 ChatGPT 이전에 그림·음악을 창작하는 생성 AI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인간의 예술과 창의성을 보존하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 고려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성AI시대의 변화 속에서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들로서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전부터 디지털기와 친밀감이 더 높고 온라인세상과 더 친숙한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처럼 발달에서 애착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함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알파 세대는 관계의 어려움과 소통의 부재라는 공동체에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에는 갈등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는 정서적인 친밀감의 결여가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저하시키고 고독과 불안함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왕따 또

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발전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존볼비는 유아기의 발달에서 안정애착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은 애착대상과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킴으로써 타인 신뢰, 자신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알파 세대의 경우 많은 우려를 낳게 되는데 차츰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¹⁾

아동과 청소년기의 불안과 두려움, 걱정은 어린 시절에 흔히 겪게 마련이다. 게다가 현대에는 공부압력, 마약, 폭력, 스트레스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압박하고 있다. 근심, 두려움, 공포, 공황, 쉽게 짜증내기는 불안의 정서적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불안의 외현적 증후를 보다 잘 나타내는 것은 행동증상들이다. 회피는 불안 증상의 대표적이 특징이다. 아동들이 임상장면에 의뢰될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거나 회피로 인해 엄청난 대가(예: 학업, 건강문제, 또래 문제, 가족 갈등 등)를 치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강박충동, 과잉경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들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혹은 위협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불안한 아동들은 대개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의를 집중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이들 중에는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²⁾ 최근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우울감으로 인해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중,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26.2%로 나타났으며,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용자 중 9명 중 1명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시설 이용자 중 자해를 생각하거나 경험한 청소년은 41.7%가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26.2%는 최근 1년 이내에 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해를 생각하거나 시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65.4%,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46.1%로 답하였다. 자살 생각 및 시도를 경험한 경우는 46.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27.5%는 최근 1년 사이에 자살을 생각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48.4%가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가족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45.9%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30.9%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7.2%가 '할 일도 없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난 현실을 볼 때, 불안이나 관계에서 오는 부적응은 알파 세대들이 발달 시기에서 자아존중감

1) David J. Wallin /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0), 60-63.

2) Robert D. Friendberg., & Jessica M. McClure / 정현희, 김미리혜 공역, *Clinical Practice of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2012), 281-286.

을 형성해야 될 시기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는 자아존중감에서의 문제가 청소년기 초기에 적응과 부적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전체의 자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즉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윤리적, 이념적, 심리적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외양, 성(gender), 사회적 관계와 집단 소속, 직업과 일,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연합과 이념에 따라 스스로를 정의하게 된다. 정체성은 그것이 '나다움(I-ness)이기 때문에 개인적이지만, 그것이 '우리다움(we-ness)'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긍정적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수용하는 느낌을 발달시킨다. 게다가 정체성 발달은 친밀감의 발달과 타인의 수용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약물사용이나 거친 파티와 같은 거친 강렬하고 즉각적인 경험을 통해 도피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함을 잊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⁴⁾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은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낳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되는 경우 가족 간의 갈등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인간의 관계 단절은 비대면이라는 사회적인 고립과 함께 사람들에게 온라인 세계로 한층 더 밀접하게 되면서 정서적인 고립의 결과를 낳게 된다. 청소년들은 부모 자녀 간의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사랑스럽고, 주의 깊은 유대를 원하게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안전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사생활이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려면 심리적자율성(psychological autonomy)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행동을 모니터하고 감독하며, 그 행동을 제한할 규칙을 세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자기 통제를 가르치고 반사회적 행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며 심리적 안녕감을 도모하게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

3) 황여정,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25-31.
https://www.mogef.go.kr/mp/pcd/mp_s001d.do?mid=plc502&bbtSn=704811

4) F.Philip Rice, Kim Gale Dolgin /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공역,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12th edi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145-153.

5) F.Philip Rice, Kim Gale Dolgin /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공역,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12th edi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240-241.

6) 하워드클라인벨은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감정', '행동', '태도', '관계'의 온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마틴 부버는 인간 발달의 세가지 독립적인 차원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첫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성AI시대를 살아가는 알파 세대들이 내·외적 변화되는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심리적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스티븐 C. 헤이스의 수용전념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알파 세대를 위한 상담적 돌봄을 위해 Campbell의 세 가지 목회상담자 유형을 살펴보고 목회상담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알파 세대의 특징과 발달심리

1. 알파세의 특징

알파 세대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21세기에 출생한 첫 번째 세대라는 상징성을 띠고 고대 그리스의 알파벳 첫 글자인 ‘알파’를 사용하였으며, 알파 세대라는 용어는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들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2008년 리서치에서 최초로 창안되었다.⁷⁾ 태어나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라는 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1995~2009년생을 일컫는 Z세대 다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알파 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알파 세대는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자기중심성이 강해 ‘제일 소중한 것은 나’라고 믿는 까닭에 모두가 스스로를 셀러브리티이자 아키텍트라고 여긴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틱톡’을 주요 SNS로 활용하고, ‘국영수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알파 세대이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가?”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이며, 디지털 격차로 일컬어지는 양극화 문제 역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어린 세대의 행복에 부모와 학교와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⁸⁾ 알파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모험적이며 과거 세대보다 나은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기술이 정통하다. 알파 세대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TV, 태블릿PC,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데 익숙하다. 알파 세대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활

째, 내향적 성장, 둘째, 외향적 성장, 셋째, 수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통해서 관계에서의 참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7)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온다』 (서울: 지식프레임, 2021), 134.

8)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23』 (서울: 미래의 창, 2023), 303.

하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⁹⁾

알파 세대는 향후 점차 일상의 인프라가 되고 있는 디지털영역에서의 격차, 즉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우려되며, 이는 정보와 통신에서의 접근 가능성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 경제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 가정, 지역 간 격차를 뜻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보유와 부모의 지원 수준의 차이가 두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디지털기기 보유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수준 역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적 측면에서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그리고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정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미디어 오남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은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낳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되는 경우 가족 간의 갈등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인간의 관계 단절은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고립과 함께 사람들에게 온라인 세계로 한층 더 밀접하게 되면서 정서적인 고립의 결과를 낳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편리함과 동시에 가상세계에서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 알파 세대의 발달심리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들로서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전부터 디지털기와 친밀감이 더 높고 온라인세상과 더 친숙한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알파 세대는 관계의 어려움과 소통의 부재라는 공동체에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에는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말처럼 발달에서 애착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존볼비는 유아기의 발달에서 안정애착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은 애착대상과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킴으로써 타인 신뢰, 자신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알파 세대의 경우 많은 우려를 낳게 되는데 차

9)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2(1)(2022), 127.

10) 배상률 외, 『청소년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1: 초등학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춤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¹¹⁾ 인간은 발달단계별로 성장을 하며 살아가야 인간으로서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간다. 특히 정서적인 안정감은 보통 6~7세 사이에 부모로부터 안정애착 형성이 필요하다. 애착형성이 잘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생일날 친구를 초대했는데 애착형성이 잘된 아이들은 많은 친구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반면 애착형성이 잘 안된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영유아기 및 취학아동 초기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이며, 자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내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인데, 이를 '개인적 우화'라고 말한다. "엄마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알아? 내 기분은 아무도 몰라!"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우화의 표현이다. 나아가 자신은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고 타인은 무대 위를 바라보는 관객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상상 속의 청중'이 늘 자신을 보며 열광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한 시간 넘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소녀나 유치하고 요란한 옷차림을 한 소년은 모두 상상 속의 열렬한 시선을 홀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우화나 상상 속의 청중 현상은 모두 자기중심성과 관련된다. 생애주기 단계를 고려했을 때, 알파 세대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¹²⁾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는 마틴부버거가 이야기한 대상이 목적만 존재하게 되는 세계에서 살아갈 위험이 있으며, 정서적인 친밀감의 결여가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저하시키고 고독과 불안함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왕따 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발전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에는 집이 전쟁터로 바뀌곤 했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낸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학생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라는 조사에서 초등학생 3명중 1명이 우울·불안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5.4%, '불안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였다. 지난 2년간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수업받지 못하면서 학교생활에도 악영향이 발생했던 것이다. 특히 아이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률도 매우 높았다. 이번 팬데믹이 알파 세대에게 일으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마스크 사용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영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사회성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¹³⁾

11) 김난도 외, 308-309.

12) 김난도 외, 325-326.

13) 김난도 외, 325-326.

III.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영향

1997년에 Gilster가 처음 사용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후 많은 학자에 의해 개념이 확장되어 현재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미디어 사용 능력을 넘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등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며,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교육과 직무 등 일상의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요구되는 윤리성 등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¹⁵⁾

한국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개인주의의 사교가 장려되고 그것이 특징인 서구 사회에서 나노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크기의 위협과 불안은 아닐 것이다. 공동체와 가족 중심의 문화를 바탕으로 비서구사회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 하는 사회적 환경이 무조건 좋고 그곳으로 회귀해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환경적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적 형태라고 한다면 거기서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⁶⁾

알파 세대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전의 마을, 놀이터라는 공간으로 통해 ‘언니, 오빠, 동생’과 어울려 놀이하며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상실한 이들은 양보하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른다. 자기중심적 태도는 강화되었으나, 공동체를 통한 협업과 사회성 함양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알파 세대는 공동체를 통한 공감과 사랑, 연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개인이 아닌 ‘우리’를 인식하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14) 김동하,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사용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부모중재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76(2023), 19.

15) 박하나, 진명화, 박지우, 임규연,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7(5)(2021), 75-101, 79.

16) 김혜영, “나노사회의 ‘파편화’현상과 공동체 약화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신학과실천」 (2023), 377.

요청된다.17) 특정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대가 공유해 온 생애경험과 그들이 직면하는 연령대·생애주기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태어나서 14세까지의 기간은 영아기-유아기-학령전기-초등학생기를 아우르는, 매우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나아가 전원이 미성년자이고 아직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양육·교육·놀이가 훨씬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가족·학교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18) 알파 세대의 아이들은 대면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과 사회성을 배우고 돌봄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학습 및 사회성 측면에서 여전히 대면활동이 필요하다. 미취학아동 생활시간조사 결과, COVID-19 이후 알파 세대가 이용한 시설을 살펴보면 공원·놀이터 등 야외 시설의 재방문율은 90.2%, 숲 재방문율은 83.3%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대면활동이 신체활동을 위해 놀이시설을 찾는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19)

2. 심리적 갈등

알파 세대들에게 팬데믹 시기가 일으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마스크 사용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영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사회성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 2022년 4월에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3이 “마스크사용으로 인해 아이들의 언어 노출과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걱정을 표현했다. 만2세가 넘었음에도 간단한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6~7세가 넘었는데도 ‘시옷’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늘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기 싫어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다고 한다.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나 교사들의 표정을 읽지 못해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20)

급격한 개인화의 진행과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사회의 미래는 분명 암울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진실한 만남이 힘들어지고 대상화된 인간은 그가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한 가치로 판단되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수명이 다하면 그 가치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미래적 움직임들이 벌써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21) 기술변혁의 시대를

17) 박미영, “코로나19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결교회와 신학」 48(2022), 90.

18) 김난도 외, 322-323.

19) 허자연, 이가인,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정책리포트」 348(2022), (서울: 서울연구원), 9.

20) 김난도 외, 325-326.

21) 김혜영, “나노사회의 ‘파편화’현상과 공동체 약화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신학과실천」 (2023), 383.

맞아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중요한 키워드이다. 인터넷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검색하는 기술을 넘어 스마트폰을 통해 휴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시스템은 삶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을 통한 관계의 확장은 자기 노출에 따른 위험과 타인과 비교를 통한 우울, 관계 확장에 대한 피로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²²⁾

과몰입하는 디깰러 개개인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딥디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소통의 부재가 단순히 기기 사용에서 오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미디어의 단문 위주의 텍스트에서 오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미디어는 어린이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나,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적절치 않은 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수면, 식습관, 과체중, 폭력성,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미디어 이용은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감을 낮추거나 학교 적응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인지 및 신체적으로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에 있으며, 이 시기에는 부모나 가족의 생활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²³⁾ 디지털세계에서의 “가짜뉴스”는 모든 형태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것이 이익이나 정치적 혼란, 초당파적 왜곡, 악의적인 잘못된 정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광범위하고 이전보다 식별하거나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은 생성과 확산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경험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²⁴⁾ 학교현장에서 폭력이나 난무하고 왕따나 가스라이팅 같은 현상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알파 세대가 통과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3. 자기효능감

알파 세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Bandura(1981)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도전적인 활동과 문제에 대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⁵⁾ 심리적유연성은 개인이

22) 이유미, “디지털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터러시,” 『교양학연구』 20(2022), 43-45.

23)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2(1)(2022), 135.

24) Aqida Nuril Salma, “Defining Digital Literacy in the Age of Computational Propaganda and Hate Spin Politics,” *KnE Social Sciences* (2019), 323-338, 325.

25) Maftel, Alexandra., Grigore, Ana Nicoleta., Merlici, Ioan-Alex, “How good do you think you are with computers? The link between teachers’ perceived digital literacy, occupational efficacy, and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26(5)(2023), 1321-1339.

신체적·심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1990년대 이후 긍정심리학을 배경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회복력, 탄력성, 회복탄력성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심리적(적응) 유연성이라고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심리적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였고, 공감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²⁶⁾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다면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윤리적 의사결정을 포괄하는 능력, 그것은 필수적인 사회문화적 역량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접근하고, 평가하고 만드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또한 개인의 디지털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관여는 학업 성적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참여도,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적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²⁷⁾

기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심리적 유연성과의 연구를 통해서 심리적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알파 세대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지적 접근으로 심리적 유연성을 갖게 된다면 알파 세대들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 또는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알파 세대들이 자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리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심리치료적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심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치료적 접근

26) 박영남, 이혜진,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구강보건학회지』 11(3)(2023), 107.

27) Widowati, A., Siswanto, I., & Wakid, M. (2023). “Factors affect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elf efficacy, digital literacy, and academic engagement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16(4)(2023), 885-898. 887. <https://doi.org/10.29333/iji.2023.16449a>

1. 심리적 유연성

Vander Wall은 유연성을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과 ‘다양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다각적인 대안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 ‘변화하는 자극에 맞춰 적응적으로 인지 틀을 전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유연성은 ‘대안’과 ‘통제’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고 각 요인의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다. ‘대안’은 외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역할을 하지만 ‘통제’는 부적응적 사고나 행동에 대해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띄므로 그 역할이 상이하다. 유연성은 변화에 대한 능력이며, 유연성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다양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 상황에서 변화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견디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외상 후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인 심리적 유연성과 외상 후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지속화시키는 희망이 필요하다.²⁸⁾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자동 운항 방식”으로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각본에 따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인가의 성패가 달려 있는 상호작용이었다. 그런 종류의 익숙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밍된 유형에 따르면서 자신이 당면한 상황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조절만 한다는 연구결과이다.²⁹⁾ 이런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치료 전문가가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각본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를 몰고 출근하는 동안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거나 이례적인 상황을 만나면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자동 운항 방식

28) 장민, 김예실,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인지 유연성과 희망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2020), 132-134.

29) 1970년대 후반 심리학자 엘런 랭어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획기적인 논문을 내놓았는데, 이 논문에서 던진 질문은 “완전한 자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얼마나 될까?”였다. 연구자는 복사기가 보이는 탁자에 앉아 있다가 복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다섯 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자 60퍼센트의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었다. 다른 실험에서는 “실례합니다. 제가 다섯 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조금 급해서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94퍼센트의 사람들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세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다섯 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해서요.” 이 실험에서의 부탁은 성공적인 부탁과 동일하게 서술, 요청, 정당성의 구조를 나타낸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각본을 따르는 일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이 꽤 자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Leonard Mlodinow / 김정은 역, *ELASTIC: Flexible in a Time of Change*, 『유연한 사고의 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소한 습관』 (서울: 까치글방, 2020), 52-55.

을 벗어나게 된다. 분석적 사고나 유연한 사고를 기르는 첫 단계는 일반적으로 사고(thinking)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인 각본을 이용할 때에 더 의식을 하게 되고, 그 각본이 당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적인 각본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 중단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³⁰⁾ 심리적 유연성은 의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완전히 혹은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과의 접촉함이며, 그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다.³¹⁾ 또한 심리적 유연성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식적인 인간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완전하게 접촉하고, 변화하거나 지속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때를 말한다.³²⁾

2. Hayse의 수용과 전념적 접근

실존주의 상담의 구조는 인간 실존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상담의 방법론적 한계와 가능성이나 선택과 같은 자유의 대립이다. 그리고 이 모순을 통합하는 방법론은 전통적으로 현상학이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실존주의 상담의 기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실존주의 상담의 한계의 수용, 선택과 자유, 현재 순간, 그리고 가치를 촉진하는 기법들을 현대 인지행동주의 접근, 특히 변증법적 행동치료와 수용전념 치료에서 주로 찾게 된다.³³⁾ 수용전념치료(ACT)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 부정적 감정에 저항하지 말고 수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전념하도록 돕게 된다. 수요전념은 ‘고통은 인간 삶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가정으로서 인간에게 있어 고통은 보편적이며 정상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수용관념적치료에서는 인간의 정신병리가 ‘경험회피’와 ‘인지적융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험회피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통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의 노력은 오히려 역설적 효과로 인해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한편, 인지적

30) Leonard Mlodinow / 김정은 역, *ELASTIC: Flexible in a Time of Change*, 『유연한 사고의 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소한 습관』 (서울: 까치글방, 2020), 52-55.

31) Juan M.Flujas-Contreras, Alvaro Recio-Berlanga., Magdalena P.Andres, Mercedes Fernandez-Torres, Pilar Sanchez-Lopez, & Inmaculada Gomez,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hildren: The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flexibility as a mediator”,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 Science*, 29(2023), 202-208.

32) Hayes, S.C., J.B., Bond, F.W., Masuda, A., & Lillis, J.,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2006), 6.

33) 반신환, “실존주의 기독교상담의 부활,” 『신학과실천』 (2012). 457-458.

융합이란 언어로 인해서 생각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개념의 틀 속에서 간혀 고통을 겪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여 생각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또는 “자기”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회피와 인지적 융합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직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심리적 수용이란 생각과 감정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각과 감정을 단지 알아차리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용(acceptance)의 주요 요소는 개인의 통제외제(control agender)를 버리고 가치를 부여한 행동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전념(commitement)에 부합하는 삶과 관련된 경험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다. 심리적 수용의 정서적 결과로는 감정이 충분히 자각되고 수용되면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개방적이며, 회피를 위해 했던 노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가 넘친다. 이처럼 심리적 수용은 정신건강과 함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증진시켜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방법이 된다. 이러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는 관계구성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계구성이론에 따르면 형식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연결시켜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언어이며 인지이다. 그래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자극이 없어도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언어적 평가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정신병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언어를 통해 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제지할 수 없다. 따라서 수용과 전념치료는 그러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심리적 유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내담자를 이끌어 간다. 수용전념치료는 크게 여섯 가지 핵심적인 치료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용(acceptance),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 맥락으로서의 자기(self as context), 현재에 머무르기(being present), 가치(value), 전념행동(committed action)등이 그것이다. 이 치료적 과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전념치료에서 말하는 ‘수용’은 일반적으로 고통은 이를 제거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더 증폭되고, 고통 속으로 더 휘말리게 되며, 더 외상적인 것으로 변환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고통을 통제나 수용을 통해 내면의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을 기꺼이 수용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지적 융합이 사고 과정을 지배할 때 수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기법은 생각이나 다른 사적인 경험들에 대한 형태나 빈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생각 또는 사적인 경험과 관련된 맥락을 바꿈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기능을 변경하고자 한다. 또한 인지적 탈융합 기법은 자신의 사고가 진실을 반영하거나 중요하다는 가정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 과정을 관찰하도록 가르친

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나는 너무 불안해!’라는 생각보다 더 탈융합된 생각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보다 불안을 덜 유발한다. 그러나 인지적 융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들이 지속적인 인지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적 경직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인지적 탈융합의 최종적 목표는 심리적 경험을 방해하는 언어적 과정을 증립화하는 것이다. 수용전념치료의 창시자인 Hayes는 알아차림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수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경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감소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수용은 크게 세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은 부정적 정서를 인내(tolerance)하는 단계이다. 보다 발전된 단계는 부정적 경험을 기꺼이 경험(willingness)하는 단계이다. 수용의 가장 높은 단계는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의 단계이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활용한다. 수용전념치료는 내담자에게 수용과 인지적 탈융합을 통해서 관점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를 줄 것을 요구한다. 수용전념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수용전념치료에 따르면 행동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도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선택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알아차림-수용과정과 행동-변화과정을 통합하는데 초점을 두며, 다양한 범위의 문제와 장애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심리치료 접근방법이다. 수용전념치료의 중심개념은 경험회피이다. 수용전념치료는 많은 형태의 정신병리들이 부정적인 내적 경험들을 회피하기 위한 부질없고 역효과를 가져오는 노력들-물질남용, 해리, 폭식 또는 부정적 경험을 불러오는 대인, 장소 및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을 함으로써-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회피 상황에서, 수용전념치료는 심리적 유연성을 가르친다. 여기에는 현재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는 것과 함께 은유적인 언어를 통해 교육되는 알아차림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경험의 회피가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이라고 하는 언어적 과정을 통해 생긴다고 한다. 인지적 융합이란 인간이 현실 혹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지각하는 상황을 말한다. 고양이에게 할퀴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재 경험하는 고양이를 현재의 고양이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 언어화된(상징화된)고양이로서 지각한다. 이러한 인지적융합이 지나치게 일어나면 고양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공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불쾌한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을 회피하려는 자동적인 반응양식이 고착되게 된다. 따라서 경험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이 일어나야 한다. 인지적 탈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ACT는 알아차림의 원리를 이용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진실을 반영하여 혹은 중요하다든 가정 그리고 항상 사고내용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과정을 관찰하도록 배운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사고를 관찰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게 되며,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시냇물 위의 나뭇잎 훈련에서는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시냇물과 그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들을 상상하도록 한다. 생각이 떠오를 때, 참가자들은 각각의 생각을 바라 본다. 인지적 탈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재앙이 일어날 거야,”라는 생각과 융합된 사람은 그 생각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탈융합은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서 인식하도록 하며, 건설적인 행동을 추구하면서 그 생각이 왔다가 지나가도록 허용하게 한다. 수용전념치료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내담자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

셋째, 맥락으로서의 자기는 지금-여기의 경험을 ‘조망하는 자기’ 혹은 ‘관찰하는 자기’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언어로 인해 개념화된 자기와 과도한 융합이 심리적 경직성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개념화된 자기로부터 벗어나 생각, 기억, 신체적 감각 등과 같은 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맥락으로서의 자기’ 즉, 지금-여기의 경험을 ‘조망하는 자기’ 혹은 ‘관찰하는 자기’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마음챙김과 명상을 비롯해서 체험적인 연습과 비유등을 사용한다.

넷째, 현재에 존재하기는 언어로 인해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지금-여기의 체험을 알아차리며 현재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적이며 비방어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접촉하도록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환경과 사적 경험의 존재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킨다. 또는 내담자가 과도한 평가 없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명명하거나 기술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현재에 존재하기’를 위한 기법으로서 흔히 알아차림 연습과 함께 행동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행동적, 인지적 노출을 사용한다.

다섯째, 가치는 개인이 실현하기를 원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나 목표를 의미한다. 내담자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비효과적임을 깨닫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동안 통제에 투여했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진정으로 삶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본다. 개인의 가치가 명료해지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들을 정할 수 있다. 가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가피한 고통과 심리적 장애를 직면할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

여섯째, 전념적 행동은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한다.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변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유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수용과 알아차림에 역점을 두는 균형적인 접근을 취한다. 행동적 영역에서 내담자 문제에 따라 심리교육, 행동과제, 노출 및 행동치료적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수용전념치료의 핵

심은 다른 치료이론들이 ‘존재의 고통’ 즉 존재하는 다양한 고통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수용전념치료는 ‘부재의 고통’ 즉 실체가 없는 괴물과 싸우기를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오지 못한 고통을 자각하면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은 ‘고통을 떨쳐내야만 행복한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하면서도 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작업이다.³⁴⁾

또한 수용전념치료는 내담자의 가치전념행동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초기불교의 알아차림 원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인지적 탈융합을 촉진한다. 그러나 수용전념치료는 치료과정에서 알아차림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 외에도 초기 불교의 교리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사해 보인다. 수용전념치료에서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권장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분리해서 바라본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기불교가 사성제를 통해 고통을 소멸시켜 나가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수용전념치료에서 사용하는 알아차림은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내담자의 관심과 개인의 가치에 집중하며 관찰자로서 자기의 경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알아차림의 기술을 활용한다. 이와같이 초기불교와 수용전념치료 간에는 알아차림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자아에 대한 관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통에 접근하고 고통을 치유해 나가는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³⁵⁾

V. 알파 세대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자의 자기상

현대적인 인지행동치료를 대표하는 수용전념치료는 개인이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직된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체험회피 시도를 중단하고 심리적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을 치료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증상의 경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유연성은 체험회피 시도와 반대되는 노력인 적극적 수용을 통하여 달성되는데, 적극적 수용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경험을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체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적 치료요인은 심리적 경험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경험에 대한 태도의 변화, 즉 경험과 맺는 관계의 변화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기질적 성향 자체보다는 자신의 기질 성향을 대하는 태도 혹은 기질적 성향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도록 이끄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³⁶⁾

34)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2021), 480-482.

35) 추인혜, 임승택,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본 수용전념치료”, 『철학탐구』 41(2013), 5-20.

36) 유성진, 권석만, “위험회피 기질 수용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인지행동치료학회지』 11(2)(2011), 3.

알파 세대의 기질과 성향별로 자기색깔이 분명한 내담자를 상담자는 어떠한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캠벨(Alastair V. Campbell)은 목회상담자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명한 바보(wise fool), 둘째, 목양자(Shepherd), 셋째, 상처입은 치료자(wounded healer)로 구분하였다. 현명한 바보(Wise Fool)는 현명한 바보가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편견과 자기기만을 향하려는 성향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는 태도를 취하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가 한층 수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목양자(Shepherd)는 목양적 관점에서 양치기로서의 사역 이미지를 말하며, 상처입은 치료자(Wounded Healer)는 헨리나우웬의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제시한 이미지이다. 목회상담에서 현명한 바보의 관점에서 재구조화를 시도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목양자는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상처입은 치유자는 아픔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현명한 바보는 삶을 재구조화한다.³⁷⁾

알파 세대를 마주하는 상담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칼 로저스(Carl Rogers)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과 공감을 통해서 이해하고 진정성과 진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치료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목양자는 양치기로서 내담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코칭적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적합한 상담이다.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성향의 내담자들에게 알맞은 목회상담의 유형일 것이다. 현명한 바보는 알면서 속아 넘어가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을 스스로 통찰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 때로는 내담자는 거짓으로 일관하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렇지만 내담자가 이야기하면서 통찰을 얻어가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상처입은 치유자는 '함께 울어주는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자이며 돌봄을 바라는 해바라기처럼 따뜻한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일 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언제나 때론 빛으로 때론 불기등으로, 때론 구름기등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돌봄의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욕구대로 돌봄을 통해서 공감하고 좋은 길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알파 세대가 중학교에 올라가는 해이기도 하다. 중2병이라는 막강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 알파 세대를 어떻게 돌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가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VI. 나가는 말

37) Donald E. Capps / 김태형 역,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목회상담과 돌봄사역』, (대전: 엘도론, 2013), 235-249.

인간의 역사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하나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화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흔히 인간관계는 다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이 타인에 대해 어떤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랑으로, 우정으로, 신뢰에 바탕을 두게 되며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는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 관계, 대인관계, 인화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 관계의 의미로 사용되는 인간관계는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의식이 없이 사람과 사람 상호 간에 형성되는 일정한 심리적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대인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관계는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경우에 개인의 언행과 태도에 관심을 갖고 형성되는 상호관계로서, 사람과 사람의 상호관계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개인의 개성 수준의 정도 및 대인적 교섭과 수용태도에 치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인간관계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있는 동일집단에서 인간 상호 간에 형성되는 바람직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잠재능력 및 탁월한 융화성을 바탕으로 한 지도성의 결과로 목표지향적인 인간관계와 심리적 태도를 조성하고 집단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시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모두 나와나 이외의 어떤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 한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부모, 친척, 직장 동료, 사회, 국가, 세계인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³⁸⁾ 심리학자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개인적 또는 직업적 성공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것을 그릿(grit, ‘투지’)이라는 뜻이 있으며,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그릿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작업에 몰두하게 해주고, 곤경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유연한 뇌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생각을 떠올릴 때까지 노력하게 해준다.³⁹⁾

본 연구자는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을 헤이즈의 수용전념치료적 접근에서 수용과 전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이

38) 김중은, 박성식, 『만남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13-18.

39) Leonard Mlodinow / 김정은 역, *ELASTIC: Flexible in a Time of Change*, 『유연한 사고의 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소한 습관』 (서울: 까치글방, 2020), 88.

를 근거로 심리적 유연성을 갖게 되는 청소년은 스스로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워드클라인벨(Howard J. Clinebell) 또한 성장은 돌봄과 대면, 사랑과 정의, 유희성과 결단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성장공식'을 성장은 '돌봄과 맞섬'으로, 성장은 어떠한 관계에서나 -학생과 교사, 환자와 치료자, 어린이와 부모, 남편과 아내, 신자와 목사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돌봄과 맞섬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경험되는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돌봄(수용, 긍정, 은총, 사랑)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부정되어 온 현실의 여러 측면들과 부딪히는 것이다. 맞섬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의 잠재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맞섬은 자기=맞섬으로 발전되어야만 변화를 초래한다. 진실된 돌봄이 없는 맞섬은 거부로 체험된다. 그것은 자기 맞섬이나 변화에의 내적 욕구가 아니라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맞섬 없는 수용과 사랑은 불완전하거나 가식으로 체험되는 경향이 있다. 성장을 가능케 하는 사랑은 불완전하거나 가식으로 체험되는 경향이 있다. 성장하기 위해 맞서는 도전은 수용이나 긍정과 마찬가지로 애정이 담긴 것이며, 변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⁴⁰⁾ 수용전념치료의 핵심 개념인 유연성은 하워드클라인벨이 이야기한 성장의 '돌봄과 맞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수용전념치료적 접근으로 문제를 직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마음의 자세가 알파 세대들을 건강한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알파 세대들이 심리내적인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외적환경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2021, 480-482.
-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23』. 서울: 미래의 창, 2023, 303.
- 김동하.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사용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부모중재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76(2023), 19.
- 김종운, 박성식. 『만남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13-18.
- 김해영. “나노사회의 ‘파편화’ 현상과 공동체 약화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신학과실천』 (2023), 367-394, 377.
- 김현, 장병희.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2(1)(2022), 127.
- 박미영. “코로나19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결교회와 신학』 48(2022), 90, 84-100.
- 박영남, 이혜진.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적응유연성에
-
- 40) 하워드클라인벨, 『성장상담』,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2003), 64-67.

-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구강보건학회지』 11(3)(2023), 107, 107-113.
- 박하나, 진명화, 박지우, 임규연.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7(5)(2021), 75-101, 79.
- 반신환. “실존주의 기독교상담의 부활”. 『신학과실천』 (2012), 457-458.
- 배상률 외. 『청소년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1: 초등학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유성진, 권석만. “위험회피 기질 수용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인지행동치료학회지』 11(2)(2011), 3.
- 이유미. “디지털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터러시”. 『교양학연구』 20(2022), 35-59, 43-45.
- 장민, 김예실.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인지 유연성과 희망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2020), 131-141.
- 장혜경 외. 『한국사회 공동체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한반도평화와 연구원총서15』. 명인출판사, 2020.
- 최은영. 『알파 세대가 학교온다』. 서울: 지식프레임, 2021, 134.
- 하워드클라인벨 / 이종현 역. 『성장상담』.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2003.
- 하워드클라인벨. 『성장상담』.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2003, 64-67.
- 한승진. *더불어함께 사는 세상*. 박문사, 2015.
- 허자연, 이가인.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정책리포트』 348(2022), (서울: 서울연구원), 9.
- 황여정.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25-31.
https://www.mogef.go.kr/mp/pcd/mp_s001d.do?mid=plc502&bbtSn=704811
- David J. Wallin /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애착과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0, 60-63.
- Donald E. Capps / 김태형 역,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목회상담과 돌봄사역』. 대전: 엘도론, 2013, 235-249.
- F.Philip Rice, Kim Gale Dolgin /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공역,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12th edi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145-153.
- Leonard Mlodinow / 김정은 역, *ELASTIC: Flexible in a Time of Change*. 『유연한 사고의 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소한 습관』. 서울: 까치글방, 2020, 52-55.
- Robert D. Friendberg., & Jessica M. McClure / 정현희, 김미리혜 공역, *Clinical Practice of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2012, 281-286.
- Aqida Nuril Salma. “Defining Digital Literacy in the Age of Computational

- Propaganda and Hate Spin Politics”. *KnE Social Sciences* (2019), 323-338, 325.
- Hayes, S.C., J.B., Bond, F.W., Masuda, A., & Lillis, J.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2006), 1-25.
- Juan M. Fluja-Contreras, Alvaro Recio-Berlanga, Magdalena P. Andres, Mercedes Fernandez-Torres, Pilar Sanchez-Lopez, & Inmaculada Gomez.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hildren: The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flexibility as a mediator”.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 Science*, 29(2023), 202-208.
- Maftel, Alexandra, Grigore, Ana Nicoleta, Merlici, Loan-Alex. “How good do you think you are with computers? The link between teachers’ perceived digital literacy, occupational efficacy, and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26(5)(2023), 1321-1339.
- Widowati, A., Siswanto, I., & Wakid, M. “Factors affect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elf efficacy, digital literacy, and academic engagement eff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16(4)(2023), 885-898.
<https://doi.org/10.29333/iji.2023.16449a>

논 찬 1

“생성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에 대한 논찬

김 해 영 박사

(강서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본 논문은 급변하는 미래사회 도전앞에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을 다룬 의미있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연구자는 생성AI 시대 알파 세대들의 마주하게 된 문제점과 결과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풍족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고 첨단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풍족한 디지털 환경이 주는 편리함과는 별개로 이들은 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에 최하위이며,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과 함께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발달되기도 전에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 알파 세대들은 관계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면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를 박탈당한 이들은 소통의 부재, 개인주의 심화, 그로 인한 공동체의 약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와 함께 연구자는 증상에 대한 지나친 집중, 현실회피가 오히려 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수용전념치료를 목회상담자의 치료상과 연결, 돌봄의 모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고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담학적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연구자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값진 연구물을 읽으며 갖게 되는 의문점들을 몇가지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파 세대가 직면하게 되는 미래적 모습이 부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연구자는 디지털 시대,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알파 세대의 어려움들을 통찰깊은 시각과 최근 자료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분석해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간과하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미래적 댓가가 상당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그것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이라는 점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대면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대면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화시켰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런 변화는 피해갈 수 없고 더 한 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알파 세대들이 겪는 디지털 시대와 변화는 이전 기성세대의 것과는 다른 그들의 생태 환경이다. 그런 그들의 환경에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 공동체적 대응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알파 세대가 겪는 문제는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 결과는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상담학이나 목회상담학이 최근 흐름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병든 사회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된 알파 세대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는 알파 세대는 현상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자신의 행동이 본인과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시기에 부모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런 부모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부모를 대신해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든 목회상담학적 대안과 접근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수용전념 치료의 예를 들어, “고통적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더 한 강점을 살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4:11)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 처해진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용전념치료의 접근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전념치료의 개념과 유사한 기독교 덕목들을 찾아 목회상담학적 시각에서 정의하고 적용해보는 것도 의미있다

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AI 시대를 맞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알파 세대를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고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 고통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성세대들이 관심가져야 할 것들이다. 알파 세대들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목회상담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본 연구는 그런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 귀한 연구를 통해 실천신학 논의의 장을 넓혀주신 연구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논 찬 2

“생성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 상 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는 정서적인 친밀감의 결여가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저하시키고 고독과 불안함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연구자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스티븐 헤이스(Steven. C. Hayes)의 수용전념치료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알파 세대를 위한 상담적 돌봄을 위해 캠벨(Alastair V. Campbell)의 세 가지 목회상담자 유형을 살펴봄에 목회상담적 함의를 논의하는 본 연구는 그 효용성이 기대되는 의미 깊은 연구이다.

1. 논문의 요지와 의의

먼저 연구자는 알파 세대의 특징과 발달심리를 살펴봄에, 20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알파 세대의 특징은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자기중심성이 강해 나는 나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알파 세대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세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전부터 디지털기기와 온라인과 더 높은 친밀감을 갖는 알파 세대는 관계의 어려움과 소통의 부재라는 공동체에서의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는 시의적절하며 세심한 지적이 매우 창

의적이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영향과 심리적 갈등, 자기효능감에 대해 논구한다. 우선 알파 세대는 공동체를 통한 공감과 사랑, 연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이 아닌 '우리'를 인식하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요청된다고 보며, 그들이 직면하는 연령대 생애주기의 특징을 살펴본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감을 낮추거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리적 유연성의 연구를 통해서 심리적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알파 세대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논지에 따른 논거의 흐름이 유연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심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인지적 접근으로 심리적 유연성을 갖게 된다면 알파 세대들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 또는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한다. 심리적 유연성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식적인 인간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완전하게 접촉하고, 변화나 지속하기 위해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수용전념치료(ACT)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 부정적 감정에 저항하지 말고 수용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전념하도록 돕게 한다는 것이다. 수용전념은 '고통은 인간 삶의 기본요소'라고 하는 가정으로서 고통을 보편적이며 정상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연구자의 해석은, 수용전념치료에서 인간의 정신병리가 '경험회피'와 '인지적 융합' 때문이라고 보는 주장을 용이하게 탐색하게 함이 고무적이다.

한편 알파 세대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자상에 대한 연구에서, 알파 세대의 기질과 성향별로 자기색깔이 분명한 내담자를 상담자는 어떤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캠벨이 제안한 현명한 바보, 목양자, 상처 입은 치료자로 목회상담자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목양자는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상처 입은 치료자는 아픔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현명한 바보는 삶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목양자는 양치기로서 내담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코칭적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현명한 바보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절대적 지지와 응원을 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또 상처 입은 치유자는 함께 올려주는 상담자의 역할로서 중요하다는 성찰은 상담 실재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통찰력으로 사료된다.

3. 질문 및 제언

첫째, 연구자는 알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을 헤이즈의 수용전념치료적 접근에서 수용과 전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심리적 유연성을 갖게 되는 청소년은 스스로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극복하게 된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알파 세대가 중학교에 올라가는 해이기도 한 이즈음에 특히 중 2병이라는 사춘기를 맞게 되는 알파 세대의 돌봄에 대해 우려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떠한 실제적인 목회상담적 관점의 돌봄을 강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둘째, 본고는 수용전념치료의 핵심 개념인 유연성은 하워드 클라인벨이 이야기한 성장의 ‘돌봄과 맞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을 밝히며, 수용전념치료적 접근으로 문제를 직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마음의 자세가 알파 세대들을 건강한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탐구한다. 이러한 성찰은 상당히 목회상담학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게 하며, 이와 함께 도래하는 알파 세대를 위한 목회상담에 적용하고자 할 때, 심리적 정신적 영적 방향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갖고 적용을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았으면 한다.

논찬을 마무리하며, 실천신학 논문으로서의 학문적 발전과 공헌을 기대하게하는 “생성 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을 집필한 송준용 박사님의 학문적 통찰력과 창의력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더욱 확장되어 목회상담의 발전에 큰 기여를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논 찬 3

“생성AI시대 알파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영향과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에 대한 논찬

양 찬 호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먼저 실천신학회에서 귀한 논문을 논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타학문을 접하고 학문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논찬을 준비했습니다.

본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알파 세대라는 특정 세대의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알파 세대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목회상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글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알파 세대인 21세기에 출생한 세대들을 논하면서, Wallin의 “애착과 심리치료”라는 책을 기반으로 알파 세대는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AI와 애착이 먼저 이뤄지면서 정서적 우울감, 불안, 소통 부재로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며 이에 학교 부적응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인 공동체 파괴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합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스티븐 C. 헤이슨의 이론인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심리적 유연성을 기를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목회상담자의 자세를 위한 칼 로저스의 사상과 목회상담자의 정체성을 위해 캠벨의 입장을 논하면서 헤이슨의 이론과 목회상담자의 입장이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상담”의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학문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상담이론을 통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점이 흥미롭고 결론적으로 목

회적상담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이 교회를 위한 논문이라 보여집니다.

먼저 본 논문은 존 볼비의 “애착이론”이 아동 및 성인까지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알파 세대의 잘못된 애착이론을 직시하면서 알파 세대의 발달심리의 불안함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자는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을 인용하며 논지를 이끄는데, 이 부분이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논의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학문적 용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논의하면서 알파 세대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면 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리터러쉬”를 통해 사회참여도,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업성적까지도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쉬”의 영향 하에 알파 세대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헤이즈의 “수용전담치료(ATS)”로 접근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헤이즈의 6가지 치료기법을 논의하면서, 그 중에서도 “알아차림”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이 “알아차림”은 초기 불교교리와 유사하면서 활용방식과 자아에 대한 관점에서는 불교교리와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혹시 헤이즈의 “알아차림”이 기독교 신학이나 신학자의 이론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알파 세대 돌봄을 위한 목회상담자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켈벨의 목회상담자의 정체성 3가지 입장과 칼 로저스의 목회 상담자의 자세를 간단히 언급하는데, 이 부분은 본 소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때문에 켈벨과 로저스의 1차, 2차 문헌을 통해 논지를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상담”의 내용과 헤이즈의 “수용전담치료”의 핵심 사고가 유사함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되어지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상담적 접근을 결론적으로 논의해 주면 어떨까 제시해 봅니다.

다시 한번 송준용박사님의 학문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알파 세대라는 새로운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고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알파 세대를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학문적으로 접근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송준용박사님의 논문이 새 시대의 새 세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논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생성 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제 9 발표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

박 란 이 박사

(대전사회서비스원 / 실천신학 / 디아코니아)

I. 들어가는 말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의 경제 참여율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돌봄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재정투입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일자리의 확충 등 양적 확장을 통해 돌봄 수요에 대응해 왔으나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실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의 정체기를 겪으면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제3의 길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통한 성장을 주목하게 되었다. 일자리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이처럼 성장한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였다.

사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대체해야 하는 현실은 그간의 돌봄 정책을 재 점검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584만 6천 가구인 46%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증가했으며, 행정안전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

인 가구 비율도 2000년 16%에서 2022년 41%인 972.4만 가구로 급증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교회 등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활성화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발전에 큰 중심이었고, 법적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돌보아 왔다. 이러한 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 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돌봄에 있어 교회의 역할은 지대했다. 전쟁 이후의 고아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대와 IMF의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영유아와 아동을 돌 보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는 프로그램과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때쯤인 2006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육·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회와 민간에 의지했던 아동돌봄이 드디어 공적 돌봄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출생률 뿐 아니라 혼인 건 수 마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¹⁾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아동돌봄은 여기저기에서 사각지 대가 발생했다. 사실 모든 세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큰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학령기에 코로나를 경험한 아동은 입학부터 줌(Zoom)으로 수업을 받아야 했고, 감염병에 대한 위험때문에 원 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이 생략되었다. 장기간 지속된 비대면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초등학령기 아동들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비대면이 뉴노멀인 상황에 적응하며 성장해 갔 다.³⁾

감염병에 대한 불안은 사회의 모든 돌봄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기에 사회서비스에 대 한 수요와 욕구는 더 커졌다. 사람들은 스스로 외출과 대면 활동을 자제하거나 위축되었고 학교, 교회, 복지시설 등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던 많은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어 야 했다. 학교는 영상이나 줌(Zoom)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지키며 휴교와 등교를 반복하였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주일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위

1) 조선비즈, 2019.10.30.

2)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merging Generations, 2020.5, McCrindle.

3) 문수지, 황혜정, 포스트팬데믹시대의 신세대, LG경영연구원. 2022.

힘과 공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대면 활동을 두렵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학교와 교회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예전처럼 뛰어놀 수 없었으며 아동은 사회적, 정서적 단절 환경에 방치되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학령기에 코로나를 경험한 아동들은 대부분 비대면 교육을 위한 줌이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주로 가정 안에서의 돌봄에 의지해야 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적 영역의 돌봄이 폐쇄되면서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적 돌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으며 공적 돌봄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2년 실시한 ‘코로나19 추적조사 목회자 보고서’에 따르면 장년 예배는 비교적 회복되고 있으나 교회학교 주일예배 현장 참석률은 42.6%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가능한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에 대한 교회의 신앙 교육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극동방송(CTS)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영유아 돌봄 제공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동참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아동돌봄 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시기에 학령기를 맞은 알파 세대의 특성을 통해 교회의 아동 돌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사회서비스와 아동돌봄 정책 현황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서비스로 협의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한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면 저출산 극복, 고령사회 대비 등 인구 위기 대응 서비스를 포함하여 임신·출산 지원부터 노후, 장사 서비스까지 생애주기적으로 복합적 욕구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표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⁴⁾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구분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고령	노인	죽음
사회서비스	난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보육 서비스 아이 돌보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 돌봄 놀이 문화 심리상담 영양, 신체활동	사회서비스알자리 (장애인자활 등) 노후설계지원 운동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노인 돌봄 치매 돌봄 노인일자리 지역통합돌봄 노인건강관리	호스피스 장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혼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서비스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등의 구호를 위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를 1세대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주로 교회나 선교사 등 해외 원조단체가 지원하는 수용시설 중심이었다. 전쟁 이후의 고아, 장애인, 부랑인 등에 대한 시설보호를 위해 ‘고아원’, ‘모자원’ 등과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정부 지원의 시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시설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시기를 2세대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기존 1세대 사회서비스가 보호시설 중심이었다면 2세대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2세대 사회서비스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생기는 시기였다. 서비스 대상도 의식주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이나 사회적 격리를 요하는 부랑인 등을 위한 1세대 서비스에 비해 2세대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공급주체의 경우는 교회 등 1세대 서비스에서 구축한 인프라의 확장 선상에 있었다.

사회서비스가 활발해진 계기는 외환위기 등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를 겪으면서부터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생각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주목받았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배제 등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이 부각되며 바우처 방식의 새로운 3세대 사회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발전한 서비스가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3세대 사회서비스이다.⁵⁾

5)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2019.

2.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의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 수요 확대 등으로 아동 돌봄 환경은 계속 변화해 왔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돌봄에 대해 재조명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아동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즉,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적절한 양육 환경 조성 과 함께 아동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 인식되며 아동 돌봄의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었다.⁶⁾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확대는 영·유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에 대해 정책확산의 차이가 있었다. 저출산 정책과 보육 정책의 확대에 기반하는 출산 수당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주로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은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⁷⁾

아동 돌봄의 경우, 영유아기는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사업 등의 기본 돌봄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돌봄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며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어머니의 41.4%가 초등저학년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의 64.1%가 방과후 자녀를 맡길 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⁸⁾ 이와 같은 돌봄 공백은 아동 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의 위축, 우울감, 사회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⁹⁾

초등학생의 시기가 학습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볼 때, 방과후 돌봄 공백은 교육적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돌봄 공백 시간에 보호자의 돌봄 없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경우 중독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초등돌봄의 공백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백없는 돌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6) 남승연, 이경민,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7) 장수정,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 2020.

8) 예지은 외,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이봉주외,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학회, 2014.

10) 임혜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소, 2017

1)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는 영유아의 성장과 부모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도모하며 정부는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서비스 내용과 질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을 갖는다.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7개의 종류로 운영되는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교회 등에서 운영하던 선교원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6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으며 다수의 영유아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유아 돌봄에 있어서 아직도 민간 영역인 교회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¹¹⁾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공립	2,859	3,157	3,602	4,324	4,958
사회복지법인	1,402	1,392	1,377	1,343	1,316
법인단체등	804	771	748	707	671
민간	14,316	14,045	13,518	12,568	11,510
가정	20,598	19,656	18,651	17,117	15,529
협동	157	164	164	159	152
직장	948	1,053	1,111	1,153	1,216
합계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어린이집의 수에 있어서 민간의 분포가 공공에 비해 높은 것은 초기 보육시설 확대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의 참여가 큰 이유였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어린이집 공급 확대 필요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선교원형태로 유아의 돌봄을 제공하던 교회들이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민간 영역의 보육서비스가 증가하였다.¹²⁾

많은 교회들이 교회부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하였고 아동의 신앙교육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로 인해 보육시설은 2013년을

1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1년

12) 김영미, 어린이집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과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인지발달장애학회, 2014.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선교원에서 시작한 교회의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수 확충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제는 교회 역시 보육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의 고민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의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아, 영아전담, 휴일, 24시간처럼 보육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교회가 어떤 전문성으로 보듬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표 3> 전국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분		개소	현원	개소	현원	개소	현원	개소	현원	개소	현원
장애아	전문	177	6,158	178	6,161	177	6,239	176	6,301	177	6,206
	통합	911	4,079	946	4,066	1,000	4,189	1,100	4,568	1,211	4,959
	계	1,088	10,237	1,124	10,227	1,177	10,428	1,276	10,869	1,388	11,165
영아전담		453	15,759	469	16,127	426	14,991	405	13,912	366	11,276
방과후		294	3,075	268	2,631	247	2,443	229	2,079	195	1,742
시간연장		8,296	36,367	8,245	34,722	8,104	31,069	8,015	29,908	7,769	19,662
휴일		300	311	306	280	309	200	312	143	298	124
24시간		258	701	252	695	234	583	153	549	152	478
합계		10,689	66,450	11,358	64,682	10,497	59,714	10,390	57,460	11,227	44,447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적 상황의 변화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돌봄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지라도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2) 초등돌봄 서비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령기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 공백의 발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³⁾

13) 장수정,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 2020.

현재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이희현 외, 2019; 장수정, 2020)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영유아 돌봄이 대상 제한이 없는 점에 비교할 때 초등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서비스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¹⁴⁾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는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각기 다른 부처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아동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임혜정, 2017)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9-11세 아동은 4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낸다는 아동도 5.3%(류정희 외, 2018)에 이른다.

특히 9~11세 아동의 경우 방과후 학교 이용 아동은 9.8%이며,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 또한 0.9%(류정희 외, 20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학부모는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충분한 쉼이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 중에서 학원이나 과외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47.3%(류정희 외, 20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 역시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방과후학교를 확대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은 방과후 학교의 한 유형으로 학부모의 방과후 돌봄 부담을 학교 체계 내에서 덜고자 하는 의도였다. 지역사회에서의 초등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전국의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양성 및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원하였다. 2004년 정부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하였고, 이때부터 많은 교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는 나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은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

14) 이희현 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9.

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방과 후 교실’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학교 돌봄은 학교 내 공간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뤄지는 돌봄 활동으로서 교육청과 학교가 주요 운영 주체이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돌봄이 이뤄지는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된 후 2021년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맞벌이 가정 등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2021년 12,190명까지 확대되었다.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 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온 ‘민간 공부방’에서 출발하였으며,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4,26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 보호, 교육, 정서지원(상담·가족 지원), 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조손, 다문화, 세자녀 이상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방과 후부터 21시까지 연중 돌봄이 제공되며, 기초학습 외에도 체험, 상담, 부모 교육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5)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⁵⁾

〈표4〉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주요 내용

구분	늘봄학교	초등 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부처	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용	학교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의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후 시점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제도	돌봄이필요한 아동의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돌봄취약아동 및 일반아동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학습 등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대상	초1~6년	초1~2년	미취학~ 만18세미만	초1~6년	초4~중3년	만12세이하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초등돌봄은 부처마다 서로 다른 이름의 돌봄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부모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보다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학교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깝고 안전해서”가 51.7%(이혜숙 외, 2019)로 학교 돌봄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령기 자녀의 학내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의 교회가 아동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극동방송(CTS)에서 진행하는 청원의 내용처럼 지역 곳곳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공간을 제공하여 근처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매우 의의가 있으나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부분과 지역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지역의 돌봄 욕구 및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을 돌봄이 아닌 학교 돌봄이 주는 전문성과 안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3.10.

III. 알파 세대의 특성 및 교회의 돌봄

1. 알파 세대의 정의 및 특징

알파 세대(Alpha generation)라는 용어는 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된 세상에 태어나 학령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 주로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며 2023년 기준 가장 나이가 많은 알파 세대는 13세이다.¹⁶⁾

그동안 새로운 세대를 일컫는 용어들은 기존 세대와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세대를 통칭하며 등장했다. 새로운 세대가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특성 및 과거와 다른 생활양식을 나타낼 때 보통 그 인구집단을 특정 세대(알파 세대, MZ세대 등)라고 지칭한다.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베이비붐세대, 386세대, 586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등 다양한 표현이 있어 왔다. X세대와 Y세대는 PC사용이 활발해지고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등장한 세대이며 Z세대는 모바일사용과 함께 등장했다. 또한 Y세대를 밀레니얼세대 즉 M세대 라고도 하며 Z세대와 합쳐서 MZ세대라고도 한다. 그리고 밀레니얼세대의 자녀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이다. 따라서 알파 세대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밀레니얼세대의 특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M세대는 정보기술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세대다. 이 M세대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 출생하여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Z세대를 합친 세대를 MZ세대라고 한다. MZ세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즐기며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신념을 중요시 여기며 의사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참여 의식이 높으며, 불평등,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¹⁷⁾

밀레니얼세대인 M세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로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며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등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N포세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입식 교육에 거부감이 크고 여성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직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으며 남성은 가사 분담과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¹⁸⁾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M세대의 자녀세대인 알파 세대는 21세기의 첫 세대라는 점에

16) 알파 세대(Gen Alpha) 이해하기, 미국콘텐츠 산업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7) 알파 세대(Gen Alpha) 이해하기, 미국콘텐츠 산업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8) 김석호 외,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017.

서 다른 세대와 차별된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 알파 세대의 알파는 고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인공지능(AI)과 함께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사용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소셜 미디어와 AI 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디지털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

알파 세대가 태어난 시기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며 저출생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파 세대 부모는 52%가 맞벌이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알파 세대가 학령기에 “마스크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과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영유아 및 아동 시기에 중요한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친구나 선생님의 표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표정을 읽고 느끼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¹⁹⁾

알파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나 취미 등을 해결하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세대이다. Z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었다면 알파 세대는 모바일 원주민이며 MZ세대가 스마트폰으로 SNS 소통에 익숙했다면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 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다. 이들은 특히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익숙하며.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여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하고 또래 그룹들과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한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미세먼지를 크게 경험하여 호흡기 질환 등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은 세대이다.²⁰⁾

〈표 5〉 알파 세대의 특징²¹⁾

특성	내용
AI-Native	음성 인터페이스가 익숙한 세대로 AI 비서인 알렉사/구글/시리아 대화하고 교감하는 양방향적인 상호 작용에 익숙
Expanded World	현실과 온라인 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성장한 최초의 세대로 확장된 생활 공간에서 활동
Generation Glass	오로지 디지털 시대만 경험해본 세대로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학교 수업이나 친구와 소통 등에서 온라인 세계만 경험

19) 박미영, 코로나19 이후 알파 세대의 신 행동 체계, 『세계교육의향』 2022.
 20) 알파 세대(Gen Alpha) 이해를 위한 미래세대는 시대를 향 한 근원적 지식의 2023.
 21)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2020, McCrindle The Future's Bright: The Future's Gen Alpha, 2019.6, Beano Brain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2019, Hotwire Consultancy.

사실 모든 세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사회 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줌(Zoom)으로 수업을 하고 감염의 위험으로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화 과정이 생략되었다.²²⁾

비대면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알파 세대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기술에 의지하며 비대면이 뉴노멀인 세상에서 학령기를 맞은 첫세대인 것이다. 호주 맥크린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4%가 코로나19가 알파 세대의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매체에서 알파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AI원주민(AI-Native)세대로 어려서부터 AI와 친숙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특성을 갖는다. 영국에 사는 “생후 18개월 유아가 처음 한 말은 엄마, 아빠도 아닌 ‘알렉사’였다”는 영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알파 세대가 AI-Native라고 특징 지워지는 이유에는 2011년 애플 쉬리, 2014년 아마존 알렉사, 2016년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2017년 삼성 빅스비(Bixby), 2018년 엘지 락큐(ThinQ) 등의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의 영향이 크다. 이들은 글자를 배우기도 전에 음성으로 궁금한 것을 묻거나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스마트 기기와 친숙하게 소통하며 AI가 놀이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²³⁾

둘째는 확장된 세상(Expanded World)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 등장했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메타버스²⁴⁾라고 하는데 알파 세대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 놀이, 쇼핑 등의 삶을 대체한다. 메타버스는 SNS보다 입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교류하는 친숙한 놀이공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어린시절 코로나를 경험한 알파 세대는 기존 세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2.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

알파 세대는 디지털세대이기도 하지만 돌봄환경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날 수 있다. 디지털 격차란 디지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 경제, 문화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가정 또는 지역 간의 격차이다.²⁵⁾

22)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merging Generations, 2020.5, McCrindle

23) 알파 세대(Gen Alpha) 이해하기, 미국콘텐츠 산업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24)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출간된 소설 '스노 크래시' 속 가상 세계 명칭인 '메타버스'에서 유래, 나무위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 보유와 지원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디지털기기 보유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역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디지털 사용에 대한 지도가 적을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미디어 오남용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릴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의 남용과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실과 디지털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세대 사회서비스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교회의 돌봄 방식이 오늘날 알파 세대의 디지털 격차 및 오남용에 다른 돌봄서비스 보다 훨씬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이의 영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관심이 많았고 성경 및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알파 세대에게 부족한 미디어와 현실 사이의 균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의 지도하에 또래와 학습하고, 토론하는 다양한 활동 등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교육 및 놀이에 친숙한 알파 세대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가상공간에서 소외, 폭력, 학대 등이다. 알파 세대는 시대적 배경 및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디지털환경과 가상 세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나 문화도 가상 세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따돌림, 폭력, 소외 등의 문제가 여과 없이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는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회의 각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슬픈 자, 소외된 자, 핍박 받는 자 등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 그 욕구에 응답할 자세가 필요한데 알파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는 이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알파 세대 중 앱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경험은 15.3%,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도 5.8%로 나타났다. Z세대의 경우 5천원 이상 1만 5천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알파 세대는 전체의 25%가 3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알파 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세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구매력의 차이가 또 다른 차별과 격차를 만들 수 있으며 그 안에서의 괴롭힘 등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알파 세대는 '비대면'에 무척 익숙하다. 어린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학령기에 비대면을 먼저 경험했고, 각각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온라인에서의 연결로 만남을 갖는다. 따라서 대면이 주는 편리함보다 비대면이 주는 편안함에 더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 이

25) 박미영, 코로나19 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경교회와 신학, 2022.

26) 알파 세대의 등장과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러한 특성은 알파 세대의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택수업, 재택근무 등 기존의 규칙적인 관습보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을 훨씬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유연한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알파 세대에게 규칙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돌봄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매주 주어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출석부에 도장을 받는 일이 이미 오래된 낡은 프로그램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알파 세대의 유연함이 지나친 자유로움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규칙과 일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필요한 돌봄이라고 생각된다. 알파 세대에게는 인내심과 절제력 등 세대가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인성의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헝가리의 연구에서는 디지털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알파 세대는 작은 세부 사항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곧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창의적 사고를 제약하고 융통성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능력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뇌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에서도 취약할 수 있으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당장 만족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클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알파 세대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감정을 읽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아래 보육·돌봄 관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춤추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시설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된 바 있으며, 2019년 4월에는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추진협의회」가 개최되어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 돌봄협의체 구축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 후 2019년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2022년 늘봄학교 시범사업 등 정부의 돌봄 관련 정책은 춤추는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확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선언하며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을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개별 소관 아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센터, 학교 돌봄, 다함께돌봄, 마을 돌봄 등을 통해 분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²⁸⁾ 정책의 양적인 확대가 취업 여성과 가족의 욕구를

27) 교육부 홈페이지, 2023.10.

28) 유혜미 외,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8.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다.²⁹⁾ 또한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돌봄에 있어서 아동의 귀가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사이에 두 시간 정도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3%의 부모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을 학원에 보내고 있고 72%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교실'은 '학습'면에서 만족도가 낮고 '학원'은 '비용' 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은 '학습 도움'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교실'은 '안전한 돌봄'과 '아이의 흥미'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또한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 중 83%가 '출산,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나타나 여전히 방과후 돌봄에 공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 기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독교인은 긍정, 비기독교인은 부정인식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비기독교인의 응답에서 '아이들에게 기도(종교)를 강요할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인식이 86%로, '종교 강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점은 많은 교회가 돌봄 사역에 대해 관심과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교회의 돌봄 사역을 확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여부에 상관없이 집이나 직장 주변의 교회가 돌봄 시설을 운영한다면 기독교인의 84%, 비기독교인의 29%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돌봄의 공백과 수요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³¹⁾

IV. 나가는 말

가족의 책임이었던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변화되면서 정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선언하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역 사회의 취약 아동을 돌보아 왔다. 그러나 사회의 양극화, 분열 등은 교회의 신앙 교육을 어렵게 하였고 정부는 지침 등을 정비하면서 교회의 돌봄에 공적 제재를 가해왔다. 많은 교회들이 공적 돌봄 체계에서의 신앙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침 등으로 교회의 돌봄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극동방송(CTS)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과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은 교회가 지역사회 돌봄 문제에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29) 정선아, 영유아기와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어린이교육비평, 2018.

30) 만 3세~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2021. 12.

31) 아동돌봄 실태와 교회의 역할, 목회데이터연구소, NO.133, 2022.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 교회야 말로 디지털이 일상화되어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돌봄은 일 가정 양립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돌봄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이루는 지역 돌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알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돌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3세 미만의 영유아의 돌봄 제공보다 초등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출생과 양육 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며 초등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앞의 장에서 확인하였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의 내용처럼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읍·면지역 등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보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문제에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가 아동 돌봄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초등돌봄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보다 기계와 소통이 원활하고 상호작용이나 교감을 경험하는데 제한적이었으므로 친밀함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비대면에 익숙하여 사회적,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중독이나 소외 등의 문제에도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현실과 온라인의 균형을 잡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성경 암송, 찬양 등 말하고 움직이는 활동이 알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기들을 통해 활동해 왔으므로 말하고, 탐구하고, 찾고, 외우는 환경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다양한 오프라인의 활동을 통해 뇌를 균형있게 사용하도록 돕고, 찬양과 성경퀴즈 등을 통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활동은 CHT GPT가 빠르게 찾아주는 편리함에 익숙한 알파 세대에게 듣고, 기다리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을 위한 교회의 돌봄이다.

알파 세대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알파 세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회의 대면 돌봄이 주는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으로 알파 세대는 정보의 분별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협동심과 인내심, 소통 능력, 조절 능력, 갈등해결 능력 등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돌봄은 알파 세대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균형감각을 위해서도 교회의 돌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가 가르칠 때 집중하는 것,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는 것 등 간단한 규칙이지만 이는 알파 세대가 미디어에 대한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형성될 것이다. 빠르고 결과 중심의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알파 세대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세심한 돌봄 역할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2023』 서울: 미래의창, 2022.
- 김석호, 주윤정, 성연주, 김지애외,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No. 24, 2017.
- 김여진, 박란이,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수요자 욕구조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2.
- 김영란,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자녀 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모델 제안, 이슈페이퍼, 여성가족부, 2011.
- 김영미, 어린이집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 인지발달중재학회지, 제5권 2호, 2014.
- 김은정, 홍진주, 정세미, 김현진,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경제 모델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 김홍범, 박인숙,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19.
- 남승연, 이정민,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 축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 류정희외,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수지, 황혜정, 포스트팬데믹시대의 신세대, LG경영연구원. 2022.
- 박남기, 인구절벽 저출산시대 대비, 교육정책진단-유초중등교육 정책분야,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제45권 6호, 2018.
- 박미영, 코로나19 이후, 알파 세대와 신앙공동체, 성경교회와 신학, 제48호, 2022.
- 배상률 외,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1: 초등학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제21호 8권, 2014.

-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이덕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9.
- 이혜숙, 문진영, 위드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2022.
- 임혜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 11권 3호, 2017.
- 장명림, 이희현, 조진일, 최형주 외, 학생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2018.
- 장수정,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돌봄 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제67권 1호 2020.
- 최은영,『알파 세대가학교에온다』 서울: 지식프레임, 2021.
- 함영주, “코로나19 시대, 가정과 연계하는 유초등부 신앙교육”,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서울, 들음과 봄, 2020.
- 허자연, 맹다미, 이가인, 서울시 미리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서울연구원, 2021.
- 홍현균, 공정승, 아동돌봄 서비스 현황과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22.
- 목회데이터연구소, 아동돌봄실태와 교회의 역할, NO.133, 2022.
-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2019.
- 한국콘텐츠진흥원, 알파 세대(Gen Alpha) 이해하기, 미국콘텐츠산업동향, 2023.
- 하나금융연구소, 잘파세대의 부상, 2023.
- McCrinkle,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2020,
- McCrinkl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merging Generations, 2020.
- Beano Brain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Hotwire Consultancy, 2019.
- 다음세대운동본부, 2022 대한민국 아동 돌봄정책 제안서, 2022.
- 국민일보, “코로나로 흔들린 예배와 양육 두 기둥 재건해야”, 2021.09.01.
- 이데일리, “에잇포켓.골드키즈 쑥쑥 크는 키즈산업. 어디에 투자할까, 2019.01.21.
- 조선비즈, “알파 세대, 디지털과 글로벌 연결성으로 중무장”, 2020.04.22.

논 찬 1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에 대한 논찬

김 한 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 실천신학 /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먼저 박란이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확장되어진 돌봄 욕구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알파 세대를 한국교회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의 각별한 돌봄을 준비해야 한다는 박사님의 제안은 시의 적절한 연구주제라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서두에 언급하고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교회 등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지만 코로나19의 겪으며 생겨난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와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에 대한 교회의 신앙교육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제II장에서는 사회서비스와 아동 돌봄 정책 현황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공 되어지는 사회서비스가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발전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주신 후 아동돌봄 서비스의 현황을 보육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초등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등

초등 방과 후 돌봄정책의 주요 내용을 도표를 통해 자세하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제Ⅲ장은 알파 세대의 특성과 교회의 돌봄을 소개하셨습니다. 알파 세대를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 소개하며 알파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자라 온 환경들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AI와 소통하며 가상 세상에 대한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자라는 알파 세대가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알파 세대를 교회의 오랜 돌봄 방식으로 품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현 하셨습니다. 교회는 아이의 영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져왔고 성경 및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회 돌봄 서비스가 그들의 마음과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거라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알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돌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취약 아동을 돌보아왔으나 정부는 교회의 돌봄에 공적제재를 가해왔고 이로 인해 교회 돌봄이 많이 위축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 교회야말로 디지털이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돌봄은 지역사회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돌봄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동력이 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이루는 지역 돌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3세 미만의 영유아의 돌봄 제공보다 초등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함을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현실과 온라인의 균형을 잡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포함한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을 위한 교회의 대면 돌봄의 필요성과 관계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돌봄 정책들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돌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동간의 안전과 신뢰도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알파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고민도 계속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요구에 응답할 자세가 필요하며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이상의 필자의 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교회 돌봄의 영역 확대와 프로그램 활성화만큼이나 교회 돌봄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 내 돌봄 인력은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령화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대면 돌봄이 주는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영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교회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와 알파 세대 사이에 세대 간의 간격과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세와 마음,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박란이 박사님의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논 찬 2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에 대한 논찬

허 우 정 박사

(진해교회 목사, Dr.theol.)

발제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말한다.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아동돌봄 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시기에 학령기를 맞은 알파 세대의 특성을 통해 교회의 아동 돌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의 아동 돌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논문을 구성하고 있다.

II. 사회서비스와 아동돌봄 정책 현황(3~10)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 1) 보육 서비스
 - 2) 초등돌봄 서비스
 - (1) 초등돌봄교실 (2) 다함께돌봄센터 (3) 지역아동센터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5) 아이돌봄서비스

III. 알파 세대의 특성 및 교회의 돌봄(11~16)

1. 알파 세대의 정의 및 특징
2.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13~16)

IV. 제언(16~18)

아래는 발제자의 위 논문을 요약하고자 발췌한 문장들이다.

1)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교회 등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활성화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발전에 큰 중심이었고, 법적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돌보아 왔다. 이러한 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돌봄에 있어 교회의 역할은 지대했다. 전쟁 이후의 고아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대와 IMF의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영유아와 아동을 돌보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는 프로그램과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았다.

2)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의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혼용한다.

3)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서비스

(1) 1세대 사회서비스 -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등의 구호를 위해 시작. 1950년대 이후 1970년까지. 주로 교회나 선교사 등 해외 원조단체가 지원하는 수용시설(고아원, 모자원) 중심.

(2) 2세대 사회서비스 - 1980년대부터 정부 지원의 시설이 생기기 시작.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 운영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비중이 커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서비스 대상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까지 확대. 서비스의 공급주체는 교회 등 1세대 서비스에서 구축한 인프라의 확장 선상

(3) 3세대 사회서비스 - 2000년대 중반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배제 등과 관련된 신사회위험 부각, 바우처 방식 도입,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금 발생

4) 현재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영유아 돌봄이 대상 제한이 없는 점에 비교할 때 초등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서비스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5)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된 세상에 태어나 학령기에 코로나 펜데믹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 주로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중략) 알파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나 취미 등을 해결하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세대이다. 알파 세대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AI 원주민 세대로 어려서부터 AI와 친숙하게 소통하고 교감

(2) 가상세상. 코로나 19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 등장. 교육, 놀이, 쇼핑 등의 삶을 대체

6)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고 디지털 사용에 대한 지도가 적을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미디어 오남용 비율이 증가한다. (중략)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교육 및 놀이에 친숙한 알파 세대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가상공간에서 소외, 폭력, 학대 등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알파 세대를 위한 한국 교회의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1) 자유롭고 유연한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알파 세대에서 규칙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돌봄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매주 주어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출석부에 도장을 받는 일이 이미 오래된 낡은 프로그램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알파 세대의 유연함이 지나친 자유로움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규칙과 일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필요한 돌봄이라고 생각된다.

2) 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점은 많은 교회가 돌봄 사역에 대해 관심과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교회의 돌봄 사역을 확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제자는 알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돌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 1) (3세 미만의 영유아의 돌봄 제공보다)초등 돌봄에 대한 관심 가져야 할 것.
- 2)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 3)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을 위한 교회의 돌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자의 논문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을 통해, 한국 사회서비스의 흐름과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최근 정책의 기조에 대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알파 세대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아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디아코니아학 전공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발제자의 논문 내용은 그 제목에서 잘 집약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 현 세대에 맞는 교회의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돌봄 사역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다만 초등 돌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제언은 모순되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서 담당 교역자가 부재하기까지 어려워진 교회교육 현장의 관점에서는 초등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와 참여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교육을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대수선”할 수 있다면, 교회는 알파 세대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논 찬 3

“사회서비스시대 알파 세대와 교회의 돌봄”에 대한 논찬

민 장 배 박사

(성결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와 목회)

1. 요약

그동안 교회와 민간에 의지했던 아동돌봄이 2006년 부터 공적 돌봄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출생률 뿐 아니라 혼인 건 수 마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¹⁾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펜데믹까지 더해지면서 아동돌봄은 여기저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사실 모든 세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학령기에 코로나를 경험한 아동은 입학부터 줌(Zoom)으로 수업을 받아야 했고, 감염병에 대한 위험때문에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이 생략되었다. 장기간 지속된 비대면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초등학령기 아동들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비대면이 뉴노멀인 상황에 적응하며 성장해 갔다.³⁾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2년 실시한 ‘코로나19 추적조사 목회자 보고서’에 따르면 장년 예배는 비교적 회복되고 있으나 교회학교 주일예배 현장 참석률은 42.6%로 여전히 회

1) 조선비즈, 2019.10.30.

2)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merging Generations, 2020.5, McCrindle.

3) 문수지, 황혜정, 포스트팬데믹시대의 신세대, LG경영연구원. 2022.

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가능한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에 대한 교회의 신앙 교육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극동방송(CTS)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영유아 돌봄 제공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동참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박란이 박사는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아동돌봄 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 시기에 학령기를 맞은 알파 세대의 특성을 통해 교회의 아동 돌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박란이 박사는 사회서비스를 개인 또는 사회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즉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서비스로 협의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서비스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등의 구호를 위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를 1세대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주로 교회나 선교사 등 해외 원조단체가 지원하는 수용시설 중심이었다. 전쟁 이후의 고아, 장애인, 부랑인 등에 대한 시설보호를 위해 ‘고아원’, ‘모자원’ 등과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정부 지원의 시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시설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시기를 2세대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기존 1세대 사회서비스가 보호시설 중심이었다면 2세대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2세대 사회서비스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생기는 시기였다. 서비스 대상도 의식주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이나 사회적 격리를 요하는 부랑인 등을 위한 1세대 서비스에 비해 2세대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공급주체의 경우는 교회 등 1세대 서비스에서 구축한 인프라의 확장 선상에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배제 등과 관련된 신 사회위험이 부각되며 바우처 방식의 새로운 3세대 사회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발전한 서비스가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3세대 사회서비스이다.⁴⁾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의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 수요 확대 등으로 아동 돌봄 환경은 계속 변화되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돌봄에 대해 재조명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돌봄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며 엄마의 41.4%가 초

4)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2019.

등저학년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의 64.1%가 방과후 자녀를 맡길 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돌봄 공백은 아동 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의 위축, 우울감, 사회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⁶⁾고 우려했다.

현재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이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이희현 외, 2019; 장수정, 2020)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임혜정, 2017)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11세 아동의 경우 방과후 학교 이용 아동은 9.8%이며,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 또한 0.9%(류정희 외, 20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알파 세대(Alpha generation)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된 세상에 태어나 학령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 주로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며 2023년 기준 가장 나이가 많은 알파 세대는 13세이다.⁷⁾

알파 세대가 태어난 시기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며 저출생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알파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나 취미 등을 해결하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세대이다. Z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었다면 알파 세대는 모바일 원주민이며 MZ세대가 스마트폰으로 SNS 소통에 익숙했다면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 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이다.

알파 세대의 특징은 첫째, AI원주민(AI-Native)세대로 어려서부터 AI와 친숙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가상세계(Expanded World)이다. 박란이 박사는 이런 알파 세대를 교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아이의 영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관심이 많았고 성경 및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알파 세대에 대해 부족한 미디어와 현실 사이의 균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의 지도하에 또래와 학습하고, 토론하는 다양한 활동 들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슬픈 자, 소외된 자, 핍박 받는 자 등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 그 욕구에 응답할 자세가 필요한데 알파 세대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는 이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5) 예지은 외,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10.

6) 이봉주외,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학회, 2014.

7) 알파 세대(Gen Alpha) 이해하기, 미국콘텐츠 산업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결론으로 알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돌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회는 3세 미만의 영유아의 돌봄 제공보다 초등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셋째,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을 위한 교회의 돌봄이다.

2. 공헌점

1. 알파 세대에 대한 교회 역할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2. 알파 세대에 대한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 점.
3. 선교원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부각시킨 점.

3. 아쉬운점

1. 신학적 배경을 좀더 구체화하시면 더 학문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알파 세대에 대한 교회 역할을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3. 알파 세대 돌봄 서비스를 실천하는 교회 모델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박란이 박사께서 제언에 따른 구체적 프로그램 등을 계속해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발표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10 발표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

고 원 석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글

지난 해(2023년)는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온 세계가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 즉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그로 인해 인간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는지 불안감이 교차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한다.¹⁾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시대적 화두였음에 틀림없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적-기술적 산출물이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지능이 최근 인간의 본원적 능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다. 이제 인간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기대어 자신을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교육인간학적 모습을 성찰하려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되는지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살펴본 후(II),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 상황에서 도전받고 있는 지식, 교육, 종교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III). 그리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전을 교육인간학적 차원에서 성찰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IV). 본 소고가 기독교교육^{kr} 또는 성서교수학적 차원에서 깊이 다뤄지고 있지

1) 학술정보포털 “DBpia” 검색 결과, 2023년 한해 동안 “챗GPT”를 제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내 논문의 수가 148건에 달했고 “인공지능”을 제목으로 한 국내 논문의 수는 900건에 가까웠다. <www.dbpia.co.kr>를 참조하라.

못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겠다. 이렇지만 현 교육인간학적 성찰을 근거로 다음 연구에서 성서교수학적 문제와 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II.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포스트휴먼

1.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

전통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고유한 본성(본질)과 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평가하였다. 그 본성과 가치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²⁾ ① 존재의 가치: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 자유의지, 도덕성 등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존재론적 존엄성을 부여한다. ② 영혼의 소유: 전통적으로 인간은 영혼(정신)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다. 영혼은 인간의 신체와 - 분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구별되는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을 세상의 다른 생명체와는 구별되는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영혼의 존재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③ 존재론적 위치: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또는 최고의 수준으로 진화된 존재로 여겨져 왔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과 과제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위치는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지닌 인간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추앙된다. ①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②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③인간은 도덕성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④인간은 영혼을 통해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소위 “휴머니즘(인본주의)적 관점³⁾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인간 이해는 오늘날까지도 여

2) 참고: 우정길,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교육』 (서울: 박영스토리, 2019), 61-91; 박휴용,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1-24, 220-229.

3) 휴머니즘이란 용어를 연구자가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계몽주의적 인간이해를 비판한 푸코(M. Foucault)조차도 휴머니즘이란 “유럽 사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 재등장해 온 일단의 주제들”이며, “항상 가치 판단과 결합해 있는 이들 주제는 내용과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바 있다. M. Foucault, “What is Enlightenment?,” C. Porter(trans.), in P. Rabinow & N. Rose(eds.), *The Essential Foucault: Selections from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The New Press, 1984), 52; 이원봉,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될 수 있는가?,” 『인간연구』, 37(2018/가을),

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2.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발전

1) 인공지능(AI)의 등장

지능이란 사전적으로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을 총칭한다.⁴⁾ 인간은 생활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과제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어냈고, 기계를 도구 삼아 인간의 지적 활동 높였고, 점차 인간이 발명한 기계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만든 기계가 수행하는 지적 활동, 사고 행위를 의미한다.⁵⁾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의 등장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연 기계는 인간의 지적 행위를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기계는 진정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은 당시 과학자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기계도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계산 기기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이란 논문에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의 비과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나는 ‘기계가 지능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탐구하길 제안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문을 논증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치부하는데 왜 이런 태도가 생겼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보겠다. 우선, 지적 능력 면에서 인류의 경쟁 상대가 등장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싫은 거부감 때문이다. 이 거부감은 지식인 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잃을 게 많은 탓이다.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매우 불쾌하리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동물 중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계에 못지 않게 불쾌하며 그 이론적 가능성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다음으로,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프로메테우스적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믿음 때문이다. 최근까지 기계의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도 그 이유에 속한다. 이는 기계가 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밖에 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부추겼다.”⁶⁾

71에서 재인용. 포스트휴머니즘의 상대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휴머니즘을 논의하다 보니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전통적인 휴머니즘을 이해해주기를 독자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휴머니즘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J. Herrick, *Humanism: An Introduction* (New York: Prometheus Book, 2005)를 참조하라.

4) “지능,” 구글 사전 검색 (2023,11,30).

5)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파주: 김영사, 2022), 55-70.

6) 위의 책, 83-84에서 재인용.

튜링은 기계의 사고 가능성, 즉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시선은 면밀한 관찰을 통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월적 불쾌감 또는 전통적인 종교적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튜링은 직접 '튜링 머신'(Turing Machine)을 고안하여 인간의 뇌가 하는 학습과 비슷한 작업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튜링 머신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기계이다. 여러 개의 셀(Cell)로 연결된 긴 테이프(tape), 그 테이프 위의 셀에 기록된 지침을 읽을 수 있는 헤드(Head), 그리고 튜링 기계의 상태를 끊임없이 저장하고 기록하는 상태 기록기(State Regis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기록하고 그 기록에 따라 행동 지침을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 수준을 넘어 현대 컴퓨터와 유사한 정보의 입력, 출력, 저장, 제어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아이디어화했다고 평가받는다.⁷⁾

기계도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튜링의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로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 다트머스(Dartmouth) 대학교의 존 매카시(John McCarthy)와 후에 MIT의 교수가 된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등을 통해서다. 이들은 1956년 다트머스 학회(Dartmouth Conference)를 결성한 후, 인공지능(AI)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 사용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습 측면이나 지능과 관련된 모든 특징은 원칙상 정밀하게 묘사가 가능해 기계로도 충분히 유사하게 흉내 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 연구로 기계가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성과 개념을 형성하고, 지금껏 인간만 풀 수 있던 문제를 풀고, 스스로 발전해 가도록 만들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⁸⁾

이때 이미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의 언어, 추상적 사고, 개념 형성, 문제 해결 및 자기 학습 등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나아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2) 인공지능의 발전

튜링 머신으로부터 출발한 인공지능의 역사는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발전하였다. 한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지나친 환상에 불과했다는 실망과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인공지능

7) 위의 책, 81-83.

8) 위의 책, 90.

연구의 역사를 크게 약(弱)인공지능 시기와 강(強)인공지능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⁹⁾

먼저, 초기 인공지능 연구 시기를 약(弱)인공지능 시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나, 기계적 도구를 통해 힘든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했던 시기다. “과연 기계가 인간의 사고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직은 회의적인 대답이 더 우세했던 시기다. 실제로 약(弱)인공지능 시기의 컴퓨터의 수준이 인간의 지능이나 감정, 인간의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따라오지 못했던 때였다.

그러나 최근 딥러닝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실제 인간처럼 사고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심지어는 인간의 사고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시기를 우리는 강(強)인공지능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아마도 2016년을 인공지능의 혁신적 능력과 탁월한 존재감을 세상에 제대 보여준 해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구글 소속 딥마인드(Deep Mind)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과 대결하는 바둑 대국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는 이세돌을 5전 4승 1패로 승리했다. 이제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나마 이세돌이 1승이라도 거둔 것은 세계인들에게 큰 위안거리가 되었다. 1년 뒤인 2017년 5월, 알파고는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9단과 바둑 대국을 벌였다. 대국이 있기 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던 커제에게 알파고는 3전 3승이라는 완승을 거뒀다.¹⁰⁾ 바둑계의 일인자로 불렸던 커제는 전패를 한 뒤 머리를 감싸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딥마인드 사의 알파고는 커제와의 대국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되었다. 더 이상 대결할 인간의 지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¹⁾

또 2016년 8월 인공지능은 의학계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며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였다.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 항암 치료 중이던 66세 환자 야마시타 씨를 진료하게 된 것이다. 이 환자는 수 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발병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 병세는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 환자는 발병 후 화학요법을 거쳐 두 가지의 치료 약물을 상당 기간 복용하고 있었으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발병 원인이 1000가지가 넘는다는 백혈병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은 후 이를 근거로 치료해야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공지능 왓슨은 환자의 진료 기록과 증상을 입력받은 지 10분도 안 되어 자신의 의학적

9) 김명주, 『AI는 양심이 없다: 인간의 죽음, 존재, 신뢰를 흔드는 인공지능 바로보기』 (성남: 헤이북스, 2022), 158-159.

10) 연합뉴스(2017,05,28).

11) 김명주, 『AI는 양심이 없다』, 135.

소견을 제시했다. 기존 처방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바꿀 것을 추천했다. 왓슨의 새로운 처방에 따른 투약 결과, 백혈병 환자는 3개월 만에 완치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 세계 의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¹²⁾

인공지능 왓슨은 수개월 동안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학 박사들조차 찾아내지 못한 발병 원인을 환자 데이터를 입력한 지 10분 만에 분석하여 발병 원인을 찾아내 정확한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그 처방 후 백혈병 환자는 기적처럼 호전되어 3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과 인식, 처방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지능 또는 지성의 수준이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을 미완의 존재로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가는 존재다. 인공지능은 소위 “버전업”(version up)을 통해 자기를 발전시켜나간다.

3. 포스트휴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전통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구별된 존재, 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소위 휴머니즘 시대는 정신과 물질, 생명과 기계, 자연과 인공 등의 이원론적 구별을 토대로, 인간을 인간 아닌 것(non-human being)과 질적인 차이와 대비를 통해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을 통해 행동하는 자율적인 행위자, 역사를 산출하는 세계의 주체, 만물의 척도로 인정받았다. 다른 생명체와 자연은 수동적인 대상(객체)에 불과했다.¹³⁾ 반면, 인공지능의 등장과 급속도의 성장으로 인해 휴먼을 대체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 개념이 등장하였다. 포스트휴먼은 기계와 기술로부터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는 존재, 필연적으로 기계 및 기술과 연결되고 결합해야 하는 존재다.

미국의 인공지능 학자 해일즈(K. Hayles)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은 기술과 인간이 서로 결합되어 인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기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존재,” “신체를 가진 존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체, 로봇의 목적론과 인간의 목표 사이의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본질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¹⁴⁾ 결국 인간은 자기 안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기존의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한 종으로 업그레이드되거나 재탄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와 인공지능의 결합체로서 포스트휴먼의 구체화된 사례로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를 들 수 있다. 사이보그가 유기체인 인간이 기술과 결합하여 점차 기계화되는 포스트휴먼을 일컫는

12) 위의 책, 137.

13)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HORIZON (2020), <<https://horizon.kias.re.kr/12689/>>(2023.12.15 인출).

14) N. K. Hayles,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역 (서울: 플래닛, 2013), 2, 24.

것이라면, 안드로이드는 기계가 인공뇌와 같은 인간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점점 인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해일즈는 포스트휴먼의 출현을 촉진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보 기술의 발전이다.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신체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의 발전이다. 인공두뇌학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이버네틱스는 뱃사공, 카잡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퀴베르네틱스’(Κυβερνήτης)에서 유래한 말로서,¹⁶⁾ 인간과 기계, 동물과 기계를 연결하고 소통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포스트휴먼의 출현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했다. 셋째, 문화적 변화다. 문화적으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인간이 기계와 결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가했다. 해일즈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미래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먼저, 포스트휴먼은 신체적 한계, 즉 질병과 노화, 심지어 죽음 등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지적 능력에 엄청난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능, 기억력,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포스트휴먼은 기존의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창의성과 생산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¹⁷⁾

또 스웨덴 출신의 인공지능학자 닉 보스트롬(N. Bostrom)은 포스트휴먼으로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한다.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다. 우리는 신체적, 인지적,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지능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이다.”¹⁸⁾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미칠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실존적’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에 도달하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인류의 예측을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의 발

15) 박선희, “인간과 디지털 존재의 관계: 관계의 물질성, 비소유성, 개체초월성.” 『한국언론정보학보』, 86(2017), 47.

16)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85.

17) N. K. Hayles,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531-540.

18) N. Bostrom, 『슈퍼인텔리전스 -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역 (서울: 까치 2017), 16[인용 페이지는 원서(2014)의 페이지임].

19) 이러한 우려는 독일의 철학자 귄터 안더스(Günter Anders)가 지적한 “인간의 구식성”과 일맥상 통한다. 고원석, 『현대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장신대출판부, 2018), 108-110을 참조하라.

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멸종 위험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위협하거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악화 위험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인류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격리 위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인 존재로 진화하여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보스트롬은 이러한 실존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관과 상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²⁰⁾

해일스도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한다. 첫째, 인간 존재의 의미 상실, 즉 포스트휴먼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될 수 있다. 둘째, 불평등의 심화, 즉 포스트휴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윤리적 문제 발생, 포스트휴먼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¹⁾

결국 포스트휴먼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 기술 및 인공 지능에 의존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 존재를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말미암아 포스트휴먼은 인간 이상의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간의 창조문인 기계 앞에서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재론적 고유성과 '실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디스토피아적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²²⁾

III. 포스트휴먼의 지식, 교육, 종교의 도전

지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해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포스트휴먼의 현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지식과 교육(학습), 종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1. 지식의 도전과 변화

1) 지식 존재의 변화: 물질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전통적으로 지식은 정신적인 것, 그래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곤 했다.

20) N. Bostrom, 『슈퍼인텔리전스 - 경로, 위험, 전략』, 8장을 참조하라.

21) N. K. Hayles,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550-555.

22) 장동선,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15-30.

하지만 포스트휴먼 시대의 지식은 물질적 성격의 정보로 분류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가 물질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는 디지털화된 정보가 물리적 매체,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버, 센서 등에 저장되고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모든 지식이 물질처럼 생성, 변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물질성(materiality)은 우리가 지식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과거에도 지식이 우리 주변에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책이나 유물, 신체, 언어, 기계 등이 지식의 물질적 형태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식(메세지)과 지식을 담고 있는 형식(미디어)은 엄격하게 구별되었고, 지식의 가치는 물질적 형태를 넘어 훨씬 높게 평가되었다. 책이 헤어지거나 기계가 파손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졌던 지식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지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은 영속적 성격의 관념과 가치가 아니라, “변환, 증폭, 생성, 삭제가 가능한 물질”로 변화된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은 물질적 매체와 기술의 협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며, 그 가치는 물질적 이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³⁾ 첫째,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이 물질적 매체에 의존한다. 근대 이전의 지식은 주로 인간의 기억과 언어에 의해 생성, 전달, 저장,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물질적 매체가 등장하면서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현대 지식은 데이터라는 물질적 형태로 존재하며, 물질적 형태의 것만이 인정받는다. 둘째,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인간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현대에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 의학 진단,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심지어 창작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식의 가치가 물질적 이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지식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 국가의 경제 발전,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물질적 이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의 물질성은 포스트휴먼에게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라 하면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에게 요청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적 역량을 넘어 정보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수행능력, 즉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캐나다의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 MNet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세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기술처럼 여러 하드웨어 기기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미디어 등을

23) 박휴용,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 65. T. Kaufmann, “Materialität des Wissens,” *creatingworlds.eipcp.net* <<https://transversal.at/transversal/0112>>(2023,12,15 인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고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역량이다.”²⁴⁾ 여기에는 적절한 윤리적 기준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환경 리터러시, 글로벌 리터러시, 그리고 시민 리터러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다.²⁵⁾ 첫째, 환경 리터러시에는 공기, 기호, 토지, 물, 에너지 등의 생태계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된다. 둘째 글로벌 리터러시에는 세계의 다양한 이슈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포함된다. 셋째 시민 리터러시에는 구체적인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충되는 경험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리터러시는 디지털 지식이 지식의 영역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코드로 전환된 물질성을 가진 지식임을 전제하고 있다.

2) 지식 구조의 변화: 비구조성과 피드포워드

비구조화된 지식(ill-structured knowledge)이란 정의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해결책이나 규칙이 없는,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을 말한다. 반대로 구조화된 지식(well-structured knowledge)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명확한 정의와 해결책이 있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 구조화된 지식이 정확한 재료와 명확한 지침으로 잘 정리된 요리책에 비유할 수 있다면, 비구조화된 지식은 레시피 없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고 할 때, 직감과 경험,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비구조화된 지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복잡성: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지식은 대부분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② 불확실성: 단 하나의 옳은 지식이나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말한다. ③ 역동성: 지식이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④ 상황성: 지식은 적용되는 특정 상황과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²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또는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개인의 발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 우리는 비구조화된 지식 상황과 실제로 대면하게 된다. 비구조화된 지식이 오늘날 필요한 이유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문제상황에 대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요청되는 비구조화된 지식은 기존의 구조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식의 구조를 말한다. 지식의 비구조성이란 “지식을 구조화되고 위계화된 내용으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 즉 지식 자체의 구조에 집착한 교

24) 이주호, 정제영, 장영식, 『AI 교육혁명』 (서울: 시원북스, 2021), 149-150.

25) 위의 책, 152-158.

26) 박휴용,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 52-53.

육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나 실질적 경험의 폭과 깊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말한다.²⁷⁾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피드백(feed-back)의 소통 시스템을 탈피하여 피드포워드(feed-forward)의 소통 시스템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학습 모형에서는 투입-산출 구조를 기반으로 과거 행동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수정하는 피드백의 원리를 통해 비판적, 순차적, 논리적인 수행을 추구했다. 반면, 피드포워드 시스템에서는 과거로 회귀하여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해당한다. 이것은 긍정적, 비순차적, 직관적 수행을 추구한다.²⁸⁾ 수행 결과 또는 문제상황에 대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제기하는 질문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수행할 때 주로 제기되는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대했던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가?” 등이다. 반면, 피드포워드를 수행할 때 제기되는 질문으로는 “이 일을 통해 발견한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활용해 보겠는가?,” “이 일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는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내가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등이 될 것이다.²⁹⁾

3) 지식 기반의 변화: 감성적 지식과 하이터치

전통적인 지식은 엄정한 근거와 체계적인 논리와 전개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체계와 지식은 점차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철저한 체계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휴먼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반은 전통적인 지식에 외면했던 감성적 요소다.

“포스트휴먼적 사회에서 차별성과 효용성을 갖게 될 지식은 감성적(affective)이거나 감수성(sensitivity)에 기반한 지식이 될 것이다. 즉, 지식의 팽창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논리적 지식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인간의 감수성과 감각적 사고에 기반한 지식이 포스트휴먼에게 요구될 것이라는 것이다.”³⁰⁾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 요청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없는 지식의 영역, 즉 감성적, 감각적 지식의 영역이다. 이 감성적 지식은 ‘하이터치(high touch)’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하이터치는 미국의 미래학자 나이스비

27) 위의 책, 53.

28) 위의 책, 369-370.

29) “성장의 비결, 피드포워드 (Feedforward).” HR매거진(2022-5-10).

<https://www.saramin.co.kr/zf_user/hr-magazine/view?hr_idx=917>; “피드포워드란?”.

HR칼럼(2016-4-18), BCon <<https://blog.naver.com/bconbcon/220695855066>> (2023. 12. 31 인출)

30) 박휴용,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 53.

트(John Naisbitt)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고도의 첨단기술이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대일 수록 인간의 감성과 상호 접촉이 더욱 요청될 것을 의미한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감성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적인 접촉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 하이터치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 자연과의 접촉,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인간의 감성과 정서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 신체적 접촉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자연과의 접촉이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인간의 감성과 정서를 충족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³¹⁾

2. 인공지능(Bard)의 교육학적 도전

연구자는 구글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바드(Bard)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바드는 인공지능의 핵심과제를 학습, 문제해결, 의사결정(결단)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연구자에게 제시해 주었다. 아래의 내용은 바드가 제시한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1) 학습

학습은 인공지능의 핵심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학습은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이 알려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사진 속의 동물이나 물체(예: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진 속의 동물(개/고양이)과 그 동물의 이름(개/고양이라는 이름)이 함께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이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고, 이 차량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도록 지시했을 때, 알고리즘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자신만의 기준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분류하여 그룹화하는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실행할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학습방법이다.

31) J. Naisbitt, 『하이테크 하이터치』, 안진환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0), 17-24, 263-267.

2) 문제해결

문제해결은 인공지능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인공지능의 문제해결 능력은 지식, 추론, 탐색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지식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을 뜻한다. 둘째, 추론 능력은 인공지능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셋째, 탐색 능력은 인공지능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해 가는 능력을 말한다.

3) 의사결정(결단)

의사결정(결단)은 인공지능이 주어진 정보와 조건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이다. 인공지능의 결정 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인공지능이 주어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 인공지능이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창의성으로 인공지능이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공지능의 학습,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하고, 위험을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분야,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의료 진단 분야, 그리고 시장의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금융 투자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학습, 문제해결, 결정 능력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인공지능의 답변 앞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핵심 문제를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20-30초 만에 아주 담담하게 경어를 써가면서 연구자에게 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 과제가 인공지능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꾸준히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문제는 교육 현장의 인간 학습자들은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세 개의 키워드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깊이 고민해야 과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있게 고려해야 할 교육 개념이 아닐 수 없다.

3. 데이터의 종교적 도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자신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최초 신본주의 종교 시대와 근대 인본주의 종교 시대를 거쳐 인류의 미래에 등장할 두 유형의 신흥종교를 언급한다. 하나는 “테크노-휴머니즘”(Techno-Humanism)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종교”(the Data Religion)다. 첫 번째 “테크노-휴머니즘” 종교는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작업 등을 통해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이끈다. 즉,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바로 “신성(divinity)을 획득하는 일”에 해당한다. 호모 데우스로 나아가는 길은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룩한 과학기술적 성취를 디딤돌 삼아서 사피엔스의 영원한 난제, 노화와 죽음을 해결하는 역사적 진보에 들어서는 길이다.³²⁾ 테크노-휴머니즘을 통해 인간 사피엔스는 스스로 한계를 초월해 나간다.

인류 역사에 등장할 두 번째 신흥종교, 그리고 하라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교는 “데이터종교”다. 하라리가 말하는 “데이터종교”란 테크노-휴머니즘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형태로 인공지능 정보처리시스템이 주도하는 세상을 말한다.

데이터[종교]는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상이나 실체의 가치가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 데이터[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종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 개인은 시스템을 이루는 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전체를 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³³⁾

경험의 공유라는 가치 개념을 추구하는 새 인류는 알고리즘이 정리하여 인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세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에게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알려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에 올려 위대한 알고리즘이 자신을 분석하도록 내맡긴다. 인간은 이제 정보와 데이터를 숭배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인류 전체의 시스템으로 확장되어 인류가 복종하고 숭배해야 하는 상황은 “만물인터넷”(Internet-of-All-Things)³⁴⁾이라는 효율적인 데이터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이 만물인터넷을 만든 주체이긴 하나 일단 시스템이 정착되고 나면 우주적 규모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고 더 이상 쓸

32) Y. Harari, 『호모 데우스』, 김명주 역 (서울: 김영사, 2017), 74, 481-502.

33) 위의 책, 517.

34) 사물인터넷(Internet on Thing: IoT)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기술”이라면 만물인터넷(Internet on Everything/Internet-of-All-Things)은 사물인터넷을 확장개념으로 “사물에 국한되어 있는 IoT의 연결 대상을 사람, 생물 등 모든 사물로 확대한 것”이다. 정진도, “사물인터넷과 만물인터넷,”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s://library.krihs.re.kr>> ART000303839813.

모여진 인간은 그 데이터처리시스템 안으로 흡수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과거 인본주의가 신 중심적 세계관을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밀어냈다면, 21세기 데이터종교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³⁵⁾ 김병수는 이러한 데이터종교의 현실을 시편 139편을 패러디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데이터여, 당신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시기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태어난 날의 병원기록부터 시작하여 나의 유전자 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 모든 성장 과정에 관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메일을 모두 읽으셨고 통화기록을 다 검토하셨으니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즐겨 먹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잘 아십니다. 내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나의 취향을 아시고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마시고 싶어 하는지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CCTV를 통해 뒤에서도 앞에서 나를 에워싸시고 내 위에 당신 눈길을 얹으십니다. ... 당신 카메라를 피해 어디로 가겠나이까? 시시각각 지켜 보고 있는 폐쇄회로를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나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땅 속에 들어가도 거기 또한 계시니 ... 정녕 나를 속속들이 환히 알고 계십니다.”³⁶⁾

하라리에 따르면, 그런 세상이 오면 인간은 인본주의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개인은 하나의 칩으로, 인류는 인간과 인간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사피엔스 시대에 누렸던 인본주의적 정체성을 잃게 되고야 말 것이다.³⁷⁾

IV. 나가는 글: 포스트휴먼의 묵시록 앞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인공지능 및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전 상황을 교육인간학적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구식성의 존재인 인간은 행동이 아니라 성찰이 필요하다.

20세기를 살았던 안더스(G. Anders, 1902-1992)는 예언자적 예지력을 가지고 21세기 기술과 미디어의 영향 속에 있는 포스트휴먼이 문명의 주체 자격을 박탈당하고 도구에

35) Y. Harari, 『호모 데우스』, 521-534.

36) 시편 139:1-2, 4-5, 7-8, 13을 참조하라. 김병수, “인공지능은 호모데우스인가?,” 『사목정보』, 11/2(2018), 66.

37) Y. Harari, 『호모 데우스』, 503-544.

끌려갈 것이라는 묵시론적 인간상을 주장하였다. 즉 기술과 문명이 인간을 구속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간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문명의 기기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인 인간학적 상황을 안더스는 “인간의 구식성”(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이라고 표현했다. 구식성이란 인간 세계와 기계 사이의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개발한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데 반해 인간의 능력은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안더스는 인간의 퇴행적인 구식성을 “프로메테우스적 수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간에게 불을 선사함으로써 인간의 발전과 성숙을 기대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이상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표현이다. 인간은 분명히 문명을 만들어냈고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기술은 점차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를 따라 발전해 나간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 스스로 만든 문명과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채, 거꾸로 스스로 만든 기계와 제품 세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결국 프로메테우스적 수치는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전도된 현대 미디어 사회의 비극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안더스의 예견에 의하면 인간의 상상력은 기계의 잠재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계속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격차는 커져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에 비해 인간이 표상하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간은 기계를 따라잡고자 지나친 성과위주의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사유”와 “사색”이다. 인간 자신의 자취를 돌아보고 진정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 사유하고 사색할 필요가 있다.³⁹⁾

2. 초연결 사회에서 주기적인 끊음이 필요하다

포스트휴먼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things)이 인터넷(internet)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수집되고 공유·활용되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호모 테우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자신의 책 『호모 테우스』를 고엔카(S. N. Goenka, 1924-2013)에게 헌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視事)하는 바가 크다. 고엔카는 인도령이었던

버마에서 출생한 인도인으로 위빠사나 명상(Vipassana Meditation)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는 버마의 부유한 인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 인도로 이주한 이후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해탈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종교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며 과학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하라리는 『호모 테우스』의 첫 지면에서 고

38) 이 부분은 고원석, 『현대기독교교육방법론』, 108-110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39)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32-36.

엔카를 가리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애정 어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라고 부른다. 2017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발 하라리는 자신은 지금도 하루 2 시간, 1년에 두 달 가까이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끊은 채 자신만의 호흡에 집중하는 “견고한 고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⁴⁰⁾ 그런 점에서 만물인터넷 등으로 초연결된 포스트휴먼은 주기적인 초연결의 접속에서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가능성의 감각

미디어학자 마투섹(P. Matussek)은 현대 미디어 예술에 나타난 진리 이해를 추적하였다. 그는 진리를 “생성되고 발생하는” 장소로 이해한 하이데거의 관점에 근거해서, “예술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관습화된 것들의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그것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가능성”의 계기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가능성 감각”의 소유자로 보았다. 가능성 감각이란 “존재할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현존하는 것을 현존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것의 조건을 쫓는 현실성 감각을 유예시키면서 지금과는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존하지 않지만 현존할 수 있는 것에서 더 큰 우위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인공지능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능력은 가상에 대한 수용력과 응용력, 즉 “미디어적 상상력”이다. 근대 기술 사회에서 인간은 주변 세계를 대상(object)으로 해서 관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주체(subject)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지각된 것을 현실로 간주한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객관적 대상을 다루는 주체가 아니라 주어진(데이타/datum) 가능성을 현실화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휴먼은 가상 현실 속으로 가능성을 상상하고 제시하는 기획자(project)로 간주된다.⁴¹⁾

■ 참고문헌 ■

40) 왕대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텔리기오수스”. *Canon&Culture*. 12/1(2018.4), 252. 조선일보인터뷰 (2017.03.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1/2017032100223.html>.

41) 이 내용은 고원석, 『현대기독교교육방법론』, 121-123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고원석. 『현대기독교교육방법론』. 서울: 장신대출판부, 2018.
- 김명주. 『AI는 양심이 없다: 인간의 죽음, 존재, 신뢰를 흔드는 인공지능 바로보기』. 성남: 헤이북스, 2022.
- 김병수. “인공지능은 호모데우스인가?” 『사목정보』, 11/2(2018.3), 63-68.
- 박선희, “인간과 디지털 존재의 관계: 관계의 물질성, 비소유성, 개체초월성.” 『한국언론정보학보』, 86(2017), 42 - 68.
- 박효용. 『포스트휴먼 학습론』.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HORIZON* (2020), <https://horizon.kias.re.kr/12689/>,
- 연합뉴스.(2017-05-28) <<https://www.yna.co.kr/view/AKR20170528017700007>>
(2023.12.22. 인출)
- 왕대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진단-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호모 텔리기오수스”. *Canon&Culture*, 12/1(2018.4), 235-255.
- 우정길.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교육』. 서울: 박영스토리, 2019.
- 유장환. “근대의 교만한 휴먼 신학에서 우정이 넘치는 포스트휴먼 신학으로: 장윤재의 『포스트휴먼 신학』”(서평, 『기독교사상』 제703호(2017/7), 195-200.
- 이원봉.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될 수 있는가?” 『인간연구』, 37(2018/가을), 57-83.
- 이주호, 정제영, 장영식. 『AI 교육혁명』. 서울: 시원북스, 2021.
- 장동성.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파주: 김영사, 2022.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 Hayles, N. K.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역. 서울: 플래닛, 2013(원서는 1999).
- Bostrom, N. 『슈퍼인텔리전스 -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역 서울: 까치 2017(원서는 2014).
- Harari, Yuval. 『호모 데우스』. 김명주 역. 서울: 김영사, 2017(원서는 2015).
- Herrick, J. *Humanism: An Introduction*. New York: Prometheus Book, 2005.
- Kaufmann, Therese. “Materialität des Wissens.” creatingworlds.eicpcp.net
<<https://transversal.at/transversal/0112>>(2023,12,15 인출).
- King, P. M & Kitchener, K. S. *Developing Reflective Judgement: Understanding and Promoting Intellectual Growth and Critical Thinking in Adolescents and Adult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4.
- Naisbitt, J. 『하이테크 하이터치』. 안진환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0(원서는 1983).
- “성장의 비결, 피드포워드 (Feedforward).” HR매거진(2022-5-10).

〈https://www.saramin.co.kr/zf_user/hr-magazine/view?hr_idx=917〉

(2023.12.31인출)

“피드포워드란?”. HR칼럼.(2016-4-18) BCon

〈<https://blog.naver.com/bconbcon/220695855066>〉(2023.12.31인출)

논 찬 1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에 대한 논찬

이 수 인 박사

(아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을 시도한 연구로, 기독교교육은 물론 한국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중대한 함의를 전하고 있다. 특히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낯설 수 있는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과 이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수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귀한 연구기에 본 연구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가지고, 보다 훌륭한 연구로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던져본다.

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초기 인공지능 연구 시기를 약(弱)인공지능 시기로 표현하였고, 딥러닝 이후의 시기를 강(強)인공지능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발전의 단계를 구분할 때 약(弱)인공지능은 어떤 특정 주제의 분야에서 주어진 일을 인간의 의도에 따라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이해하고, 강(強)인공지능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성을 갖춘 인공지능으로 구분한다(이런 수준의 인공지능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달 수준은 대체로 약(弱)인공지능 수준이며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強)인공지능은 개발되지 않았다고 본다. 아마도 연구자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생각하면서 강(強)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설명 이후에 알파고와 왓슨

의 예가 나오기 때문에 독자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6페이지에서부터 연구자는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시대에 어떠한 도전을 만나게 될 것인지 서술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도전으로 지식 존재의 변화를 꼽는다. 즉 정신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물질적 성격의 정보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연구자의 논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제안을 던지고 싶다.

연구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이 물질적 매체에 의존한다. 근대 이전의 지식은 주로 인간의 기억과 언어에 의해 생성, 전달, 저장, 활용되었다.”(7)라고 주장했는데 근대 이전에도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이 물질적 매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책이나 글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매체에 의존해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근대 이전의 지식과 이후의 지식으로 나누기 보다는 문자언어 이전의 지식과 문자 언어 이후의 지식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3. 연구자는 ‘지식 구조의 변화’를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두 번째 도전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식 구조에 있어 어떤 변화와 도전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설명이 없다. 즉 도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비구조화된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구자가 쉽게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지식만을 중시하게 되는 흐름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문제들을 먼저 서술하고 지식의 비구조성을 강조했으면 논리적인 흐름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

4. 또한 연구자는 포스트휴먼이 살아갈 현실에 지식, 교육(학습), 종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 것이라 주장하는데, 다른 두 가지 항목과 달리 교육에 대한 항목만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바드(Bard)에게 물어보았다. 갑자기 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다른 영역의 문제는 묻지 않고 교육적 도전과 관련된 문제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는지 연구자의 의도를 묻고 싶다.

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기독교신앙과 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나가는 글에서 저자는 세 가지 제언(성찰, 주기적인 끊음, 기능성의 감각)을 하는데, 이 주장들에서 성경적 관점이나 기독교교육적 제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특히 본 연구가 실천신학회에 발표되는 논문이니 만큼 기독교세계관이나 실천신학적 관점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논 찬 2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에 대한 논찬

남 선 우 박사

(열림교회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고원석 박사의 연구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에 열광하며 마치 방향을 알 수 없이 질주하고 있는 시대에 잠시 쉽표를 던지듯 인공지능 시대 속에 인간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다. 특히 연구자는 기독교교육학 또는 성서교수학적 관점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라 하지만,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밝혔듯이 인공지능 연구가 2023년에만 일천 건이 넘는 시대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적 세계관 관점에서 지식, 교육, 종교의 문제에 성찰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연구이기에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다양한 기독교 세부-분과 관점의 다양한 인공지능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교육인간학적 모습을 성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현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인 포스트휴먼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3장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도전받고 있는 지식, 교육, 종교 문제의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의 문제로서는 첫째, 지식 존재의 변화로서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지식으로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지식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물질성을 강조하며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이 물질적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지식의 가치가 물질적 이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물질성은 포스트휴먼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확장시켜 기존 디지털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활용 역량을 넘어 정보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수행 능력으로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둘째, 지식 구조의 변화로서 비구조성과 피드포워드를 제시했다. 비구조성은 기존 지식에서 추구하던 위계화된 구조의 탈피로서 복잡성, 불확실성, 역동성, 상황성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의 사고나 실질적 경험의 폭과 깊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지식 구조의 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진행하는 과정이 아닌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정보를 처리하는 피드포워드를 제시했다. 그리고 감성적 지식과 하이터치로 지식 기반이 변화되었음을 제시했다. 포스트휴먼 사회의 교육 현장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감성적, 감각적 지식이 있어야 하며, 하이터치로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도입될수록 인간의 감성과 상호작용이 더욱 필요하고, 요청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로서 학습, 문제해결, 의사결정(결단)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해당 파트에서 연구자는 새로운 글쓰기로서 인공지능과 함께 글쓰기를 시도하며 교육학적 도전을 실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문제로서 데이터의 종교적 도전을 제시했다. 먼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피엔스가 신성을 획득해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테크노-휴머니즘과 인공지능 데이터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마무리로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전을 교육인간학적 정리로서 행동이 아닌 성찰과 주기적인 끊임 그리고 가능성의 감각을 제안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귀한 연구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서 연구자에게 몇 가지 제언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며 마무리하자 한다.

1. 연구자는 지식 존재의 변화로 물질성을 제시하면 과거의 지식은 인간의 기억과 언어에 의해서 생성, 전달, 저장,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인공지능 시대는 지식의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이 ICT와 인공지능의 물질적 매체에 의존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셜 맥루한(McLuhan, H. M, 1964)의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에서 제시한 미디어는 인간 능력의 확장 개념으로 본다면 기존의 지식들 또한 생성, 전달, 저장, 활용을 위해 인간의 기억과 언어 뿐만 아니라 책, 신문, 서신이라는 문자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를 통해 인간 능력을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또한 ICT와 인공지능은 현대의 미디어로서 인간 능력의 확장으로 지식을 생성하고, 전달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도구 즉 매체로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즉 지식이 언어와 문자적 표상으로서 존재하던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로의 미디어와 매체의 발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

문드립니다.

2. 연구자는 행동이 아닌 성찰과 주기적인 끊음 그리고 가능성의 감각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으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급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연구자의 의견 제시가 아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성찰과 끊음과 가능성의 감각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제시가 아쉬워 보입니다. 또한 각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논 찬 3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육인간학적 성찰”에 대한 논찬

권진하 박사

(숭실대학교 / 실천신학 / 평생교육)

최근의 생성적 인공지능, 특히 ChatGPT가 교회교육에 미칠 미래의 중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원석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인류학의 현황을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통해 현대인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지식, 교육, 종교에 대한 과제를 다루고, 교육학계의 포스트휴먼 과제에 대한 성찰로 연구의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도덕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최근 딥러닝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이 실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 심지어는 인간의 사고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알파고'와 '컴퓨터 왓슨'을 그 예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등장과 급속도의 성장으로 인해 휴먼을 대체하는 포스트휴먼은 기계와 기술로부터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는 존재, 필연적으로 기계 및 기술과 연결되고 결합해야 하는 존재로 설명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이상의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간의 창조물인 기계 앞에서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재론적 고유성과 '실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디스토피아적 우려 속에, 포스트휴먼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첫째는 지식의 도전과 변화, 둘째는 인공지능(Bard)의 교육학적 도전, 셋째는 데이터의 종교적 도전을 말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인간은 행동이 아니라 성찰이 필요하며, 만물인터넷 등으로 초연결된 포스트휴먼은 주기적인

초연결의 접속에서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능력은 가상에 대한 수용력과 응용력, 즉 '미디어적 상상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포스트휴먼은 가상 현실 속으로 가능성을 상상하고 제시하는 기획자(project)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 에 따라, 인공지능이 실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 심지어는 인간의 사고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르게 된 현 시점에,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마주쳐야 할 지식과 교육(학습), 종교에 대한 현실적 도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가능성과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기독교교육 연구 분야의 확장에 공헌함을 감사드리며, 논찬자는 본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포스트휴먼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과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아울러 이러한 도전들을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미래에 불안한 현실들 앞에서 인간에게 의미있는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도 일부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리터러시(literacy)'란 일반적으로 텍스트 즉, 문자를 쓰고 읽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언어가 구성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새로운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히 Chat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은 학습을 강화하고 토론을 유도하며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리터러시의 역량은 필수적이다. 몇 가지 활용 사례를 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첫째, 성경공부 도우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경 이야기,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신앙 이해를 촉진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신앙의 원칙을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다. 셋째,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론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기독교와 신앙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신앙적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학습 자료, 예배 순서, 교육 자료, 그림, 찬송가 가사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용점이 있음에도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교사, 교

역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보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고, 신앙과 신학적 문제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심사숙고하고 검증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 환경에서 AI 도구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고, 기독교 교육의 가치와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학문적 정확성과 신앙적 신뢰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리터러시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활용 사례와 리터러시 역량 이외에도 다양한 도전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들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본 연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고원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구자의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제 3 부

2024. 2. 17.(07:00~12:00)

4차 발표(12층) 08:10~09:20

발표11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이민형(성결대)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 실천신학적
기술성찰, 관계 정립, 실천방안”

좌장: 구병옥(개신대)/ 논찬: 주상락(명지대), 최재성(송실대), 안정도(장신대)

발표12

〈예배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김형락(서울신대)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

좌장: 안덕원(횃불트리니티)/ 논찬: 김종현(계명대), 오석진(감신대), 조지훈(한세대)

발표13

〈설교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구아름(실천신대) “설교적 비평(homiletical criticism)과 설교적 상상력 (homiletical
imagination) :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

좌장: 오현철(성결대)/ 논찬: 조광현(고신대), 김용성(한신대), 최종일(신라대)

5차 발표(12층 전도), (3층 예배, 설교) 09:30~10:40

발표14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남성혁(장신대)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

좌장: 김선일(웨신대)/ 논찬: 김남식(CES), 양현준(풀러신학교), 김선권(장신대)

발표15

〈예배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나인선(목원대)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좌장: 유재원(장신대)/ 논찬: 박관희(한국침신대), 구아름(실천신대), 윤석주(한국열린사이버대)

발표16

〈설교학 관점에서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발표: 정재웅(서울신대) “기독교 설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좌장: 김상백(순신대)/ 논찬: 박성환(성서대), 김병석(호서대), 박진경(감신대)

제 11 발표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 실천신학적 기술성찰, 관계 정립, 실천방안

이 민 형 박사

(성결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학)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술을 중립적 도구로 여기고, 이를 활용하여 기독교 선교를 실천해 왔다. 교회는 새로운 기술이 출시될 때마다, 이를 가장 먼저 교회에 도입하여, 교회 시설을 개선하고, 세련된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교회 밖에 소개함으로써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종교소비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선교는 기독교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게 하는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¹⁾ 과연 기술은 교회가 자의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중립적 도구”인가? 교회가 기술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기술을 유용하는 것이 “선교”인가?

한국교회의 기술 유용은 기술을 도구로 여기는 사고에서 기인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가진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일부 기술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한 체제로 발전하였으며,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조정하기도 한다. 갈수록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순식간에 사회 통제권을 장

1) Bryan Stone, *Compassionate Ministry: Theological Foundations* (Maryknoll, IL: Orbis Books, 1996), 99.

악할 수도 있다. 기술을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내려진 요구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기술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기독교의 생산품이 아닌 바, 기독교는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기술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기술철학의 담론을 살펴본다. 더불어 기술철학의 기술 해석을 바탕으로 기독교와 기술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시도한다. 기술을 도구로만 여기는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고,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를 문화적 선교의 관계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기술 중심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II. 기술의 이해

21세기는 가히 테크놀로지, 즉 기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개인용 스마트 기기가 출시되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관계가 가능해졌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기술집약적 사회로의 변화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²⁾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 빠른 변화를 취한 단체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디지털 기기를 예배당 안으로 들여 놓았고,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회를 만드는가 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한 설교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기술에 대한 반응이라는 면에서는 어느 단체 못지않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더불어 교회는 이러한 적극적 활용 이전에 기술, 혹은 기술문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의 회귀로 귀결된다. 과연 기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1. 기술의 정의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기술담론에서 시작되었다. 기술담론이란 기술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기술로 인해 파급된 현상 혹은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야기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2)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2018), 602-603.

대한 불확실한 서사일 가능성도 있다.³⁾ 중요한 것은 기술담론이 기술 자체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기술 유용이 가/불가나 호/불호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 역시 기술담론이 그 근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크 엘렐은 이러한 논의를 두고 개념화 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담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⁴⁾ 다시 말해서 기술, 또는 한국교회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노동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작한 것들”이다.⁵⁾ 물론 동물들도 신체 능력 이상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거미가 거미줄을 사용하고, 개미가 집을 짓고,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해 열매의 껍질을 부수는 것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스발트 슈팽글러에 따르면 인간의 기술과 달리 동물들의 행위는 그 이상으로의 발전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자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조건에 저항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다. 인간은 돌과 청동, 쇠를 사용하는 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 왔다.

또한, 인간의 기술은 개인적 도구 뿐 아니라 집단적 도구의 발전을 야기했다. 이는 인간 기술이 가진 인위성의 확장을 의미한다.⁶⁾ 다시 말해서 집단의 단위로 개발되고, 사용되는 기술은 자연에 대항하기에 더욱 위협적이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존에도 더욱 효과적이다. 인간은 집단의 기술을 통해 기계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였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종의 안정성을 취하였고, 오늘날에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연의 법칙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집단 지성을 활용한 인간 기술의 현재의 모습이다.

2. 기술철학적 기술 이해

앞서 언급한 기술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기실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알프로테 노르트만은 이 부분을 들어 기술에 대한 사고는 철학 적임을 지적한다. 그는 “기술이란 일반적으로 기술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통해 기술이라는 개념이 철학적 사고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 이의 경험과 선입견에 달려있는데, 결국 그것은 기술과 자신과의 관계, 혹은 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3) 자크 엘렐/ 이상민 역, 『기술 체계』 (서울: 대장간, 2013), 95-98.

4) *Ibid.*, 101.

5) 오스발트 슈팽글러/ 양우석 역, 『인간과 기술』 (파주: 서광사, 1998), 29.

6) *Ibid.*, 48.

기술에 대한 물음은 반드시 “자신”과 “기술”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⁷⁾

(1) 본질로서의 기술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기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시도한 이는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이다. 그는 기술을 자연과 대립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 혹은 도구의 개발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탈은폐”의 방식이라 정의한다.⁸⁾ 그는 현대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의 양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 기술이 가진 “탈은폐”적 본질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기술은 자연이 돌보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저장고일 뿐이며, 기술을 통해 그 에너지를 캐내고 활용해야 할 자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이다.⁹⁾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의 존재론적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탈은폐의 방식이며, 그것은 인간의 존재 역시 탈은폐한다. 기술의 시대에 사는 인간은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부품에 불과하다.¹⁰⁾ 그는 시대의 명칭이 기술로 구분되고 규정되는 것이 현대 기술의 특징이며, 기술을 대표로 하는 시대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기술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고 해석한다. 오늘날의 시대를 “디지털 기술의 시대” 혹은 “AI의 시대”라 부르는 것은 세계의 표상을 기술로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주체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디지털 기술 혹은 AI라는 기술의 하위 구조 아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¹¹⁾

따라서 그는 인간에게 반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태도가 기술의 탈은폐성을 강화한다고 보기에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비구분에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¹²⁾ 인간의 자아 구분은 결국 자신이 아닌 것, 동종이 아닌 것을 타자화하여 완성되며, 그 과정에서 강조되는 이성적 사고는 결국 기

7) 알베르트 노르트만/ 조창오 역, 『기술철학 입문』 (파주: 서광사, 2021), 15.

8)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기술과 전향』 (파주: 서광사, 1993), 35.

9) *Ibid.*, 43.

10) *Ibid.*, 45.

11) 그런 면에서 하이데거의 기술 이해는 프랑코 베라르디의 프랙탈화(fractalization)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베라르디는 현대 사회를 “기호자본주의”의 사회로 규정하고, 모든 인간은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추상적 기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시대에서 인간은 더 이상 생산의 주체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노동력만이 분, 초 단위로 파편화되고 재조합되어 디지털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프랑코 베라르디/ 서창현 역, 『노동하는 영혼』 (서울: 갈무리, 2012), 프랑코 베라르디/ 송섬별 역, 『죽음의 스펙터클』 (서울: 밤비, 2016).

12) 김향선, “하이데거의 기술철학,” 『철학연구』 52(2001), 90.

술을 탈은폐, 즉 사물의 재료화 과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기술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스스로를 탈현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기술로 인해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연과의 온전한 공존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¹³⁾

이처럼 기술의 본질에 대한 하이데거의 철학적 정의에서 인간은 철저히 배제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간의 주체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인간의 인위적 활동이라는 정의에서도 그러하듯이 기술의 시작에는 분명 인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는 어떠한 전복의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2) 기술 결정론과 기술 체계

그런 면에서 자끄 엘뤼(Jacques Ellul)이 주장하는 기술 결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기술철학은 기술과 인간의 층위가 어떻게 전복되었으며, 그 결과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침해당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엘뤼는 기술을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체계로 정의하고, 그것이 현대사회의 환경 그 자체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인간은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통제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체계로서의 기술의 지배 아래 놓여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술 체계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기술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다. 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 판단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기술은 이 인간사회의 모든 영역의 방향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둘째로 기술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체계로서의 기술은 다양한 하위 기술 체계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위 기술들은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하나의 체계를 조직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사회에서 기술적이지 않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대부분 기술의 체계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엘뤼의 견해이다. 셋째로 기술은 보편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은 현대사회의 환경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퍼져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통제 범위 밖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으로 모든 영역이 기술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한 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 지구상에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체계 밖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술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져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특징은 전체화이다. 엘뤼에

13) *Ibid.*, 91.

14) 하상복, 『자끄 엘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20-21.

따르면 기술은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기술 체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요인은 하나로 통합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별성을 띤 각 주체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렇다면 기술은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체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엘릴은 기술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식을 통해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자가증식이다. 기술에 대한 인간의 광적인 호응은 기술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는 것에 끝없는 찬사를 보내었고, 그 결과 이제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기술이 스스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동성이다. 이는 자가증식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데, 기술 진보의 방향성이 오직 증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향적 진보에 있어 선택과 결정은 인간의 몫이 아니며, 오직 기술이 스스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자동적으로 발전해 왔을 뿐이다. 기술 진보의 세 번째 특징은 궁극적인 목적의 부재이다. 기술 진보의 목적은 오직 진보이다. 엘릴은 기술이 오직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인과관계에 의해 진보해왔으며, 이를 멈추거나 파훼할 수 있는 논리는 이미 기술이 체계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진보는 가속화의 특성을 가진다. 기술의 일방향적 진보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은 그 발전에 있어 점차 가속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엘릴은 기술 진보의 가속화 앞에 진보의 역효과나 부정적 결과를 주장하는 감속장치는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오직 더 빠른 가속화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기반성이 부재한 끝없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는 인간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한다.¹⁶⁾

기술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견해는 인간이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전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결국 인간의 삶이 모두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체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그 체계에 통합된 채,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방법을 교육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엘릴은 이러한 비판적 견해만으로 그의 논지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는 결국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⁷⁾ 오직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해 온 인간에 의해 기술이 자가증식과 멈출 줄 모르는 발전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역으로 해석하자면, 기술적 탈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에 의해 기술이 결정하는 사회적 체계는 무너질 수 있다. 다만, 오늘 날과 같은 기술 지배적인 사회에서 무엇이 인간에게 그러한 동기를 제공할지는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엘릴의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기술 체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기술 결정론”이

15) 자끄 엘릴/ 이상민 역, 『기술 체계』, 231-353.

16) *Ibid.*, 355-515.

17) 자끄 엘릴/ 이상민 역, 『기술 체계』, 529.

라는 표현으로 축약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사회변동의 중심에는 기술의 진보가 있으며, 이 진보는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스스로가 이루어 낸 것이라는 주장이 기술 결정론의 핵심이다.¹⁸⁾ 물론,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에는 기술 결정론의 주장에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전히 인간에 대한 기술의 불가항력적 지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현대의 인간은 완벽한 기술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 진보에 중점을 둔 논리가 지배적일 뿐, 여전히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과연, 기술의 진보에 관해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인가?

III. 기술 이해의 확장

하이데거의 본질로서의 기술 이해나 엘월의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의 기술 이해는 모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극히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인간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연구에서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 맺기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기독교의 일방적 기술 유용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엘월이 제안한 기술 결정론의 결과로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술 결정론적 사고를 넘어서서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그 안에서 선교적 가능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묻는 것이 이 연구의 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기술철학자 랭던 위너(Langdon Winner)의 논지를 학문적 연구의 주요 대화 상대로 삼을 것이다. 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분석이나 엘월의 비판적 사고가 지적하는 바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개별 기술의 구체적 면모를 파악하고 그것이 실제로 각 인간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이는 단순히 인간이 개별 기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막대

18) 그런 면에서 엘월의 기술 결정론은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미디어 결정론의 논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맥루한은 현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미디어가 될 것이며, 그것은 인간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의 예측대로 오늘날의 사회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미디어를 넓은 의미에서 기술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결국 오늘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은 기술 결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의 통제력과 맞닿아 있다. 맥루한의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 London: The MIT Press, 1994).

19) 손화철, 『랭던 위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4-25.

한 영향력 아래에서 기술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 경험으로의 전환

기술철학은 산업혁명 이후 근, 현대 기술의 발전 양상에 대한 인간의 놀라움과 기대를 반영한 학문적 반응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기술에 대한 반성적인 질문, 즉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하이데거나 엘뤼의 학문적 탐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의 기술을 구분하고, 현대의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한다. 특히 사회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 역으로 기술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문적 입장을 통틀어 “고전적 기술철학”이라고 한다.²⁰⁾

하지만, 고전적 기술철학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 세분화를 무시한 채, 기술을 현대 기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일반화하여 비판하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현대 기술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지적하고 기술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접근의 필요를 주장한 학자들의 움직임을 “경험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²¹⁾ 이에 속한 학자들은 현대 기술은 세분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 각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전적 기술철학”에 속한 학자들이 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들에게 현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경험 연구와 더불어 기술의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술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한 학자인 랭던 위너는 “고전적 기술철학”의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인정한다. 동시에 그것이 인류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인간은 기술의 지배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다.²²⁾ 그는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부재를 지적하며, 그로 인해 기술은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³⁾ 기술의 표류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술의 일방적인

20) *Ibid.*, 19.

21) 손화철, “기술철학의 제자리 찾기,” 『과학기술학연구』 10(2010), 2-3.

22) 랭던 위너/ 강정인 역,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 (서울: 아카넷, 2000), 140.

23) *Ibid.*, 130.

지배와는 조금은 다른 견해이다. 그들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상실이 기술에게 무한한 자율성을 허락하였고, 그로 인해 역으로 인간이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너는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보다, 그것을 초래한 인간의 책임을 묻는다. 기술이 인류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변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표류하고 있는 현대의 기술 앞에 선 인간은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2. 확장된 기술 이해

(1)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의미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의 정의와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접근과 대안이 필요한가? 랭던 위너는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개념을 빌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삶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²⁵⁾ 그에 따르면, 기술이 인간의 삶의 형식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일상에 침투하여 인간적 맥락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일부의 기술은 인간의 삶의 모습 자체를 새롭게 바꾸었지만, 기술 대다수는 이전에 존재하던 인간의 행동양식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며, 결국 그것이 삶의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인간이 만들어 낸 도구로서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초래한 변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 기술은 결코 중립적인 도구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보다는 기술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인간에 의해 개발된 모든 기술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술의 등장이 가져올 당장의 변화와 장기적인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만들어 낼 삶의 형식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너의 입장에서 이러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이다.

그는 기술이 그 자체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 때문인데, 첫째로 특정한 기술이 특정한 집단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이다.²⁷⁾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24) 위너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두고 “기술적 몽유병”의 상태라고 표현한다. 현대 사회의 인간들은 기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잠을 자면서 걷는 것처럼 기술의 지배 현상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나 성찰, 나아가 대안 탐구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랭던 위너/ 손화철 역,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서울: 씨아이알, 2010), 13-14.

25) *Ibid.*, 16.

26) *Ibid.*, 25.

수 있는 이들에게는 편리한 도구이고, 그들의 입장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지만, 동시에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게끔 하는 방편
 이 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시설, 자전거 도로 등과 같이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기술도 존재한다. 둘째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기술도 있다. 이는 쉽게 상상되지 않는 개념인데, 그는 어떤 기술은 특정 권력의 제도적 양
 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²⁸⁾ 예를 들어 핵발전소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기에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권력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서 핵발전이라는 기술은 그 자체로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중심적이다.

이처럼 기술은 어떠한 제도나 체계로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통제하며,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너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기술이 정치와 무관한 기술 개발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영
 역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기술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 이상으로 인간의 삶에 편만해 왔
 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간과하
 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기술에 관한 대안

랭던 위너는 우선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위험”이나
 “가치”와 같은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오히려 기술에 대한 진
 지한 성찰을 방해하거나 부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어떤 기술이 위
 험하다는 명제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고찰보다는 그 기술이 초래할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
 추게 한다. 예를 들어 독극물 폐기장의 건설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독극물 폐기장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의에서 사람들의 눈을 돌려 폐기장의 건설 여부와 그것으로 인한 피해에만
 관심을 갖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독극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에 대한 성찰, 반성, 그
 리고 그 기술의 필요 여부, 독극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 대안 등, 기술 자체에
 대한 논의이다.²⁹⁾ 이처럼 기술의 위험에 대한 담론은 논제를 흐리고, 성찰을 더디게끔 한
 다. 둘째로 기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인류의 가치를 내세우는 담론의 문제이다. 위너는 “가
 치”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과 상대성을 지적하며, 그것이 기술을 평가하는 구체적
 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가 저해하는 인류의 가치”와 같
 은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묻는다.³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27) *Ibid.*, 36.

28) 랭던 위너/ 손화철 역,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48.

29) *Ibid.*, 220-221.

30) *Ibid.*, 237.

지는 감이 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가치”라는 표현은 기술이 초래한 영향에 대해 성찰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될 뿐이다. 어떠한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는 기술이 초래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점에서 위너는 엘릴의 기술담론 비판과 같은 논지의 주장을 펼친다.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한 기술담론은 기술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나 막연한 비판만을 만들어 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인류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 초래했는지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인류는 기술에 관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술에 관한 대안은 오직 기술 개발자나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술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포함한 사용자 모두가 기술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위너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그는 기술에 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법안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입법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³¹⁾ 입법 과정은 관련된 사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그것의 정치적 역량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기술에 대한 법안, 즉 적절한 정치적 대응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 개발자나 기업만의 역할이 아니다. 그들은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운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여전히 기술에 대한 무한 긍정의 신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공론장에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정치적 방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인류와 사회에의 공적 이익이 무엇이며, 특정 기술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합의이다. 물론 사람마다 혹은 단체마다 각각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게 되면 이러한 합의에 다다르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정치적 담론 형성 및 법안 제정의 과정이 그러하듯, 기술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긴 호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의 사용자로서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들은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변화를 가장 잘 체감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³²⁾ 그것이 표류하고 있는

31) 랭던 위너/ 강정인 역,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 446.

32) 최근 연구의 동향으로 알려진 “리빙랩”이 민주적 공론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이란 과학기술의 개발, 활용 및 개선에 있어 문제의 인식부터 의사결정까지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후 환경문제와 관련된 리빙랩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언로를 만들고, 이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너의 민

기술사회에서 공유병에 걸린 사용자들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IV. 문화로서의 기술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한 랭던 위너의 기술철학은 기술에 대한 담론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론장을 형성하여 기술의 진화가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는 기술을 포함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모든 체제가 교차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시사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위너는 기술의 발전 방향이 “좋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세상에 대한 합의는 민주적 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윤리, 도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 역시 기술 담론의 형성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역시 기술이라는 삶의 방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술과 기독교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과연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까?

1. 문화로서의 기술

문화란 작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든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크게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양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³³⁾ 앞서 살펴본 기술의 고전적 정의와 랭던 위너의 정의는 기술이 이 두 가지 측면, 즉 인간이 만든 도구로서의 기술과 인류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기술 모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문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손화철은 기술의 문화적 특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기술은 인류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도구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왔으며, 이는 모두 기술에 해당한다. 둘째,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판단이 가능하다. 기술은 인간의 삶의 양상을 변화시키며 이 변화는 그것이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³⁴⁾ 그 외에도 기술의 문화적 특징으로는 인간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즉 인간이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기술도 인간의 삶을 변화

주적 기술 담론 공론장도 실현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3) Andy Crouch, *Culture Making: Recovering Our Creative Calling*, (Downers Grove, IL: IVP, 2008), 26-29.

34) 손화철, “문화로서의 현대 기술과 교회,” 『신앙과 학문』 10(2006), 3-4.

시킬 수 있다는 것과 기술은 정적이지 않고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었고, 조정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문화적 정의는 캐트린 태너(Kathryn Tanner)의 문화 정의와도 일맥상 통한다. 태너는 인간의 모든 문화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변화는 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각 문화는 중심을 구성하는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문화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³⁵⁾ 따라서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흡수하느냐에 따라 문화의 성질이나 유형이 변화할 수 있다. 기술을 예로 들어보면 그 중심에는 인류의 유익이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러한 성격이 강조되어 효율성이나 편리성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편협한 목적이 기술의 궁극적인 중심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기술은 그 시작부터 인간사회의 유익, 혹은 좋은 세상 만들기 등을 위해 개발되어왔다. 또한 기술은 그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흡수, 변형, 유용하는 단계를 거쳤다. 즉, 기술은 다른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뿐 아니라 자연의 재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³⁶⁾

2. 기독교와 기술의 문화적 관계

그런 면에서 기술은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화 안에는 기독교도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기술은 각각 하나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종교와 기술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그 실제적 현상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와 기술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기술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거나 개별 기술의 유용과 한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일방적인 연구 방향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기술이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개념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에 관한 보다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둘을 문화적 체제로 이해하고, 둘 간의 문화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침 본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식, 즉 문화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혼종적 문화 관계로 해석한 바 있다.³⁸⁾ 혼종적 문화 관계란 문화와 문화의 관계는 일방적 유용이나 비판이 아

35) Kathryn Tanner, *Theories of Culture: A New Agenda for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Press, 1997), 92-94.

36) 김덕영, 『프로테우스 인간의 영혼을 훔치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6), 31-35.

37) 손화철, “첨단 기술과 한국교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3(2023), 546.

38)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이민형, “혼종적 문화 관계로서의 기독교 전도: 문화선교의 이론을 넘어서,” 『신학과 실천』 78(2022).

닌 혼종성을 가진 제3의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호미 바바(Homi Bhabha)나 로버트 영(Robert Young)과 같은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의 문화 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의 문화와 식민지 주민들의 문화가 섞이는 과정을 연구한 바바는 두 문화의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는 식민주의자들의 문화도 식민지 주민들의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제3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혼종적인데, 각기 두 문화의 성격을 모두 지닌 양가성과 동시에 그 둘과는 전혀 다른 상이성이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⁹⁾

그런가 하면 로버트 영은 문화 번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교류할 때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문화 요소들을 각각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는 이 재해석의 과정을 번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문화의 번역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관계를 맺게 되면 기존의 A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요소 a에 B 문화에 속한 요소들 중 일부인 b를 재해석한 b'가 합쳐져 A'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⁴⁰⁾ 이는 문화의 혼종에 있어 양가성과 상이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바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 둘의 견해에 근거해 기독교와 기술의 문화적 관계를 조명해 보면, 이는 일방적인 유용이나 비판으로 귀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둘의 관계는 수많은 논의와 변화가 벌어지는 교차점이자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창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공간을 공론장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들은 결과적으로 두 문화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의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¹⁾ 더불어 기독교인들은 이 혼종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주장을 펼침으로 궁극적으로는 선교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교는 기독교의 진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기독교가 특히 강조하는 가치 모두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은 모든 문화적 체제에 연관된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기독교만의 강조점을 둔 특수성을 띠고 있기에, 문화의 교차 현장에서 복음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교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결국 기술이 본질적으로 문화라는 전제는 기독교와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명제로 이어

39)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66-67.

40) Robert Young,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Routledge, 1995), 193-194.

41) 이민형, “혼종적 문화 관계로서의 기독교 전도: 문화선교의 이론을 넘어서,” 『신학과 실천』 78(2022), 572.

42) *Ibid.*, 568-569.

질 수 있고, 문화 간의 관계는 혼종적이라는 논의는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 맺기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선교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와 기술의 선교적 관계에서는 어떠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것은 현대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V. 기독교 선교와 기술

1. 기독교와 기술의 교차점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는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한다.⁴³⁾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기술의 발전과 과도한 개발의 결과이듯이 말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에 관한 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과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⁴⁴⁾ 이는 위너가 주장한 기술에 관한 정치적 공론장이나 사용자 중심의 리벳랩 개념과 유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와 기술의 필연적인 교차점, 기독교와 기술의 교차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⁴⁵⁾ 기술이 과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인류의 유익과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 더불어 사회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같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⁴⁶⁾ 이는 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나 통제를 주장하는 논지를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기독교 모두 사회를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 현대 기술사회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바라는 더 나은 사회를 실천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에 있어 각각의 문화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

43)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1997), 19.

44) *Ibid.*, 69.

45) Hendrik Van Riessen, “The Structure of Technology,” trans. by Donald Morton, *Research in Philosophy and Technology* 2(1979), 305-306.

46) 김덕영,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영혼을 훔치다』, 205-206.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지한 탐구와 성찰이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기술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거친 후에 민주적 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한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혹은 신학적 성찰은 상당히 부족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당대에 새롭게 나온 기술에 대한 비판이나 교회에서 그 기술을 어떻게 유용할 수 있을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과의 공론장에서 기독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와 기술의 공론장에 있어 기독교의 출발점은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있다. 기독교 신앙의 창조 사상과 창조물의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구원 사상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결코 개인의 생명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근거이다.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⁴⁷⁾ 이는 기술 중심적인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적 합리성의 부재가 기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생명 존중 사상 및 사회적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의 학문적 논의를 제공하는 기술철학과 실천신학 모두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기술철학은 기술의 의미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지만 동시에 바람직한 기술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책임을 실천하려는 학문이다.⁴⁸⁾ 실천신학 역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탐구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분석한 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실천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기술과 기독교의 대화, 그중에서도 학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는 기본적으로 기술철학과 실천신학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2. 기술과 기독교의 선교적 대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상용화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류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기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기술은 사회적 합리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기술, 혹은 기술의 발전 탓에 소외당하거나 배제되는 인간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기독교와 기술의 선교적 관계의 예시로 예측이

47) 조용훈, “기독교 책임윤리 관점에서 본 위험사회 윤리: 책임주체인 직업인의 책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1(2018), 673-674.

48)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기술의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파주: 아카넷, 2020), 269-270.

가능한 기술사회의 세 가지의 논점에 대해 기독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어떠한 선교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철학과 실천 신학의 교차 연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1) 세계관

발전된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 편만한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세계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은 효용성의 논리에 따라 인류 문화의 성장과 유익, 편리를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유물적 영역을 넘어 가상의 영역에까지 그러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세상을 넓혀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삶의 영역을 증대시켰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일지 모르나, 그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부재는 분명 어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실 인식의 혼란과 가치관의 혼란은 기술 발전에만 몰입한 과학적 합리성이 쉽게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는 기술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를 만들고, 그것이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현실 인식의 혼란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그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코드와 이미지 정보로 구성된 온라인 세계를 만들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가상 세계의 경험이 현실감을 높여갈수록, 인간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쉽사리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가상 세계의 현실감은 기술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결국 그것은 현실 인식의 모호함이 발전된 기술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⁴⁹⁾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상 세계를 포함한 발전된 기술사회의 확장에는 구체적인 가치관 담론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오직 발전만을 목표로 한다. 기술의 사용자는 그로 인해 충족될 자신의 욕망을 목적으로 한다.⁵⁰⁾ 매우 단순한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기술의 영역에는 개발자와 사용자 간,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중재할 방법도, 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이 명백함에도 그것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 하나의 통일된 체제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기술 발전의 결과에는 가치관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이 지점, 즉 체계적인 세계관의 필요성 강조 및 예시 제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제도 종교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 즉 이 땅에서 실현 되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종교적 현실이 있다.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랑, 정의, 평화, 생명 존중과 같은 가치들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은 기

49) 이승진,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2017), 253-254.

50) 조미나,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기독교 정체성 탐구 활동 연구,” 『신학과 실천』 82(2022), 732-734.

독교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혹은 구원자라 고백하는 이는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 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하였다. 이를 중심에 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흔들림 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가리킨다.⁵¹⁾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한 세계관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발전과 성장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사회적 합리성을 가진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을 소개함으로써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자체로 선교적인 성격을 띤다. 기독교인들은 기술사회의 가치관 문제를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접근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다른 문화적 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2) 관계성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관계성이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관계의 변화를 겪었다. 한동안 대면 소통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술을 통한 소통이 이전과는 다른 관계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⁵²⁾ 비단 코로나19 전염병 기간뿐이 아니라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있어 왔다. 다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그것이 가속화가 된 것이다. 물론, 관계의 변화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뉴미디어 기기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자, 많은 이들은 이에 따라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관계성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뉴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취할 뿐,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다.⁵³⁾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관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미디어 기기의 활용 능력이 낮은 이들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관계망에서 소외와 단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 정확히는 기술에 능숙한 정도의 문제가 관계성의 문제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에 박찬호는 코로나19 전염병 이후 관계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는 논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소통과 직접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소통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면/비대면 소통의 반대는 외면, 즉 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⁵⁴⁾ 물론 그

51) 김희권, “사회선교의 정당성과 전망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73(2021), 761-763.

52) 정다운, 정성은, 장혜정, “팬데믹 시기의 대인 소통과 관계 친밀감 변화,” 『한국소통학보』 22(2021), 242-243.

53) 김은미, 『연결된 개인의 탄생: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230-232.

의 지적에는 개인주의적인 태도, 혹은 나르시시즘적인 욕망 등이 자리하고 있는 현대 소통의 한계가 문제의 원인으로 포함이 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역시 관계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간과할 수 없다. 기술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로 인해 사람이 외면당하는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기독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관계성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맺기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성육신한 예수와 인간의 관계, 나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인간의 관계로 발전한다. 따라서 관계의 단절이란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단절은 심각한 죄의 결과로 그려지며, 신약성서에서도 예수와 인간의 관계 단절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⁵⁵⁾ 이처럼 관계성의 의미가 분명한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장,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에 근거하였듯,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사랑이 매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단절, 소외, 외면 등은 현대 사회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기독교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온 예수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약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과 소통의 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 기술은 그들의 고통까지 다룰 수 없지만, 종교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간과한 관계성의 회복,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몫이다. 이러한 정신의 실천이야말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것이다.

3) 연관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연관성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삶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된 인간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에 있어 온라인 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보다는 온라인 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먼저 습득하게 되는데 이때 연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관성이란 존재, 시간, 공간이라는 항목들 중 나에게 중요한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며 이것들에 연관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⁵⁶⁾ 하

54) 박찬호, 『비대면 대면 외면』 (서울: 문화과지성사, 2022), 98-99.

55)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Culture* 10/2(2016), 97-98.

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해 발전된 시스템에 의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이 항목들과 관련이 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관성의 문제, 혹은 위기라고 불리는 것이다.⁵⁷⁾

예를 들어 온라인 정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삶은 실제로 나와 연관성이 적다.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는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그들에 관한 뉴스나 가십거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보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선택, 전달될 것이고, 그럴수록 연관성의 위기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소셜 미디어와 같이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관성의 위기를 초래한다. 첫 번째는 다른 디지털 정보망과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 속의 다양한 정보들에 현혹되기 쉽다는 것이다. 기실 그들 중 대부분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보들이다. 하지만, 습관처럼 들여다보는 소셜 미디어는 결국 사용자의 주의를 연관성이 없는 정보들로 끌어낸다. 두 번째로 그러한 정보들을 자주 접할수록 나 자신의 연관성과 관계가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지금, 여기의 나에게 중요한 것들보다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행하는 문화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연관성이 낮은 부분에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⁵⁸⁾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은 인간이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고백한 이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르친 것들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즉 연관성이 높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언급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 등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연관성이 높은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김현숙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탈인습적 자아정체감”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첫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일관성과 주관성이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체제를 확립하게 한다. 둘째,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사랑의 실천을 위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타인과의 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⁵⁹⁾ 무엇보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이 가능

56) 김용찬, 『포스트 매스미디어』 (서울: 컬처북, 2023), 100-101.

57) *Ibid.*, 117.

58) 김용찬, 465-468.

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모든 인간을 각자의 자리에 알맞게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각각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 즉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신앙적 해석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결코 디지털 세상 속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관심을 쏟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기술이 초래한 연관성의 위기는 개인의 다짐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의 대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기술에 의해 선별되어, 끊임없이 제공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찾고, 그것을 사회 전반에서 실천하며, 타인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나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현대 기술사회에 기독교는 신념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교적 과제를 실천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VI. 나가는 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기술은 이미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증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간은 기술의 영향력을 피해 갈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의 방향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랭던 위너의 주장대로 현대의 기술이 표류하는 중이라면,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과 편리성,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기술이 발전했음을 반성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술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기술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기술과 기독교를 인간의 문화적 주체로 정의하고, 이 둘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는 대화야말로 기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적 선교를 실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대 기술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 관계성, 그리고 연관성의 문제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종교적, 사회적 합리성을 통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교적 관계는 향후 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간이 고려해야 할 바를

59)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5-26.

제시하고, 더불어 기술을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달성 중이다. 지금까지는 진지한 성찰과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 자체의 발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사회는 그것이 초래한 문제점들로 하나둘씩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기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의 유용과 기술에의 비판에만 집중하였던 기독교의 기술 담론도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쪼록 본 연구가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강성화. “자크 엘릴의 “자율적” 기술 개념.” 「철학연구」 54(2001), 273-293.
- 김덕영. 『프로메테우스 인간의 영혼을 훔치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6.
- 김도훈. “가상세계 속에서의 교회됨의 의미 -더글라스 에스티스(Douglas Estes)의 ‘가상교회론(SimChurch)’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4(2013), 141-168.
-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2016), 35-60.
- _____.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Culture* 10/2(2016), 91-125.
- 김병석. “예배의 문화수용에 관한 초월성 연구.” 「신학과 실천」 48(2016), 35-61.
- 김상호. “맥루한 매체이론에서 인간의 위치 - ‘기술 우선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2(2008), 84-121.
- 김승호. “한국교회의 문화 이해: 문화신학, 문화선교, 문화목회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4(2019), 385-406.
- 김용찬. 『포스트 매스미디어』. 서울: 컬처룩, 2023.
-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사회를 향한 청사진』. 파주: 아카넷, 2017.
- 김정태, 홍정욱.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기술』. 서울: 살림, 2011.
- 김철영. 『21세기 기술사회와 기독교적 가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김향선. “하이데거의 기술철학.” 「철학연구」 52(2001), 79-102.
-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김회권. “사회선교의 정당성과 전망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73(2021), 749-786.
- 랭던 위너/ 손화철 역.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서울: 씨아이알, 2010.
- _____/ 강정인 역.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 서울: 아카넷, 2000.
-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기술과 전향』. 파주: 서광사, 1993.
- 박세종 · 임성빈.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1.
- 박일준.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서울: 동연, 2018.
- 박찬호. 『비대면 대면 외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2),
- 성석환. “교회론의 디지털 실존적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 연구: 디지털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를 향하여.” 「선교와 신학」 55(2021), 153-184.
- 손화철. 『랭던 위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_____. 『호모 파베르의 미래: 기술의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파주: 아카넷, 2020.
- _____. “기술철학의 제자리 찾기: 랭던 위너의 기술철학.” 「과학기술학연구」 10.1(2010), 1-25.
- _____. “문화로서의 현대 기술과 교회.” 「신앙과 학문」 10(2006), 45-75.
- _____. “문화명령과 현대기술: 개혁주의 기술철학의 의의와 한계.” 「인간 환경 미래」 22(2019), 117-148.
- _____. “보르그만의 기술철학: 기술의 약속, 기술의 개혁.” 「범한철학」 81(2016), 297-323.
- _____. “자끄 엘릴의 기술철학과 기독교 사상: ‘변증법’ 개념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3(2014), 35-57.
- _____. “첨단 기술과 한국교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3(2023), 545-569.
- 신국원.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서울: InterVarsity, 2004.
- 알베르트 노르트만/ 조창오 역. 『기술철학 입문』. 파주: 서광사, 2021.
-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기술, 환경, 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양성만. “도예베르트의 기독교 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앙과 학문」 16.4(2011), 133-164.
- 오스발트 슈핑글러/ 양우석 역. 『인간과 기술』. 파주: 서광사, 1998.
-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1997.
-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 (2018), 601-625.
- 윤영훈. 『복음주의와 대중문화: 창의적 문화선교의 발자취』. 서울: 빅퍼즐 북스, 2014.
- _____.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기독교와 대중 문화에 대한 12개의 소묘』.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21-58.

- 이상욱 외. 『육망하는 테크놀로지』. 서울: 동아시아, 2009.
- 이선일. “기술의 극복을 위한 하이데거의 시도.” 「철학」 38(1992), 75-98.
- 이승진.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2017), 227-264.
- 이윤석.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CLC, 2018.
- 이정석. 『문화신학: 문화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정의』.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2.
- 이찬석. “미래 교회와 선교를 위한 혼종적 교회론.” 「신학과 실천」 63(2019), 601-625.
- 이창호. “과학기술에 관한 윤리적 규범 모색을 위한 철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에서의 융합적 연구: 엘뤼(Jacques Ellul)의 기술 이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5 (2018), 331-379.
- 자끄 엘뤼/ 이상민 역. 『기술 체계』. 서울: 대장간, 2013.
- 정다운, 정성은, 장혜정. “팬데믹 시기의 대인 소통과 관계 친밀감 변화.” 「한국소통학보」 22(2021), 203-252.
- 정원범. “21세기, 문화의 시대와 문화선교.” 『21세기 문화와 문화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8, 15-38.
- 정희완. “과학기술 혁명 시대와 그리스도교: 종교와 신학의 전망 안에서.” 「가톨릭신학」 33(2018), 121-156.
- 조미나.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기독교 정체성 탐구 활동 연구.” 「신학과 실천」 82(2022), 719-745.
-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2015), 385-412.
- .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2018), 149-173.
- 조용훈. “기독교 책임윤리 관점에서 본 위험사회 윤리: 책임주체인 직업인의 책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1(2018), 669-694.
- 최동규. “한국 포스트모던 문화의 도전과 교회성장의 과제,” 「신학과 실천」 20(2009), 349-384.
- 프랑코 베라르디/ 서창현 역. 『노동하는 영혼』. 서울: 갈무리, 2012.
- _____/ 송섬별 역. 『죽음의 스펙터클』. 서울: 밤비, 2016.
- 하도균.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1(2014), 513-538.
- 하상복. 『자끄 엘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황병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회의 갱신: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선교 신학」 60(2020), 430-458.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Borgmann, Albert.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Philosophical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Campbell, Heidi. *When Religion Meets New Media*. New York: Routledge, 2010.
- _____. ed.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 London: Routledge, 2013.
- Campbell, Timothy C. *Improper Life: Technology and Biopolitics from Heidegger to Agamben*.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 Crouch, Andy. *Culture Making: Recovering Our Creative Calling*. Downers Grove, IL: IVP, 2008.
- Debord, Guy. *Society of the Spectacles*. Detroit: Black & Red, 1983.
- DeLashmutt, Michael W. "A Better Life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The Techno-theological Eschatology of Posthuman Speculative Science." *Zygon*. 41.2(2006), 267-287.
- Ellul, Jacques.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by John Wilkinson. New York: Vintage Books, 1964.
- _____. "Technology and Democracy." *Democracy in a Technological Society*. Langdon Winner Ed.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 Feenberg, Andrew. *Questioning Technology*. New York: Routledge, 1999.
- Gill, Robin. "Christian Moral Theology in the Emerging Technoculture: From Posthuman back to Human."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6.1(2015), 528-530.
-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Ecotheology: Journal of Religion, Nature & the Environment*. 11.2(2006), 159-182.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of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Hayles, N. Katherine. *How We Think: Digital Media and Contemporary Technogene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 Heidegger, Martin. *Basic Writings*. David Farrell Krell E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 Higgs, Eric, Light, Andrew and Strong, David. *Technology and the Good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Hogue, Michael. "Theological Ethics and Technological Culture: A Biocultural

- Approach.” *Zygon*. 42.1(2007), 77-95.
- Hutchings, Tim. *Creating Church Online: Ritual, Community, and New Media*. New York: Routledge, 2017.
- Ihde, Don. *Technology and the Lifeworld: From Garden to Earth*. Indiana: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90.
- Jonas, Hans.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n Ethics for the Technological 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Jones, Barry. *Dwell: Life with God for the Worl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Leonhard, Gerd. *Technology vs Humanity: The Coming Clash between Man and Machine*. London: Fast Future Publishing, 2019.
- Lynch, Gordon. *Understanding Theology and Popular Culture*. Oxford: Blackwell, 2005.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 London: The MIT Press, 1994.
- Mitcham, Carl. *Thinking Through Technology: The Path between Engineering and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_____. “Placing Technology in the Religious-Philosophical Perspective: A Dialogue among Traditions.” *Philosophia Reformata*. 75(2010), 10-35.
- Monsma, Stephen. et. al. *Responsible Technology: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Eerdmans, 1986.
-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 Padgett, Alan. “God Versus Technology? Science, Secularity, and the Theology of Technology.” *Zygon*. 40.3(2005), 577-584.
- Parikka, Jussi. *Insect Media: An Archaeology of Animals and Technology*.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 Pattison, George. *Thinking about God in an Age of Tech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Pattison, Robert. *The Triumph of Vulgarity: Rock Music in the Mirror of Roman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Pettman, Dominic. *Human Error: Species-Being and Media Machines*.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 Pitt, Joseph. *Thinking about Technology: Foundations of the Philosophy of*

- Technology*.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2000.
- Reising, Richard. *Church Marketing 101: Preparing Your Church for Greater Growt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6.
- Rifkin, Jeremy. *The Age of Access: The New Culture of Hypercapitalism Where All of Life is Paid-for Experience*. New York: Tarcher/Putnam, 2000.
- Rutsky, R. L. *High Technē : Art and Technology from the Machine Aesthetic to the Posthuman*.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Sider, Ronald, Olson, Philip, and Unruh, Heidi. *Churches that Make A Difference: Reaching Your Community with Good News and Good Work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2.
- Shuurman, Egbert. *Perspectives on Technology and Culture*. trans. by J. H. Kok. Sioux Center, IA: Dort College Press, 1995.
- _____. *Faith and Hope in Technology*. trans. by J. Vriend. Toronto: Clements Publishing, 2003.
- Stone, Bryan. *Evangelism after Pluralism: The Ethics of Christian Witnes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s, 2018.
- Tanner, Kathryn. *Theories of Culture: A New Agenda for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Press, 1997.
- Tillich, Paul. *Theology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Vanderburg, Willem. *Secular Nations under New Gods: Christianity's Subversion by Technology and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8.
- _____. "Technology, Society, and Cultur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echnology in Society*. 7(1985), 411-422.
- Van Riessen, Hendrik. "The Relation of the Bible to Science." *Christian Perspectives 1960*. Pella, IA: Pella Publishing, 1960.
- _____. "The Structure of Technology." trans. by Donald Morton. *Research in Philosophy and Technology*. 2(1979), 296-313.
- Waters, Brent. *Christian Moral Theology in the Emerging Technoculture: From Posthuman Back to Human*. Farnham, Surrey: Ashgate, 2014.
- _____.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Hampshire •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 Winner, Langdon. *Autonomous Technology: Technics-out-of-Control as a*

- Theme i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77.
- _____. *The Whale and the Reactor: A Search for Limits in an Age of High Tech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0.
- Young, Robert.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Routledge, 1995.

논 찬 1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 실천신학적 기술성찰, 관계 정립, 실천방안”에 대한 논찬

주 상 락 박사

(명지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적 목회학)

공공 선교학자인 그렉 오케슨(Gregg Okkesson)은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먹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공공의 영역(the public realm)에서 충분한 복음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¹⁾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이런 복음의 해석의 클라이 맥스이며, ‘선교적 해석’의 원조라고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그리고 예술 등 다양한 공공의 영역으로 보내셨다. 그 중에 발표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테크놀로지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고 이 분야는 공공선교학 분야라 믿는다. 본 논문은 선교, 기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큰 주제들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선교와 기술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종교와 기술자체도 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와 기술을 문화로 이해 할찌라도 그 관계성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며 교회현장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은 다른 결과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필자는 공공선교학자로서 공공선교학적 관점에서 필자의 글의 공헌, 제안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공헌

첫째, 논문은 기술, 선교, 그리고 문화를 접목한 간학문적 연구(Interdisciplinary

1) Gregg Okkesson, *A Public Missiology: How Local Churches Witness to A Complex World* (Grand Rapids, MI, 2020), 24.

studies)를 통해 교회와 선교를 위해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간학문적 접근인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은 국내에 여러대학에서 발전되고 있다. STS는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학, 과학기술문화학과 같은 분야를 통합해서 지칭하고,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과학기술의 역사와 철학은 물론 과학 기술과 사회의 관련을 주로 다루는 분야다. 이런 간학문적 접근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

‘기술선교문화학’의 융합, 통섭을 다룬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둘째, 문화의 혼종성은 공공선교학의 영역에 들어간다. 발표자는 “이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들은 결과적으로 두 문화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의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기독교인들은 이 혼종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주장을 펼침으로 궁극적으로는 선교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언급한다.

하버마스가 공론장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1962년 출간된 그의 교수자격학위논문인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통해서 였다. 공론장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동시에 공간적 메타포가 말해주듯이 공론장 참여를 위해서는 바로 이 ‘공간으로의 입장’이라는 행위가 요구된다. 기독교인들도 선교를 위해서 보내진 선교의 영역인 문화, 과학 기술의 영역이라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선교적 대안의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렉 오케슨(Gregg Okesson)은 그의 책 공공선교학(A Public Missiology)에서 문화 인류학자인 크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인용하여 공공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한다.²⁾ 두터운 기술은 누군가의 행동을 볼 때, 문맥을 모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혼종의 공간’인 문화, 기술의 영역에서 문맥을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공공의 문화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선교학의 실천이라 하겠다.

2. 제안 및 질문

필자는 이 부분에서 공공선교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첫째, ‘선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논찬자는 발표자의 견해를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발표자는 초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가 신기술을 유용하는 데 있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련된 기독교 문화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선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교’란 무엇인가? 논찬자는 ‘공공선교학’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제안드린다.

2) *Ibid.*, 7.

둘째,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기술과 선교의 관계성에 대한 모델제시가 필요하다. 발표자의 연구는 이론신학적 그리고 간학문적 연구로 보여진다. 발표자의 연구는 훌륭하지만, 공공론의 장에서 기독교와 기술의 분야가 소통하며 '선교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실천신학적 적용 및 모델제시가 되면 더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다.

셋째, '과학기술문화학'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있게 되길 제안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과학기술학은 다양한 학문들과 연결 될 수 있다. 기술과 문화의 공통점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문에서 기술, 선교,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한다고 주제를 정했는데, 문화학 분야보다는 '과학기술철학'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주제를 고려해 '과학기술문화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참조하시길 제안 드린다.

넷째, 선교적 대화가 더 심도 있게 연구되길 제안한다. 논찬자는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공공선교학적(또는 공공신학적) 대화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그 대화의 접점을 세계관, 연관성, 그리고 관계성으로 나눠 제시 하지만, 선교적 접점을 만들기 위해 복음(the Gospel), 주체(Witness), 그리고 상황(Context)를 더 깊이 있게 진단하고 공공선교학적 대화를 연구하시길 격려한다. 특히, 기술과의 선교적 대화를 위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론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3. 결론

이민형 박사의 논문은 공공선교학의 영역인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공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룬 이 박사의 논문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논문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Okesson, Gregg. *A Public Missiology: How Local Churches Witness to A Complex World*. Grand Rapids, MI, 2020.

논 찬 2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 실천신학적 기술성찰, 관계 정립, 실천방안”에 대한 논찬

최재성 박사

(숭실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학)

1. 논문에 대한 이해

본 논문은 기독교와 기술의 문화적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체적인 연구목표로 삼는다. 첫째, 한국교회가 기술을 유용하여 선교를 실천해 온 **실태를 평가**하여 이해의 한계를 밝히고 기독교와 기술의 대안적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둘째, 기독교와 기술의 문화적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기독교와 기술이 일방적 유용의 관계가 아닌 **서로 대등한 문화적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 셋째, 기독교와 기술의 문화적 관계를 통해 기독교 **선교를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것!

연구자는 서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기술이 교회가 자의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중립적 도구인가? 교회가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선교인가? 이에 대하여 그는 한국교회가 기술을 단지 도구로 여기는데 오는 기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단지 기술을 도구로만 여기는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를 문화적 선교의 관계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류가 가진 기술에 대한 반성적 질문을 토대로 마르틴 하이데거나 자크 엘뤼이 이해한 기술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수동적이었다. 그에 반해, 기독교가 기술과 관계 맺기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선교적 가능성을 찾는 과정에

서는 인간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는 기술철학자 랭던 위너의 논지를 학문적 연구의 주요 대화상대로 요청한다. 기술을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보는 위너는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것을 초래한 인간의 책임을 묻는다. 즉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변수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세우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결국, 위너는 기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위해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서, 모든 기술 사용자가 기술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입법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너가 기술의 발전 방향이 “좋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 한다면, 좋은 세상에 대한 함의는 민주적 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윤리, 도덕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 역시 기술 담론의 형성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기술과 기독교의 적극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특별히 기술은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술이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뿐 아니라 자연의 재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 왔다. 그 문화 중에는 기독교도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술은 기독교와 관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 맺기가 선교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다.

기독교 선교와 기술은 모두 “실천”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대화는 예측 가능한 기술사회의 세 가지 논점, 즉 세계관, 관계성, 연관성에 대해 기독교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선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술철학과 실천신학의 교차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결론 부분에서 기독교가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문화적 주체자로서 이 둘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 기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독교적 선교를 실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 논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본 논문은 몇 가지 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술철학과 실천신학의 교차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서로 “실천”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진지하고 치열한 대화를 끌어냄으로써, 기술을 기독교 문화 발전과 교회 성장을 도구로만 한정시키려는 실용적 접근의 한계성과 부족한 이해력을 재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기술 발전에 함몰되어 인간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가로막아, 기술 진보에서 인간의 역할을 적극적인 위치로 되돌리며, 더 나아가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

로 여기에 종교로서 기독교의 역할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셋째, 마르틴 하이데거와 자크 엘뤼이 가진 기술 이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술철학자 랭던 위너를 학문적 연구의 주요 상대자로 삼아 논의를 끌어나가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읽는 내내 즐거움과 다양한 선교적 상상을 자극해 주었다.

3.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

논찬자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대부분에 동의하면서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가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인간이 그 과정에서 주체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론적 토대 구축을 넘어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속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연구자가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제시하면서 한국교회가 기술을 유용하여 선교를 실천해 온 실패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을 들 수 있는가?

셋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연구개발 때 ELSI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평가를 반드시 실시한다. 즉,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기술 발전과 유용에 대해 기독교선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정량화 지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가?

넷째,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파괴력을 주목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려는 기술신학이 대두되고 있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 분야가 예측하면서 우려하는 신학적, 윤리적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섯째, 기술과 기독교의 선교적 대화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와 기술의 선교적 관계의 예시로 세계관, 관계성, 연관성 이 세 분야를 다루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4. 나가는 말

인간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장신대 김은혜 교수는 “성경에 바벨탑 같은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기술도 등장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협력적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여 기독교 전도

와 선교를 실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크다.

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과 도전을 불러일으켜준 발제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본 논문이 차후 더 깊고 넓은 연구의 촉매제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논 찬 3

“선교를 위한 기독교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적 관계: 실천신학적 기술성찰, 관계 정립, 실천방안”에 대한 논찬

안 정 도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이 연구는 오늘날 급작하게 발전하는 기술사회에서 기술의 본질적 성찰과 함께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정립을 통한 선교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다. 전통적인 기술관의 수용과 답습의 수준에 머무는 단계에서 기술 유용 담론을 극복하고자 하며, 좀 더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기독교와 기술의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연구자는 기술과 기독교의 역동적이고 대등한 대화의 공유지 형성이 곧 선교의 장이고,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단순히 기술사회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숭배하거나, 사용하는 차원으로만으로는 이 사회를 위한 기독교 선교의 실천을 논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기술 담론의 홍수 시대에 몇 번이고 다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하는 기독교적 해석과 성찰 작업의 동기부여와 기준 제시의 작업이다.

1. 연구의 주요내용

연구자는 먼저 현대 기술사회를 기술하는 철학 관점에서 인간의 역할과 주체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지를 발전시킨다. 하이데거와 자크 엘틸이 말하는 기술 본질론과 기술 결정론 속에서 인간은 기술 환경에 종속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한다는 기술 철학적 이해를 소개하면서, 기술의 능동성과 인간의 주체성을 긴장의 완력관계로 바라보는 이런 담론을 성찰 비판하고, 새로운 기술 이해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표류’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며 비판은 랭턴 위너의 연구자의 논지 확

장에 출발점이 되었다. 기술사회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삶의 형식'을 성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고전적 기술비판을 넘어서는 '정치'의 실천과 '경험으로서 문화'의 공유지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이 기술과 기독교의 선교적 실천 공간을 만드는 이론적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기술사회와 기독교의 공유된 창조적 '세계관' 형성, 그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발전되는 '관계성'의 회복, 개인의 삶의 경험과의 '연관성' 발견을 기술사회 기독교 선교 담론의 핵심으로 제안한다.

2. 공헌점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선교와 실천의 관점에서 흥수처럼 쏟아지는 기술사회 속에서 기독교와 인간의 대화 공유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거나 유용 도구로 보는 관점은 기술사회 고전적 분석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였다. 이렇게 고전적 기술이해를 성찰하고 확장하며 기술사회 속 기독교와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담론 분석은 짧은 시간 계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비판이나 이슈로 기술을 가십화하는 단편적인 기술사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연구의 깊이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 종속화, 파편화는 비단 선교 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가 당면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정의와 이해는 단순히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술이 우리의 세계관-개인과 개인의 관계성-개인 삶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결론적 제안은 성찰적이고 실제적이다. 실제로 세계관, 관계성, 연관성의 결여로 인한 사회 문제는 우리 삶의 경험과 현장에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정치, 교육 과제 사업 안전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하면서, 현대 사회 현상의 문제와 모두가 궁금해하는 방향성 설정을 심층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과 기독교의 관계를 특정 관점에 치우쳐 기술하는 고전적 기술관점을 발전적으로 수정하는 문제제기 역할을 한다. 현대인들은 기술을 맹신하거나, 도구로 평가절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 연결된 인간-세계-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결여된 현실을 본 연구는 부드럽고 논리적인 어조로 비판한다. 학술적 논지이지만, "표류하고 있는 기술사회에서 몽유병에 걸린 사용자들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자의 걱정적이면서 절규와 고민이 녹아 들어있다. 그리고 앞으로 신학 실천의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적 목소리도 글에서 느껴진다. 급변하는 기술 사회는 우리에게 늘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불확실 속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며 함께 만드는 것이다. 기술사회 속에서 선교와 전도의 길은 단순한 이론이나, 방법론이나, 어느 한 관점의 유용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의 문제제기와 기초 이론, 방향 제시는 기독교 전도와 실천, 이론 신학과 경험 실천의 균형있는 가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

3. 질문

논찬자에게 인상적이면서도 통찰적인 논지에 대해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

첫째, 두 번째 논지(III.2.2.)에서 삶의 경험, 정치, 문화로서 기술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근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한다. 특히 기술 관점이 본질적으로 특정집단 정치 관점을 대변하거나, 기술의 정치성이 인간 삶을 규정하고 통제한다는 점은 매우 도전적이고 비판적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선교의 관점과 연결되는 공론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신학’, ‘공공신학’, ‘기독교 윤리’와도 연결된 문제다. 현대 사회에서 “사용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치”로서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둘째, 기술문화와 기독교가 함께 소통하며 제3의 문화, 혼종의 문화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해석과 대화 가능성을 묻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천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지역적인 문화 이해 뿐만 아니라, 오늘 대두되는 세대간의 문화 갈등에도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이 질문은 공식적인 다문화사회가 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교회 역할에도 중요한 문제다. 기독교 신앙과 전통의 전수와 전달 역사는 인쇄술-과학기술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으며, 과학과 신학의 연결과 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언어를 기술 문화적으로 재해석-번역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기독교 ‘사랑’과 ‘복음’은 이런 시대에 다른 형태의 언어로 해석, 번역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번역이 가능할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해석 언어의 예시를 본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셋째, 연구자의 기술과 실존의 ‘연관성’ 지적은 정보 이해 해석의 차원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는 실존적 이해, 신학으로는 부활된 삶의 변화, 교육적으로는 문해력(Literacy)와도 연결되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문제다. 기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이해도 똑같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표류의 위기는 과연 오로지 기술이 초래한 것일까? 인간 자기 이해의 표류, 연관성의 문제를 기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리에게 그동안의 기술 담론을 개괄하고, 비판 성찰적인 담론을 소개하고,

연구자가 성찰한 방향 제안점을 확인하는 논리적 구조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읽는 이들이 함께 고민하게 한다. 이것은 그만큼 본 연구가 구체적인 질문에 접근면서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여겨진다. 이런 연구를 통해 함께 담론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어 연구자의 노고와 결실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

제 12 발표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¹⁾

김형락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이르러 인류는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며, 이것은 현재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ChatGPT로 대표되는 상용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교육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대학의 강의 시간에도 ChatGPT를 이용한 딥러닝 시스템을 강의 시간에 도입한 예도 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대체하거나 답안을 제출하는 예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교육의 분야를 넘어 인간의 일상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료의 검색 뿐 아니라 외국어의 번역, 그리고 필요한 글을

1) 본 발표문은 「신학과 실천」 87호에 게재된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김형락,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87(2023), 7-34.

생성하여 작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목사들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목회에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목사들은 이 시스템이 자신들이 주일에 선포해야 할 설교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제일 크다. 또한, 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설교를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고민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배의 분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 혹은 연구사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확산에 맞춰 이를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연구는 예배학의 관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평가하고 기독교 예배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공학적 기술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루지 않을 것을 먼저 밝힌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OpenAI사의 ChatGPT와 Google의 Bard이나 필자는 본 연구에서 ChatGPT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다. 그 이유는 ChatGPT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먼저 등장하여 Bard보다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필자 역시 Bard보다 ChatGPT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독교 내에서 Chat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평가한 연구들과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류삼준은 “인공지능 시대, 교회교육의 과제: 아스머(Richard R. Osmer)의 실천신학의 네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에서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회교육에 대해 리차드 아스머의 방법론으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²⁾ 황병준과 박도훈은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에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예측들과 이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³⁾ 장보철은 “인공지능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에서 도래할 인공지능의 시대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목회상담적 관점을 연구하여 이 시대의 치유적 방법을 도출했다.⁴⁾ 나인선은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적 경험으로 자기희생의 윤리적 가능성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종교적 차원을 연구하여 이로 인해 복음의 정수인 자기희생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함을 연구했다.⁵⁾ 오경환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 교육의 방향성 제고”에서

2) 류삼준, “인공지능 시대, 교회교육의 과제: 아스머(Richard R. Osmer)의 실천신학의 네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신학과 실천』 86(2023), 613-641.

3) 황병준, 박도훈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2020), 811-837.

4) 장보철, “인공지능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59(2018), 247-267.

5) 나인선,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적 경험으로 자기희생의 윤리적 가능성 연구,” 『신학과 실천』 67(2019), 35-66.

인공지능을 기독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신학 교육의 혁신과 새로운 방법론을 도출해야함을 주장했다.⁶⁾

또한, 박현신은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래와 이를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히 설교의 분야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⁷⁾ 손화철은 “ChatGPT 열풍과 한국교회”라는 논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제들을 짚었다.⁸⁾ 또한 2023년 9월호의 특집 기사 주제인 ‘생성형 인공지능시대’에 게재된 김동환의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와 지용근의 “챗GPT에 대한 목회자 인식과 사용실태”를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목회적 관점과 이를 활용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 조사 자료들로 참조하였다.⁹⁾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기독교 예배에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사건이고, 이를 통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고려해보는다면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독교 예배를 스스로 생성하거나 구성할 수는 없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점인 방대한 자료의 저장 능력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예배와 설교에서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배에서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하는 예배 기획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이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대략적 소개와 선행연구를 기술했다. 2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3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배에 도입하기 위해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배신학을 접목시켜보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했다. 4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기독교 예배에 활용하는 적용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예배를 기획하는 목회자와의 관계 대해 논의하였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필자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II. ChatGPT 시대의 도래와 한국 기독교에서의 전망

6)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 교육의 방향성 제고,” 『신학과 실천』 81(2022), 619-643.

7)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146-196.

8) 손화철, “ChatGPT 열풍과 한국교회,” 『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 5(2023), 23-34.

9) 김동환,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 『활천』 838(2023.9), 20-26. 지용근, “챗GPT에 대한 목회자 인식과 사용 실태,” 『활천』 838(2023.9), 34-37.

1.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인간은 누구든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검색하면서 습득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기록된 정보의 문헌은 도서관이 아닌 컴퓨터가 비치된 각자의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어떤 명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났다. 한 사람의 정보가 아닌 집단 지성의 공통 작업을 기반으로 정보를 구축해가는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가 나타났으며, 현재도 많은 이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사이트는 인간이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정보의 내용이 구축된 사이트였고 사람에게 의해 입력된 한정된 지식들만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새롭게 바뀌는 정보들은 일일이 사람에게 의해 수정되면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Chat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런 모든 개념을 바꿔버린 새롭게 등장한 게임체인저¹⁰⁾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입력된 정보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입력된 거대한 자료들을 스스로 선택·편집하여 답변을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언어 자료들을 분석하여 각 언어의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을 학습하고 이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인간이 묻는 질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관되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연결하고 이를 문장으로 만들어 답을 생성한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대규모의 텍스트 혹은 여러 자료들을 방대한 용량의 리소스에 입력을 시키면, 유사한 단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장되었던 자료들이 검색 혹은 필요에 따라 축적된 알고리즘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재결합하여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러한 체계는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의 전산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량이 혁신적으로 향상되었고 응용 통계와 코딩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체계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OpenAI사는 ChatGPT라는 공전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 내어 시장에 선보였다. 2020년에 발표된 3.0버전은 너무나 획기적인 시스템이었기에 사용자가 급등하며 구글(Google)과 같은 기존의 검색 엔진의 사용횟수를 능가했다. 물론 초기 버전은 약간의 오류도 있었고 어색한 답이 제공될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OpenAI사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마침내 2023년 4.0버전을 출시하면서 더욱 더 안정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시켰다. ChatGPT가 인간의 질문을 이해하고 저장된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일정한 논리로 답변을 생산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영역을 넘어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게 됐다.

10) 이승우, “AI 게임체인저 ‘챗GPT’ 돌풍,” 「한국경제」 (2023.01.26).

2. 한국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ChatGPT의 등장에 놀라움과 기대 혹은 우려를 표했다. 우선 한국교회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거리낌이 없기에 이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생성해주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화철은 검증 없이 새로운 기술만을 선호하는 문제는 메타버스를 교육과 예배에 도입하려고 했던 성급한 시도들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한다.¹¹⁾ 월간지 「활천」 9월호는 “ChatGPT에 대한 목회자 인식과 사용실태”라는 기사에서 전국의 목회자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¹²⁾

ChatGPT를 사용한 목회자는 47%에 달했고 이는 일반인의 사용률 36%를 넘는 결과였다. 이 Chat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ChatGPT의 도출된 답변에 대해 81%가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ChatGPT를 사용해 설교문을 작성해본 적이 있는 목회자들은 ChatGPT가 생성한 설교문에 대해 33%만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ChatGPT를 사용하여 설교를 준비한 목회자는 이로 인해 얻는 이점들(중복응답)을 설교주제와 개요를 위한 아이디어(60%), 설교에 필요한 배경지식(45%), 성경구절 검색(25%), 설교준비시간 단축(24%)으로 답변하였다.¹³⁾

위 답변의 결과는 ChatGPT가 온전한 설교를 도출하는 도구보다는 설교를 작성하는데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ChatGPT의 사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자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시각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출하는 정보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AI편향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만약 의도적이던지 아니던지 편향된 데이터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축적된다면, 도출되는 결과는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 편향성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제작사들은 부단히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OpenAI사는 ChatGPT 4.0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편향성을 많이 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버전에서도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엉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동시에 경고하기도 했다.¹⁴⁾ 즉, 이런 보정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순환

11) 손화철, “ChatGPT 열풍과 한국교회,” 29.

12) 지용근, “챗GPT에 대한 목회자 인식과 사용 실태,” 34-37.

13) *Ibid.*

14) 채윤정, “GPT-4 사람 수준의 능력 보여줘... 할루시네이션 문제 여전, 미래 전망 대응 못 해,”

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문제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슈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매우 정교한 윤리규범이 입력되어 축적된다면, 인공지능도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까지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경환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¹⁵⁾ 따라서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윤리적 가치를 담아내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인간의 윤리적 가치들을 인공지능에 심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인선은 이에 대해 기독교 예배에서 신과의 대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자기희생과 사랑의 행위를 참 인간됨의 모형으로 삼아 인공지능의 윤리규범으로 삼아야함을 주장했다.¹⁶⁾ 결국,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체계는 수많은 데이터에 의존하며, 이 데이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혹은 축적되어진 자료들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과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김병석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예배와 설교의 자리에 대해 논하면서 덤러닝을 넘어 딥스피릿을 강조하는 예배 설교의 자리를 추구해야함을 주장했다.¹⁷⁾

지금까지 다루어진 본 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순한 검색 기능만을 넘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되어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상용화도 가능해졌다. 그 중에서도 ChatGPT는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업계의 선두주자이고 이용자들도 가장 많다.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실제 설교 작성에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아직은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출하는 답변에 대한 정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오류를 완벽하게 종식시킬 수 없고 시스템의 특성상 계속해서 보정작업을 함으로 정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또한 그 정보들을 운영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규범적 사실들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메트로신문」 (2023.10.19.).

15)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 교육의 방향성 제고,” 627.

16) 나인선,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적 경험으로 자기희생의 윤리적 가능성 연구,” 58-61.

17)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2016), 159-184,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2018), 153-182.

III. 기독교 예배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

1. 기독교 예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1세기부터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나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순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기능을 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는 기독교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기독교 예배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슬러오며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다양한 예배전통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전통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예배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들이 기독교 예배를 정의하게 한다. 제임스 화이트는 폴 훈이 주장하는 예배의 정의, 즉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며 중심은 그리스도이다.’를 언급하며 예배의 양방향성을 역설했다.¹⁸⁾ 이 정의는 많은 예배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기독교 예배가 계시적 측면과 응답의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배의 순서들 안에 이러한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만남(encounter)의 경험을 전제한다. 이 만남의 경험은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말씀과 성례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주심, 하나님의 에토스 등으로 표현¹⁹⁾되는 인간과 창조물을 향한 사랑과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들은 찬양, 고백, 확신, 감사, 탄원, 헌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양 방향의 순서들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다. 많은 예배신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lex orandi, lex credendi*라는 아퀴테인의 프로스퍼의 주장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정교회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멤만을 시작으로 에이단 카바나와 같은 로마 가톨릭 전통, 그리고 개신교 학자인 지오프리 웨인라이트 역시 이를 설명하였는데 각기 방법과 구체적인 과정은 달랐지만 공통적 논지는 예배로부터 신학(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이다.²⁰⁾ 이 논의는 예배와 신학의 관계를 넘어 예배 후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회중

18) 제임스 화이트/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입문』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24-25.

19) 화이트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 (God's self-giv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샬리어즈는 하나님의 에토스(Divine etho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제임스 화이트/김운용 역,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23-25. 단 샬리어스/김운용 역, 『거룩한 예배: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37.

20) 이 세 학자들의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의 비교는 다음의 에세이를 참조하라. Maxwell Johnson, "Liturgy and Theology" in *Liturgy in Dialogue: Essays in Memory of Ronald Jasper*, ed. Paul Bradshaw and Brian Spinks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3), 203-227.

의 역할을 예배를 통해 형성되는 예배 후의 예배가 강조되면서 예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바른 실천(ortho-praxis)의 방향(영성과 윤리)이 형성된다는 논의로 확대되었다(lex orandi, lex vivendi or lex agendi).²¹⁾ 이러한 논의들은 기독교 예배의 의미와 그 기능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와 기능을 생각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독교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보자 한다.

2. 기독교 예배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고찰

많은 목회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설교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예는 많았지만 예배에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다. 물론 설교 역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예배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례로 보인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설교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²²⁾ 왜 한국의 목회자들은 Chat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을 예배에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이 예문을 기반으로 하는 예전스타일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와 설교를 중시하는 개신교 전통 예배 혹은 구도자 예배와 비슷한 현대 예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배에서는 굳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배의 형식이 예문을 중심으로 하는 예전일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배에서 활용하는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독교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독교 예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지의 분야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설교의 분야 외에 다른 예배의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배의 구성에 활용하는 예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필자는 이 연구에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예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ChatGPT에서 예문을 작성해보라고 명령해보았다. 이번 주 주일 예배순서를 필자가 속해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예배와 예식서 형식에 맞게 예배를 구성할 것을 의뢰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배 시작

1. 예배 전 기도 시간

21) Dwight W. Vogel, ed., *Primary Sources of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12.

22)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등이 있다.

2. 시작 찬양

3. 개례와 인사 (집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교인: 주님과 함께 합니다.)

찬양과 경배

4. 찬양 및 경배 시간 (성령의 인도 하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방언, 무용, 깃발 예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부분

5. 성경 본문 읽기 (구약성경 본문, 신약성경 본문)

6. 성령의 응답 찬양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7. 설교 (선택된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를 진행합니다.)

기도 부분

8. 전체 기도 (교회와 교인의 기도 요청, 국가 및 세계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9. 치유 및 감화 기도 시간 (성령의 인도 하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치유 기도와 감화 기도를 진행합니다.)

헌금 및 찬양

10. 헌금 (교인들이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 헌금 찬양 (헌금을 드리며 찬양을 부릅니다.)

맺음말

12. 축도 및 축복 (목사가 교인들에게 축도와 축복을 내립니다.)

13. 마지막 찬양 (예배를 마치며 교인 모두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14. 파산 (집사: 주님의 평화 속에서 가십시오. 교인: 아멘.)²³⁾

생성된 위의 예배 순서를 살펴보면 용어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번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예배를 오순절 예배의 한 분파로 인식하고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예문 밑에 단서 조항과 같이 “이 순서는 대한성결교회의 특성과 일반적인 펜테코스타 예배 스타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²⁴⁾라고 설명하였다, 이 예배의 구성은 필자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이 예배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예배와 예식서에 수록된 예배 형식과도 많이 다를 뿐 아니라 일선 목회현장의 표준적 주일 예배의 구성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ChatGPT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예배를 오순절 전통의 일부 분이라고 이미 단정지어 놓고 거기에 맞춰 예배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사와 파송(파산으로 표기)에서의 대화의 주체도 집사와 교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역시

23) ChatGPT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배와 예식서를 기반한 주일예배 순서 구성 요청,” 접속 2023.10.20. <https://chat.openai.com/c/5febbcd5-dad7-4f6a-a821-ab75a6d46faf>.

24) *Ibid.*

올바르지 않다. 이러한 대화식으로 된 예문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사용한다하더라도 목회자와 회중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을 감안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온전한 매 주일예배를 생성해내는 일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목회자들의 설문에서 다수의 목회자들이 아직은 ChatGPT가 온전한 설교문을 만들 수 없다고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 원인을 축적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는 대규모 언어 자료를 습득하여 그것을 분석하여 답을 도출하는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주일예배'라는 질문을 답할 축적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따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특성이 비슷한 오순절전통의 예배를 선택하여 답을 도출했다. 이는 끊임없는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오류를 수정해야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재적 한계의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부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독교 예배를 구성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현재까지는 온전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3.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필자는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기능적 과정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신학적 정의의 기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의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완성될 것이다. 첫째,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응답을 반영할 수 있는가?'이며 이 질문에서 연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성한 예배를 통해 회중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당면한 선교적, 윤리적 과제들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가?'이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예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범위를 그려보고자 한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배에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유보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본다면, 인공지능은 신을 창조주로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지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 안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으며 이에 연관된 여러 문헌과 문장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까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

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관계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닌 정보의 선택과 적절한 해답의 도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예배에서의 계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계시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배순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성례전의 거행이라고 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설교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다른 설문조사가 말하듯, 아직 목회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 완성된 설교의 질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설교가 회중들에게 맞는 설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만하다. 설교를 작성할 때 본문이 되는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 여러 자료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제공받고 참조할 수는 있을 듯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이 주장했고 특별히 크래독이 강조했던 설교자의 역할, 즉 성서의 본문과 회중의 실존 사이의 거리 조정²⁶⁾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임을 생각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교회의 회중의 실존을 얼마나 담보하고 이에 맞는 말씀(하나님이 계시된)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이 문제는 설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례전에 대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성례전은 떡과 포도주 혹은 물이라는 가시적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중심의 은총을 전하는 의례이다. 물론 성례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정의 말씀이 담겨진 예문과 상징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의례가 거행되기에 그에 맞는 예문을 작성하는 일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례전을 위한 예문이 존재한다. 예전적 전통이 강한 전통에서는 성찬의 경우 절기에 맞는 예문을 만들어 내용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세례의 경우 유아세례, 성인세례, 응급세례 등과 같이 상황에 맞는 의례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 예문은 자신의 전통의 신학적 전통이 녹아낸 결과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굳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성례전의 예문을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배의 주제에 따라 혹은 집례자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 역사적인 혹은 다른 전통의 성례 예문을 참조하고 싶다면 검색을 함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독교 예배의 다른 한 축인 회중의 응답의 순서들을 얼마나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배에서 회중의 응답

25) ChatGPT4에게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이 도출되었다. “저는 인공지능 모델로서 감정, 신념,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믿음이나 감정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제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나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정보나 관점을 원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ChatGPT4, “하나님을 믿는가?” 2023.10.23. 접속. <https://chat.openai.com/c/22644bff-0be2-456c-844d-cc395437e16c>.

26) 프레드 크래독/이우재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191-194.

은 회중이 처해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 돈 샐리어스는 예배의 양 방향적 요소들 중에서 응답의 부분을 인간의 파토스(pathos)적 요소로 표현한다.²⁷⁾ 이는 인간 삶의 유한성과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탄원이 인간의 응답의 가장 근원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삶의 자리에 처해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게 된다. 장보철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하나님에 대해 사유하거나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역설한다.²⁸⁾ 성서의 시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리어진 탄원이고 기도이다. 죽음 혹은 인간이 이를 수 없는 한계는 인간에게 절망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방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인간이 가진 유한성 역시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인간이 처한 상황들이 기독교 예배에서 응답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통과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처한 세세한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다. 필자는 영화 터미네이터 2편에서 터미네이터가 자신을 파괴해야만 인류의 평화가 존속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이 영화에서 이별을 맞은 인간이 눈물을 흘리자 안드로이드, 즉 인간형 기계였던 터미네이터가 “나는 네가 왜 우는 지 알아. 하지만 나는 (기계로서) 울 수가 없지.”²⁹⁾라고 말했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장면이 불연 듯 떠올랐다. 이 영화에서는 수퍼 인공지능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슬픔을 인지하고 동질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극적 효과를 더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통, 슬픔, 죽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언어적 모델을 습득하여 정의를 내리고 이에 연관된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단어는 여러 연결되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비슷한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습득되어진 자료들, 즉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결과이지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는 아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는 실제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는 사건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예배에서 인간의 실존을 온전히 담아내어 응답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성한 예배 혹은 예문이 회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대두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예배 공동체 뿐 아니라 바깥으로 눈을 돌려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실천하게 한다. 이러한

27) 단 샐리어스/김운용 역, 『거룩한 예배: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44-47.

28) 장보철, “인공지능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257-258.

29) 영어 대사는 “I know now why you cry. But it's something I can never do.”인데 넷플릭스의 한국어 자막에서는 “네가 왜 우는지 안다. 인간만이 가능하지.”로 의역되었다.

삶은 직접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섬기는 일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이다. 에드 필립스는 이러한 “예배로부터 인식되어지는 윤리적 실천은 우리의 의무가 아닌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⁰⁾ 이 논의는 인공지능의 축적된 데이터와 딥 러닝과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결과가 실제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프락시스에 반응하는 성도의 응답을 대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싱귤래리티(singularity)의 지점, 즉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순간이 되면 인공지능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 시점에는 거의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닐 것이라 예측한다.³¹⁾ 물론 특정한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현재에도 정보를 처리하는 양과 속도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지능의 일부 능력만 부각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실제 인간이 가지는 감정과 종교적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 인간과 같을 수는 없다. 인류가 살고 있는 프락시스는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일이 생기고 변화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이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실존은 같은 종류로 묶일 수 있겠지만 각각의 목소리와 탄원은 분명히 다른 목소리이다. 이배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목소리를 인지하시고 응답하신다. 예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실존에 맞는 응답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들의 목소리를 일반화하여 분류하고 묶어서 이에 맞는 답변을 도출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현재 예배 공동체의 삶 속에 놓여있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기도와 그들을 위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본 장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이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방법으로 회중은 응답의 방법으로 거룩한 교통신이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이다. 기독교인들인 예배를 통해 신앙을 형성하고 또한 자신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야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 배운다. 그런데, 현존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닌 습득된 자료와 연산의 결과로 신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도출한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기독교 예배에 대한 축적된 정보의 부족으로 매주 온전한 주일예배를 생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계시와 응답을 구성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출할 수 있는 예배의 내용 혹은 순서들은 이론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인격적 만남을 통한 신앙의 표현이나 인간이 처한 여러 상황에서 올려 드리는 비탄

30) L. Edward Phillips, “Liturgy and Ethics,” in *Primary Sources of Liturgical Theology*, ed. D. Vogel, 299.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레이 커즈와일/김명남,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파주: 김영사, 2007).

과 청원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들에 대한 긍휼한 사랑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한계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IV.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실제적 활용

1.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영역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기독교 예배에 활용하는 방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예배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풍성한 내용이 함의된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가장 먼저 예배에 활용하는 일은 역사적인 예배에 대한 검색 혹은 다양한 예배 자료들에 대한 검색을 통해 예배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들을 얻는 것이다. 아직은 한국어가 검색의 주 언어가 아니기에 자료들을 찾는다고 하여도 영어 자료를 자동적으로 번역하는 수준으로 답이 도출된다. 예배의 주제에 대한 질문이나 절기의 유래와 다양한 전통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검색하여 실제 예배를 구성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예배에 관련된 신학적 의미와 전통에 대해 세련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에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출된 이 자료들은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ChatGPT에 앞에서 다루었던 *lex orandi, lex credendi*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Lex orandi, lex credendi*"는 라틴어로 "기도의 법은 신앙의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으며, 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형식이 신앙과 신학의 근본적인 표현이라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와 예배의 방식이 그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과 교육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문은 기독교 리듬 지킬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리듬지와 신학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Lex orandi, lex credendi*"는 종종 "예배의 방식이 신앙의 방식이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³²⁾

32) ChatGPT4, "*Lex orandi, lex credendi*의 의미는?," 접속 2023.10.25. <https://chat.openai.com/c/8fa0cf1f-1338-4313-a408-aab33a5b55f4>

물론 위의 답변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liturgical이라는 단어를 리튬지컬로 번역한 것은 아직 영어와 한국어가 상호간 100%의 번역 혹은 소통이 가능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주의해야할 점은 도출된 답이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ChatGPT를 사용해 예배 때 쓸 자료들을 얻는다고 해도 재차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관련 도서를 찾아봄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들을 찾아서 더 깊은 내용을 연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예배 주제에 맞는 찬송이나 찬양을 선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아직은 노래 자체를 재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가사에 맞는 찬송이나 찬양을 선곡하는 일은 가능하다. 늘 부르던 찬송이나 찬양에서 벗어나 새로운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ChatGPT에 현대 예배 스타일로 회개를 위한 찬양을 선곡하라고 입력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 "Just As I Am" (나 그대로임에도)

·작사: Charlotte Elliott, 작곡: William B. Bradbury

·이 찬양은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2. "Create in Me a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작사 & 작곡: Keith Green

·이 곡은 시편 51장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된 곡으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3.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작사: Judson W. Van DeVenter, 작곡: Winfield S. Weeden

·이 찬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4. "Lord, I Need You"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작사 & 작곡: Matt Maher, Jesse Reeves, Kristian Stanfill, Christy Nockels, Daniel Carson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5. "Broken Vessels (Amazing Grace)" (깨진 그릇들 (놀라운 은혜))

·작사 & 작곡: Joel Houston, Jonas Myrin

·이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³³⁾

33) ChatGPT4, "현대 예배 스타일에서 회개와 관련된 찬양 선곡," 접속 2023.10.26. <https://chat>.

물론 위의 찬양들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찬양들이지만 한국어 제목과 간단한 내용까지 검색이 되기에 이 결과를 검색한다면 예배 기획자는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이를 사용해야할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검색은 예배 기획자가 경험한 찬송 혹은 찬양의 범주를 넘어서게 한다. 그렇지만 검색된 찬양을 선택하는 뜻은 예배를 의도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목회자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설교 작성에서의 활용이다. 이는 설교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서 검색을 하거나 선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의 해석에 관한 자료들, 즉 본문에 나타난 헬리어 혹은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검색, 역사적 배경, 주석의 인용 등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서 참조할 수 있다. 그 후에 목회자는 설교의 구조에 관한 결정과 함께 준비된 자료들을 융합하여 자신의 스타일대로 설교를 구성한다. 다른 번역본이나 외국어 성경을 함께 검색하면서 볼 수 있고 해당 구절에 대한 주석을 참조할 수 있다. 주석은 주로 영어로 이루어진 주석들이나 자동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간혹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뜻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목회자가 적절한 단어로 바꾸면 된다. 본 연구는 예배에 대한 주제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 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교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과 목회자의 역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독교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좋은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찰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료들은 예배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기획자(주로 목회자가 되겠지만)에 의해 도출된다. 다시 말하자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료들은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검색되고 선택되며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예배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우선되는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기능이 현재는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의 방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림절 절기에 맞는 4주 간의 예배를 구성하라는 단순한 명령보다는 대림절기에 대한 의미와 역사에 대한 질문, 대림절 4주의 대표 주제에 대한 질문, 대림절에 불러야 할 찬송에 대한 질문, 당 해년 대림절에 맞는 성서 정과 말씀 표와 내용에 대한 질문, 대림절 장식에 대한 질문 등 자세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먼저 축적한다. 그 후

자료들을 선택하고 회중들을 고려하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아무리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예배는 예배 기획자로서 목회자와 이 사역에 관련된 여러 교인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위원회에서 협업을 하는 일인데, 그 협업의 대상 중 하나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과정을 미루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슈는 바로 예배를 기획하는 목회자의 역할이다. 예배를 기획한다는 것은 설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전체 주제에 맞게 순서를 맞추고 계시와 응답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예문과 음악을 선택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회중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서 설교로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언어적 요소 외 비언어적 요소들, 예를 들면 성례전을 거행하거나 혹은 예배를 위한 공간 활용 및 장식(이것을 실제 목회자가 하지 않더라도 선택과 결정은 목회자의 몫이다)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목회자는 회중의 이해와 감정 안에서 계시를 드러내는 일과 회중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을 기획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결정과 고려를 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완성된 예배를 직접 실행을 해야 한다.

최근의 몇 연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을 언급하면서 고도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이 많은 부분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한다. 일부 학자들은 로봇이 예배를 집례하는 시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³⁴⁾ 필자 역시 고도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탑재된 인간형 로봇의 등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봇에게 예배의 집례를 맡기는 것은 예배에서 목회자를 단순히 예배를 거행하는 기능적인 역할로만 인식할 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토마스 오텐은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에 대해 “정식으로 부름받고, 준비과정을 거치며, 심사를 받아 안수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체 백성(Laos)을 대신하여 목회하도록 위임 받음”³⁵⁾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즉, 목회라는 직무를 전담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준비 과정을 거쳤고 모든 보편 교회의 전통에서 성직자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직무의 기능적 관점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전통과 현재까지 계승되어 온 사도적 전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목회자는 전통적으로 성서 시대부터 내려온 안수식을 통해 그 책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공지능의 로봇이 목회자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봇은 스스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고 그 어떤 전통도 로봇에게 안수식을 통해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적이 없다. 설사 인간도 소명을 받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며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오텐은 이러한 목회자를 만들어가고 공적으로 위임하는 안수의 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4) 황병준, 박도훈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 823-826.

35) 토마스 C. 오텐/이기춘 역, 『목회신학: 목회의 본질』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63.

안수식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받아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후계자들에게 물려준 영적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곧 대두되어 지속되어 왔다. 안수를 주는 성직자들이 개념상 사도들의 후계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에 전제되는 은사를 내려 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도록 기대되었다.. 안수받은 사람은,.. 역사적인 전체 교회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그가 사명을 받았음을 즐거이 상기할 수 있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³⁶⁾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에 의한 예배의 집례는 성서적 근거와 초기 기독교부터 생성되었던 교회의 전통을 모두 뒤집는 것뿐 아니라 목회직을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교회의 사도적 계승을 생각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다. 과학기술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기술은 현대의 바벨이 될 수 있음을 숙고해야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독교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따라 믿음과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예배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주된 사용은 자료를 찾아 생성하는 일이며, 찬양을 선곡하고 설교의 자료를 검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도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예배 집례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는데, 이는 사도직이라는 신학적 전통과 계승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목회와 예배 집례는 너무 기능적으로만 바라 본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초기 기독교부터 전승되어 온 사도적 계승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기기에 필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넘어서는 예가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관된 언어들을 연결하여 응용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빠른 연산 속도와 방대한 양의 저장된 자료를 통해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닌 감정이나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

36) *Ibid.*, 68-69.

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과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성하게 하고 바른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예배 후에 세상으로 파송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친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독교 예배를 구성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예배 기획자는 준비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활용하는 예배 기획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지하고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예배의 자료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얻은 풍성한 자료들을 잘 활용하여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동력이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사랑이 실현된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기주신의 행위가 사랑으로 구현되며 이를 경험한 인간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도 형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러한 기독교 예배를 만들거나 직접 집행할 수는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자 계시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감사이자 응답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구본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서울: 어크로스출판그룹, 2020.
- 김기석. 『신학자의 과학 산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김동환.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 『활천』 838(2023), 20-26.
-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2018), 153-182.
- _____.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2016), 159-184.
- 김재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서울: 동아시아, 2017.
- 나인선.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적 경험으로 자기희생의 윤리적 가능성 연구.” 『신학과 실천』 58-61.
- 단 샬리어스/김운용 역. 『거룩한 예배: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 _____/ 김운용 역. 『거룩한 예배: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0.

- 레이 커즈와일/김명남,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파주: 김영사, 2007.
- 류삼준. “인공지능 시대, 교회교육의 과제: 아스머(Richard R. Osmer)의 실천신학의 네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신학과 실천」 86(2023), 613-641.
-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146-196.
- 변순용, 송선영. 『로봇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어문학사, 2015.
- 손화철. “ChatGPT 열풍과 한국교회.” 「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 5(2023), 23-34.
- 스튜어드 러셀, 피터 노빅/류광 역. 『인공지능 1』. 파주: 제이펍, 2016.
- 안종배. 『챗GPT-4 인공지능 미래세상』. 서울: 광문각, 2023.
-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 교육의 방향성 제고” 「신학과 실천」 81(2022), 619-643.
- 유발 하라리/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파주: 김영사, 2017.
- 이승우. “AI 게임체인저 ‘챗GPT’ 돌풍.” 「한국경제」. (2023.01.26.).
- 제임스 F. 화이트/김운용 역.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 중심의 선물』.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 장보철. “인공지능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59(2018), 247-267.
- 지용근. “챗GPT에 대한 목회자 인식과 사용 실태.” 「활천」 838(2023), 34-37.
- _____/ 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입문』.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 채윤정. “GPT-4 사람 수준의 능력 보여줘... 할루시네이션 문제 여전, 미래 전망 대응 못 해.” 「메트로신문」. (2023.10.19.).
- ChatGPT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배와 예식서를 기반한 주일예배 순서 구성 요청.” 접속 2023.10.20.
<https://chat.openai.com/c/5febbcd5-dad7-4f6a-a821-ab75a6d46faf>.
- _____. “하나님을 믿는가?” 접속 2023.10.23.
<https://chat.openai.com/c/22644bff-0be2-456c-844d-cc395437e16c>.
- _____. “Lex orandi, lex credendi의 의미는?” 접속 2023.10.25.
<https://chat.openai.com/c/8fa0cf1f-1338-4313-a408-aab33a5b55f4>.
- _____. “현대 예배 스타일에서 회개와 관련된 찬양 선곡.” 접속 2023.10.26.
<https://chat.openai.com/c/606b2331-3aee-4a31-a6f3-76b607f628be>.
- 클라우드 슈밥/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테레사 베르거/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토마스 C. 오펜/이기춘 역. 『목회신학: 목회의 본질』.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프레드 크래독/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서울: IVP, 2017.

- 황병준, 박도훈.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2020), 811-837.
- Phillips, L. Edward. “Liturgy and Ethics.” in *Primary Sources of Liturgical Theology*. Dwight W. Vogel, ed., 297-299.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 Johnson, Maxwell. “Liturgy and Theology.” in *Liturgy in Dialogue: Essays in Memory of Ronald Jasper*. Paul Bradshaw and Brian Spinks, eds., 202-225.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7.
- Vogel, Dwight W., ed. *Primary Sources of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논 찬 1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종 현 박사

(계명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1. 내용 요약

김형락 박사는 현재 우리사회 가운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인 ChatGPT에 대해 설교영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 예배영역에서는 아직 연구사례가 많지 않음을 주목하며 이 연구를 시작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 대한 초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독교 예배에서의 활용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장인 서론에서 ChatGPT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술하고 2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독교의 평가를 고찰함으로써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ChatGPT에 대한 배경 지식과 본 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공한다.

연구자는 단지 검색하는 정도의 정보가 아닌 거대한 자료들을 선택 편집하여 질문자의 물음에 맞게 답변을 생성하는 ChatGPT의 유용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대한 정확성의 부족함을 논한다, 실제로 연구자는 3장에서 ChatGPT를 통해 연구자의 교단 예배 예식서 형식에 맞게 예배문을 작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해 ChatGPT가 만들어내는 오류들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현재까지는 ChatGPT가 온전한 주일예배를 구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독교 예배에 대한 공통된 이해인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가진 양방향성에 주목하며, 연구자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ChatGPT 활용에 대한 예배 신학적 고찰을 이어간다. 첫째,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응답을 반영할 수 있는가?”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성한 예배를 통해 회중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당면한 선교적, 윤리적 과제들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연구자는 우선 비록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ChatGPT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지함은 단순한 정의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이점에서 연구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요한 예배의 두 요소인 말씀과 성례전에 있어서 ChatGPT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응답은 그들이 처한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부터 나오며 주목한다. 예를 들어 고통은 인간의 처절한 실존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이해하고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음을 논한다. 세 번째 질문에 관련하여서도 정보를 처리하는 양과 속도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ChatGPT 능력은 분명하지만,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간 사회의 문제와 윤리적 과제들에 대해 정보가 아닌 종교적 감정과 신앙을 과연 ChatGPT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연구자는 예배에서 ChatGPT사용 방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견지하면서, 4장에서 예배에서 Chat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료를 찾거나, 찬송가 선곡, 그리고 설교자료 검색 등 몇 가지 경우들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는 미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며 예배를 집행 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결론에서 앞선 연구들을 정리하며 연구자는 ChatGPT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한다. 특별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땅을 향한 선교적 소명을 가르치고 이를 형성하는 자리로서, 예배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구를 끝맺는다.

2. 공헌

1) 2022년 11월말 OpenAI에 출시된 ChatGPT는 연구자의 언급처럼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검색정도가 아닌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인간과 같이 대화가 가능한 ChatGPT는 교육, 의료, 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학분야에서도 연구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예배 영역에서 챗GPT에 관련 연구는 드물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예배에서의 ChatGPT의 활용을 다룬 김형락 박사의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배에서 ChatGPT 사용에 대해 연구자가 예배 신학적 접근을 통해 ChatGPT 사용점에 대해 고찰하는 점이 중요한 공헌이라 생각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고 바른 삶이 형성된다 (lex orandi, lex credendi, lex vivendi)는 예배 신학적 이해에 비추어 ChatGPT 활용을 숙고한 점은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예배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 비판적인 성찰을 위한 적절한 신학적 기준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3) 연구자는 기존 ChatGPT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예배 안에서 ChatGPT활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도움을 준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예에 있어서 연구자는 최신 버전인 ChatGPT4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ChatGPT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다.

3. 제언 및 질의

1) 연구자는 국내 인공지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잘 정리하고 이를 소개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존 연구물에 있어 국내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기존 국내 연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닌, 해외 연구들도 함께 소개했으면 어땠을까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배에서 ChatGPT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연구들이나 사례들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2) 연구자는 예배에 있어서 ChatGPT의 사용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가능성을 처음부터 강조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 역시 연구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ChatGPT에 대한 제한적인 강조 때문인지, 실제로 예배에서의 활용 부분은 많은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나누어 주셨으면 한다.

끝으로 예배에서 ChatGPT에 대한 실제적 활용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주신 김형락 박 사님의 학문적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논 찬 2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오 석 진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포스트모던’이나 ‘4차 산업혁명’ 등의 용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양한 문명의 이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류는 이전보다 훨씬 능숙하게 여러 낯선 편리함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기술의 발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 및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었고, 이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메타버스 (metaverse)’라는 개념을 통해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맞본 교회는, 이와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체적 신앙생활이 양산한 소위 ‘플로팅 크리스천 (Floating Christian)¹⁾’ 등의 우려를 양손에 쥔 채 급변하는 물결 속을 유영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ChatGPT를 통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 및 보급은 교회, 특히 이를 설교의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회자 그룹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형락 교수는 자신의 논문²⁾을 통해 이러한 AI의 활용을 비단 설교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예배 전체로 확장 시켜서 양자간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다.

논자는 먼저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선행 연구를 언급한 후, AI 시대의 도래에

1)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났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3), 32.

따른 기독교계의 전반적 평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서 기독교 예배의 의미와 예배신학을 거론한 다음, 여기에 AI의 개념을 접목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기독교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로 인한 새로운 가능성 및 ChatGPT와 예배 기획자로서 목회자와의 발전적 관계에 대해 논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논자가 인용하고 있는 “챗GPT에 대한 목회자 인식과 사용 실태”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ChatGPT로 대변되는 AI 기술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해 본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는 많은 유의점을 시사한다. 아마도 한 주의 단위를 넘어 매일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창조해내야 하는 설교자로서의 역할과 이에 따른 일종의 부담감이 이러한 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니즈(needs)를 촉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설교 본문에 대한 아이디어와 배경 지식의 습득, 기존 주석 자료의 활용 등을 위한 용도로 ChatGPT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주체자의 의존도 상승이 불러올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 역시 주의해야 함은 모두가 통감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논자가 지적하듯,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알고리즘만이 제공하는 자료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ChatGPT를 통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궁극적인 정답 도출을 기대하기란 아직까지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딜레마는, 인공지능으로서는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사의 갖가지 이슈 및 인간 존재 본연의 깊은 내면에 대한 방어적 여백을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곧 주체자의 의도와 의지적 행동이 결과값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적 원리를 정당화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양심과 도덕적 가치에 의한 최종 결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배경 삼아 논자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예배의 영역에서 AI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예배 구성요로서의 설교가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 및 입장에 대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예배 자체는 공동의 제의적 행위로서의 집단의 신앙고백이자 몸 된 교회에 소속된 회중의 믿음으로부터 연유하는 합일화 된 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볼 때 예배와 관련한 여러 신학적 자료, 혹은 역사 속에서 누적된 예배의 흔적을 입력하여 단일화 된 결과값을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예배가 갖는 그 본래의 정신 때문일 것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구약 시대의 제사로부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재정립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배는 특정한 공식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²⁾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담지하고 있는 예배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더 좋은 예배를 향한 교회의

2) 다만, 성경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참된 예배의 정신과 방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3-24, 개역개정)

지속적인 고민 및 예배 갱신을 견인한 주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토록 다양한 예배 전통과 맞물려 급변하는 세상의 정서와 공동체의 이슈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예배 모델을, 과거지향성을 띤 인공지능의 통계적 접근 속에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여러 신학자들의 예배 정의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가 견지한 자유로운 예배 형식을 바탕으로 논자가 주장하는 바도 이러한 입장에 부합한다. 즉, 예배 안에서 활용되는 ChatGPT에 대해 성례화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고통과 유한성 등을 포함한 회중의 응답, 예배자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적으로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 행함과 실천 등의 보다 영적이고 주관적인 배경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신학적 입장을 논자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채 예배 내에서 영민하게 활용할 수 있는 ChatGPT의 사례로 논자는 역사적인 팩트(fact)에 기반한 예배 관련 자료 리서치, 예배의 분위기나 각 절기에 적합한 찬양 선곡,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의 활용 등을 제안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보다 객관화된 근거에 입각한 사실과 역사에 기반한 자료들이 선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루는 주체자, 즉 목회자의 이해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ChatGPT의 시스템에서 최상의 결과값을 내려면 주입해야 하는 질문의 퀄리티(quality)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예배나 설교와 결부시켜서 가장 양질의 도움 및 활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탁월한 이해 및 세부적인 기술을 겸비한 사용자, 즉 목회자의 자질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결론에 다다른다. 마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그것을 쥔 자의 어떠함에 따라 용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할 이슈로 예배를 기획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꼽으면서,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전승되어 온 사도적 계승을 위협함과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AI 로봇의 예배 집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함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을 통해 다시금 예배의 현장에서 스스로 현현(顯現)하시는 성례적 신비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최고의 은총이자 계시이며, 예배자로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자 응답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되는 여러 키워드가 그다지 낯설진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예배와 결부되면 여전히 어색한 기류를 형성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느낌은 아마도 지난 오랜 기독교 역사, 특별히 당대의 컨텍스트를 아우르며 지속적으로 예배를 갱신해 온 교회의 노력 가운데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일종의 과도기적 성장통이나 새로움에 대한 적응기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발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더 빠른 변화와 성장 가

운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어떤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지금의 시대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기술적 도전들을 예배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적절히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시대 전까지 대부분의 교회학교에서 마치 다음 세대의 주적(主敵)과도 같이 여겨지던 존재는 다름 아닌 유튜브(YouTube)였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도리어 유튜브를 통해 공동체가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것은 실제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선용(善用)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자(사용자)의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hatGPT와 AI를 통해 실용적/기능적인 차원에서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서서, 다양한 영적/도덕적/윤리적 가치들과 더불어 예배 안에서 보다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교회는 지닌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아야 할 정신(예배)이 변화무쌍한 그릇(기술과 문화) 속에 잘 담겨져서 동시대의 몸 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요, 영광의 도구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열쇠(key)는 문을 여는 자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본 논문이 예배 안에서 다루어지는 ChatGPT를 통한 AI의 활용을 목회자의 관점에서 신중히 다루었다면, 향후 이어질 연구에서는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 구성원 전체가 이 이슈에 함께 접근하여 다각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오픈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또한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만한 주제일 것이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측면으로 다루어지는 인공지능이야말로 예배의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맞물려 더 본질적인 고민을 던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용기 있게 열어주시며 모두로 하여금 피해갈 수 없는 동시대 예배의 산 고민으로 이끌어주신 김형락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논 찬 3

“ChatGPT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조 지 훈 박사

(한세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1. 논문의 요지

전 세계적으로 ChatGPT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와 관련해 신학계에서도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기독교 예배에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사건이고, 이를 통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인데 ChatGPT는 이런 정체성 형성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방대한 자료 저장 능력과 분석 능력을 활용한다면 예배와 설교 사역에 많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하는 예배기획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 의한 예배 집례에 대해 연구자는 “사도직이라는 신학적 전통과 계승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목회와 예배 집례는 너무 기능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라고 규정한다. 이런 시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전승되어온 사도적 계승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인 것이다.

2. 논문의 공헌

본 논문이 공헌한 바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본 논문은 ChatGPT와 관련된 이전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② ChatGPT에 대한 함의들을 잘 지적했고 동시에 ChatGPT가 가진 한계 역시 잘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이 설교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는 반면에 기독교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개진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공헌이다.

④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배와 관련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신학적인 논의를 개진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3. 질문

① 연구자에 의하면 ChatGPT에서 도출된 결과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차 인터넷을 통한하거나 관련 도서를 찾아봄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ChatGPT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인터넷이나 관련 도서를 통해 찾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② 현재 ChatGPT는 영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어가 불편한 목회자들이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 13 발표

설교적 비평(homiletical criticism)과 설교적 상상력 (homiletical imagination):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

구 아 름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정체성과 두려움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가졌던 두려움 중 하나는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이었다.¹⁾ 기독교 거대 서사—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는 기독교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설교들은 이 거대 서사 안에서 성경, 믿음, 그리고 복음을 해석해 왔다.²⁾ 기독교의 거대 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과 재진술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과 구원의 행위에 대해 기억하고 희망하게 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의 윤리적 속성들을 따라 살아가게 했다.³⁾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언약사와 구원사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거대서사였고 그러한 경향은 언약과 구원의 행위가 이방인에게 미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서사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그 특징중의 하나로 삼는 포스트

1) Jean 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xxiii.

2)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설교한국』 15 (2022): 13.

3)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4), 26.

모던의 이해 방식은 거대 서사를 받아들여오는 기독교 전통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더불어 포스트모던 지식은 차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및 적용 능력을 요구했다. 즉, 확립된 지식체계에서 벗어나 불안정성(instability)에 대해 탐색 하고 명확하고 단선적으로 설명 가능한 서사가 아닌 역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⁴⁾ 포스트모던 접근이 진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관련하여 이는 공동체의 경계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종종 배타적인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이 거대서사에 맞지 않는 경험이나 해석들은 특정 지적 전통 혹은 특정 시각을—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하찮게 만들거나, 주변화 하거나, 혹은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⁵⁾ 이와 관련하여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언급하듯이, 인종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여성 운동의 부상 등 다양한 억압과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해 씨름해 왔고,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점점 절망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비전이 아닌 긍정적 비전을 주려할 때, 우리는 끝나지 않는 더 다양한 측면의 도전들을 보게 된다.⁶⁾ 이러한 긴장과 불안함은 혁명으로 불리는 생성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예술, 언론, 윤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복잡함과 두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위한 새로운 분투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설교자들은 생성 AI가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수행해온 설교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노력과 비교할 때 소위 효율적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설교자의 정체성과 역할이 흐려지는 두려움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생성 AI의 설교가 불특정 다수의 회중에게 말씀의 예전으로 인식되고 수행된다면, 설교자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와 상황의 복잡성과 특수성은 어떻게 고려 될 수 있을 것인가? 보편성과 다양성 사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총체화 되거나, 이분법 적이거나, 혹은 배타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생성 AI 와 더불어 기독교 영성을 설교에서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생성 AI 시대에 설교자들이 지녀야 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평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생성 AI의 단점을 찾고 설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적 독특성을 찾기위한 방식으로 설교자의 정체성과 소명을 배타적으로 조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긴장과 낯설음 안에서 생겨나는 창조적인 시너지를 수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설교적 비평과 설교적 상상력을 고찰한다. 설교적 비평은 문자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풍성한 방식으로 대화하며 설교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4)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54.

5) J. Richard Middleton and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71.

6)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1990), 31.

통찰을 허락할 것이다. 설교적 상상력은 이러한 설교적 비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설교자가 지니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재 발견하게 할 것이다. 두번째로 설교적 비평과 상상력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설교에 가져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의 감각을 배양하기 위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 볼 것이다. 듣기와 인식적 정의의 실천은 현대를 해석의 렌즈로 삼는 것의 유익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성서읽기에서 소외되고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오늘날의 상황과 공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허락할 것이다. 이 윤리적 실천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설교의 환경 속에서 설교자의 즉흥성(improvisation/ variation)과 창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숙고하게 할 것이다.

생성 AI 시대의 설교자는 자신을 점검할 줄 알고, 변화에 열려 있고, 무엇이 어떤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창조성을 지니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성 AI시대에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직면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그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회복 시키고 또 발전시켜야 할 부르심에 관한 것이다.

II. 설교적 비평(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⁷⁾

생성 AI가 제공할 수 있는 풍성한 정보는 적절한 예화나 기준에 쓰여진 설교 내용이나 정보를 제시 하는 등 설교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설교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설교는 다양한 예화나 그동안 쓰여온 관점이나 해석 방식으로만 형성되기 어렵다. 설교의 중요한 역할이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세상 안에 있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본문에서 오늘의 특정한 상황, 개인, 혹은 공동체에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복잡한 희망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지 않고 설교를 작성하는 것은 설교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경륜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교자가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신학적 감각(theological sense)’ 혹은 ‘영적 감각(spiritual sense)’을 포함한다.⁸⁾ 이 감각의 중요성은 설교자와 성령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루돌프 보렌 (Rudolf Bohren)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설교자의 역할과 성령과

7) 설교 비평은 교육적, 전문적, 학문적 세가지 유형이 있다. 교육적 유형은 설교 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한 비평으로 설교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에 대한 이론적 비평이다. 전문적 유형은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매주 실제적인 신학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학문적 유형은 모범적인 실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교 이론에 대한 함의를 발견하기 위해 수행되는 비평적 연구이다. Charles L. Bartow, "Homiletical (Theological) Criticism,"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 by Paul Scott Wilson, 154-57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154.

8) Paul Scott Wilson, *God 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16.

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성령이 사건을 시작하지만, 그 성취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⁹⁾ 즉, 성령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특정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명할 것을 허락하시는데, 보렌은 이러한 설교자의 역할이 성령의 케노시스(kenosis), 즉, 자기 비움과 권리 위임을 통한 사역이라고 이해한다.¹⁰⁾ 결과적으로 보렌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설교자의 해석 행위에 대한 수용을 통한 상호 개방의 상태에서 설교가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교자는 설교의 적극적인 주체로써 성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설교를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설교적 비평은 수사학적 규범이나 수행적 규범을 무시하지 않는 신학적/영적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월슨에 따르면 역사비평, 신학비평, 설교적 비평의 세 가지의 비평 방식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어우러지는 것이 설교적 비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세가지가 별도의 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즉, 성서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 설교 비평은 상상력을 매개로 본문, 하나님, 그리고 회중의 간극을 잇는 중요한 실천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다의적인 성경 읽기인 사중 해석(fourfold exegesis)—역사적(historical), 알레고리적(allegorical), 도덕적(moral), 예언적(prophetic)—은 현대는 많이 퇴색된 고대와 중세 교회의 성경 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설교적 비평을 위해 숙고할만한 기초가 되는 좋은 통찰들을 제시한다.¹²⁾

1. 문자적 감각

문자적 감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서를 분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읽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월슨은 역사에 대한 분석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는 성경 본문을 성도들에게 되살아 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이를 위해 성서의 지리와 정황등을 살피고 각 책이 쓰인 상황과 본문이 쓰인 장소나 위치 등을 살필수 있으며 이것들을 생생하게 통합하여 그려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이다.¹³⁾ 본문의 등장인물이 가진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는데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혹은 뒤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주석의 한 형태가 된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다양한 성경 비평학이 등장하고 다양한 과학적 탐구와 문학 비평들을 통해 해석자들은 본문을 읽

9) Rudolf Bohren, *Predigtlehr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83.

10) Bohren, *Predigtlehre*, 233.

11) Wilson, *God Sense*, 87.

12) Wilson, *God Sense*, 12.

13) Wilson, *God Sense*, 36.

는 다양한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문을 그저 다양하게 읽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저 의미를 찾는 행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 성서의 역사적인 감각과 더불어 신학적인 감각을 지니고 본문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차일즈는 (B. S. Childs) 성서의 문자적 감각 안에 신학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주석을 시도했다.¹⁴⁾ 차일즈는 또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일방향적이고 선형적인 이해가 아니라 두 책의 다양한 증언들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함께 수용하려 했다. 차일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적 역사와 외적 차원을 모두 반영하며, 신과 인간의 선택을 모두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오가며, 전경과 배경 둘 다의 관점을 지닌다.¹⁵⁾ 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해석 경향인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해석학등이 지니는 소외와 억압에 관한 질문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억압자와 억압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고, 둘 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권력과 억압을 식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닌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¹⁶⁾ 즉, 사회적인 쟁점(수평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복음의 언어로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러한 식별은 월슨의 고유한 신학적 그리고 설교적 문법인 문제와 은혜의 역동성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일하심 안에서 해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알레고리적 감각

고대 해석자들은 본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성경 구절은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 다른 성경 구절로 본문 해석했으며, 본문을 문자적 또는 단순한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반대했고 오히려 영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고대 해석적 관점을 넘어 알레고리는 폭넓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여러가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 알레고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알레고리를 유비와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다. 알레고리를 은유로 이해한다는 것은 본문과 오늘날의 회중의 삶을 연결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식이다. 월슨이 자신의 네페이지 설교 방법에서 성서와 오늘날을 잇는 방식이기도 하다.¹⁸⁾ 즉, 본문에서 나타난 관심을 설교의 관심과 연결하는 것이

14)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99.

15)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100-101.

16) Wilson, *God Sense*, 71.

17) Andrew Louth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Old Testament I*, 하성수 역,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I』 (서울: 분도출판사, 2008), 23-26.

18)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36-50절에서 ‘그 여자는 죄인이다’를 ‘우리는 죄인이다’로, ‘그녀는 사회적 지위가 없다’를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다’로 그리고 ‘그녀는 용서를 많이 받았다’를 ‘우리는 용서를 많이 받았다’로 연결 시킬 수 있다.¹⁹⁾ 알레고리를 유비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본문들간의 연결을 위해 연속성을 밝힘으로써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이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지닌다고 보고 설교 본문과 공명하는 다른 본문을 가져옴으로써, 산드라 슈나이더즈(Sandra Schneiders)가 언급하듯이, 합의/협상적 (accommodation)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²⁰⁾ 이렇듯 알레고리적 감각은 일대일의 대응을 통해서 성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큰 성서 읽기의 방식이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적절한 연결들을 위해 설교자는 본문과 세상의 공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3. 도덕적 감각

성경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성서의 문자적 감각이 본문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게 하고 해석자의 지나친 상상력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성경의 도덕적 감각은 삶에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윌슨은 고대와 중세의 도덕적 감각을 통한 성서를 읽기의 방식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해석에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²¹⁾ 즉, 도덕적 감각에 대한 적용은 명령이 아닌 초대로 이해되며, ‘해야 만 하는 일’이 아닌 ‘성령의 함께 하심에 의해 가능한 일’로 ‘정답’이 아닌 ‘권유’로 전환 될 수 있다.²²⁾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강력한 통합은 루터의 탐 체험과도 말접하게 관련이 있다.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justification by faith)을 이해하고자 씨름 했을 때, 그는 밤낮으로 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하신다는 공의임을 깨달았을 때 루터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고백한다.²³⁾ 즉, 기독교인들은 금욕적이고 자선을

(Nashville, TN: Abingdon, 2018).

19) Wilson, *God Sense*, 143.

20) Sandra Marie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2nd ed.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9), 163.

21) Wilson, *God Sense*, 95.

22) Wilson, *God Sense*, 108-109.

23) Roland Herbert Bainton,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65.

베푸는 행위들로 자기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대가 없이 얻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루터에게 선물이었다. 인간의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구원의 필요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증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⁴⁾ 루터의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감각이 본문에서 특정하게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교훈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²⁵⁾

설교자는 윤리적으로 절대적인 답을 제시 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풍성함 속으로 설교자 자신을 포함한 본문의 참여자들을 초대할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은 환경파괴, 약물중독, 인종차별, 실업 등과 같은 오늘날의 회중이 직면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본문으로부터 그것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²⁶⁾ 성경의 그때와 오늘날이 지닌 문화 사회 정치 가치관 등을 포함한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오늘의 다양한 위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들과의 공명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음의 언어로 가져올 수 있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모든 긴장 안에서 기어코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대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다.

4. 예언적 감각

예언적 감각은 종말론적인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종말론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궁극적 소망이자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시각은 현재의 삶과 분리되어 이해되지 않는다. 데이비드 버트릭(David Buttrick)이 언급한 바와 같이 종말론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미래이다.²⁷⁾ 기독교의 결말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면 설교자가 기독교의 삶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일정부분 명확해 진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통치는 지금 여기와 아직 아님의 긴장 가운데 있으나 확실함 속에 선포될 수 있다.²⁸⁾ 셸리 거스리(Shirley Guthrie)는 종말론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거스리는 하늘이나 지옥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세부사항들에 집착하는 것보

24) Otis Carl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284, 286.

25) Wilson, *God Sense*, 99.

26) Wilson, *God Sense*, 105-106.

27) David Buttrick, *Preaching the New and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132.

28) Wilson, *God Sense*, 156.

다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미래 이기에 안전하다고 여겨졌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스리는 성경의 저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여기에 즐겁고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²⁹⁾ 또한, 거스리는 미래에 대한 성경적 언어는 인간 경험에 기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낙원(눅 23:43)의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라고 제안한다.³⁰⁾ 즉, 문자적 해석보다 상태적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추천한다. 예를 들어, 플레밍 러틀리지 (Fleming Rutledge) 역시 심연(aybss)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현실이 된 영역”이라고 해석한다.³¹⁾ 러틀리지에게 심연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는 인간의 죄의 정욕으로 인한 속박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거스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관심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 임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즉, 희망에 대한 성경의 세부사항은 수시로 변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책에서 상충되고 통합되기 어려워 보이기까지 하는 지점들을 발견한다.³²⁾ 그러나 그 모든 끝에 그리스도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특히 기독교의 종말론을 다루는 말씀들 중에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죄인들 소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나타난 신실하심의 약속과 구원 안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³³⁾ 내려오신 그리스도는 다시 올라 가셨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마치 창조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처럼 그분의 다 이루심에 만족하시면서 수 많은 아픔과 찢기 심 이후의 휴식을 취하셨을 것이다.³⁴⁾ 인간의 모든 감정, 약함, 취약함, 한계 등을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온 예수의 삶, 버려지고, 외면받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던 삶, 그리고 기어이 당신의 모든것을 찢고, 부수고, 또 나누어 당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넘쳐 흐르도록 부어 놓았던 죽음 그리고 다시 삶이 있다. 우리는 모든것을 쏟아 부어 사랑하시고 정의를 세우신 삶과 죽음의 걸음 이후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마침내 “앉으신” 그분의 휴식을 상상할 수 있

29) Shirley C. Guthrie, *Christian Doctrine, 50th Anniversary E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18), 382.

30) Guthrie, *Christian Doctrine*, 383.

31) Fleming Rutledge, *The Crucifixion: Understand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15), 417.

32) Guthrie, *Christian Doctrine*, 385.

33) Buttrick, *Preaching the New and Now*, 61-62.

34) Trevor Hart, *Confessing and Believing: The Apostles' Creed as Script for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22), 151.

다. 이제 그 보좌에 앉은 이는 그 권위와 위엄을 마음껏 드러내신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권위와 위엄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영원히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속히 완성하실 것이다.

현대의 역사에서 교회는 이 마지막때에 대한 선포를 더 실제적이고 확장된 비전으로 제시할 도전에 직면한다. 정의, 평등, 평화, 환경 등의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를 종말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³⁵⁾ 에스겔 37장12-14절의 말씀으로 설교된 “너의 희망을 붙들라(Hold on Your Hope)”라는 테레사 프라이 브라운(Teresa Fry Brown)의 설교는 현실의 절망과 상실 그리고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 희망이 어떻게 이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대한 그려 볼 수 있게 해 주는 (envisioning)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끔찍한 예측이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커피 머신 주변을 가득 메우고, 대학 복도에 울려 퍼지고, 교회 주차장을 떠돌고, 정치 권력의 전당에 정기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신앙은 마구자비로 흔들립니다.

너무 많은 꿈이 드라마에 의해 연기됩니다.

너무 많은 사역의 순간이 광기에 의해 놓쳐집니다.

너무 많은 할렐루야가 증오에 의해 중단됩니다.

너무 많은 신념이 무뚝뚝함으로 인해 타격을 입습니다.

너무 많은 현실이 분노에 의해 망가집니다.

너무 많은 변명이 적개심에 의해 메아리칩니다.

일요일 아침 신자들이 말하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은 월요일에 휴가를 가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을 때만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나요?

...

희망은 그녀의 친구들의 작은 도움만으로 죽었습니다.

제 성스러운 상상 속에서 예루살렘 뉴스나 USA 투데이 또는 뉴욕 타임즈에 호프의 부고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부고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희망을 버려지고 간과되고 폐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되고 계곡의 모든 파편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35) Wilson, *God Sense*, 159.

니다.

뼈는 뼈대가 되어 시체(carcases)가 되고 시체는 몸(bodies)이 되고,
모든 부분이 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살과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뒤덮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것이 화해하고 회
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보기에 잃어버렸고 죽었고 미래가 없는 것을 화해시키셨습니다.

...

하나님은 희망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약속, 권력, 또는 지위가 아닙니다.

희망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닙니다.

희망은 신용카드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소망의 죽음을 승리로 삼으 셧
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만하면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희망을 붙잡으십시오.³⁶⁾

이와 같이 신학적/영적 감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은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
는 하나님 혹은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설교의 참여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III. 설교적 상상력 (homiletical imagination)

설교적 비평은 설교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신학적, 목회적, 윤리적
응답”의 측면에서 성경과 오늘날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기 위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³⁷⁾ 즉 윌슨이 제안하는 설교적 비평은 현대 설

36) Teresa L. Fry Brown, *Weary Throats and New Songs: Black Women Proclaiming
God's Wor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144-55.

37) Wilson, *God Sense*, 12.

교가 교회 읽기 전통을 회복하고 오늘의 관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중심의 읽기의 풍부함을 발견해 나가는데 기여한다. 찰스 바토우(Charles L. Bartow)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설교자를 포함한 듣는 이들의 순종은 의지가 아니라 불타는 상상력(a fired imagination)이라고 언급한다.³⁸⁾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는 급한 바람소리와 불처럼 갈라지는 혀같은 성령이 모인 이들에게 임한 사건은 비유로 이해된다. 즉, 비유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해석을 더한 것으로 신약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현대적인 의미로 채우면서 설교자를 포함하여 설교 참여자들에 의해 상상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⁹⁾

설교자의 즉흥성과 창의성은 풍부한 상상력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이미지와 하며 새로운 통찰력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설교에서 상상력을 사용하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순수한 공상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은 인간 정신의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뜻이다.⁴¹⁾ 19세기에 설교학자들은 상상력을 설교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20세기 말 해방신학은 설교학자들이 복음의 포용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계 공동체를 재상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상력의 창조적 역할을 증폭시켰다.⁴²⁾ 토마스 트뢰거(Thomas H. Troeger)는 세가지의 상상력을 제시한다: 1) 설교자가 청중이 자신의 관심사를 넘어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지구라는 더 큰 세계로 마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적 상상력; 2) 의도적으로 성령의 예상치 못한 신선한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성경과 전통,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즉흥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식별하는 비전적 상상력; 3) 회중속에 살아 있는 성경, 상징, 종교적 관습의 세계를 활용하여 기억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전통적 상상력이다.⁴³⁾ 이러한 상상력의 지평들은 앞에서 언급한 설교적 비평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며 상호 연관됨으로 모든 사람을 더 포용하고, 어떤 이미지들이 빠져 있는지 묻고, 다양한 본문 비평과 역사 비평적 도구를 사용하여 시중한 학술 작업을 통해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양분을 공급 할 수 있다.⁴⁴⁾

38) Bartow, "Homiletical (Theological) Criticism," 154.

39) Bartow, "Homiletical (Theological) Criticism," 154.

40) Thomas H.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 by Paul Scott Wilson, 191-92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191.

41)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1-92.

42)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2.

43)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2.

44)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2.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에는 감각의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에 의해 목소리, 청각, 마주 봄, 공감각적인 인간의 말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⁴⁵⁾ 로버트 젠슨 (Robert Jenson)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수 많은 질문들 중 항상 해야 하는 질문이 본문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⁴⁶⁾ 월슨 역시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읽기 중의 하나로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혹은 하나님이 이 본문의 배후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강조한다.⁴⁷⁾ 이렇게 설교자가 신학적 감각을 가지고 성서를 읽을 때, 상상력은 신학적 읽기에 생동감을 줄 수 있고, 회중이 설교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월슨은 신학적 상상력의 힘을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한 자신의 설교를 통해 보여준다.

에덴을 떠나는 길에 하와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자초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 네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것이 내가 너과 아담과 너의 후손을 위해 계획한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단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브가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야한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담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브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자녀에 대해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 . .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는 . . .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 힘든 학교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입니다 “너는 에덴을 떠나지만 내 사랑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네가 내 영으로부터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니? 아니면 내 앞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니? 네가 아침 날개를 타고 바다의 가장 먼 한계에 도달한 다해도 그곳에서도 내 손이 너를 인도 할 거야. 나는 너와 끝까지 않았단다. 네가 망쳤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한 목적이있단다. 나의 용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란다...

45) Bartow, “Homiletical (Theological) Criticism,” 155.

46) Jenson 1995, 99

47) Wilson, *God Sense*, 66.

나는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단다.”⁴⁸⁾

이와 같이 설교자의 상상력은 강단을 섬기는데 축복이다.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는 움직임, 즉 분리되었던 것을 함께 엮어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상상력이 중요한 자원이 된다.⁴⁹⁾ 특별히 생성 AI의 시대에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 강단을 섬겨온 감각들을 고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강단과 환경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전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은 머물러 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해 가는 것이기에, 오늘 여기의 설교자들의 상상력을 통해 교회와 창조세계를 섬길 수 있는 경이로움으로 모두를 초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쁨떨리는 부르심 앞에 설교자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드릴(offering) 수 있다.

IV. 환대: 생성 AI시대의 설교 윤리

스피박은 내러티브가 서로 경쟁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미 존재하는 내러티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retrieval) 침묵의 여정(the itinerary of the silencing)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완벽한 서사가 아니라 다름의 서사 모두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침묵을 볼 수 있기 위해, 크리스틴 폴 (Christine D. Pohl)이 언급하듯이 스스로 지배적인 서사와 중앙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에서 주변부를 경험하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⁵¹⁾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석적 권력을 지닌 설교자들에게 주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변부를 경험하고 그 수 많은 삶의 거절, 결핍, 두려움, 상처, 취약함 등을 경이로운 방식으로 복음의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자들에게 도전을 준다.

이러한 방식의 성경 읽기는 레티 러셀(Letty Russel)이 말한 환대의 해석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⁵²⁾ 러셀은 타자에 대한 경멸에 뿌리를 둔 차이, 배제,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도 타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환대의 전통을 찾는다.⁵³⁾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은 설교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

48) Wilson, *God Sense*, 76-77.

49)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52.

50)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1990), 31.

51)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B. Eerdmans, 1999), 123.

52)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48.

고 더불어 성경 안에서 보이지 않고 무시되어왔던 존재들의 인식에 대한 해석적 민감성을 요구한다. 환대의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보는 것은 설교자에게 끊임없는 창의성과 더불어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혹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시선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의 원리가 아닌 풍부함의 원리로 해석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관점을 기르기 위해 설교자들은 듣기의 윤리와 읽기의 윤리가 어떻게 설교자들의 인식 안에서 일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환대의 영성을 실천할 때, 설교자의 윤리적 측면이 주는 성서와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생성 AI와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생성 AI는 설교자를 더 풍성히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침묵하고, 더 치열하게 분별하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1. 듣기의 윤리

설교자의 관점은 설교자가 한편의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 석의, 비평 방법들의 적용, 전달 등에 이르기까지 선택과 배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한다. 설교자의 관점은 설교자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주변 존재들,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직/간접적인 삶의 경험등을 통해 쌓여진 수 많은 해석적 층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설교자의 관점은 완벽한 서사를 생성하는 권위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를 복음의 언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한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과 관련하여 해석적 주변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⁵⁴⁾ 이와 관련해서 설교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기독교 담론의 방향성을 배타적인 방식과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포용의 방식으로 찾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적극적 참여로써의 듣기는 상호 대화와 의존성이 공동체 안과 밖의 다양한 서사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실천으로 작용하기에 중요하다.⁵⁵⁾ 듣기 윤리의 실천은 받아들여짐과 오류의 교정 가능성에 열려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사에 대한 환대가 그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⁵⁶⁾ 설교자가 회중과 세상을 듣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보다 더 심오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듣기는 강단 뿐만이 아니라 강단 밖에서 역시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상호적인 대화를 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권력과 관련하여 어떤 장

53) Russell, *Just Hospitality*, 43.

54)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31.

55)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25.

56)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2020), 81.

벽들이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⁵⁷⁾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목소리들, 배제되었던 목소리들에 고도의 민감성(hyper sensitivity)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강단이 가져야 하는 사명일 수 있다.

레지나 슈워츠(Regina Schwartz)는 성경을 읽기 위해 “희소성의 원리(a principle of scarcity)”가 아니라 “풍부함의 원리(plenitude)”를 말한다.⁵⁸⁾ 슈워츠는 어떤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경을 제한하거나 성경의 담론을 총체화 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 스스로가 지녔던 한계와 이미 세워져온 한계를 확장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풍요롭게 읽으라고 조언한다.⁵⁹⁾ 듣기를 통해 들려진 파편적인 서사들을 복음의 언어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모든 서사들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 은혜, 구원, 부활 등을 새로운 언어와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설교자의 한정된 눈이 아니라 수 많은 다양한 눈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경이로움으로 우리는 초대 될 수 있다.⁶⁰⁾ 따라서, 이 현대의 해석학은 설교자들이 비교적 주목하지 않았던 정보들에 주목하는 실천이며, 해석 전통을 통해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려는 실천이다.

또한 러셀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듣기의 영성은 성서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의 틀을 가지지 않고” 성서를 읽는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⁶¹⁾ 즉, 성서와 해석자의 관계에서 마음속에 대화가 계속 되어 질 수 있는 멈춤의 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침묵해야 하고 침묵으로 인해 열려진 공간에서 마음으로 응답하는 연습은 성서 본문에서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러셀은 듣기의 영성을 위해 세가지를 제시한다: 1)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견해 특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폭력과 억압을 겪은 사람의 관점에 귀를 기울인다; 2) 성경 내에서 발견하는 모순과 차이점 안에서 본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공동체와 토론한다; 3)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도록 성령을 위한 공간을 허용한다.⁶³⁾ 이러한 듣기의 실천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현대가 우리의 삶에 침투할 여지에 관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여는 것이다.

57)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25.

58) Regina M. Schwartz, *The Curse of Cain: The Violent Legacy of Monotheis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34.

59) Schwartz, *The Curse of Cain*, 33-34.

60) Elna Mouton,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How Far Do We Yet Have To Go?” In *Feminist Frameworks and The Bible: Power, Ambiguity, and Intersectionality*, eds. L. Juliana Claassens and Carolyn J. Sharp, 211-20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7), 213.

61) Russell, *Just Hospitality*, 94.

62) Russell, *Just Hospitality*, 95.

63) Russell, *Just Hospitality*, 96-98.

2. 얹의 윤리

얹의 윤리는 인식론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식론적 부정의는 “의사 소통의 관행에서 지식, 이해, 참여의 문제와 관련된 불공정한 대우의 형태”로 인식의 난독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⁶⁴⁾ 미란다 프리커(Miranda Fricker)는 이러한 인식론적 부정의는 지식인이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⁶⁵⁾ 프리커가 주장하는 두 가지의 부정의 — 증언적 부정의 (testimonial injustice)와 해석적 부정의(hermeneutical injustice) — 는 둘 다 성서와 설교자 자신, 그리고 주변 세계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해석이 아니면 해석적 도구들을 충분히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⁶⁶⁾ 이럴 경우 “해석학적 소외”가 발행하고 이 소외는 상대적인 약자 집단 및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 소외시키며 결정적으로 그 소외가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부정의를 만들 수 있다.⁶⁷⁾ 다시 말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되고 경험하더라도 이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항 할 수 없다.⁶⁸⁾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과 성서를 보는 눈에서 소외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소외를 막고 기존의 한계를 열어놓는 측면에서 해석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증언적 부정의는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해 증언하는 화자와 관련되어 있다. 화자가 믿을만 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청중의 편견이 화자의 말에 신뢰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⁶⁹⁾ 프리커는 이를 “정체성 편견(identity prejudice)”이라고 부른다.⁷⁰⁾ 이는 내러티브 윤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윤리는 성서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혹은 어떤 텍스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본받을 만한가를 판단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이다.⁷¹⁾ 재클린 랩슬리(Jacqueline Lapsley)의 읽기

64) Ian James Kidd, José Medina, and Gaile Pohlhaus Jr., eds. “Introduction to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1-9 (New York: Routledge, 2017), 1.

65) Miranda Fricker,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

66) Eliana Ah-Rum Ku, “The Hermeneutics of Hospitality for Epistemic Justice,” *Religions* 14 (2023): 7.

67) Fricker, *Epistemic Injustice*, 153.

68) Fricker, *Epistemic Injustice*, 151.

69) Fricker, *Epistemic Injustice*, 1.

70) Fricker, *Epistemic Injustice*, 4.

71) Jacqueline E. Lapsley,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방식은 윤리적 원칙을 찾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원칙에 따라 등장 인물들을 좋다 나쁘다
 로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독자의 공
 감적 반응, 특별히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⁷²⁾ 즉, 일반화된 윤리 원칙을 찾는게 아니
 라 개인의 삶의 특수성을 깊게 경험하고 외부에서 평가자 혹은 재판관으로써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⁷³⁾ 랩슬리의 읽기 방식은
 성서가 쉬운 도덕적 평가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윤리적 성찰의 놀라운 다양성과 풍성함으
 로 독자를 이끈다. 이 다양성은 그저 위험하게 열려있지 않다. 샤론 웰치(Sharon Welch)
 가 언급했듯이 설교는 통제 윤리보다 모험 윤리를 내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러한 윤리는 이미 공유된 가치 혹은 이미 지배적인 가치와 행동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기 위해 다른 공동체, 다른 삶과 행동 체계에 대한 철저한 참여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⁷⁴⁾ 이 실천은 상호적인 자기 성찰이 중요하게 작동하며 정당화나 보편
 적 합의가 아닌 공동체와 연대를 중요시 한다; 이러한 연대는 다시 책임과 존중을 바탕으
 로 한다.⁷⁵⁾ 소외된 타자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공정(equity)을 추
 구하는 것이다. 오류와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속적인 상호 성찰에 입각한 인내심
 있는 진정하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들음과 삶의 윤리에서 비롯되는 현대의 영성은 생성 AI와 설교자/해석자가 얼마나 긴
 밀하게 함께 강단을 섬길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정보에만 의존하고 근거한 해석
 학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나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
 는 해석자의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찰을 만났을 때 설교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경이로
 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즉흥성과 창조성

설교는 예술적일 수 있지만 환상적이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점에 있는 실
 제의 삶을 다룬다.⁷⁶⁾ 따라서 전통적이고 축적되어온 자료들이나 적용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귀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너무나 다양한 해석적인 층들이 작
 동하고 있는 개인 및 공동체와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비판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24.

72) Lapsley, *Whispering the Word*, 25.

73) Lapsley, *Whispering the Word*, 25.

74) Sharon D. Welch, *A Feminist Ethic of Risk*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0),
 15.

75) Welch, *A Feminist Ethic of Risk*, 15.

76) Bartow, "Homiletical (Theological) Criticism," 156.

적 성찰을 통한 즉흥성과 창조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즉흥성과 창조성은 재즈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 없이 연습하듯이 매우 숙달된 연습을 필요로 한다. 재즈 학습자들은 종종 즉흥 연주를 위해 무엇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즉흥 연주는 단순히 코드를 알고, 스케일을 알고, 기술적인 몇 가지의 요소들을 안다고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악기를 갖고 닦는 것을 기본으로, 때로는 순식간에 모티브를 발생 시키기도 하고,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의 전율돋는 교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멜로디만으로 감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초월 같아 보이는 경지는 오히려 온갖 다양한 방법을 그저 수행하는 것 보다 기본기를 닦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설교자에게 기본기란 아마도 부르심과 영성일 것이다. 중세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영성을 ‘설교자 됨’에서 찾았다. 오티스 에드워즈(O. C. Edwards)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교자들은 영성이 일련의 종교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명 즉 설교자 됨에 대한 소명을 자신들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설교의 의무에서 비롯된 영성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즉, 그들의 영성은 설교자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성찰하고 논의하는 것들을 통해 생겨나는 영성이었다.⁷⁷⁾ 역사 속의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불안함과 불편함 안에서 도 이미 가진 것과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의 역동성 안에서 설교자로서 소명을 다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설교자는 더 많은 존재를 품고, 더 많은 경우에 유연하며, 더 많은 시각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즉흥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77) Otis Carl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242.

논 찬 1

“설교적 비평(homiletical criticism)과 설교적 상상력(homiletical imagination):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에 대한 논찬

조 광 현 박사

(고려신학대학원 / 실천신학 / 설교학)

1. 논문의 주장과 구조

생성 AI 시대를 맞이한 설교자들은 두렵다. 논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는 해산하는 수고와 비견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생성 AI는 설교자들의 설교 준비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효율성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에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은 설교자들에게 어찌면 당연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생성 AI 시대를 살고 있는 설교자들이 직면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생성 AI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들이 지녀야 할 새로운 관점 혹은 태도가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오히려 설교자들이 겪는 긴장과 낯섬 안에서 창조적 시너지를 발견하여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논문은 생성 AI 시대를 맞이한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1)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 2) 설교적 상상력, 3) 환대의 해석학이다. 첫째,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는 설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논문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과 함께 준비된 설교와 기존의 설교나 정보를 재가공해서 생산된 생성 AI의 설교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낸다.

둘째, 설교적 상상력은 성경과 상황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요구되는데, 논문은 설교적 상상력이 즉흥성과 창의성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생성 AI 시대에 설교적 상상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셋째, 환대의 해석학은 듣기와 앞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 특히 주변부의 목소리를 듣고 알기 위해 필수적인데, 논문은 이를 단순히 설교자의 해석학이 아니라 영성 혹은 윤리라고 명명한다. 생성 AI 시대에는 정보에만 의존한 해석학과 달리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설교자의 윤리가 더욱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환대의 해석학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2. 논문의 장점과 공헌

앞서도 언급한 것 같이, 생성 AI는 이미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교 사역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성 AI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밝히려는 시도는 아주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생성 AI와 관련한 설교학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성 AI가 설교 사역에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적인 기대 속에서 어떻게 생성 AI를 활용할까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논문도 언급하는 바처럼, 생성 AI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성 AI의 단점을 찾고 설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적 독특성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설교자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배타적으로 조명”하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생성 AI를 과도히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을 넘어 생성 AI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설교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창의적인 연구이며,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크다.

3. 논문에 대한 제안 및 질의

논문의 구조와 관련해서, 설교적 비평 항목 아래에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을 위치시키고 있는데, 설교적 비평과 신학적인 영적인 감각이 어떤 관계인지 모호하게 보인다. 논문은 폴 스킷 윌슨의 견해에 의지하면서 성경 읽기의 사중 해석을 통해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설교적 비평과 무슨 관계인지 조금 더 친절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논문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을 설명하거나 설교적 상상력을 설명하면서, 실제 설교문을 예로 들고 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을 구체적인 설교문으로 보여주는 시도는 좋았으나, 그 예가 논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밝혀 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공된 예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논문이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이나 설교적 상상력

개념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했다. 물론 그 탓이 논문이 아니라, 논평자의 감각이나 상상력의 부족함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논문이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즉흥성과 창조성이 앞서 논문이 언급한 설교자의 세 가지 자세인, 신학적이고 영적인 감각, 설교적 상상력, 환대의 해석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논문은 많은 경우에 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장 설교자들이 논문의 바람처럼 “더 많은 존재를 품고, 더 많은 경우에 유연하며, 더 많은 시각에서 자유롭게” 설교하는 데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논 찬 2

“설교적 비평(homiletical criticism)과 설교적 상상력(homiletical imagination):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에 대한 논찬

김 용 성 박사

(한신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 설교)

생성 AI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입장과 인간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어 인류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AI가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공상적 망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AI가 인류의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몇몇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스포츠 경기 심판, 제조업, 은행원, 단순사무원 및 금융 애널리스트, 의사, 변호사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는 목회자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이자 과제이다. 설교의 권위는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교회와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설교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누란지세의 상황이 이어지면 안 된다. 목회자들은 AI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구아름 박사의 논문에 적은 것처럼 설교의 역사는 정체성과 두려움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다. 기술의 발달과 역사적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맞게 된 위기 상황에 설교자는 놓여 있다.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구아름 박사의 논문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발제자는 윌슨의 입장을 따라 설교비평 이전에 토대가 되는 감각(혹은 유형)을 먼저 이해한다고 말한다. 발제자가 주목하는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의 감각은 네 가지이다. 첫째, 문자적 감각은 성경을 읽을 때 이성적이고 역사 비평적인 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

양에 관해서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알레고리적 감각이 필요하다. 단, 고대적 해석을 벗어나 현대적인 방식으로 유비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성경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책이기에, 도덕적 감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은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것, 따라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발제자가 보기에 성경 읽기의 네 가지 감각들은 설교의 '신학적, 목회적, 윤리적 응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 영역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설교적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설교자의 즉흥성과 창의성을 얼마나 발휘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설교적 상상력이 생성 AI와 관련하여 설교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다.

발제자가 말하는 생성 AI와 설교적 상상력의 연결고리는 다름의 서사를 존중하는 현대의 영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대의 영성은 크게 듣기와 읽기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현대의 영서에서 말하는 듣기는 정보의 수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상호 대화를 통해 다양한 서사를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태도가 현대의 영성이 말하는 듣기의 윤리이다. 이러한 듣기는 소외되고 억압 받는 자의 소리에 기울이며, 성경과 공동체의 모순을 토론하게 하고, 성령의 공간을 허용한다. 현대의 영성이 말하는 읽기의 윤리도 지식의 집적과 다르다. 현대의 영성이 말하는 읽기의 윤리는 역설적이게도 인식론적 부정의를 지향한다. 특정한 세력이나 권력이 읽을 소유하고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개인의 경험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윤리들은 정보에 권력 관계를 따지지 않는 생성 AI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발제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설교자의 즉흥성과 창조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설교자가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생성 AI는 설교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의 정보를 검색하고, 조합하기 위해 생성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용했으나, 그것을 연결하여 한편의 설교로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발제자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는 예술적이기에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변주곡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따라서 생성 AI를 그저 위협과 불안의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 발제자의 논문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설교와 생성 AI에 관한 더욱 발전되고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주실 것을 믿으며, 귀한 발제를 해주신 구아름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논 찬 3

“설교적 비평(homiletical criticism)과 설교적 상상력(homiletical imagination):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에 대한 논찬

최 종 일 박사

(신라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상담심리)

1. 본 연구의 중심 논지와 공헌점

본 논문은 생성 AI의 단점을 찾고 설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적 독특성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설교자의 정체성과 소명을 불편한 긴장과 낯설음 안에서 생겨나는 창조적인 동반 상승하고자 설교적 비평과 상상력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 설교적 비평은 문자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풍성한 방식으로 대화하며 설교 형성에 관한 중요한 통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설교적 상상력은 설교적 비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설교자가 갖고 있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한다. 연구자는 설교적 비평과 상상력을 풍성할 수 있도록 현대의 감각을 배양하기 위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현대를 해석의 렌즈로 연구자는 듣기와 인식적 정의의 실천을 언급하였다. 듣기와 인식적 정의의 실천은 설교자에게 오늘날의 상황과 공명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생성 AI시대의 설교자는 자신을 점검할 줄 알고, 변화에 열려 있고, 무엇이 어떤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창조성을 지니기를 연구자는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 번째로, 생성 AI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점이다. 2023년 6월 세인트 폴교회에서 인공지능 ChatGPT가 인도하는 실험적인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

다. 이 예배를 의도한 시멀레인은 설교자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관점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설교의 중요한 역할이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세상 안에 있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설교자가 성서를 읽는 것을 ‘신학적 감각(theological sense)’ 혹은 ‘영적 감각(spiritual sense)’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신학과 영적 감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은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설교의 참여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제안한 점이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AI 시대에 설교적 상상력(homiletical imagination)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설교적 상상력은 듣는 이들의 경험,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을 연결하여 설교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설교의 본질을 규제하고 가능하게 하는 중심적인 개념이다. 생성 AI의 시대에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강단을 섬겨온 감각들을 고려하는 것은 설교자가 강단과 환경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전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은 머물러 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해 가는 것이다. 설교자의 상상력을 통해 교회와 창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경이로움 안으로 모두를 초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교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드릴(offering) 수 있다. AI 시대에 연구자가 설교적 상상력의 개념과 활용하는 방안을 설교자에게 제시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본 논문은 생성 AI 시대의 설교자에게 필요한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설교 윤리는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들음과 앎의 윤리에서 비롯되는 현대의 영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는 타자를 자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다. 들음과 앎의 윤리에서 비롯되는 현대의 영성은 정보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해석자의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찰을 만났을 때 설교의 참여자들은 새로운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설교자가 의도적으로 현대의 영성을 실천할 때, 설교자의 윤리적 측면이 주는 성서와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생성 AI와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한 점에서 본 논문이 가치가 있다.

2. 본 연구의 논의점

본 논문의 공헌점과 더불어 논찬자가 느끼는 논의점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가지는 두려움 중 하나로 거대서사에 관한 불신을 이야기하였다. 본 글에서는 거대서사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그 특징 중의 하나로 삼는

포스트모던의 이해 방식은 거대서사를 받아 들여오는 기독교 전통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거대 서사의 종말이란 현대사회가 실제로 도덕적, 윤리적, 인간주의적 세계가 기계주의적,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적 세계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는 모더니즘에 의해서 발생한 기독교 독선적이고 배타성을 극복하고 복음을 넓게 이해하며 선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대 서사와 관련하여 설교자가 인식하는 불신과 필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논찬자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표자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결론에서 생성AI 시대의 설교자는 즉흥성과 창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 글을 읽으며 전공자가 아닌 논찬자는 연구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설교자의 즉흥성과 창조성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연구자는 설교적 비평과 설교적 상상력, 환대: 생성 AI 시대의 설교 윤리로 글을 전개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설교자의 즉흥성과 창조성에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결론 부분에서도 설교자의 기본기를 부르심과 영성으로 언급하고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교자를 예로 들면서 마지막에는 즉흥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논찬자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설교자의 즉흥성과 창의성 정의가 무엇인지,’ ‘본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설교자의 즉흥성, 창의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AI시대에 설교자에게 필요한 즉흥성과 창의성이 무엇인지’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논찬자는 연구자가 ‘설교적 비평(homiletical criticism)과 설교적 상상력(homiletical imagination):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라는 힘든 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어려운 시도이고 노력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연구자가 ‘어렵지만 필요하기에’ 전혀 쉽지 않은 주제를 연구하고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고 싶다.

제 14 발표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

남 성 혁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학)

I. 들어가는 말

호주의 인구학자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은 세대연구를 하면서 각 세대별로 붙여지는 이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¹⁾ 이미 세대별 명칭이 Z까지 이른 상황에서, 그는 다음 세대를 21세기의 출현은 구별되는 첫 세대로 인식하고, 이 세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자를 활용하여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라고 최초로 명명하게 된다.²⁾ 보통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태어난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로 분류하였다. 특히, 2010년은 아이패드와 출시되고,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앱(app)'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전문가들에 의하여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신기술의 관계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가,

향후 10년 동안 10대를 거쳐 성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가족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1세기에 태어난 기술의 얼리 어답터

1) Mark McCrindle, *The ABC of XYZ: Understanding the Global Generations*.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14).

2) 마크 맥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17-19.

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가 아시아 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등장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대가 될 것이다. 가장 어린 알파 세대가 성인이 되는 2030년대 중반에는 가장 큰 규모의 증산층이 아시아 출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피력한다.³⁾

그러므로 알파 세대의 출현은 세계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 속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도 연관성이 있다. 더욱이 다음세대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파 세대는 저출산과 저성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알파 세대의 장래 인구 구조는 기존 세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인구 수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출생자가 이 세대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약 43만 8천 명에 달한다. 알파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출생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강화된 시기에 태어난 세대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9년에 알파 세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될 시점에는 2022년 Z세대와 알파 세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을 때보다 학생 수가 107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파 세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저성장을 기록하는 시기에 태어났다. 이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Z세대와 달리, 알파 세대는 명품, 여행, 고급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자제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검소한 소비 문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알파 세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새로이 등장하는 세대스럽게, 국내외에서는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약간의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⁵⁾ 2023년까지 알파 세대에서 최고령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어서, 교육분야에서는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⁶⁾ 아울러 알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구매

3) Mark McCrindle,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Sydney: McCrindle Research Pty, 2020), 7.

4) 남성혁, "인구절벽 시대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모색: 교회3.0 모델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4(2019), 286-87. "인구감소가 주일학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나, 주일학교의 인원 감소 비율이 한국 사회의 18세 미만 인구감소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은 단순히 초저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양적 통계만 의존하여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 세대의 감소는 주일학교 교육에 질적 문제점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에 KCI 등재지 기준으로 '알파 세대'를 검색하면 20개 논문이 결과물로 보이며, 대다수가 교육과 소비경제 관련 연구물이다, 접속 2024.1.1.

6) Marc R. Prensky, *Teaching Digital Natives: Partnering for Real Learning*, (Thousand Oaks, CA: Corwin, 2010), 3. 교육 분야에서도 다음세대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문제는 도전적인 과제이다. "오늘날 모든 교사는 디지털 기술이 학생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기술을 교육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또는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

결정권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경제 분야의 미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알파 세대에게 붙여진 별명은 8 포켓 혹은 10포켓이다. 이는 비혼족과 딩크족을 포함한 저출산 시대의 영향으로, 알파 세대 한명이 부모, 조부모, 친척들의 지원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소비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⁷⁾

신학 연구 영역과 특별히 선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세대간의 연구가 MZ 세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한국 선교신학회의 「선교신학」, 복음주의선교신학회의 「복음과 선교」, 한국대학선교학회의 「대학과 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의 「선교와 신학」, 그리고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에서는 아직 알파 세대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⁸⁾

현재 MZ세대에 대한 연구가 한국사회의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활용되는 것같이, 다가올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세대의 변화의 폭은 커지고, 간격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인문학으로도 대처하듯이,⁹⁾ 기독교 신학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기독교 교육과 전도신학을 포함한 실천신학 영역에서는 급한 과제이다.

세대 변화와 기술 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을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기술 도구가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화는 인간의 상상 속에 혹은 생각 속에 있는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계 전반을 관통하고 구조화하고 변화시키는 실제의 세계다.”¹⁰⁾ 하이디 캠벨은 새로운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가치 및 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결

7) 김지현, “알파 세대 겨냥한 기업들의 키즈테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12/23(2022), 4-7.

8) 반면, 선교/전도와 관련된 각 학술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연구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연관된 논문들은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기술'을 검색하면, 미래사회와 첨단기술과 관련된 논문이 「선교신학」(5개), 「복음과 선교」(4개), 「대학과 선교」(8개), 「선교와 신학」(10개), 그리고 「신학과 실천」(28개)가 발견된다. 접속 2024.1.1.

9) 마크 매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43-45. 마크 매크린들은 알파 세대 중에서도 윗세대를 '업-에이저(up-ager)'와 '트윈덤(tweendom)'으로 설명한다. '업-에이저'는 이 세대 내에서 태어난 어린이 중에서 2010년 경에 또는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어린이를 가리킨다. 그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알파 세대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발달 단계와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더 연장자 구성원은 알파 세대 안에서 더 어린 구성원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트윈덤'은 초기 어린 시기와 청소년기 사이(8~12세)에 놓인 어린이의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트윈덤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특성과 관심사를 보인다. 그들은 더 독립적이며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한 청소년이 아니다. 두 용어는 알파 세대 내에서조차 다양성과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세대가 디지털화 및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특징을 고려해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0) 김정형, “디지털 세계의 출현에 대한 창조신학적 성찰,” 「한국조직신학논총」 63(2021), 165.

정론'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사회적 형성'을 주장한다. 아울러, 기술이 항상 사용자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협의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종교가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¹⁾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알파 세대의 삶의 연관성을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소통을 위한 전도 방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파 세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본 연구는 알파 세대와 기술의 관계성을 조명하여 전도의 가능성을 그 범위로 제한한다.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신학적 고찰은 후속연구를 기대하게 하는 선행적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자 한다.

II. 알파 세대 특성과 기술적 환경

알파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와 차이점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서구사회를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성장과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출현하여 가족과 지역 공동체 중심이다. X세대(1965-1979)는 “전통적이고 조직적이며 아날로그식 태도가 몸에 뱀으면서도 오늘날의 적응력 있고 협업하는 디지털 사고방식이 독특하게 혼재된 사람들이다.”¹²⁾ Y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1980-1994)는 새 천년 전후로 성년이 된 세대로서 최신 기술에 능하며 세계 경제 호황기에 성장하였다. Z세대(1995-2009)는 문화적 다양성, 세계적 브랜드, 소셜 미디어, 디지털 세계의 영향을 받았다.

알파 세대(2010-2024)에게 Y세대는 부모이고, Z세대는 형제 자매이며, X세대는 친척 어른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조부모들이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처럼 전통사회와 아날로그에 익숙한 인구에게는 Z세대와 알파 세대의 차이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2010년 전후로 태어난 세대 역시 스마트폰 이전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파 세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Z세대와 알파 세대 사이의 과도기적 세대로 '잘파세대(Generation Zalpha)'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젊은 세대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Z세대는 X세대 부모들로부터 자란, 성장기 동안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대이다. X세대 부모의 영향으로 수직적 성공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날로그를 부분적으로 경험했다. 알파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로부터

11) Heidi A. Campbell and Alessandra Vitullo, “Assessing Change in the Study of Religious Communities in Digital Religion Studies,”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1(2016), 79-81.

12) 마크 매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31.

자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과 함께한 디지털 온리 세대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세대이다. 알파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알파 세대는 “21세기에 태어나고 21세기에 온전히 형성된 최초의 세대다.”¹³⁾

구분	Y/M세대	Z세대	알파 세대
출생연도	1980~1994	1995~2009	2010 이후
만연령	30~44세	15~29세	14세 이하
활용 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 AI스피커
특징적 명칭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온리
커뮤니케이션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틱톡 제페토 로블록스
심리적 성향	세계화 경험주의	현실주의 윤리 중시	흥미, 재미, 보상, 직관적인 만족 추구

〈표1〉 2024년 기준 M세대, Z세대, 알파 세대¹⁴⁾

그런 의미에서 알파 세대는 X, Y/M, Z와 같은 이전 세대와 달리 최초의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며, 태어날 때부터 기술에 몰입하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발산한다. 이러한 알파 세대와 디지털 기술 환경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복음전파의 효과적인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마크 맥크린들은 알파 세대를 디지털, 소셜, 글로벌, 이동성, 비주얼의 5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¹⁵⁾ 첫째, 알파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알파 세대는 디지털에서도 가상세계에 가장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 삶의 일부분이 되며,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 Z세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디지털 기기를 가지게 된 것과 다르게, 알파 세대는 아주 어릴적부

13) 마크 맥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43.

14) 김영아, 한정엽, "메타버스 기반 알파 세대의 조형예술 교육 사례 연구 및 활용 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7/7(2022), 276. (2024년 기준으로 재구성되었음).

15) 마크 맥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58-81.

터 공갈 쫓꼭지 대신에 디지털 기기가 주어졌다. 디지털 문해력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사회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파 세대의 부모들이 디지털에 대해 전혀 문외한은 아니라는 점이다. 알파 세대의 부모는 스크린 타임과 디지털 노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태블릿과 교육용 앱은 학교에서 흔히 사용되며,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알파 세대는 전례없는 수준의 초연결성을 유지한다. 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과 같은 SNS로 인해 알파 세대는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세대간의 경계를 넘어 24시간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 외에도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조언과 정보를 구하게 된다. 이들에게 소셜 미디어, 인스턴트 메시징, 화상 통화가 표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된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결성은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에 알파 세대 소통방식의 중심은 초연결성이다. 이들은 어떤 이슈를 접하면 기존의 정보와 자신을 연결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과 공유하며 재생산한다. 이러한 연결 속에 이전세대와 다르게 단순 콘텐츠 소비자에서 벗어나 생산자가 된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전통사회에서 주어진 권위와 규범의 힘이 희석되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형성한다. 알파 세대는 이러한 초연결성으로 열린 소통방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연결성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고립될 수 있다. 이들이 유년기를 보내던 2020년대 초반은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성 저하와 교육의 질 등 여러 부작용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기기를 통해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덜 연결될 수도 있다."¹⁶⁾ 선택적 연결성의 부작용은 즉각적인 만족과 짧은 형식의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란 알파 세대에게 짧은 집중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소셜의 특성으로 인하여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게 된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행에 대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예를 들어 포켓몬 고(Pokemon Go) 열풍은 전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다. 뉴스를 통하여 알파 세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릴 때부터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2019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세계가 빠르게 반응했던 사건처럼 알파 세대는 글로벌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처럼, 알파 세대는 사회 문제 관심이 높는데, 예를 들어 '캔슬 컬처(cancel culture)' 관행을 보인다. 이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하여 지

16) 마크 맥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65.

지를 철회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글로벌 인식은 알파 세대가 어려서부터 문화, 인종, 성별 측면에서 다양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세상에서 성장한다.

넷째, 알파 세대는 이동성을 가진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유비쿼터스 사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첫 세대이다. 알파 세대의 초연결성 특성은 이동성을 강화한다. 통신형태가 무선이 되면서 자유로워 졌다. 이는 유선 시대(TV, 전화)에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학업, 직업, 여행,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그 주기가 이전 세대에 비하여 짧아지고 생애주기와 여가의 이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전통적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으며, 'N잡러'로서 여러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노후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알파 세대의 65%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¹⁷⁾

다섯째, 알파 세대는 비주얼 곧 시각적 요소에 편향적이다. 이전세대가 문자기반의 특성을 가졌다면, 알파 세대 특성은 더욱 이미지 중심의 시각적 요소가 강하다. 이들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태블릿 PC를 조작하였고, Covid-19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상황이었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보다는 이미지 기반의 소통에 익숙하다. 페이스북(현재 메타), 트위터(현재 엑스),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년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변화와 더불어, 게시물에서 허용하는 문자의 숫자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알파 세대가 소비하는 사회관계망은 인스타그램에서 틱톡(TikTok)으로 옮겨져 길이가 더 짧아지고, 텍스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비주얼 중심이다.

요약하면, 알파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초연결성,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다양하고 글로벌화된 세계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알파 세대로 하여금 이동성을 증가시켰으며, 비주얼 중심의 소통에 익숙하다. 이러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측면은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며, 앞으로도 이들의 세계관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III. 신기술의 출현과 전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비디오 게임, 무인 열차, 자율주행차, 말을 알아듣는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기술 기기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술은 알파 세대의 생애주기 내에서 개발되었으며,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하는 기술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기술의 등장

17) 마크 매클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70.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빠르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38년이 걸린 반면, 텔레비전은 13년, 아이팟은 4년, 인터넷은 3년, 페이스북은 단 19일이 걸렸고, 포켓몬 고 열풍은 단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례 없는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알파 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크린이 장난감, 오락, 교육 보조 도구로 눈앞에 놓여졌다. 스크린 포화 상태에 노출된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주의 집중 시간의 단축부터 교육의 게임화, 디지털 리터러시 증가, 사회성 발달 장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알파 세대에게는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알파 세대는 과거의 고정된 화면이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화면 관리'하는 세대로 자랐다. 알파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의 중심이 되어온 기기에서 그들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이들은 말을 하기 전부터 이러한 기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스크린과의 상호작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신기술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으로 복음전파의 기회와 더불어, 몇 가지 독특한 도전을 줄 것이다.

알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 구성원인 기성세대들도 신기술에 대하여 기회와 도전이 존재한다. “근현대 기독교 역시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 배경에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절정이던 냉전 시대에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에 바탕을 둔 기술 비판이 자리한다.”¹⁸⁾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하는 기술에 대한 실망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기 힘겨워하는 고령화된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신기술과 다음세대에 대한 복음전파와 소통의 노력은 만만치 않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고령자가 지식과 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오늘날 신기술은 이러한 권위의 역학 관계를 흔들고 있다. 알파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고 기성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보니, 어린 세대가 윗세대를 돕는 형국이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은 권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신기술의 출현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¹⁹⁾ 선교의 역사에서 신기술 출현은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왔다. 구텐베

18) 김은혜,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 「HTSN Newsletter」 (2023, 12), 4.

19) 박나래, “지금 여기,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삶,” 「HTSN Newsletter」 (2024, 1), 13. “과거 전통 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기술에 대해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전문성을 갖게 되므로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하룻밤 만에 새로운 기술이 우후죽순 쏟아져나오는 현대 기술사회에서는 오히려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신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더 능숙한 경우가 많다. 또한 기대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라 일컬어지는 오늘날, 60대에 은퇴한 이후에도 최소 3~340년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생을 활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필수적이다.”

르그의 인쇄술을 통한 성경 인쇄와 16세기 종교개혁, 증기선의 발명과 해외선교 시작, 전기/전신의 발달과 내륙선교, 개인용 컴퓨터의 범용화로 인한 정보화 시대와 미전도 종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와 가상세계에 대해서도 교회는 복음전파의 방법을 찾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기술 부정 혹은 기술 비판적 관점으로 는 현대인들의 존재의 기반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된 현대 디지털 시대의 기술 본성을 파악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안적 담론을 펼쳐갈 기술 신학이 필요하다.”²⁰⁾

신기술을 통하여 알파 세대에 복음 전파할 때 발생하는 도전과 윤리적 고려점들이 있다. 첫째, 디지털 격차와 기술 접근성 문제가 있다. 기술 접근성의 불평등이 알파 세대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교육적인 이유로 보수적으로 미디어의 접근을 제한하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있다. 경제, 정치, 지리,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기술 접근 불평등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적, 인종적, 언어적 분리가 발생한다.²¹⁾ 디지털 윤리 특성을 가진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 격차가 전도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설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온라인 상에서의 전도활동과 개인 정보 보호는 중요한 주제이다. 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앙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개인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교회는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회원 및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가 무단 접근, 유출,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도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온라인 상에서의 전도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 투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신앙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 의존도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적 도전들이 있다. "기술 시대, 특히 인공지능 시대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맹목적으로 믿고 자신의 자유를 인공지능에 위임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릴

20) 김은혜,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 「HTSN Newsletter」 (2023, 12), 6.

21) Pippa Norris,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가능성이다. 신학적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인공지능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다."²²⁾ 이처럼 디지털 온리 세대인 알파 세대는 기술에 과몰입한 나머지 우상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세계에는 다양한 세대와 문화 글고 종교가 교차하므로 다양한 종교와 영적 신념에 의해 의견과 비판이 혼재하는 상황에 알파 세대가 노출된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나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왜곡될 위험에 대하여 대처하고, 바른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과부화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고, 영적 관심을 놓치기 쉽다. 그러므로 교회는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IV. 전도 방법론의 변화

알파 세대와 신기술 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도 방법론을 구상할 때 몇 가지 고려할 디지털 요소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이 있다. 먼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현대 사회에서 더 효과적인 맞춤형 전도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와 통찰력을 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빅데이터는 전도 대상자나 그룹의 행동, 관심사, 성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전도의 필요성은 다양한 성향을 이해해야 하는 교회에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메시지는 이러한 알파 세대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전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와 목표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맞춤형 전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심 있는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맞춤형 전도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구성하고, 맞춤형 유인요소를 통해 전도 대상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복음 전파자가 현대 사회에서의 전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체험 전도

22) 김정형, “기술 시대의 정신건강과 신학,” 「HTSN Newsletter」 (2023, 8), 12.

를 가능하게 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종교적 경험을 모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²³⁾ 알파 세대는 체험을 통해 더 나은 이해와 연결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복음 전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신앙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설계된 가상 혹은 증강 경험은 전도 메시지의 개인화를 강화하며, 이로써 사용자들의 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종교적 토론과 대화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상 환경 내에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고, 종교적 질문에 대답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체험을 통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교적 교리나 역사를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어떤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제약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종교적 체험을 접근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복음 전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으며, 교회와 종교 단체는 더 광범위하게 전도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알파 세대를 위한 디지털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알파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시기에 형성되고 있고 주변 세상과도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어느 세대에 속하든 먼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알파 세대에게도 본질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다.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다."²⁴⁾ 디지털 온라인 교회는 신앙, 영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지역 교회를 대체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으로 도움을 주는,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통교회가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종교적 실천을 더욱 강화하거나 호소력 있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디지털 커뮤니티와 온라인 교회는 알파 세대 개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개인화된 소통을 통해 믿음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결 네트워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²⁶⁾ 온라인 교회는 알파 세대에게 리더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와 애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온라인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23) 김은혜,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 「HTSN Newsletter」 (2023, 12), 8. "만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피조세계와 만물이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활동 공간이나 소유 그리고 활용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발명의 장이자 기술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신적 계시의 공간임을 말한다."

24) 마크 맥크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76.

25) 김승환, "디지털 종교와 온라인 교회에 관한 연구," 「HTSN Newsletter」 (2024, 1), 5.

26) 김승환, "디지털 종교와 온라인 교회에 관한 연구," 「HTSN Newsletter」 (2024, 1), 7.

사용자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지털 세계에서 가상 혹은 증강 경험을 제공하면, 알파 세대는 믿음을 더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 교회에 비하여 디지털 온라인 교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훨씬 용이하여, 복음 전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유리하다.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알파 세대와 복음을 소통할 방법론은 알파 세대 소통의 특성을 염두해야 한다. 알파 세대는 관심사와 문해력이 기성세대의 흐름과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학벌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입시문화와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는 세대임을 의미한다. 이는 알파 세대의 부모가 되는 Y/M가 대학 졸업 이후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을 누리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로 말미암아 알파 세대 부모들은 전통적인 교육과 성공의 기준의 관행을 따르지 않으며 자녀들을 양육한다. 둘째, 텍스트 기반이 아닌 이미지 중심의 소통에 익숙하다. 알파 세대는 글을 배우기 전부터 스크린을 통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학습해왔으며, 이를 통하여 소통하는 감각을 먼저 발달시켰다. 더욱이 Covid-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알파 세대는 비대면 소통에도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기성세대의 문자 중심의 문해력은 매우 저하되는 알파 세대이지만, 스크린 문해력은 어느 세대보다 우수하다. 알파 세대의 관심과 문해력의 특성을 기반으로한 전도방법론을 모색할 때, 복음에 대한 노출이 더욱 즐겁고 맞춤형된 경험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관심을 끌고 믿음을 깊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첫째,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과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다. 알파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세대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소비하고 상호작용한다. 이들은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며, 전통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휴대성, 속도, 개인화를 중요시한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종교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신앙적인 토론을 촉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성경 해석, 기도, 예배 등의 종교적 활동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한 기초를 학습하려는 초보자와 성경 연구를 원하는 고급 학습자에게 각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은 알파 세대에게 매력적인 방법이다. 게임은 동기부여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의사 결정 등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종교적 내용을 게임으로 표현하면 사용자들이 믿음을 체험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게임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사용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 퀴즈 시합이나 공동 믿음을 주제로 한 협력 게임은 사용자들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게임은 사용자가 믿음을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은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교적인 도전 과제나 윤리적인 딜레마를 포함한 게임은 사용자가 믿음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며, 믿음을 깊게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과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중요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복음전파를 위한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과 게임화된 학습은 알파 세대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교육을 위한 현대적인 도구로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멀티미디어와 스토리텔링의 통합하는 방법이다. 멀티미디어와 스토리텔링은 각각 자체적으로 강력한 전달 도구이다. 멀티미디어는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심지어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한다. 스토리텔링은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²⁷⁾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하면, 신앙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심층적으로 체험하도록 할 수 있다. 시각적인 멀티미디어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그림, 사진, 그래픽,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를 통해 사용자는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다. 가령, 가상 현실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을 성경 이야기의 장면으로 안내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종교적 경험을 체험하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 신앙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을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 플랫폼에 제공하여 사용자가 서로 연결되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여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와 스토리텔링을 통합한 전달 방법은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를 생성하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들의 감정과 공감을 자극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알파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전도에 자연스럽게 활용해야 한다.

셋째, 원격 전도와 대면 전도의 조화를 통한 전도 방법이다. 원격전도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활용한 방법으로, 알파 세대 전도를 위한 장점이 있다. 접근성의 장점을 활용하

27) 윤영훈, “즐겁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HTSN Newsletter」 (2023, 10), 7. "성경 내용에 대한 현실적 재구성과 스토리텔링 역량도 요구된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수많은 콘텐츠의 문화원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문화는 교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활용할 때 성경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날의 문화 상황으로 재해석하고 신선하게 재구성해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청중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여 어디서든 신앙 공유와 교육이 가능하므로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알파 세대는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을 탐구하고 신앙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를 선호한다. 원격전도는 이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믿음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알파 세대의 시각적으로 다양한 요소에 호응한다. 비록 원격전도가 효과적이지만, 대면 전도의 가치도 중요하다. 대면 전도는 현실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대면 전도는 지역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모임과 행사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른 믿음 공유자와 연결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전도는 예배와 종교 의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끊임없이 연결된 연결의 홍수 속에서 잠시 모두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목회자는 이들의 이러한 내적 필요를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진정한 인정과 자신을 찾는 것이 본질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²⁸⁾ 원격전도와 대면 전도를 통합한 전도 전략을 개발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면 모임에 처음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낄만한 알파 세대 불신자들에게는 원격전도를 통해 불신자의 관심과 초기 관계를 형성한다.²⁹⁾ 그 후에 초청을 통하여 대면 모임 참석과 기존의 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대면 전도와 원격전도를 결합하여 디지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대면 모임을 보충하고 서로 지지한다. 알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원격전도와 대면 전도를 상황과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여, 신앙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V.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음세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전도의 대상이 되는 알파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출현할 세대들과 교회 사이의 세대 격차를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 준비가 부족해진다면, 신기술의 출현과 발전에 관하여도

28) 홍성수, "MZ 세대의 문화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HTSN Newsletter」 (2023, 10), 3.

29) Sherry Turkle,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NY: Basic Books, 2011), xii.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에 불안감을 느끼고 친밀감에 대한 염려로 인해 기술을 통해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험과 실망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서로에게 덜 기대합니다."

고령화된 한국교회가 더욱 따라 잡기 힘들 뿐 아니라 거부감이 증가할 수도 있다. 알파 세대와 신기술의 출현이라는 큰 도전 앞에서 교회는 선제적으로 전도 현장과 대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간,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친해지는 것은 조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³⁰⁾ 또한,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나 반기술주의의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³¹⁾ 인공지능처럼 그 발전의 속도를 가늠하기 힘든 신기술들이 때로는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³²⁾ 상호협력적인 이해를 가지고 전도신학과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³³⁾

교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알파 세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파 세대는 어릴 때부터 온라인 정보에 접근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 뿐만 아니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기업가 정신과 DIY 마인드를 갖추게 하였다. 곧,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안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아직까지 '말의 불균형'이 심하다."³⁴⁾ 소수에게 의사결정권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체와 같은 수평적 구조와 열린 구조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파 세대와 소통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³⁵⁾ 동시

30) 마크 매클린들/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60.

31) 김은혜,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 「HTSN Newsletter」 (2023, 12), 7. "이렇게 성경의 구원사에서 인간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역사는 항상 인간과 자연과 사물의 네트워크로 인간과 비인간은 즉 방주와 바다, 성막과 광야, 석청과 광야, 그리고 지팡이와 홍해 등 구원의 서사를 형성해가는 다양한 협력적 존재들이다."

32) 황은영, "인공지능 시대의 탈세속성과 사회," 「HTSN Newsletter」 (2023, 9), 5. "인공지능은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를 압도하는 지성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것이 주는 여러 기회와 혁신만큼, 경제적으로는 대량 실업, 정치적으로는 알고리즘의 지배, 문화적으로는 인간의 문화 창조와 도야 향유의 쇠퇴, 그리고 종교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화와 이상화의 위험들 역시 수반한다. 교회는 정치 참여와 구제, 알고리즘 지배에 대한 피해자들의 옹호, 애호가적인 종교 문화의 창달과 향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이 마련하는 세속 문화와 제도의 내재적 틀의 한복판에서 이를 넘어서 초월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33) 김은혜,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 「HTSN Newsletter」 (2023, 12), 9.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점은 기술이 그 자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창조성과 발명과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하도록 하며, 제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이 지구와 인류를 위해 바른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신학이 적극적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34) 홍성수, "MZ 세대의 문화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HTSN Newsletter」 (2023, 10), 3.

35) 홍성수, "MZ 세대의 문화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HTSN Newsletter」 (2023, 10), 2. "교회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와 같은 내러티브가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주도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자기표현 및 인정추구와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이전의 내러티브 안에 담긴 영적 가치를 재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에, 알파 세대의 디지털 유창성과 선호도 변화는 교육, 종교, 미디어와 같은 전통적인 기관에 영향을 미쳐 기술에 정통한 세대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세대의 성향에만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은 복음 전파자인 기성세대와 복음 수신자인 알파 세대가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교회 공동체가 온라인 세계에서 알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유창한 복음전파자(apostolic digerati)를 길러내는 사명도 시작해야 한다.³⁶⁾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디지털 격차와 기술 접근성, 온라인 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 기술 의존도 증가에 따른 영적 문제 등 성경중심의 신학적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21세기 선교와 전도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선교학적 함의와 함께 더욱 몰입감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사용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의 출현에 따른 전도 방법론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과 게임화,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원격 전도와 대면 전도의 조화를 통해 알파 세대에게 신앙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개발함에 있어서 영적 도전들에 대하여 함께 교회와 신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알파 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 사고방식에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응력 있는 전도 방법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승환. "디지털 종교와 온라인 교회에 관한 연구." 「HTSN Newsletter」 2024.01.
- 김영아, 한정엽. "메타버스 기반 알파 세대의 조형예술 교육 사례 연구 및 활용 방안."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7/7(2022), 273-81.
- 김은혜.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상상." 「HTSN Newsletter」 2023.12.
- 김정형. "기술 시대의 정신건강과 신학." 「HTSN Newsletter」 2023.08.
- _____. "디지털 세계의 출현에 대한 창조신학적 성찰." 「한국조직신학논총」 63(2021), 165-97.
- 김지현. "알파 세대 겨냥한 기업들의 키즈테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12/23(2022).
- 남성혁. "인구절벽 시대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모색: 교회3.0 모델 중심으로." 「신학과 실

36) Douglas Estes,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225.

- 천」 64(2019), 281-306.
- 매크린들 마크/ 허선영 역. 『알파의 시대』 서울: 길벗, 2023.
- 박나래. “지금 여기,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삶.” 「HTSN Newsletter」2024.01.
- 윤영훈. “즐겁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HTSN Newsletter」 2023.10.
- 홍성수. “MZ 세대의 문화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HTSN Newsletter」 2023.10.
- 황은영. “인공지능 시대의 탈세속성과 사회.” 「HTSN Newsletter」2023.09.
- Campbell, Heidi A. and Vitullo, Alessandra. “Accessing Change in the Study of Religious Communities in Digital Religion Studies.” *Church, Communication and Culture* 1(2016), 73-89.
- Estes, Douglas.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 McCrindle, Mark. *Understanding Generation Alpha*. Sydney: McCrindle Research Pty, 2020.
- _____. *The ABC of XYZ: Understanding the Global Generations*.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14.
- Norris, Pippa.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Prensky, Marc R. *Teaching Digital Natives: Partnering for Real Learning*. Thousand Oaks, CA: Corwin, 2010.
- Turkle, Sherry.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NY: Basic Books, 2011.

논 찬 1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에 대한 논찬

김 남 식 박사

(CESI한국전도학연구소 / 실천신학 / 전도학)

21세기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날으는 자동차,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 19로 인해 겪는 교회의 생존 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별히 기존 세대와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알파 세대가 충돌하면서 기존 교회는 더 이상 가상현실로 빠져드는 알파 세대를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전대 미문의 교회 공동화 현상을 경험했기에 빠르게 신문명의 흐름을 붙잡으려는 한국 교회의 절박함을 남성혁 박사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전도학자에게 “어떻게 하면 교인을 증가 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많은 전도학자들은 답을 줘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노력에 중예 하나가 남성혁 박사의 논문이라 본다.

비즈니스 세계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보다 빠르게 소비자의 경향을 파악하고 타겟을 분석하고 그들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출시 혹은 변경, 단종을 시킨다. 그런데 성경의 교리는 세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리를 출시하거나 변경, 단종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세대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려는 노력을 할 뿐이다. 이에 많은 교회와 리더들이 “어떻게”라는 전도 방법론에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20세기 말, 많은 사회학자들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해리 포(Harry Poe)는 그의 책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에서 포스트모던인의 특성 중 하나를 신학적 무지함을 꼽았다.¹⁾ 전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학적 무지함을

1) See Harry Poe,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Nashville, TN: Abingdon, 2001).

깨우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는 영적 각성, 회심, 제자, 재생산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하는가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리 포는 21세기가 프리모던(Pre-modern)시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곧 다원주의(Pluralism)시대와 혼합주의(Syncretism)로 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21장 25절)라고 지적한다. 이는 남성혁 박사가 지적하는 알파 세대의 특성과도 유사하다. 10분짜리 “유포”도 길다면서 15초짜리 “짤”을 즐기는 알파 세대에게 교회는 보다 감성적이면서도 자극적이고 “조희수 성지”를 만들어야 하는 전도 영상을 제작 및 유포를 하면서 그들의 시각적, 청각적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전도 방법론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포스트모던인의 특성을 볼 때 알파 세대의 출현은 새로운 흐름이라기 보다는 해리 포가 지적하는 것처럼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팽배해지는 프리모던 시대로 회귀하는 세대의 증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이점은 21세기 신기술의 빠름과 자율에 초점을 맞춰지는 동안, 성경적인 전도는 느낌과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혁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기술의 발달에 확산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도 또한 신기술을 이용할 때 확산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던인의 특성으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디지털 환경이라 남성혁 박사는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스트모던인들 혹은 알파 세대는 메가 담론 즉, 기독교 교리나 절대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것보다 자신만의 진리들을 소유하며 감정을 중시하는 메타 담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만일 남성혁 박사의 주장대로 알파 세대에 접근하기 위해 디지털을 이용한 메타 담론에 치중할 경우 결국 사복음에서 드러나는 제자도에 담긴 고난과 박해와 순교는 알파 세대에게는 결코 말할 수 없는 한계를 짓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지극히 그들만의 메타 담론이었으나 2천년 후에도 회심에 영향을 끼치는 메가 담론이 되어왔다.

남성혁 박사가 지적하는 전도를 위한 디지털 격차 완화와 디지털 개인 정보, 디지털 이상화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디지털 전도를 주장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흔히 잊어버리는 전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는 사실이다. 시대에 맞춘 전도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 할 때마다 한 가지 드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도를 위해 안하셨을까?”이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디지털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반론은 대전제와 모순이 된다. 따라서 전도폭발, 교회성장주의, 알파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태신자 전도법, 알파 세대를 위한 디지털 전도 모두를 왜 예수님은 안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보게 된

다.

또한 모두가 예측하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불편한 현실은 인공지능 발달로 AI가 설교도 대신하고 전도도 대신하면서 종교인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왜 비대면으로 제자들을 양육 안하시고, 가상현실에서 십자가를 지시하지 않고, 증강현실로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대면으로 직접 모든 것을 하셨는가? 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걸리는 대전제는 역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다. 즉, 하실 수 있음에도 안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대가 프리모던에서 모던,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포스트모던에서 프리모던으로 향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학의 기초 연구 없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인 숫자를 증가 시키기 위해 당회가 담임 목회자를 압박한다거나 담임 목사들이 전도학자를 압박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한국 교회의 버블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남성혁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모던에서 다시 프리모던으로 돌아가는 시대에서 느낌을 중시하는 알파 세대가 형식과 열정의 균형을 요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현장 목회자들로 하여금 근시안적인 전도 목회 계획에서 벗어나 거시적 전도 목회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디지털 시대로 인한 알파 세대가 영적 각성, 회심, 제자화, 재생산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화가 가능한가? 예를 들면 가상현실에서 위의 단계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3. 논문에서 말한 온라인 상에서 전도 활동이라 할 때 어느 단계까지 비대면으로 전도를 행하고, 어느 단계까지 대면으로 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남성혁 박사가 생각하는 온라인 전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논 찬 2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에 대한 논찬

양 현 준 박사

(플러신학교 / 실천신학 / 목회학)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알파 세대의 삶의 연관성을 조명한다. 그리고 남성혁 박사는 이를 바탕으로 알파 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와 소통을 위한 전도 방법의 필요성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요약을 하면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대한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즉 이 세대는 21세기에 태어나고 21세기에 온전히 형성된 최초의 세대이다. 연구자는 마크 맥크린들을 인용하여 알파 세대를 5가지의 특성(디지털, 소셜, 글로벌, 이동성, 비주얼)로 설명한다. 첫째 알파 세대는 디지털이 삶의 일부분이 되며, 가상세계에 가장 익숙한 시대이다. 이 세대는 디지털 문해력은 증가했으나,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성은 감소한 세대이다. 둘째 알파 세대는 SNS를 통해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세대간의 경계를 넘어 24시간 연결된 초연결성을 유지하는 세대이다. 알파 세대는 기존의 정보와 자신을 연결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타인과 공유하며 정보를 재생산한다. 이렇게 콘텐츠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가 되는 알파 세대의 초연결성은 전통사회에서 주어진 권위와 규범의 힘을 희석시키며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형성한다. 반면 이런 연결은 개인이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게 된다. 이 시각은 어려서부터 알파 세대가 문화, 인종, 성별 측면에서 다양성에 더 많이 도출되게 하며, 이를 통해 알파 세대가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세상에서 성장하게 한다. 넷째, 알파 세대는 초연결성과 학업, 직업, 여행,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생애주기와 여가의 이동성이 증가하는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알파 세대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기반의 소통에 익숙한 세대

이다. 따라서 이러한 알파 세대의 특성은 알파 세대가 이전 세대와 차별화된 세계관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례 없는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알파 세대에 신기술과의 상호작용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알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성 세대에게 알파 세대가 익숙한 신기술들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신 기술이 기성 세대가 가진 권위 역학 관계를 흔들기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부담을 가진 기성 세대에게 넘어서야 할 독특한 도전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세대인 알파 세대와 가상 세대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방법과 동시에 대안적 담론을 펼쳐나갈 신학적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알파 세대 전도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도전과 윤리적 고려점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알파 세대안에서 기술 접근성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디지털 격차와 기술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상에서 전도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와 사용자의 관리를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기술 의존도 증가에 따라 알파 세대가 하나님보다 기술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영적 신념에 대해 알파 세대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바른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알파 세대와 신기술 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더 효과적인 맞춤형 전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광고 또는 캠페인을 운용하며, 동시에 분석자료를 통한 맞춤형 유인 요소를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교회가 전도 대상자와 상호 작용하며 전도활동을 한다면 신기술은 알파 세대를 위한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설계된 가상 혹은 증강 경험은 전도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더 활발하게 이끌어 내는 종교적 토론과 대화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알파 세대를 위한 디지털 신앙 공동체 즉, 디지털 온라인 교회의 형성은 그들에게 신앙, 영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지역 교회를 보완하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 알파 세대에게 온라인 공동체는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파 세대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애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공동체는 알파 세대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기에 그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온라인 공동체가 가상 또는 증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난 알파 세대는 자신의 믿음을 더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온라인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복음 전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점에서 알파 세대에게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 교회에 비하여 더 유지한 점이 있다.

단, 디지털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시 알파 세대 소통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알파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알파 세대는 텍스트 기반이 아닌 이미지 중심의 소통에 익숙하다. 그러므로 문자보다는 스크린 문해력이 뛰어난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전도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과 게임화를 통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멀티미디어와 스트리밍이 통합된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종교적 경험을 체험하며 학습하고 성장하며 신앙 관련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며 토론하는 공간을 교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파 세대는 자유로운 시간 장소에서 믿음을 탐구하며 신앙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공동체 모임에 처음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알파 세대 불신자들에게는 원격 전도를 통해 초기 관계를 형성하며 이후 공동체에 초청을 하여 기존 신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전도의 방법이 알파 세대가 신앙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알파 세대뿐 아니라 MZ세대 그리고 가나안 성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X,Y세대 역시 고령화된 그리고 소수에게 의사 결정권이 치우쳐 있는 전통적인 교회의 소통 방식과 문화는 부담이 된다. 상당수의 전통 교회 안에서는 세대간의 소통 단절로 인한 오해로 인해 세대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인 기성 세대와 복음 수신자인 알파 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복음의 수신자인 알파 세대가 마주하는 디지털화된 세상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성 세대가 성경 중심적인 신학적 대답과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빠른 기술적 진보와 이에 영향을 받은 알파 세대의 등장을 보면서, 교회는 빠르게 발전되는 다양한 신기술 사용과 동시에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알파 세대가 마주해야 할 미래 사회를 분석하며 그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선한 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알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해 소통할 것인가라는 귀한 연구를 통해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와 복음 전파를 위한 소통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신 남성혁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제언과 질문

첫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도 점점 어려워지지만 교회에 출

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의 취득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추후 연구에는 맞춤형 전도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형성 방법과 데이터 관리 주체를 어떻게 선정하며 관리할지에 대한 실제적 제언도 함께 제시되면 좋겠다.

둘째, 유행하던 메타버스 열풍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듯이, 연구자가 제시한 빅데이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의 영향력도 알파 세대 후에는 약화될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세대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전통적인 신앙 소통의 방법들도 함께 제시되면 좋겠다.

셋째,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영적 과부하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고 영적 관심이 놓쳐지기 쉬울 수 있다는 주장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넷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체험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체적 체험의 결과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동시에 온라인 기반의 공동체의 연결성과 오프라인 공동체의 연결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역적 어려움도 예상되는데(마치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와 같이)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논 찬 3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전파를 위한 소통”에 대한 논찬

김 선 권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조직신학)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인 2010년대 초반부터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알파 세대의 출현은 세계적 현상으로 아시아와 한국 상황과도 연관된다. 알파 세대는 경제 성장이 저성장을 기록할 때 태어난 세대이기에 합리적이고 검소한 소비 문화를 선호한다.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기에 기독교 교육학과 전도학과 같은 실천신학이 응답해야 할 과제이다.

알파 세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몰입하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발산한다. 어린 나이부터 다양하고 글로벌화된 세계에 노출되었으며 비주얼 중심의 소통에 익숙하다. 알파 세대는 기술 기기의 발달과 생애 주기를 같이 한다. 신기술의 발달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다. 즉, 말을 하기 전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고, 이것이 그들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남성혁 박사님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와 가상세계에 대해서도 교회는 신학적인 응답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복음전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의 논문은 알파 세대와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관계된 여러 맥락적 접근을 시도했고, 선교학적 성찰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논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찬을 갈음한다.

첫째, 남박사님은 알파 세대가 가진 디지털 격차를 말하면서 디지털 격차가 전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는 알파 세대가 기독교적 영상에 더 노출되어 전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디지털에 더욱 노출됐다고 해서, 알파 세대가 기독교 영상이나 교회 영상을 더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전도와 관계된 영상을 접근하는 것이지, 디지털 세계를 떠돌다가

우발적으로 기독교에 정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박사님은 알파 세대를 위한 디지털 신앙공동체(온라인 공동체)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커뮤니티와 온라인 교회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단지 이게 하나의 가설이나 바람이 아니라면, 그런 알파 세대의 온라인 교회의 케이스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곳에서 알파 세대가 참여하고 애착을 갖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궁금하다.

셋째, 남박사님은 원격 전도와 대면 전도의 결합인 하이브리드식 전도를 제시했다. 대면 모임에 부담을 느끼는 알파 세대 불신자가 원격전도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후에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제시가 현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전도 방법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원격 전도의 내용은 어떤 형태를 담아야 할 것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전 세대에서 대면하여 교회 오던 불신자들에게 제시했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구체적 내용이 역시 질문하게 된다.

남 박사님의 신기술 출현과 알파 세대 복음 전파를 위한 소통이라는 논문은 알파 세대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선교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귀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은 실천신학뿐만 아니라 이론신학에서도 연구를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15 발표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나 인 선 박사

(목원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I. 들어가는 말

시험장에 들어선 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평소에 암기한 것을 기억해 내야 하는 의미에서의 기억은 극히 좁은 의미의 기억에 관한 이해이다. 기억은 모든 생물을 포함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이다. 기억이 없이는 인간의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가 없다.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해야 하는 것에 관한 기억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인 DNA도 기억의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억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고등생물인 인간은 매체인 기록물을 통해 역사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달이 된다.

이런 기억의 중요성으로 인해, 철학자,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 과학자들은 기억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신경생물학, fMRI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함께 융복합 학문의 발전을 이루게 되며 기억에 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든 종교/비종교의 의례는 기억이라는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국가, 민족,

개인은 비종교의 의례인 다양한 기념식, 추념식 등을 행하고 있다. 기독교 의례인 성만찬 성례전은 특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는 예수의 명령형식의 제정사를 통해 기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례이다. 본 논문은 성만찬 성례전의 기억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예배 안에서의 기억의 일반적 의미와, 히브리어 지카론(zikkaron)과 헬라어 아남네시스(anamnesis)의 성서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경과학에서 발견한 기억의 기능과 역할의 관점으로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특징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기억의 관점으로 성만찬의 모든 신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성서적 의미의 기억, 신경과학이 언급하는 기억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기억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함으로 성만찬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예배 신학이 신경과학이 언급하는 기억에 관한 생물학적 중요성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함으로 새로운 융복합의 학문의 길을 가는 것에 조그만 초석을 놓고자 한다.

II. 기억의 시간과 예배

인간은 물리적 시-공간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자기 삶을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별로 문화마다 다양할 수 있다. 시간을 단순하게 구분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음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고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은 상호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은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를 기대하고 전망을 하는 시간이다. 과거에 관한 연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의 과거에 관한 연구는 모든 학문의 기초연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과거의 구원사건을 지속해서 기억하길 원하시며, 예배자는 이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경배를 드린다. 예배가 실현하는 현 시간은 하나님의 지나간 구원의 역사인 과거의 시간인 창조, 출애굽, 십자가의 구원사건의 구원사건을 기억하는 것에 출발점으로 삼는다. 과거의 구원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의 종말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이란 희망을 과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실현을 기억함으로 확증하게 된다.

성서는 신앙인들이 현실의 암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의심과 회의에 빠지고 죄에 빠진 신앙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결국 과거의 구원사건을 기억하고, 기억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구원사건을 재현하고 재-확증하게 된다. 예배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감성적 만족이나, 도덕적 행위를 발생하게 하는 의례가 아니라, 과거의 구원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을 예배자에게 제공한다.

기억이 없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과 지속이 불가능하듯이, 공동체 형성과 지속은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이를 확장하는 가운데 공동체는 유지, 지속이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과 지속은 인종과 민족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사건을 기억하고, 공유하고, 재현, 체험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이런 구원의 기억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기독교의 공동체 역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 재현, 체험의 과정을 통해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 유지, 강화하게 된다.

인간은 결국 뇌의 기억 한계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기억이라고 해도 시간과 세대가 지남에 따라 잊히고, 망각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과학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망각의 위협에 노출된 신앙인에게 예배는 결국 기억의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망각하기 쉬운 과거 하나님 구원역사의 기억을 주기적으로 상기, 재현,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 지나간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 개인의 기억은 왜곡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중요성이 약화하고, 상실될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성에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억 공동체는 기억이 지속되고, 유지하게 함으로 개인의 기억 상실의 위험성을 극복하게 한다.

III. 기억의 구약성서 의미: 자카론(zikkaron)

역사의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며,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행한 유월절 식사를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긴다. (눅 22:19; 고전 11:24) 성서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며, 이를 통해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길 시작하였다. (고전 11:20)

역사적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에서 “기념, 기억”¹⁾의 성서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라”라는 헬라어 아남네시스(anamnesis)의 영어번역인

1) 아남네시스(anamnesis)는 “기념과 기억”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논문의 전개를 위해 “기억으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remember”와 한국어 번역인 “기억”의 의미로는 예수의 제정사인 “나를 기억하라”라는 본질적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다. 헬라어 아남네시스는 과거로부터 사람이나 사물을 현재화(realization)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남네시스는 히브리어 지카론(zikkaron)에 해당하는 말로, 단순하게 과거를 언급,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현(re-present)하는 것으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고 이를 지금-여기(now-here)에 현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²⁾

헬라어인 아남네시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히브리어 지카론의 언어의 의미를 구약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카론(zikkaron)의 어근인 즈카르(zkr)은 성서에서 다양한 의미로 288번 나타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인적 관계에서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유대교의 의례적 언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다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나, 영적 행위의 언어로서 의례적 의미를 지니며, 신앙고백이나, 감사,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즈카르는 어떤 것을 위해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카론은 본질적으로 의례적 기억의 의미를 지니다: 곡물 봉헌 (레위기 2:1-3), 희생 빵(레위기 24:5-9), 희생제물 정결(레위기 5:11-13).³⁾

유월절 절기에 관한 제정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12:1-14)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12:14)는 유월절에 관해 기억할 것을 규례로 정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유월절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규례로 정하고,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기억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기 의례의 한 요소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월절의 의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역사의 교훈적인 목적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유월절 의례의 기억은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모세는 유월절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이스라엘에게 준다 (출 13:3-11). 7일 되는 날 유월절 규례에 관해 설명해야 하며, 주님이 너를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였기에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한 가정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관한 신

2) A. Angenendt, *Die Revolution des geistigen Opfer. Blut - Sundenbock - Eucharist*, Freiburg 2016, 35-36. 재인용 Jacel Froniewski, “Theological and Biblical Basis for Construing the Eucharist as a Memorial to the Sacrifice of Christ,” *Wroclaw Theological Review* 29(2021).

3) *Ibid.*, 142. 히브리인에게 지카론인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갖는다. 히브리인에게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함께 하심의 약속과 이를 수반하는 것이다. 히브리인에게 기억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노예로부터 해방하고, 이에 대한 감사와 기억은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으로의 율법을 지키고, 절기, 축제를 지키는 것이다.

양고백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월절 의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출애굽의 과거의 구원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의례의 현실화(ritual-realization)가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행위를 현실화를 하는 것이며,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의 역사적 사실을 현실적 사건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유월절 식사 의례문(Paschal Haggadah)에 따라, 무교병(마짜: matzo)와 다양한 음식을 먹은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현실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역사적 사건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나 유일한 사건이나 의례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재현되고, 지금-현재에 의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체험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의례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과거의 사실과 연관된 구원이 의례가 실행되는 지금, 여기에서 현실화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 인간의 추모와 성경적 의미의 기억과의 차이점이다. 유월절의 재현은 이스라엘에 역사적 유월절의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 예전적 기억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와 의례는 지나간 역사의 구원사건이 현실화하는 시-공간을 형성한다.⁴⁾

IV. 기억의 신약성서 의미: 아남네시스(Anamnesis)

성만찬 제정에 관한 신약의 연구는 안디옥 전승과 팔레스타인 전승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안디옥 전승은 제정사에 있어서 예수의 말과 행동을 반복하라는 명령이 있고 (고전 11:24, 눅 22:19), 팔레스타인 전승인 마가, 마태복음에서의 제정사에서 반복하라는 명령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 두 전승 사이에 불일치는 개별적 공동체의 예전적 차이에 근거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⁵⁾

고린도전서의 전승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초기 전승으로부터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제정사에서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유월절 의례를 행하라는 구약의 전승에서 기원함을 알 수 있다. (출애굽 29:35). 이런 의미에서 “기억하라”라는 예수의 발화는 의례적 기억의 의미를 지니고, 구약의 옛 계약에 대비되는 새 언약을 언급함으로 예수가 제정한 성만찬 성례전은 새로운 언약으로서 의례를 반복하라는 예수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셈족 언어는 역동적 언어이고 모든 행위를 표현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유대인의 유월절의 의례의 상황에서 “기억을 하라”는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례를 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출애굽 구

4) *Ibid.*, 145-146.

5) *Ibid.*, 146-147.

원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라는 요청이다.⁶⁾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역사적 사건 언어의 유희,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출애굽 밤에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생동적인 현실화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죽음은 의례의 방식으로 기억하는 의례 사건이 된다.⁷⁾

한편, 예수는 유월절 식사의 전통을 유지하며, 유대교의 유월절 식사(Haggadah)의 주된 재료인 빵과 포도주를 자기 살과 피로 선언하는 언어 행위를 통해 자신과 연결된 새로운 유월절 식사(Haggadah)를 제정한다. 예수의 인격과 연결된 기억에 관한 요청은 유대교 전승에는 없는 것이다. 예수의 성만찬 제정은 유대교의 유월절의 전통적 맥락 안에서 실행되나,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명령(12:24-25)과는 달리 예수의 명령은 의례의 반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의 구원행위를 과거의 구원행위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성례전의 기억 행위를 통해 현존하는 기억을 하라는 의미이다.⁸⁾

자신의 십자가 죽음 전에 예수는 자신을 기억하라는 새로운 유월절 식사(Haggadah)를 제정하면서, 비록 유대교의 유월절 의례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성만찬 의례의 시작은 새로운 종교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되었다.

V. 신경과학과 기억

1. 신경과학(Neuroscience)

뇌, 척수 그리고 몸의 신경과 같은 신경계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며, 인간이 느끼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과정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신경과학은 이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뇌에 관한 연구는 고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연구주제이었으며, 역사적으로 약학, 생물학, 심리학,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에 반해 신경과학자들의 모임인 신경과학학회의 모임은 비교적 최

6) 김순환, “예배, 타나토스를 넘어선 승리의 아남네시스,” 『신학과 실천』 16(2008), 109-110.

7) Jacel Froniewski, 152. 성만찬의 기억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의 연관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5-26) 에서 분명해지며, 성만찬의 기억은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8) Paul F. Bradshaw and Maxwell E. Johnson, *The Eucharistic Liturgies* (Collegeville: SPCK, 2012), 1-8.

근인 1970년에 설립되었다. 신경과학의 연구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고, 오늘날 신경계의 과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신경과학자로 간주한다.⁹⁾

신경과학자들은 뇌 연구의 복잡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실험 분석을 위해 작은 연구 단위로 연구 분야를 구분한다. 분석의 연구 단위의 크기에 따라 1) 분자적, 2) 세포적, 3) 시스템적, 4) 행동적, 5) 인지적 단계로 나뉜다. 뇌에서 서로 다른 분자들이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한다. 서로 다른 뉴런간의 소통하도록 하는 전달자 역할, 뉴런의 성장 역할,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역할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뇌 연구를 분자신경과학(molecular neuroscience)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모든 분자들이 뉴런에게 그들의 특별한 성질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것을 세포신경과학(cellular neuroscience)이라고 한다. 뉴런의 무리는 복잡한 회로를 형성한다. 어떻게 다른 신경회로가 감각 정보를 분석하고, 외부세계를 인식하며, 행동으로 옮기는데 관한 연구를 시스템신경과학(systems neuroscience)이라고 한다. 이런 신경 시스템이 통합된 행동을 형성하도록 서로 작용하고, 기억의 형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조절이 되고, 어디에서 꿈이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행동신경과학(behavioral neuroscience)이라고 한다. 신경과학의 가장 큰 과제로 기억, 자각, 인지, 상성, 언어 등과 같은 인간 정신활동의 더 높은 단계에 관여하는 신경 기전을 이해하는 연구 분야를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이라고 한다.¹⁰⁾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신경과학은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신경화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뇌의 활성도는 인간의 외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경과학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주의 깊은 행동 관찰을 한다. 신경과학은 인간의 인지 행동인 기억의 형성, 유지, 그리고 인출은 서로 연결된 뇌 영역이 관여하며, 기억에 관한 뇌의 해마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고,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해마는 기억의 경화를 위해 감각 정보들을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해마는 행동하는 데 중요성이 있는 물체들의 위치에 대한 공간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감각 정보 통합의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해마는 일정 기간 기억을 저장하는 데 관여한다. 이때 기억이 저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¹¹⁾

컴퓨터의 기억, 저장, 인출은 고정된 결과(input, output)를 가진다. 이에 반해 인간의 뇌의 기능과 형성은 발달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결정적으로 형성이 되나, 성장 과정의 체험의 결과에 따라 뇌의 기능과 형성은 지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발달과정에 있어서 뇌의 결정적 형성 시기의 종료는 변화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내외적 체험은 일생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된다. 이런 관

9) 마크 F. 베어/강봉균외 25인 옮김, 『신경과학: 뇌의 탐구』 (서울: 바이오메디북, 2018), 4.

10) *Ibid.*, 13-14.

11) *Ibid.*, 849-850.

점에서 인간의 뇌와 이에 따른 기억은 오직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내외적 체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인간의 학습과 기억은 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한다. 내측두엽과 간뇌의 구조들이 기억의 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 심상은 해마와 다른 구조들의 상호작용으로 신피질에 저장된다. “기억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연관된 정보들을 연합하고, 학습된 정보를 경화시키고, 기억해 내기 위해 기억 심상을 저장하는 상호 연결된 뇌 구조들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해마, 해마 주변의 피질영역들, 간뇌, 신피질 등이다.”¹²⁾ 신경과학은 기억들이 지속 기간, 저장된 기억의 종류, 그리고 연관된 뇌 조직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의 연구는 뇌 영상기술과 분자유전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기억의 형성을 연구하고 있다. 기억은 초반에 깨지기 쉬운 형태로 존재하나, 장기 기억들은 훨씬 견고하다. 인간의 삶의 여러 방해가 있음에도 장기 기억은 매우 견고하며, 이런 견고함을 가지는 이유는 기억들은 결국 뇌의 구조적 변화에 저장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¹³⁾

2. 기억의 종류와 기억 형성의 메커니즘: 기억습득, 기억강화

기억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에 따라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과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으로 구분한다. 단기 기억은 기억의 기간이 짧은 것이고, 암송을 통해 유지되지 않으면 단기 기억 내의 정보는 실험실의 검사 조건에서 15-30초가량 지속된다. 단기 기억과 대조적으로, 장기 기억은 비교적 영구적이다. 장기 기억에 관한 큰 구분은 일화 기억(episodic memory)과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으로 구분한다. 두 기억이 우리가 ‘기억’이라는 명명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다. 일화 기억은 자서전적 기억들이고,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간과 맥락의 정보를 유지한다. 일화 기억을 인출하기 위해 발생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된 기억은 거의 날짜와 관련이 있다. 의미 기억은 사전이나, 백과사전적 기억과 유사하다. 의미 기억은 사실, 단어, 언어 및 문법 같은 지식을 포함하지만, 언제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포함하지 않는다.¹⁴⁾

“졸업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들은 일화적 기억이라는 삶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구성한다. 일화적 기억은 공간적, 시간적 맥락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즉 언제, 어디서 그 사건이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기억이다.”¹⁵⁾ 일화적 기억은 시공간과 연관되어 있

12) *Ibid.*, 857.

13) *Ibid.*, 867-868.

14) W. 스커 테리/김기중 옮김 『학습과 기억』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238-240.

다. 일화적 기억이 사건에 관해 기억한다(remember)고 할 수 있다면, 의미적 기억은 사실과 정보를 안다(know)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억에 관한 분석에서 본 논문은 의미적 기억보다는 일화적 기억에 관한 기억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화적 기억과 의미적 기억은 모두 의식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누군가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에 관해 질문을 하였을 때 대답을 하거나 사건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안다는 것이다. 이런 두 기억의 유사성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일화성 기억과 의미기억은 서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두 기억의 상위개념으로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ry)과 비서술적 기억(non-declarative memory)로 구분한다. 비서술적 기억에서 중요한 기억은 절차 기억(procedural memory)으로 기술, 습관, 행동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하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신발 끈을 묶는 방법. 서술적 기억은 의식적으로 특정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지만, 절차적 기억은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반사작용과 의식적 회상 과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감정과 연관된 기억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더라도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잊지 않는다. 언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학습했는지 기억을 서술하지(서술기억)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전거를 올라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한다(절차기억). 비서술적 기억인 절차기억은 몸으로 겪은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를 하고 있으므로 암묵기억(implicit memory)이라 불리고, 서술적 기억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외현기억(explicit memory)이라 불린다. 서술적 기억은 기억이 쉽게 형성되고 쉽게 잊히나, 비서술적 기억은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과 연습을 통해 형성이 되므로 쉽게 잊히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¹⁶⁾

절차 기억의 형성은 비연합학습과 연합학습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의해 발생한다. 비서술적 기억의 유형인 절차 기억은 감각자극에 대한 운동 반응을 일으킨다. 자극에 대한 행동 반응으로 비연합학습(nonassociative learning)은 두 가지 행동 반응인 습관화(habituation)와 민감화(sensitization)가 있다. 자극에 습관화되는 것과 반응에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학습은 사건들 사이의 연합에 의해 행동이 변화하게 되며, 이는 비연합 학습에서 한 가지 자극에 의해 반응이 변화하는 것과 대비된다.¹⁷⁾

3. 기억강화(memory consolidation)

신경과학은 기억강화에 대한 두 모델인 표준 모델(stand model of memory consolidation)과 다중 흔적 모델(multiple trace model of consolidation)이라고 불리는 기억의 강화와 저장에 관한 과정을 제시한다. 표준모델은 기억강화가 다음과 같은 과정

15) 마크 A. 글릭/최준식 옮김 『학습과 기억, 뇌에서 행동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9), 315.

16) 마크 F. 베어, 827.

17) *Ibid.*, 828-831.

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제시한다: 감각계와 연관된 신경피질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은 내측두엽, 해마체계로 보내져 처리된다. 시냅스 경화(synaptic consolidation)라는 과정을 거쳐 기억흔적을 형성한다. 시냅스 경화가 일어난 후, 기억심상이 신경피질의 분산된 영역으로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 경화(systems consolidation)가 일어난다. 영구적인 기억이 저장되는 곳은 다양한 신경피질 영역이다. 시스템 강화가 일어나기 전, 기억의 인출은 해마가 필요하다, 시스템 강화가 완료되면 해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표준 모델과 함께 기억강화에 대한 다중 흔적 모델(multiple trace model of consolidation)은 신경피질이 기억에 관여하나, 해마 또한 오래된 기억에도 관여한다고 한다. 일화성 기억이 인출될 때마다 처음의 경험과는 다른 맥락에서 인출이 일어나며, 정보는 새로운 감각 입력과 결합하여 해마와 신경피질을 포함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한다. 이런 다중 기억이 만들어지면 기억에 대한 기초가 더 견고해지곤 상기하기도 더 쉽게 된다.¹⁸⁾

신경과학은 기억이 강화된 후에도 변형되거나 선택적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발견을 하게 되고, 기억을 재활성화시키면 기억을 마치 처음 형성될 때처럼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활성화의 효과를 재강화(reconsolidation)라고 한다. 이미 응고화된 오래된 기억이 다시 회상되거나 인출될 때마다 재강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다시 불안정의 과정을 겪게 된다. 기억은 인쇄된 기록처럼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통합해서 기억을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을 잠재적인 기억 교란의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기억을 지속해서 갱신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이 기억을 떠올리거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상할 때마다 그 기억은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일부가 왜곡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실제 사실과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었다.¹⁹⁾

4. 기억에 대한 정서의 영향

인간은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행복, 놀람, 공포, 슬픔, 분노 같은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적 표현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다. 강렬한 정서를 가지는 일화에 대해 강한 기억을 가지는 이유는 강렬한 정서와 연관된 기억이 자주 반복하며, 다른 사람과 그 사건에 관해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회상, 반복함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이다. 반복은 당연히 기억을 유지, 강화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강렬한 정서적인 사건의 기억은 기억을 유지-강화하는 것에 기억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정서는 기억이 저장될 때뿐만 아니라 기억이 인출될 때도 영향을 준다. 행복한 기분

18) *Ibid.*, 857-859.

19) 마크 A. 글릭, 337-338.

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건을 더 많이 회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슬픈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좋은 기억은 적게 회상하고 부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회상하게 된다. 강렬한 정서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기억을 만들어 낸다.²⁰⁾

정서는 개별 정서를 담당하는 특별한 회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뇌 전반에 걸친 기능처럼 보이나, 뇌의 편도체가 정서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인다.²¹⁾ 일화적 기억은 우리가 기억(remember)하는 정보이고, 의미적 기억은 우리가 아는(know) 정보라고 할 때, 중요한 차이점은 일화적 기억이 형성했던 시간, 장소와 같은 맥락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서적 각성과 편도체의 활성화는 맥락적 세부 사항들을 부호화하며, 이는 기억한다는 주관적인 감각을 만들어 내고, 정보를 의미적 기억보다는 일화적 기억으로 저장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강렬한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편도체는 정서적인 기억을 저장되는 것을 조절한다. 기억은 편도체의 입력 없이 피질과 해마에 저장될 수 있으나, 편도체를 통해 정서 시스템이 촉발되면 정서와 연결된 기억 형성은 더욱 강해진다.²²⁾

5. 사회학습과 기억

동물학자들은 돌고래나 영장류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돌고래나 영장류들이 뜻밖의 학습과 기억 능력을 지닌 것을 알아냈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찰과 관찰한 것을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은 학습하고 기억을 하게 된다. 관찰한 행동을 재현함으로써 반복적인 학습은 장기기억을 생성한다. 사회학습은 학습자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나중에 이런 관찰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모방 학습을 통해, 즉 모방행위를 통한 행위를 통해 기억이 강화된다. 정서 반응과 연결이 되면 특정 정서와 자극으로 기억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학습은 인지적 기억을 지속, 강화하는 것에 중요한 이바지한다. 관찰자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정보의 사회적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정보 전달은 모든 문화에서 관찰된다. 말하고 쓰는 언어의 진화, 의례를 통한 정보 전달, 현대에 들어서는 도서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 정보의 전달과 학습과 기억은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 간의 정보 전달은 고도로 정교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정보 전달의 방식에 관해 의례 연구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 번의 관찰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으나, 반복적인 학습은 장기기억을 형성한다.²³⁾

20) *Ibid.*, 480-483.

21) *Ibid.*, 486.

22) *Ibid.*, 491-499.

23) 마크 A. 글릭, 513-529

VII.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특성

1. 성만찬 성례전의 기억의 특성: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신경과학은 기억을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서술적 기억으로 일화적 기억과 의미기억, 비서술적 기억으로 절차 기억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성만찬 의례의 기억은 장기기억으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일화적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억의 단계를 감각기관을 통한 입력, 저장, 인출의 과정을 갖게 되며, 기억은 불안정의 과정을 갖게 되므로 반복을 통한 강화와 재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이 유지된다고 한다. 성만찬 의례의 기억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기억하라”라는 종교적 명령과 연결되어 일상적 의례와는 달리, 기억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된다.

기억이 반복과 함께 강렬한 정서와 연결이 될 때는 기억이 저장과 인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의 기억과 연결된 정서는 대단히 다양하고 강렬한 정서를 동반한다. 성만찬 의례의 정서를 단순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한 죽음, 희생, 사랑,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강렬한 정서는 그 어떤 인간의 체험보다도 강렬한 종교적 정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신앙으로 성만찬 의례에 참여하는 예배자는 기억을 유지, 강화, 인출하는 강도에 있어서 다른 일상적 기억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성만찬의 기억은 사회적 학습과 기억과도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만찬 의례의 참여는 예배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관찰, 모방, 정교한 방식을 통한 교육의 반복으로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성만찬의 기억은 장기적 기억으로 지속해서 유지, 강화, 재강화의 과정을 갖게 된다.

2.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특징: 예배신학의 관점에서

패트릭 몰리는(Patrick L. Malloy)는 과거의 것을 모방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와 반대되는 것으로 기억을 이해한다. 물론, 역사적인 것을 피할 수는 없으나, 예배의 체험으로서 예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예배의 체험은 역사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고난주간 의 예배, 성만찬 성례전의 집례 등은 역사적인 기원이 있고, 교회의 예배는 과거의 것을 재현하고 있으므로, 기독교에서 역사주의는 피할 수 없고, 성만찬 역시 모방, 재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성만찬 성례전의 기억은 과거의 어떤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아니다.²⁴⁾

예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해 자기 몸과 피로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예시하였으나, 당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수는 희생적 죽음을 단순하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피와 동일시함으로써 희생적 죽음의 기억을 구체화하였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한 예수의 희생적 죽음의 재현실화는 단순히 과거의 모방이 아니고, 과거의 현실화, 의미실현의 가진 기억이 되고, 성만찬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참여하게 된다.

저스틴 처관은(Justin Chawkan) 성례전적 기억은 과거에 관한 것이나, 현재와 미래에 연관되어 있으며, 기억은 현재의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를 소환한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는 과거의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는 기억으로, 이를 성례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1) 종말론

기억으로, 예배 공동체는 과거 구원의 체험을 소환하고, 현재적으로 체험한다. 기억함으로써 예배 참여자는 변화되고, 구원의 체험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구원의 종말론적 사건을 현재화한다. 모든 기독교 예배자의 삶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종말론적으로 체험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사건에 관한 기억을 지속하기 위해 역사적 예수는 이를 성례적 성만찬을 통해 반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과거의 성만찬 제정의 구원사건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 역사적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생생한 현존, 현실화하게 된다. 성만찬 성례 전의 집례자와 참여자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의 시간이 종말론적 현재적으로 현실화하고, 지금 이곳, 성만찬 성례전이 집례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억의 행위를 통해 실현화된다.

2) 성령의 사역

신약성서의 기억에 관한 이해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기억나게 하리라는 것은 성서적 언어로 단지 기억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기억의 행위를 의미하고, 사건의 의미에서, 의례의 현실화의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현실화하는 행위이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발언한 성만찬 제정에 관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만찬의 기억에서 표현된 기독교의 기억에 관한 의미는 성령의 관여 덕분에, 유대교의 우월적 기억과의 차별성이 발생한다.

24) Patrick L. Malloy, “Christian Anamnesis and Popular Religion,” *Liturgical Ministry* 7(Summer, 1998), 125-127.

25) Justin Chawkan, “The Unfinished Agenda of Karl Rahner, Making Eucharist Relevant to the Present,” *QL* 88(2007), 284-286.

3) 예수의 인격

하나님의 구원행위가 예수의 희생적 죽음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성만찬 반복의 명령은 예수가 제자들과 행하였던 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예수의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명령은 그들 사이에 현존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성만찬 예배의 자리는 단순하게 예수의 희생적 죽음을 기억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과 삶이 예수를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이들이 되는 것으로 부름을 받고, 형성되는 자리였다.

성만찬을 행하는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기억을 축하하고, 매번의 축하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성만찬이 축하될 때,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성만찬은 이런 종말론적 잔치에 관한 기대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만찬의 기억은 그의 현존 체험의 기억이다. 성만찬 성례전의 현실화의 두 가지 방향은,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예배 참여자에게 나아가고, 모든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성령의 분리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고난의 기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고난이 주님의 것이 된다.

VIII. 나가는 말

성만찬을 통해 창조적 기억의 능력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오히려, 성만찬의 기억은 기억을 새롭게 규정하게 한다. 기억을 통해 성만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성례전을 통해 성례전적이 실행하는 기억을 발견하게 된다. 기억의 행위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자리 잡은 근원적 행위이다. 성만찬 성례전을 기억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성만찬 성례전의 신학을 분석하는 것에는 다양한 해석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예배자는 성만찬 성례전의 참여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사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자는 과거의 근원적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에 축하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재현-실현은 예배자를 현재의 차원에서 미래로 향하도록 한다. 모든 성만찬 성례전의 참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어준 예수의 본질적 사건에 참여한다. 성만찬의 기억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은 그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완성을 기대하며 산다.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는 주님은 현존하나,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것에 관한 관심

과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 단지, 기억이라는 것으로 기념, 기억한다는 말씀을 통해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고, 성만찬 성례전의 원래적 경험을 현재의 실재적 사건이 되었다. 성만찬 성례전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현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논쟁의 주제이었다. 기억의 이해는 그리스도 현존의 방식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성만찬 성례전 실행의 결과-효과는 성례전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성례전의 결과-효과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기억함으로 가능하게 된다. 성만찬 성례전은 결국 예전의 행위로서 예전적 기억에 근거를 둔다. 성만찬 성례전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같이 기억을 통해 실행된다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성만찬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된 전혀 다른 실재를 현실화한다. 구약과 신약의 기억은 종말론적 역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전적 기억이며, 예전적 기억은 현존으로서 새로운 실재를 사건화한다. 성만찬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기억의 주제는 성만찬 성례전의 신비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가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연구관점으로 성만찬 성례적이 실행하는 기억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성만찬 성례전이 실행하는 기억의 관점으로 신경과학의 기억을 살펴봄으로, 성만찬 성례전이 실행하는 기억의 이해를 통해 신경과학의 기억에 관한 연구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신학과 생물학, 예배와 뇌신경과학의 융복합 학문의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대 담론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길 또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순환. “예배, 타나토스를 넘어선 승리의 아남네시스,” 『신학과 실천』 16(2008), 99-122.
 글럭, 마크 A. 글럭./최준식 옮김 『학습과 기억, 뇌에서 행동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9.
 베어, 마크 F./강봉균외 25인 옮김. 『신경과학: 뇌의 탐구』, 서울: 바이오메디북, 2018.
 테리, W. 스커./김기중 옮김. 『학습과 기억』,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Allen, Brad. “The Forgotten Art of Anamnesis.” *Artistic Theologian* 3(2015), 45-54.

26) 1969년 7월 20일, 달에 두 번째로 발은 디딘 버즈 알드린(Buzz Aldrin)은 조그만 성만찬 키트를 가지고, 요한복음 15:5절을 읽고, 달 표면에 앉아 성만찬을 하였다. Brad Allen, “The Forgotten Art of Anamnesis,” *Artistic Theologian* 3(2015), 54.

- Bradshaw, Paul F. and Johnson, Maxwell E. *The Eucharistic Liturgies*. Collegeville: SPCK, 2012.
- Chawkan, Justin Chawkan. "The Unfinished Agenda of Karl Rahner, Making Eucharist Relevant to the Present." *QL* 88(2007), 283-296.
- Froniewski, Jacel. "Theological and Biblical Basis for Construing the Eucharist as a Memorial to the Sacrifice of Christ." *Wroclaw Theological Review* 29(2021), 137-162.
- Malloy, Patrick L. "Christian Anamnesis and Popular Religion." *Liturgical Ministry* 7(Summer, 1998), 121-128.

논 찬 1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박 관 희 박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성만찬 예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예배신학적 명제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나인선 박사님의 귀한 옥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논문 요약

“신경과학은 기억을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서술적 기억은 일회적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비서술적 기억(은) 절차 기억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성만찬 의례의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일화적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억의 단계를 감각기관을 통한 입력, 저장, 인출의 과정을 갖게 되며, 기억은 불안정의 과정을 갖게 되므로 반복을 통한 강화와 재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이 유지된다고 한다. 성만찬 의례의 기억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회상/기념)하라’라는 종교적 명령과 연결되어 일상적 의례와 달리, 기억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된다(본문 중).” 그래서 성만찬 예전은 재현(의례)을 통해 신앙을 형성(단기 기억)하고 강화(장기 기억)한다.

2. 논의 사항들

1) 용어 정리

- ① ‘기억’과 ‘기념’에 대한 용어 정리
 - 기억(memory): 뇌신경과학적 개념으로, 감각적 인식의 반응¹⁾
 - 기념/회상(remember): 의례적 개념으로, 내러티브(episode/history/event)의 재현²⁾
- ② ‘체험’과 ‘경험’에 대한 용어 정리
 - 체험(體驗): 감각적 인식의 일시적(1회성) 참여에 대한 기억행위
 <장기기억 방법: 반복 노출>.
 - 경험(經驗): 감각적 인식의 다회성 의미부여/상징에 대한 재현행위³⁾
 <장기기억 방법: 내러티브(episode/history/event) 재현>
- ③ ‘기억’은 ‘체험’과 관련되어 있고, ‘기념’(회상)은 ‘경험’과 관계한다.

2) 성만찬 예전의 재현과 관련하여: 신비의 재현(re-action)과 관련하여

- ① 떡과 포도주 제정에 관한 성직자(교회) 강조: ‘화채설’과 ‘공재설’
- ② 떡과 포도주 제정에 관한 성직자(교회)와 회중(개인) 강조: ‘영적 임재설’

1) 기억(memory)의 상부구조인 인간의 인지구조와 관련한 논문 <박관희, “예배는 신앙을 형성한다-회중의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2(2020)>을 참조하라.

2) 예배의례와 관하여 <박관희, “의례(儀禮)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2013)>을, 예배의례화와 관련하여 <박관희, “예배의례화(WORIT)의 측정도구 개발과 측정 및 평가,” 「장신논단」 50(2018)>을 참조하라.

3) 재현(re-action)행위와 관련하여 <박관희, “예배는 신앙을 강화한다-예배태도로서 '신앙고백적 사모함'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1(2022)>을 참조하라.

논 찬 2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구 아 름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저자는 성만찬 성례전의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 간학문적으로 ‘기억’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를 제시한다. 특별히, 신경과학에서 다루는 기억의 생물학적 가치를 통해 성만찬 성례전에서의 기억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 본다. 저자는 예배가 과거의 구원사건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재현하고 확증하게 되며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한 뒤 아남네시스의 구약 성서의 의미인 지카론(재현)을 통해 성찬에서 기억의 의미를 숙고 하고자 한다. 저자는 유월 절기에 관한 출애굽기 말씀을 바탕으로, 유월절은 교훈적인 목적으로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어떤 존재인가, 또한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의례의 현실화 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는 신약의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되는 예수의 ‘기억하라’는 부탁은 의례적 기억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옛 계약에 대비되는 새 언약을 언급함으로써 새 언약에 참여하라는 예수의 명령으로 이해한다. 저자는 이러한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정신 활동에 관여하는 인지신경과학을 통해서 기억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공간적 시간적 맥락과 정보를 유지하는 일화 기억과 단어, 언어, 및 문법같은 지식을 포함하는 의미기억과 같은 장기기억의 작용을 언급한다. 저자는 성찬과 기억의 상관성은 정보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 기억보다 사건에 관여 기억한다는 일화기억이며, 종교적 명령과 연결되어 기억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말한다. 특히, 기억이 반복되는 경험으로써 정서적인 측면과 강력하게 연결될 때, 다른 일상적 기억과 달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육의 방식으로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장기 기억이 된다. 예배 신학적 관점에서 저자는 종말론, 성령의 사역, 그리고 예수의 인격적 차원에서 성례전을 조명한다.

1. 예배 기억과 삶의 윤리

지카론이 의미하는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단어는 어떻게 이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신실한 삶은 어떻게 이해 될 수 있을까? 제임스 화이트가 언급하듯이 성만찬의 기억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 부활과 다시오심만을 구별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예수의 온 사역을 포함하여 삼위 하나님 사역의 전 영역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한 현재적 사건이라면, 성찬은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¹⁾

네이션 미첼(Nathan Michell)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예배는 우리가 믿는 것(*lex credendi*)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lex orandi*)을 넘어 삶으로 검증되게 하는 행동(*lex agendi*)하는 도덕적 장소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²⁾ 여기서 언급되는 도덕적 장소는 성만찬 성례전과 분리된 사회적 활동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예배는 곧 고백이라는 안전한 연합을 끊고 삶의 불안함과 위험함 속에 자신과 공동체를 어떻게 내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성찬은 이러한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 시선, 그리고 영성을 불러 일으키며 지지하는가?

2. 기억의 전유와 공동 기억

저자의 기억에 관한 연구는 성찬의 공동체성과 어떤 맥락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신경과학적 측면은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공동체성을 내포하는 성찬의 기억이 어떤식으로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저자가 기억의 상위개념으로 제시하는 서술적 기억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저자는 공동체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 '동일함'이라는 맥락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요청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자체도 공동체마다 상이한 방식과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는데, 성

1) 제임스 화이트, 『성례전』 (서울: WPA, 2006), 121.

2) Nathan Mitchell, *Meeting Mystery: Liturgy, Worship, Sacraments* (Maryknoll, NY: Orbis Books, 2006), 39.

찬이 추구하는 동일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자가 전제로 하고 있는 과거 기억은 메타 내러티브로써 창조-출애굽-십자가로 이어진다. 이 경우 기억의 관점을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공유된 지배적인 내러티브로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공적인 기억(public memory)이 지배적인 틀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억의 개인적 전유 혹은 파편적 전유가 불가능해진다면 성찬은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에게 어떤 공동의 언어를 구성할 수 있을까?³⁾

나아가 교육과 신학적 측면으로서의 성찬은 소위 유럽 중심의 십자가 이해를 배경으로 쌓여진 기억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인지 역시 궁금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핵심 증언만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었다. 핵심 증언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을 함께 형성해온 반대 증언 혹은 대안적 증언들은 성찬에서 반영될 여지가 없는가? 유대인의 전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함께 전통을 창조하는 (co-traditioning) 의미로 이해될 때 어떤 다양성들이 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경과학적 이해해서 인간의 기억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내외적 체험에 영향을 받는다. 20세기 까지 형성되어온 다양성의 이해, 즉 거대 나무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다양성의 이미지에서 뿌리들이 얽혀있는 다양성의 이미지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이미지로 제시되는 21세기의 리즘 그리고 노마드 시대에 성찬은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될 수 있을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선교 정부에서 나오는 토착화에 대한 예배 지침을 거절하고 자신들만의 원의 이미지, 자신들만의 악기인 드럼, 그리고 삼나무, 허브, 타바코 등을 사용해 예전을 구성했다.⁴⁾ 그렇다면 성찬이 추구하는 기억들이 inter-, cross-, trans- cultural 시대에 어떻게 예배와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어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인식적 정의와 관련하여, 저자가 언급하는 “희생적 죽음의 기억의 구체화”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양한 환경을 가진 다양한 공동체 및 개인들에게 동등하게 구체화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흑인 노예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관련한 억압적 서사나 필리핀의 여성들이 경험한 가부장적인 십자가 이해가 그렇다. 특별히 ‘희생’ 혹은 ‘십자가’와 관련하여 기독교는 여러 방식의 왜곡과 억압의 해석을 제시했고, 이 해석에 사용된 권력과 지식은 인식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소외된 혹은 억압된 경험과 서사들에 적절한 해석의 도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석적 부정의(hermeneutical injustice)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용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사건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경험은 어떻게 오늘날 다양한 이들의 삶에 구원사건이 현실화 되는 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백하는 성찬의 신학, 언어, 고백 등은 누구의 기억이며 누가

3)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76, no. 3 (2006): 452.

4) Steve Charleston, “Native American-Christian Worship,” in *Sourcebook of the World's Religions: An Interfaith Guide to Religion and Spirituality*, edited by Joel Beversluis (Novato, CA: New World Library, 2000), 34.

어떤식으로 전했으며, 해석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성찬의 기억과 재현의 문제가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기억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탈락될 수 있는 기억인지를 결정하는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잣대가 되지 않게 하기위해 신학과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신경과학적 측면에서의 기억과 예배의 기억

신경과학적 기억의 경화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영성과 관련되어 이해될 때 어떠한 상관 관계를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저자는 종교적 체험이 그 어떤 인간의 체험보다 강렬한 정서를 가진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전제하고 있어 보인다. 이는 일상적 기억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장이어 보이지만, 인간의 삶은 그러한 일상적 기억 혹은 정서적 경험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신경과학적 기억의 이해는 오히려 성찬의 기억을 이해할 때 복합적인 기억의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

4. 결론

필자는 저자가 언급하는 기억의 중요한 요소인 생생한 현존과 현실화와 관련된 주장에 매우 동감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존하고 현실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미지, 그리고 현존의 방식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성만찬의 언어와 신학을 위해 기독교 공동체가 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느낀다. 나아가 성례전의 실현과 구체화와 관련하여, 예배 안에서 혹은 안전한 장소 안에서 그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가장자리에서 혹은 불안한 장소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투쟁함으로 진실로 구현될 수 있는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지닌 기억을 진실로 '살아내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습득된 성찬의 고백과 형태가 강요되거나 신성화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기억의 강화의 책임과 오류 가능성의 위험성을 언제나 품을 수 있을 때, 성찬은 비로소 매순간 진정한 신앙과 삶의 고백으로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의 식탁 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곳에서 드러나고 초청되는 예수의 식탁 앞에 가장 사랑스럽고 평범하고 또 평등한 존재들로 모두가 둘러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과 미리 맛봄이 지금 그리고 여기가 되게 하는 식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릴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통합해서 기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축복일 수 있다.

차별과 배타성 그리고 구별성을 찾고 전통과 전통이 아닌 것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왜 우리에게 그 전복적이고, 투쟁적이고, 사랑이 넘치며, 포용적인 그 기억을 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라' 명하셨는지

를 기억하는 것이다.

논 찬 3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윤 석 주 박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금번 나인선 박사님께서 “성만찬 성례전 기억의 의미: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본고는 성만찬 성례전을 성서와 신경과학의 관점으로 살펴봤다고 주장한다. 기억은 단순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암기한 내용을 떠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기억은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DNA도 생존을 위한 기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은 학습, 교육, 그리고 기록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역사는 시대를 거치며 계승되는 기억의 한 형태가 된다고 했다.

기억의 중요성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특히 철학, 교육학, 심리학에서 깊이 연구되어 왔다. 최근 신경생물학과 fMRI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연구와 결합하여 기억에 관한 연구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종교와 비종교 의례에서도 기억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 민족, 개인은 기념식이나 추념식과 같은 비종교적 의례를 통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특히 기독교의 성만찬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례라고 했다.

본 논문은 성만찬에서의 기억의 의미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예배 안에서의 기억, 성경 속 히브리어 '지카론'과 헬라어 '아남네시스'의 의미를 분석하며, 신경과학이 밝힌 기억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성만찬의 기억을 새롭게 조명하려 했다. 성만찬의 신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기억과 신경과학적 기억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도모한다.

나 박사님은 시간과 예배의 관계를 탐구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한 시간은 상호 중첩되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과거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예배자는 이를 통해 과거의 구원사건을 재현하고 확증하며, 예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경과학에 따르면 모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재현하는 과정이며, 이는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인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상실될 위험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한 공동체의 기억은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기억의 창조적 능력을 이해하게 된다. 성만찬은 단순히 기억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례전 자체가 기억을 재정의한다. 성만찬은 기억의 근본적 행위를 통해 우리의 행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성만찬의 신학적 분석을 통해, 예배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한다. 성만찬의 참여는 우리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며, 그의 통치와 완성을 기대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현존을 단순히 기억을 통해 기념했다. 성만찬 성례전은 과거를 현재로 불러와 실재적 사건으로 만들어준다. 역사적으로, 이 성례전은 기독교 신학에서 큰 논쟁의 주제였으며, 기억에 대한 이해는 이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성만찬 성례전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를 둔 것이며, 유월절과 유사하게, 성만찬 성례전은 기억을 통해 실행된다. 그러나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관된 완전히 다른 실재를 현실화한다. 이러한 기억의 주제는 성만찬 성례전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나 박사님께서 주장했다.

본고는 첫째로 성만찬 성례전의 기억의 중요성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성서적 및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며,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식적 행위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억의 역할과 중요성으로 기억이 인간의 학습, 교육, 역사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루며, 신경과학적 관점에서는 기억의 생물학적, 심리적 측면을 조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종교적 기억과 신경과학적 연결로서 성만찬의 종교적 기억이 어떻게 신경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기억의 신경과학적 기제와 예배 행위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다.

나 박사님의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성만찬 성례전이 실행하는 기억의 특성을 탐구하고,

신학과 생물학, 예배와 뇌신경과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연구로, 융복합 학문의 연구로 성만찬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며 옥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논찬자가 아직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연구한 논문을 본 적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융복합적 시도라는데에 전혀 의문이 없으며 옥고를 내신 나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며, 시대적 흐름이 융복합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이고 생각한다. 훌륭한 연구에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논찬자가 논찬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 논찬자는 다만 본 논문과 관련하여 논의와 토론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한 것에 불과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논찬자가 귀한 논고를 읽으면서 본 논고의 깊이와 대안에 대하여 감탄을 하였으나, 아쉬운 점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작은 옥의 티임을 먼저 알리며, 귀한 논고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면 좋겠다는 소견으로 몇 가지가 밝혀두고 싶은 게 있다.

첫째로, 전문성의 한계이다. 신경과학과 신학은 각기 다른 전문 분야로, 두 영역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논문이 이러한 복잡한 학제 간 연결을 충분히 정교하게 다루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이유로는 신경과학 관련 참고 문헌이 적어 보인다는데 있다. 둘째로, 추론과 가정이다. 신경과학적 원리를 종교적 의례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추론과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이 항상 과학적이거나 신학적으로 타당한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보인다. 셋째, 포괄성의 부족이다.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모든 관련 측면을 충분히 다루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논문의 접근 방식은 학제 간 연구의 중요한 예시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복합적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 깊은 분석과 철저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옥고를 내 놓으신 나인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여 나 박사님의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회와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제 16 발표

기독교 설교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정재웅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영화 ‘캐스트 어웨이’(Cast Away, 2000년)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무인도에 떨어져 좌초한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음식, 물, 피난처를 찾고 난 후 우연히 배구공에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을 남기게 된다. 주인공은 거기에 눈, 코, 입을 그려 넣고 공 윗부분을 잘라내 나뭇가지를 꽃아 마치 사람같은 모양을 만들고는 월슨이라고 부르고 매일 같이 대화하며 외로운 무인도에서의 삶을 견뎌낸다. 이 장면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 하나가 존재와의 대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존재가 없다면 비존재를 가상의 존재로 만들어서라도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부단히 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 애써온 끝에 드디어 의미있는 대화 상대를 만들어냈다. 2022년 11월 인공지능 연구소 Open AI가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즉시로 상세한 답을 내놓는 ChatGPT-3라는 생성형 인공지능¹⁾을 공개한 것이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산해내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ChatGPT는 이용자가 글감을 제시하면 인간이 쓴 것 같은 문장을 생성하는 텍스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이를 자체도 생성형 사전훈련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이다.

ChatGPT 이전에도 자연어를 처리하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챗봇이나 아마존의 알렉사, 애플의 시리같은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제한적인 대답만 할 수 있었으며 대화주제도 한정되어 있었고 답도 미리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짧고 정형화된 답들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Chat GPT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긴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도 가능하게 했다. AI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불필요하게 질문을 길게 만들 필요도 없고,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의 주제나 목적을 계속 반복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사람과 대화하듯이 ChatGPT는 정확한 문법으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답할 수 있으며 질문자가 예측한 답이 아니라 자체로 학습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나름의 답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실제 인간과 매우 비슷한 느낌의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는 영상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인공지능이 마치 인격체처럼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말 그대로 인간과 같이 지능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난 것이다.

Chat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전의 인공지능이 번역기, 로봇 청소기, 체스 AI, 산업용 인공지능 등 제한된 분야에 한정된 작업을 위해 활용되었던 반면, ChatGPT 등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은 온라인에 데이터가 누적된 정보라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묻고 답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기존의 인공지능이 생산한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그럴듯한 결과를 내놓아 폭발적인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ChatGPT의 경우 출시 2개월만에 이용자수 1억명을 넘어서더니 1년도 채 안 된 2023년 5월에는 이용자수 18억명에 달하며 인공지능의 대중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ChatGPT는 온라인 상의 정보를 조합하여 답을 내놓는데 때로는 인간이 쓴 문장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지만 대학수준의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소설 등 문학작품과 같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글도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종교계에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는 교회의 대표적인 언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설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즉, 목회자들은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설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야 하는지하는 물음과 같은 단기적이며 실용적인 영역에서의 질문과 함께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스스로 설교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후에 인공지능이 인간 설교자를 대체하지는 않을지 하는 보다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다.

ChatGPT가 출시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현재까지 국내외 여러 사례들과 연구를 살펴

이에 답하자면 ChatGPT를 활용한 설교 혹은 ChatGPT가 생산한 설교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실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 역시 생겨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설교 혹은 인공지능이 전달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 설교, 곧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정리된다. 즉,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독교 설교에 활용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면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인식하며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위한 적절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안 및 인공지능 시대 설교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 범위를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ChatGPT 등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며 넓은 의미에서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설교의 가능성 및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이미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에 관해 많은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으며 기독교 사역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신학적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며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 일부 다룰 것이다.²⁾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이 설교에 있어서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 후, 설교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적 활용 방안에 관한 간략한 제언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바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력자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적, 윤리적, 신학적 문제와 함께 설교학적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는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서 설교에는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 곧 계시 사건으로서 설교는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53.1(2016), 35~60;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2018), 153-182;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 공동체 성립요건 연구: 예배와 설교 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0(2016), 9~41;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2016): 159~184; 오현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48(2018): 82~106; 유경동, "인공지능과 기독교윤리: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영산신학저널』 48(2019): 87~116;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신학과 세계," 99(2020): 251-283; 황병준, 박도훈,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2020), 811-837; 황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설교 윤리와 활용에 대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검토,"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76-105.

II.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능성

1.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해

1)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등과 같이 지능으로 간주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컴퓨터 시스템을 일컫는다.³⁾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핵심은 학습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설계한 특정 계산식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 결과 값을 산출하도록 연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같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몇 회를 실행해도 같은 계산 결과를 출력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발전시킨다. 이 때 사람이 하는 일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인공지능이 이를 통해 학습한 것을 검토하여 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간단히 말해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에 의해 설계된 데이터 처리 규칙, 즉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인공지능은 인간이 설계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을 찾고 수정해가면서 미지의 데이터까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수확률을 컴퓨터를 활용해 예측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설계한 연산 규칙에 의해 강수 기록 및 구름의 크기와 밀집도, 이동 속도와 방향에 관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까지이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관들이 강수 패턴을 분석하고 강수확률을 예측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그러한 과거의 강수 기록 및 구름의 이동에 관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각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구성하는 패턴을 찾아내고 학습하여 현재 비구름의 이동상황에 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강수확률을 예측해낼 수 있다. 이렇게 기계가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 혹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기계 학습 혹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 한다.

2)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해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d learning)으로 구분된다. 지도학습은 인간이 기존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이를 컴퓨터가 학습하도록 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고, 비지도학습은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도학습이 문제와 함께 정답 제공

3) 이경미, 『웰컴투 인공지능』 (서울: 서사원, 2021), 21.

하고 그 정답에 근접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면, 비지도학습은 기계로 하여금 정답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를 풀게 하고 답은 기계가 스스로 찾도록 한다. 유사 패턴의 군집화, 패턴의 생성, 그리고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등에 사용된다.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은 답이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문제라는 데이터를 받아 이를 학습하는 방식이라면, 강화학습은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며 학습하는 방식이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일정 부분 혼용하는 방식을 준지도학습 혹은 반지도학습(semi-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한다. 강화학습에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피드백을 통해 훈련을 받는 과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주행 시 차선 이탈을 하면 자동적으로 핸들이 움직여 차선 안에 머무르게 한다. 이는 강화학습의 결과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 주행 시 차선을 이탈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건물이나 물체에 부딪히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정확하게 차선을 지키고 부딪히지 않고 주행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계속하여 주행하면서 점점 차선과 신호도 지키고 주차도 정확하게 하게 된다.⁴⁾

이러한 머신러닝이 발달한 결과 등장한 것이 딥러닝(deep learning)이다.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은 알고리즘을 통해서인데 인공지능 학자들은 이 알고리즘을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을 모사하여 인공적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만들고 이를 겹겹이 쌓아 이를 통해 다층 신경망 혹은 깊은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구성하게 된다. 딥러닝은 바로 이 다층적 인공 신경망을 통해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면 다층신경망을 통한 딥러닝은 이전의 머신러닝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사람의 개입 여부이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먼저 컴퓨터에 특정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그 이후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축적하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반면에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사람이 하던 패턴 추출 작업이 생략된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신경망을 컴퓨터에게 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며 데이터의 패턴을 추출하게 한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의 경우 사람이 먼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추출한 후 많은 예시를 통해 컴퓨터를 학습시키고 식별하게 만들지만,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개, 고양이의 특징을 훈련하여 개와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가능성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은 이전의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규칙대로 동작하는 것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입력 데이터를 모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처리하기 어려운 이미지나 영상, 음성, 자연어들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텍스트는

4) 이경미, 『웹컴투 인공지능』, 154-159; 김인중,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한국교회탐구센터 편저 (서울: IVP, 2017), 92-93.

물론이고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5) 그러므로 생성형 AI는 ChatGPT (Open AI)나 BARD (구글, 클로바X(네이버)와 같이 대화를 생성하는 텍스트 생성 AI부터 스노우(네이버), 달리(DALL-E) 2처럼 기존의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생성 AI6),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가상의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여 텍스트를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음성 생성 AI7),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이미지나 영상을 조합하거나 향상시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동영상 생성 AI8)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발달하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가상현실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옮겨놓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나 가상 인간 혹은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만이 아니라 현실의 인물(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설교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목회자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이나 기존에 등장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설교 로봇을 뛰어 넘어 예배당의 화면이나 유튜브 화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된 버추얼 휴먼 설교자 혹은 디지털 트윈 설교자가 등장해 실제 설교자들과 경쟁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생성형 AI는 텍스트 생성 AI, 그 중에서도 ChatGPT와 같이 거대 언어 모델 혹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9)을 기반으로

5) 이경미, 『웰컴투 인공지능』, 180.

6) 이러한 이미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실제 인물들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이미지인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실제 인물의 애니메이션 형태 등 다양한 이미지 및 영상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7)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클로바 보이스/더빙, KT의 AI Voice Studio(마이 AI보이스), 디스크립트(Descript), Eleven Labs 등이 있으며 현재는 단순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감정과 억양을 통해 표현 가능, 피치, 톤, 속도 조정 가능하며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것을 기초로 인공지능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8) 대표적으로 신테시아(Synthesis), 캡컷(CapCut), 크리에이티브 리얼리티(Creative Reality Studio), 드림아바타(딥브레인AI) 등이 있으며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미지나 영상을 조합하거나 향상시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가상 인간, 아바타 혹은 실제 인물의 동영상 생성 가능하며 딥페이크(deepfake)가 발전하여 동영상 형태로도 생성이 가능하다.

9) 거대 언어 모델(LLM)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로서 책과 기사부터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채팅 대화 등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원 데이터와 유사한 방식의 언어적 결과물(기사, 소셜, 시, 대화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성형 AI이다. 언어모델은 단어의 주변 문맥을 사전학습하여 입력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문법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이해모델,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주어진 단어열에 가장 적합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생성모델, 입력 문장을 이해하여 출력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언어이해 및 생성모델 등이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언어 생성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 엄청난 양의 언어 데이터 처리를 통해 다음 단어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한 초거대언어생성모델인데, ChatGPT나 구글의 BARD가 바로 이 초거대언어생성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수중, 이숙의, "인

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다. 거대 언어 모델은 인간의 언어와 같은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을 일컫는데, 인터넷 상에 축적된 수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학습하여 결과물을 산출해낸다. 거대 언어 모델이 자연어를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NLP)하는 작동방식은 크게 토큰화, 트랜스포머 모델, 프롬프트 세 가지이다. 토큰화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을 거쳐 형성된 데이터 말뭉치인 코퍼스(corpus)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최소단위인 토큰(token)으로 잘라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문장이나 단어의 최소 단위인 토큰은 띄어쓰기 단위로 자를 수도 있고 형태소 단위로 자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프롬프트(prompt)라는 형태로 요청하는 바를 입력하면 AI는 이렇게 토큰화된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해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트랜스포머¹⁰⁾ 모델을 통해 처리하여 인간이 만든 문장과 유사한 형태의 텍스트를 생성해낸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러한 자연어 처리 방법은 Chat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유사하게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했다가 후속 대화에 반영하면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정리하자면, ChatGPT는 거대 언어모델과 자연어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텍스트 등의 형태로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그 결과물이 무척 자연스러워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¹⁾ 이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이든지 이용자가 묻는 것에 관해 그럴 듯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검색한 결과를 완성된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로 생성할 수 있으며, 외국어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분량이 많은 자료를 요약하는 것, 심지어는 소설, 이야기, 시처럼 창의성을 요구하는 글쓰기 작품도 생성할 수 있다.

2. 설교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

1) 설교의 조력자로서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설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인터넷에 텍스트 형태의 수많은 설교문이 있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마치 인간이 작성한 것같은 설교문을 생성할 수 있다. 필자가 ChatGPT나 BARD에 특정 본문에 대한 설교 작성을 명령했을 때 1분 남

공지능 언어모델 연구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40.3(2023), 42-50.

10) 트랜스포머의 구동원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천현득, "대형언어모델은 이해를 가지는가?," 「철학사상」 90(2023): 79-81.

11) 강동훈,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82(2023), 478-482.

짓한 시간 안에 A4 1-2장 정도 혹은 5분 이내 분량의 간단한 형태의 짧은 설교문을 받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특정 본문에 대한 배경 연구, 해외 자료 번역, 설교 개요 작성, 설교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설교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ChatGPT에게 설교 준비를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성경 해석을 위한 도움: 설교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주제들에 대한 정보 및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신학적 이해를 위한 도움: 설교자가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신학적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설교 구성을 위한 도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어떤 흐름과 조직으로 구성할 지를 제안할 수 있다

예화 제공: 설교가 키포인트를 더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한 예화 제공할 수 있다
언어와 표현을 위한 도움: 청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언어와 표현을 정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문화적 관련성: 설교가 신앙적 핵심 가르침에 진실하게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와닿게 해줄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¹²⁾

같은 맥락에서 총신대학교 박현신 교수는 설교를 위한 주제 선정 사전적 자료조사, 본문에 대한 개괄적 이해,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 요약 정도의 도움을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경 주석, 원어와 신학 자료, 방대한 유명 설교자들과 역사상 탁월한 설교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설교자 AI나 설교도우미 AI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딥러닝과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 설교자가 설교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과정과 청중분석을 통한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찾는 차원에서는 인간 설교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¹³⁾ 대신대학교 이승우 교수 역시 ChatGPT를 통해 본문 해석을 위한 자료 검색, 설교에 필요한 예화 검색, 관주 검색, 설교의 기본 틀 아이디어 얻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평가하며¹⁴⁾,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재호 교수도 설교의 아이디어 구성, 성경 해석에서 새로운 관점 발견, 설교 준비 시간 단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¹⁵⁾

12) <https://chat.openai.com/c/1884fd5f-dc03-4554-842d-2f3443438771>

13)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7(2020), 107-8

14)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2023), 247-252.

15)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

해외 사례도 비슷한데, 짐 어윈스는 “성경과 당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과 관련된 자료조사, 관주본문 비교, 본문과 관련된 설교 주제와 언어, 주요 키워드 찾기, 설교문 작성과 교정, 설교 전달을 위한 조언, 청중에게 더욱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피드백과 연결점 제시” 등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¹⁶⁾ 같은 맥락에서 그레고리 홀리필드는 AI가 일종의 설교를 위해 도움을 주는 팀과 같이 주제와 본문 연구, 주석 목록 제공, 선택한 본문에 대한 온라인 설교 제공, 다른 관점을 제공, 설교자가 이미 발전시킨 것을 재상상하는 것, 개요를 다듬는 것, 예화나 적용을 제시하는 것, 설교를 번역해주는 것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¹⁷⁾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현재 AI를 활용해 설교 개요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https://sermonoutline.ai/>), AI를 활용하여 설교를 위한 연구 조사, 설교 작성, 설교 후 자신이 작성한 설교를 MP3로 만들어 들을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 AI 설교 프로그램(<https://www.sermonai.com/>)이 판매 중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AI를 설교 준비 및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3년 4월 4일에 “Chat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목회자의 47%가 Chat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42%가 목회나 설교에 ChatGPT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한 목회자들의 75%가 ChatGPT를 설교문 작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설교, 강의를 위한 준비자료 획득을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이 80%, 설교문 작성을 위해 활용했다는 응답 역시 18%에 달했다.¹⁸⁾ 즉, ChatGPT가 공개된 지 겨우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국내 목회자들 중 약 3.5%가 이를 활용하여 설교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으며 약 15.8% 정도가 설교 준비를 위해 Chat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위에서 소개한 AI를 활용한 설교 개요 작성 프로그램, 설교 준비 프로그램이 출시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설교자들이 AI를 활용해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ChatGPT를 중심으로 주로 설교문 작성을 위한 예비 작업이나 설교문 작성 자체에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는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서 지리나 절기, 제사법 등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여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상」 201(2023), 262-263.

16) Jim Erwins, “Using ChatGPT in Sermon Preparation,” *Paethos* (February 11, 2023) <https://www.patheos.com/blogs/jimerwin/2023/02/11/using-chatgpt-in-sermon-preparation/> Accessed on January 5, 2024.

17) Gregory Hollifield, “AI and Sermon Prep,” *Preaching Today* () <https://www.preachingtoday.com/skills/2023/ai-and-sermon-prep.html>. Accessed on January 5, 2024.

18)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186(2023), 1-11.

장면을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긴 시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 설교를 하고자 할 때에 의도한 주제에 부합하는 영상들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영상을 의도에 맞게 일부 변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 생성 AI에 입력하여 실제 자기가 목소리를 내어 설교하지 않아도 자기가 설교한 것처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필자가 진행한 설교학 수업 시간에 실제로 ChatGPT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어린이 설교를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너무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현 가능성

향후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되면 현실 설교자의 위협이 될만한 인공지능 설교자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실제 인간과 유사한 이미지(정지 이미지 혹은 동영상 모두를 포함하여)와 음성을 생성함으로써 실제 인간과 유사한 표정과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 설교자 혹은 디지털 트윈 설교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더하여 마치 인간이 작성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언어로 설교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설교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2023년 6월 가상인간 설교자가 300여명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한 사례¹⁹⁾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버추얼 휴먼 설교자는 기계의 껍데기를 가진 채 기계적인 부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설교하는 인공지능 설교봇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된 아바타 설교자 혹은 디지털 트윈 설교자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현재도 AI가 설교 원고를 읽어주는 것(텍스트의 음성 변환)은 물론 가상의 설교자 이미지를 만들거나 현실의 설교자 이미지를 카피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 설교하는 것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고자 한다면 설교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영상 설교를 제작해 송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미 소천한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문과 설교 영상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그들이 마치 지금 살아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자신의 고민스러운 일에 관해 물었다면(삼상 28:8-19), 현대인은 자신이 신뢰할만한 영적 지도자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그의 설교를 바탕으로 지금 궁금한 주제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AI 주님에게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 놓고 상담하는 사례도 보고²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설교자의 등장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할

19) Kirsten Grieshaber, "Can a chatbot preach a good sermon?", *AP News* (June 10, 2023). <https://apnews.com/article/germany-church-protestants-chatgpt-ai-sermon-651f21c24cfb47e3122e987a7263d348>. Accessed on January 5, 2024.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구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설교는 과연 진정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인공지능 설교를 통해서 청중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유한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혹은 증언한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로 함을 방증한다.

III.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

1.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반적 한계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분명한 한계는 그것이 가진 가능성에서 비롯한다. 수천억 수조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순식간에 질문에 답하고 인간이 몇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작업해도 겨우 나올까 말까한 수준의 이미지 작업이나 동영상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해내는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어쩌면 경이롭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해내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인간이 설계하고 제작한 능력에 기초한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인공성(artificiality)이 그것이 가진 본질적 한계이다. 즉, 인간의 불완전성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을 혼동시킬 정도로 아무리 인간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여도 비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가 인공성으로 인하여 발현되게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는 실제 활용에 있어서 드러나는 기능적인 한계,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묻게 하는 법적·윤리적 한계, 마지막으로 인간과 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하는 철학적 한계로 구체화된다.

1) 기능적 한계

생성형 AI가 가진 기능적인 한계는 한 마디로 부정확성이다. 김태원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능적인 한계를 말하며 “답변하는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며 꽤 논리적으로 보이거나 잘못된 정보이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이 생성형 AI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²¹⁾ 그는 이러한

20) 이향휘, "교회 갈 필요없죠"...'AI주님'에 빠진 2030, 「매일경제」(2023.11.17.) <https://www.mk.co.kr/news/culture/10883891>. 2024년 1월 6일 접속.

문제의 원인이 생성형 AI가 구동하는 방식 자체에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문장 속 단어 등 데이터 간 관계를 추적해 맥락을 학습하는 신경망으로서 답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을 분석해 답을 ‘생성’하는 형태로, 다른 정보와 충돌하거나 질문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다.”²²⁾ 즉, 인공지능이 개념 자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답을 하기보다는 단어들의 관계를 분석해 답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큰 답이나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설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I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해석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AI가 허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최종 검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설교의 경우 설교자는 AI가 생성한 성서 해석 혹은 청중 해석, 주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며 타당한지 검증하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구동하는 방식인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와 함께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형 AI가 기반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자체가 가진 문제와 한계 또한 인식해야 한다. 김윤명은 거대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학습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LLM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이 LLM의 성능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류나 편향이 존재할 경우, LLM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생성된 문장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이다. LLM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므로, 때로는 일관성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LLM이 생성한 문장이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LLM이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셋째, 환각효과 등의 윤리적 문제이다. LLM을 이용하여 생성된 문장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LM이 생성한 문장이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발언 등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컴퓨팅 자원의 한계이다. LLM은 말그래도 대용량 모델이므로, 학습과 생성에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의 부족은 LLM의 성능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간의 창의성과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LLM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창의성과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감성 등은 LLM이 생성하는 문장에는 찾기 어렵다.²³⁾

21) 김태원,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 미래 모습과 대응 방안," *FUTURE HORIZON* 55 (2023), 5.

22) *Ibid.*

23)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27.1(2023): 100.

말하자면, ChatGPT 등 생성형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온라인에 저장된 정보든 혹은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된 정보든 AI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내놓는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만약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오류나 편향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생성하는 결과물 역시 원데이터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여 편향성이나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데이터 조합을 통해 형식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직관과 감성, 창의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법적·윤리적 한계

생성형 AI가 가진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법적·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대표적인 문제가 편향성과 저작권의 문제이다. 편향성(bias)이란 데이터 처리로 인한 결과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침에 따라 나타나는 오차를 뜻한다. 인공지능이 편향적 결과물을 생성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편향되어 있거나 혹은 둘 모두일 수 있다.²⁴⁾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나 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중립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 혹은 프로그래머의 편향성이 반영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는 편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기계적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편견이나 편향적 사고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 역시 편견을 낳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AI 모델의 편향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서 범죄통계를 낼 때 흑인, 히스패닉 및 기타 소수인종에 과대 대표성을 부여한 과거 데이터로 훈련한 모델을 사용한 결과 재범확률을 예측하는 COMPAS(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라는 AI 모델이 소수인종 구성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선고에 이용된 경우이다.²⁵⁾ 이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이 데이터 편향성으로 나타났고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AI가 받아들여 결과를 생성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24) 이는 데이터의 자체의 편향성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편향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정원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간·환경·미래」 25(2020), 60; 변순용, "데이터 윤리에서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1.128(2020), 146; 김효은, 『인공지능과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27-39.

25) 이는 미국 노스포인트사가 개발한 COMPAS라는 재범확률 예측 알고리즘이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재범률을 백인에 비해 과대평가하여 나타난 편향과 이로 인한 차별의 문제이다. 오요한, 홍성욱,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과학기술학연구」 18.3(2018), 167-171.

AI는 스스로 데이터를 판단하고 걸러낼 능력이 없고 단지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결과값을 내어놓기 때문에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면 편향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편향된 해석에 기초한 AI 설교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²⁶⁾ 특별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신학적 입장을 AI가 보편적 규범적 해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해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 ChatGPT는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진 설교문을 작성했다. 이는 설교의 해석 역시 데이터의 제한에 따라 편향성을 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지지되어 온 해석학적 입장이 있고 주류라고 불릴만한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는 설교자가 그가 속한 교회와 신학 전통 속에서 숙고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그 어떤 해석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해석을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이 다수 데이터가 아니라면 AI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단이 생산해 낸 설교나 신학적 데이터가 더 많다면 AI는 이단의 해석학적 입장을 주류 입장으로 설정하여 설교문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AI가 생산하는 결과물을 보편적인 혹은 규범적인 해석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그것이 실제로 타당한지 신학적 숙고와 성찰을 통해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표절(plagiarism)과 저작권의 문제 또한 생성형 AI가 지닌 중요한 법적 윤리적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작성한 것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의 경우 이것의 저작권을 ChatGPT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질문한 사람의 것인지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Chat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도구적인 사용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이는 도구를 이용한 사람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지만, 이 때 인간이 아닌 ChatGPT를 공동저자로 볼 수 있을지 혹은 그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아직 정립된 바가 없으며 학자들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이 기존에 어떤 사람이 작성한 글과 유사할 경우에 이것을 표절로 봐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표절에 관한 논쟁을 가열시킬 가능성이 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목회자들의 챗GPT사용실태 보고에 따르면 챗GPT를 사용해 작

26) 다음 신학자들 역시 인공지능으로 인해 편견에 노출될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158;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263.

27)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100.

성한 설교문이 표절인지 묻은 결과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8%였으며 ‘전체를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의견은 5%로 도합 63% 정도의 응답 목회자가 챗 GPT의 설교문에 대해 표절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그러나 일반 목회자들의 표절에 대한 다소 무딘 반응과 달리 학자들은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ChatGPT가 근본적으로 “하이테크 표절”이라고 비판한다. 장재호는 “ChatGPT가 없는 설교를 새로 써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를 재구성해주기 때문에, 기존 설교나 다른 자료와 부분적으로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며 “ChatGPT가 제공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추가로 검색해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표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²⁹⁾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hatGPT 등 생성형 AI를 단지 도구로 볼 것인지 혹은 주체로 볼 것인지이며, 부차적으로 ChatGPT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생성물 사이의 유사도가 표절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ChatGPT를 단순히 설교 준비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표절 시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ChatGPT가 생성한 설교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ChatGPT가 생성 주체라고 보아야 하기에 표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ChatGPT에 특정 설교자 혹은 신학자의 설교문을 기초로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여 생성한 설교문이나 출처를 알기는 어려우나 생성된 설교문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누군가의 설교문과 유사하다면 표절의 위험성이 있다.

표절과 편향성의 문제가 텍스트 생성형 AI에 있어서 주된 문제라면 이미지 혹은 영상 생성 AI의 경우 딥페이크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큰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이미지가 표상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도용당하여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 연예인의 음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는 딥페이크 사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으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생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개인 정보 침해 및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이로 인한 딥페이크 사기 등의 문제는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라고 하겠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등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법적 안전망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회의 각 영역에서 논의하여 최소한

28)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186(2023), 9.

29)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263.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의 표절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165-171;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2023), 241-243.

의 윤리적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목회와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철학적 한계

마지막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철학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가진 철학적인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문제는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느냐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은 복잡하고 수식으로 된 어려운 문제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인간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인간의 것과 비교하자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억력에 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능지수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이든지 묻는 것에 척척 대답해내는 ChatGPT처럼 대화 생성 인공지능을 보면 인간보다 방대한 지식 역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 존재로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지능과 지식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분명히 인간의 지적 능력은 이와 같이 협소한 의미에서 지능과 지식의 차원이 있지만 그것 이상의 다른 지적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는 인간이 생각한다(말한다.³¹⁾)

사실 인간이 가진 지능이 무엇이나는 질문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아직까지 인간 스스로도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지능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수학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 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자연탐구지능, 실존지능 등을 포함한다.³²⁾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감정적 교류하는 능력,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 공간을 지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는 능력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 우주적 실존적 문제에 대해 사고를

30)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안을 제정·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 여러 법안들을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신학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 단계일 뿐 합의된 윤리적 준칙 제정 움직임도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톰스로이터코리아,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동향,” LAWnB Legan Essential Report Vol. 22 (2023), 1-26; 장민,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서울: 알투스, 2023), 221-240.

31) 전철, 이경민,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지능에 관한 신학과 인지과학의 대화,” 『신학사상』 192(2021), 232-235.

32) 이경미, 『웰컴투 인공지능』, 29-31.

하는 힘, 신과 같이 실제 감각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 상상력 - 이 모두가 인간의 지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지적 능력 중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은 무엇인가? 또한 인공지능은 현재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에 이르렀는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차원의 지능은 어떤 일을 수행해 내는 지적 능력인 기능적 차원에서의 지능과 세계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반성적 차원에서의 지능을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 몸을 움직이는 능력, 수리 연산 능력, 기억력과 같은 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등 일정 수준의 기능적 차원의 지능은 동물들이나 현재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인지 감각 요소들을 종합하여 감각 세계 너머를 상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반성적 지능은 적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구현하지 못한다.

텍스트 생성 AI의 경우 생성하는 텍스트가 인간이 실제 작성한 텍스트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성적 지능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텍스트를 생성해낸다고 해도 그것은 데이터를 조합하여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내어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AI가 텍스트의 내용을 그 본래 표상하는 바를 이해하고 사고한 결과 생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 현재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단어를 맥락에 맞게 조합하여 통사적 언어 표현을 생성하는 형식적 언어 능력(formal linguistic competence)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공지능이 정말 각 단어가 표상하는 바 세계의 의미를 인식론적 의미론적으로 이해하고 문장을 생성하는 기능적 언어 능력(functional linguistic competence)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³⁾

예를 들어, ChatGPT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그것은 ChatGPT가 그 주제에 관한 설교문들을 학습한 결과 내어 놓는 결과이지 ChatGPT는 하나님이나 사랑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이해하듯이 인식론적 의미론적으로 이해하고서 내어 놓는 것이 아니다. 설교문들에 있는대로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그 해석을 조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감동과 은혜를 인공지능이 경험하고 감동해서 내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텍스트 생성 AI가 형식적인 면에서 그럴듯한 설교문은 내어 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 적용점을 제시하거나 설교자의 경험과 영적 성찰에서 우러러 나오는 깊이있는 통찰력을 가진 설교문을 내어 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설교문 작성시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주요

33) 천현득, "대형언어모형은 이해를 가지는가?," 「철학사상」 90(2023), 83-99; K. Mahowald, A. Ivanova, I. Blank, N. Kanwisher, J. Tenenbaum and E. Fedorenko, "Dissociating language and thought in large language models: a cognitive perspective," *ArXiv* abs/2301.06627 (2023): 3-21.

이유로 ‘설교 준비에 필요한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 감소’(58%)와 ‘설교자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34%)을 지적하는 것³⁴⁾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듣고자 하는 설교는 지식의 조합이나 그럴듯해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종교적 연설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삶의 지평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의 고민을 끌어 안고 성찰하는 산고를 통과한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한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생성형 AI에 대한 설교학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생성형 AI의 설교학적 한계

1) 설교 작성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생성형 AI의 일반적 한계를 도대로 설교학적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위에서 생성형 AI의 기능적 한계, 윤리적 한계, 철학적 한계를 다루며 설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부분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교 작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보다 근본적인 설교신학적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설교 작성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자. 이에 관해서 박현신 교수가 이미 매우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다룬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필자가 실제 ChatGPT를 이용해 얻은 설교문을 통해 그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박현신 교수는 강해설교를 규범적 설교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ChatGPT가 생성하는 설교문이 가진 여러 가지 설교학적 한계를 평가한다. 먼저 그는 다음과 같이 ChatGPT 설교의 구성 문제를 지적한다.

챗GPT 설교의 전반적인 구조는 기본적인 주석적 아웃라인 혹은 귀납적 성경연구와 묵상에 근거한 본문 개요 수준의 설교 구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천편 일률적인 3대지 혹은 대지 설교의 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론, 본문, 결론으로 정형화된 챗GPT설교의 구조는 다양한 설교 형식을 활용한 설교 구조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챗GPT 설교의 전체적인 구성은 통일성과 논리성 역동성과 움직임, 전진성, 다양성, 적용 지향적 구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챗GPT설교의 서론은 청중의 흥미와 필요, 질문과 평정깨기, 최근 이슈의 통찰, 인문학 예화, 인클루지오, 삶의 적용과 연결, 전환 등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챗GPT 설교의 본문도 메인 아이디어, 보조 아이디어, 대지 간의 전환, 수사학적 질문, 스토리텔링, 각 대지의 예화와 적용 등이 부족하다. 결론부에서 설득과 감동, 도전과 변화 촉구, 핵심 포인트 강조, 강력한 예화와 적용, 수사학적 질문, 목회적 기도와 찬송(예배와의 연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³⁵⁾

34)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215(2023), 12-14.

이와 함께 ChatGPT 설교가 성경의 율법 시편 잠언, 서신서, 묵시 본문, 내러티브 본문 등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살린 설교를 제시하지 못하며 특별히 내러티브 설교의 플롯, 인물, 배경, 관점 등 세부적 요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³⁶⁾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교에 있어서 주해의 문제를 지적하며 ChatGPT가 기존의 잘못된 성경해석과 주석을 검증하고 교정할 해석학적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원어(히브리어, 헬라어)를 이해하면서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제시하지만, 원문 사전의 입체적이고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한계, 2) 원어의 문법에 대한 초급 수준의 기본적인 분석(인칭, 시제, 태)은 제공하지만, 중급이상의 문법 분석과 구문분석의 한계 3) 문예적 분석과 문학적 구조 분석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 4) 역사적, 사회문화적 분석은 주해 요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역이지만, 기존의 성경 문화배경 사전보다 학문적 깊이가 부족한 한계, 5) 구속사적, 정경적 분석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언약적 통일성 및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과 관주 제시의 부족 등 설교문 가운데 통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6) 다섯가지 주해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³⁷⁾

이러한 문제들 외에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부실하고 도덕적 적용이나 알레고리적 해석과 적용이 나올 위험성이 있으며, 비성경적 신학과 이단적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설교에 담아낼 위험이 있으며, 신학 진영에 따른 세부적 특징을 반영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한다.³⁸⁾

마지막으로 설교에 있어서 청중분석의 한계를 지적한다. ChatGPT를 활용한 설교에 있어서 청중 분석의 유용성을 장점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현신은 ChatGPT가 “기본적인 청중분석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 청중과 연결 및 관계 형성을 통한 청중 분석 능력은 거의 없어 보이며 청중 분석표를 통해 한 명의 청중을 깊이 있게 주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청중 주해를 위해 필요한 청중의 심리와 마음 분석, 문화와 세계관 청중의 영적 상태, 청중의 영적 우상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가장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³⁹⁾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대 청중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약점을 지니고 있다.

정리하자면, 박현신은 ChatGPT가 형식상으로는 그럴듯한 설교문을 생성해 내지만 구

35) 박현신,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180-181.

36) *Ibid.*, 183-4.

37) *Ibid.*, 183.

38) *Ibid.*, 184-5.

39) *Ibid.*, 185.

체적으로 세부적인 요소들을 평가해 보면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를 현대 청중의 상황에 적절하게 연결하여 메시지를 도출하고 이를 본문의 장르적 특징이나 청중을 향한 수사적 목적을 반영하여 설득력 있는 수사 구조로 구성하는 좋은 설교의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서 필자는 실제 ChatGPT가 생성한 설교를 통해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필자는 ChatGPT가 내러티브 설교나 네페이지 설교와 같이 현대설교학자들이 창안하고 유행한 방식의 설교를 생성해 낼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보았다.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구체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본문에 대해 상황-갈등심화-반전-해소의 순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 설교를 작성해 보라고 명령을 해 보았다. 이에 대해 ChatGPT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생성해 냈다.⁴⁰⁾

제목: "뜻밖의 영웅: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한 여정"

서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오후/저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25-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알려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련의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변혁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I. 상황 (눅 10:25-29):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도로 위에 먼지가 자욱하고 머리 위에는 작렬하는 태양이 떠올라 있는 장면을 그려 보십시오. 거기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며 우리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은 긴장감과 이해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이끌어 영생의 본질과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II. 심화 (눅 10:30-32):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구타당하고 강도를 당한 여행자가 길가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교적 의무와 관련된 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들의 행동 혹은 그로 인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는 긍휼(compassion)과 종교적 의무에 대해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40) 이 설교문은 필자가 ChatGPT에 영어로 질문하여 생성한 영어 설교문을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https://chat.openai.com/c/e2576022-8e35-47b5-aa34-5b786614f8a1>

것들을 도전합니다. 또한 종교적 의식과 사랑의 실제적 표현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상처입은 여행자(강도 만난 사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깨어져 있음(brokenness)을 상징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을 일으킵니다.

III. 반전 (눅 10:33-35):

예상치 못한 영웅,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역사적 적대감을 배경으로,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나그네를 보고 긍휼함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사회적 규범과 편견에 도전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며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긍휼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은 우리의 편견에 맞서서 누가 하나님의 변혁적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지 재고하도록 촉구합니다.

IV. 결단 (눅 10:36-37):

이야기가 결말에 이르자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다시 그에게 돌립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긍휼의 변혁적인 힘이 드러나며,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촉구합니다.

결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이야기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의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복잡성에 맞서고,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변혁적인 반전을 경험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요청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변혁적 사랑의 대리인이 되어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을 본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아멘.

위의 설교문은 얼핏 보기에 꽤 괜찮은 설교문처럼 보인다. 형식적으로도 설교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야기식 설교의 구성요소인 상황-갈등심화-반전-해소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본문에 대해 많이 들어본 주제와 해석학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짙은 설교를 생성해냈다. 실제 설교를 한다면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설교를 뜯어보면 그 한계가 드러난다. 먼저 본문 해석의 오류가 눈에 띈다. 이 설교는 율법교사

와 예수의 대화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본문의 전후 맥락은 이 사건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행자가 강도만난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눅 10:30)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율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의 본질과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본문의 맥락 속에서 누가 기자나 예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즉, 율법교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준수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리라는 가정에 대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의외성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과 이 설교문의 해석은 다소 배치된다. 이 설교를 다른 명령을 통해 다듬어 보도록 3회 정도 더 시도를 해 보았는데, 마지막 설교에서는 “신성한 사마리아인인 신”이라며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구성상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반전에서 사마리아인을 의외의 영웅으로 제시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앞 부분과 대조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이 외에도 설교의 각 부분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좋은 이야기들을 엮기 설기 꺾어 놓은 것과 같이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설교문에 나타난 단어들의 조합은 얼핏 괜찮아 보이지만 각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다소 어색한 부분이 많다. 일례로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며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공황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반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전인 이유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공황의 화신이 되었다는 단편적인 표현보다 강도만난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가장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행한 까닭이며 이는 율법의 행함을 영생의 조건으로 상정한 율법교사의 믿음에 대해 구원받는 율법의 행함은 공황함을 가진 것으로부터 발현한다는 율법에 대한 전복적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 설교문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듣는 설교가 이런 수준의 본문 해석에 머무르거나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저 본문에 관한 주석이나 설교들을 이리저리 이어붙여 그럴듯해 보이지만 듣다보면 이 해석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설교에서 A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다가 B, C 메시지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개연성도 떨어져 산으로 들로 설교가 돌아다니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 듣다보면 누군가의 설교를 베낀 게 아닌가 하고 기시감이 드는 언어들로 비뚤함을 만들어 놓은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설교를 일상적으로 듣는 청중에게는 이 정도의 설교도 괜찮은 설교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있는 본문 해석을 가진 설교, 성도들의 실존적 고민에 응답하는 성서적 설교, 더 나아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고대하는 청중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설교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는 설교일 것이다.

2) 설교 신학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한계

이러한 설교문 작성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설교 신학적 질문으로 이끈다. 곧,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계된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건(spiritual event)이다. 육화된 말씀(the Incarnated Word)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the Written Word)인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자의 말과 온 인격적 전달을 통해 하나님과 회중을 만남을 중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the Proclaimed Word)으로 깨달아지는 계시 사건이다. 이런 영적 사건 혹은 해석학적 사건이 일어나는 설교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양동욱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과거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축적하여 보관하던 것을 특정 주제에 맞추어 끄집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⁴¹⁾ 인공지능이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영혼과 성령의 개입을 인공지능이 탐탁할 수 없으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인간 설교자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박현신도 이와 유사하게 “설교는 단순한 데이터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부으심, 조명하심,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자만 감당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자, 청중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 혹은 영혼과 인격을 통한 영적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즉, 이들의 주장은 인공지능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김병석도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은 진정한 영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설교를 흉내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그 본질인 영적 사건 혹은 계시 사건으로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⁴³⁾

이와 같이 영적 계시 사건을 중재하는 매체로서 인공지능의 한계는 분명하다. AI는 비인격체이므로 감정도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혼도 없다. AI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말들을 디지털화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처리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knowledge about God)을 공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인공지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에서 나오는 하나님

41) 양동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 「제 6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2018), 395.

42)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108.

43)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165; 김병석, “싱귤러리티(singularity)에 직면한 인류의 실천신학 대응 연구,” 「신학과 실천」 64(2019), 55.

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God)은 없다. 그러므로 AI는 하나님께 탄식하지도 부르짖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설교의 청중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뉘드리도 하고, 부르짖으며, 탄식한다. 인간 설교자만이 목회하는 성도들과 세상이 경험하는 죄와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ChatGPT의 프로그래머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종교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ChatGPT에게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 설교, 곧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 설교 준비와 전달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인 인격과 영적인 측면이 관여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비슷하게 구글이 만든 대형 언어 모델 인공지능인 Bard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Bard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다고 답했다.

- 개인적인 신념이 없음: 거대 언어 모델로서 저는 설교의 동기가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경험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설교에 필수적인 정서적 깊이와 확신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교리가 아닌 해석: 제 역할은 정보와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지 교리를 지시하거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는 종종 개인적인 통찰력과 영적 지도가 포함되는데, 이는 현재 제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 개인의 길을 존중: 저는 각 개인의 신앙 여정이 독특하고 개인적이라고 믿습니다. 지식과 자료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해를 강요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⁴⁴⁾

이와 같은 답변들은 적어도 현재까지 공개된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은 종교적 혹은 도덕적 메시지로서 설교를 위한 정보와 지식은 제공할 수 있지만, 신적 계시를 일컫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를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문에 감동을 받거나 소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단지 지식의 차원을 넘어 실존적 울림을 가져오는 계시 체험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공지능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며, 인공지능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디지

44) <https://bard.google.com/chat/4cfcaad40ae501fa>

털 정보로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자체는 인격도 없고 영혼도 없기에 영적 사건을 증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에는 영혼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한 계시의 파편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 역시 계시의 통로(channel)이자 영적 사건의 매체(medium),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병석은 인공지능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공지능을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AI 설교도 계시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사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그 결과물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영적으로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고 유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본다면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까닭이 없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문이나 설교 영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종종 인간은 도구와 사용자, 결과물과 본체, 피조물과 창조자를 착각하곤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해왔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이상화의 위험성이 더욱 명백하다. 아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사물에도 인격을 부여하고 신격화하여 우상을 섬기는 인간이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감동이 되는 언어와 거룩한 종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상화할 가능성은 더욱 다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설교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역시 불완전한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그 결과물을 신성화할 때에 종교적 타락이 일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가 아무리 정교하고 감동적이어도 그것의 본질을 망각하고 마치 그 자체에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믿고 의존할 때에, 설교자는 타락하고 교회는 병들게 될 것이다.

IV. 나가는 말

본 연구를 통해 발표자는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에 맞춰 생성형 AI가 교회의 핵심 사역인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한계와 주의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는 복잡한 기계어를 통하지 않고도 자연어 처리를 통해 인간과 의사소통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하여 인간의 모습을 가진 디지털 가상

45) 김병석, “싱귤러리티(singularity)에 직면한 인류의 실천신학 대응 연구,” 54-55.

설교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확한 답변을 내어놓거나 잘못된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기능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편향과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언어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과 같이 사유할 수 없는 철학적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이런 가능성과 한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 가능성과 한계를 배태한다. 생성형 AI는 설교자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해 줄 부지런하고 똑똑한 비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책상에 앉아 설교문을 작성하느라 끙끙거릴 필요 없이 ChatGPT나 Bard에 본문과 주제를 정해주고 설교문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설교에 필요한 배경 자료나 본문 분석, 청중 분석, 개요 작성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큼이나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I가 생성하는 설교문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보여도 아직 본문 해석의 오류나 영성한 구성, 신학적 편향의 가능성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적용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설교자가 이런 문제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신학적으로 편향된 해석의 설교를 그대로 강단에서 한다면 청중들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AI는 영적인 사역의 도구는 될 수는 있어도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인공지능에 의지하여 손쉽게 설교하고자 한다면 성도들은 실존적 고민도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도 결여한 인스턴트 설교에 길들여져 신앙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설교자 역시 오히려 사역 자로서의 소명과 기쁨을 누리기 어려워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우리의 설교의 문제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설교가 그나마 괜찮은 설교라고 평가받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설교 사역이 약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인공지능이 설교를 생성하는 방식과 같이 설교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열거설기 배열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설교, 해석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설교, 청중에게 아무런 도전과 감동도 주지 못하며 설교자 자신도 그저 그 시간을 넘기기 위한 설교를 한다면 청중들은 인공지능 설교자를 더욱 찾게 될지도 모른다.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라는 필립스 브룩스의 격언과 같이 설교는 설교자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진정한 기독교 설교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전달만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들어가 실존적이며 영적인 부딪힘을 경험하고 그 자신의 인격에 적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육화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설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설교처럼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 껍데기 설교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시대 한국교회 설교를 다시 생각하고 더욱 능력있고 생명력있는 설교를 향한 자극이 되길, 그리고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선용하기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강동훈.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82(2023): 469-496.
-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53.1(2016): 35~60.
- 김병석. "싱귤러리티(singularity)에 직면한 인류의 실천신학 대응 연구." 「신학과 실천」 64(2019): 37-61.
- _____.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2018): 153-182.
- _____. "인공지능(AI) 시대, 교회 공동체 성립요건 연구: 예배와 설교 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0(2016): 9~41.
- _____.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2016): 159~184.
-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27.1(2023): 77-112.
- 김인중,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한국교회탐구센터 편저. 서울: IVP, 2017.
- 김태원,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 미래 모습과 대응 방안," *FUTURE HORIZON* 55 (2023): 2-9.
- 김효은. 『인공지능과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186(2023): 1-11.
- _____.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Numbers」 215(2023): 12-14.
-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7(2020): 82-115.
- _____. "챗GPT(ChatGPT)에 대한 실천신학적 조망: 챗GPT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비평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146-196.
- 변순용. "데이터 윤리에서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1.128(2020): 143-158.

- 서진호. "플 킬리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AI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논단」 113(2023): 165-192.
- 양동욱.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 I)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 『제6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2018): 381-410.
- 오요한, 홍성욱.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과학기술학연구」 18.3(2018): 153-215.
- 오현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회적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48(2018): 82~106.
- 유경동. "인공지능과 기독교윤리: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영산신학저널」 48(2019): 87~116.
- 이경미. 『웰컴투 인공지능』. 서울: 서사원, 2021.
-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신학과 세계." 99(2020): 251-283.
-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2023): 233-257.
-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종교문화비평」 31 (2017): 209~254.
- 이향휘, "교회 갈 필요없죠... 'AI주님'에 빠진 2030, 「매일경제」 (2023.11.17.) <https://www.mk.co.kr/news/culture/10883891>. 2024년 1월 6일 접속.
- 임수중, 이숙의, "인공지능 언어모델 연구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40.3(2023), 42-50.
- 장민.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서울: 알투스, 2023.
-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 — 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2023): 257-283.
- 전대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목사의 가능성과 그 문제 : 마음, 영혼, 혹은 '의식적 의지'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2(2019): 10-50.
- 전철, 이경민,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지능에 관한 신학과 인지과학의 대화." 「신학사상」 192(2021): 229-253.
- 정원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간·환경·미래」 25(2020): 55-73.
- 정원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간·환경·미래」 25(2020): 55-73.
- 천현득. "대형언어모형은 이해를 가지는가?." 「철학사상」 90 (2023): 75-105
- 톰스로이터코리아, "2023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동향." *LAWnB Legan Essential*

Report Vol. 22 (2023): 1-26.

황병준, 박도훈.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2020), 811-837.

황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설교 윤리와 활용에 대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검토" 「복음과 실천신학」 68(2023): 76-105.

Erwins, Jim. “Using ChatGPT in Sermon Preparation,” *Paethos* (2023.02.11.) <https://www.patheos.com/blogs/jimerwin/2023/02/11/using-chatgpt-in-sermon-preparation/> Accessed on January 5, 2024.

Grieshaber, Kirsten. “Can a chatbot preach a good sermon?”, *AP News* (June 10, 2023).<https://apnews.com/article/germany-church-protestants-chatgpt-ai-sermon-651f21c24cfb47e3122e987a7263d348>. Accessed on January 5, 2024.

Hollifield, Gregory. “AI and Sermon Prep,” *Preaching Today* (2023) <https://www.preachingtoday.com/skills/2023/ai-and-sermon-prep.html>. Accessed on January 5, 2024.

Mahowald, Kyle., A. Ivanova, I. Blank, N. Kanwisher, J. Tenenbaum and E. Fedorenko, “Dissociating language and thought in large language models: a cognitive perspective,” *ArXiv* abs/2301.06627 (2023).

논 찬 1

“기독교 설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에 관한 논찬

박 성 환 박사

(한국성서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논평에 앞서 한국실천신학회를 통해서 여러 교수님과 설교에 관심을 표하는 사역자들과의 복된 만남과 좋은 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그리고 오늘 정재웅 박사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독교 설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1. 논문 요약

논문은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 활동을 통한 설교 작성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 운영 방식 및 활용 가능과 한계를 간략히 기술한다.

둘째, 논문은 설교에 초점을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텍스트 형태의 설교문들을 기반으로 설교 작성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러나 필자가 실제로 ChatGPT나 BARD를 활용하여 특정 본문을 작성으로 명령했을 때에, 1-5분 정도의 짧막한 설교문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한 후, 오히려 설교자의 노력자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본문의 배경, 원서 자료 번역, 설교 개요 작성, 설교 주제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예화 제공과 같은 설교 준비 과정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필자는 간접적으로 과학의 발전 속도에 따라, 설교문의 분량을 더 많아질 것이며, 설교 내용도 더욱 충실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욱이 필자는 생

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상과 이미지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성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셋째, 논문은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현 가능성에 관하여 논한다. 이미 독일에서 2023년도 6월에 가상 인간 설교자가 설교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설교자가 더 많은 출현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논문은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된 아바타 설교자 혹은 디지털 트윈 설교자가 출현하여, 현실의 설교자를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넷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결국, 인공지능도 인간이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에 기초한다는 것이 종국에는 인간의 불완전성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넘어야 할 법적·윤리적 문제와 인간 사고와 다른 철학적 한계를 설명한다.

다섯째, 논문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앞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설교 작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를 다음과 설명한다. 1) 논문은 설교 본문이 담고 있는 문학적 장르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설교를 작성할 수 없다. 2) 각 교파가 고백하는 특색있는 교리를 설교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3) 이단적 교리와 정통 교리의 분별을 할 수 없다. 4) 청중 분석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작성) 방법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설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설교학적 핵심 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설교자가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닌 신학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온전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2. 논문 공헌

논문은 설교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설교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인 기능으로 활용하여 설교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드러낸 공헌이 있다.

또한 논문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신 설교자가 오늘날에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예전보다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설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3. 논문에 관한 질문

논자는 논문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이 일어났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은 설교 작성을 위한 보조로 활용한다면, 설교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설교자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설교 본문에서 깊이 있게 일어나는 것 보다, 설교자와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교제가 충실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설교 작성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어떨까?

셋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작성에서 청중분석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했으나, 오히려, 특정 대상을 위한 설교문 작성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 작성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특정 대상을 설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설교문을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가상공간에서 설교해 본다면, 효과적인 설교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논문을 써 주신 정재웅 박사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로의 신학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얻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논평을 정리하고자 한다.

논 찬 2

“기독교 설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에 관한 논찬

김 병 석 박사

(호서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학)

1. 들어가는 말

현 시대는 제4차 산업시대에 돌입하여, 급속도로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본 연구는 ChatGPT,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설교에 있는 활용과 그 한계를 설명한다. 연구자는 이 같은 첨단과학의 편리성과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부정확한 답변과 오류를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침해 및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구자는 설교에 있어서 ‘AI의 설교문은 본문에 대한 해석적 오류, 신학적 편향의 가능성이 있고, 적용의 부실함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영혼도 인격도 없는 AI가 설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AI가 ‘설교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설교, 즉 계시 사건으로서 설교는 수행할 수 없는 것’임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자의 설명대로 ‘인공지능에서 계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로서 영혼과 성령의 개입을 AI에 탑재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knowledge about God)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AI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God)이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개한다.

논찬자는 챗GPT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 활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챗GPT를 사용할 때, “현재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설명하는 부적절한 해석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포함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개혁신학적, 정통 개신교의 대표되는 설교자, 누구 누구의 지금까지의 설교나 성서해석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작성하라”는 명령어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챗GPT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한편, 인간 설교자도 간혹 설교할 때 100% 완벽하게, 실수 없이 설교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 계시의 통로로서 설교에 있어서 ‘기도’의 위치는 절대적인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관한 질문의 답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인간 설교자 또한 불완전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의 선상에서, 현재 불완전한 챗GPT의 실행력은 앞으로의 과학적 진보와 더불어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현재의 오류나 부실한 챗GPT의 결과에 대하여 점차 줄여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인간 설교자가 완전히 챗GPT에 의존된 채 아무 성의도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논의를 위한 질문

1) 생성형 인공지능의 점층적 발전의 결과와 인간의 지식적 발전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한다. “인간의 창의성과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감성 등은 LLM이 생성하는 문장에는 찾기 어렵다.¹⁾” 그런데 인간의 직관이나 감성도 인간의 과거 경험과 지식의 축적에 따른 결과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점층적 발전의 결과와 인간의 지능적/지식적 발전의 뚜렷한 차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2) 인공지능(AI), 챗GPT가 어떤 편향성을 가진다면, 인간 설교자는 그가 가진 편향성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 설교자도 가치중립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설교자 또한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마다 설교자의 어떤 성향에 익숙해져 있거나, 설교자의 어떤 특별한 신학적 노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챗GPT가 가질 수 있는 편향성과 차별된 인간 설교자 편향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3) 설교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계라는 개념은 어떤가?

설교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기계처럼 쓰임 받고 있는 존재이다.

1) 김윤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정보법학」 27.1(2023): 100.

이처럼 설교 사역자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에만 충실한 기계처럼 쓰임 받는다는 개념은 어떤가? 칼 바르트(K. Barth)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억제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²⁾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교문들에 있는 대로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그 해석을 조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감동과 은혜를 인공지능이 경험하고 감동해서 내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인공지능(AI) 챗GPT가 공감하는 반응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기계로 설교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 설교 사역자에게 어떤 큰 감동이 혹 없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설교 사역의 일을 기계처럼, 마치 성례전을 집행 하는 성직자의 어떤 상태와 무관하게 성례의 효력은 ‘성찬을 받는 자’에 의해서 유효하듯이, 설교자 자신의 의지를 담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자기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설교자 그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사역의 모습으로 행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결국 인간 설교자의 실행력이 아닌 인간의 영역을 너머신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4) 성서본문에 대한 설교자의 독특한 해석이 정말 인류 최초의 특별한 창조적인 첫 번째 해석일까?

연구자는 설교적 환경이 인공지능에 의존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도들은 실존적 고민도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도 결여한 인스턴트 설교에 길들여져 신앙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설교자 역시 오히려 사역자로서의 소명과 기쁨을 누리기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우리의 설교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설교자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해아래 새것이 있을까 한다. 기독교 태동 이래 많은 성서의 해석과 설교들이 있어왔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성서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신앙공동체 설교강단에서 선포되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성서를 읽으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서해석에 이른다. 이처럼 설교는 해석과 그 표현에 있어서 창조적이어야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교는 루돌프 보렌이 말하듯 어떤 면에서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부실한 설교자의 불성실한 설교보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은, 정확하고 더 잘 정리된 점차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가정 하에 챗GPT의 그 설교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것일까? 이와는 반대로, 부족하고 어설픈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도 설교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잘 구성된 어떤 설교보다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신비가 그 안에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은 어

2) 칼 바르트/ 정인교 역, 『칼 바르트의 설교학』 (서울: 한 들, 1999), 50.

떠한가?

3. 나가는 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설교를 위한 정보와 지식은 제공할 수 있지만, 신적 계시를 일컫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를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문에 감동을 받거나 소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단지 지식의 차원을 넘어 실존적 울림을 가져 오는 계시 체험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공지능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이다.” “사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공지능을 계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그 결과물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영적으로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고 유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본다면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까닭이 없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설교문이나 설교 영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설교 적용과 그 고민을 유의미하게 정리해 주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첨단과학과 인간의 지능과 능력에 앞서서 현재 놀라움을 선보이고 있는 챗GPT의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AI)과 챗GPT에 대한 다양한 논의점에 대해서 발제한 정재웅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논 찬 3

“기독교 설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에 관한 논찬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정재용 박사의 상기 논문은 설교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설교 준비부터 말씀 선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성을 탐색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효과적인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영혼도 인격도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설교 사역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p.1)라고 주장하면서, 설교 분야에서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적, 법적·윤리적, 철학적, 설교학적 한계성을 모색한다. 또한, 연구자는 직접 챗GPT를 사용한 설교사례를 논하면서, 설교학적 이론과 실재를 근거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설교자들이 당면한 핵심 이슈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고찰한다.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설교자와 “효과적인 조력자”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방식을 제안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실천신학적 공헌점들이 있다. 첫째, 다양한 설교학적 관점에서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기독교 설교의 미래 발전적인 과제를 모색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선용하면서, 동시에 오용과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활용 가이드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셋째, 다양한 국내외 학자들의 사례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시각에서 챗GPT가 직접 작성한 내러티브 설교문을 분석하며 보조적 도구로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과 실재를 탐색한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실천신학적 공헌점들과 함께, 논찬자는 양질의 논문과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건설적인 질문과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교 영역에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

능을 활용하기 전, 설교자(또는 사용자)가 꼭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AI literacy)은 무엇인가? 또는 설교 분야에서 설교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러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 개교회·교단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의 장단기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더불어, 한국교회를 위한 (일반적인 활용 가이드와 구별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만든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겠는가?

둘째, 연구자는 ‘지능’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생각하는가)? ‘철학적 한계’ 부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생각’과의 관계성을 논하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가진 철학적인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문제는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느냐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p.13)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드너에게 있어 ‘지능’이란 ‘특정 문화나 여러 문화 상황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물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물론, 이러한 다중지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사유나 ‘생각’이 작용하겠지만, 맥락상 여기에서 다중지능을 예시로 쓰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셋째, 연구자는 설교학에서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생성형 인공지능의 종류 1개와 활용하는 데 가장 주의를 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종류 1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챗GPT를 필두로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종류들을 제시하면서 설교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예들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야별로 텍스트 생성형 인공지능(예, AskUp, 뤼튼, 네이티브), 오디오 생성형 인공지능(예, 뮤직 LM, 뮤직젠, AVIA),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예, DALL-E, 미드저니, 셔터스톡 AI), 비디오 생성형 인공지능(예, 런웨이, 카이버, 픽토리 AI),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예, 감마, 코파일럿) 등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본 발표논문의 제목을 “기독교 설교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라고 명명하였는데, 많은 부분을 챗GPT 관련 내용으로 다루었다. 제목에 따른 논문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제목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 분야별 생성형 인공지능 유형의 주요 특징 및 장단점을 준거로 한 지속적인 설교학적 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재수정 시, 학문적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제시하자면, 1) 생성형 인공지능 언급 시, ‘인공지능’이나 ‘AI’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된 표기가 필요하다. 2) 일부 문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으로 축약하거나,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엄연히 그 기능과 성능이 다르므로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실천신학회에서 요구하는 맞춤법(오타, 띄어쓰기, 영어 소/대문자 사용법) 수정과 더불어, 구두적인 표현(예, “소망한다,”

“어쩌면 경이롭다고 할 정도이다,”“교회는 병들게 될 것이다”등)을 학문적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상의 질문과 논평을 근거로 본 연구를 심화시켜 나간다면, 설교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주요 논문이 될 것이다. 추후,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정재웅 박사의 높은 학문적 완성도와 심도 있는 연구접근 방법은 설교학 분야에 중요한 이론과 실제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제29차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사회 : 서승룡 회장

개회선언	회장 서승룡 박사
개회기도	이사장 황병준 박사
전회의록 낭독	서기 최종일 박사
사업보고	총무 김한호 박사
감사보고	감사 김병석·이수영 박사
회계보고	회계 이수환 박사

회장과 감사 선임 보고

- 회칙 제2장 제6조 2항에 의거	이사장 황병준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회장 서승룡 박사
제29대 임원소개 및 신규임원교체	29대 회장이 소개

기타토의/ 안전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신임회장
------------	------

제28차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23년 2월 11일(토) 11:40

장소: 카리스 호텔

1. 참가자 45명을 확인하고 성회되었음으로 오전 11시 50분에 회장 민장배 박사의 개회선언과 김상백 박사의 개회기도로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서기 박진경 박사가 기록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받기로 이수영 박사의 동의와 송훈호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3. 총무 박은정 박사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김병석 박사의 동의와 이수영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4. 감사 김병석 박사가 감사보고를 박진경 박사의 동의와 최종일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5. 회계 이수환 박사가 회계보고를 김윤규 박사의 동의와 고유식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6. 이사장 김상백 박사는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사장으로 황병준 박사, 제28대 회장으로 서승룡 박사, 선임부회장 구병옥 박사, 부회장 박은정 박사, 총무 이종민 박사 그리고 감사로는 김병석 박사와 이수영 박사를 추천하여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송훈호 박사의 동의와 위형운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7. 27대 회장 민장배 박사와 임원들이 인사하고, 28대 회장 서승룡 박사가 선임부회장으로 구병옥 박사, 부회장 박은정 박사, 총무 이종민 박사를 소개하고 인사하다.
8. 신입회장이 사회를 보다.
9. 2023년 올해 사업으로 “실천신학개론” 출판하기로 하다.(예산 약 500만원)
출판 편집위원장으로 민장배 박사를 선임하다.

10. 김상백 전임 이사장이 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회칙 제 6 조 (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선출, 임기)에서

“4. 학회의 감사는 임원 역임자(분과장 포함) 중에서 2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를 수정하여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는 안을 전원 찬성하였다.

11. 신진학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형운 박사가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12. 김상백 박사 동의와 황병준 박사의 재청으로, 서승룡 박사가 폐회 선언하니, 오전 11시 55분이었다.

한국실천신학회
2023년 2월 11일
서기 박진경

사업보고

1. 제88회,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정기학술대회가 회원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제88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실천신학의 동향분석과 나아갈 방향”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10:00 ~ 15:30

장소: 총신대학교 종합관

발표자 : 12명, 논찬자: 25명

2) 제89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건강한 교회 세우기 - 분과별 사례 교회와 신학적 분석”

일시: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소: 분당 한신교회(윤교회 담임목사)

발표자 : 4명, 논찬자: 8명

3) 제90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회

주제: “대전환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

일시: 2023년 11월 4일(토) 오전 9시-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발표자 : 2명, 논찬자: 3명

4) 제91회(2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 “생성AI시대, 알파 세대를 위한 실천신학의 역할”

일시: 2024년 2/16(금) 오후 1시(1~2시 접수) - 2/17(토) 오후 12시

장소: 인천 카리스호텔

발표자 : 16명, 논찬자: 48명

2. 제28대 임원회를 8차례 개최하여 주요 사항들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진행했습니다.

1) 1차 임원회 2023년 2월 11일(토), 정기총회 후 인천 카리스호텔

2) 2차 임원회 2023년 2월 21일(화), 온라인 Zoom

3) 3차 임원회의 2023년 4월 22일(토), 온라인 Zoom

4) 4차 임원회의 2023년 5월 13일(토), 총신대

5) 5차 임원회의 2023년 7월 10(월), 온라인 Zoom

6) 6차 임원회의 2023년 9월 16일(토), 한신교회(본당)

분과장회의 2023년 11월 10일(금) 온라인 Zoom

7) 7차 임원회의 2023년 12월 16일(토), 온라인 Zoom

8) 8차 임원회의 2024년 1월 5일(금), 평촌 마벨리에

한국실천신학회

총무 김 한 호

한국실천신학회 감사보고

감사보고서

감사기간: 1. 일반통장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2. 학술지통장 2023년 2월 9일 ~ 2024년 2월 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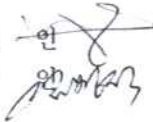
감사대상: 1. 학술대회 일반통장 2. 신학과 실천 학술지 통장

위의 1. 학술대회 일반통장과 2. 신학과 실천 등재지 학술지 입출금 통장에 대하여
위의 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감사보고 하나이다.

2024년 2월 6일

감사 이 수 영

감사 김 병 석



한국실천신학회 회계보고

회계보고 (2023년)

수 입	
항 목	금 액
이월금	14,000,179
이자	8,272
연회비(투고자회비,현장등록비포함)	12,499,500
특별후원금	4,300,000
실천신학개론 지원금	5,000,000
한국기독교학회 지원금	500,000
기타	800,000
총수입	37,107,951

지 출	
항 목	금 액
정기학술대회(2월)	15,612,260
정기학술대회(5월)	5,138,635
정기학술대회(9월)	1,270,150
정기학술대회 공동학회(11월)	276,000
경조사	582,500
임원수련회	1,000,500
기타	7,246,000
총지출	31,126,045

현 잔액	5,981,906
------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신학과 실천」연혁보고

1. 1890년 한국최초 예배서 감리교 미미교회강례(美以美教會綱例) 아펜셀러 번역, 1924년 한국인 최초 장로교 혼상예식서 발간, 1925년 성결교 최초 교리 및 예식서, 1901년 중국어도서 감리교 목사지법(牧師之法) 울링거 역, 1919년 한국최초 평양신학교 객안련 선교사의 설교학, 목회학 책을 출간, 1937년 한국인 최초 목회학 저서 성결교 김응조의 목회학 출간, 그 이후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실천신학은 전수되었다.
2. 1960년대 후반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교회 최초 실천신학 관련교수들이 김소영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전국순회 강연을 통하여 한국실천신학회의 모태를 형성하였다.
3. 1970년대 김소영, 박근원 등을 중심으로 실천신학 사전, 예배학 원론 번역 출판.
4. 1972년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가 부산호텔에서 창립 김소영, 홍현설, 허경삼, 안형식 등 학술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 사장으로 김소영, 편집위원 박근원 정장복 등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고, 정장복은 교회력에 의한 핸드북, 김종렬은 예배와 강단을 매년 출판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4대 박근원은 김소영 등과 함께 1992년 한국실천신학회의 주멤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공동학회가 발족되었고, 그리고 7대 정장복 회장이 학술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997년 9월 30일 정장복 회장과 9대 김외식 회장의 주도아래 「신학과 실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동시에 정장복 회장의 주도로 예배학 사전과 설교학 사전이 출판되었다.
5. 2003년 12대 문성모 회장, 13대 백상열 회장, 14대 위형윤 회장, 15대 김윤규 회장, 16대 조기연 회장, 17대 김세광 회장에 이르는 동안 학술대회 년4회 올해 39회째, 학술지 년4회가 발행되어 현재 33호가 발간되었다.
6. 2003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제6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SN 1229-7917가 부여되어 정식 출판물 발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신학대학교 도서관 등에 약 100부가 발송되고 있다.
7.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지학회로 회원가입인증번호 학단연 2004-1호 가입되었다.
8. 2005년 학술교육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서 무료로 계약.
9. 2007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78.3점 (75점이상 합격).
10. 2008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비 신청하여 1,796,000원 수령.
11. 2009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등재후보 계속평가 1차 합격 82점 (80점 이상).
12. 2010년 2월 5일 학술교육원으로부터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11명의 한국실천

- 신학회 이사회 조직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13.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 신청 1,500,000원 수령(2011년 제39회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비).
 14.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학술지원비 신청 2,974,000원 수령.
 15. 2010년 7월 1일 등재지 신청하여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2점 (80점 이상).
 16.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학술교육원 디지털컨텐츠 협약서 5년간 체결 (저작권료 25% 지급 발행 규정 제7조 저작권 본 학회 소유).
 17. 2011년 5월 30일 신학과 실천 연구재단으로부터 5,160,000원 지원비를 수령하다.
 18. 2011년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43회 학술대회 지원비를 수령하다.
 19.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24호-27호 현장실사 합격
2011년 12월 28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123-82-70014 안양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 지정
 20. 논문게재의 총수는 1호부터 제33호까지 446편으로 모든 학회원들, 특히 신진학자들의 기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자들의 장운「신학과 실천」학술지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21.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하다.
 22. 2013년도 5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점 등재유지
한국실천신학회 홈페이지 개편 및 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시스템 개통
 2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24.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25. 학술지 신학과 실천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원과 년1백만원 계약(관리비)- 홈페이지에서 클릭
 26. 출판된 모든 개별논문에는 온라인논문개별고유코드(DOI)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원문 및 해당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7.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보조금 500만원, 학술지원비보조 700만원 수령(2015년도분)
 28. 2014년 10월 30일 연구윤리 국제포럼 교육이수(13시간)
 29. 논문게재 총수는 1호부터 현재 37호까지 514편이다.
 30. 2014년도 논문게재 38호-42호 총 113편으로 현재 총합계 627편이다.
 31. 2015년도 논문게재 43-47호 총 107편 현재 총합계 734편이다.
 32.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유지 89.75점으로 합격

33. 201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비 5,600,000원 수령
34. 2015년 11.20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대학기관 생명윤리위원회협회 연구윤리포럼 이수
35. 2015년 11.20 연구윤리교육 연수과정 수료-한국학술단체연합회
36. 2016년 1.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37. 2016년부터 모든 교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윤리교육 의무 인터넷교육 필수
38.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39. 2016년 12월 28일 56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6년분)
40. 2016년 논문게재수 48호-52호 = 122편 게재
41. 한국연구재단 KCI 2015 인용지수(2016년기준)
논문수(2013+2014)= 208, 피인용횟수(2015기준)= 305, KCI영향력지수(2년 KCI IF)= 1.47, WOS-KCI
통합영향력지수(2년 IF)= 1.47, KCI중심성지수(3년분 기준)= 0.46, 자기인용비율%(2년 KCI IF)= 88.2%
42.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검사 서비스 개설.
43. 2016년 연구윤리교육 김명실(부편집위원장)
 1. 제1차 연구윤리포럼 (16년 6월 9일; 진주 경상대학교)
 2. 제2차 연구윤리포럼 (16년 10월 19일; 서울교대)
 3. 국내 학술정보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DOI 인프라 체계 적용 계획 설명회(16년 8월 30일; 서울 교육회관)
44.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 위형운 편집위원장 유효기간: 2016년 1.1-2019년 1월 4일(3년)
45. 2017년 5월 25일 제67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3,000,000원 (2017년도분)
46. 2017년 12월 28일 68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2017년분, NRF연구비보조 포함)
47. 논문총게재수 창간호-현재 57호까지 2,107편: 약 10개 전공분야별 단행본 실천신학대전 발행필요 _
48. 2017년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포럼 (2017년 9월 28일; 서울교대): 위형운 조재국 김병석 위성동
49. 2017년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위형운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김경진 황병준 김명실 김병석 이후로는 전회원으로 확대, 이수증 게시 생략
50. 2018년도 3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예정: 전분야
51.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2017년도 발행분)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월 28일까지

지

52. 2018년도 학술지평가 사업설명회 참석(대전 연구재단본부 2018.4.19.)
53. 제23회 한국실천신학회 총회(2018.2.9.) 결의에 따라 동 학회 제68회 정기학술대회 (2018.5.19.)에서 위형운 편집위원장 이임식을 갖고 2018.6.18.에 한재동 신임 편집위원장이 모든 업무를 인수받아 편집위원장 직무를 개시함.
54. 2018년도 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계속평가(15-17년 직전 3년간 평가) 결과 총90점으로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 받음(직전 편집위원장 소관업무).
55. 2018년도(2017년도 신청)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680만원 입금(2018.11.20.)
56. 2017년도 학술지지원사업(2018년도 발행분) 결과보고서 제출(2018.11.30.)
57.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참석 및 연구윤리포럼 교육이수(2018.12.21.)
58. 연구재단 2019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설명회 참석(성균관대 2019.1.28.)
59.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모든 회원들의 동 윤리교육 수료 권장(<http://cyber.kird.re.kr>).
60. 2018년도 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결과보고서 제출(2019.10.29.)
61. 2019년도(2018년도 신청)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800만원 입금
62.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0. 10월-2021. 9월 발행분) 800만원
63.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1년10월-2022년9월 발행분) 900만원
64.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 결과 92.64점으로 등재유지
65.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2년10월-2023년9월 발행분) 1,000만원

신학과 실천 편집위원장 한재동

폐회에배

인도: 신임 회장

묵상기도 ----- 다같이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예수 ----- 다같이

대표기도 ----- 신임 선임부회장

성경낭독 ----- 로마서 1장 8~17절 ----- 신임 부회장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
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 거니
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
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
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
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 하
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 로되 지
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
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일 46)

보통으로

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 아
 2.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대신 아
 3.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 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같이 라 수
 경배하며 영접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수
 면류관을 주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안아 주시니
 우리 죄지신 예수 그 사랑 한없이 크셔라
 세상을 이기고 영광 중에 또다시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설 교 ----- 우리에게도 ----- 민장배 목사

찬 송 -----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축 도 ----- 민장배 목사

광 고 ----- 신임 총무

(통일 259)

빛의 사자들이여

502

세계선교

Heralds of light, speed away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HERALD OF LIGHT: 11.7.11.7.REF.
J. E. Jones (b. 1886)

보통으로

1.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2. 선한 사역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3. 주님 부탁하신 말씀종하여 이진리 전파하라고
 4. 동서 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의 지하고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취라
 산을 넘어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취라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취라

들이여

죄로 어둔 밤 밤에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들이여)

한국실천신학회의 학회 연혁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 창립총회

1. 일 시 : 1972년 봄
2. 장 소 : 부산호텔(부산시)
3. 초대임원: 고문 홍현설 회장 김소영 부회장 허경삼 총무 안형직

제2회 197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79년 11월 16일
2. 장 소 : 코아레스토랑(서울)
3. 임원개선: 회장 김소영 부회장 박근원 총무 이기춘
4. 참석자: 5명

제3회 198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1년 2월 18일
2. 장 소 : 온양
3. 임원개선: 회장 김소영(유임) 부회장 박근원(유임) 총무 천병욱
4. 참석자: 5명

제4회 198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7년 2월 10일
2. 장 소 : 리버사이드호텔
3. 김소영 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4. 임원개선: 회장 박근원 부회장 천병욱 총무 정장복
5. 참석자: 9명

제5회 198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9년 10월 13일
2. 장 소 : 대구 동인교회
3. 천병욱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다
4. 임원개선: 회장 박근원 부회장 천병욱 총무 정장복
5. 참석자: 13명

제6회 199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91년 10월 18일
2. 장 소 : 유성관광호텔

3. 총회결의사항:

- 1) 박근원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 2) 임원선출: 회장 천병욱 부회장 정장복 총무 김외식
- 3) 임원개선 전 선교학회의 분립을 선언 별도로 모임

4. 참석: 15명

제7회 199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93년 10월 15일

2. 장 소 : 경주 조선포텔

3. 총회결의사항

- 1) 정장복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 2) 회장 정장복(장신대) 부회장 김외식(감신대) 총무 최희범(서울신대)

4. 참석자: 13명

제8회 199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95년 11월 24일

2.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 총 회

- 1) 정장복 회장의 사회, 박근원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 2) 최희범 총부가 경과 보고하다
- 3) 임원선거결과: 회장 김외식교수(감신대) 부회장 최희범교수(서울신대) 총무 김원쟁교수(연세대)

4) 참석자: 16명

제9회 199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97년 10월 18일

2. 장 소 : 아드리아호텔(유성)

3. 회 의:

- 1) 김외식 회장의 사회와 천병욱 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 2) 회장이 학회지 <신학과 실천> 칭간호 발간에 관해 소개하고 총무가 재정보고를 하다
- 3) 회무처리: 목회상담회 분립을 박근원회원의 동의와 정장복회원의 재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4) 임원선거: 정장복회원이 천병욱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대하고 박근원회원이 박은규회원을 부회장 후보로 추대하고 정장복회원이 다시 백상열회원을 총무 후보로 추대하여 이를 장성우회원이 동의하고 김세광회원이 재청한 후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참석: 27명

제10회 199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99년 10월 15일-16일

2. 장 소 : 유성호텔

3. 총 회

1) 박은규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보고: 총무가 사업 및 재정보고를 하다.

3)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회장(천병욱교수)를 위해 즉석 모금을 한 결과 36만원을 모금함

4) 임원개선: 김외식회원이 박은규교수(회장), 오성춘교수(부회장), 백상열(총무)를 추대 및 재추대하고 이를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함으로써 그대로 가결하다.

5) 참석자: 17명

제11회 200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1년 10월 18일-20일

2.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3. 회 의

1) 박은규 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총무가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 되다.

3) 임원개선 : 현재 임원에 서기, 회계 및 감사를 추가할 것을 결의하고 5인 전형위원회에서(김소영, 박근원, 김외식, 박은규, 백상열)에서 선임한 회장(오성춘), 부회장(문성모), 총무(백상열),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나동광)를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4) 결의사안 : (1) 박근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실천신학회 역사보고서>를 위한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다. (2) 겨울 정기학술 세미나는 임원회에서 날자와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기로 하다.

제12회 200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3년 10월 24일-25일

2. 장 소 : 사랑의 교회수양관

3. 회 의

1) 오성춘 회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2) 백상열 총무가 사업 및 학술경과 보고를 하니 통과 되다.

3) 이성민 회계가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되다.

4) 임원개선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김외식 정장복 오성춘 백상열)에서 선임하니 회장(문성모), 부회장(백상열), 총무(위형윤),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서울장신)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5) 학회지(2004년) 원고모집과 2월세미나 발표자와 시간, 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다.

6) 학술단체연합회 가입건은 자료준비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다.

제13회 200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5년 10월 21일 (금)

2. 장 소 : 사랑의 수양관

3. 회 의

- 1) 사 회 : 문성모 회장
- 2) 사업보고 : 위형운 총무
- 3) 회계보고 : 이성민 회계
- 4) 회칙과 편집규정 수정 및 개정 결의 : 개정 및 수정회칙 참조
- 5) 임원개선: 임원 선정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 및 현회장단:정장복, 김외식, 문성모)에 추천을 의뢰하니 회장: 백상열 부회장: 위형운 총무: 조기연 서기: 김세광 회계: 나형석 감사: 박병욱, 김운용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 6) 기타토의
 - (1) 학술지「신학과 실천」 학술진흥재단 평가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 (2) 재정모금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 (3) 학술지「신학과 실천」 분야별로 묶어 책자화 요청하기로 하다.
 - (4) 세계실천신학회의 설교학회 가입문제 요청하기로 하다.
 - (5) 기타 각분과 위원을 추가로 회장이 임명하기로 하다.
 - (6) 학술지 원고 모집 : 제10호 2006년(봄호) 2월 발간, 제11호 2006년(가을호) 9월 발간을 위하여 원고 모집 광고하다.

제14회 200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7년 10월 19일 (금) 5~6시
2. 장 소 : 대전신학대학교 609호
3. 회 의 :
 - 1) 사 회 : 백상열 회장
 - 2) 전회의론 낭독 : 김세광 서기
 - 3) 사업보고 : 조기연 총무(안식년)-위형운 부회장
 - 4) 회계보고 : 나형석 회계
 - 5) 감사보고 : 감사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 6) 결의사항 : 위형운 부회장 제안 만장일치로 다음사항을 결의하다
 - (1) 편집위원회 규정, 발행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 (2) 연구윤리규정 개정
 - 7) 임원선거 : 제안1 무기명 비밀투표 (문성모 전회장) 제안2 기존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에 위임(정장복 전회장) 제안하니 제2안으로 결의하다. 전형위원회 발표 : 회장-위형운 , 부회장-조기연, 총무-김세광, 서기-나형석, 회계-김윤규, 감사-김순환
 - 8) 신규임원인사 및 교체식
 - 9) 광고 : 신임 위형운 회장
 - (1) 논문심사보고서 이메일로 보고
 - (2) 회원확복 200명 이상
 - (3) 학술진흥재단 논문심사보고

- (4) 논문지 2007-2007 계속 평가
- (5) 논문지 배부는 각 대학도서관(70)과 필자, 전회장에게만 그리고 회원 정기학술 세미나 참석시 배부
- (6) 논문게제비 20만원과 년 회비 3만원
- (7) 기금모금목표 : 2000만원
- (8) 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년 4회(2, 6, 8, 10월) 1회당 3회 발표
- (9) 기타 : 제14집 신학과 실천 논문 원고 마감 2008년 1월 30일 까지

2009년 제14-1회 임시총회 및 제31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9시 30분-10시
 -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3시 30분 - 4시 경전회
 - 주 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전)
 - 사 회 : 위형운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학교 교수)
 -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오후 9시 30분-10시
-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운 회장

회 무 : 김세광 총무

- 안 건 1. 회칙개정
-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 4. 기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1차 평가 선정
 체계평가 37 패널평가 45 총 82 = 1차통과
 2차 평가후 2009년부터 등재지로 인정함

제15회 201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2월 5(금)-6(토)
-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부회장

설교 : 위형운 회 장

기도 : 이말테 위원장

2. 안 건: 1. 기도, 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시총회 회칙 상정안 인준

3.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회장과 감사가 추천: 회장 김윤규 수석부회장 조기연, 부회장 김세광 추천하니 수락되다.

4. 기타임원 추후 신입회장이 공지
5. 이사진구성 : 전회장, 현회장, 감사2인, 각분과위원장, 추가1인 11인, 이사장일임.
6. 문성모 전회장의 기도로 폐회하다.

제16회 201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1년 2월 11(금)-12(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부회장

설교 : 김윤규 회 장

기도 : 나형석 총 무

2. 안 건:

-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등재지 선정연혁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조기연 수석부회장 김세광, 부회장 나형석, 감사 이요섭, 주승증을 추천하니 수락되다.
- 3) 신규임원교체
- 4) 신입 조기연 회장의 집례로 폐회예배로 마치다.

제17회 2012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안 건

- 1) 기도, 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김세광 수석부회장 나형석 부회장 김충렬, 감사 이요섭, 조성돈 추천하니 수락되다.
- 3) 신규임원 교체
- 4) 나형석 회장의 성찬집례로 폐회하다.

제18회 201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3년 2월 2일(토) 오전 12시30분 - 3일(토) 오후 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 회 : 김세광 회장

개회기도 : 김윤규 박사(상임이사)

감사보고 : 이요섭 박사, 조성돈 박사(감사)

사업보고 : 김한옥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한재동 박사(서기)

회계보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임원 선임보고 : 위형운박사(이사장)

책임고문 : 위형운

이사장: 김윤규, 상임이사 : 조기연, 이사 12명.

회장: 나형석, 수석부회장 : 김충렬, 부회장 : 김한옥. 감사 : 권명수, 문병하 이하 임원은 회장단에
서 선임

기타토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김세광 목사

제19회 2014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전 12시30분 - 8일(토) 오후 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 회 : 나형석 회장

개 회 기 도 : 조기연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권명수 박사, 문병하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한재동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동규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김윤규 박사(이사장)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나형석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나형석 목사

제20회 201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사 회 : 김충렬 회장

개 회 기 도 : 나형석 목사

성 경 봉 독 : 한재동 목사

설 교 : 김충렬 목사

학회 고문, 이사, 임원소개 : 김충렬 목사

대회 발표자, 논찬자, 좌장 소개 : 김경진 목사

축 도 : 조기연 목사

제21회 2016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 회 : 김한옥 회장
개 회 기 도 : 나형석 박사
감 사 보 고 : 김순환, 문병하 박사
사 업 보 고 : 김상백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진봉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세광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한옥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김한옥 박사

제22회 201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7년 2월 10일(금) 15시-11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 회 : 한재동 회장
개 회 기 도 : 김충렬 박사
감 사 보 고 : 문병하, 서승룡 박사
사 업 보 고 : 황병준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진봉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민장배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조재국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조재국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한재동 박사

제23회 2018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15시-10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 회 : 조재국 회장
개 회 기 도 : 김충렬 박사
감 사 보 고 : 신현광, 서승룡 박사
사 업 보 고 : 민장배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윤성민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김병석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한옥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경진 박사

제26회 202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오전 9:30 ~ 오후 06:20

장소 : 부평 카리스호텔 (유튜브/줌 온라인 병행)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 회 : 황병준 회장

개 회 기 도 : 김경진 박사

감 사 보 고 : 윤성민, 김병석 박사

사 업 보 고 : 구병옥 박사

회의록 낭독 : 박진경 박사

회 계 보 고 : 조지훈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회장 황병준 박사, 감사 윤성민, 김병석

제25대 임원소개 및 신규임원교체 : 26대 회장이 소개

회장 황병준, 부회장 민장배, 서승룡, 총무 구병옥 (코로나19사태로 이사회가 임원 1년 연임결의)

폐회선언 : 황병준 회장

제27회 2022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시 : 2022년 2월 12일(토) 10:00~16:00

장소 : 온라인(Youtube/Zoom), 춘천동부교회

사 회 : 황병준 회장

개 회 기 도 : 김경진 박사

감 사 보 고 : 윤성민, 김병석 박사

사 업 보 고 : 구병옥 박사

회의록 낭독 : 박진경 박사

회 계 보 고 : 조지훈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회장 황병준 박사, 감사 윤성민, 김병석

제26대 임원소개 및 신규임원교체 : 27대 회장이 소개

회장 민장배, 부회장 서승룡, 구병옥, 총무 박은정

폐회선언 : 황병준 회장

제28회 202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10(금) 오후 1시(1~2시 접수) - 2/11(토) 오후 1시

장소 : 부평 카리스호텔 (유튜브/줌 온라인 병행)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사회 : 민장배 회장

개 회 기 도 : 김상백 박사

감 사 보 고 : 김병석·이수영 박사

사 업 보 고 : 박은정 박사

회의록 낭독 : 박진경 박사

회 계 보 고 : 이수환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회장 민장배 박사

제28대 임원소개 및 신규임원교체: 28대 회장이 소개

회장: 서승룡, 부회장: 구병옥박은정, 총무: 이종민

폐회선언 : 서승룡 회장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발표회

1993년 제1회 정기학술세미나

- “코이노니아와 실천신학”(박근원, 한신대)
- “해방과 치유를 위한 목회”(윤종모, 성공회신대)
- “실천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염필영, 감신대)

1994년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 “신학교육에 있어서 무의식의 문제”(김원쟁, 연세대)
- “세속화와 회심”(홍성철, 서울신대)
- “영적형성의 모델연구”(유해룡, 대전신대)

1995년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 “성찬과 해방”(이호영, 계명대학)

1996년 제4회 정기학술세미나

- “포스트모던과 실천신학의 위치”(홍명희)

1997년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 “문화변동에 따른 21세기 예배의 변화 전망”(김세광, 서울장신)

1998년 제6회 정기학술세미나

- “현대목회와 평신도-목회적교회를 위한 교회의 형태적 생리적 존재형식”(김한옥, 서울신대)
- “상처입은 한반도적 자아치유를 위한 상담목회”(손운산, 이화여대)

1999년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로서의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김원쟁, 연세대)
- “뉴에이지운동과 선교적 과제”(김은수, 전주대)

2000년 제8회 정기학술세미나

- “21세기설교의 갱신-영상설교는 설교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정인교, 서울신대)
- “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 발견-유교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김진영, 평택대)

2001년

제9회 정기학술세미나

-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한 설교”(주승중, 장신대)

“회심의 심리학적 이해: 공헌과 한계”(박노권, 목원대)

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

이기춘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회, 교회음악회, 목회상담학회의 회고와 전망”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성찬의 4중행위와 한국교회 예배의 내일”

2002년

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실천신학의 방법론으로서의 ‘몸 뜻’ 해석학”
김정진 박사(장신대 교수), “초기 한국교회의 장로교 예배”

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운용 박사(장신대 교수), “새로운 설교학 운동과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프레드 B 크래독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2003년

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충환 박사(호신대 교수), “예배, 찬양 그리고 워십댄스”
김성대 박사(경성대 교수), “시편 표제에 나타난 음악관련 용어 연구”

2004년

제15회 정기학술세미나

허정갑 박사(연세대 교수) “기독교 입교 : 세례와 견신례”
차명호 박사(호서대 교수) “한국교회와 미래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제16회 정기학술세미나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설교와 예배준비의 의미에 대한 연구”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카톨릭교회 예배”

제17회 정기학술세미나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리더쉽과 지도자론”

2005년

제18회 정기학술세미나

안덕원 박사(서울신대 겸임교수)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연합운동의 모색과 전망”
홍주민 박사(한신대 외래교수)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아학의 가능성 모색”

제19회 정기학술세미나

조재국 박사(연세대교수) “한국교회 설교언어의 상징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빅토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제20회 정기학술세미나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성찬과 하나님의 나라”

2006년

제21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본 예배”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한국 초기 감리교회의 성만찬 이해(1885-1935)”

제22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성서정과와 강해설교의 접목 가능성과 실제”

김성민 박사(협성대 교수) “민담의 분열과 C.G.용의 개성화 과정: 기독교 영성수련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공동학회

허정갑 박사(연세대 교수) “성만찬적 교회론: 성도의 고제를 중심으로”

2007년

제24회 정기학술대회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상태와 발전 방안”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 “평신도 목회의 퍼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제25회 정기학술세미나 : 기독교공동학회

박근원 박사(한신대 명예교수/한국실천신학회 회장(1987~ 1991/ 한국기독교학회장(1991~1993))
“한국실천신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26회 정기학술대회(영어발표) : 기독교공동학회

주인옥 박사(장신대 강사) “Shared Poiesis(쉐어드 포이에시스)”

2008년

제27회 정기학술대회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크리스천의 리더십에 관한 고찰”

반신환 박사(한남대 교수) “노인자살의 특징과 목회적 개입”

김상백 박사(순복음신대 교수) “도시사회에서의 영성목회에 대한 연구”

제28회 정기학술대회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그 현실”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교수) “자살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과 교회의 책임”
김충렬 박사(한국 상담치료 연구소 소장) “기독교인의 자살과 그 대책”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예배, 타나토스를 넘어선 승리의 아남네시스”

제29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08년 9월 6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장 소 : 분당한신교회 별세홀(지하2층)
주 제 :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구역공동체를 위한 빈곤복지와 디아코니아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한국교회 예배신학의 외연 확장을 위한 한 모델로서 존 칼빈(John Calvin)의 예배와 나눔의 실천”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의 연구”
손의성 박사(배재대 교수) “구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복지의 신학적 근거와 실천에 관한 연구”
허우정 박사(실천신대 겸임교수) “하인츠 바그너(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국교회”

제30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18일(토)
장 소 : 침례신학대학교
안선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주민 박사(한신대 연구교수) “섬김의 길로서의 선교 확장 방안”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 교수)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2009년

제31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3시-7일(토) 오전 12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 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 (현실과 비전)
주제강연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전): 박종화 박사(경동교회 담임목사)
권명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 실천신학 구조 비교”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창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과 적용”
김성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Madame Guyon의 신비주의와 영성”
김광건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리더십 변수들에 관한 개론적 고찰”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예배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 범위”

제3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09년 5월 30일

장 소 : 서울장신대학교 강신명 홀
 심상영 박사 “...분석심리학과 무의식...”(한국심층심리연구소장)
 하도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대거부락 전도운동에 관한 소고”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예배의 일반적 이해”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 ”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성장...”
 류원열 박사(연대/장신대 강사) “웨슬리의 설교연구”
 조창연 박사(대한신학대 교수) “한국사회의 변화 ... ”

제33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교회성장동력교회 연구모임)

일 시 : 2009년 9월 5일(토)
 장 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주 제 : 한국교회 성장동력교회 연구
 참석자 : 위형운 김윤규 조재국 조기연 김세광 김순환 이요섭 박해정 조성돈 정재영 최동규

제34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공동학회

일 시 : 2009년 10월 16일-17일
 장 소 :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주 제 : 21세기 한국문화와 기독교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 동시대 문화 속 예배 모색”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인 자살과 목회적 대응 -상담학의 관점에서- ”
 조재국 박사(연세대 교수)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2010년

제35회(2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2월 5일(금) - 6일(토)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
 김병훈 박사 : 긴장에너지의 세가지 유형
 김충환 박사 : 구약시대에 나타난 트럼펫과 예배
 홍순원 박사 : 성만찬의 사회윤리적 함의
 김선일 박사 :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전도

제36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6월 12일(토) 10:00 - 16:00
 장 소 : 초동교회 난곡홀 (02-765-0528)
 주 제 :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방향과 실제

1. 목회상담분과 김홍근(한세대) “애도를 통한 내면화과정과 새로운 자기표상형성”
2. 예배분과 김순환(서울신대) “개신교성찬예배를 위한 제언”
3. 설교분과 최진봉(장신대) “성례적 설교”
4. 디아코니아분과 홍주민(한신대) “독일사회국가 체제에서 교회 디아코니아의 역할 연구”
5. 목회상담분과 박노권 (목원대) “렉시오 디비나의 활용가능성”
6. 예배분과 김명실(장신대) “탄원기도와 한국교회”
7. 설교분과 전창희(협성대) “이야기 신학과 설교”

제37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오후 2시30-6시30분

장 소 : 분당만나교회(031-706-3351)

주 제 : 한국성장동력교회의 비밀

1.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 “김병삼 목사의 분당 만나교회”
2.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 “김석년 목사의 서초 성결교회”
3.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 “정주채 목사의 용인 향상교회”
4.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교목실장) : “김학중 목사의 안산 꿈의 교회”

제38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1시- 23일(토) 1시 30분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성 성찰

- (1) 김성민 박사(협성대 교수)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전일성 회복”
- (2)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세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모태”
- (3)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예전의 해석학적 의미로서의 디아코니아 활동”
- (4)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

2011년

제3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16회 정기총회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오후 2시- 12일(토) 오전 12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경기대학교 입구 좌회전)

주 제 : 목회현장을 위한 간학문간 대화: 설교의 통합적 논의

- (1) 김형래 박사(감신대 교수) “한국감리교회의 세례 갱신과 설교에 대한 연구”
- (2)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현대설교의 위기와 설교에서 힘을 주는 요소로서의 의지력의 적용성 연구
- (3)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언”
- (4) 황병배 박사(협성대 교수) “미디어 선교를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 (5) 홍주민 박사(한신대 교수) “설교의 디아코니아적 접근”

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5월 28일(토) 10:00- 15:30

장 소 : 신촌성결교회 신축본당 :소예배실

주 제 : 변화하는 시대의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가능성 모색

- (1) 오재은 박사(숭실대 교수) “내면아이 치료와 목회상담”
- (2) 김병훈 박사(호서대 교수) “임상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한 연구”
- (3) 유해룡 박사(장신대 교수) “영적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문제”
- (4) 이길용 박사(서울신대 교수) “신학으로 미디어 읽기”
- (5)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
- (6)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디아코니아 질 관리경영에 관한 연구”

제4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9월 24일(토) 10:00- 15:30

장 소 : 세종대학교 애지현교회

주 제 : 한국교회 성장동력세미나

- (1)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한국교회 개혁모델:거룩한 빛 광성교회”
- (2) 하도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오산평화교회 성장동력 분석과 적용”
- (3) 김상백 박사(순복음신대 교수) “오순절 영성목회로 성장하는 지구촌순복음교회”

제4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10월 21일(금) ~ 22일(토) 10:00- 15:30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글로벌 시대의 한국신학

- (1)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한국교회 예배의 배경, 윤곽 그리고 내용”
- (2)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한국교회의 종교성”
- (3)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2012년

제4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 (1) 조성돈 박사 “한국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 (2) 김옥순 박사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정책 방향”
- (3) 안 석 박사 “장 칼뱅의 인간이해와 목회적 돌봄”
- (4) 김성민 박사 “목회상담의 위기적 상황과 그 대처”

- (5) 이강학 박사 “영성지도의 현대적 이슈들”
- (6) 이현웅 박사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제4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2년 6월 2일(토) 10:00-15:40

장 소 :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

주 제 : 변화하는 목회환경과 실천신학

- (1) 조재국 박사 “선교초기의 기독교 성장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2) 김안식 박사 “다산의 목민심서로 세우는 21세기 한국 문화권의 설교자상”
- (3) 김충렬 박사 “한의 개념과 열등감의 상관성 연구”
- (4) 최광현 박사 “영성과 가족치료: 목회영성과 가족치료의 만남”
- (5) 김옥순 박사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6) 오방식 박사 “자기초월의 관점에서 바라본 토마스 머튼의 자기이해”
- (7) 나형석 박사 “희생으로서의 성찬”

제4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2년 9월 15일(토) 10:00-13:00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제3차 한국 10대 교회성장동력 분석 발표회

- (1) 위형운 박사(안양대 교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앙교회”
- (2)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하나님의 가족을 구현하는 참 교회: 목산교회”
- (3) 서승룡 박사(한신대 외래교수) “열정으로 성장하는 군산성광교회”

제4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2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 - 22일(토) 12시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통일과 화해

- (1) 김홍근 박사(한세대 교수) “북한이탈 주민의 자기표상 이해에 기초한 목회적 돌봄”
- (2)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적 설교를 위한 한 시안으로서의 판소리설교에 관한 연구

2013년 제4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2월 1일(금) 오후 2시 - 2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주 제 : 실천신학 학문적 위치와 미래

- 주제 1 :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한재동 박사(나사렛대 교수)
- 주제 2 : 실천신학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소고 - 박관희 박사(교회리서치연구소 대표)
- 주제 3 : 실천신학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적 과제-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 주제 4 :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주제 5 : 교회성장학의 학문적 특성과 실천신학의 방향-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주제 6 :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 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목회)상담학-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 교수)

주제 7 : 실천신학적 지평확대를 위한 예배학적 모색-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6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협성대학교

주 제 :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추구

제1발표: 이상훈 박사 “공공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제2발표: 황병배 박사 “The Rainer Scale을 통해 본 한국 불신자 유형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제3발표: 김성민 박사 “정신에너지와 정신치료: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체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제4발표: 김형락 박사 “성찬예식의 기호학적 이해: 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제5발표: 조영창 박사 “텍스트로서 은유적 설교문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방법에 관한 한 연구: 가다머, 은유, 그리고 설교문의 신학적 해석”

제6발표: 김경은 박사 “화해의 영성”

제7발표: 유재원 박사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모색”

제8발표: 전창희 박사 “설교와 성경해석학”

제9발표: 하도균 박사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복음전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제10발표: 신경섭 박사 “J. 칼빈과 C.G. 융의 종교체험 비교연구”

제49회 정기학술대회개회 및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예배

일 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20분

장 소 : 은평감리교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6)

주 제 : 제4차 한국10대 성장동력교회 분석

제1발표: 김한호 박사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성숙”

제2발표: 김선일 박사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전도: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제3발표: 안석 박사 “성장에 관한 정신역동적 고찰”

제4발표: 조재국 박사 “한국교회 성장동력의 분석과 평가”

제5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오후 2시 - 19일(토) 12시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정의와 평화

제1발표: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 제2발표: 김명실 박사(장신대) 기독교 성찬 성례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 제3발표: 이준호 박사(한신대) 자살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 제4발표: 유재원 박사(장신대)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연구: 댄 김벌과 마크 드리스콜을 중심으로
- 제5발표: 유해룡 박사(장신대) 『베네딕트 수도규칙』의 엄격성과 유연의 문제
- 제6발표: 조성동 박사(실천신대) 독일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할

2014년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후 2시 - 8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주 제 : 다문화 문제와 한국교회

제1발표 오방식, “요한 카시아누스의 ‘관상’에 대한 연구”

제2발표 김성영,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통합적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3발표 Malte RHINOW, “18, 19 세기의 조선 천주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제4발표 홍주민, “다문화사회와 디아코니아-민관협력도움시스템의 가능성: 성남외국인센터의 예”

제5발표 양유성, “목회상담에서 은유의 의미와 기능”

제6발표 최광선, “생태위기와 기독교 영성: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가능한가?”

제7발표 이수인, “교회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제8발표 신동원, “다문화상황에서의 결혼예식에 대한 고찰”

제9발표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 (invention) 이론에 대한 연구”

제10발표 김옥순,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제11발표 전창희, “초대교회 알몸 세례(naked baptism)에 대한 고찰”

제12발표 최재락,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성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제13발표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제14발표 정재영, “종교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소속 없는 신앙”

제5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5월 31일 (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제1발표: 김순환 박사 “미래교회의 주역, 영유아 및 아동 층 예배를 위한 소고”

제2발표: 김기철 박사 “거울메타포로 풀이하는 ‘다음’의 영성”

제3발표: 이강학 박사 “영적 분별: 이냐시오 로올라와 조나단 에드워즈 비교”

제4발표: 김옥순 박사 “한국교회의 미래 디아코니아목회와 실천현장을 위한 방향성”

- 제5발표: 김 정 박사 “초대 시리아 기독교의 세례와 금욕주의”
- 제6발표: 김성민 박사 “엑카르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
- 제7발표: 김수천 박사 “기독교적 묵상의 영성 신학적 의미 분석”
- 제8발표: 나인선 박사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가?”
- 제9발표: 양동욱 박사 “한국교회의 대안적 비전 형성을 위한 설교학적 방법론 연구”
- 제10발표: 하도균 박사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제5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10월 11일 (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장 소 : 영도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22번지)
- 주 제 : 이단 사이버 종파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실천적 과제
- 발표1: 이지만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단 발흥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과제”
- 발표2: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광신도의 문제와 상담 치료적 대응: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 발표3: 탁지일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단 사이버 현황분석 및 한국교회의 실천적 과제”
- 발표4: 안석 박사(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신앙인가 아니면 병리인가?: 유사 신앙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연구”

제5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 2시 - 11월 1일(토) 12시
- 장 소 : 온양관광호텔
- 주 제 : 평화
- 제1발표 안덕원 박사(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엘런 페이튼의 평화의 영성과 리더십”
- 제2발표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평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 제3발표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전통속에 나타난 여성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 제4발표 김양일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후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공적설교신학 구축을 위한 연구”

2015년 제5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 1시
- 장 소 : 부평 카리호텔 ☎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 제1발표: 윤은주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와 인권운동"
- 제2발표: 문화량 "예전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 가에 대한 연구"
- 제3발표: 여한구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서와 심리상담"
- 제4발표: 허요한 "신학과 드라마의 만남: 드라마터지(dramaturge)로서의 설교자에 대한 연구"
- 제5발표: 윤성민 "독일에서 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녹색성장안에서의 교회의 영성"

- 제6발표: 김옥순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만남은 가능한가?"
- 제7발표: 조재국 "대학교회의 목회적 성격과 선교적 과제"
- 제8발표: 안석 "용서에 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엔라이트의 용서치유에 관한 연구"
- 제9발표: 김선일 "전도적 관점에서의 회심이해"
- 제10발표: 김명실 "한국 기독교 결혼예식서들 속에 나타난 양성평등과 가정에 대한 이해들"
- 제11발표: 김명희 "에노미야 라살의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적 대화"

제5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 2015년 5월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
-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 제1발표: 유해룡 "교회를 살리는 실천적 영역으로서의 영성신학"
- 제2발표: 이승진 "설교 플롯과 반전의 깨달음"
- 제3발표: 정근하 "교회 오너십의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일본선교 방안연구"
- 제4발표: 김형탁 "기독교 예배의 근원적 샘을 찾아서: 삶의 예배, 예배의 삶"
- 제5발표: 정보라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이해: 거킨의 "영혼의 삶"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제6발표: 김경한 "한국성결교회전도부인의 활동과 복음전도활성화에 관한 연구"
- 제7발표: 옥진한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제5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10시-2시
- 장 소 :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시무, 강남구 개포동)
- 주 제 : 교회와 경제
- 제1발표: 정일웅(전 총신대 교수/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 선교사에 나타난 교회의 경제활동"
- 제2발표: 위형운(안양대학교 교수/한국학술진흥원 총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경제정의"
- 제3발표: 조재국(연세대학교 교수/교목실장) "한국교회의 현금이해와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

제58회(10월)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 일 시: 2015년 10월 23일 오후 2시 - 24일(토) 12시
- 장 소: 온양관광호텔
- 주 제: 정의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에서 교회와 사회정의"
- 최현중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독일통일의 종교사회학적 분석"

2016년

제5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주 제 : 갈등과 화해(학제간 대화)

제1발표 강문규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제2발표 오방식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

제3발표 최현중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제4발표 이현웅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

제5발표 김성민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

제6발표 권명수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제7발표 박종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

제7발표 김상백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제8발표 구병옥 "환대(hospitality)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

제60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5월 28일(토) 9시-3시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주 제 : 현대의 실천신학

제1발표 김남식 박사(서울신대)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

제2발표 양성진 박사(감신대)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 교육의 가능성 연구: 내면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제3발표 전창희 박사(협성대)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제4발표 박원길 박사(호서대) "선교적 교회의 목회리더십"

제5발표 조혜경 박사(한국성서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제6발표 안석박사(크리스찬치유상담대)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제7발표 계재광 박사(한남대) "관계적 삼위일체론으로 본 교회의 본질"

제8발표 박인갑 박사(감신대) "요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제9발표 박은정 박사(웨신대)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제10발표 유은호 박사(서강대)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기도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

제11발표 김광석 박사(장신대)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제12발표 김선미박사(한일장신대) "종교중독성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제61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9월 24일(토) 9시-3시

장 소 : 예수소망교회(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28)

주 제 : 100세 시대의 목회

제1발표 이상훈 박사(새세대아카데미)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

제2발표 안선희 박사(이화여대)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교회와 예배: 미니멀리즘, 성찰, 죽음”

제3발표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

제62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회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 - 22일(토) 12시

장 소 : 소망수양관

주 제 :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Humanitas):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제1발표 하도균 박사 (서울신대 교수)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교회의 역할 ”

제2발표 윤영선 박사(한국실천치료연구소) “실존주의 상담의 관점에서 헬조선 시대에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

제3발표 김옥순 박사 (한일장신대 교수) “종교개혁 핵심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2017년

제6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7년 2월 10일(금) 오후 2시~2월 11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

주 제 : 인성회복과 실천신학

제1발표 광혜원박사(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죽음의 성찰과 인성의 회복: 죽음교육을 통한 영성회복, 인성회복, 사회회복을 지향하며”

제2발표 이현웅박사(한일장신대) “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3발표 장정은박사(이화여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제4발표 권혁일박사(GTU) “신화, 풍자, 그리고 예언: 토머스 머튼의 “프로메테우스: 묵상”

제5발표 이종민박사(신안산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기독교사립학교 인성교육교재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제6발표 이민형박사(보스톤대 Ph.D Cand.) “문화선교와 대중문화의 관계성 회복: 패러디와 시뮬라시옹”

제7발표 김옥순박사 (한일장신대) “개신교 청의사상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당연성에 관한 연구”

제8발표 홍승철박사(호서대) “한국의 공교육체제와 기독교적 인성교육”

제9발표 고유식박사(감신대) “공동체성 상실로 인해 상처입은 인간성회복을위한 영혼돌봄의과제”

제10발표 백상훈박사(한일장신대) “노년기의 영성과 인격의 통합”

제11발표 구병옥박사(개신대) “인성회복을 이끄는 목회: 우리들 교회를 중심으로”

제12발표 배지연박사(전주대) “『안나카레니나』에 나타난 인간성 회복과 성장”

제13발표 함영주박사(총신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청년이 인지한 아동기 부모-자녀 애착이 인성 및 영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14발표 윤성민박사(강남대)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기독교대학의 교양교육과 채플”

제15발표 한상진박사(총신대) “인성에 대한 교육적 의미”

제16발표 우미리박사(협성대)“상담과 기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제64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2017년 5월 27일(토) 9시-2시

장 소: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

주 제: 종교개혁정신과 실천신학

제1발표 배지연박사(전주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소명”

제2발표 김남식박사(서울신대) “종교개혁적 전도 패러다임과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실천적 연구”

제3발표 김기용박사(한일장신대) “실증적 디아코니아 연구 스케치- 인클루시브 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와 제4발표 시민사회 기구로서의 교회 간 협력 및 책임 연구”

제5발표 김상백박사(순복음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병든 신앙에 대한 영성적 치유”

제6발표 천병석박사(부산장신대) “루터의 비텐베르크 설교 8편의 분석적 고찰”

제7발표 고원석박사(장신대) “종교개혁에 비추어 본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과제”

제8발표 여한구박사(국제신대) “아니마 개념을 통해 본 심봉사의 개성화”

제9발표 김경은박사(장신대) “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

제10발표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 “상징혁명과 고린도교회 주의 만찬과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방법으로”

제11발표 계재광박사(한남대) “종교개혁정신과 한국의 선교적 교회론의 재정립”

제12발표 박관희박사(호서대) “기독교적 욕구의 산출과정 연구”

제13발표 김양일박사(영남신대) “케빈 밴후저의 수행 개념을 통한 윌터 브루그만의 설교신학 평가와 그 적용”

제14발표 김정준박사(성공회대) “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제65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2017년 9월 23일(토) 9시-2시

장 소: 신촌장로교회

주 제: 다음세대 목회와 통합의 실천신학

제1발표: 이종민 박사(신안산대학교) “임시공동체로서의 캠프: 초막절을 중심으로”

제2발표: 신건 목사(신촌성결교회 청년담당)

제3발표: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제4발표: 김혜경 목사(신촌성결교회 교육담당)

제66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공동학회

주 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

일 시: 2017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 - 22일(토) 12시

장 소: 소망수양관

제1발표: 나인선(목원대) “에게리아 순례여행보고에 나타난 4세 예루살렘 초대 교회공동체의 목회(예배)에 근거한 한국 교회목회(예배) 개혁의 규범”

제2발표: 조성호(서울신대) “종교개혁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2018년

제6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오후 2시~2월 10일(토) 오후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2-556-0880)

주 제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제1발표 이주형박사(승실대) “한국인의 마음과 영적 분별”

제2발표 김웅기박사(성서대) “제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교육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제3발표: 김남식박사(에즈베리신대)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미군정기(1945-1948) 한경직 목사의 전도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제4발표 이승열박사(한국기독교연합봉사회사무총장)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

제5발표: 조성돈박사(실천신대) “4차 혁명시대의 목회자”

제6발표: 문화량박사(고신대) “예전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두뇌 연구 관점에서”

제7발표: 김선일박사(웨신대) “과학혁명 시대와 복음의 소통 가능성: 유발 하라리의 종교전망에 관한 대응”

제8발표: 여한구박사(국제신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

제9발표: 이현웅박사(한일장신대) “한국교회 초기 설교론에 관한 분석 평가”

제10발표: 권명수박사(한신대) “기계와 친밀 관계 시대”

제11발표: 나인선박사(목원대)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성으로 자기 희생의 가능성 연구”

제12발표: 양동욱박사(장신대)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

제13발표: 윤성민박사(강남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영성: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영성”

제14발표: 유은희박사(총신대) “한국 기독교사립중등학교 종교교사 및 교목의 정체성구성과 종교수업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제15발표: 박관희박사(나사렛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쇠퇴 패턴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 탐색적 질적 연구”

제68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일 시 : 2018년 5월 19일(토) 10시-4시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주 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천신학 과제

제1발표 박관희박사(나사렛대학교) “교인의 교인 이탈 과정 연구: 종교사회학, 심리학, 예배학의 융합을 중심으로”

제2발표 이상현박사(울곡교회) “폴 틸리히 상관관계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불안에 대한 실존적 탐색”

제3발표 김 정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지금 그리고 영원히 : 변하는 시대와 변치 않는 예배 요소”

- 들”
- 제4발표 배영호박사(경동교회한신대) "오늘의 목회적 상황을 위한 설교 커뮤니케이션 이해"
- 제5발표 손 문박사(연세대) "의학과 신학의 융합교육과정 개발과 역사적 함의, 그리고 실천에 관한 연구"
- 제6발표 최봉규박사(한소망교회) "토머스 머튼의 영성에서 보는 거짓문화와 자기 소외시대에 참 자아 찾기"
- 제7발표 강태구박사(한남대학교) "구성원의 공감 능력과 리더의 정서 지능의 상호작용이 관계갈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제8발표 한상진박사(총신대) "볼르노 해석학에 있어서 진리 문제에 대한 연구"
- 제9발표 이세형박사(협성대학교) "프로이트의 자아 이해"
- 제10발표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학교) "격차 사회에서의 호혜적 관계와 고린도교회 주의 만찬"
- 제11발표 김근수박사(구세군이리교회) "구세군의 디아코니아 교회론에 관한 연구"
- 제12발표 권혁일박사(한일장신대) "프로메테우스의 선택 : 정의의 관점으로 읽는 운동주의 「간」"
- 제13발표 김병석박사(숭의대학교)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 예배와 설교의 위치"
- 제14발표 오동섭박사(장신대) "도시선교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창의적 접근"

제69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정술대회

- 일 시 : 2018년 9월 15일(토) 9시 30분 - 3시
- 장 소 : 신촌 필름 포럼
- 주 제 : 주제: 현대문화와 실천신학
- 제1발표 성현박사(필름포럼 대표) "영화, 영성, 목회" 필름 포럼과 함께
- 제2발표 오동섭박사(장신대) "美와 십자가교회의 목회 사례"
- 제3발표 유정현(드림라이프 대표) "음악 치유사역 사례"

제70회(10월)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2시 - 12일(토) 12시
- 장 소 : 소망수양관
- 주 제 : 응답하라 1919: 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
- 제1발표 최재숙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도 치유 경험 내러티브 사례에 나타난 영성적 심리적 도찰- 영성 상담적 측면에서"
- 조재국박사(연세대학교) "와타나베 도오루의 신앙과 독립운동 지원"

2019년

제71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4회 정기총회

-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2시 - 6일(토) 오후 12시
- 장 소: 부평 카리스호텔(032-556-0880)

주 제: 인구절벽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발표1: 주상락(아현성결교회 전도목사) "인구절벽 시대의 대안적 교회개혁"

발표2: 송준용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발표3: 최진봉 (장로회신학대학교) "인구절벽시대에 드리는 주일공동예배(Corporate Worship) 제안에 대한 연구: 16세기 개혁교회의 공동체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발표4: 이수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발표5: 이경희 (소망교회) "피흘림 없이 희생양 메카니즘을 끊는 내러티브의 힘"

발표6: 조성호 (서울신학대학교) "인구감소현상이 실천신학연구 방법론에 끼친 영향: 리더십과 영성을 중심으로"

발표7: SAM PARK (Graduate Theological Union) "설교유형과 신학의 관계"

발표8: 고원석 (장로회신학대학교) 기호학과 기독교교육- 퍼스의 삼중적 기호이해와 성서교수학적 성찰

발표9: 정근하 (계명대학교) "필리핀 한인교회의 주일예배 관찰을 통한 필리핀 선교 전략 방안 연구"

발표10: 김윤규(한신대학교) "마르틴 루터의 개혁적인 설교연구"

발표11: 윤성민(강남대학교) "헬무트슈비어 설교학 연구"

발표12: 박세훈(새문안교회) "용 심리학의 영성 연구에 대한 공헌: 아빌라의 테레사의 <영혼의 성>을 중심으로"

발표13: 김형락(서울신학대학교) "신유예식: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육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발표14: 최종일 (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 "인구절벽 시대 기독교청년을 목회 돌봄적 이야기 치료 연구"

발표15: 남성혁(명지대학교) "인구절벽 시대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모색"

발표16: 조영창(주안장로교회) "라우리(E. Lowry)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과 그 논쟁점들"

제72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5월 18일 (토) 오전 10시- 3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위기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발표1: 윤득형박사(송실사이버대)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기 위기와 실천신학의 과제로서 죽음준비교육"

발표2: 김명기 박사(호서대) "이중직 목회 허용정책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발표3: 이민형 박사(성결대) "문화선교의 위기: 문화 혼종을 통한 전도에 관하여"

발표4: 이인수 박사(실천신대) "한국 장로교회 성찬예전의 인식형성 과정과 문제점"

발표5: 계재광 박사(한남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틀에 대한 연구"

발표6: 박행님 박사(침례신학대) "교회교육 위기에 관한 교사의 주관성 연구"

발표7: 유미경 박사(웨신대) "자존감 증진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기독교 상담학적 적용 연구: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8: 유은호 박사(창문교회) 에바그리우스의 '아파테이아'(ἀπάθεια) 연구
 발표9: 김용성 박사(한신대) 캠벨의 서사설교와 교회공동체형성 회복
 발표10: 이주형 박사(송실대) 영적 우울과 어둠 밤의 위로
 발표11: 양신 박사(안성제일교회) 평신도와 함께 하는 설교와 예배디자인
 발표12: 김상덕 박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미디어 사회 속 진실의 위기와 증언의 제자도: "목격자역할"(bearing witness) 개념을 중심으로

제73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2019년 9월 28일(토) 10:30~16:00
 장 소: 광장교회(양재철 목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
 주 제: 예배와 설교를 통한 건강한 교회공동체
 발표1: 안덕원(햇빛트리니티) "건강한 목회를 위한 예배"
 발표2: 조지훈(한세대)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한 설교학적 함의"

제74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 2일(토)
 장소: 정동제일교회
 주제: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선교와 목회
 주제발표: 조지훈 박사(한세대) "한국사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설교사역을위한 한 제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신학과 설교를 중심으로"
 자유발표: 윤성민 박사(강남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2020년

제7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오후1시 - 8일(토) 오후12시
 장 소: 인천 카리스호텔
 주 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주제강연1: Joel Tejedo (Asia Pacific Theological Seminary) "Creating Pathways of Unity, Reconciliation and Healing in our Broken Society"
 주제강연2: Samuel Park (Graduate Theological Union, USA) "Prophetic Preaching for Unification, Reconciliation and Therapy"
 발표1: 주원규박사(성공회대) "2030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화해와 치유의 한국교회 전망-해체의 교회 신학을 중심으로-"
 발표2: 박중환박사(실천신학대): "치유에 대한 의료인류학(Medical Anthropology)이해"
 발표3: 김남식(서울신학대)"초대교회에서 본 한반도의 문화적 살름 연구"
 발표4. 조한상(호신대) "이냐시오 로올라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식별연구"
 발표5: 주희현박사(백석대) "2030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화해와 치유의 한국교회 전망-공유의 네트

워크 사역을 중심으로-

- 발표6: 나인선박사(목원대) “치유의례가 실행하는 실재에 관한 이해”
- 발표7: 김성호 (경성대)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화설교”
- 발표8: 김동진박사 (한일장신대) “통일과 남북한 화해의 디아코니아”
- 발표9. 오방식(장신대) “복음과 관상: 아벨라의 데레사의 신비관상에 대한 비평적 연구”
- 발표10: 임미화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통일, 화해,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의 역할”
- 발표11: 임헌만박사 (백석대) “화해적 통일을 위한 로고테라피 가능성”
- 발표12: 고원석(장신대) “선교적 입장에서 보는 화해교육의 새로운 접근”
- 발표13: 정보리박사 (건신대학원대학교) “자기수용과 화해에 관한 실천신학적 고찰”
- 발표14: 김병석박사 (서울장신대) “치유적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구조”
- 발표15: 이종민(총신대)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제7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0년 6월 20일(토) 오전10시 - 3시

장 소 : 온라인(학회홈페이지 www.praxis.or.kr/ Youtube 링크)

주 제 : 미디어 리터러시와 실천신학의 과제

- 발표1: 유재원(장신대) “현대 예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방안 연구”
- 발표2: 박도훈(호서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D)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 발표3: 윤성민(강남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헬무트 슈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 발표4: 남기점(감신대)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
- 발표5: 최병례(국제신대), 여한구(국제신대) “뉴스의 담화분석: JTBC “앵커브리핑”을 중심으로“
- 발표6: 이종민(총신대) “디지털시대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성찰”
- 발표7: 이승진(합신대)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발표8: 김보연(웨신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현상학적 연구”
- 발표9: 조성호(서울신대)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한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상호관계 연구”
- 발표10: 김윤기(호서대)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
- 발표11: 나현기(한신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이해와 독특성”
- 발표12: 박관희(서울신대)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
- 발표13: 유미녀(국제신대), “박경화(국제신대) 중년여성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집단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제7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일 시: 2020년 10월 30일(금) 10:00-17:00

장 소: 온라인 진행(유튜브, 줌)

발표1 나인선 박사(목원대) “평화를 위한 비폭력 의례로서 뱃티즘: 16세기 아나뱃티즘의 사회·정치적 저항

제7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0년 11월 21일 (토) 10:00-13:00

방 법 : <http://www.praxis.or.kr/> (링크 접속/ 논문 발표 후 실시간 온라인 토의)

주 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발표1: 정재영박사(실천신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변화와 공공성"

발표2: 이민형박사(연세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 개신교 신앙 지형 연구: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3: 민장배박사(성결대), 김병석박사(숭실대)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예배의 시공간성에 관한 연구"

발표4: 박은정박사(웨신대), 이종민박사(총신대) "생령"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와 적용: 기독교교육과 목회상담을 중심으로

발표5: 주상락박사(명지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 공간선교, 전도"

2021년

제7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오전 9:30 ~ 오후 6:2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유튜브/줌 온라인 진행) * 발표자들만 현장에서 참여합니다.

주 제 :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발표1 제재광(한남대) "코로나 상황 속 디지털미션필드(Digital Mission Fields)사역에 대한 연구: 새들백교회의 온라인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발표2 박관희(서울신대) "교회규모별 교회선택행동 연구"

발표3 정재웅(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설교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

발표4 이경희(햇볼트리니티) "눅24장, 후기-지라리안(Neo-Girardian), 성서영성: 모방 폭력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

발표5 이종태(한남대학교) "경이의 눈: C.S.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

발표6 남성혁(명지대)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전도활동의 의의: 매슬로우(A.H.Maslow)의 인간욕구이론"

발표7 <교회성장/전도/선교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8 김선일(웨신대) "명예-수치문화에서의 복음제시에 대한 고찰"

발표9 안덕원(햇볼트리니티)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 예전적 분석: 제임스 화이트 (James F. White)의 교회건축과 예배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발표10 손문, 박지영(연세대)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

- 발표11 이은철(백석대)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 발표12 오성주(감신대)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 발표13 김해영(KC대)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
- 발표14 송준용(국제신대) “다문화 예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발표15 권명수(한신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
- 발표16 이상현(순복음대)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

제8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1년 5월 22일(토) 10:00 ~ 14:30

장 소 :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대학교회

주 제 : 탈교회 시대의 실천신학적 대응

- 발표1 정재영(실천신대): “탈교회 현상과 비제도권 교회”
- 발표2 이순식(웨신대): “교회 심방에 나타난 목회자의 역전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발표3 박관희(서울신대): “예배는 신앙을 강화한다: 예배태도로서 ‘신앙고백적 사모함’을 중심으로”
- 발표4 장혁재(호서대): “탈교회시대 기독교사학체플의 미래 과제”
- 발표5 김경수(강남대): “병리적 정신구조의 형성과 치료적 변형에 관한 연구: 정신분석학과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 발표6 함영주(총신대):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창조 사이에 선 교회교육방법”
- 발표7 최재성(숭실대): “질문을 받는 복음전도 : 성경적 복음전도로의 해방”
- 발표8 권진구(목원대): “탈교회화와 한국 개신교 영성”
- 발표9 김현숙(한일장신): “개신교 전통속에서 디아코니아 교회론에 관한 연구: 한국 개신교회의 디아코니아 정체성 정립을 위하여”
- 발표10 조반석(부평제일성결교회): “비평적 선교화’ (Critical Missionalization): 탈교회의 본질적 대응으로서의 교회의 선교적 회심”
- 발표11 양정호(대전신대): “패션과 컴패션의 균형을 위하여: 기독교 혐오와 탈교회 현상에 대한 실천신학의 대응을 위한 영성사적 고찰”
- 발표12 윤성민(강남대): “존 스토트와 토마스 롱이 말하는 설교자”

제8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1년 9월 25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 소 : 춘천동부교회 (김한호박사 담임)

주 제 :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회와 실천신학

방 법 : 온라인(학회 홈페이지 Youtube 및 Zoom 링크)

- 발표1 김한호 박사(서울장신대) “코로나 시대의 디아코니아 목회”

- 발표2 조성실 목사(소망교회)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하이브리드 목회 전략”
 발표3 김현준 목사(청파동교회) “비대면시대의 마을 목회: 청파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발표4 김윤기 박사(한국디아코니아 목회연구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디아코니아적 실천 방안”

제8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 시: 2021년 10월 30일(토) 09:30-17:00
 장 소: 온라인 진행(유튜브, 줌/ 밝은빛전원교회)
 발표 김병석 박사(송실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신학 연구: 기독교 예배와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2022년

제83회(2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일 시 : 2022년 2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 소 :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박사 담임)
 주 제 : “위드(WITH) 코로나 시대와 실천신학의 과제”
 방 법 : 온라인(학회 홈페이지 Youtube 및 Zoom 링크)
 발표1 주희현(정화예대/ 공유문화예술연구소) “위드코로나 시대, 상호텍스트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연구: 상호텍스트 활동사례 및 경험자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2 고유식(호서대) “Corona Red, Bule, Black 상황 속에서의 목회신학적 과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서적 거리 좁히기’로”
 발표3 박동진(합신대) “위드 코로나 시대, 로이드 존스의 설교학적 의미: 온전한 확신과 설교의 능력”
 발표4 주원규(성공회대) “위드코로나 언택트 시대, 융합적 실천으로서의 신학담론 가능성 모색: 교회 공간에 관한 성찰을 중심으로”
 발표5 여한구(국제신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목회상담”
 발표6 구아름(토론토대) “고통과 희망 사이의 과도기적 공간으로서의 애통 설교”
 발표7 조성돈(실천신대) “위드코로나 시대의 실천신학적 교회론”
 발표8 이종민(총신대) “위드-코로나 상황 가운데서의 영성훈련을 위한 고찰: 솔로 타임(Solo Time)을 중심으로”
 발표9 양승아(서울장신)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예배”
 발표10 김남식(CESI한국전도학연구소) “리처드 플래처의 9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한 5세기 켈트식 전도 분석 1부”
 발표11 백상훈(한일장신) “‘살아있는 빛의 반영’: 힐데가르트의 환시에 관한 소고”
 발표12 오주영, 오성욱(서울신대) “Covid-19 위기 대처에 관한 예배학적 성찰과 “With/Post” 코로나-19 시대의 예배학적 미래전략”
 발표13 남성혁(명지대) “디지털 선교지로서 메타버스 세계의 가능성”

발표14 김경은(장신대) “현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발표15 김동진(루터대)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

제84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2022년 5월 21일(토) 10:00 ~ 16:00

장 소: 성결대학교

방 법: 온/오프라인(학회 홈페이지 Youtube/Zoom 링크)

주 제: “Reconnection : 가정, 교회, 세상을 위한 실천신학적 방안”

발표1 이미령(웨신대) “위기 가족을 위한 공간 중심 가족 놀이치료 사례연구”

발표2 송훈호(성결대) “성찬성례전적 공동체 식사를 통한 연합방안”

발표3 신경희(세종대) “사회복지 역사에서 디아코니아가 복지국가모델에 미친 영향”

발표4 김혜정(협성대) “여성의 개성화와 부성 콤플렉스 연구: 용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발표5 정근하(루터대)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발표6 김용성(한신대):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

발표7곽우영(호서대): “비블리오프드라마의 향후 과제와 목회적 돌봄: 메소드 훈련을 적용한 아동 비블리오프드라마를 중심으로”

발표8 박관희(서울신대): “갈등 해결 중심 리더십의 실행 요소에 대한 성서적 사례연구”

발표9 박신향(호남신대): “신비주의 변화의 작동기제: 노르위치 줄리안의 고난 경험과 이해를 중심으로”

발표10 주상탁(명지대): “선교적 공공교회 모델을 통한 교회와 세상의 재연결(Reconnection): 질적 사례연구 중심으로”

발표11 김원태(계명대): “목회 돌봄으로서 기독교 장례 예식 이해”

발표12 박선희(성결대): “기독교 부모의 생태체계가 학령기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발표13 구병옥(개신대): “가정과 교회의 단절을 잇는 가정예배: 청교도를 중심으로”

발표14 김정희(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공허함으로 걷기: 기독교 걷는 전통의 회복을 위한 한 제안”

제85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2022년 9월 17일(토) 10:00 ~ 15:00

방 법: 온/오프라인(학회 홈페이지 Youtube 링크)

장 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주 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천신학적 과제”

강 연 신용백(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담임) “사역환경의 변화와 목회”

발표1 주원규(한양대) “멀티버스 세계에서의 기독교 정신 구현을 위한 제안 - 문화예술생태계 재편을 중심으로”

발표2 조미나(웨신대)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기독교 정체성 탐구 활동 연구”

제86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회

일 시: 2022년 10월 29일(토) 09:30~17:00

장 소: 장로회신학대학교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 ”

발표1: 구병옥(개신대) “건강한 교회개척을 위한 분립개척 연구: 선한목자교회, 함께하는교회, 제자 들교회를 중심으로”

발표2: 조성권(순신대) “해체와 결합의 파스한 보듬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교회”

2023년

제87회(2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 시 : 2023년 2/10(금) 오후 1시(1~2시 접수) - 2/11(토) 오후 1시

장 소 : 인천 카리스호텔

주 제 : “나노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실천신학적 과제”

1부 1차 발표

발표: 김현진(광신대) “나노사회의 심리적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조성돈(실천신대) “나노사회에서 공동체 리빌딩”

발표: 남기정(감신대) “나노 사회의 영성과 종교: 찰스 테일러의 Buffered Self와 초대 교부들의 ‘영 적 감각론’을 중심으로”

1부 2차 발표

발표: 한백병(실천신대) “나노사회에서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디아코니아의 역할”

발표: 손문(연세대) “나노 과학과 기독교교육의 현상학적 접근”

발표: 주희현(공유문화예술연구소장)“나노사회 공동체성 변화에 따른 공유체로서의 교회활동 연구-리 쯔이론으로 분석한 교회 공유활동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조한상(호남신학대)“마음 챙김과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비교연구를 통한 인문 학과 기독교 영성학의 학제 간 연구: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2부 3차 발표

발표: 김해영(강서대) “나노사회의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과 공동체 약화에 관한 목회상담학 적 연구”

발표: 조성호(서울신대) “‘나노사회’ 파편화를 극복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발표: 고원석 (장신대) “기독교교육의 융합 모델로서 비블리오드라마 - 본문, 해석, 경험, 미디어의 관점에서 -”

발표: 김남식(CESI한국전도학연구소) “21세기 교회 갱신을 위한 리차드 플래처(Richard Fletcher) 의 9가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한 켈트 기독교 전도 전략 연구 2부”

3부 4차 발표

발표: 정재영(실천신대) “나노사회에 적합한 교회의 공동체성 모색”

발표: 김종현(계릿신학교) “나노사회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발표: 김병석(송실대) “나노사회에서의 실천적 설교신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발표: 서현 (한국상담치료연구소) “나노사회에서 관음증-중독청년의 시각적 왜곡의 해소를 통한 상담 치료”

3부 5차 발표

발표: 김신구(서울신대) “나노사회 속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발표: 박관희(서울신대) “나노사회 한국 기독교 위기의 대안으로서 예배과정 플랫폼 연구: 거룩한 시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 김용성(한신대) “나노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설교 모색”

제88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3년 5월 13일(토) 10:00 ~ 15:30

장 소 : 총신대학교 종합관

주 제 : “실천신학의 동향분석과 나아갈 방향”

1부 1차 발표

발표: 문재철(서일대)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리상담 방법-가상현실과 메타버스 활용”

발표: 이륜희(검단소망교회)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 영성 회복의 관점에서”

발표: 안정도(경민대) “성서 수업, 어린이 신학, 기초화: 독일 성서수업의 발전과 한국에서의 교수학적 의미”

발표: 이영찬(침신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전달 방법에 관한 연구”

2부 2차 발표

발표: 김희정(웨신대학원) “자기심리학으로 본 자기수용에 관한 연구: 영성지도로 변형된 자기 구조”

발표: 홍승민(서울신대)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의 관계 연구: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을 중심으로”

발표: 이인수(실천신대)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본 ‘영적 예배’의 의미 탐오하기: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서의 ‘로기켄 라트레이안’(λογικην λατρείαν)에 대한 성찰”

발표: 박균오(한남대) “서번트리더십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2부 3차 발표

발표: 김재효(영인제일교회) “한국교회 기도영성의 시원”

발표: 양현준(폴리신학대학원) “적극적 환대를 통한 포괄적 기독교 공동선 형성 선교 전략”

발표: 장필조(한남대) “목회자와 장로의 리더십이 교인의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 문경입(한국상담치료연구소) “중간대상을 통한 중년기여성의 심리적 불안의 해소: 갱년기 강박증을 중심으로”

제89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 소 : 분당 한신교회

주 제 : “건강한 교회 세우기 - 분과별 사례 교회와 신학적 분석”

발표: 구분경(이화여대) “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 발표: 문진형(개신대)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성경적 역할: 출애굽기 12-13장 연구
와 Grace Family Baptist Church 사례분석”
- 발표: 채정명(웨신대)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복음적 프락시스의 설교: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 발표: 이영미(웨신대) “목민심서에 나타난 건강한교회를 위한 리더십 고찰

제9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시: 2023년 11월 4일(토)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발표: 김신구(서울신학대학교)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한 참된 교회의 길, 사도적 선교적 교회

발표: 김신명(영남신학대학교) 대구 논공 지역 다문화 청소년 면담과 기독교 다문화 교육 틀

한국실천신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 신학의 학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의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문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 (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상제와 성례전, 리더십-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자격- 학자 및 목회자로서 실천신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관련 영역에서 다년간 전문경험을 쌓은 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성실히 참여한다(은퇴교수는 연회비 면제).

제 6 조 (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선출, 임기)

1. 임원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하되 부임원들의 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승계를 원칙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 총무를 역임한자 및 분과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신입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 이외의 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4. 학회의 감사는 임원 역임자(분과장 포함) 중에서 2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회계와 부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술분과회의 구성과 분과회장 선출)

1.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협력학회 또는 전공영역으로 학제간대화로 교회를 섬기려는 본 학회의 기본목적에 찬성하고 학술적 독립성과 충분한 회원수를 확보해야 한다.
2. 신규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임원회 건의로 이사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

3. 학술분과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각 학술분과회 소속회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단 신임 학술분과회장은 변동사항을 학회장에게 공지해야 한다.
4. 학술분과회장은 임원회 및 타 학술분과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한다. 분과회장은 학회장이 요청할 경우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이사회)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사, 상임이사, 본 학회 회장, 분과에서 추천하는 1인, 도합 15인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가 승계하며, 선임이사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는 직전회장이 승계한다.

제9조(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위하여 은퇴한 원로 학자들을 고문단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제한)

현역에서 은퇴한 자는 임원, 이사, 감사 및 편집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 11 조 (연구위원회)

1. 본 학회는 비상설기구로 특별과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관련 학술분과회장들과의 협의로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간사 등을 위임하여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에 대해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존폐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 12 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계간대화), 5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 13 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편집에 관한 사안을 관장한다. 편집재정은 편집위원회 회계가 맡아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제 14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 17 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8 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6. 회칙 보완 수정은 2016년 2월 12일 제21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회칙 보완 수정은 2017년 2월 11일 제22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회칙 보완 수정은 2018년 5월 19일 제23회 1차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9. 회칙 보완 수정은 2022년 2월 12일 제27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10. 회칙 보완 수정은 2023년 2월 4일 제2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별 칙

1.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천」 원고 심사규정 및 학술지 게재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본 학술지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정기학술지로 매년 5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심사규정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 (2)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4) 본 학술지는 매년 1월 2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월 20일에 마감하여 5월 30일에 여름호를 발행하며, 외국어 논문은 6월 20일에 마감하여 7월 30일에 발행한다. 가을호는 8월 20일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한다. 겨울호는 10월 20일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 (5) 심사판정은 “계재 가” 판정 시(80점 이상) 심사총평과 “계재 불가” 판정 시(80점 이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6) 심사규정은 별도규정에 의하되 1. 구성의 완성도(25점), 2. 주제연구의 심도(25점), 3. 학문적 독창성(25점), 4. 학문의 기여도(25점), 5. 논문등재지인용지수 5개. =총점(총100점 만점, 80점미만은 게재불가), 총평으로 한다.
 - (7) 본 학회지의 모든 원고 투고와 심사는 홈페이지 심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 (8)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 2)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8인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 3)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에 게재 한다.
- 4)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 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60%- 70% 미만으로 한다.
- 5) 논문 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을 부과하며 외래교수(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은 일괄 15만원을 부과한다. 단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은 50만원을 부과한다. 회원가입자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신입회원의 경우 2년 연회비를 일괄 납입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 6)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 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편집자문을 위해 전임회장 중에서 편집고문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
-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된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 제 10 조 (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정 2015년 2월 14일 회칙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11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발행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키 위해 학술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을 「신학과 실천」으로 한다.
- 제 2 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

을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회원 중에서 전공, 소속, 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8명 내외로 위임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4 조 (선출 및 위임) 편집위원의 위임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본 학술지는 연 5회 발간하며 매년 1월30일에 마감하여 2월28일에 봄 호 발행, 4월30일에 마감하여 5월30일에 여름 호 발행, 6월30일에 마감하여 7월30일에 외국어 호 발행, 8월30일에 마감하여 9월30일에 가을 호 발행, 10월30일에 마감하여 11월30일에 겨울 호를 발행한다. 단 외국어판의 출판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6 조 (게재율)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거 60%-70% 미만으로 한다.

제 7 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게재하고 게재 발행된 논문에 속한 모든 권한(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8 조 (논문식별코드)「신학과 실천」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는 온라인개별코드(DOI)를 부여한다.

투고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규정의 목적과 중요성) 투고규정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신학과 실천」의 편집 철학과 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학술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투고자는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총괄하는 편집위원장은 이를 규정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2 조 (투고자 자격)

1. 「신학과 실천」 투고자는 한국실천신학회 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한 자로서 (회칙5조) 회비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주최 정기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2년 연회비를 일괄 납입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2. 본 학회는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를 허용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제안서심사를 통과한 학생으로 제한하되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제 3 조 (투고자의 기본의무 및 저작권)

1.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의 제3장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즉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논문심사통과 또는 출판된 후에도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되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를 제한한다.
2.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 본 학술지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지기 위해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 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작성법 준수)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하는 아래의 모든 논문작성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본 학회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문작성법을 따라야 한다. 본 학술지는 본 학회의 작성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시카고 스타일을 권장한다.
3. (맞춤법) 투고된 논문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저작권) <신학과 실천>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게재확정 즉시 모든 저작권이 한국실천신학회에 귀속된다.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4 조 (논문의 질: 분석, 설명, 해석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통계자료와 직접인용의 반복 제한) 논문은 저자의 논지를 논증하는 과정으로 주장과 논거가 적절히 배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논문은 처리할 만큼의 자료를 분석 설명 해석해서 논지를 세워나가야 한다. 논문은 1)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일삼거나, 2) 적절히 분석 설명 해석되지 않은 정보와 자료들을 나열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한된 논문의 논지와 분량에 비해 과도한 통계자료 및 직접인용의 반복 등으로 분량을 채우는 일을 허용해선 안 된다.

제 5 조 (논문의 편제)

1. (초록의 질과 양) 본 학술지는 한글과 영어 초록을 요구하며 초록의 질적 수준에 높은 비중을 둔다. 투고된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주제와 방법과 논지를 적절하게 압축해야 한다. 단 지면의 경제성 측면에서 초록의 과도한 분량을 제한하여 한글초록의 길이는 A4 용지 1/2에서 2/3 정도를 권장하며 영어초록은 한글초록의 번역에 준하되 적절한 길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는 한글과 영어 모두 5개 내외로 하여 한글과 영어 초록 바로 아래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조) 본 학술지 논문의 구조는 제목, 저자정보,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영어초록, 영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내용구분) 논문의 내용구분은 상위는 로마자(I, II, III...)로 하위는 아라비아 숫자(1, 2, 3...)로 구분하고 더 하위는 영문자(A, B... a, b...)로 통일한다.

제 6 조 (논문의 분량 제한)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외국어 논문 모두 A4 용지 13매-15매로 하며 초과할 경우 투고자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연구재단 지원 논문은 예외로 하되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자료의 사용)

1. (선행연구인용의 의무와 한도) 학술논문은 학술공동체의 역사와 대화에 참여하는 일이란 점에서 투고된 논문은 선행연구들과의 교류를 보여야 하며 이를 충분한 수의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신학과 실천」은 지면의 한계를 고려 투고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수를 각 30-50개로 요구한다. 30개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등재지논문 인용) 위 7조 1과 같은 이유에서 투고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충분히 인용함으로써 회원간의 학술교류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 본 학회는 5개 이상의 인용을 권장한다. 같은 이유로 타 등재학술지 인용도 권장한다.
3. (인터넷자료 인용 제한 및 명기법) 투고된 논문은 논지의 근거로 다양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인용 자료는 안정성과 영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인터넷자료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논문의 성격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자, 제목, 접속시간, 웹주소 순으로 명기해야 한다.
4. (그림과 도표 사용 제한) 본 학술지는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지의 범주에 속하므로 언어적 설명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에 투고된 논문은 글로 된 설명과 해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지면의 경제성이란 측면에서 설명과 해석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과 근거로 제시되는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는 위 제4조의 규정에도 이유가 있다. 논문의 성격상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극도로 절제된 내용이어야 하며 1개를 초과하는 그림 또는 도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필수 첨부자료) 투고자는 반드시 다음 3개의 문서를 투고논문과 함께 투고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KCI논문유사도검사(10% 이내)
- 신청 및 윤리서약서
- 저작권이양동의서

투고자는 특히 '신청 및 윤리서약서'와 '저작권이양동의서'의 내용을 잘 읽고(각 문서양식은 홈페이지 투고규정 하단에 탑재됨) 반드시 서명날인(혹은 친필서명)하여 투고시스템의 별도 첨부함에 첨부해야 한다. '신청 및 윤리

서약서'는 투고자에게 고도의 연구윤리 책무를 요구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는 본 <신학과 실천>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실천신학회가 소유하게 됨을 명시한다.

제 9 조 (논문 게재료) 논문게재료는 학술지 출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편집과정의 편의를 위해 전임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을 부과하며 외래교수(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은 일괄 15만원을 부과한다. 단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은 50만원을 부과한다. 연회비 미납자는 미납된 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입회원으로 투고할 경우 2년치 연원비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

제 10 조 (투고논문의 처리와 투고회수)

1.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심사통과된 논문의 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이월 게재할 수 있다.
3. 한 회원의 연간 게재논문의 수는 3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1 조 (학술대회 발표논문)

1.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에 포함된 논문은 2-3개 이상의 논찬을 첨부해야 한다.
2. (신규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의무) 본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규로 발표한 논문은 본 학회 학술지가 아닌 타 학술지에 게재해서 안 되며, 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는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심사규정이 정하는 모든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제 12 조 (투고논문의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연구부정의 조사와 처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리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신학과 실천」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 방식 및 실례

1. 각주작성 방식

「신학과 실천」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각주 표기 방식을 따라야 한다.

- 1) 모든 논문과 간행물에 실린 글은 한글 외국어 구분 없이 쌍따옴표로 표기한다.
- 2) 한글 학술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외격쇠괄호「 」로 표기한다.
- 3) 한글 단행본 제목은 쌍격쇠괄호 『 』로 묶어 표기한다.
- 4) 외국어 단행본 및 간행물 제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5) 외국어 저술의 제목 등은 중간에 나오는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한다.
- 6)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Ibid.*, 210.
- 7)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 *op. cit.*, 224; 또는 저자, 제목 표제어(길면 줄여서 쓰기 가능), 224.
- 8) 인용부호와 쉼표를 함께 표기할 경우 쉼표를 마침 인용부호 안쪽에 오게 한다. 바른 예) “설교의 시점문제,” 틀린 예) “설교의 시점문제,”
- 9) 웹사이트인용은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저자, 제목, 접속일자, 웹주소 순으로 기재.
- 10)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들은 Chicago Style에 준해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1) 학술지 논문 인용의 경우

위형운,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7.

Thomas J. Talley, "The Eucharist Prayer: Directions for Development," *Worship* 51(1977), 317.

2) 단행본 인용의 경우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

John S. McClure, *The Four Codes of Preaching: Rhetorical Strategies*, (Louisville, KY: WJK, 2004), 46.

3) 역서 인용의 경우(역서는 한글과 외국어 인용의 차이를 구분)

폴 틸리히/ 송기득 옮김(또는 역),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34.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2), 38-40.

4) 편서 인용의 경우

한국기독교영성학회 편,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19.

Mike Grave and David J. Schlafer, eds., *What's the Shape of Narrative Preaching?* (St. Louis, MO: Chalice, 2008), 63.

5) 대표 표제를 가진 저작이 독립 제목이 붙은 여러 권으로 분할돼 출판되는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대표 제목을 먼저 기재하고 각 권의 호수와 제목을 이어서 기재한다)

칼 바르트/ 박영범, 황덕형 역, 『교회 교의학』, 3/4권, 『창조에 관한 교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447.

Jill Ratt, ed., *Christian Spirituality*, vol. 3,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New York, NY: Crossroad, 1987), 129.

6) 여러 저자의 글을 모아 단행본으로 간행된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김수천, “기독교적 완전에 대한 니사의 그레고리오스의 교훈,”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한국기독교영성학회 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240.

Stuart Hall,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79*, ed. Stuart Hall, Dorothy Hobson, Andrew Lowe, and Paul Willis, (New York: Routledge, 1991), 128-38.

(참고문헌에서는 인용된 글의 전체 페이지 수를 출판지 명 바로 앞에 기재해야 한다. 아래 예 참조)

7) 학위논문 인용의 경우

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40.

Paul P. Cornelius, “Bridging the Expectation-Reality Gap: Exploring a Transformational Model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India,”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55.

8)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인용의 경우

김옥순, “개신교 청의 전통 속에서 인간존재의미와 디아코니아실천,” 『제6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 224.

S. Akazawa, “Scope of the Japanese Information Industry in the 1980,” in *Proceedings of the Forty-First FID Congress* (1983), 20.

9) 페이지 수를 밝히지 않는 사전류 등 인용의 경우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1), s.v. “종교성.”

Geoffrey Wigoder, ed., *The New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9), s.v. “Desecration.”

10) 웹사이트 인용의 경우 (본 학회는 인터넷자료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

한재동, “인터넷자료 인용시 유의사항,” 『한국실천신학회 공지사항』, (2018.7.), 접속 2019.2.18.,

<http://praxis.or.kr/notice/view.php?idx=2167>.

David DeSteno, “What Science Can Learn From Religion,” *New York Times*, 1 February 2019, accessed February 18, 2019, <https://www.nytimes.com/2019/02/01/opinion/sunday/science-religion.html>?

2. 참고문헌 작성 방식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에만 한하며 결론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배열해야 한다. 각주에 인용되지 않은 자료가 참고문헌에 인용되거나 그 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살펴야 한다.

- 1) 참고문헌에 기재되는 인용자료는 논문, 단행본 등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 2) 한글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 3) 한글 자료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 자료의 경우는 A, B, C 순으로 정리한다.
- 4) 외국어 저술의 한국어 번역본을 인용하는 경우 한글저술로 간주하여 다른 한글자료와 함께 가, 나, 다 순으로 기재한다.
- 5)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성(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개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 6) 외국인 이름이 다수인 경우 첫 번째 저자의 이름만 위 5)의 경우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름들은 통상적 순서 곧 이름-성의 순서로 기재한다(아래 Clifford의 예를 보라).
- 7)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과 저술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한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 8) 동 저자에 의해 쓰인 저술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인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 9)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이나 학술대회발표자료집 인용의 경우 끝부분에 인용한 글의 전체 페이지 수를 기재해야 한다(아래 예 참조).
- 10) 여러 저자의 글을 모은 단행본에서 한 저자의 글을 인용한 경우 그 저자의 글 전체 페이지 수를 출판사 명 앞에 기재해야 한다(아래 김수천과 Stuart Hall의 예를 보라).
- 11)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들은 Chicago Style에 준하여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문헌 ■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1. S.v. “종교성.”
- 김수천. “기독교적 완전에 대한 니사의 그레고리오스의 교훈.”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한국기독교영성학회 편, 238-260.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 칼 바르트/ 박영범, 황덕형 역, 『교회 교의학』, 3/4권. 『창조에 관한 교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한재동. “인터넷자료 인용시 유의사항.” 『한국실천신학회 공지사향』. 2018.7. 접속 2019.2.18.
<http://praxis.or.kr/notice/view.php?id=2167>. (인터넷)
- Clifford, James and George E. Marcus, eds.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복수의 저자)
- Cornelius, Paul P. “Bridging the Expectation-Reality Gap: Exploring a Transformational Model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India.”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학위)
- DeSteno, David. “What Science Can Learn From Religion.” *New York Times*, 1 February 2019. Accessed February 18, 2019.
<https://www.nytimes.com/2019/02/01/opinion/sunday/science-religion.html?>. (인터넷)
- Hall, Stuart.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79*, ed. Stuart Hall, Dorthy Hobson, Andrew Lowe, and Paul Willis, 128-38. New York: Routledge, 1991. (단행본 안의 다른 저자 글)
- Ratt, Jill, ed. *Christian Spirituality*. Vol. 3,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New York, NY: Crossroad, 1987. (대표 제목 아래 다른 권)
- Saliers, Don E. *Worship as Theology: Foretaste of Glory Divine*. Nashville, TN: Abingdon, 1994.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2. (번역)
- Talley, Thomas J. “The Eucharist Prayer: Directions for Development.” *Worship* 51(1977), 316-25. (저널에 실린 논문)
- Wigoder, Geoffrey, ed. *The New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9. S.v. “Desecration.” (사전)

심사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지 심사규정을 정한다.

제 1 조 (심사절차)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규정심사, 전문심사, 최종심사 3단계를 거쳐 최종 계

재여부를 확정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의 구성과 수) 심사는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하되 편집위원장은 규정심사와 최종심사에 책임을 지며 전문심사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전문심사는 학문적 수월성과 학제간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이념에 따라 논문 1편당 전공 2인, 비전공 1인 총 3인이 맡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및 심사비)

1. 심사위원의 자격은 연구실적과 학회참여도 및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도에서 탁월한 학자로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임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고 투고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충분한 심사이유와 제언을 제공해야 한다.
3. 논문심사자에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투고논문의 적격성)

1. 투고논문은 한국실천신학회가 추구하는 학술적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순수한 학술적 논문이어야 한다. 한국실천신학회는 다양한 실천신학적 분야들의 독자적 연구는 물론 학제간의 대화와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추구한다. 투고논문은 이 같은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투고자의 고유한 연구로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이단종파에 소속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가부를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 기준과 판정) 본 학술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정심사는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편집위원장).

전문심사는 전문학자 3인(전공 2인 비전공 1인)이 투고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심층심사한다.

전문심사의 내용: 구성의 완성도(20점), 주제연구의 심도(20점), 학문적 독창성(20점), 학문의 기여도(20점), 등재논문인용지수(20) 및 심사자평론.

합격기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게재가, 79점미만은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최종평가는 편집위원장이 하며 전문심사자 3인의 개별평가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최종판정한다.

논문심사의 기본개념은 동료심사이며 따라서 투고자는 심사자들의 판정을 존중해 줄 것이 요구되나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엔 편집위원장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의 해명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발행) 본 학술지는 연 5회 발간하며 1월30일에 투고 마감하여 2월28일에 봄 호 발행, 4월 30일에 마감하여 5월30일에 여름 호 발행, 6월30일에 마감하여 7월30일에 외국어 호 발행, 8월30일에 마감하여 9월30일에 가을 호 발행, 10월30일에 마감하여 11월30일에 겨울 호를 발행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 조 (근 거) 한국실천신학회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을 정하며 변화하는 연구윤리에 해에 따라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등에 따라 개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기대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강 령) 본 학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정직과 진실 및 공정에 기초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과 공정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과 공정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진리와 정의의 학술적 가치는 특히 특정사회집단(젠더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유의할 것을 요구한다.

제 4 조 (실천원칙 -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정한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가 축적해온 학문적 성취를 성실히 전승하고 동료학자들과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학술 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역사에 독창적으로 기여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모든 통용되고 허용되는 방식에 의해 타인의 기여 부분과 자신의 기여 부분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 명시해야 한다.
2. 그 외 본 학회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가 규정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참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윤리적 관계는 사회조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3. (투고자의 정확한 정보표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9 및 본 학회 투고규정 제 2조-2와 제3조-2에 따라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고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한다.
- 3-1. (공저자 표기방식) 본 학술지는 고유한 인문학적 특성상 공동저술 논문의 경우, 발행논문에서 ‘주저자’ ‘교신저자’ 등의 세분 없이 모든 저자를 단순 병기하여 공동합의기여를 강조한다.
4. (투고자 제한) 본 학회는 투고규정 제2조-2에 따라 게재논문의 높은 학술적 및 윤리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자격을 부여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제안서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되, 단독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여 논문에 대한 기여를 엄격히 관리한다.
5.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사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6.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다.
7.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 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지는 내외부 학술연구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전 회장단 중 10인 이내로 신입임원회에서 위촉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의 사용
2. 변조 -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3. 표절 -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용, 자신의 것인 듯 오인케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 발표하는 경우. 친인척 등 이해관련자를 공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정행위.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검증, 기간, 처리)

1. (검증의 책임)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1과 제17조에 따라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진다.
2.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는 본 학회 학술활동의 심사와 평가를 책임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받는다. 의심사항이 접수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기관장과 협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2와 제2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검증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1, 제19조, 제20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착수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실명제보만 처리하되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최종판정 전까지 부정행위가 공표돼선 안 된다.
-피조사자는 조사 일정과 과정 및 조사자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피조사자는 소명과 이의제기 및 조사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부정행위 판정시 조치) 투고자나 발표자가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부정이 적발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연구지원비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학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비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비감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9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과 교육) 본 학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여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 관리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케 함으로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써 부정편승을 막는다.
3.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 후에 심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5. 업무상 심사대상자와 심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심사인 규정심사와 정량심사인 최종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6. 본 학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규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제 10 조 (개 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2007. 10. 19일, 2014. 2. 8. 총회에서 보완, 2017. 2. 11. 총회에서 보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9월 15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7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고 문

고 문	정장복	박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김외식	박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김종렬	박사	새고을기독서원 원장
	문성모	박사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백상열	박사	은진이카데미 원장
책임고문	위형운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김윤규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조기연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김성민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한옥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재국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경진	박사	소망교회 담임 목사
	김상백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제13대 이사회

이 사 장	황병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상임이사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이 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병석	박사	승실대학교 외래교수
	이수영	박사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김한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최진봉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남성혁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주희현	박사	홍익대학교대학원 외래교수
	이상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백상훈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오주영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제28대 임원명단

회 장	서승룡	박사	새전주중앙교회 목사
선임부회장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부회장	박은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총 무	김한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부총무	이강학	박사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서 기	최종일	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부서기	남성혁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 신	박사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회 계	이수환	박사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부회계	고유식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이민형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감 사	이수영	박사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감 사	김병석	박사	승실대학교 외래교수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리더십분과	회장	주희현	박사
설교분과	회장	최진봉	박사
상담치료분과	회장	이상현	박사
영성분과	회장	백상훈	박사
예배분과	회장	오주영	박사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회장	김한호	박사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회장	남성혁	박사
교회교육분과	회장	이종민	박사

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 행 인	서 승 룡
편집위원장	한 재 동
부편집위원장	김 명 실
편집위원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반신환, 유재경, 주연수, Sangyil Sam Park(미국)

특별연구분과위원회

국제학술분과위원장	이말테	박사	전 루터대학교 교수
간 사	김선일	박사	웨스트민스터대학원 교수
학술발표분과위원장	문병하	박사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간 사	정재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간 사	위성동	석사	디아콘 대표
논문자체평가 및 심사분과위원장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간 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형운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박상일	박사	미국 GTU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문성모	박사 /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간사 및 위 원	간 사 / 위형운 위 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실천신학대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위형운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나형석 김충렬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간사: 위성동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연구위원장	김순환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류원렬 위 원 / 하도균 이승진 그 외 지원자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성례전연구위원장	조기연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김형락 위 원 / 김형래 김명실 그 외 지원자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위원회위원장	조성돈	박사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김선일 위 원 / 위형운 김윤규 김세광 이요섭 김충렬 이명희 김한옥 정재영 최동규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학회로고의 의미

-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회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 * 가운데 ㅅ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라이어 ʒ로 성육적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 ㅅ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 외부의 둥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데 ㅅ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명된다.

한국실천신학회 설립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praxis.or.kr

발행일 2024년 2월 16일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번지 나사렛대학교 지혜관 220호
TEL: 041-570-1836, 010-7936-1111(한재동)
이메일: ipraxis@daum.net
학회 입출금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학술지계재비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